장편소설

서산대사

최 명 익

평 양 출 판 사
주체109(2020)년

차 례

1. 이야기의 시초

임진년(1592년) 5월 초닷새날—

이른새벽부터 대동문과 장경문밖의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 동대원에 집결했던 평양군사 3천여명이 평안감사 송언신의 령솔하에 장림벌을 지나 남으로 행군했다.

지난 4월 그믐날 한성을 내놓고 떠나서 개성을 거쳐 엊그제는 벌써 황해도땅에 들어섰다는 왕의 행차를 맞으러 가는 길이다.

《왕이 종시 이 평양까지 오구야말게 되였다!》

혹은 입밖에 내서, 혹은 속으로들 이런 말을 되씹는 평양사람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비끼였다.

남쪽 한끝인 부산앞바다를 수많은 병선으로 뒤덮어온 일본군이 우리 조선땅에 발을 붙인것이 4월 13일, 그 다음날로 부산진이 함락되고 그 이튿날은 동래 또 그 이튿날은 량산과 울산이 또 그 다음날은 밀양이… 이같이 단 며칠동안에 여러 고을과 많은 진영들이 함락되고 무너졌다.

이것이 그후 무술년에 이르기까지 전후 7년간에 걸쳐 우리 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하게 된 이른바 7년풍진 임진왜란의 시작이였다.

고려의 뒤를 이어 조선봉건왕조가 선지 2백년, 이동안이 조선봉건왕조로서는 《태평성대》라는 시기였다. 대륙의 국경을 맞대고있는 명나라와의 관계는 평온무사했다. 또 그 당시의 형용사를 빌어 《해양만리》에 있는 일본은 그들이 이르는바 《전국시대》로서 저희 나라가 어지러웠던만치 그 먼바다를 건너 남의 나라를 엿볼 겨를이 없었다.

먼 고구려시대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력대의 왕조가 자주 외적의 침략을 받아온데 비하여 이 2백년간의 평온무사는 조선봉건왕조로 하여금 일종의 잠병이라고도 할 《태평성대주의》에 떨어지게 했다고도 할수 있다. 물론 이동안에도 약간한 변란들이 없지는 않았다. 첫째로 일본의 해적들—저희 섬나라에서 부족하고 구할수 없는 물자를 정당한 통상으로써보다도 밑천 안 드는 략탈로써 얻으려는 일본은 국가적기업으로까지 해적선을 꾸려 내세우기도 했다. 다음은 리시애란, 림꺽정란 같은 국내의 반

란들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들은 모두 그때그때에 어렵지 않게 진압할수 있은 사소한 일들에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조선봉건왕조의 정권을 둘러싸고 넘나드는 량반과 봉건관료배들의 《태평성대》의 꿈은 더욱 깊어갔다. 말하자면 국내국외에 별로 경계할 적도, 근심할 사변도 없이 2백년을 평온무사히 지내왔으니 앞으로도 역시 이 《태평성대》는 계속되리라고 믿는 꿈이였다. 이들에게 바쁜 일은 오직 더 많은 토지를 얻고 또는 정권을 독점함으로써 그 《태평성대》를 자기네의 일문일당의 《태평성대》로 만들기 위한 책동과 음모였다.

그중에는 그러한 《태평성대》가 오래가지 못할것을 알고 10만양병설을 제창한 현명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2백년동안이나 계속해온 《태평성대》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것이라고 믿는 《태평성대주의》자들에게는 10만양병설 같은것은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자는 망발이였고 자기네의 단꿈을 어지럽게 하는 불길한 잠꼬대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망발도 잠꼬대도 아니였다. 오히려 너무 뒤늦게 울려진 경종이였다.

오랜 동안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국내를 통일한 일본사무라이의 원흉 풍신수길의 눈이 조선과 대륙으로 돌려진지 이미 오랬다.

동남해안에는 조수를 따라서 대패밥, 자귀밥 같은 생생한 나무지저귀들이 밀려오는지 오랬다. 그것은 풍신수길이 조선침략의 준비로서 저희 나라 해안에서 많은 병선을 만드느라고 깎는 나무지저귀였던것이다.

임진란이 일어나기 6년전이였다. 그후에도 여러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 풍신수길은 《일본국사》라는 명목으로 다찌바나라는자를 렴탐군으로 조선에 보낸적이 있었다. 명목이 국사라 조선조정에서는 그를 정식으로 맞아들일수밖에… 외국사신을 맞는데는 대접겸 또 이편의 위풍도 보일겸 의장병이 필요했다. 부랴부랴 농민들을 동원하여 창을 들려서 길거리에 늘여세웠다.

《일본국사》 다찌바나는 자기를 환영하기 위한 조선의장병들을 둘러보면서 《당신네 나라의 창대는 왜 이다지도 짧은가?》하며 웃었다. 또 이자는 자기를 위하여 차린 연회석상에서 그 주인인 상주목사에게 《나는 수십년동안을 창검속으로 달려다니기에 머리가 세였거니와 당신은 한평생 기생의 노래와 풍악속에 묻혀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으려든 왜 그렇게 머리가 셌느냐?》고 했다. 상주는 거진(큰 진이라는 뜻)이고 상주목사는

병마첨절제사를 겸하여 린근 여러 진의 병권을 잡은 사령관이다.
풍악과 기생들의 웃음속에 묻혀있는 사령관, 우습강스러울만치 빈약한 무기, 이것만으로도 그 당시의 조선봉건왕조의 허실을 알기에 족했을것이다.
그후에 조정에서도 일본의 정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여 사신들을 파견한적이 있었다. 갔다온 사신중의 한자는 그 눈이 록록치 않은 야심가의 눈이라 했고 한자는 그 반대로 보잘것없는 쥐새끼눈이라고 해서 한때 그런 관상론으로 조선조정에서 론난이 많았던 일본관백 풍신수길의 눈은 이러한 정보에 미상불 득의의 웃음으로 빛났을것이다.
드디여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쳐 동원태세로 있던 대군을 몰아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부산에 발을 붙인 일본군은 천리에 걸쳐 기치창검을 번뜩이며 낮에는 포성으로, 밤에는 불로써 3군이 서로 호응해가며 한성을 향하여 육박했다.
이리하여 조선봉건왕조의 《태평성대주의》자들인 량반관료배들의 꿈은 삽시간에 깨여졌던것이다.
28일에는 충주가 함락되고 그곳을 지키던 도순변사 신립이 전사했다. 충주가 함락되였다는것은 곧 적이 조령을 넘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조령은 그 지형이 한 군사로써도 능히 만명의 적을 막을수 있다고 할만치 지키기 쉽고 치기 어려운 요해처였다. 그러나 신립은 그곳을 지키지 않았다. 신립으로서는 그럴만한 리유가 없지도 않았다.
그는 왕한테서 직접 출전명령을 받았으나 군사는 한명도 받지 못했다. 군기고의 무기들은 녹이 쓸고 병영들은 텅 비였던 때라 주어보낼 군사가 없었다. 신립은 현지에 와서야 이 고을, 저 고을의 군사를 7천～8천명 그러모았을뿐이다. 그러한 적은 오합지졸을 가지고서라도 큰 적을 막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령을 내놓고 충주로 물러나서 달천강을 등지고 소위 배수진을 쳤다. 그리고 조령에다가는 조선군복을 입힌 허수아비들을 세워놓았을뿐이였다.
조령밑에 다 와가지고도 사흘씩이나 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있던 일본군은 조선군사의 머리에 까막까치들이 앉아노는것을 보았다. 과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조령을 넘어선 일본군은 신립의 배수진을 돌파하고 곧 한성의 직통길로 들어섰다.
조령을 끝내 지킬수도 없었으려니와 설사 그럴수 있었더라도 그때의 판국을 뒤집어놓을수야 있었으랴마는 그러나 적이 그렇게까지는 빨리 한성

으로 육박해오지 못했을것이다. 적이 조령을 넘었다는 소식에 한성장안은 물끓듯 했다. 또 뒤이어 충주싸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순변사 리일이한테서 《왜적이 오늘래일중으로 한양을 침범하게 되리라.》는 장계가 왔다.

왕 선조는 백여명의 조정신하들과 왕자와 후궁들을 데리고 4월 그믐날 새벽에 궂은비를 맞아가며 한성을 떠났던것이다.

평양에는 전부터 《서울소식 가마구비에서 먼저 안다.》는 말이 있었다. 이때도 어느 풍편에 들어온 소식인지 개성에 머물러있던 왕의 조정에서 《왜적이 아직도 한강을 건느지 못하고있거늘 적이 한강근처에 오기도 전에 왕으로 하여금 거연히 왕성을 떠나게 한것은 국왕의 위의를 손상할뿐아니라 나라를 그르친것이라.》하여 당시의 령의정이던 리산해를 파면시켰다는것과 그뿐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한성을 지키자는 공론이 일어났다는것이였다.

이것은 뜬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였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뻐한것이 어찌 평양사람들뿐이였으랴. 왕과 조정이 다시 돌아가 한성을 지키게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랴. 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그 역시 한낱 헛소문이나 다름이 없었다. 한성은 지난 5월 초사흗날 함락되고말았다.

2. 석장군앞의 전주복이와 중 법근이

《왕이 종내 우리 평양엘 오구야말게 됐다?》

새 풀잎으로 단장한 양지바른 잔디밭에 번듯이 누웠다가 일어나 앉으며 《나 원, 어떻게 되는 놀음인지…》또 이렇게 중얼거리는것은 맨상투바람의 한 젊은이였다.

《어떻게 되긴… 그 담엔 란리가 뒤따라올지두 모르지.》

갈이 누웠다가 이런 대꾸를 하며 일어나 앉은것은 한 젊은 중이였다.

《얘, 제발 그따위 방정맞은 소린 하지두 말아. 정말 그렇게 되문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긴? 란리지. 어지럽다는 란자, 떠난다는 리자라 모두 풍비

박산…》
《듣기 싫어야. 너희 절의 부체님이 그렇게 탑삭탑삭 새없던?》
《하하하… 부체님이 새없다!》
《너는 우스우니? 정말 너처럼 무우밑같은 중놈은 웃을 일인지 모르갔다 해두…》
젊은이는 상투밑에서 떼낸 작은 나무살짝으로 뒤자부니를 득득 긁어올리기 시작했다.
《부체님은 사람의 모양이기나 하지. 네 봐라. 저 석장군은 그저 저 생길대루 생긴 우뚝한 바위라두 이런 란리가 날줄 알구 피를 흘렸다지 않던?》
《또 한다는 소리가, 누가 그런걸 봤다던?》
《본 사람은 없어두 세상이 다 그렇다면 그런줄 알려무나.》
이들이 지금 그것을 건너다보며 이런 말을 하는 석장군은 평양에서 순안으로 가는 시오리쯤 되는 큰길가에 서있는 바위였다. 이번 임진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 큰 바위에서는 피가 흘러 십리길을 적시였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그것은 물론 누가 제눈으로 보았다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처음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도 알수 없는 하나의 갑작전설이였다. 이번 란리에 여기까지도 사람의 피로 땅을 적시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생겨난 그 갑작전설은 더욱 인심을 불안케 하면서 퍼졌던것이다.
《석장군》이라는 바위에서 피가 흘렀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큰 변란을 당하게 되매 우리 조국강토의 하나의 돌까지도 무심치 않았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이와 마찬가지의 이야기로서 천고가 울었다는 전설도 있다. 즉 일본침략군이 나고야에서 조선을 향하여 떠나는 날 우리 나라 상공에서는 둥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났다는것이다. 앞으로 큰 국란이 있으리라는것을 하늘이 경고했다는 전설이다.
《들리는 소리란 소리는 다 그따위 소리만이니 정말…》
《맥이 나?》
《듣기 싫어. 누굴 비술 멕이느라구 그러니?》
젊은이는 벗어놓았던 무명수건을 질끈 동여매쓰며 투덜거렸다.
《비가 와두 너 한몸 넝납새아래루 들어만 서면 비설겆이가 다되는 너같은 놈은 모르갔다 해두…》
《에이 이 자식, 떠돌아다니는 중놈이라구 너무 수모하지 말아. 나두

리별하면 속에서 간장피 날 님이 있어! 알았니?》
《흥, 그림의 떡?》
《어디서 상투가 수범의 똥자루같은 자식이 무식두 하다. 같은 값이면 그림의 선녀라구나 하려무나.》
《바라보기만 하기야 떡이면 뭘 하구 선녀면 뭘 하니.》
《거 누가 아니? 사파세계 한 모퉁이에다 바늘 하나 세워놓고 사천왕 하늘에서 겨자씨 한알을 던졌더니 고놈이 그 바늘에 꽉 꿰운것 같은 인연이 있을지 혹시 알겠니?》
젊은 중은 대낮별에 반들거리게 민머리에다 삿갓을 올려놓으며 이런 말을 했다.
《응, 그래. 어서 바람먹구 구름똥이나 싸라. 난 상게 보지는 못했다 해두 그 고려집 큰애긴가 하는 처녀는 꿈자리가 사나울게다.》
《왜?》
《너 같은 돌중놈이 오매불망 못 잊어하니 안 그렇구 뭘 하겠니.》
《모르는 소리. 꿈에라두 서루 마음이 비치우기만 하면야 사납긴 왜 사나와. 주복아, 너와 말이지 난 정 죽갔다.》
젊은 중은 털썩 쓰러지듯이 다시 잔디밭에 누워버렸다.
《너 정 그러면 머릴 기르려무나.》
주복이는 한결 덜 퉁명스러운 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그래가지구 한번 혼사말을 내보자꾸나.》
《나더러 환속을 하라구? 내가 이제 이 먹베장삼을 벗구 다시 속인이 된다 해두 또 고리백정밖엔 더 될것이 없다.》
젊은 중은 또 벌떡 일어나 앉았다.
《하내비적부터 천대받는 고리백정이 돼서 난 세상에 미운 놈이 많아.》
불쑥 어성을 높여 이런 말을 하는 그의 부리부리한 눈망울에는 금시 붉은 실이 어리는듯도 했다. 그러나 그는 또 퍼더버리고있는 제 무릎을 치며 큰소리로 너털웃음을 쳤다.
《허허허, 그런 속세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자구 중이 된 이 법근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같이 제 일을 남의 말하듯 하던 젊은 중 법근이는 얼굴을 떠인채 하늘을 쳐다보며 잠잠해버렸다.
《할수가 없거던.》

이번에는 마치 잠에서 깨난 사람같이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렇게 종달새는 지저귀구 아즈랑이는 가물거리니 취할것 같다. … 얘 주복아, 너 늘 자랑하는 너의 색시자랑이나 한번 더해라. 나두 미운 놈은 미워두 고운 사람은 곱다. 풍년이 들면 나두 기쁘구…》

《풍년, 풍년이 들문 뭘 해? 왜놈들은 왜 오구, 또 얼마나 오기에 나라에서는 그것두 왜 못 막는거야? 량반대감들은 다 명주자루의 개똥인가?》

《건 그럴듯한 소리다.》

《에이, 속이 상해서. 어데 보자!》

벌떡 일어선 주복이는 법근이가 베고 누웠던 무명 한필을 집어들자 길을 궤건너 맞은편 언덕으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쿵—》

엇멨다 내려치는 주복이의 주먹소리가 울리자 돌각담이 무너지듯이 어석더석한 석장군바위의 뿌다귀 하나가 부서져내렸다.

《저런 놈의 욱장군 봤나! 한다는줏이!》

어안이 벙벙해서 혀를 쭉 빼던 법근이는 큰소리로 웃었다.

《그러문 그렇지. 핀 무슨 놈의 피야.》

거무틱틱하게 이끼가 앉은 바위돌의 한쪽이 이지러져서 허옇게 드러난 상처를 만지며 이런 말을 한 주복이는 무명필을 법근에게 던졌다.

《정말 피가 나면 싸매줄랬더니… 옛다, 받아라.》

《그래, 어서 가서 술이나 마시자.》

무명필을 받아든 법근이는 장삼자락을 너풀거리며 신바람이 나서 앞장을 섰다.

그 무명은 부산장거리의 씨름판에서 받아온것이다.

이번 봄철에 평양에는 씨름판이 없었다. 이런 란시에 무슨 씨름이랴. 그럴 경황들이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평양에서 20～30리라도 떨어져있는 외촌장거리들에서는 작게나마 역시 씨름판을 차렸다.

주복이는 씨름을 못하면 몸살이 나는 성미지만 그런 촌장거리의 작은 씨름판에는 삐치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법근이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부산장거리로 갔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그 씨름판에서는 《평양 전주복이가 왔다.》, 《뭘? 그 쇠주머구가?》 하고 어느새 짜하니 소문이 돌았다. 그래가지고는 어제 첫날도 비교씨름을 했다는데 오늘따라 총각씨름, 초립동이씨름으로 시작된 씨름이 중낮이 되여도 마루씨름으로 클줄을 몰랐다.

《벌써 상송아지임자가 와있는데 해봐야 소용있나. 괜히 땅바닥이나 지구 일어설라구.》

하여 촌마루씨름군들은 살바를 껴볼 생각도 안했다. 한몫 보자고 했던 씨름판이 초판에 파장이 될 념려가 있어서 주복이를 기권시키려고 장사치들이 따로 벼름해서 두자 상목 여섯필내기 무명 한끝을 내놓았다. 이번에 주복이가 끌어오는 상송아지는 꼭 잡아먹는다고 별렀던 법근이는 《약소한대루…》 이렇게 제편에서 생색을 내며 받았던것이다.

3. 노루꼬리가 《있다》, 《없다》

전주복이네 집은 바로 칠성문밖 성밑에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바룩한 두귀와 탐스러운 꼬리를 말아세운 삽살개는 반갑게 마주 나오는데 웬 까닭인지 집안사람들은 모두 《왜 어느새들 오노.》하는 눈치였다.

《아주머니, 이번엔 송아지는 못 끌어왔어두 살바 한번 안 쥐보구 상목이 한필 생겼쉐다.》 하는 법근이의 말에는 대답하는이도 없었다. 늙은 아버지는 작두간에서 썰어두었던 조짚여물을 일부러 줌으로 쥐여서 구유통에 나르노라 바쁜체 하는 모양이 분명했고 부엌문으로 한번 깔깃 내다본 처는 부뚜막의 바가지들을 일부러 소리나게 뒤엎는양이 분명했다.

《어서 너의 방으루 들어들 가거라.》 하고 어머니는 으시시한듯이 팔짱을 지르고 뜨락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남 길 걸어서 더운데 왜 방으루 들어가라구 그러우?》

모두 을씨년스러워하는 눈치에 저마저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며 뜰안에 들어선 주복이는 웃간방 대돌앞에서 주춤했다. 그 문턱에는 때가 오른 갓을 숙여쓴 웬 낯모를 사람이 걸터앉아있었다. 남의 집문턱에 걸터앉아서 코밑의 노랑수염을 이편저편 갈라붙이듯 쓰다듬고있던 그 사람은 《이 집 젊은 쥔인가?》 하고 단박에 하게로 말을 붙인다.

《예, 그렇쉐다.》

주복이는 토방에 걸터앉으며 대답했다.

《나는 애련당골 박참봉댁에서 왔는데 빚을 회계하자구 온 길일세.》

《빚이라니요?》

주복이는 금시 눈이 휘둥그래졌다.

《뭐? 빚이라니? 하, 이거 큰일낼 사람들 아닌가! 아니, 애련당골 박참봉나리는 님자네 전주님이지?》

《예, 그래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그 댁에서 벼 두섬을 장리루 갖다먹은걸 모른다?》

《그 빚이요? 그 빚은 금년농살 해가지구 섣달에 가서 물기루 한 빚이니 그래서 하는 말 아니웨까.》

주복이는 《이 무슨 영문인가?》하는 얼굴이였다.

《안돼. 제 기한에 가서 받을래문야 이 분주통에 왜 신발 처지구 받으러 다니겠나. 님자네만이 아닐세. 박참봉나으리댁에서는 엊그제 준 장리까지두 다 받아들이는터이니 지금 회계 해야 하네.》

《지금이라니요?》

주복이는 또 놀랐다.

《그러게 내 말을 다 들어. 님자네 늙은이들과는 이미 한 말일세마는… 작년 동지달 스무날부터 금년 정월, 이월…》

손가락을 꼽아보이며 그는 말했다.

《오늘까지 여섯달 반이 아닌가. 5푼달변으루 매달 꺾어돌려서 변상 가리하면 열닷말 두섬에 그동안 리자가 열두말 하구 아홉홉되수가 달리네만 참봉나으리말씀이 아홉홉되수는 떼구 회계마감을 하라는걸세.》

그 빚은 주복이가 장가들 때 례장과 잔치에 드는 비용이 모자라서 껄끄렁벼 서른말을 장리로 가져다 쓴것이였다.

《이제두 말했쉐다. 한데 그건 금년 섣달에 가서 물기루 하구 쓴 빚인데요.》

《그러길래 참봉나으리께서두 우수리리자는 탕감해주신다구까지 않던가.》

《탕감이나마나 지금 물수 있대문 그때 빚을 내지부터 않았을거 아니웨까.》

주복이는 속이 좀 달은 모양이였다.

《그럼 안 물갔다?》

《못 물지 왜 안 물갔소.》

주복이의 이번 말은 좀 퉁명스러웠다.

《빚진 종이라는 말두 없잖아있는데 되려 제편에서 말이 거칠어진다? 하ㅡ 인심이 이렇게두 변할수가 있나? 아무리 란리기로서니…》

《변한건 누군지 모르갔소. 기한두 되기 전에 빚채근을 하니. 나 원!》

주복이는 쓰겁게 한번 혀를 찼다.

《뭐? 그래 진 빚을 안 물겠다?》

노랑수염은 버럭 어성을 높였다.

《얘야, 너 왜 벌써 와가지구 그러니.》

그동안에도 팔짱을 끼고 서성거리던 늙은 어머니가 대돌앞에 와서며 말했다.

《점두룩 해야 그 말씀인데… 우리 얘는 너무 의젓해서 자꾸 그러시문…》

《아니, 의젓해서 빚진 놈이 배내미나? 허 참!》

《얘야, 넌 좀 가만있거라. 그러다가는 너 또 몸살할라.》

또 뭐라고 대꾸를 하려는 주복이를 타이른 어머니는 쫓겨난 달래알같이 빨갛게 토라진 노랑수염을 한번 쳐다보고나서 눈을 내려깔며 혼자소리같이 말했다.

《답답이, 없어서 그러지 않소. 있으문야 왜… 그런걸 가지구 자꾸 부알 돋구문 이 의젓한것이 또…》

《아주바니, 이리 오시우.》

불쑥 법근이가 찾았다. 그동안 뜨락에 펴놓은 밀짚장석에 주복이의 아버지와 같이 앉아있던 그는 로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주바니, 제 이야기 한마디 할겐 들어보실라우?》

《대낮에 이야긴 또 무슨 이야길…》

앞채 외양간지붕으로 오르기 시작한 박넝쿨을 쳐다보며 한심해 앉았던 로인은 금시 태평인양 흐흐흐 웃었다.

《이건 옛말이 아니라 바루 얼마전에 있은 일이웨다.》

법근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얼마전에 맹산군수가 양덕군수를 찾아갔더랬는데 두 량반님이 이런말, 저런 말 하다가 맹산군수는 노루꼬랭이가 있다구 하구 양덕군수는 노루는 꼬랭이가 없다구 해서 아웅다웅 말다툼이 났더래요.》

《흐흐흐… 노루의 꼬랭이가 있다? 아무런들 이 사람아…》

《아주바니, 정말이웨다. 그래서 그 고을 좌수늙은이가 듣다못해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본읍 양덕노루는 꼬리가 없사와도 맹산노루는 꼬리가 있는줄로 아뢰오.> 했답니다. 그제서야 두 군수나으리는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했다나요.》

《아이구맙시사, 그런것들이 다… 그러니끼니 세상이 왜…》
《하ー 쓸데없는 소릴, 입새없이 원…》
마누라를 막지른 로인은 여전히 남의 집문턱에 좌이부동으로 걸터앉아 있는 박참봉네 차인을 한번 흘끔 쳐다보고 끌끌 혀를 찼다.
《가만들 계시우. 이 얘기가 그것만이 아니웨다.》
법근이는 또 말을 이었다.
《그 담엔 그 좌수늙은이가 하는 말이 <제 사위놈이 웬 일인지 오늘 세배를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떠봤답니다. 했더니 한 군수나리는 하는 말이 <8월 추석인줄 알구 온게지.> 하구 또 한 군수나리는 <아니지, 5월 봄날이니까 세밸 왔겠지.> 하더랍니다.》
《흐흐흐, 봄날에 세배? 잘들 해!》
《웬걸요. 그런 철부지들은 추석이나 봄날에 세밸 다닌다는 놈들만이 아닌가봐요.》
법근이는 시치미를 따고 이런 말로 이야기를 끝냈다.
《제잡담하구 회계나 끝냅세. 박참봉나으리말씀두…》
박참봉네 차인은 책상다리를 바꿔얹으며 제 말을 되살렸다.
《벼가 없으면 상목으루라두 회곌 할 때는 벼 한섬에 쌀 엿말 두되씩 쳐서 두섬에 열두말 너되 하고 리자 열두말에 닷말 되수 해서 쌀이 합쳐 열일곱말가웃이 아니겠나. 그런데 그걸 상목으로 회곌 하면 옹근 한필에 닷말씩 쳐서 세필 하고 두자자투리 일곱끝으로 타첩해서 청장을 하구말라는걸세.》
《그건 너무합습디.》
이번에는 주복의 아버지가 말참견을 했다.
《뭣이 너무하단 말인가?》
《그 껄끄렁벼 한섬에 쌀이 나야 고작 닷말 이편저편이구 또 요새 시세루 말씀하면 상목 옹근 한필이면 쌀이 열말인데 지금 전주님댁 말씀대루 하면 우린 안팎으로 솔그니 하는 말씀입디.》
《안팎으루 솔그나마나 아버진 웬 상목이 있긴들 하웨까?》
《정말 무슨 상목이 있다구 괜히 술마리 무당의 만수받이하듯 하우.》
이같이 모자가 몰아세우는 바람에 로인은 《회곌 바루하자문 말인즉은 그렇다는 말이다.》 하고 돌아앉았다.
《하, 이거 정말 큰일낼 사람들 아닌가? 있구두 없다?》

《있으문야 왜 그러갔쉐니까. … 정말 버선목이라구 뒤집어두 못 보이구…》
주복의 어머니는 몽당치마자락으로 식은 코물을 훔쳤다.
《버선목? 저건 뭔가? 씨름판에서 타왔다는 저건 빚 못 물건가?》
노랑수염은 법근이앞에 놓인 무명필을 채기라도 할듯이 궁둥이를 들먹거렸다.
《아니, 이건 소승의 물건이올시다.》
중 법근이는 무명필을 한번 들었다가 제자리에 다시 놓으며 말했다.
《이놈네 집엔 아까부터 별것이 다 오리발의 새가죽처럼 끼워나서가지구 말썽이 아닌가.》
《뭐, 이놈네 집…》
그자를 한번 힐끗 노려보며 이렇게 뇌까린 주복이는 다시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두주먹을 쥐락펴락하면서 길게 한숨을 지을뿐이였다.
《얘야, 넌 들어가렴. 해야 그 말인데 그러다가 또 몸살할라.》
어머니는 애가 탔다.
《아사리 모르긴 하갔쉐다. 이번 란리통에 우리가 그 빚을 못 갚구 다 죽을지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다.
《그렇기 전이야 기한만 되면야 그 빚을 어련히 갚소오리. 전주님네는 혹시 우리두 어데루 피란을 가서 없어질것 같애서 미리 빚을 받자는거지만 우리 같은 농사군이 어델 가갔소. 란리를 만나 죽어두 제손으루 가꾸던 낟알포기를 쥐구 죽소옵디.》
《아주바니, 걱정마시우. 여기까지는 란이 안 날것 같습데다.》
로인의 말에 좀 처량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휘저어놓듯이 법근이가 또 말을 꺼냈다.
《그러문야 작히 좋으리. 어드래서?》
법근이가 하는 말이면 흔히 웃으며 들을 말이라 로인은 듣기도 전에 먼저 흐흐흐 웃었다.
《석장군바위에서 피가 흘렀다구… 그래서 여기까지두 란이 날거라구들 떠들지 않소?》
《그래, 그런 말이 도나부드군.》
《그런데 이제 오다가 남 꽃같은 색시 데려다가 깨가 쏟아지게 살래는데 란이라니 하구 주복이가 화가 나서 그 바위를 주먹으로 한대 먹여

댔더니 큰 방치돌만큼씩 으스러져서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래두 피 한방울 안 났거든요.》

《우리 저놈이 또 그따위짓을 했나?》

로인은 주복이를 한번 돌아보고나서 웃었다.

《어데 손 좀 보자. 정말 시퍼렇게 피가 졌구나.》

아들의 손을 만져본 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말했다.

《그래 속이 좀 씨원하더니? 넌 그렇게 해서라두 성풀일 해야 몸살을 안하는데… 천하 의젓한것이 사람한테야 누가 아무런대두 그런 화풀일 하긴들 하나…》

이런 어머니의 말은 좀 서글펐다.

그러자 저도 주복이의 손을 넘성해보면서 반치나 되게 기른 새끼손톱으로 제 코등을 긁적거리고있던 박참봉네 차인은 웬 일인지 문턱에서 내려 토지방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런양을 본 법근이는 턱으로 문턱을 가리키며 주복이에게 눈짓을 했다. 주복이는 육중한 몸을 일어 그 문턱에 걸터앉았다. 그러자 또 노랑수염은 일어나서 토방아래로 내려갔다.

《그럼 언제 또 올가?》

《또 오시지 않아두 기한만 되면야 어련히 갖다가 갚지 않소오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는 보갔소만 이편두 알아채려서 처사를 하우.》

일어서며 말하는 로인에게 이번에는 말투까지 고쳐서 뒤를 누르는셈으로 말한 그자는 총총히 돌아서 나갔다.

칠성문쪽으로 사라지는 그자의 뒤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흔들며 한번 크게 웃은 법근이는 상목필을 절반 쭉 찢어들고 《새아주머니.》 하고 찾았다. 그동안에는 바가지소리도 안 내고 조용하던 부엌에서 아직도 새색시티가 가시지 않은 젊은 아낙네 하나가 나왔다. 달래풀각시같이 윤이 흐르는 얹은머리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풍기였다. 그 머리봉우에서 한들거리는 빨간 끄둘채댕기가 더욱 새색시티를 돋우었다.

《이건 나하구 주복이 몫이구 이건 새아주만 몫인데 이 아주바니 술 한잔 받아다드리시우.》

무명끝을 받아든 색시는 덕스러운 얼굴도래안에 붙임붙임이 오붓이 들어앉은 낯을 붉히며 《저녁은 어떡하라우?》 하고 물었다.

《저 돌중놈이 이제 란이 나면 또 못 볼지두 모른다구 한상 낸다네.》 하며 주복이도 따라일어섰다.

4. 평양거리의 생불

칠성문으로 들어서서 만수대고개를 넘어 영문 뒤등성이에 이르기까지는 한성안이기는 하나 무인지경이였다. 성밖의 동북쪽에 있는 수림의 연장인 송림이 영문 바로 뒤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를 뒤덮어 울창했다. 그때의 평양시가는 영문 동쪽의 담장을 끼고 남쪽으로 돌아가있는 포정문밖의 하마비앞에서부터 시작된다.

거리의 집들은 모두 문들이 닫겨있었다. 별러서 잘 쉬고 즐겁게 놀수있는 시절의 전례대로 철시는 했으나 이번 봄에는 씨름판도 없고 동산에 오르는 녀인네도 없는 평양거리인지라 그저 쓸쓸할뿐이였다. 거리에는 사람래왕조차도 드물었다. 간혹 결골목에서 풍겨오는 부치개기름냄새와 혹은 어느 집 울너머로 보이는 딴장그네에서 흐느적이는 계집애들의 붉은 댕기가 고작 명절맞이고 봄빛이라고나 할가?

보통문과 맞뚫린 영문 앞거리를 지나 사창고앞에서 꺾이여 종로로 들어서는 큰 거리에도 역시 사람들의 래왕은 드물었다. 오직 대동관에서만은 사람들이 법석했다. 우선 그 드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골의 풀을 뽑고 룡마루의 기와와 추녀끝의 막새들을 고쳐놓는 사람들이 뵈였다. 또 환히 열린 문안으로는 떨어진 담모퉁이의 회를 다시 바르는 미장이들과 새 황토를 날라다가 뜰을 고루는 인부들이 보였다. 또 일변 새로 창호지를 한 문짝들을 떠이고 다니는 사람도 보였다. 왕의 행차를 맞을 차비를 하는것이다.

《차부를 하기는 단단히 하나부군. …》

주복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문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그럼 상감님이 오시는데…》

옆에 따라선 법근이는 어서 가자고 팔꿈치로 재촉했다.

《아니, 내 말은 꽤 질구하니 차불 한단 말야.》

《이 사람아, 질구하게 아니면 또 평양까지두 내놓는단 말인가?》

《그러게 내 말두 그게 제법이란 말야.》

《진수작말구 어서 가기나 하자.》

역정을 낸 법근이는 어깨까지 걷어붙인 장삼소매를 너풀거리며 앞장을 섰다. 부산히 걸어가던 법근이는 마치 산속에서 뜻밖에 잠든 범을 만나기나 한듯이 주춤했다가 큰 나무등걸에 몸을 감추듯이 두리두리한 주복이곁으로 바싹 붙어섰다.

지금 이들이 걸어가는 법수머리도 방금 지나온 관앞의 종로와 마찬가지로 큰 거리지만 이쪽저쪽의 가게방에 나앉은 사람들이 좀 긴 담배대를 내밀면 대통을 맞대고 맞불질도 할만 한 정도의 너비밖에는 안되였다. 물론 이때는 담배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바로 얼마전이지만 형용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 폭밖에 안되는 거리 저편쪽에 법수머리다리의 돌란간에서 그린듯이 앉아 졸고있는 사람이 있었다. 누더기가 다되게 해지고 처진 옷을 걸치고있는 한 중년의 중이였다. 그의 옆에는 통들이 빈 물지게가 놓여있었다. 법수머리 돌다리건너로 뚫린 륙로문 선창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에 다리목에 서있는 버들가지가 흔들려 그의 얼굴과 어깨를 건드리건만 중은 역시 그린듯이 앉아 조으는 모양이다.

그의 뒤모양이 돌아보이게쯤 지나쳐서야 큰숨을 내쉰 법근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향하여 합장하고 머리를 숙였다. 여전히 졸고있는 그 중은 편석이라는 선승이였다. 사명당과 함께 서산대사의 제자인 편석대사는 오래전부터 산에서 나와 이 평양 대동문 읍호루에서 혼자 선공부(불교공부)를 하면서 이른바 급수공덕을 하고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언제나 홀로 대동문루각의 기둥과 마주앉아 눈을 감고있지 않으면 물지게로 대동강물을 길어다가 이집저집의 물독을 채워주는것이 일이였다. 그것뿐 물을 길어다주는 집의 사람들과도 그는 아무런 인연도 맺으려 안했다. 늘 물을 길어다주는것이 고마와서 혹은 먹을것을 주거나 또는 옷이나 신발을 주어도 받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누더기를 걸치고 제손으로 따로 캐들인 솔잎가루나 도토리와 칡뿌리 같은것들을 먹고살았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누더기중》이라고는 하지만 《거지중》이라거나 《동냥중》이라고는 안했다. 누더기중은 고맙다는 말인사조차도 받으려 안했다. 그런 말에는 통 대답도, 들은체도 안했다.

혹시 어떤 집의 마음여린 아낙이 《늘 미안해서 저걸 어떻거나?》 걱정을 하면 《처음엔 미안두 했지만 저 좋아서 하는노릇 어떻거겠소.》 하는 남정들이 많아졌다. 물지게를 지고 어느 집 부엌문턱을 드나들든 언제

나 인기척도 없이 표연히 나타났다 표연히 사라지는 편석대사는 무슨 그림자같기도 한 사람이였다.

사람들은 그런 편석대사를 두고 《사람이 그만큼 욕심이 없어지고보면 육중한 맛도 없어져서 발소리조차 안 내게 되는 모양이라》고들 했다. 그런 말이 퍼져서 나중에는 《간밤에 어느 집에서는 인기척이라고는 도무지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본즉 물독이 가득차있더라.》고 마치 복도깨비장난이라도 있은듯 한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다.

편석대사는 또 잘 자는 중이였다. 지금같이 물지게를 지고 다니다가 저 편안한데 앉아서 조을고있는 편석대사는 여기서뿐아니라 강뚝에서도, 삿전골앞의 떡돌우에서도, 애련당골 풍월지련못가에서도 볼수 있다. 아무리 붐비고 떠들썩한 거리에서라도 그같이 한가히 조을고있는 그를 생각하려니 시 한수가 떠올랐다.

청봉정상일간옥
부세천착불상관

이라는 격일가? 비록 만여가호가 사는 평양성내에 있으면서도 그만은 첩첩산중의 그 어느 한 봉우리우의 한채 집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허망한 세상사는 내 알바 아니라는듯이 살아가는 사람이였다.

사람들은 그러한 그를 생불이 다된 중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그를 《누더기생불》 혹은 《누더기신선》이라고도 불렀다. 속세의 무진한 번뇌를 다 해탈한듯 한 그를 존경은 하면서도 제대로 경의를 표하기가 게면쩍기도 하고 또 좀 입이 험하기도 한 평양사람들이라 일부러 비꼬아서 하는 말이였다.

《이 돌중놈아, 넌 언제나 저런 생불이 되니.》

주복이가 지꿎게 일부러 큰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가만있거라, 스님 듣갔다.》

엄한 훈장앞을 몰래 피해나온 글방애놈같이 비로소 기를 폈던 법근이는 다시 그쪽을 돌아보았다. 젊은 중 법근이는 존경하는 서산대사 큰 스님과 그밑의 사명당 같은 스님들보다도 편석대사를 더 무서워하는편이였다. 그렇다고 편석이 가래침을 돋구는 투로 《카ㅡㄱ》일갈을 하며 법장을 올려메는 성미는 결코 아니였다. 다른 스님들은 타이르는적이 있지만

편석은 불립문자그대로 통 말도 없었다. 오직 저자신 계률을 지키고 고행을 쌓는데만 용수가 없다고 할만치 엄격할뿐이였다.
법근이는 그러한 스님앞에 서기가 더 무서웠다. 자기를 대하는 편석의 눈이 못마땅해하는 눈이기때문에 그런것도 아니였다. 편석은 그런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깎고 장삼입고 가사를 멘 같은 중이면서도 도무지 중답지 못한 제 행실이 스스로 보기에도 못마땅하기때문에 그 스님앞에 서기가 무서운것이다.
《…<일의일반절인정 기포무심도자고> 허허허…》
혼자 중얼거리던 법근이는 또 혼자 껄껄 웃었다.
《왜?》
《한심해서 말이다.》
《뭐가?》
《음… 나두 철들어서 중이 될 때는 저 편석스님같이 한벌 장삼에 바리대만 가지구 나서면 시끄러운 속세인정 다 끊어버리구 굶으나먹으나 도를 닦아 <전미개오>, 한번 깨쳐보자던거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이 중 법근이는… 아사라.》 하던 말을 내던지듯이 법근이는 쯧쯧 혀를 차고말았다.
《너두 물지게를 못 져서 그러니?》
주복이는 싱글거렸다.
《이놈아, 저렇게 물지게를 지기까지는 이만저만 맘공부를 해가지구는 되는 법이 아니다. 너같이 무식한 놈은…》
법근이는 문득 흑 느껴운듯이 숨을 들이키면서 코를 벌름거렸다. 이때마침 한 수모인듯 한 늙은 로파를 앞세우고 색동같이 빈 소매들이 펄럭이는 색스러운 장옷들을 쓴 젊은 아낙네들 몇이 웃으며 재갈거리며 스쳐지나갔다. 동산에는 못 올랐으나 봄날이라 역시 음식을 차리고 옷을 차리고 찾아가고 찾아오는 려염집부인네의 나들이가 분명했다.
《아ー 동백기름냄새! 내 이래서 사파세계를 못 잊거던. 미운 놈두 있지만 고운것이 더 많거던. 미운 놈은 미워두 고운 놈은 고우니 그래 그것이 무슨 죄구 무슨 잘못이랴? 흥, 또 맛있는건 맛있구.》
법근이는 또 한번 코를 벌름거렸다.

5. 두엄냄새 구수한 소발통

남문거리 이편의 옥골과 그 엇맞은쪽의 구골물목어구에서는 여러가지 음식냄새가 풍겼다. 우선 시큼한 김치냄새가 앞서는 골목들에서는 이집저집의 굴뚝모퉁이나 뒤담밑에 붙여놓은 딴솥들에서 선지, 곱밸같은 술국이 끓고 지짐부치개들이 우실거리고 그옆에 놓인 옹배기함지에서 김이 오르는 삶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혹은 순대 또는 그릇그릇에 메밀묵을 띄운 깨국과 질그릇자라병이나 혹은 유지배접을 한 버들방구리에서 풍기는 소주, 탁주냄새가 한데 뒤섞여서 식욕을 충동했다.

그런 음식그릇과 술방구리앞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이고 둘러앉았다. 그중에는 한자리에서 같이 명절을 지낼 처자도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막벌이군인듯 한 맨상투바람의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뒤머리를 한줌 듬뿍 놓고 칭칭 따서 늘어뜨렸거나 체두머리를 한 나먹은 총각들도 끼여있었다. 혹은 무슨 급한 길인지 짚신감발을 가뜬히 한 보행군이 있는가 하면 풀대님한 무명고의가랭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외촌농군들도 있었다. 그중에도 눈에 뜨이는것은 시커먼 털벙거지에 당홍동달이 야청군복을 입은 군교들이였다. 란시풍경의 하나로 요새는 외읍에서까지도 모여드는 그런 복색들을 많이 볼수 있다. 혹은 또 잔등에 횡십자로 걸친 멜빵으로 표가 나는 보교군도 보이고 꽁무니에 채찍을 찌른 마삯군들도 있었다. 어떤 술국솥앞에는 갓망건에 행전까지 친 중치막짜리가 선채로 수염에 탁주방울을 흘려가며 긴 목저가락을 엎쥔 손으로 술보시기를 기울이고있는것도 볼수 있다.

비록 씨름판도, 동산에 오르는 사람도 없는 봄이지만 그래도 봄맞이라 랭면집, 장국집, 상술집 같은데는 문을 닫았으므로 이런 골목의 로점들에서 흥정이 싸는 판이다. 비좁은 골목길은 먹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로 와자했다.

그런 골목안에 들어서서 기웃거려보는 음식함지와 옹배기곁에서는 《대추, 잣 다 박은 증편이요.》, 《훔훔한 소발통이요.》, 《문문한 엿이요.》, 《달사 한 물구지찜이요.》 하고 주어섬기는 소리들을 듣게 된다. 혹시

처음 들어온 사람으로 보이면 《봄맞이에 한몫 본다구 잔뜩했던 놈의것 막 눅게 팔겠소.》, 《오늘 먹구 래일 죽을지두 모르게 된 세월인데 애꼈다 뭘 하갔소. 실컨들 자시구나 가소.》, 《상목 작은 한필(두자)이면 두셋이 술에 고기에 실컨 자시두룩 드릴테니 어서들 자시오.》 이런 투의 환영도 받게 된다.

《그 아주마니 음식은 못 사먹갔군.》

주복이와 법근이의 등뒤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그러자 《왜요?》 하는 것은 《오늘 먹구 래일 죽을지두…》 하던 중년아주머니였다.

《우린 잘 먹구 래일두 모레두 살아서 기운을 써야 할 사람들이니 말이웨다.》

《아니, 그럼 내 말이 새없었소? 말 곤칩세다가레. 별장님 같은이가 잘 자시구 정말 이 란시에 이 소힘줄같이 힘을 써주시문야 얼마나 좋갔소. 눅게 해드릴테니 념려말구 자시오.》

《별장님》이라는것은 벙거지쓰고 군복입은 사람이면 군교나 하졸들에게라도 듣기 좋게 하는 말대접이였다.

《그러다보니 훔훔하게 무르질 않은 모양이웨다그려.》

이번에는 또 이렇게 타지(트집)를 잡는 투로 말하며 함지앞에 나앉아 보자기를 들썩해보는 사람은 눈에 뜨이게 장대하고도 퍽 부드러워보이는 군교였다.

《왜 안 물렀갔소.》

아주머니는 소발통 하나를 들어서 엄지가락손톱으로 가죽을 밀어보이며 말했다.

《자, 좀 보시오. 이만하면 장옷쓴 새색시는 시에미 몰래 먹기 좋구 초상난 상주님두 방립 쓰구 남몰래 먹기 좋게…》

입담좋게 주어섬기던 아주머니는 장삼소매가 불룩하게 큰 술병을 감추어들고 서있는 법근이를 쳐다보며 또 말을 이었다.

《저런 대사님네두 장삼소매루 입만 한번 가리웠다나면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게 물렀쉐다.》

골목안에는 웃음이 터졌다.

《그러고보니 그 아주마니 입이 꽤 험하댔다. 저 대사를 돌중놈이라구 슬그머니 욕하는거 아닌가.》

《그러지 않아두 평양성중 모르는이 없는 난봉중인데그래.》

《저 아주마니가 한가지만은 몰랐쉐다. 저 대사는 익은 고기보다두 생살을 더 좋아한답디다.》

여기저기 술군들중에서 이런 험담이 나와서 웃음판은 더욱 왁자했다.

《가세.》

입심이 남한테 지지 않던 법근이도 좀 무춤했던지 주복이의 소매를 당기며 돌아섰다.

《가만, 이거 두어개 사가지구 가세나.》

주복이는 함지앞에 다가앉았다.

《살것이 없어서 그런걸 사?》

《소발통이 왜 어드래서. 두엄냄새가 구수하니 얼마나 좋게그래.》

《말씀이 더 구수하웨다. 나두 그 구수한 맛이 좋아서…》

주복의 말에 그 낯모를 군교가 이런 투로 말을 붙였다.

《초면이지만 우리 같이 한잔 안하갔소? 나는 평양이 처음은 아니라도 하두 오래간만에 왔더니 아는 사람두 없구 그렇다구 혼자 먹기는 슴슴하구, 그래서 저빗저빗하구만 있던차이웨다.》

군교는 초면이지만 낯이 익어보이게 부접이 좋은 사람같았다. 그래서 《고마운 말씀이기는 한데…》 하며 주복이는 진심으로 미안했다.

《우리는 어데 좀 가볼데가 있어서 그렇쉐다.》

《아, 그러시우.》

《방색하는건 아니니 나삐 알지는 마시소. 평양 계시문 또 만나게두 될거웨다.》

《그럼 어서들 가보시소.》

이렇게 그 군교와 작별한 주복이와 법근이는 이것저것 익은 음식들과 술을 사가지고 골목밖으로 나왔다.

6. 함구문밖의 고충경이네 집을 찾아서

긴긴해도 어느덧 기울었다. 평양거리 여기저기의 좀만 집들이 트인데면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아름드리 버드나무그림자들이 길길이 행길에 가로걸쳐 맞은편 집들의 담장을 넘어 지붕을 덮었다.

구골에서 반마장쯤 더 내려가면 거리는 바른손쪽으로 활직갈이 구부러진다. 거기서부터는 한성안이지만 거리랄것도 없을만치 인가도 드물고 사람왕래도 적은데다 함구문 못미처 있는 청석다리에서부터는 바람조차도 싱그러운 맛이 난다. 그밑을 흐르는 물은 법수머리다리의 물과 한줄기인 평양강물이지만 제법 산개울같이 물도 정하거니와 그우에 실실이 드리운 수양버들잎들도 도시의 때가 끼지 않고 눈부신 신록으로 푸르렀다.

여기뿐아니라 성안전체를 신록으로 덮는 그 많고 큰 버드나무들은 평양이 얼마나 오랜 도시인가를 말하는것이다. 평양성의 남문인 함구문밖으로부터 서문인 보통문안으로 해서 북쪽 칠성문안의 만수대고개에 이르기까지 창창한 송림 역시 그렇다.

태고때는 제쳐놓고라도 고구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이곳으로 천도해온이래 1천 1백 60여년, 이동안에는 일시 황폐한적도 있었으나 고려의 서경으로 다시 복구된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고도 평양이였다. 이곳사람들은 대대로 자기네의 성안팎에다 나무를 가꾸어왔다. 천여년의 기나긴 력사중에는 무참한 병화도 여러번 겪었다. 그때마다 집들과 함께 나무도 불탔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자기네의 성시를 이룩함과 함께 또 나무를 심었던것이다.

서북쪽의 성주변에는 언제나 굴한적이 없는 그들의 기개를 상징하듯 사시로 창창한 송림으로 방풍장을 이루었고 성안에는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있고 풍성한 록음을 주는 버들을 심었다. 성 동남쪽을 유유히 감돌아흐르는 대동강과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내를 꿰흐르던 평양강과 또 시내 곳곳에 파놓은 풍월지, 영월지 같은 련못가에 류록장을 이루어 아름다운 그림자가 흐늑이는 평화스러운 운치를 사랑하는 그들은 자기네의 성시를 불러 류경이라고도 했다.

청석다리를 건너 함구문을 나서면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전원이다. 서쪽의 보통강과 동쪽의 대동강이 합수되는 사이에 삼각주를 이룬 십리 넓은 벌판의 기슭도리에는 옛날 고구려시대의 토성이 그냥 남아서 쟁반의 체두리갈이 둘러있고 그안의 평탄한 전원은 정전이라는 전설그대로 장기판같이 째이게 깔려있다.

그 전원가운데 혹은 두세집 혹은 네댓집씩 모여앉은 작은 마을들도 우물뚝과 마당귀에 실실이 푸른 늙은 버드나무들이 둘러서서 역시 그들의 선조들이 만들어준 평화로운 그늘속에 깃들어있다.

함구문을 나선 주복이와 법근이는 성문밖 초입수에 가까운 마을로 찾아가는중이였다. 거기는 젊은 중 법근이가 오매불망 못 잊는다는 처녀의 집이 있었다. 그 처녀의 집을 고려집이라고 한다는것은 주복이의 말로서 우리가 이미 들은바이다. 혹은 개성집이라고도 한다.

그 집의 현재 주인인 고충경이까지 개성에서 이곳으로 와서 사는지는 벌써 4～5대째나 된다. 그런데 아직도 개성집 혹은 고려집이라는 이름이 마치 택호나 갈이 붙어있다는것은 좀 괴이쩍은 일이라고도 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만한 무슨 특색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런가 하면 그렇지도 않기때문이다. 또 그 집의 래력을 지금도 누가 기억하고있어 그런가 하면 역시 그런것도 아니였다.

고충경이네 래력을 새삼스럽게 캐본다면 그의 조상은 개성 두문동 72현중의 한사람이였다는것이다. 즉 고려왕조의 벼슬아치의 집안으로서 불사이군이라는 고집을 세워 조선봉건왕조에서는 벼슬도 과거도 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하자면 새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리유로써 리성계에게 가혹한 박해를 받아온 일흔두사람중의 하나였던것이다.

이러한 래력이 이 평양으로 이주해왔던 고충경의 조상에게는 하나의 꼬리표로 달려왔던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것도 그 당시의 평양사람으로는 영문이나 본부의 관속들이나 아는 정도지 일반사람들은 별로 아는이가 없었다. 더우기 지금 와서는 그런 먼 옛날을 념두에 두고서 고려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 후손들이 4～5대째나 여기서 장가들어 살아온만치 그 집세간이나 살림살이에 이곳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는것도 아니였다. 말의 사투리가 다르지도 않았다. 색다른 점을 찾자면 2백년동안에 혹은 깨지고 혹은 잃어지고 남은 비취빛나는 고려청자 반상기가 아직도 몇개 남아서 고

충경의 밥상에 오르는것일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출토품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쓰던 세정품으로 남아있는것은 물론이다. 이런 이야기는 2백년동안 그 깨지기 쉬운 사기들이 세정품으로 남아있다는것으로서 그의 집안이 지조있는 사람들이라는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고충경은 바로 얼마전까지도 남문거리에서 송방(상전방)을 보던 한 상인이다. 《평양지》에 의하면 그는 문무가 겸전한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글도 잘하거니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였다. 지금의 고충경이뿐아니라 그의 집안은 대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자식들은 반드시 딸자식까지도 집에서 글을 가르쳐왔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이웃사람들은 고려집은 지조있는 집안이라고들 했다. 이 지조는 일종의 고집으로 통하는 말인듯도 하다. 대대로 성안에서 장사를 해오지만 어떤 고집에선지 그의 살림집은 역시 이 문밖에 있었다. 이웃사람들은 그 까닭을 《살림까지 성안에서 하면 아이들이 발그라질가봐 그런 모양이라》고들 했다. 또 오랜 장사치집안이면서도 그 집살림은 별로 느는것 같지도 않았다. 그 당시의 치부는 땅으로 나타나는데 그 집에서 어데다 땅을 많이 샀다는 소문이 나본적은 없었다. 그 역시 어떤 고집이랄가, 그 집터곁에 예전부터 집안일손으로 다룰수 있는 정도의 남새밭이 있을뿐이였다. 오히려 이번에는 큰 랑패를 보게 된것이였다. 본시 큰 장사도 아니였지만 남도에서 모시와 종이를 무역해다가 도매상을 해온 그는 지난봄에 같은 상인들과 어우름으로 물건을 사러 보냈던것이 벌써 올 때가 지났건만 사람도 물건도 종적이 없어지고 말았다. 불의에 일어난 란리로 길이 막혔거나 무슨 변이 생긴 모양이였다. 그래서 모자라는것을 장리로 돌려서까지 환을 잡아보냈던것이 지금은 빚만 남게 된 형편이다.
그런 가위에 고충경이로서는 또 참을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다. 장리로 무명을 돌려주었던 채권자한테서 빚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매파할미를 보내서 누이동생을 저의 둘째아들의 첩으로 달라는 교섭이 왔다. 그것이 이십여일전이였다. 그때 그 매파할미를 곱게 돌려보내고난 고충경은 남모르게 이를 갈고 가슴을 치기까지 했다. 그는 당장에 가게방과 재고를 그저 버리나 다름없이 족쳐팔아서 빚을 청산하고는 집에 들어앉고말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것은 그의 누이동생 보패도 모른다. 만일 법근이가 알았다면 그 역시 분개했을것은 물론 주복이조차도 주먹을 쥐락펴락했을것이다.
남의 집 꽃다운 규수를 첩으로 달라는자는 애련당골 김감역의 둘째

아들이였다.
그런 일이 있은것을 통 모르는 법근이는 《댁의 선조께서는 아조(우리나라)의 한양근처까지도 결이 발라서 이리로 내려오셨던 모양인데 지금은 상감께서 이 평양으로 오신다니 어떠시오?》 하고 충경에게 한번 이런 롱담을 걸어보리라고 속으로 벼르며 걸었다. 무관한 사이니 할수 있는 롱담이기는 하지만 혹시 좀 찔리는 말일는지도 모른다.
고충경은 어찌 보면 한 오세객(세상을 등진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아닌가싶기도 했다. 봄가을철이면 그를 어떤 절에서나 암자에서 볼수 있다. 법근이도 그를 묘향산절에서 처음 보았을 때는 한 유발승(머리를 깎지 않은 중)으로 알았다. 어덴가 속인같지 않게 표일한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도를 숭상해서 절을 찾아다니는것은 아니였다. 산수가 좋다는데 치고 절이나 암자가 없는데가 별로 없었으므로 경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자연 절에 들리기마련이였다.
철따라 간혹 한 유산객의 행색으로 나타나는 때의 고충경은 속인은 속인인데도 어덴가 탈속한데가 있었다. 그보다도 하나의 시정배나 백면서생에게는 있을법도 않은 일종 거만에 가까운 패기와 오연한 맛도 있었다. 그것은 어떤 한가지에 통한 일예일능지사(재간과 능력있는 선비)의 품격과 같은것이여서 보는이의 눈에 따라서는 반감이 아니라 존경도 할수 있는 오연한 맛이였다.
법근이는 그 맛에 초면이면서도 고충경에게 끌렸던것이다. 절에서부터 사귀게 된 법근이는 평양온 때면 그의 상전방이나 집으로도 찾아가게 되였다. 고충경이도 그 젊은 중을 흔연히 맞아주었다. 법근이는 한낱 고리백정이지만 이때는 이런 신분의 차이가 교우관계에도 하나의 장벽이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절의 불목하니만은 바로 아닌 정도의 중에 지나지 않지만 비굴하거나 하소한데가 없이 분방한 일면이 있는 법근이를 고충경은 언제나 웃음으로 맞아주었던것이다. 그뿐아니라 둘이는 서로 통하는 이야기거리도 있었다.
지금까지 법근이는 《돌중》, 《난봉중》으로만 소개되였다. 이외에도 《평양지》에 의하면 법근이에게는 《승검술》이라는 별명이 또 하나 있었다. 까놓고 말해서 법근이는 하나의 파계승이라고도 할수 있다. 제 말대로 천대, 학대받는 고리백정의 신세가 싫어서 한벌 장삼과 가사로써 그런 신분을 가리울수 있는 중이 되였으나 또박또박 불경을 외우고 꽤 까

다로운 금욕의 계행을 지키기에는 그의 젊은 육체와 정신은 너무나 정력이 넘쳤던것이다. 그가 검술을 배운것도 이질애질한데서 시작된것이였다. 또 멀지 않은 30년전에 한때의 풍운아로 나타났던 림꺽정이가 같은 천민이였던 까닭이랄가. 깊은 산속의 젊은 중들중에는 그 여풍을 따른달가 저희끼리 칼장난을 하는 패들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였던 법근이는 그 역시 젊은 때에 한 소일거리로 배워서 활을 잘 쏘는 고충경이와 마주앉으면 무예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에 또 한잔 술까지 있어 마침내는 나직이 읊조리는 노래에 가만가만 드노는 무릎장단으로 가락을 맞추는 때의 고충경은 하나의 탈속하고 표일한 오세객의 풍모가 더욱 뚜렷해보이는것 같았다. 대대로 내려오는 시정배이면서도 오세객의 풍모를 지녔다기보다 타고났다든가 감추지 못한다고도 할 고충경은 그 역시 두문동적의 저의 조상 같은 사람이 아닐가?

이런 생각에 아까 말한것 같은 롱담으로 혹시 좀 찔리는 말일지는 모르나 한번 웃을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삼자는 법근의 생각은 좀 엉뚱하달가 일종 시인다운 비약적인 착상이라고도 할수 있다. 여기서 그 집을 아직도 고려집이라고 부르는 그 까닭이 설명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법근이만이 아니라 민중은 누구나 다 시인다운 일면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 희고 단아한 얼굴이 새까만 나비수염과 빛나는 눈으로써 좀더 날카로와보이기도 하는 고충경이 어떤 대꾸를 할가?

이런 생각을 하는 법근이는 지금 또 그 누이동생을 보게 될 기쁨도 물론 잊을리가 없었다. 그러나 실은 법근이는 한번도 보패와 말을 해본적도 없었고 그 얼굴을 익히 볼 기회도 없었다. 간혹 그 집에 갔을 때 닫혀있는 장지문 저쪽에서 고충경의 말에 대답하는 극히 짧으나 랑랑히 울리는 말소리를 들었을뿐이였다. 또 간혹 오라버니가 시키는대로 주안상을 웃간 문턱안에 들여놓을 때에 잠간잠간 보군 했을뿐이였다.

그런 기회에도 법근이는 그 처자를 마음껏 볼수는 없었다. 어쩐지 눈이 시린듯도 했다. 그보다도 제가 너무 뻔뻔스러운 놈같이 생각되기때문이였다. 보패가 들여놓는 담소한 주안상의 그릇들중의 어떤것은 비취빛하늘에 백학이 날았다. 그 학들은 만져보기도 하나 그 처녀는 저 같은 사내가 바라보는것만으로도 더럼을 탈것 같았다. 그만치 법근이는 그 처녀

를 눈부시게 본다. 그만치 그 처녀를 모르기도 한다. 말하자면 법근이는 그 처녀를 잘 알아서보다도 잘 알고 존경하는 고충경의 누이동생이므로 사모한다는편이 맞을것이였다.

7. 승검술 법근이의 검

법근이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갔으나 고충경이도 보패도 만날수 없었다.

모 꺾어앉힌 대여섯간 되는 깨끗한 초가였다. 안뜰을 둘러싼 수대바자밖에 덧바자같이 둘러심은 앵두나무들은 홍보석같이 무르익은 열매로 가지가 휘였고 마당기슭의 짙은 버드나무그림자아래는 노란 씨암닭 두세마리가 병아리들을 품고 앉아있었다.

《아버지 계시냐?》

바자문안에 들어서며 법근이가 묻는 말에 맞은편 퇴지방에 걸터앉아있던 열아홉살짜리 어린 놈은 도리도리 고개를 흔들뿐이였다. 그리고는 엇마주난 부엌문안을 보면서 《중이야, 늘 오던…》 했다가 《응, 대사, 그 대사야.》 한다.

부엌에서 누가 《중이 뭐냐. 대사라구 하지.》 이렇게 타이른 모양이 분명했다.

《어데 가셨니?》

《촌의 우리 외할머니집에요.》 하고 또 《래일이나 모레 오신대요.》 한다.

이렇게 그애놈이 대답하는것은 부엌에서 도란도란 나는 녀자의 말을 받아옮기는것이 분명했다. 그 어린 놈은 고충경의 아들인데 부엌에서 나는 말소리의 주인은 보패가 분명했다.

《잘됐다! 난 낯선 사람하구 술을 마시면 취하질 않아서 싱겁더니…》 하며 먼저 돌아서는 주복이를 따라나갈수밖에 없었던 법근이는 《가만 좀 있으래요.》 이런 뜻밖의 말에 되돌아섰다.

이편 퇴로 건너와서 방문밖에 조가비만 한 삼미투리를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갔던 애놈이 조금후에는 제 키만치나 긴것을 부둥켜안듯이 들고

나오며 말했다.

《이거 찾으러 오시면 내드리라구 우리 아버지가 이르구 가셨대요.》

그것은 작년 봄에 법근이가 고충경에게 맡겨두었던 검이였다. 그때 묘향산에서 순안근처에 있는 동금강암으로 옮겨오게 되였던 법근이는 그만해도 생소한편인 작은 절에서는 그런 물건을 간직해두기가 불편도 했고 또 찾아가는 고충경이와 한때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할것이므로 가져다가 맡겨두었던것이다. 이때의 일반백성들에게는 환도 같은 무기는 금물이였다. 보통량민들도 큰 장도칼을 지고 다니다가는 관속들한테 빼앗기고 뺨개나 건사하기가 일쑤였던만치 하물며 덮어놓고 사람값에 치지도 않는 중이 검을 가졌다거나 칼을 쓸줄 안다는 소문이 나면 어데서 민란이 나든가 불한당사건이 일어난 때면 비명에 걸려들기가 십상팔구였다. 이러한 일은 림꺽정란이 있은 후부터 더욱 심했다.

유지에 싸서 여러 매끼 동여맨 검을 받아든 법근이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대체 웬 일일가? 누가 언제 찾아간다고 말이나 했던가. 혹시 란시가 되니까 어지러워가는 세월에 이런것을 건사했다가…)

법근이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곧 머리를 흔들었다.

(고충경이는 그런 얄팍하고 초라한 사람은 아니다.)

그는 《오냐, 내가 와서 찾아가더라고 말씀드려라.》 하며 장삼자락을 들치고 허리띠에 검을 찌르며 나섰다.

《이제는 우리두 이런 검을 쓰게 될 때가 왔나부네.》

법근이는 이런 말을 하며 주복이와 같이 함구문안으로 들어갔다.

8.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왕이 평양에 들어온것은 5월 7일이였다. 대동관에 대가를 머무른 왕은 이튿날에는 평양성의 나많고 점잖다는 선비들을 불러서 평양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한 왕과 조정의 의사는 선비들을 통하여 널리 백성들에게 전파되였다. 또 그 이튿날 조정의 문무제관을 거느리고 몸소 함구문루에 거동한 왕은 평양의 지형을 손수 가리켜가며 적을 막아 성을 지킬 공론들을 했다. 또 며칠후에는 각 고을과 읍들에 령을

내려 많은 군량을 평양성으로 날라들이게 하는 한편 일본군이 거쳐 올수 있는 지방의 창고들의 곡식은 오는 가을에 회수할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곳 백성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적이 략탈하거나 불사를것이 없도록 했다. 다음에는 올해의 전세는 란시니만치 다시 답험(논밭에 가서 실지로 조사)하는 거폐를 덜고 작년의 례에 준해서 받도록 령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들은 평양을 지키기 위한 장구지책이고 또 그러한 장구지책을 쓸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을 보이는것이라고도 할수 있는 일들이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림진강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변군 3천여명을 추려보냈다.

또 왕은 앞서 말한바 당시의 령의정으로서 국왕으로 하여금 거연히 한성을 버리게 했다는 책임문제로 파직시켰던 리산해를 이번에는 또 강원도의 평해로 정배를 보냈다. 이런 거조는 왕과 조정이 다시는 적앞에서 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더욱 선명히 한것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평양백성들은 마음을 놓았다. 기뻐했다. 자기네의 고향을 왕과 그의 조정과 함께 지키게 된다는데 더욱 마음이 든든했고 기뻤던것이다. 한때 《왕이 종시 이 평양까지 오구야말게 되였다.》는 원망을 겸한 불안감이 사라지기도 했던것이다. 그들은 왕이 거동하는 길거리에 깔은 새 황토를 될수록 밟아 더럽히지 않도록 삼가하기까지도 했다. 자기네가 존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이에게 대해서는 이런데까지도 마음을 곱게 쓰는것이 백성들이다.

그러나 왕과 그의 조정은 오래지 않아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림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5월 18일에 림진강을 지키던 우리 군사가 허무하게도 전멸되다싶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온것은 20일이였다.

그 직후에 충청, 경상, 전라 3도의 5만여명의 군사들이 룡인에서 괴멸된 사실도 있었지만 적이 림진강을 건느게 되였다는 소식은 그보다도 더 큰 동요를 조정에 일으켰다. 림진강을 무사히 건너서면 적은 또 이 평양의 직통로로 들어서게 되는것이다. 그러니만치 왕과 조정은 전날 적이 조령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떨었다.

평양성안팎의 민가에서들도 곳곳에서 곡성이 일어나고 그들의 슬픔을 말하는 흰 댕기가 녀인과 아이들의 머리에서 많이 보이게 되였다. 림진강방어선으로 뽑혀나갔던 평양군사들중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였다. 요행 살아서 돌아온 군사들의 말에 의하면 림진강의 패전은 어처구

니가 없다고 할만치 허무맹랑한 일이기도 했다.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고 한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조선왕을 추격하여 또 북으로 진군해오던 길에 림진강에 걸려서 주저앉게 되였다. 강을 건늘 배가 없었던것이다. 배라는 배는 다 거두어서 이편 북쪽강변에 붙들어매두고있는 도원수 김명원의 군대와 한줄기 강을 사이에 두고 10여일이나 마주 노리고만 있던 일본군의 선봉장 소서행장은 마침내 한 꾀를 냈던것이다. 즉 자기 진에 늘어세웠던 기치와 창검을 걷고 군막들에 불을 지르고 뒤로 물러갔다.

김명원도원수의 막하에 있던 신할은 곧 강을 건너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자고 했다. 그것을 기회라고 본것이였다. 이때 김명원도원수는 미타해하면서도 이렇다할 방책도 내놓지 못했으나 그것을 반대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기때문이였다.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때문에 류극량이라는 한 로련한 별장도 반대했다. 그러나 이 기회에 한번 큰 공을 세우겠다는 야망만이 앞서서 신할은 전투를 기피한다는 리유로써 류극량의 허옇게 세인 머리를 베이려고까지 했다.

《머리를 땋고부터 군사노릇을 해온 내가 이제 내 한목숨이 아까와서 그런것은 아니요. 내딴은 나라일을 그르칠것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였소.》

이런 말을 한 류극량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배에 올랐다. 이때 마침 당도했던 평양군사들은 한응인의 재촉에 밥도 변변히 먹을 사이가 없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였다.

강을 건넜다. 곧 적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뛰여든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전투서렬을 펼 여유도 없었다. 천지를 진동하는 조총소리와 번뜩이는 창검과 함성이 넓은 강변을 뒤덮어 일어났다.

한 지휘자의 경망하고 무모한 오산때문에 위험에 빠지기는 했으나 조선군사들은 용감히 싸웠다. 그중에도 《한평생 군사로 늙어온 내가 사내대장부답게 죽을데는 여기다.》 하며 적진중으로 돌진한 별장 류극량이 끝까지 용전분투하는 모습은 더욱 장쾌한것이였다. 활로써 십여명의 적을 죽인 류극량별장은 화살이 떨어지자 말을 몰아 창검이 겹겹한 적진중으로 달려들어 한칼로써 수십명의 적을 무찌르고 죽었다.

이러한 림진강싸움의 소식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군사들의 이야기로써 널리 퍼졌다. 이야기를 서로 옮기고 전하는 백성들은 무모한 한응인, 신할따위나 무능한 김명원 같은 관료들의 오산이나 실수를 원망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점도 없지는 않았다.) 그보다도 헌헌대장부 류극량의 영웅적인 모습을 즐겨 묘사하여 서로 전하고 들어가며 감탄하기 위하여서였다. 이러한 경향은 누가 그런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능이다싶이 한 대중의 흥미였고 그들의 지향이였다.

이보다 앞서 더욱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이름이 있다. 그것은 리순신이다. 지난 5월 7일과 8일 량일간에 옥포와 적진포에서 일본병선 40여척을 섬멸했다는 리순신장군의 첫 첩보는 평양뿐아니라 온 조선백성들의 감격과 환성을 불러일으켰고 기백을 북돋우었다. 이 첫 승리는 임진조국전쟁 전기간에 걸쳐 리순신장군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와 공훈중의 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위대한 승리와 공훈의 서막이였던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7년간에 걸친 국란을 승리로써 총결한 조선인민의 영웅성과 애국주의의 표본이였고 따라서 승리에 대한 자신심의 첫싹이였던것이다.

이때 백성들이 애석하게 아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그것은 양주에서 일본군을 맞아 싸워서 60여급을 베이고 적을 격퇴한 신각이였다. 물론 한날 작은 승리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이래 팔도강산이 반이상이나 적들에게 강점된 륙지에서의 첫 승리였던것이다. 말하자면 그 역시 옥포바다에서와 같이 륙지에서도 승리한 조선인민의 승리의 첫 서막을 보여준 한사람이였다. 그러나 그는 비명에 죽었다. 신각은 도원수 김명원이 한강을 지킬 때에 그 막하의 부원수로 있었다. 한강을 버리고 물러설 때 그는 도원수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때문에 조정에서는 그의 목을 베여올리라고 선전관을 파견했다. 파견된 사형리와 길을 어기여 신각의 승전을 알리는 첩보가 왔다. 조정에서는 그의 형을 취소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사람을 띄웠다. 이번에는 그 사람과 길을 어기여 신각의 머리가 왔다.

이같이 애석히 죽은 신각의 이름도 역시 백성들속에 널리 전해졌다. 이역시 조정의 경솔한 조치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보다도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았다.) 그가 보여준 승리의 서막에서 백성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과 희망의 서광을 느꼈기때문이였다. 그렇다고 이때의 백성들이 전체 전국의 위기를 몰랐다거나 또는 주책없이 동요하는 조정의 귀족관료배들의 무능무모하고 경솔한 처사에 대하여 무조건 관대하거나 무관심하

고 단지 어떤 자그마한 승리와 장쾌미에 취하여 그것을 례찬하는것으로만 만족하는 뼈빠진 락천가들이여서 그런것은 결코 아니였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네의 고향을 직접 지켜야 할 사람들의 누구보다도 절박한 처지에서 전국을 보고있었고 따라서 동요하는 대동관을 감시하는 눈으로 지키고있었던것이다.

사실 대동관안의 왕과 조정은 술렁술렁 끓고있었다. 말바로 어쩔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하는 대신들과 그 이하의 관료들— 대신들중의 한사람인 류성룡은 자기의 란중일기 《징비록》에서 림진강의 패보가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들 놀랬는가를 말하면서 그 일례로 평안감사 송언신 같은 사람은 《혼불부체》였다고까지 묘사했다. 즉 얼혼이 다 나간 사람같았다는것이다. 물론 송언신 한사람만이 아니였다.

9. 대동관의 왕과 조정대신들

왕의 행궁인 대동관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있는 동헌, 서헌과 련광정뒤의 풍월정과 대동문뒤의 신관과 지금의 서문동근처에 있었던 청화관 등등의 객사들은 물론 민가들에까지도 사처를 정하고있던 고관대작들이 황토길을 짓이기며 대동관으로, 감영으로 부산히 드나드는 그 황황한 꼴이란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였다.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가? 지금의 그들은 이 평양성을 어떻게 지킬것이냐 하는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어데로 피해야 할것이냐 하는것을 공론하기에 바빴던것이다. 평양성을 지키자면 어떻게 지켜야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전에도 별로 의논한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적이 림진강을 건너선 지금에라도 긴급히 토의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였다. 지금의 조정공론은 평양을 지킬것이냐 말것이냐 하다가 어느새 평양을 떠나는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떠나가는데는 함경도로 갈것이냐 의주쪽으로 갈것이냐 하는 문제만이 갑론을박의 중심이 되고말았다.

그중에는 아직도 평양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이들이 없지는 않았다. 그것은 바로 며칠전에 령의정이 되였다가 그날로 물러나게 되였던 류성룡과 좌의정 윤두수와 리조판서 겸 평안도 도순찰사인 리원익 같은 몇사람뿐

이였다. 이밖의 원임대신 정철을 비롯한 다수의 조정대관들은 하루바삐 평양을 떠날것만을 주장하고있었다. 그 리유는 현재 우리는 새로 군총을 초모하고 훈련하는 등 군사를 근본적으로 재건해야 할 처지니만치 지금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이 바로 성밑에까지 육박해있는 이 평양성에서는 그런 일이 임의롭지 못할뿐아니라 이 위태한 곳에 《대가를 모시기 황송하므로》 하루속히 의주로 가거나 내지는 압록강을 건너가 앉아서 여유를 두고 완완히 권토중래할 대책을 세우도록 하자는것이였다.

왕도 이 다수의 편이였다. 그가 평양백성들에게 갈이 성을 지킬것을 언약하고 또 그러기 위한 대책을 세우노라 한것은 불과 한달전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이 평양성을 떠나기가 누구보다도 급한 사람이였다. 일이 이렇게 되고보면 조정의 공론은 정철이하의 다수는 전제군주인 왕의 뜻을 받들어 정정당당히 주장하는 편이 되고 류성룡과 윤두수 등 몇 사람은 구구히 간해보기나 하는 립장에 서게 된다.

그같이 불리한 립장에 서게 된 류성룡과 윤두수와 리원익은 왕의 뜻과 조정공론을 돌리기 위해서 한번 더 왕에게 간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지난 초하루날(6월)에 당한 일을 생각하면 더우기나 지금의 조정공론을 그대로 따라갈수는 없었던것이다. 당한 일이라는것은 이렇다.

명나라의 료동도사가 조선의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세진, 림세록이라는 관리들을 보내왔다. 례조판서 윤근수가 조정을 대표해서 그들을 맞았다. 후날에 왕도 그들을 만나보았다. 그런데 림세록의 말에 의하면 일본군이 쳐들어온지 불과 20일이 되나마나해서 조선왕이 수도를 버리게 되였다는것은 알수 없는 일이라는것이다. 그래서 지금 명나라에서는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온것이 아니라 조선이 명나라를 치려는 일본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는것이다.

딱한 일이다. 당시 대신들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림세록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모양으로 돌아가고말았다.

이러한 오해는 지금 원병을 청하는중인 명나라와의 교섭에 큰 지장이 아닐수 없는것이다.(이에 관해서는 후일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것이다.)

류성룡과 윤두수는 이러한 사태를 전제로 하면서 명나라의 원병이 올때까지 이 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또 시작했다.

때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6월 초순, 더우기 거의 한달동안이나 내리가

무는 날씨는 대단히 뜨거웠다.

왕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북쪽담에 기대듯이 남향하고 나앉았다. 왕궁이 아닌 이 대동관에 룡상이 없는것은 물론이다. 그나마 호상(교의)조차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마루바닥에다 돗을 편 우에 얄팍한 수방석 하나를 깔았을뿐이다. 왕의 의관도 익선관이나 곤룡포가 아닌것은 물론이였다. 모르고보면 왕이 전좌했다기보다도 어떤 집 큰사랑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한 소탈한 선비의 행색이나 다를바없었다. 그만치 왕의 위의를 갖추었다고 할만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그의 앞에는 신하들이, 그나마도 전보다는 수가 퍽 적어진 신하들이 부복해있을뿐이였다.

모두 큰 옷에 땀이 배면서 흘렀다. 왕궁이면 이런 여름날에는 어데를 가나 왕의 등뒤에서는 쌍학선 긴 부채가 흐느적일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곁에는 방안을 식히기 위한 얼음 한덩어리 놓여있지 않았다. 무덥지만 대신들이 부복해있는 자리라 왕은 손수 할수 있는 부채질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좀 동안을 두고 좌우로 모꺾어서 직품과 위계를 따라 차례로 엎드려있는 사람들의 사모와 전립밑의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흘렀다. 란시니만치 이때의 대신들중에는 문관이지만 전립에 구군복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군이 림진강을 건너선지 벌써 열흘나마 되는 지금 또 해야 그 소리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지난스럽게 더운 날씨였다.

《…거듭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사태가 이러하온즉…》

좌의정 윤두수가 먼저 시작했던 말을 다시 이었다. 이미 의논이 맞았던 류성룡이의 말을 기다렸으나 언제든 자기 조신이 앞서는편인 류성룡이 또 앞뒤끝을 재는지 좀해서는 입을 떼지 않을 모양이므로 제가 먼저 말을 시작했던 윤두수는 이제나 하고 류성룡이 나서기를 기다려서 잠시 말을 끊었던것이였다.

《사태가 이러하온만치 이곳을 떠날것이 아니오이다. 지금 기다리는 명나라 원병도 우리가 이 성을 지킴으로써 더욱 속히 나오리라는것은 명약관화한 일인줄로 아뢰오.》

《…》

왕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또 들어야 그 소리… 하는듯 한 태도였다.

《또 지금 이곳의 사태는 한성과도 다른줄로 아뢰오.》

마침내 류성룡이도 입을 열었다. 이같이 시작만 하면 현명한 그는 사리

에 맞는 말을 하는편이였다.
《앞에 큰강이 있어 그 지형만으로도 이 성을 지키기에 유리할뿐아니오라 한성에서는 충주의 패보가 이르자 성안백성들이 다 흩어져 지킬래야 지킬수 없었으나 이 평양백성들은 동요하지 않고있사오니 가히 머물러 이 성을 지킬수 있는줄로 아뢰오.》
《…》
왕은 역시 말이 없었다. 그는 얼마전까지도 《경들이 의논좇아 하오.》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의 대답쯤은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왕은 완전히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것이였다. 그래서 이미 후궁과 왕자들을 함경도쪽으로 떠나보내기까지 한 그는 아직도 이 평양성을 지키느니 마느니 하는 공론은 한갖 시끄럽기만 했다. 지금 급한것은 오직 함경도로 가느냐 의주쪽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것뿐이다. 그렇거늘 이왕 하고도 남은 말을 왜 지금 또 지긋지긋하게 끄집어내는가?
왕은 이 자리가 초조하리만치 성가시기만 했다. 그러나 체통에 그런 내색을 할수도 없어 그저 밖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안뜰을 가로막아선 큰문간 지붕너머로 바라보이는 대동문— 조선봉건왕조의 하나의 미신이다싶이 그 성질이 아주 용맹하고 담대한것으로 알려진 이곳 서도사람의 기질을 그대로 나타낸듯이 날카롭게 쳐들린 대동문의 추녀끝을 바라보는 왕은 이 평양이 새삼스럽게 더 생소한 곳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딴은 한성이 위태해서 이리로 피란을 왔다가 또 여기가 불안해서 다시 딴데로 자리를 뜨려는 하나의 피란객이 잠시 머물러있던 곳이 생소하다는것쯤 새삼스러울것도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은 구태여 왕 선조 한사람을 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꼬아하는 말이 아니다. 봉건군주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는 하면서도 대개는 자기 궁중에서 한걸음만 나서면 모두가 생소한 곳이고 그뿐아니라 그자신이 모든 백성에게 생소한 사람이 아닐수 없는 존재였다.
《신도 같은 뜻으로 아뢰오. 이제 대가가 이곳을 버리고 떠나시면 장차 어느 성을 의지하여 적을 막사오리까?》
윤두수가 류성룡의 말을 받아서 또 말을 시작했다.
《혹시 대가를 받들어 압록강을 건느자는 말도 있었사오나 신이 듣사옵기는 그런 불충불신한 말이 더는 없을줄로 아뢰오.》
이때 《으흠.》하는 신음에 가까운 기침소리가 났다. 그것은 원임대신

정철이였다. 윤두수의 말에 두손을 안으로 욱여짚고 발뒤축을 모아서 궁둥이를 고이고 엎드려있던 그의 람색천릭(무관이 입는 제복)이 척 끈달라붙은 큰 솥뚜껑만 한 잔등은 한번 큰 경련이 지나가는듯이 꿈틀하고 안올린 벙거지밑의 반백이 다된 머리는 들먹거렸다. 얼마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더할나위 없는 불충불신이라는데 불끈하는것을 참노라니 자연 신음소리조차 나왔던것이다.

윤두수는 임금앞이라 감히 얼굴을 들어 건너다보지는 못하나 그런 기침소리로써 정철이 얼마나 부르텄다는것을 짐작은 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또 말을 이었다.

《한번 우리 강토밖으로 발을 내디디오면 구차한 목숨은 부지할지 모르오나 그밖에 더 할 일이 무엇이오니까? 그렇게 되면 모르옵거니와 원병도 없을것이오이다. 이 평양성은 그 지형됨이 금성탕지(매우 견고한 성)라 할만치 지키기 쉽사옵고 또 군사가 많고 군량도 족하오니 여기서 더는 한걸음도 물러설것이 아닌줄로 아뢰오.》

윤두수의 말은 일단 끝났다. 무기라야 활과 창검 또는 고작 조총뿐이던 그 당시로서는 평양성은 과연 금성탕지라고도 할수 있었다. 이 점만으로도 류성룡과 윤두수일파의 말은 옳았다.

이런 말은 지금 처음 하는것도 아니였고 또 처음 듣는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대답할가? 서로 밀고 기다리기라도 하는듯이 만좌는 잠잠할뿐이였다. 그런중에 《경의 말은 너무 답답하오.》 하는 왕의 한마디가 들리였다. 그러자 만좌는 더욱 숨소리조차도 죽은듯 했다. 그중에도 윤두수와 류성룡의 머리는 더 푹 수그러질수밖에…

무릎우에서 바르르 떨리는 자기 손끝을 굽어보는듯 한 왕의 머리도 역시 숙여있었다. 실로 답답한 모양이였다. 그는 자기 감정을 끝까지 감출줄을 모르는 사람이였다. 소위 《태평성대》의 군주로서의 교양을 쌓아서 시를 짓고 사군자(매화, 국화, 란초, 대나무를 이르는 말)도 칠줄 아는 그는 오히려 자기 감정에 부치는 사람이였다. 평양에 들어오자 이 성을 지키겠노라 하고 또 그러기 위한 조치를 하노라 한것도 실은 그때문이였다.

궂은비를 맞아가며 한성을 떠나서 5백 50리길을 달려오느라 7～8일동안을 난생처음 당하는 고생을 겪다가 평양성에 들어서고보니 대동강과 청류벽은 천작으로 금성탕지를 이루었고 락락장송에 둘리우고 수양에 그늘진 성시는 아름답고 번화하고 사람들은 많고 씩씩해보이고 가옥제도도 살만

한데 그는 우선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던것이다. 따라서 《이 성은 꼭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도 안한바는 아니지만 그보다도 《이만하면 지킬수 있지 않은가!》하는 자신이 먼저 앞섰던것이다. 이러한 자신은 물론 자신이라기보다도 일시적인 기분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인줄은 자기는 몰랐다. 그랬기때문에 불과 한달전에 백성들에게 했던 자기의 언약을 다 잊어버린듯이 지금은 이곳을 떠날 생각만이 급했던것이다. 본시는 백성을 속이려던것은 아니나 자기 기분에 떠서 했던 언약이기때문에 그 기분이 다 사라진 지금에는 잊어버린듯이가 아니라 참말다 잊었을는지도 모른다. 이런 점까지는 천착(억지로 끌어다가 리치에 맞도록 말을 하는것)해볼 길이 없으나 하여간 그는 그런 기분때문에 하나의 변덕스러운 사람이 될수밖에 없었던것만은 사실이다. 아무리 변덕스럽더라도 왕은 왕이라, 더우기 진노한 왕의 앞이라 모두 숨도 크게 못 쉬고 엎드렸을 때에 《좌상(좌의정)의 말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이런 말이 떨리는 소리로 울려나왔다. 정철이였다. 일단 말을 끊고 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계속하는 그의 격분한 말소리는 더욱 떨리고 높았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손 신자의 도리로써 그럴법이 있소. 신자로서 어찌 감히 성의를 거슬려서까지 대가를 이런 위경에 만류한단 말이요. 그 방자한 거조 죄주어 벌하심이 마땅한줄로 아뢰오.》

정철의 이런 말에 부복해있던 사람들의 체지들은 더욱더 가드라들고 졸아들었다. 군주의 뜻을 거슬렸으니 마땅히 주어야 한다는 벌은 결코 헐한것이 아니기때문이였다. 만일 이 자리가 임금앞이 아니였다면 그 말을 하는 정철은 손세 잘하는 제 버릇대로 손을 들어서 제 목을 도리는 형용까지도 해보였을는지 모른다.

어떤 처분이 내릴가? 왕은 그저 잠잠했다. 이상 더 가만히 앉아있기가 난감했던지 왕은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편전으로 들어가고말았다. 비로소 대신들은 긴 한숨을 내쉬고 일어들 났다. 내시가 부채를 몇자루 가져다놓았다. 부채가 몫에 돌아온 사람들은 소매속으로 바람을 부쳐넣으며 서성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뜰로 내려갔다. 한낮이 기울가말가 한 폭양은 처마그림자조차 린색하게 짧은 뜰안을 자글자글 끓이는듯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긴장해있던 자리보다는 역시 자리를 옮겨 거니는편이 좀 나을것 같았다.

《판서대감… 리판서대감.》

리덕형이가 이렇게 재차 불러서야 돌아보는 병조판서 리항복은 《웬 실없는…》 하듯이 싱그레 웃었다. 며칠전까지도 리조참판벼슬에 있다가 왕의 특별한 처분으로 벼슬다리를 한둘쯤은 건너뛰여 일약 병조판서가 된 리항복은 《판서대감》이 아직 자기갈지가 않아서 어색도 하려니와 더우기 무관한 자리에서는 《이 사람아》, 《자네》로 통하는 죽마고우인 리덕형이가 그렇게 부르는데는 웃지 않을수가 없어 《그래 참판령감, 무슨 말씀이요?》 하며 마주섰다. 같이 퇴약볕의 뜰을 거닐다가 저편 앞채의 처마그늘밑에 들어선 때였다.

《가부간 결말은 속히 나게 됐네.》

《어째서?》

리덕형의 말에 리항복이 되물었다.

《어째서나마나 그만하면 나올 말은 다 나오지 않았나.》

리덕형은 여전히 빙긋이 웃었다. 30이 갓 넘은 당상관 리덕형은 풍신이 맑고 준수한편이였다. 말바로 관옥같은 그 얼굴의 빙그레한 웃음을 보는 리항복은 어려서부터 잘 아는만치 《또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려구…》 하면서 물었다.

《나올 말이라니?》

《아, 그 한마디면 그만인 말이 있잖어? <신자의 도리로써… 으흠!> 하는…》

《쉬ㅡ 대체 령감께서는 모가지가 몇이나 되시길래 그따위 소리를…》

쯧쯧 혀를 차는 리항복은 말은 롱조였으나 그 눈은 날카롭게 주위를 살폈다. 그러한 리항복 역시 리덕형 못지 않게 독설가라면 독설가이고 풍자객이라면 풍자객이였다.

《자네나 내나 다 목이 하나밖에 없길래 지금은 개구를 안하지 않소.》

이번에는 정색하여 이런 말을 하는 리덕형 역시 한때는 정철이와 함께 평양을 떠나자고 했던 사람이였다. 그때문에 리항복이한테서 사사로이나마 톡톡히 꾸중을 듣기도 했던 그는 혼자소리같이 《좌상의 말씀이 옳기는 한데…》 하며 또 거닐기 시작했다.

아직 삼십소리하는 이 두사람은 소위 당상관이라는 조정의 대신관리치고는 가장 젊은 축이였고 또 한때는 그 재질과 아울러 바른말을 능히 하는 패기로써 일찌기 이름을 날렸던 소장파였다. 그러나 행이랄가 불행이랄가 소년등과해서 조정에 선지 10년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조정공론의

귀결은 누구의 옳은 주견으로보다도 누가 잡도리를 더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렸고 또 어느 편이 먼저 《신자의 도리》라는것을 을러메고 상대편을 내려치는가에 달렸다는것을 잘 알게 된 사람들이였다. 그리고 또 자기들은 조정에선 신하로서 도리상 옳다고 생각하는바를 건의는 하되 잡도리는 안하는 사람으로 자처하는만치 조정공론의 대립이 격화될 때면 언제나 구경하는 립장으로 물러서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였다.

《사리의 당, 부당은 고사하고 말문을 막는 탄핵부터 나오니…》

갈이 거닐던 리항복이 역시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이때 문득 대청마루에서 큰소리가 났다. 좌상 윤두수의 소리였다.

《아욕— 차검— 참녕신을!》

목청을 돋구어 길게 뽑아 읊조리듯이 웨치는 《아욕— 차검— 참녕신을》이라는 그 시구절은 《내 드는 검을 빌어 아첨하는 간신을 베이고저!》하는 뜻이다.

서성거리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흔들거리던 부채도 일시에 딱 멎었다. 긴장한 몇순간이 왔다.

《어허—》

너털웃음의 한토막같기도 하고 혹은 큰 신음소리같기도 한 정철의 소리가 들린다. 합죽선을 딱 접어 덜렁 내던진 정철은 윤두수앞으로 다가섰다. 두 재상은 마주섰다. 다같이 륙순이 가깝지만 아직도 정정하니 허우대가 좋은 그들은 키내기라도 하듯이 더욱더 허리를 펴서 뒤로 잡아제끼면서 몇순간 서로 마주 노리였다. 이때 《두분 대감— 이 무슨 일이오니까. 수통스럽소이다. 그만들 허시오.》하며 둘사이에 나선것은 류성룡이였다.

접었던 합죽선을 쫙— 펴서 노발이 상지한 두 대감의 열을 식혀주듯이 활활 부치면서 그는 호탕히 웃기도 했다. 이런 때의 그의 버릇인 약간 채머리를 흔들듯이 그 봉긋한 수염을 좌우로 흔들며 랑랑히 웃는 웃음이 더 효과적이여서 두사람의 열을 식히는듯도 했다.

《어허 참! 해괴한 일이로고.》

마침내 이런 한마디를 던진 정철은 늘 삐뚤어지는 자기 사모를 바로 앉히군 하던 습관대로 두손을 들어서 안 올린 벙거지를 만지면서 허전허전한 걸음걸이로 대돌을 내려섰다. 그러한 그는 지금도 취하지나 않았는가 싶었다. 정철은 안 취한 때보다 취한 때가 많은 사람이였다. 취하기만 하

면 자작 지은 시가를 읊조려가며 (그는 《관동별곡》과 《사미인곡》 같은 시가를 남긴 시인이다.) 고담준론을 늘어놓을 때는 사모나 갓이 바로 앉기보다 삐뚤어지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취해서가 아니라 윤두수한테서 당한 모욕으로 격분한때문에 전립도 삐뚤어지고 걸음도 허둥거리는 모양이였다.

후세사람인 우리가 그 당시의 문헌들에 나타난바로써 미루어보건대 정철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 고전적인 시가를 우리에게 남겨준 훌륭한 시인으로 존경할수는 있으나 이러한 큰 국란에 처하여 국가를 담당해나갈만 한 정치가는 아니였다.

그같이 정철에게 모욕을 준 윤두수는 아직도 대청에서 뒤짐을 지고 왔다갔다 거닐고있다. 그 역시 정철이와 마찬가지로 안 올린 벙거지에 구군복을 하고있었다. 저번 개성에서 어영대장으로 임명된 그는 지금은 좌의정을 겸한 장군이였다. 장군인 윤두수가 자기네의 주장을 반대하는 정철이를 베이고싶다고 한것이다.

그런데 그는 《드는 검을 빌어…》라고 했다. 왜 하필 남의 검을 빌어야 했을가? 하기는 그가 웨쳐 읊조린 그 시 역시 옛날사람의것을 빈것이다. 남의 말을 빌어서라도 자기의 진정을 곧대로 말했다면 상관은 없다. 그러나… 왜 이런것까지를 꼬치꼬치 따지게 되는가 하면, 정말 그가 자기네의 주장을 반대하는자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반대하는자들이 없어진다면 자기네의 주장을 꼭 관철할수 있는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기때문이다. 이 《무엇》이라는것은 그들이 주장하는바 평양을 지키기 위한 어떤 명확한 성산이나 계획을 말하는것이다. 우리는 어떤 기록에서든 그럴만한것을 찾아볼수는 없다. 그뿐아니라 오래지 않아 그들이 한 일로 보아서 이 의문은 더욱 풀리지 않는다. 아니, 겸손할 필요없이 말한다면 그런 계획이나 성산 같은것은 있었던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의 주장이 그렇게 확고한것이 못되고 한낱 미둥거둥한것이니만치 그 반대자를 제거했으면 하는것도, 혹시 누가 검을 빌려주기나 한다면… 하는 정도였을것이다. 여기서 좀더 까놓고 말하면 이때의 윤두수가 정말 자기네의 반대자를 제거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기나 했던지? 만일에 윤두수가 그런 옛 시구절을 몰랐다면 그래서 자기의 말만을 가지고 말해야 했다면 정철을 그렇게까지 모욕할 용기가 있기나 했을는지?

이 당시의 윤두수 같은 사람들은(통털어 유식하다는 사람들은) 그런 시

구절을 잘 따로외우기때문에 그것을 빌어서 자기네 생각을 혹은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했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옛날의 시구절에 저자신이 구사되여 자기 생각이상으로 허장성세를 하는것은 물론 남을 폄하는데 지나치게 독설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이 그 당시 문사태번이라는 일종 문자시대를 이루었던 이 시기의 사람들의 고약한 버릇이기도 했던것이다.

각설—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때에— 평양을 먼저 떠났던 정철이는 지금 허둥거리는 걸음걸이로 문간을 향하여 나가는중이였고 그보다는 며칠 더 평양에 남아있었지만 역시 결국은 떠나가고말았던 윤두수는 아직도 대청을 거닐고있는 이때에 조정대신들에게는 한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10. 장사 임욱경과 평양사람들

대동관 문지기사령이 원임대신 정철대감앞에 큰 문을 환히 열어잡았을때 사창고앞에서 꺾인 저편 영문 앞거리로부터 종로일판이 툭 터지게 떠들며 조수같이 밀려오는 백성들의 행진이 나타났다. 행진은 행진이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정제하게 대렬을 지은것은 아니다. 그저 이 거리, 저 골목에서 따라나선 가지각색의 평양사람들이 군중을 이루고 또 제각기 떠들고 웃는 소리가 한데 어울려서 하나의 우렁찬 목소리같이 와— 와— 기세를 올리는 행진이였다. 그 떠들썩한 소리에 맞은쪽 대동문거리와 저편 법수머리까지도 어느덧 백차일을 친듯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행진의 선두는 벌써 대동관앞에 이르렀다.

《대체 웬 변일가?》

큰 문간을 나서다말고 주춤한 정철이와 소란한 소리에 놀라서 달려나오기는 하고도 역시 문안에서 기웃거릴뿐인 대신들중에는 《혹시 민란이나?…》 하는 불안이 없지도 않았다.

《저렇게 백성들한테 떠들리운건 대체 어떤자일가?》

《저건 한 토병이 아니겠소.》

《그러게 말이웨다.》

그들은 이렇게 쑤군거렸다. 토병이라는것은 같은 군사지만 서울 영문들에 있는 경군이라는 군사와 구별하여 시골군사를 이르는 말이다.

큰 거리가 꽉 차서 내려오는 행진의 선두에는 백성들우에 덩그렇게 떠들리워오는 한 군교가 있었다. 그는 인두관만치나 넓고 투박한 오동나무집에 꽂은 검을 무릎에다 비스듬히 뉘여쥐고 여러 사람들이 손과 어깨로 떠받들고있는 가게문짝우에서 얼굴을 숙이고 의젓이 앉아있었다.

《옳지, 저 토병은 어데선가 왜적을…》

《글쎄, 그렇단들 백성들은 이 웬 일이란 말이요?》

그들이 또 이렇게 쑤군거리는 대동관 큰 문앞에서 백성들의 행진은 멎다싶이 했다. 법수머리와 대동문거리에서 아래물이 치받치듯이 맞밀어오는 사람들을 헤날수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이 별장님 말이요?》

그 군교앞으로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사람들가운데서 뛰여나게 큰소리로 웨치듯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별장님은 황주서 왜놈하구 싸워서 그놈들을 죽이구 그놈들한테 끌려가던 우리 사람의 젊은 아낙네들을 구해준 장사요.》

모여든 사람들중에는 《무슨 일이야?》, 《저건 누군데?》 하는 사람도 있었기때문이였다.

《이 임욱경별장이 잘라온 왜놈의 대가리를 볼테면 영문앞에 가보소.》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말도 했다.

임욱경의 당홍동달이 야청군복의 어깨와 소매에는 확 뿜어진듯이 점점이 띠여있는 말라붙은 피흔적이 뵈였다. 그뿐아니라 그가 쓰고있는 갓양태의 한쪽이 갈라져있었다. 그것은 칼과 칼, 그보다도 몸으로써 맞부딪쳐가며 싸운 장렬한 정경을 말해주는것이였다.

《과시 장사다!》

《떠받들만 하다.》

《우리 사람이 다 저러문야…》

《여기서두 보이게 그 별장님을 좀더 버쩍 들어주소.》

이같은 새 사람들의 환성과 갈채로 백성들의 행진은 더욱더 기세가 높아졌다.

《왜놈이 어떤건가 좀 가보자.》 하며 영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

거기는 임욱경이가 베여온 일본군의 수급이 효수되여있었다.

임욱경이가 병사의 령을 받고 황해도쪽으로 렴탐하러 떠난것은 어제 새벽이였다. 림진강을 건는지 열흘나마 일본군이 지금 어디까지나 왔는가? 알려고 영문에서 보냈던것이다.
황해도땅에 들어서서부터는 두셋씩 몇패로 갈려서 수탐하며 나갔다. 임욱경은 봉산읍에서 일본군이 들어온것을 알았다. 돌아올 때는 아직 날밝기 전 새벽이였다. 지름길로 들어서 산을 넘는데 밑에서 웬 녀인의 곡성이 들렸다. 달려가본즉 환갑도 더 지났음직한 꼬부장한 할머니가 홀로 최뚝에 쓰러져서 통곡하고있었다. 사연을 들은즉 같이 살던 작은아들은 며칠전에 군총으로 뽑혀나가고 왜적은 바로 옆동네까지 들어오고 해서 젊은 며느리와 과년한 딸을 데리고 중화고을에 있는 맏아들네를 의지하려고 피란을 가는 길이였다. 급해서 세간도 다 버리다싶이 하고 새벽길을 떠나오는중인데 난데없이 귀신같은 놈들이 여라문놈 쓸어오더니 딸과 며느리를 채가지고 방금 저 뒤산으로 끌고 갔다는것이다.
이런 사연을 말하고 또 땅을 치며 울던 늙은이는 《좌우간 그놈들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런 불한당놈들은 《뒤더수기가 서뽐만큼씩한 놈》이라고 하는데 《그놈들은 상판대기가 서뽐만이나 해보이더라》는것이였다.
귀신이건 사람이건 어쨌든 임욱경은 그냥 둘수 없었다. 그는 자기 동행을 데리고 놈들이 방금 갔다는 뒤산으로 달려갔다. 과연 얼마 안 가서 악을 쓰고 몸부림치는 두 아낙네를 끌고 밀며 나무숲속으로 들어가는 한떼의 왜놈들이 바라보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놈들은 여라문놈이나 되는데 이편은 활을 가진 군사가 단 한명뿐이다. 활을 쏘재도 잘못하면 끌려가는 우리 아낙네들이 상할 념려가 없지도 않았다. 그래서 궁수에게는 짬수를 보아가면서 결창질로 활질을 하라고 이른 임욱경은 우선 벽력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검을 빼들고 달려갔다.
《이놈들아, 섰거라ㅡ》
깊은 골짜구니가 쩡ㅡ 울리는 고함소리에 이쪽을 돌아보는 놈들은 주춤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호같이 뛰여든 임욱경은 번쩍 꼬나들었던 칼로 한놈의 대가리를 내리쳤다. 그놈이 석류같이 갈라진 대가리를 메치며 저희앞에 쓰러지는것을 본 일본군사들은 몇걸음씩 물러서면서 긴칼들을 뽑아들었다. 그중의 두목인듯 한 놈이 뭐라고 지껄이자 놈들은

두패로 갈렸다. 네댓놈은 붙들고있던 아낙네들을 끌고 가고 나머지 네댓놈이 임욱경이앞을 막아섰다.

임욱경은 그동안에도 검을 멈추지 않았다. 놈들이 칼을 들어 자기를 겨눌만 한 짬도 주지 않으려는듯이 휘둘렀다. 맹렬히 휘둘리는 그의 검은 전좌우로 둘러선 그 어느 놈의 칼과도 단 두합을 연해 부딪친적은 없었다. 보기에는 제 기운만 믿고 되는대로 휘두르는것 같기도 했다. 앞의 놈의 칼과 쟁그렁 소리를 낸 그의 검은 어느새 또 등뒤에서 번개불을 그리였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동안에 그의 바른쪽을 노리던 놈의 손목이 칼을 쥔채로 떨어졌다. 그러자 비칠거리며 물러서던 그놈은 날아온 화살에 옆구리를 맞고 쓰러졌다. 여전히 검을 마구 휘두르듯 하면서도 임욱경이가 정작 노리는것은 적의 괴수였다. 놈들중에 뛰여나게 장대한 그자는 긴칼을 뽑아들기는 하고도 한걸음 물러서있었다. 놈이 제딴은 단칼에 요정낼수 있는 결정적순간을 고른다는 눈치다. 한놈의 팔목이 떨어지자 놈들에게는 동작에 한매듭지듯이 주춤하지 않을수 없는 한순간이 있었다. 임욱경에게는 기회였다. 전좌우에 육박해있는 놈들의 칼날가운데로 깊이 뛰여들면서 엇비듬히 내리쳤다. 거의 같은 순간에 놈들의 칼도 그를 향하여 내려졌다. 그때는 마치 좁은 골목에서 길을 어기듯이 저편으로 몸을 날리는 임욱경이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괴수놈의 몸뚱이가 스치며 엇갈리는 순간이였다. 한놈의 칼이 임욱경의 벙거지의 양태를 끊었을뿐 다음순간에는 큰 기둥 하나가 넘어지듯이 일본군사의 괴수가 모짜로 쓰러졌다. 단지 동가슴만이 아니라 그속의 내장까지도 드러내놓고 넘어진 적의 괴수를 보자 놈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또 벽력같은 임욱경의 고함이 들렸다. 우리 아낙네들을 끌고 가던 놈들은 얼마 더 가지 못하고있었다. 두 녀인은 끌려가던 숲속에서 잡히는대로 나무 하나씩을 팔다리로 감듯이 그러안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을 끌어가던 놈들도 이편에서 벌어진 격투에 더 정신이 쏠렸던것이다. 아차아차하는 동안에 한놈의 팔이 떨어지고 종당에는 저희 괴수가 넘어가고 그러자 또 산이 쩡 울리게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조선장사앞에 기가 질린 놈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듯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편에서는 우리 궁수의 화살이 날기 시작했다. 두세놈이 맞았다. 그러나 놈들의 옷은 원체 치수라는것이 없이 후렁후렁한 후리매라 달아나는 바람에 등에 바람이 풍겨서 뒤로 날아간 화살은 잘 안 받는 모양으로 살이 꽂

혀가지고도 나무숲속으로 달아나버리고말았다.
두 녀인을 궁수와 함께 먼저 보낸 임욱경은 적들의 수급을 셋중의 둘만을 베였다. 첫번 놈은 골이 갈라져서 지저분하기때문에 그냥 버려두고 말았다. 성하다는것도 꿈자리가 사나울것이였다. 상투밑을 미노라 하기는 한 모양인데 이마라 할것없이 통 내려밀어놓은 놈들의 상판은 정말 서뿜만이나 해보이는것이 아주 흉했다.

임욱경이와 궁수는 중화읍까지 안동해온 세 아낙네들과 작별하고 돌아왔다. 그들이 대동문나루를 건너서자부터 우리 군사가 일본군사의 수급을 가져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임욱경이가 영문에 들어가서 다녀온 보고를 하고 나왔을 때는 그앞의 거리에는 이미 터지게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저마다 가까이 가서 보려는 사람들은 밀고 당기고 붐비였다.
《그 별장님을 다 보게 어느 지붕에라두 좀 올려세울수 없소?》
저편 끝에서 이렇게 웨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말 그렇게라두 합세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틔워서 우리앞으루 지나가게라두 하든지 무슨 변통을 대야겠소.》
이같이 들고일어나듯이 여기저기서 떠들었다.
《저건 뭐냐?》
《거참, 굿하다 쾡이다리 아닌가.》
또 이런 소리들이 났다. 사람들의 머리우로 큰 가게문짝 하나가 둥둥 나뜨듯이 앞으로 나가는것이 뵈였다.
《이제 저 가게문짝에다 그 별장님을 올려앉혀서 떠받든댄다.》
앞에서 이런 말이 전해왔다.
《거 누군지 그럴듯한 수를 냈다.》
《참 고마운 사람인데!》
사람들은 발돋움을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 군교가 속히는 떠오르지 않았다.
임욱경이가 그럴수 없다고 고집하기때문이였다.
《아니, 이건 우리 몇몇 사람만이 생각한 일은 아니웨다.》
가게문짝을 가져온 사람들의 말이였다.
《별장님이 정 그렇게 고집할테면 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구 하소.》

임욱경은 더 사양할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우에 덩그러니 떠올랐다. 환성이 일어났다.
평양사람들의 행진은 이렇게 시작된것이였다.
리순신장군을 존경하고 신각을 애석히 여기고 류극량을 칭찬해온 사람들은 지금 또한 쾌하고 미더운 사람을 직접 자기네가 맞이하게 된것이 기뻤던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한갈피 더 번지고보면 지금 동요하는 대동관에 대한 격려이고 경고이고 시위라고도 할수 있었다.
수도의 소위 구중궁궐이였다면 모를가. 발딱한 대동관의 동향은 어느 대신이 어떤 말을 했다는것까지도 곧 알려지는 형편이였다. 물론 지금 그런 말을 입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다. 자기네가 지금 대동관사람들에게 《좀 봐라!》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식이 없을리가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단지 임욱경을 칭찬하는 환호만이 아니라 환호성을 올리는중에 문득문득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씻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감격이 지나쳐서 그렇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른다. 물론 그렇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우리 백성들은 이렇건만…》하는 울분과 흥분때문에 더욱 뜨거운것이 아닐수 없었다. 그들의 감격과 아울러 이같은 울분과 흥분으로써 그들의 행진은 더욱더 활기를 띠고 기세가 오르게 된것이였다.
도중에서는 《자, 나두 한몫합세다.》하며 임욱경을 떠받들려 나서는 사람이 뒤를 이었다. 종로로 꺾어드는 어름에서 《이번엔 중두 한몫 나섰다!》 하는 소리가 났다. 우선 그 복색이 표가 나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거 생불인가?》
《아니, 돌중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말로 떠드는중에 그 앙천대소한다는 격인 법근이의 뢰락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대사가 수굴 하는데 주머니에 솜이나 두툼히 둬서 하나 기워줘야갔다.》
누가 또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은 더욱 웃었다. 이 행진에는 이런 롱담과 웃음도 있었다.
지금 행진이 멎다싶이 한 관앞거리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우로 허연 사기병과 꺼먼 질그릇병들이 몇이 떠들려왔다.

《우리 별장님한테 술 한잔 드리게 길 좀 내주소.》

술병을 치켜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오는 그들의 손에는 긴 문어발이나 넙적한 암치 같은 마른안주감도 들려있었다.

임욱경의 앞에는 저마다 따라서 내미는 술보시기들이 많았다. 임욱경에게 권할 차례가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떠받들고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잔을 주기도 했다.

《여기서 이럴것이 아니라》는 한가지 새로운 공론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길을 틔여서 행진은 다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주복아, 너두 오너라. 이 별장님은 너두 알지 않니?》

임욱경이를 떠메고 걸어가면서 일변 큰 보시기의 술을 들이키던 법근이가 웨쳤다. 앞에는 전주복이가 있었다. 칠성문밖에서 뒤늦게 소식을 듣고 구경왔던 주복이는 아닌게 아니라 떠받들리운 군교가 낯이 익어서 더 자세히 보려고 앞으로 나섰던것이다. 지난 5월 초닷새날 구골에서 초면이지만 같이 한잔하자던 그 사람이였다. 주복이는 한번 괴춤을 추켜올리고 법근이와 나란히 들어섰다.

행진은 법수머리를 지나 륙로문 선창안의 넓은 마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배길로 들어오는 외곳 사람들을 맞는 려각과 큰 주막들이 있었다. 산골에서 내려온 동나무, 장작배와 바다에서 들어온 고기배의 배사람들이 많았다. 양덕, 맹산에서 내려온 떼목군들도 있었고 사투리 다른 남도배군들도 있었다.

임욱경을 들여앉힌 3간통간의 큰 술청은 앞뒤뜰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찼다. 멍석과 섬거적 같은것으로 있는껏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서 맨땅에 앉거나 선채로 술잔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안팎에서 술잔을 드는 사람들은 대개가 두자짜리 상목을 한끝이나 혹은 두끝씩 술청 부엌과 통하는 새문턱에다 얹어놓았다. 거리에서 좌고를 보는 장사치들이 많았다. 보통벌과 강건너 동촌에서 들어온 농군들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는 개켰던 자리가 노랗게 쩔은 중치막을 떨쳐입은 늙은 생원님들도 있었다. 또 상목 한끝을 갖다놓고 문밖에서 임욱경을 한참 들여다보기만 하고 돌아가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어떤 깐깐한 사람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나두 상목 한끝 놨으니 별장님이랑 오늘 수고한 장사님네한테 한상 좋이 차려드리소.》하는 말에 무치는 고기를 주물던 주모

가 《걱정마소. 우리두 이 손님네한텐 장사두 안합네다.》 해서 술청안팎이 웃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게 뒤섞여 돌아가는 틈에 한몫 끼여들어 잘 먹고 입만 씻고 돌아서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지만 술도 고기도 풍족했다.

11. 팔씨름

긴긴해도 기울었다.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술청안에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남은 사람중에는 그나마도 여기저기 쓰러져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사람이 많았다. 법근이도 쓰러진 축의 하나였다. 임욱경이와 한번 검술을 겨루어본다고 뽐내던것도 다 잊어버리고 코를 골았다.

임욱경이도 어지간히 취한 모양이였다. 돌아오는 잔을 사양치 않고 받아온 그는 지금은 잔을 받아든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서 혼자소리로 《이런 고마울법이… 이런 고마울법이…》하고만 있었다. 그때 《별장님! 우리 팔씨름이나 한번 합세다.》 하며 나앉은 사람이 있었다. 전주복이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앉고 빠져나가서 지금은 거의 맞방치질이나 다름없이 큰상에 마주앉아 임욱경이와 잔을 주고받던 전주복이는 잔을 든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서 어깨를 후두두 떠는 임욱경이가 금시 또 흑흑 느껴울것 같기도 해서 몹시 송구해졌던것이다.

《팔씨름? 그래봅세다.》

임욱경이는 금시 히죽이 웃으며 들었던 잔을 쭉 들이키고나서 주복이와 같이 큰상을 맞들어 치워놓았다.

《야ㅡ 임별장하구 쇠주머구하구 팔씨름이다!》

문밖에서 기웃거리던 아이들이 떠들었다. 우선 동네아이들이 달려왔다. 취해서 쓰러졌던 사람들중에도 퍼떡퍼떡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는이들이 있었다. 이웃아낙네들까지도 주인댁네와 같이 부엌문설주에 삐쳐서서 들여다보게 되였다. 어느덧 앞뒤문에는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들로 꽉 차게 되였다.

3간통간방이 좁달만치 다리들을 내뻗고 임욱경이와 전주복이가 마주 엎드린 방가운데는 맞거머쥔 두주먹이 한덩어리가 되여 불끈 솟았다.

목이 점점 다발아지고 굵어가는 두사람의 머리는 차차 수그러졌다. 그

대신 더욱 높이 솟아오르는 주먹과 팔뚝에는 매듭이 진 칡넝쿨같은 피대가 툭툭 튀여올랐다. 비켜서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못지 않게 깔힘이 씌였다. 통나무를 결어트는듯 한 두팔뚝은 어느 하나든 으쩍 소리를 내며 퉁겨지고야 결판이 날것 같았다. 빽걸린 두팔뚝은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끙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런 침묵에 오히려 어떤 긴장을 느꼈던지 코를 골던 사람들까지도 거의다 일어나 앉았다. 법근이만은 눈을 떴다가 《아, 자식 한다는짓이…》 하고 쯧쯧 혀를 차면서 돌아누웠다.

마침내 일시에 큰숨을 내쉬는 사람들의 와ㅡ 소리가 났다.

《졌소.》 하며 임욱경이가 먼저 일어나 앉았다.

그는 또 곧 일어서며 말했다.

《저리 나가봅세다.》

주복이는 그를 따라 안뜰로 나갔다. 뜰 한가운데 놓여있는 떡돌을 임욱경이가 먼저 들었다 놓는다. 전주복이도 들었다 놓았다. 이번에는 임욱경이가 들고 허리를 폈다가 놓았다. 주복이도 그렇게 했다. 임욱경이가 이번에는 떡돌을 번쩍 들어 머리우에까지 추켜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주복이도 지지 않았다. 결국 비기고만셈이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리 긴장하지 않았다. 떡돌이 번쩍번쩍 들릴 때마다 혀를 차고 웃기도 했다. 구경군들은 《자, 이번엔…》, 《또 이번에두…》 하는듯 한 임욱경이보다도 그에게 지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더 가분가분히 쳐드는 주복이에게 더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긴장했다. 닝큼 방안으로 뛰여들어갔던 임욱경이가 검을 들고 나왔다. 그는 제 승벽을 누를수 없는 모양이였다.

《자ㅡ》

검을 뽑은 그는 그것을 전주복에게 들려주고 자기는 옆에 빨래줄을 뻗쳐세운 장대를 지끈 분질러서 한토막을 들고 마주섰다.

주복이는 어리둥절했다. 제 손에 들린 검날과 멀찍이 둘러선 사람들을 번갈아 볼 때 《이 자식아! 이번엔 네가 졌다, 져서ㅡ》 하는 법근이의 큰소리가 들렸다. 법근이가 떡돌에 놓여있는 집에 검을 꽂아 돌릴 때 임욱경이도 껄껄 웃었다. 방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다시 잔을 돌리기 시작했다. 몇순배째 돌아오는 잔을 받아든 법근이는 문득 《아뿔싸!》 하고 무릎을 쳤다.

《깜빡 잊었군. 임별장과 한번 겨뤄본다던걸… 아까는 그만 임별장이

남에겐 검을 주고 이편은 나무때기를 들고나서는 바람에 기가 눌려서 그런 생각두 못했소.》
《아까는 내가 정말 애놈들같이 승벽을 부렸나부웨다.》
임욱경은 주복이를 보며 웃었다.
《너는 검을 들려주는데두 한번 내리쳐보지두 못해?》
법근이는 주복이를 보며 핀잔을 주듯 했다. 주복이는 손부터 내저었다.
《그러다 사람을 조금이라두 다치면 어떡할라구… 말말아, 난 김매다 호미날에 지렁이만 찍혀두 밥맛이 없다.》
《거 혹게 나와 갈소우다.》
이러한 사투리를 쓰는 임욱경은 압록강변의 벽동사람으로 전주복이와 같은 한 농민의 아들이였다. 어려서부터 군적에 들어 소위 강변 토병이 된 그는 예전부터 압록강을 넘나들며 우리 국경지대를 로략질하는 녀진들과 비록 규모는 작으나 자주 일어나는 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우리 군사중의 한사람이였다.

12. 서산대사

오늘은 초복이다. 초복물을 낸다는 시늉이라도 하는셈인지 어제 밤에는 오래간만에 한소나기 비가 왔다. 오랜 가물에 시들었던 동금강암의 동구안팎의 나무숲은 어제 본 그 숲이건만 한밤사이에 더욱 깊어진듯 청청한 록음으로 소생했다. 이제 떠오르는 아침별을 받으면서 잎잎이 청룡의 비늘같이 빛날 대추나무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꽃향기가 그윽하고도 한층 더 싱그럽게 풍겼다. 산새들은 숲속에서 가지와 잎 갈피갈피로 스며드는 맑은 려명의 빛을 반겨 지저귀였다.
마침내는 훤히 안개가 트이는 동녘의 먼 산마루로부터 금빛화살같은 광명이 구름을 꿰뚫어 퍼지기 시작하자 어둠과 안개속에 잠겼던 지상에는 간밤의 비로 멱감은 산과 들이 눈부신 연두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새로 창조된듯 청신한 아침풍경이였다.
그렇듯 맑은 산과 넓은 들에 생기를 돋우는 새 해발은 이쪽 산중턱에 자리잡은 동금강암 작은 암자의 열어젖힌 법당안에도 비껴들어서 마치 태

고적부터 세보고 꼽아보아도 셈이 안 닿는 무엇이 있어서 언제까지나 그 한가락을 눌러짚고 궁리하는듯 한 불상의 금박올린 손은 더욱 커뵈였다. 중들은 그앞에서 념주알을 세여넘기면서 일종의 애수를 띤 나직한 소리들로 불경을 외우고 혹은 《관세음보살!》을 찾기도 했다. 그들이 피우고 뚜드리는 목탁소리와 목향냄새까지도 역시 창연하고 태고연한 감각이였다.
그 법당 앞뜰에서 돌층계에 올려놓은 한발의 신들메를 매고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한 로승이 있었다. 그의 등뒤에서 머리를 숙이고 합장했다가 《서산스님께서 떠나시오.》 하며 고개를 쳐든것은 편석대사였다.
법당과 큰방에서 뜰로 내려와 합장하는 승려들에게 마주 합장하고 돌아선 서산대사는 좁은 마당귀에서부터 바위짬을 아로새겨난 비탈길에 지팽이를 가분가분 옮겨짚으며 내려갔다. 비록 학같이 수척하고 키도 자그마한편이지만 살대같이 바른 자세와 너그러운 장삼으로써 오히려 풍채가 표일한 그의 행보는 지금 일흔두살의 로인이라고는 할수 없을만치 한발걸음의 서슴도 뒤뚝임도 없이 진중하면서도 가벼웠다.
동금강암의 동구는 한가닥 내물을 아홉번 건는다는 격의 구곡양장 깊은 산속은 아니나 역시 될수록 인가근처와는 멀리 절터를 잡는 중들의 취미에 맞는 동구였다. 한가닥 오솔길을 두고 좌우에 우거진 나무숲, 그 밑에는 지금이 제철인 도라지, 칡, 싸리 같은 소탈한 야생꽃들이 피고 그우에서는 갖은 산새들이 남남히 지저귀는 소나무, 대추나무, 떡갈 같은 나무숲으로서 산은 은은하고 산개울 장류수는 잔잔히 흘렀다.
이 담화적인 풍경속에서 안개빛으로 담한 수묵색장삼에다 짤막한 비색가사를 수하고 삿갓을 쓴 한 로승, 이따금 지팽이를 멈추고 서서 동천의 구름을 헤치고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는 그의 눈우에는 백설같이 흰 눈섭이 실실이 드리워있었다. 눈을 내려덮은 긴 눈섭이 만일 그같이 맑게 희지 않았다면 칠순이 넘은 로인의 얼굴은 눈섭만이다싶이 탁하고 음험하게도 뵈였을것이다. 그러나 은실같이 흰 그 장미와 그 그늘밑에 마치도 깊은 샘물에 하나씩 던져진 별그림자같이 빛나는 눈으로써 그의 얼굴은 더욱 맑은 혈색이 어리운 동안이 되였다.
동금강암 동구밖에서 순안읍을 들리지 않고 바로 평양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로 들어선 서산대사는 앞의 고개를 넘으면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동구밖 대추나무밑에는 아직도 한 중이 이편을 향하여 합장한 채 서있었다. 그것은 편석대사였다. 한창 록음이 무성한 때에도 그 원체

만은 고목이나 다름없이 꺼칠한 대추나무밑에서 먹베장삼을 걸치고 그린듯이 합장하고있는 그는 거기서 돋아난 바위모양으로 언제까지나 움직일것 같지 않았다.

《이런 분요한 때에 산을 떠나심은 어떠한 뜻이온지?》

편석대사는 엊그제부터 끈히 물어왔다. 그는 지금도 그런 자기의 의혹을 깨쳐주기를 바라서 서산의 한마디를 기다리는것 같기도 했다.

《그저 한번 가보고싶으니 가는 길이요.》

서산대사의 대답은 이것뿐이였다.

서산이 묘향산 금선대에서 내려온것은 그저께였다. 보현사를 지나 십리쯤 온 길에서 편석대사를 만났다. 서산이 평양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말에 편석은 놀랐다.

《어떤 뜻이온지?》

그때부터 그는 이렇게 물어왔다. 며칠전까지도 평양에서 《누더기중》 혹은 《누더기생불》로 호가 가게 급수공덕을 해온 그는 《지금 평양형편이 어떻소?》 묻는 서산에게 《그런것을 소승이 알수 있습니까.》 했을뿐이였다. 사실 모르기도 했다. 거리에 나다니기는 하지만 오직 보시니, 인욕이니, 정진이니 하는 불승의 여섯가지 계률을 상징하는 여섯총배기 륙바라밀이라는 제 짚신만을 굽어보며 물지게를 지고 이집저집의 부엌을 드나들지 않으면 어데 주저앉아 조을기만 해온 그는 평양에 있으면서도 평양형편을 알리가 없었다. 뿐만아니라 그런것은 선승이 알바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임욱경이가 베여온 수급과 백성들의 행진에 분요와 내지는 피비린내나는 살벌을 느꼈던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한 평양은 더 있을 곳이 못된다고 해서 총총히 떠나 다시 산속으로 찾아오던만치 《그 분요한 평양에를 가신다니 어떠한 뜻이온지?》 하는 편석대사는 단지 자기 스님의 뜻을 알아보고싶어서만이 아니라 《가시지 맙시사.》고 만류하고 반대하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묘향산까지 다 갔던 길을 되돌아서서 스님의 뒤를 따라왔던것이다.

안주성을 서쪽으로 바라보며 지나오던 때였다. 내내 서산의 그림자를 밟지 않을 정도로 따라오던 편석대사가 문득 《스님.》 하고 부르며 한편 길섶으로 비켜서서 합장을 했다.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것을 소승에게도 알려주실수 없사올지?》

그는 돌아보는 서산에게 이렇게 물었다.

《호― 내가 그만 입맥이 없어서…》

서산은 스스로 어이없다는듯이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 지었던 환향시가 생각나서… 아마 그것이 중얼거려졌나보오.》

《예? 환향시오니까.》

편석대사는 자못 의외인듯이 그 숱한 눈섭을 치뜨며 물었다.

《아직 그런 이야기를 안했던가?

일행녀아규창지 학발린옹문성명
유호방통상읍하 벽천여해월삼경

이런 시였소.》

나직이 웃은 서산은 돌아서서 또 걸으며 말을 이었다.

《옛날 고향근처를 지나노라니 그런 생각도 나나보오. 늙었으니까!》

그의 말끝에는 나직한 한숨이 따랐다.

편석대사는 더 묻지 않았다.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그의 얼굴에는 뜻밖이라는것만이 아니라 실망한 빛까지도 뵈였다.

하찮은 늙은 한 행객의 신세로 떠돌아다니던 길에 고향의 어느 한 주막에 들려서 백발이 다된 이웃집 늙은이와 한담을 하던중에 피차 아명을 대고본즉 같이 자란 어릴적 동무라 애놈들이 창구멍으로 들여다보며 키득거리는것도 상관않고 두 늙은이는 하도 반가운김에 또 덧없이 늙은 서글픔에 눈물을 흘려가며 구회를 푸느라 밤새는줄 몰랐다는 환향시는 서산대사가 3년전에 저도 모를 역적루명을 쓰고 한성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이 안주땅인 고향근처를 지나면서 읊었던 시였다. 실지 그런 일이 있었던지 없었던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 몇자 안되는 글에서 옛날 고향과 친구를 그리는 늙은이의 애수를, 그뿐아니라 인생이란 가다가는 그런 뜻밖의 반가운 회우도 있으니 역시 즐겁지 않느냐고 웃을수 있는 한 극적장면까지도 보여주는 시였다.

서산자신도 그 시를 사랑했다. 혼자 읊조리고는 혼자 웃기도 하고 또 한숨을 짓기도 했다. 그뿐아니라 몸은 이미 고목이고 마음 또한 재갈이 식었다(서산은 늙은 자신을 흔히 이렇게 말했다.)고는 하나 그 시를 읊조릴 때면 가슴속 어덴가 온기를 느끼는것이였다. 아직도 그런 온기를 지닐

수 있는 자신이 비록 머리는 셌을망정 마음까지는 세지 않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미덥기도 했던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한끝으로는 《이제 내게 무슨 고향생각이랴.》 하고 웃기도 했다. 중이 된지 50여년, 산중에 들어앉아 일체 속세의 인연에서 해탈한 불보살의 마음을 내 맘으로 하기 위한 선공부를 쌓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때로는 그러한 회고와 추억으로써 창연해지는 애수를 느끼게도 되는 로승은 《내 이 무슨 잡념과 번뇌냐?》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꾸짖게 되고 한편으로는 《두어라.》 하기도 했다.

《정답던 고향을 그리는것은 사람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고향은 그 회상만으로도 그윽하지 않은가!》

그렇기때문에 그는 자기의 회상과 번뇌를 제자앞에서 숨기려고 안했다.

편석대사는 이러한 서산의 심정을 몰랐다. 그렇기때문에 의외이기도 했고 불만이기도 했다.

서산스님의 시라면 일찌기 그가 보여주었던 자락가와 같이 《어데 가 머물러도 그만, 또 가도 천천히 하늘을 우러러 웃고 땅을 굽어 한숨 들이니 천지가 다 내 집이라, 들고나는 문인들 따로 있으랴!》 응당 또 이런것이려니 했던것이다.

서산스님은 이미 속세와 인연을 다 끊고 오직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것만을 념원하는 열반의 경지에 든 대선사 스님이 아니겠는가. 응당 《나》라고 하는 관념을 다 버리셨거늘 어찌 내 고향이라는것이 따로 있긴들 하며 황차 그런것에 대한 집착과 번뇌가 있어 될말인가? 편석대사는 이렇게 생각했던것이다.

그뿐아니라 편석대사는 자기가 존경하고 아끼는 스님이 이 분분하고 살벌한 때에 평양으로 나가는것을 만류하고싶었다. 그래서 다 갔던 향산길을 되짚어 따라오면서 《어떤 뜻이온지?》 하고 끈히 물었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산은 그저 《한번 가보고싶은 길이니 간다.》고 했다. 사실 그랬다. 이런 까닭, 저런 리유가 있어서보다도 서산은 이 국란에 깊은 산속에만 들어앉아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하고싶은대로 해서 잘못될것은 없다. 가는것이 부질없지는 않으리라.》

서산은 이같이 자기를 믿는달가 혹은 유가(유교)에서 말하는 종심소욕이라도 불유규라는 자기의 칠십고령을 믿었을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하고싶은대로 해서 별로 후회한 일은 없다.》는 자신만은 있었다.

이러한 서산스님에게서 자기의 의혹을 깨뜨릴만 한 대답을 들을수는 없

이 오히려 뜻밖의 《아상》과 《집착》과 《번뇌》만을 듣고 본듯 한 편석대사는 선승이 거처할데가 못된다고 생각해서 떠나온 평양으로 스님을 모시고 다시 갈 생각은 없었던것이다.

서산은 편석대사의 불만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한 편석대사를 보는 서산은 사명을 생각했다.

사명대사와 편석대사는 나이도 비슷하고 또 한무렵에 서산문하에 들어온 제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서산문하의 제자라기에는 너무도 그 격과 품이 달랐다. 그보다도 우선 같은 선승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선승다운 중이라면 누구나 편석대사를 먼저 꼽을것이다. 그러나 중도 사람이라는 눈으로 보면 사명당은 사람중에도 사내로 태여났고 편석대사는 배속에서부터 장삼입고 합장하고 나온 중이라고도 할것이였다. 서산대사는 대낮 폭양이 내려쪼이기 전에 길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두리라는 생각에 바삐 지팽이를 옮기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13. 왕 선조와 서산대사

이런 시골길에서는 볼수 없었던 행차가 나타났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그 복색들이였다. 시커먼 털벙거지에 말린 시뻘건 상모를 너풀거리는 구종들이 견마를 잡은 네댓필 말우에는 공작꼬리를 늘어뜨린 안 올린 전립에다 울긋불긋한 동달이 천릭을 떨어뜨린 장령들이 앉아있었다. 그런데 그 행차 맨앞에는 그뒤의 일행과는 달리 소탈하게 차린 한 선비가 있었다.

큰길까지 다 갔던 서산대사는 그가 바로 왕이라는것을 알았다. 역시 한 구종에게 견마를 잡혔을뿐 왕의 위의를 갖출만 한 절월도 일산도 없었고 호위하는 군사는커녕 길잡이 전배 하나 세우지 않았지만 그는 역시 왕이 틀리지 않았다.

보통갓에다 굵다란 모시직령을 입은 왕 선조는 붉은 술띠만 아니면 한낱 유생의 행색이나 다를바없었다. 오히려 그가 탄 말의 굴레 좌우에 세층으로 늘어뜨린 붉은 술과 역시 붉은 실로 수놓은 푸른 가죽다래와 은입사 쇠등자같은 치장으로써 왕의 기마라는것을 알릴뿐이였다. 어제 밤

소낙비에 평양성안은 몹시 질었던 모양으로 행전과 발막신에 진흙이 튄 발로 은입사 쇠등자를 눌러짚고 안장앞턱의 은매미를 두손으로 잡고 앉은 왕은 무슨 생각에 잠긴 모양으로 눈앞에서 까부는 말갈기만을 굽어보고있었다.

몇이랑 안되는 조밭을 사이에 두고 서서 합장하고 섰던 서산이 고개를 든 때는 행차중의 맨끝에 선 정철의 말이 지나가고있었다. 역시 전립이 삐뚜름하니 기울어진 머리를 들어 사면을 둘러보던 그의 눈은 한순간 서산대사의 시선과 마주쳤다. 지금도 취안이 몽롱해서 서산대사를 못 알아보는지 혹은 《이눔! 언감생심 량반을 마주봐? 괘씸한 중놈같으니.》 해서 그런지 흘기듯 목자를 돌리고말았다.

지금 우연히 눈앞을 지나가는 왕과 정철을 보게 된 서산은 3년전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까도 잠간 스친바이지만 그것은 기축년에 벌어졌던 소위 정여립의 반역사건이라는것이였다. 물론 여기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 서산대사와 왕 선조와의 교섭이 그때 시작되였고 또 앞으로도 있는만치 극히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둘 필요는 있다.

한때 벼슬을 하다가 무슨 불만으로 해서인지 호남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야의 검객, 력사들을 규합하기 시작한 유림출신인 정여립이란이가 있었다. 그의 공모자라는것이 뚱딴지로 황해도 어느 고을에서 드러났다는것이 사건의 발단이였다. 그러니만치 정여립의 일당을 잡으라는 왕명을 가지고 달리는 선전관들의 말발굽소리는 저 호남 한끝에서 이 서도에까지도 요란히 울렸고 금부라졸은 안 가는데 없이 8도에 퍼졌다.

정여립은 잡으러 간 금부도사앞에서 자결하고말았다.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써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확대되였다. 근 2년간에 걸쳐 수천명의 희생자를 내게까지 그 사건을 확대시킨것은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는 당파싸움이 아닐수 없었다. 역옥(반역죄사건)사건의 장본인인 정여립이 동인이였던만치 들고일어난 서인들은 붙는 불에 키질을 하는 격이였다. 서인의 거두로서 추관이 된 정철은 하나의 염라대왕으로 나타났던것이다.

2년간이나 끌면서 나날이 확대된 살륙의 참화는 마침내는 동인에게만 한한것이 아니였다. 말바로 봉건적암흑시대중에도 피비린내나는 공포시대의 막이 열리였다. 사람의 운명은 조석을 헤아릴수 없었다. 더우기 다소나마 누구라고 세상에 알려진 사람의 생명은 보존하기 어려웠다. 언제 누

구한테 먹혀서 끌려갈지 몰랐다. 누구와 사혐이 있었거나 시기를 받아온 사람이면 《저자도 그 일당이라》는 고자질 한마디로써 당장 염라대왕의 손으로 넘어간 례도 얼마든지 있었다.

서산대사도 그 례의 하나였다. 무업이라는 중의 무고를 받아 한성으로 잡혀갔다.

금부라졸들에게 꺼들려 발이 땅에 닿는둥마는둥 끌려들어간 대궐안의 한 전각, 그것은 이번 반역사건의 련루자들을 왕이 친히 국문하기 위해서 좌기를 차린 국청이였다. 문간에서 거적을 씌워 묶어내는 시체와 길을 어기며 들어선 넓은 뜰, 그 한가운데 놓인 피에 젖은 형틀 좌우에는 곤장과 철퇴와 은빛, 금빛으로 번뜩이는 도끼들을 든 금부라졸과 군사들이 늘어섰다. 삼엄한 국청의 위의라기보다도 인간도살장의 축축한 광경이였다. 들어서자 우선 코를 찌르는것은 피비린내였다. 세모래를 섞어 편 황토와 박석들에는 꺼멓게 멍이 들었을뿐아니라 아직도 생생한 선지피와 살점들까지도 널려있는것이 보이였다. 물매질을 하듯이, 아닌게 아니라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물을 끼얹어가며 철썩철썩 내려패는 곤장끝에서 튀여난것이다.

서산은 거기서 피에 젖은 형틀우에 동그라니 올려매인 몸으로 왕을 보게 되였던것이다.

왕은 쳐다보이는 전각대청 한가운데 놓인 호상에 걸터앉아있었다. 정철이도 그때 본 사람이다. 그는 사헌부, 사간원, 형조의 당상관들과 또 한옆에 지필묵을 갖추어놓고있는 문사랑과 형조, 승지들과 같이 분합밖에 부복해있었다.

문초는 시작되였다. 국청 돈대우에 대령한 선전관이 전상의 말을 받아서 《네 듣거라.》, 《바로 아뢰여라.》고 연거퍼 내리는 호령소리는 추상같았다.

추관 정철은 처음부터 서산에게 있을리 없는 정여립의 관계를 추궁했다. 그러다가 홀출 《이 시는 어떤 심술에서 나온것이냐?》고 묻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산이 젊었을 때 금강산 향로봉에 올라가서 얻은 한수의 즉흥시였다.

일찍부터 한 선승으로, 한 시승으로 명성이 높았던 서산을 시기해온 중 무업은 서산이 역모에 참가했다는 증거로서 그의 《향로봉 시》를 들었던것이였다.

추관 정철은 그 시의 《만국의 도성은 개미집같고 백으로 천으로 꼽는 뭇호걸이라는것들은 초파리같다.》는 구절에서 서산의 반골이 드러났다는 것이였다. 그러니까 그런 반골이 있는자가 이번 역적모의에 참가하지 않았을리가 없다는것이다.

국문은 여러날 끌었다. 그동안 서산의 여윈 몸에는 곤장이 여러번 내려지기도 했다. 혹시 왕이 자리를 떠난 때면 정철은 느물거리는 태도로 제 모가지를 도리는 손짓을 해보이며 죽음으로써 위협을 하기도 했다.

추관 정철을 위시해서 이번 역옥사건을 맡아 치죄하는 조정의 관료들이 서산을 다루는데는 단순히 역모의 한 혐의자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이하의 천인으로 대했던것이다. 그것은 그럴밖에 없는 일이기도 했다. 조선봉건왕조에서는 제도상 중의 신분은 천인이였다. 세나라시대로부터 고려말에 이르기까지 봉건량반계급의 지배적사상이였던 불교를 그 지위로부터 끌어내리고 그대신 유교를 지배적사상으로 대치하기 위한 정책은 조선봉건왕조 5백년간의 일관한 정책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의 사찰을 축소하고, 그 물질적기초인 토지를 박탈하고, 승려의 수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중들로 하여금 수도에는 발을 못 들여놓게 하고, 중 아닌 속인에게는 어린 애들한테까지라도 허리를 굽혀 절을 하도록 강제했다.

서산도 그러한 천인의 신분에 속하는 중인것은 물론이였다. 그러므로 중 서산을 치죄하는 정철을 비롯한 유림출신의 관료거두들은 우선 자기네와 적대되는 이교도를 그리고 또 량반으로서 천인을 대하는 립장이 아닐수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서산이 한낱 동냥중이였다면 또 모를가. 그렇지 않고 그는 불문의 한 거두일뿐아니라 그 덕망으로, 그 인품으로, 그 시문으로 일반사람들에게까지도 명성이 높다는것은 아니꼽고 괘씸한 일이기도 했던것이다. 그러니만치 서산을 다루는데는 더 엄혹했을뿐만아니라 자연히 야유와 랭소가 없을수 없었던것이다. 그같은 야유와 랭소는 정신적고문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러한 국청에서의 서산의 태도와 초사에는 이채가 있었다. 그의 대답은 대개가 짧았다. 묻는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단마디뿐이였다. 왜 없을밖에 없다든가,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든가 하는 설명이나 변명 같은 군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뿐아니라 그의 태도는 지금 자기가 친국을 당하는 자리에서 피에 젖은 형틀에 매여있다는것을 잊은듯 한 때가 많았다. 그렇다고 망연자실한 상태가 아니라 묻는 말에 대답한 다음

순간에는 곧 자기 세계로 돌아가서 그때까지 해온 생각의 실머리를 다시 이어가는듯 한 태도였다. 또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거나 표정이 심각해지는것도 아니였다. 오히려 그는 많이 하늘을 우러러보는편이였다. 그렇다고 만사를 다 허무에 돌린다거나 혹은 허의자탄하는 표정도 아니였다. 때마침 가을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형틀우에서 그 백설같이 흰 눈섭을 들어 맑은 하늘을 쳐다보는 서산은 지금도 지팽이를 가볍게 옮겨놓으며 유산길에 나서기나 한듯이 담담한 얼굴이였다.

그같이 하늘을 많이 보는것은 전상의 왕이나 정철 같은 사람들이 노리는 시선을 피하기 위한것도 아니였다. 그의 깊고 맑은 눈은 서슴지 않고 전상의 사람들을 주시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 때면 마치 서안에 세운 손으로 턱을 고이기라도 한듯이 얼굴도 시선도 표정도 까딱없이 상대방을 응시하듯 바라보았다. 그렇더라도 그 얼굴과 시선에는 당돌하거나 오만한 기색 같은것은 없었다. 무엇을 찾아볼수 있다면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할수 있는 만만한 자신이랄가? 아니, 그 만만한 자신 그것도 그대로 로출된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으로써 안받침된 태연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그같은 태연은 금시 사라지고 바뀌는 표정이나 작태가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인 체중이라고도 할것이였다.

《듣거라. 일찌기 선릉(9대왕 성종)께서 <불도의 페해를 뉘 모르랴. 인륜을 몰각하고 백성의 재물을 탕진하는 그 페해는 양주, 묵덕보다 우심한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단을 숭신치 않도록 하면 그만이지 죽일것까지는 없다.> 하신 전교를 내리시와 너의 불도들의 명맥이 상금까지 부지해오거늘 그 망극한 성은을 저버리고 네 어찌 감히 불궤를 꾀했느냐?》

문초에는 매번 이런 말이 되풀이되였다.

《소승은 념두에도 없는 일이외다.》

그때마다 이같이 단마디 대답만을 해오던 서산이 한번은 문득 말문이 열린듯 한적이 있었다. 《향로봉 시》로 또 추궁을 받던 때였다.

그때도 잠시 하늘을 쳐다보던 서산이 전상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던것이다. 추관들의 심문에 답변한다기보다도 조용한 자기 승방에서 손님을 대하여 자기가 사랑하고 반한 명산이야기를 하는듯 한 말이였다. 그는 금강산과 묘향산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장하다는것을 저자신스스로 황홀한 경지에서 이야기했다.

지금 그 잔잔하고도 또렷한 어음과 말의 억양과 또 이따금 자기 말에

스스로 웃는 나직한 웃음소리를 그대로 전할수 없는 이상 그의 말을 다 옮기는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였다.

독자들중에는 서산대사가 명산을 찬양한 시를 알고있는 사람은 아실것이다. 산중에도 금강산과 묘향산을 사랑한 그는 또 그중에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묘향산이 더욱 좋았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스스로 서산이라고 불렀다. 묘향산을 일명 서산이라고 불렀으므로 자기의 호를 《서산》으로 삼았다.

살벌한 국정에서 형틀에 결박되여 앉은 서산이 문득 금강과 묘향의 례찬을 시작했다. 그것은 《홀출 금강산》이라고도 할수 있는 일이였다. 그러나 국청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담담한 그의 이야기는 결코 장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산의 웅건한 규모와 구름우에 솟은 만장봉상에서 굽어보는 천인계곡과 광활한 전망은 듣는이들의 눈앞에도 방불히 떠오르는듯 했다.

그같이 수려하고 웅대한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스스로 겸허할줄 아는 덕을 배우게도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여운이 들리는듯도 한 서산의 이야기에 누구보다도 움직인것은 그때의 문사랑 리항복이였다. 그는 우선 놀랐다. 또 한끝 서산이라는 중이 괘씸하기도 했다. 어느 앞이라고 감히 그렇게 태연할순들 있으며 게다가 또 《홀출 금강산》격으로 국청을 우롱하다싶이 하는가? 그만치 담대한 위인인가? 혹은 교활하달만치 로회하게 늙은 중놈인가? 어쨌든 보통은 아니다. 역모라는 죄명을 쓰고 그 피에 젖은 형틀에 올려매우기만 하면 누구나 낯빛이 흙빛이 되고 반죽음이 되다싶이 기가 꺾이는것이 보통이다. 그도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죄가 있건 없건간에 그 형틀에 올라앉았다가 살아나간 사람이 별로 없기때문이였다.

그런데 한날 중인 서산의 그 배짱은? 쉽게 대담 혹은 로회라 하더라도 그것은 놀라운 로회이고 무서운 대담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천치바보든가. 물론 그를 천치바보로 볼 사람은 저자신 천치가 아니면 없을것이다. 어쨌든 당당했다. 매질을 하는 집장사령들까지도 함부로 치기가 어려운 눈치였다. 그래서 때로는 《홀장(때리는 시늉만 하는 매질) 말고 용대없이 치렷다.》 하는 엄포까지도 내렸다. 그러면서도 (어느모로 보나 헛되이 늙은 인간은 아니구나!) 하고 왕을 비롯하여 전상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아니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젊었던 리항복은 류성룡을 찾아가서 일생을 산중에서 늙어온 중이 역모가 무슨 역모며 그의 몇십년전 시를 지금에다 끌어붙이려는것은 억지도 푼수가 있지 않느냐고 분개했다.

류성룡이도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피뜩 정신을 차린듯이 정색한 그는 국청의 문사랑은 그같이 흥분하거나 편벽되여 누구를 두둔하는 법이 아니라고 준절히 일렀다.

《황차 지금이 어떤 때라고…》 하고 뒤를 누르기까지도 했다.

그후에도 얼마 더 끌기는 했으나 서산은 결국 무죄로 석방되였다. 왕의 처분이였다. 그뿐아니라 왕은 서산을 불러 보기까지도 했다. 왕도 이전부터 글 잘하는 시승으로서 서산대사의 이름을 익히 들었던것이다.

편전에서 서산을 불러 본 왕 선조는 한폭의 대를 그려서 그에게 주기까지도 했다. 그 자리에 입대해있던 대신들은 이때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천안을 지척에 뵈옵고 왕의 진필을 받았다! 그것은 궁중 부중의 측근자중에도 흔치 못한 영광이였다. 황차 이제까지 대역죄인으로 치죄받던 중 서산의 처지로서는 마치도 석쇠우에서 타죽어가던 한마리 고기새끼가 피뜩 구름우로 뛰여올라 룡이 된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도 할것이였다. 그것은 놀랄만 한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할것이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놀라운것은 지금까지 죽음앞에서 그랬던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그같은 영광앞에서도 담담한 서산의 태연이였다.

서산대사는 물론 어전에서 갖추어야 할 례법대로 숙연히 절하고 받들었다. 그러나 그뿐, 당연히 그럴만한 감격, 감읍의 눈물도, 이마를 조아리는 소리도 없었다. 선가(불교)에서 이르는바 《불립문자》(불교의 도는 마음으로 전하는것이지 문자로 전하는것이 아니라는 불교의 말) 그대로랄가? 이렇다 하고 자기의 소회를 사뢰는 중언부언 같은것도 없이 담담히 물러나갔을뿐이였다. 그렇듯 표연히 사라지는 그의 먹베장삼자락은 《성황, 성공, 돈수백배》식의 번례다의(번다한 례법과 격식)와 문자들로 가득찬듯 한 이 궁중에다 한가닥 청량한 산바람을 풍겨놓고 가는듯도 했다.

만일 이때 왕이 서산을 알아보았다면 행차를 멈추고 그를 불러 보았을것이다. 서산은 좀만 더 걸음을 빨리 했으면 앞으로 나가서 왕앞에 부복할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왕의 행차를 멈추고까지 할 말이 없었으므로 그저 동안을 두고 경의를 표했을뿐이였다.

(왕과 조정이 참말 평양을 떠나는구나.)
서산은 묘향산에서 또 어제 류한 동금강암에서도 이미 들었던것이다.
(그러면 종당은 어데까지 가게 될고?)
서산은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다시 지팽이를 옮겨놓기 시작했다.

14. 대동강상의 담판 결렬

칠성문으로 들어가던 서산은 뜻밖에 《아, 스님! 스님께서 어떻게…》 하며 놀랜 소리를 지르며 따라나오는 소리에 돌아섰다.
《오, 너 법근이 아니냐?》
《소승 문안드리오.》
《오냐, 너는 여전히 절에서는 볼수 없으니 웬 일이냐?》
서산은 우선 법근이한테서 풍기는 역한 파, 마늘냄새에 자연 이마살이 찌프러지기도 했다. 한편 또 심한 장난꾸러기 애놈을 보는것도 같아서 웃기도 했다. 중이 그런 냄새를 피우는것만도 일종의 파계였다.
《죄송하올시다.》
저한테서는 의례히 그런 냄새가 날것인데다 더우기 산에서 내려오는 스님에게는 그것이 더 역할줄 아는 법근이는 몇걸음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성안엘 가시더래두 지금 한창 더운데 좀 헐하셔서 저와 같이 가시지요.》
법근이는 돌아서서 옆집의 바자문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바니, 우리 스님이 좀 헐해가시두룩 합세다.》
《사람의 집에 사람 들이는데 합세다 맙세다가 왜 있갔노. 어서 들어오시라게.》 하는 늙은이의 대답이 들렸다.
뙤약볕에 50여리길을 걸어온 서산은 쉴 생각이 없지도 않던차이라 따라 들어가는데 《법근이놈이 끌어들이는것이 웬 사람이갔게. 저 같은 중놈이니 그렇갔지.》 하는 젊은이의 퉁명스러운 말이 들렸다.
《파파로승이로군! 어서 들어오우. 우리 저놈은 그만 제 밸풀일 다 못해서 속이 왜서 그러는게니 허물말구 앉으시우.》

이같이 미안쩍어하는 늙은이에게 합장한 서산은 권하는대로 허청간 그늘밑에 깔아놓은 밀짚장석에 앉았다.

《어데서 온 대산지… 어제 우리 성안에서는 큰 란리가 났더라오.》

이번에는 그옆의 마누라가 역시 변명을 하듯이 말했다. 주복의 어머니는 실은 낯선 외간남정이 들어온다는 바람에 자리를 일려다가 들어오는 것이 중이라 그냥 눌러앉았던것이다. 중이라면 사람대접을 않는 풍습이라 내외여부도 없었다.

웃간 문턱을 베고 누워있던 주복이도 고개를 넘싯해보고 다시 누우려다가 늙은이지만 어덴가 보는 눈에 정신이 드는듯 한 그 모습이 보통 누더기중같지는 않은데 호기심이 나서 방문턱에 걸터앉았다.

이때 주인늙은이와 법근이가 서산대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독자들도 알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서 작자도 한몫 들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이 6월 열하루, 사흘전 초여드레날 아침부터 동대원일대에는 일본군사가 들이밀리기 시작했다. 거기는 우리 군사라고는 한사람도 없었다.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대동강에까지 다달은 적들은 눈앞에 평양성을 건너다보면서 넓은 벌판에 대오를 흐트리고 다리쉼들을 하는 판이였다. 그들은 우선 군마들을 밭으로 몰아넣어 아직 청초나마 제법 곡식꼴이 나는 낟알들을 먹였다. 또 장림벌나무들을 찍어다 세우고 솥가마를 매달아놓고는 근처의 집들을 헐어다가 불을 때서 밥을 짓는 한편 저마다 벌거숭이가 되여 대동강으로 뛰여들었다.

이편의 우리 군사와 백성들은 성첩에 붙어서서 처음 보는 산 왜적들의 모양을 구경하게 되였다. 강에서 물장난을 치던 왜놈들은 이쪽 사람들을 보자 감출데를 우야 더 드러내가지고 원숭이들이 흔히 하는 몸짓을 해보이기도 했다.

그중의 한자가 무엇인가 글자를 쓴 나무패를 대동문 맞은편에 드러난 모래불에 세우고 손짓을 했다. 련광정에 있던 우리 평양수성군의 장수들은 한 군사를 시켜 배를 타고 가보게 했다. 그는 글발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내용은 일본군장수의 하나인 평조신이라는자와 적진중에 따라다니는 중 현소라는자가 조선조정의 대표로서 리덕형을 만나보자는것이였다.

지난 아흐레날 리덕형은 대동강 한가운데서 그자들을 만났다.

(임진란에 관한것이면 소설이건 단순한 기록이건 대개는 다 이 면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들을 해온것이기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묘사는 그만두고 골자만을 추리기로 한다.)

리덕형은 사모관대하고 한척 편주에 올랐다. 동행이라고는 지필묵을 갖추어든 박성경이라는 한 군관과 배를 젓는 군사 한사람뿐이였다.

저편에서도 우리가 보내준 배를 타고 마주 왔다. 련광정앞의 강 한가운데서 배전과 배전이 맞대게 되였다. 왜장 평조신과 왜승 현소는 4~5명의 군사들에게 옹위되여있었다.

리덕형은 그자들과 구면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자들은 일본국사라는 명목으로 두번씩이나 한성에 왔던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리덕형은 접반사로서 그자들을 대해왔던것이므로 그자들도 조선조정의 대표로서 잘 아는 리덕형을 만나자고 한것이였다.

《다시 만나게 된 그대들을 전날같이 두 나라의 친선을 의논할수 있는 사신으로서 륭숭히 맞을수 없는것을 유감히 생각한다. 이러한 리유는 그대들이 더 잘 알것이다. 묻노니 일본은 어찌하여 전날의 친선교린의 맹약을 저버리고 명목없는 군사를 들어 이렇듯 전란을 일으키는가?》

리덕형이 먼저 써보인것은 대개 이러한 뜻이였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왜승 현소가 써보인 글은 다음과 같다.

《우리 일본은 당신네 나라와 서로 통할 의사가 있었으나 동래부산서부터 한성에 이르기까지 말을 전해주는자가 없어서 전전하여 사태가 오늘에 이른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지금은 두 나라사이에 의사를 소통할 길이 열렸은즉 곧 군사를 거둔 후에 의논할것이 아닌가?》

《우리 일본군이 조선에 요구하는바는 오직 명나라에 조공할 길을 빌리자는것뿐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동래부사 송상현이가 이미 명백히 한바 있었다.》

이같은 리덕형의 답변에 필담은 잠시 끊어졌다.

지난 4월에 일본군이 동래성을 공격하면서 《길을 빌리기만 하면 무사하리라.》고 써보인데 대하여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는 글로써 대답한 송상현은 끝끝내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한것이였다.

리덕형의 글발을 받아든 늙은 중 현소는 평조신과 한동안 뭐라고 씨부

렸다. 글을 모르므로 지금까지 오고가는 필담에는 마이동풍인양 먼눈을 팔아 평양성을 건너다보고만 있던 평조신은 현소의 말을 듣자 제 울긋불긋한 갑옷같이 낯빛이 변하면서 흥분한 어조로 지껄였다. 그앞에서 백포장삼에 금빛가사를 걸친 몸을 소약하게 쪼그리고있던 현소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일본군사는 오직 앞으로 나갈줄만 알고 한걸음도 물러갈줄은 모른다.》

리덕형은 들고있던 붓을 놓았다. 그러자 배창날이 움직거리는 인기척을 등뒤에 느꼈다. 《일은 틀렸다.》고 본 군관 박성경이가 곧 칼을 빼려는 기세를 보이고있었다. 리덕형은 눈짓으로 말렸다. 현소는 글을 좀 아는 까닭에 비서격으로 따라다니는 한낱 늙은 중이고 평조신은 적의 한 무장이기는 하나 일본에 조공을 바치면서 풍신수길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대마도해적의 한 두목에 지나지 않는 위인이였다. 리덕형은 그깐것인 이자들을 죽여서 적에게 타격을 주기보다 이편의 신의를 떨어뜨리는 손실이 더 들것이라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어쨌든 담판은 결렬되였다. 량편의 배는 강상에서 갈라졌다. 그때부터 일본군은 평양성에 대고 조총질을 시작했다.

15. 일본사무라이의 원흉 풍신수길의 몇가지 문건

《명나라에 조공할 길을 빌리라.》

일본이 이러한 요구를 이번에 비로소 처음 제출한것은 아니였다.

풍신수길은 벌써부터 소위 국서라는것으로써 그것을 강요해왔던것이였다. 단순히 명나라로 래왕할 길을 빌리자는것만이 아닌것은 물론이다. 그 리면에는 어떠한 야망과 흉책이 숨어있었던가.

여기서 몇가지의 문건을 들어보기로 하자. 다음의 문건들은 이번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의도가 어데 있다는것을 수천만어의 해설이나 묘사보다도 더 명확히 형상적으로 보여주는것이기때문이다.

신묘년(선조 24년) 3월에 보내온 풍신수길의 《국서》.

(대강한 뜻을 우리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본국 관백(풍신수길)은 조선국왕에게 글을 올리노라. 우리 나라의 60여 주는 오래동안 서로 쪽나고 싸워서 나라는 어지럽고 강상은 없어졌더니 바야흐로 이내가 어미배속에 잉태하매 해가 어미품속에 들어보이는지라 관상쟁이 하는 말이 《해별이 미치는 곳에 비치우지 않는데가 없으므로 이 아이 자라매 장차 그 어진 이름과 위풍이 사방에 미치리라.》 이렇듯 기이한바 있었으므로 자연히 싸우면 이기고 치매 반드시 얻는바 있어 천하가 이미 평정되고 우매한 백성을 어루만지고 고아들과 짝잃은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백성은 가멸코 나라의 재물은 풍족하여 천지개벽이후 오늘같이 흥성함이 없을지라. 사람의 일생은 백년도 다 못살거늘 내 어찌 이대로 울울한 세월을 보내고만 있으랴. 내 이제 곧 명나라로 뛰여들어가서 중국의 4백여 주, 억만백성으로 하여금 그 풍속을 우리 나라의 풍속으로 바꾸게 하고 우리의 교화를 받도록 할지니 그때에 당신네 나라는 앞장서 들어가도록 하라. 미리 먼 앞날일을 념려하면 가까운 근심이 없는 법이라 내가 원하는바는 오직 내 아름다운 이름을 3국에 떨치려는것뿐이다.

신묘년 1월 18일에 풍신수길이 일본전국에 내린 명령서.

전국 각 진영의 군사 50여만명은 래년 임진년 봄까지 떠나도록 할것. 모든 제후들은 각각 3년 먹을 군량을 마련하라. 먼저 고려(조선)를 정복하여 그곳으로 일본백성을 다 옮겨서 밭갈고 씨뿌리게 하여 장차 당(중국)을 칠 기틀을 삼을것이다. (중략) 당의 천하는 내 소매속에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명령서.

낮에는 고려의 성들을 빼앗고 빼앗은 성을 튼튼히 쌓는 일은 밤에 하라. 한시각이나마 잠시라도 머무는것을 허락치 않는다. 겨자 한알까지도 다 주으라. 싸움터에 나서서는 한놈이라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된다. 산이거든 산을 넘고 물이거든 물을 건느되 비록 함정을 만나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라고 개구를 하거나 발걸음을 멈추는것을 용서치 않는다. 오직 앞으로 나갈따름일뿐 죽은자만이 뒤에 남으라. 만일 뒤로 물러서는자가 있거든 왕후장상이라 할지라도 그 목을 베이고 그 권속들을 전멸하리라.

그해 12월에 풍신수길은 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즉 《나라를 통 기울여 다 갈것이다. 부자형제를 막론하고 한사람도 집에 남아있지 못하리라.》는것이다.
또 다른 문건에는 이런것도 있다.
즉 자기네 몇개인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전국백성을 깡그리 전쟁마당으로 내몰려는 풍신수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여러곳 제후들은 모두 이것이 무슨짓이냐? 하여 관백에게 반기를 들고일어날 쑥덕공론을 하게까지 되였으므로 풍신수길은 제자리를 비여놓을수가 없어서 제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건너오지는 못했다는것이다.

16. 행궁앞의 평양인민들

왜군에게는 활, 칼, 창 이외에 우리한테 없는 조총이라는것이 있었다. 새를 쏜다고 해서 조총이라고 하는 화승총이였다. 이전에는 우리도 있었다. 고려 말엽에 최무선장군이 자기가 손수 만든 화포로써 일본해적을 소탕한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그뿐아니라 고려군대에는 화통도감(화약 제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두어 군사를 훈련했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 초기에도 역시 그랬다.
지금도 리순신장군의 통솔하에 있는 우리 수군에는 대포까지도 있다. 그러나 그외의 일반군사들은 없기도 하려니와 어떻게 쏜다는것조차도 몰랐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2백년동안이나 《태평성대》가 계속되는 바람에 《백성들은 병쟁기를 익히지 않았다.》고 자랑인지 한탄인지 모를 소리들을 했다.
마른벼락이라도 치는듯 한 소리를 내는 일본군의 조총알은 강을 건너 대동문과 련광정기둥에 두세치씩이나 들여박히기도 하고 더 멀리 날아와 대동관의 기와장을 부시기도 했다.
이미 행장을 다 차리고 발을 저겨딛고있던 왕은 더욱 바빴다. 그는 일본군이 동대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여드레날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길을 막아서 못 떠났다.
《이 성을 끝까지 지키자고 하여 피란갔던 사람들까지도 도루 들어오게

해놓고 이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니 그럴법이 있소.》

이같이 항의도 하고 탄원도 하면서 길을 막는 백성들에게 왕은 《안 가겠다.》는 언질을 주었던것이다. 그러나 뒤구멍으로 령을 내려서 자기네의 길을 막았던 백성들중의 주동자라고 지목할만 한 세사람을 잡아 목을 베이게 한 왕과 그 측근자들은 어제 열흘날 또 떠나려고 했다.

식전부터 거리에 군교들이 설레더니 구종들이 안장을 지은 말들을 채찍질해가는것을 본 성안백성들은 또 왕의 행궁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왕이 또 떠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성안, 성밖에서 흥분한 사람들이 쓸어들었다. 《제발 떠나가시지 말고 우리 백성과 함께 이 성을 지켜지이다.》라고 탄원하는 백성들에게 《안 간다.》는 언약을 하고는 사람을 셋씩이나 죽이더니 이제 또 떠나고야만다? 백성들은 격앙하지 않을수 없었다.

행궁 앞거리에는 창을 든 군사들이 좌우로 늘어서있었지만 사처에서 밀려드는 사람들의 물결을 막아낼수는 없었다. 벌써부터 몇몇 금관자, 옥관자짜리들이 말을 타고 나선 행궁문앞에는 중치막소매끝을 당겨쥔 두손을 땅에 짚고 꿇어앉아서 갓쓴 머리를 조아리며 중언부언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왕이 평양에 오자 불러 보았던 늙은 선비들도 있었다. 또 그 등뒤에는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넉두리를 해가며 우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어드러니 이때껏 피란두 안 가구 하늘같이 믿구있는 우리 백성들을 버리구 간단 말이요.》

《나라님(왕)도 가구 량반님네들도 가면서 우리 백성들 보구 남아있으라니 이럴법이 있소?》

이러한 할머니들의 넉두리에 그 등뒤에 빽빽이 둘러선 사람들중에서는 《그 할머니 말 잘했소!》 하기도 하고 《량반놈들, 너희두 같이 죽자꾸나야.》 하는 악에 받친 고함소리가 나기도 했다. 저마다 웨치고 떠드는 수많은 사람의 소리는 하나의 거창한 아우성으로 화하여 마치 바다우를 불어가고 불어오는 회오리바람같이 사람의 물결을 더욱 격동시켰다.

그런중에 《너희놈들은 뭘 하느냐.》 하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문밖에 나선 관원들중에 맨앞에 서있던 선전관이였다. 혁을 당겨쥔 마상에서 한손에 채찍을 들고있는 그자는 자못 귀찮다는듯이 량미간을 찌프리고 백성들을 흘겨보면서 《썩썩 길을 내도록 쓸어버리지 못하느냐!》고 군사들

에게 버럭버럭 고함을 질렀다. 어쩔수가 없어 한동안 멎었던 군사들은 할수없이 이번에는 사정을 안 본다는 투로 창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눈을 감고 내두르는 창날에 사람들은 뒤로 움치기 시작했다. 관원들앞에는 얼마의 공간이 생겼다. 그러나 물이 찐 자리에 우둑우둑 남아있는 큰돌들과 같이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것은 몽둥이나 도끼 혹은 검을 뽑아든 몇몇 장정들이였다.

휘두르는 군사들의 창끝이 그들에게로 육박해갔다. 덜렁 몽둥이를 떨어뜨린 한 장정의 소매속에서 피가 손등을 적시며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자 피를 보고 무춤한 사람들 틈에서 결쇄기치듯 한 검이 그 창날을 창대로부터 뭉청 잘라버렸다.

《잘한다!》

《거 씨원하다.》

《승검술 돌중이 오늘은 쓴다!》

몇순간 무춤했던 군중들속에서는 금시 또 이렇게 웨치고 떠드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웨치는 소리들에 살기는 없었다.

승검술 법근이가 찍은것이 사람을 찌른 군사의 팔이나 목이 아니고 그의 창대였으므로 그 류혈사건을 한날 실수로 만들었다. 우선 사람들을 웃기였기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제 팔의 상처를 이편 손으로 눌러잡고 서있던 장정부터가 창날이 뭉청 달아난 자루만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젊은 군사를 보고 허허허 웃었다. 군중들도 따라웃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더라도 이제는 한낱 몽두깽이가 된 창대를 들고 멋적고 미안한 낯으로 울상이 되다싶이 하고 서있는 군사를 용서하는 웃음들이였다. 법근이도 한번 크게 웃고는 다시 군중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이같은 웃음으로 흥분과 격앙과 살벌을 풀어버리는 군중들의 허심한 상태를 기화로 삼으려는자가 있었다. 바로 선전관 다음에 섰던 관원이였다. 그자는 견마잡은 구종에게 말을 몰라고 재촉했다. 말은 몇걸음 나갔다. 그러나 길은 트이지 않았다.

웃던 군중들은 행차가 움직이는것을 보자 다시 앞을 막았다.

《썩썩 길을 트이지 못할가-》

버럭 호통을 뽑은 그자는 선전관의 손에서 채찍을 앗아들고 사람들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아이구구ㅡ》
넉두리를 하며 울던 한 할머니가 문득 비명을 지르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그자의 말앞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저마다 큰소리, 긴사설, 외마디소리로 웨치고 떠들던 군중이 일시에 한입으로 지르는듯 한 《와ㅡ》 소리가 터졌다.
말우에 덩그러니 앉았던 그자가 한손에 채찍을 든채 물우에 짝배기로 뜨기나 한듯이 번뜻이 공중에 들리웠다. 제쳐진 말거미같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그자의 머리에서는 탱탱한 사모가 떨어져서 땅에 굴렀다. 맨상투바람이 되여 망건의 옥관자가 더욱 번쩍이는 관원을 두팔로 추켜든 주복이는 어떻게 해야 화풀이가 될지 몰라 쩔쩔매는 눈치였다. 제앞에서 한 로파가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것을 보자 눈에 홰불이 서는듯 한 주복이는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그자의 뒤덜미를 우쩍 잡아들었던것이다.
《쇠주머구다!》
《잘한다!》
《이번엔 공중배지기로구나!》
《주복아ㅡ 그 옥관자짜리가 지금까지 도적해먹은 국록을 다 게우두룩 꺼꾸로 쳐들어라.》
사람들은 소리소리 질렀다. 그러지 않아도 성이 난 주복이는 목덜미와 잔허리를 움켜쥐고 쳐든 그놈을 두손으로 맞집어서 수세미같이 비벼서 으깨놓든가 육장이 되게 태질을 하고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은 상하겠고… 그래서 밸풀이를 못해 어쩔줄을 모르는 주복이는 마당발의 열가락이 낱낱이 다 짚신총을 꿰뚫고나가게 벋디디고 선채 제풀에 후두두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만 있었다. 만일 이때 말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주복이는 화는 나고 어쩔줄은 모르고 해서 울었을지도 몰랐다. 마침 임욱경이가 나서서 말렸다.
《이 사람! 놓게. 이래가지구 일추갔나? 이러쿵저러쿵해두 다 우리 사람 아닌가.》
주복이는 말없이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임욱경이가 어덴가 같이 가자는것도 (아마 어데 가서 술이라도 같이 한잔하자는 뜻이였을것이다.) 못 들은척 하고 달아빼듯이 집으로 돌아오고말았던것이다. 나흘전에 넓은 마당 술청에서 팔씨름을 한 후부터 주복이는 임욱경이와 퍽 친해졌던것이다.

《우리 저놈은 뚝심을 좀 쓰는 놈이 천생 의젓은 하구… 그래서 누가 싸우재두 사람다칠가봐 대척은 못하구… 그래 그만 제 역정에 며칠씩 몸살을 하는 놈이웨다.》

로인은 문턱에 걸터앉아서 선하품을 하고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혼자 허허 웃었다.

임욱경이가 왜적의 수급을 베온 이야기와 또 평양사람들이 임욱경이를 떠받들었던 이야기까지도 끝났을 때 《오시는 길에 왕의 행차를 보셨다지요?》 하고 법근이는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물었던 말을 또 물으면서 말했다.

《그럼 스님께서 한번 <가시지 맙시사.>구 말씀해보실걸 그랬습니다.》

《…》

서산은 듣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다.

《스님은 이전에 뵈여서 잘 아시는터에 잘 말씀을 하시면 상감님께서두 들었을지 모를거 아니웨까.》

또 이런 말을 하는 법근이는 실은 서산대사에게보다도 옆의 사람들에게 《우리 스님은 왕도 친히 알아주는 사람》이라는것을 자랑하고싶었던것이다. 그때는 이 집 식구들만이 아니라 옆집사람도 몇이 와있었다. 때가 때니만치 손에 일도 잡히지 않거니와 또 뉘 집에 낯선 사람이 왔으면 혹여 무슨 새로운 소식이나 얻어들을수 있지 않을가 하는 기대로 자연 모이게 되는 사람들이였다.

이전에 본적이 없는 로승, 지금 법근의 말을 들으면 왕까지도 알아준다는 로승, 그러고보면 서산대사라는 이름은 전부터 익히 들어온 이름이기도 했다. 혹여 무슨 별다른 말이나… 하는 사람들은 무슨 구경거리나 같이 둘러서서 서산을 보고있었다.

《이 성안사람들이 다 나서서 만류하는 간청두 안 들으셨다지 않느냐.》

또렷하나 좀 잠긴듯 한 음성으로 나직이 대답하는 서산의 말에는 은근히 《부질없는 말을 왜 하느냐.》 하는 여운이 들리였다.

《대사가 서산대사라지요?》

이때껏 아무런 말참견도 않고 그저 뒤자부니에 살짝질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먼산바라보기를 하며 선하품만 하고 앉았던 주복이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럼 도술두 하구 앞일두 알갔는데 세월이 어떻게 될것 갈소?》

그 음성을 따라 주복이를 바라보던 로승의 얼굴에는 표나게 눈섭이 약간 치떠지며 얼은 물살같은 웃음이 지나갔다.

《오래간만에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일도 잘 모르는 산승이 앞의 일을 알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리여 소승이 여러분께 묻고싶은 말씀이올시다.》

이같은 대답을 한 서산은 이제 나올 사람들의 말을 들을양으로 귀를 기울이듯이 잠잠했다. 사람들도 잠잠했다. 마침내 《가보지 않으려느냐?》하는 눈으로 법근이를 본 서산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오래 앉았던 무릎에서 우적우적 소리가 나는 몸을 바로세운 로승은 사람들을 향하여 합장하고 바자문밖으로 나섰다.

《거리에 나다녀두 무사할가?》

주복이 아버지가 로승을 따라나서는 법근이를 보며 물었다. 법근이가 어제 행궁앞에서 칼을 빼던 까닭에 하는 걱정이였다.

《조정량반들두 렴치가 있지. 저희는 갈데루 다 가놓구… 이제두 또 사람을 죽이갔소?》

법근이는 이렇게 두덜거리면서 서산을 따라갔다.

《욕심없이 늙은 대사로군!》

혼자소리로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마당까지 따라나간 주복이 아버지는 웨쳤다.

《대사ㅡ 이 담에 지나거든 또 들리우.》

17. 동대원의 일본군

칠성문안의 창창한 송림속 오솔길을 따라 만수대고개를 넘어서자부터 간간이 요란스러운 조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어깨가 쭈삣거리게 놀래지 않을수 없었다. 울창한 소나무가지의 산새들도 지저귀던 소리를 삼키고 소스라치는 날개를 떨치며 이리저리 옮겨앉는 눈치였다.

《어제는 단군진앞에서 나무를 싣고 왔던 촌사람의 황소가 죽었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가를 내려다보고 서있는 서산에게 법근이가 말했다.

《저놈의 철환(총알)은 언제 어데 가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비수같이 황소의 모가지를 깊이 찔렀습니다.》

이같이 조총의 류탄의 위험을 말하는 법근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산은 또 걷기 시작했다.

영문앞 하마비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리의 좌우쪽의 집들은 모두 문이 닫혀있었다. 종로 큰 거리도 역시 철시되여있었다. 가장 번화하던 관앞 대동문거리가 가까와올수록 사람의 래왕은 더욱 드물어졌다.

추녀끝이 맞닿게 큰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은 평양성의 중심지대인 종로의 이 때아닌 정적, 해가 좀 기울었다고는 하나 뜨겁게 타는듯한 장장하일의 볕은 아직도 대낮이였다. 큰 상전방앞마다 또 결골목어구마다 대개 한쌍씩 서있는 아름드리 수양버들들은 어제 밤의 소낙비로 더욱 청신해진 록음을 길거리에 치렁치렁 드리웠다. 그러나 그 풍성한 그늘을 즐길 사람이 이 성시에는 없는듯 했다. 서로서로 부딪치는 어깨를 모로 세우고야 길을 어길만치 사처에서 모여드는 사람들 혹은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운 인사소리 혹은 금사를 다투어가며 흥정하는 소리, 같이 한잔하자거니, 점심을 먹자거니 서로 끌고 혹은 사양하는 소리, 흰 머리쓰개, 맨상투바람, 정자관, 새파란 초립, 골목이 비좁게 나오는 방립, 고동색이 다 되게 쩔은 패랭이, 볕을 따라 까맸다 희였다 하는 진사립, 수목적삼 등받이에 때가 앉게 늘어뜨린 떠꺼머리, 색동달이 연두색장옷, 혹시는 대낮에도 사초롱을 앞세우고 가는 납채짐바리, 호랑이가죽을 씌운 가마를 앞세우고 권마성따라 말방울소리 요란한 신행행차, 이같이 붐비고 흥분하고 법석하고 혹은 싸우고 혹은 웃고 애놈들이 지절대고 먼지가 일고 풍풍 생활의 냄새가 풍기던 이 거리거리의 버드나무그늘밑에는 지금쯤은 한창 더위를 쫓는 사람들의 삿부채, 합죽선들이 나비깃같이 펄럭일것이였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색갈도, 인간의 냄새조차도 가신듯이 쓸쓸해진 거리의 그 아까운 록음밑에서는 간간이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하다말고 지나가는 두 중을 향하여 컹컹 짖는 개소리가 날뿐이였다.

온 성안의 사람들은 깊이 들어앉았다. 대문과 가게문들을 닫아걸었다. 생활들을 접어놓은것이다.

갈수록 강건너 왜놈들의 조총소리만이 잦아졌다.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갈기듯이 룡마루의 기와장을 부시고 날아다니는 비수같이 소를 죽이기도 했다. 그것은 오늘 처음 시작된 일이 아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다. 그러나 어제까지도 이곳 사람들은 문을 닫거나 생활을 접어버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왕의 행궁으로 달려갔던것이다. 행궁의 기와장은 그때도 부서

졌다. 그렇더라도 성안, 성밖의 사람들은 그리로 모여들었다.

《이 성을 버리지 맙시다.》고 울며 빌기도 하고 혹은 악에 받쳐 웨치기도 했다. 한 젊은 중의 칼질에 웃기도 하고 격분한 한 농군의 《공중배지기》에 쾌재를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안 간다.》는 뜻으로써 내보이는 《정행》 두자를 보고야 헤여져 돌아갔던 사람들이였다.

오늘 새벽에 왕이 또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번에 그들은 나가지 않았다.

평양백성들이 자연발생적으로나마 군중운동을 일으켰던것은 임욱경을 떠받든것을 비롯하여 지난 여드레날 또 어제 열흘날 세번씩이나 있었다. 그것은 왕과 조정의 힘만에 의거하자는것은 결코 아니였다. 왕과 조정이 이 성을 지키라고 자기네에게 명령해주기를 바랐던것이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중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을 지킬수 있는 힘으로 조직해주기를 바라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했던것이다. 즉 왕이 자기네 백성들을 거느리고 왜적과 싸우는 령수가 되여주기를 바랐던것이다. 아니, 왕이 손수 백성을 거느리고 진두에 나서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이 성중에 태연히 남아있어주기만 해도 좋았을것이다.

얼마전에 왕은 자기는 이곳을 떠나지만 세자로 하여금 평양을 지키게 하겠다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때 류성룡은 비록 세자가 남아있더라도 임금이 떠난다면 이곳 백성의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리라고 말했던것이다. 잘 알고 한 말이였다. 《안 듣는데서는 나라님의 왼공론도 한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백성들은 왕을 크게 알았다. 왕은 백성의 어버이라고까지 믿는 백성들이 없지도 않았다.

왕은 그러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고 떠나고말았다.

《무가내하다!》

백성들은 더 붙들려 안했다. 지금의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뿐이였다. 이것은 누구나 저마다 다하는 걱정이였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사람이 다 그런 걱정에 싸여있었기때문에 저마다 깊이 들어앉게 되였다. 자연히 대문은 닫혀졌다. 거리에 나다닐 일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되였다.

즉 《왕은 떠나갔더라도 상관없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성안사람들이 뿔뿔이 피란짐을 꾸려가지고 흩어진대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막을 사람이 없지 않으냐? 하는 걱정을 또 저

저마다 하게 되였다. 또 이런 걱정끝에는 왕도 정승들도 짚검불속에 숫돌 빠지듯 빠져나가는데 구태여 나라고 이 험난한, 조석의 운명조차도 헤아릴수 없는 이 성안에 남아있을것은 뭐냐?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였다. 아닌게 아니라 그들은 저마다 대문들을 닫아걸고 피란보따리들을 꾸리기 시작했던것이다.

집집이 저의 안뜰에서만 흥분하고 바쁜 평양거리는 쓸쓸했다. 쓸쓸하다기보다도 처량했다. 그렇게도 번화하던 평양 종로가, 이 대동문거리의 정적이 측측한 공포감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실로 대동문쪽에는 그 많던 물지게군 하나 없었다.

석양 가깝게 기운 볕에 긴 그림자를 그을며 대동문거리로 지팽이를 옮겨놓는 서산로승은 몇번인가 모르게 한숨을 지으며 련광정쪽으로 갔다.

대동문과 련광정사이의 성첩에서는 이쪽 좌우의 성벽과 강건너 대안의 적진들이 한눈에 보일만치 안계가 넓었다.

우선 이편의 대동문으로부터 서남쪽의 성첩을 지키는 평안감사 송언신과 장경문으로부터 부벽루에 이르는 동북쪽의 성첩을 맡은 녕변절도사 리윤덕 등이 거느린 3천∼4천명의 평양수성군중에는 제대로 군복과 군기를 갖춘 군사들보다도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나선 사람들이 더 많았다. 거의가 다 풀대님, 동저고리바람에 수건을 동이거나 망건만을 쓴 농군과 시정인인 그들은 활, 창, 검 같은 병쟁기는 열에 하나도 쉽지 않고 그저 몽둥이를 하나씩 들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맨손만을 들고있는 군사들이였다. 그나마도 대오가 고르롭지 못해서 어느 한곳에는 덧개피게 모여섰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누구 하나 지키는 군사가 없이 텅 비인 성첩들도 있었다. 모란봉과 을밀대근처에는 소나무가지에 옷들을 걸어놓았다. 신립이가 조령에다 허수아비들을 세웠던 본을 따서 강건너 왜적들에게 그 바지저고리를 조선군사로 알아달라는 소위 의병이였다. 련광정에는 강건너 적진에서 바라볼수 있는 앞면과 좌우쪽에다 두터운 나무로 만든 방패들을 세워놓았다. 방패로 병풍을 둘러치듯 한 그안에는 몇몇 종사관과 비장들의 옹위하에 류성룡과 윤두수와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리원익 같은 대관들이 있었다.

왕 선조는 평양을 떠나면서 이들에게 평양성을 지킬 임무를 주었던것이다. 그중에도 윤두수는 평양수성군의 대장으로 임명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좌정하고있는 련광정은 평양수성작전의 총본영이였다.

《가만… 저것은 서산이란 중이 아닌가?》
늘어세운 방패짬으로 대동문쪽을 내다보던 류성룡이 혼자소리같이 말했다.
《참 그렇소이다.》
《그 흰장미가 여전허군요.》
윤두수와 김명원이도 틈사리로 내다보며 말했다. 이때 서산은 법근이와 같이 좀 사이가 트이게 지키는 군사가 없는 성첩에 다가서서 동대원쪽을 바라보고있었다.
푸른 바위 이끼같은 송낙아래 비록 수척은 했으나 원체 단아한데다 아직 동탁한 맛도 있는 로승의 얼굴은 때마침 비껴드는 석양별에 산호빛이 나는듯 했다. 동안백발의 표본이나 같이 흰장미는 이때에 더욱 인상적이였다. 그 은실같은 장미만으로도 3년전 국청에서 보았던 로승을 곧 알아볼수 있었다. 그때 서산대사를 본 관료들은 비단 《전상의 호랑이》소리를 들어온 정철이뿐아니라 류성룡, 윤두수, 김명원이도 례의가 아니게 서산이 태연하면 할수록 《한날 중놈이-》하는 경멸과 반감이 없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면서도 공명정대하려고 노력하는편인 류성룡은 젊은 리항복이같이 정의감으로 흥분은 안했지만 어쨌든 서산이라는 중의 무죄를 인정했고 또 《하나의 인물이 아닌가?》도 생각했던것이다.
《저 늙은 중이 이 란시에 무엇 허러 산을 내려왔을가?》
또 이같이 중얼거린 류성룡은 피뜩 《혹시나?…》하는 스스로도 놀라울만치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혹시나?…》는 류성룡만이 아니였다. 입밖에 내지만 않았을뿐 윤두수도 김명원도 다같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뿐아니라 그 중이 반가운 생각조차도 없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좀 과장해 말하면 사면초가와도 같은 외로운 처지에 있었다. 일왈 평양성 백성들의 자기네에 대한 노여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어제까지 두번씩이나 겪은 백성들의 야료와 행패,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물론 그럴만한 리유가 백성들에게 없지도 않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조정에선 대관의 처지로써는 이렇게 지목해서 말해야 하는것은 물론 생각까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행궁문을 부시고 궁중을 침범할듯 한 백성들의 기세, 아니 백성들의 반란, 그들에게는 생

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한 무서운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위험천만한 백성들의 격앙과 행패에는 왕과 조정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관심과 뜨거운 인정머리까지도 느낄수 있는것이였다. 그 일례로서 류성룡이 자기가 백성들앞에 (지난 여드레날) 나서서 타일렀을 때 그렇게 격앙하고 행패하던 백성들은 순순히 물러갔던것이다. 그 까닭은 이 평양성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분분한 조정공론중에서 류성룡은 지키자는 편에 선 한사람이라는것을 백성들이 알기때문이였다. (류성룡은 자기의 《징비록》에서 이 점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만치 백성들은 왕과 조정을 크게 알았고 따라서 그 동향에 큰 관심을 가졌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성내 백성들의 집집은 첩첩히 문들이 닫혀있다. 백성들은 나다니지도 않는다. 이같이 자기네 고관대작들이 좌정한 근처에서는 의례히 잡인을 금하는 군교라졸들의 벽제소리가 연해 들리는 법이건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이 검둥개 한마리 얼씬 않는 모양이다.
  이러한 정적, 백성들의 침묵, 그것은 백성들이 이편에 등을 돌리고있다는 증좌가 아닐수 없다. 백성들의 노여움— 그 노여움은 흥분하고 격앙한 노여움이 아니라 신뢰와 기대와 권고와 관심까지도 다 털어버리고 오직 경멸과 랭소만을 끼얹는듯 한 노여움이 아닐수 없다. 고관대작들은 이렇게 느꼈다.
  이런 처지에서 비록 한날 산승이기는 하나 일찌기 《한 인물이 아닌가?》고까지 류의해보았던 사람이 뜻밖에 나타났을 때 일종의 반가운 정을 느꼈다는것은 비록 류성룡이하의 고관들만이 아니라 사람이면 흔히 그럴수 있는 한 본능적인 감정이기도 한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과 다른 점은 곧 뒤이어 그들의 마음속에 머리를 쳐드는 《체통》이였다. 허턱 누구를, 더우기나 이렇다할 지위도 직함도 없는 야인이나 중을 반기거나 반색해 맞는다는것은 자기의 체통을 손상할뿐아니라 잘못되면 자기의 권력까지도 타격이 미칠는지 모르리라는 채심이 또 하나의 본능이 되다싶이 한 관료 류성룡은 《하나의 인물같은데…》하는 3년전의 생각을 되씹는것으로써 금방 반갑게 느꼈던 자기의 감정을 변호했달가, 수정했달가, 혹은 정치가적도량으로 바꾸었달가? 어쨌든 이런 전제로써 그는 잠시 열은 사색을 시작했던것이다. 그는 우선 한때 고서를 취미로 읽었던 《눌재집》중에서 군사에 관한 글들을 떠올리기까

지도 했다.
즉 옛날 고구려에서는 당태종의 침략군을 막을 때 승병 3만을 동원한 사실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역시 많은 승병들이 활약했다는 기록이다.
《아조(우리 나라)에서도 <승병>이라는 명목은 안 붙었지만 중들로 하여금 산성을 지키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류성룡은 아까와 같이 (혹시나?… 저 로승 서산도 그런 포부가 있어 산을 내려온것이나 아닐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서산은 연산군이래 오래동안 페지되였다가 명종시기에 다시 시작했던 첫 승과에 급제하여 한때는 선교 량종의 판사를 겸해서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장악하고 지도한적이 있었다. 그러한 경력만으로도 서산은 일찍부터 불교도간에 명망이 높았다. 불교도간에만 아니라 일반민간에까지도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있다. 전부터 글 잘하는 시승으로 또는 덕행이 갸륵한 선승으로 서산의 이름을 아는이도 많았다. 그보다도 《상감님까지도 알아주는 도승!》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던것이다. 아직도 그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새로운 정여립의 사옥을 모르는이가 없는만치 그때의 한 짤막한 이야기로서 서산의 이야기도 널리 퍼졌던것이다. 8도의 방방곡곡에 목탁을 두드리며 다니는 동냥중들까지도 이야기할 기회만 있으면 언필칭 자기는 서산의 제자라 했고 또 《우리 스님》의 이야기를 과장함으로써 자기의 《위신》은 물론 조선봉건왕조에 들어와서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신을 높이고 선전하기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이였다.
이러한 선전으로써 민간에서 아는 서산대사의 이름에는 흔히 신비로운 후광이 따르기도 했다. 불가에서는 본시부터 륙통이라는 말이 있어왔다. 도를 통하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밖의 일도 환히 내다볼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천안통, 눈을 내려깔고있어도 남의 가슴에다 창경을 붙인듯이 그 마음속을 꿰뚫어볼수 있는 타심통, 비록 쩔쩔 말은 안하더라도 십년, 백년후의 앞일이 어떻게 되리라는것까지도 다 알수 있는 숙명통 등등. 서산대사가 바로 그러한 도승이라는것이다. 그뿐아니라 서산대사는 조화를 부리는 도술이라는 신통력도 가졌다는것이다. 그 일례로 그의 수제자인 사명당은 닭알을 외벌줄로 스물네알이나 치올려쌓는데 서산대사는 그 반대로 첫알을 공중에 매달듯이 우로부터 내려고인다는것이다.
서산대사에 대한 민간의 이러한 랑설들은 결코 웃어버리고말 심상한 일

은 아니였다. 류성룡은 이렇게도 생각했다. 왜냐하면 비록 허망한 랑설이지만 일면 서산대사에 대한 민간의 숭앙과 인기를 말해주는 사실이기때문이였다. 충분히 리용할 가치가 있는…

류성룡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백성들을 가까이 이끌라. 그러나 그들의 이목을 가리워 몽매케 하라.》는 즉 백성들을 오직 리용할뿐이라는 봉건전제정치가들의 공통한 사고방식의 일면이였던것이다.

어쨌든 류성룡은 한번 그 로승을 불러보고싶었다. 그러나 그럴 용기가 썩 나지 않았다. 그 첫째 리유는 앞서 이미 말한바다. 즉 관료적인 체심, 다음 리유는 불러올린 그 로승에게 일왈 왜 불렀다고 할것인가? 구면이라 반가와서? 말이 안된다. 혹은 《로장께서 이처럼 먼길을 수고롭다 안하시고 오셨으니 혹여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 있사오니까?》 이것은 량혜왕이 자기를 찾아온 맹자에게 했던 말이다. 그 비슷한 말이라도 그것은 자기로서는 참람된 말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뿐아니라 우선 저 로승을 불러올린다면 앉을 자리를 줄것인가? 물론 경국대전에 그런 조항이 있을리 없다. 그만치 파격적인 일이다. 오직 왕 한사람만이 할수 있는 파격이다. 중을 불러 보았다! 자칫하면 큰 말썽이 생길 일.

그러므로 다음 입대하는 기회에 《상께 아뢰기로 작정》하는것으로써 류성룡은 자기의 사색을 끝내기로 했던것이다.

이때 성첩밑에서 강건너쪽을 바라보고있는 서산의 뒤에 한걸음쯤 물러서있던 법근이는 벌써 몇번째나 저 《아수라들! 아수라들!》 하고 입밖에 내서 중얼거리는 로장의 말을 들었다. 아수라는 싸움을 일삼고 살륙을 즐기는 악귀같은 패류들을 이르는 불경의 말이다.

어제 밤에 지나간 한소나기비에 물이 좀 불기는 했으나 역시 넓게 드러난 맞은편 나루터 모래불에서부터 강뚝을 따라간 장림벌 큰길과 그 건너편의 들에는 실로 그 아수라들이 욱실거리였다. 동대원에서 남쪽 연천교까지의 넓고 탄탄한 길은 예로부터 로우주라고 하는 길이다. 무연한 벌에 강바람은 거칠데 없이 씽씽 불고 좌우에 늘어선 버드나무, 느티나무는 무르익은 록음으로 길을 덮어주므로 아무리 삼복더위의 늙다리 소라도 걸음이 성큼성큼해진다는데다.

일본군사들은 실로 형형색색으로 아수라의 모양을 하고 아수라의 행동들을 하고있었다. 그늘밑에서 다리를 뻗고 앉았거나 짐짝을 베고 사지를 내던지고 자거나 입과 코로 푸른 연기를 뿜으면서 서성거리는 한가한 놈

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저마다 들어붙어서 장림벌일대를 적지로 만들기에 골몰한중이였다. 곡식밭에 군마를 놓아 먹이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놈들은 아직 이삭도 패기 전인데 수수가을, 조가을하는중이였다. 몇백놈이 긴칼을 뽑아들고 해파리같이 퍼져서 장난으로 파동새를 베듯이 청초 곡식들을 후리며 나갔다. 그뒤에는 몇백놈이 따라가며 단을 묶고 날랐다. 푸르던 벌판은 늦벌레떼가 지나간것 같이 금시 붉은 동촌 흙빛으로 드러났다. 적지가 되는것은 곡식만이 아니였다. 장림의 그 좋고 운치있는 나무들까지도 결딴이 났다.

왜놈들은 도끼, 톱, 칼로 그 나무들을 찍고 자르고 잎을 훑었다.

장림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해오는 그 이름에 우리는 그 나무숲을 보지 못하고도 아름다움과 운치를 느낀다. 그 운치, 그 멋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장림을 가꾸었던것이다. 그런 장림이 왜놈들이 들어온지 사흘이 못돼서 벌써 볼꼴이 없이 되고말았다. 결딴을 내고 적지를 만든 나무와 곡초들을 날라다가 그들은 강뚝을 따라가며 초막들을 짓는중이였다. 이미 세워놓은 초막들도 많았다. 초막을 세운 진지에는 울긋불긋한 기발들을 무수히 늘여세웠다. 만장같이 길게 드리우는 오색기발이 강바람에 뒤섞여서 너울거리는 강안일대는 마치 큰 장사행렬이 늘어선듯도 했다. 더욱 그렇게 보이는것은 흉물스러운 방상시같은 탈바가지들이였다. 왜놈들은 그런 짓을 해서까지 저희들의 무위를 뽐내고 이편을 위압하려는 심사일것이다.

지금 강변모래불에서 혹은 말을 달리거나 혹은 그저 뜀박질을 하는 왜놈들중에는 형형색색으로 흉물스러운 탈바가지들을 쓰고 뛰노는자들이 많았다. 옻칠을 해서 새까맣게 번들거리는것, 원숭이볼기짝같이 새빨간것, 도금을 해서 시누렇게 번쩍이는것, 풀빛으로 초록색이 나는것, 또 그런 색갈들이 한판에 뒤섞인것, 그 색갈만도 각색인데다가 또 그 모양도 각가지였다.

큰 탈바가지가 온통 다 눈이다싶이 왕방울눈이 디룩거리는 놈, 그런 눈꼬리가 곤두서듯이 치째진 놈, 반대로 눈알이 흘러빠질듯이 처진 놈, 혹은 상판 한가운데 뻥한 눈이 하나밖에 없는 놈, 이마에 뿔이 돋친 놈, 질병자루같은 코가 하늘을 향하여 거들먹거리는 놈, 귀밑까지 찢어진 아가리에 주홍같은 혀바닥이 널름거리는 놈, 메돼지어금이같은 이발이 턱주가리까지 내려뻗은 놈… 이런 탈바가지들이 뒤섞여 돌아가는 일본군사들의 진지는 이승에서 볼수 없는 지옥의 한 장면이기도 했다. 그같은 악귀,

아수라의 모양을 한 왜놈들은 칼과 창들을 휘둘러 당장 사람을 찍고 찌르는 시늉들을 하며 돌아가기도 했다. 그들은 대개 엄청나게 큰 칼들을 가지고있었다. 긴 자루끝에 날우에 날이 덧붙은것을 둘러메고 다니는 큰 칼은 더 말할것도 없고 허리띠에 한두자루씩 찌르고 다니는 칼들도 무척 큰것이 많았다. 어떤것은 사람이 칼을 찼는지, 칼에다 사람을 붙들어맸는지? 또 괴상한것은 물론 더워서 하는짓은 짓인데 벗으면 흔히 웃동을 벗건만 놈들은 반대로 아래도리를 다 드러내놓은데다 모자까지 쓰고 다녔다. 《동국통감》에 《왜는 옷이 우의것만 있고 아래것은 없어서 거의 벗다싶이 한다.》더니 사실이였다. 그 모양들을 하고 껍적거리고 백사장을 거닐던 왜놈들중에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꺼꾸로 서서 제 사타구니밑으로 이쪽을 건너다보며 뭐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늘로 치킨 제 날궁둥이를 철썩철썩 두들겨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편을 경멸하노라는짓인데 그보다 제가 먼저 경멸을 받을짓을 하는줄은 모르는 모양이였다.

《스님, 련광정에서 스님을 내다봅니다. 아마 류성룡대감인가 봅니다.》

법근이가 나직이 하는 말이였다. 법근이는 이리로 오는 길에 지금 련광정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말했던것이다. 그러면 혹시 스님이 그들을 찾아보지나 않을가? 하는 억측뿐아니라 호기심과 기대까지도 가졌던것이다. 이런 란시에 늙은 서산스님이 산을 내려온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것이라고 법근이는 생각했다. 더우기 떠나오던 길에서 편석대사를 만났다고 하지 않는가. 편석대사는 의례히 만류했을것이다. 편석대사뿐아니라 늙은이의 이번 길은 다 말렸을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온것은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을가?

전부터 그앞에서는 바로서기조차 조심스러운 로스님이라 감히 물어볼 생각을 못하는 법근이는 그 까닭이 더욱 궁금했다.

(어쨌든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있기는 있을것 같다!)

어떤 일이든 전에없이 새로운 일이면 희한하고 더구나 저도 한몫 들어 덤벼볼수 있는 일이면 더욱 좋아하는 젊은이답게 법근이는 저도 모르게 흥분도 했다. 더우기 지금까지 향산 금선대암자에서 꼼짝 안하던 서산스님이 이런 란시에 자리를 떴다면 필시 어떤 큰일, 나라일을 위한 어떤 포부와 경륜이 있어서 산을 내렸을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법근이는 한낱 돌중인 제가 지금 서산스님을 모셨다는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용기가 나기도 했다. 법근이는 지금도 장삼속에 감추어가지고있지만 전날 고충경의

집에서 찾아온 검을 왜적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자부터 늘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어제는 그만 많은 사람들앞에서 더구나 행궁앞에서 앞뒤일을 재지 못하고 뺐던것이므로 어떤 죄책이나 받지 않을가 해서 지금도 뒤가 마려운중이기도 했다.

《스님, 류성룡대감께서 또 내다보십니다.》

법근이는 또 이렇게 서산의 등뒤에서 속삭이듯이 말했다.

《혹시 저분들을 만나보실 일은 없으십니까?》 하고 묻거나 재촉하는듯한 말이였다.

아까부터 듣기만 하고 여전히 강건너를 바라보고만 있던 서산은 이번에도 한두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뿐이다. 그러나 법근의 말에 지금 서산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파문이 없지도 않았다. 법근이의 뜻을 짐작하는 서산은 (이녀석, 나더러?…) 하는 무춤한 생각이 솟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 마음이 아팠다.

이때의 서산의 심정을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우선 지금 내가 무미하게 그들앞에 나선다면 그들은 까닭없이 저희들앞에 하정배를 해가며 접근하려는 한 늙은 중놈의 아첨으로밖에는 더 달리 생각할 거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였다. 그뿐아니라 사람을 보면 먼저 량반이냐 상놈이냐부터 가려가지고야 대하는 사람들, 부귀로써만 사람을 저울질할줄 아는 소인들, 소위 량반이라는 저희들외에는 눈아래에 사람이 없는자들, 그렇건만 저런 아수라들앞에서는 완전히 무능한 등신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저희들의 배를 불리우기만 위주하는 탐관오리들, 그럼으로써 이런 국란에 처해서는 왕도(임금이 마땅히 가야 할 길)는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 알면서도 백성의 힘을 힘으로 해서 이 국란에 당하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한심한 정승들, 불현듯 이런 타매가 끓어넘치는듯 서산은 아, 내 이 무슨 비불사도(불교교리에 어긋나는 길)의 생각을 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이렇게 스스로 전률했다.

《저 아수라들앞에서, 저 아수라들을 저주하던 내가 저 아수라들을 닮았단 말인가?》

그리고 이같이 서산은 반성하였다.

《부처님의 계를 범치 않으리라— 높은이에 대하여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하는 십대수조차 나는 잊었는가? 그런 불계는 차치하고라도 70이라는 나이가 있지 않는가!》

또 이같이 자신을 책했다.
(내가 저분들을 지금 찾아보지 않는것은 이렇다할 말이 없기때문이 아니냐. 즉 내게도 이렇다할 아무런 주책이 없기때문이 아니냐. 나는 먼저 이렇게 생각했어야 할것이다.)
이같이 돌이켜 생각하는 서산은 자기가 너무도 그릇이 작다고도 생각되였다.

18. 대동강싸움에 나선 고충경

《아! 스님—》
문득 법근이의 착급한 소리가 서산의 생각을 깨뜨렸다. 여전히 그 흉물스러운 탈바가지들을 쓴 왜놈들이 욱실거리는 모래불에서 하나, 둘, 셋, 넷으로 낡은 솜뭉치같은 연기가 불쑥불쑥 뿜어지는것이 뵈였다. 그러자 난데없는 태풍이 몰아치듯이 련광정 앞면을 막았던 방패들이 혹은 쓰러지고 자빠지며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 련달아 생벼락을 치는듯 한 폭음이 울려왔다. 종사관 두사람이 경상을 당했다. 그들을 부축해낸 련광정에서는 편전을 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살들은 강가운데 떨어져 흘러갈뿐이였다. 그 이상은 더 가지 못했다.
대안의 왜놈들은 더욱 기세를 올려 떠들었다. 그중의 몇놈은 조총을 가지고 물가로 더 가까이 나서서 불질을 계속했다.
도원수 김명원은 우리 궁수들에게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까지 나가서 활을 쏘라는 령을 내렸다.
련광정밑에서 전통을 메고 활을 잡은 5~6명의 궁수들이 쾌속선 두척에 갈라탔다.
성첩에 붙어서서 내려다보던 법근이가 부지중 《아!》소리를 질렀다. 벙거지에 야청군복을 입은 군사들사이에 갓망건에 흰 직령으로 평복을 한 사람이 하나 끼여있었다.
《고공! 여보슈, 충경공—》
법근이가 웨쳐부르는 소리에 활과 전통을 들여놓은 매생이에 막 올라타려던 그 사람은 돌아서서 이쪽을 쳐다본다. 흰 얼굴에 새까만 나비수

염이 표나게 보이였다.

《나두 같이 갑세다. 스님, 저두 갈랍니다.》

법근이는 미역졸가리같이 꾸기고 찌든 검정가사와 장삼을 벗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이냐?》

《예.》

《너는 활두 없이 가면 어떡헐테냐?》

서산은 법근이의 허리의 검을 보면서 물었다.

《배라도 저어주지요.》

《그런 일로 저 위험을 무릅쓴단 말이냐?》

서산의 말은 걱정만이 아니라 책망하는 언사이기도 했다. 적들은 지금도 계속 불질을 하고있다.

법근이는 미처 대답을 못했다.

《저분은 혼자서도 할수 있길래 혼자 나섰게 하는 말이다.》

《그래두 좀 도움이 되겠지요.》

법근이는 장삼소매에서 꺼낸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며 대답했다.

《…》

서산은 다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다심하달가? 지금 그의 얼굴에는 전에없이 착잡한 주름살이 얽히는 표정이 나타났다.

말잔등에 걸터앉듯이 성첩을 넘으면서 서산의 얼굴을 다시 보는 법근이는 문득 속이 뜨거워지는듯 했다. 그 맑고 흰 눈섭사이의 미간이 흐려진듯도 한 서산의 얼굴에서 법근은 지금 《나》를 그냥 보낼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다심한 걱정을 보았던것이다. 그것이 법근이는 기뻤다. 비단 존경하는 스님이 아니라도 누구든 이렇게 자기를 아끼고 걱정해준다면 마음이 뜨겁고 기쁜 법이다. 또 한편 죄송하기도 했다. 실은 《그래두 좀 도움이 되겠지요.》 한것은 후에 보태서 생각한 말이다. 우선 오래간만에 뜻밖에 만난 고충경이가 반가왔고 그를 따라 저도 한번 모험을 해보고싶었던것이다. 어쨌든 기쁜 법근이는 한층 더 용기가 나기도 했다.

서산은 법근이가 내려가는것을 굽어보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이였다. 우선 그 몸이 경첩한데, 또 그 몸과 같이 그 마음까지도 날렵한데, 앞뒤를 재노라기에 굼뜬 늙은이들이 따를바 아니게 발랄하고 담대한 행동이 여하튼 가상했다.

법근이는 성돌짬에다 손톱발톱을 박듯이 더듬어가며 반쯤 내려가서는

훌쩍 몸을 날려 강변에 내려섰다.
《고공께서 이 웬 일이시오?》
《법근대사는 또 웬 일이요?》
이미 매생이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되묻는 고충경은 빛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버릇대로 두손바닥을 마주 비비며 소리없이 웃었다. 법근이 역시 별로 대답할 말이 없는듯이 따라웃었다.
《매생이를 저어주실테요? 그럼 나가봅시다.》
고충경은 자리를 옮겨 앞으로 나앉았다. 노를 잡은 법근이는 앞선 두척의 배를 따라 저어가기 시작했다.
기와장을 부시고 성돌을 깨뜨리던 철환이 지금은 낮추 날기 시작했다. 매번 화약을 달이고 알을 쟁여야 하는 화승총들이라 련발로 콩볶듯 하는 불질은 아니지만 4～5명이 쏘는 총알은 련달아 강물에 떨어졌다. 석양바람에 약간 출렁거리는 잔물결을 채는 소리가 차차 가까와지기도 했다. 왕청같이 빗나가는 놈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바로 등뒤에서 큰 고기가 뛰노는듯이 물결을 퉁기기도 했다.
《몇번 찾아가서두 못 뵈였는데 그샌 어델 가셨소?》
법근이는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실은 제 말이 혹시 떨리지나 않을가해서 바재이기도 했지만 가만있기는 더욱 싫어서 우정 한담 같은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만족했다. 제 말소리가 제법 태연했기때문이다.
《말씀 들었소. 살림이라구 하댔으니까… 가만있자!》
배머리에 나앉아 앞을 바라보며 차근차근한 소리로 말하던 고충경은 초연이 자욱한 적진으로 역시 얼굴을 돌린채 뒤손질부터 하며 말을 이었다.
《배를 좀 아래루 흘려저으시우. 앞의 배를 따라가면 총알받이가 더 심할것 같소. … 벌써 그랬을걸 그랬군.》
끝의 말을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고충경은 무척 긴장해보였다. 본시 칼칼한 낯이 더 해쓱해지고 얼굴도래의 선이 더욱 날카로와졌다. 그의 말대로 매생이를 엇비슷이 흘려저어가는 법근이는 (그 생긴대루 얌전하고 차진 샌님이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지금같이 긴장하고 흥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꿎게 너스레를 꺼내는, 말하자면 일부러 허풍을 떨어볼 사이도 없이 흠칫 목이 졸아들게 총알이 귀전을 스쳐갔다. 염라대왕의 사자란 놈이 한번 찡긋 추파를 해보이며 휙! 휘파람을 불고 지나간듯도 했다. 다시 고개를 들자 한번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어보고싶기도 한 법

근이는 뒤를 돌아보았다.
성첩우에 조그마한 로인의 얼굴만이 바라보인다. 그보다도 흰나비 한쌍 같은 눈섭만이 보이는듯도 했다. 원인무목(멀리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이라지만 그 은실같은 눈섭밑의 눈까지도 보이는듯 했다. 그뿐아니라 아직도 이편을 바라보는 스님의 그 뜻밖의 다심한 시선이 몸에 느껴지기도 하는 법근이는 숙연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중들은 언필칭 일체 중생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은 끊어버릴 인연도 별로 없는만치 인정에 굶주린것이 많은 중들의 신세였다.
그동안 고충경은 갓과 중치막을 벗었다.
활 한바탕거리가 되게 강심에 나뜬 두척의 쾌속선은 동안을 두고 나란히 배를 세웠다.
《자, 우리두 이쯤 배를 세울가요?》
고충경이가 돌아보며 말했다. 바람결따라 매운 화약냄새가 풍겨왔다. 고충경의 료량대로 이쪽에는 총알이 확실히 덜 왔다.
주위에 총알이 자주 떨어지는 저편의 두 쾌속선에서는 벌써 활질을 시작했다.
《배가 돌지만 않도록 하시구 젓지는 마시우.》 하고 고충경은 활에 살을 먹여 들었다. 살이 날았다. 그러나 맞지 않았다. 다음 살도 총수 한놈의 머리우를 스쳐지나갔을뿐이였다. 활을 잡던 손을 내리고 머리를 흔든 고충경은 한번 큰숨을 내쉬며 앞을 응시하고 앉았다.
《배가 흔들려서 그럴가요?》
그의 관자노리에서 진득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본 법근이는 실수가 제게 있는것 같아 물었다.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흔든 고충경은 역시 적들을 바라보면서 제 나비수염을 몇번 감빨았다. 무엇이 난처하거나 깊이 생각할 때 하는 버릇이였다.
저편 쾌속선에서는 계속 활질을 했다. 화살이 네댓씩 한꺼번에 날기도 했다. 그러나 이편 사람이 먼저 하나 상했다. 바람결에 돌아가는 배를 바로잡으려고 일어섰던 군졸이 어깨에 철환을 맞았다.
고충경은 활을 다시 들었다. 물결에 드노는 매생이와 호흡을 맞추듯이 만궁으로 밟아든채 까딱않고있던 그의 활줄이 핑— 울었다. 살이 날았다. 그러자 뒤의 련광정, 대동문, 장경문과 그사이의 성첩들에서 《와—》 웨치는 환성이 일어났다. 모래불에 한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금방 발포하

려던 한놈이 울꾸리에 살이 박혀서 번뜻 자빠졌다. 그옆에서 장약을 하던 놈과 장약이 끝난 총을 들고 목표를 살피던 적들까지도 주춤했다. 적들의 허한 몇순간이였다. 이쪽 궁수들의 시위소리가 연해 났다. 그 어느 화살엔가 또 한놈이 어깨죽지를 맞고 조총을 떨어뜨렸다. 적들은 지껄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모래불은 비였다. 그러나 아주 달아난것은 아니였다. 이편 화살이 못미칠만큼 물러선 적들은 풀판에 엎드려서 다시 불질을 시작했다. 이제는 맞은편쪽으로 더 다가들지 않으면 활질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련광정에서 징을 울렸다. 군사를 거두라는 신호였다. 두척 쾌속선이 돌아섰다. 이쪽에서도 매생이를 돌렸다. 저어가던 법근이가 문득 큰소리로 웃었다.

《왜 웃으시오?》

《잔등이 선뜩하는걸 보니 나는 진땀이 난 모양인데 고공은 어떠시오?》

《안 그럴리가 있소.》

사실 퍽 피로한 모양으로 배창날에 내려앉아 다리를 뻗고있던 고충경은 강물에 한손을 잠그며 말했다.

《본시 서툰 솜씬데다 손이 떨리기까지 하던데요.》하며 웃은 고충경은 금시 또 정색하여 말했다.

《우리가 활 한바탕안에 다가들기만 하면 장약하는품이 안 들어서 빨리 손쓸수 있기때문에 저놈들의 조총두 그리 무서울것은 없을것 같소.》

이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와락 밀어뜨린듯이 매생이가 흠칫하고 한발쯤 앞에서 물이 퉁겨졌다. 까맣게 물복이 앉은 배전에 한번 줄칼질을 한듯 생생한 자국이 드러났다. 또 적의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모래불에 적의 궁수가 수십명이나 나섰다. 멀리서 계속 불질을 하는 몇놈의 철환보다도 화살이 더 어지럽게 날아왔다.

고충경은 다시 활을 잡았다. 두척의 쾌속선에서도 다시 활질을 시작했다. 고충경이가 활을 쏘는 동안 법근이는 한손으로 매생이를 저으면서 한손으로는 빼든 검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후려 분질렀다.

일변 물러서며 일변 활질을 하던 대동강의 작은 접전은 곧 끝났다. 이편의 배들이 멀어지자 적들의 총과 활질도 그쳤다.

배들이 대동문앞에 닿자 련광정에서는 돌아오는 그들에게 큰문을 열어주라는 분부를 내렸다. 협문이 아니고 큰문으로 맞으라는것이다. 그리

고 쾌속선으로 나갔던 군사들을 불렀다. 남은 두사람도 응당 불렀을것이였다. 그럴 의사가 물론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다. 알고본즉 두사람중의 하나가 바로 어제 행궁앞에서 검을 뺐던 중이라는것이다.

어제의 일은 그전 여드레날 일같이는 추궁을 안했다. 그러나 범인이 목전에 나타난 이상에는 그저 둘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그를 불러 본다면 그 가상한 의기를 먼저 칭찬은 하더라도 다음에는 죄를 주어야 할것이였다. 그렇게 된다면… (류성룡은 생각했다.) 혹시 아직도 저기 서있는 서산로승에게까지도 루가 미치게 될지도 모를것이다. 그 젊은 중이 서산을 따라온 중인것도 알기때문이였다. 이 일은 있었지만 없었던것으로, 설혹 있었더라도 이편에서는 모르는것으로 덮어두는것이 현명한 처사였던것이다.

19. 차돌이와 보패

밤 2경(22시부터 24시까지)을 알리는 인정이 난지 이미 오래다.

한척의 작은 매생이가 이편 북쪽기슭에 배전을 스치다싶이 강뚝을 따라서 대동문앞으로 올라가고있었다. 희뿌연 구름에 덮인 하늘은 젖빛으로 흐렸다. 중천에 열이튿날달이 떠있으나 희뿌연 구름보다도 더 해쓱하게 흰 형태만이 보일뿐, 또 낮의 폭양을 받아온 대동강 역시 젖빛안개속에 잠겨있었다.

가만가만 저어가는 노대의 삐그덕소리가 약간 날뿐, 기름처럼 고요히 흐르는 물우를 미끄러지듯 거슬러올라가는 매생이에는 아직 애티가 벗지 못한 두 남녀가 타고있었다. 흰 모시적삼에 역시 흰 무명치마로 가뜬히 감싸세운 무릎우에 한쪽겨드랑이로 돌려낀 머리채를 올려놓고 붉은 갑사댕기코를 만지작거리는것은 열여덟살 나보이는 처녀였다. 그앞에서 귀밑채까지도 굵직굵직하니 칭칭 땋은 머리채로 체두머리를 하고 남은 끝을 한옆에 질끈 찔러서 까만 댕기가 그쪽 귀뿌리를 스치며 흔들리게 몸을 일면서 노질을 하는것은 역시 그 처녀와 나이 비슷한 총각이였다.

《이제는 꽤 무던히 왔다. 한참만 더 가면 된다.》

눈앞에 우중충 솟아 안개속에 은은히 잠긴듯 한 대동문을 쳐다보며 총

각이 말했다.

《정말!》

처녀도 대동문을 쳐다보며 말을 시작했을 때였다.

《거 누구가?》

웨치는 소리가 들린다. 성벽그늘밑에서 저벅거리는 신발소리가 나며 어스름달빛에 번들거리는 창끝이 어청어청 다가온다. 기찰하는 우리 군사였다.

《우리는… 우리 사람이요.》

총각이 더듬더듬 대답했다.

《뭐? 우리 사람?》

《예.》

《웬 사람들인데 이런데서 배질을 하는거야?》

《예. 저기 저쪽 성밖엘 갔다가 늦어서 마상일 타고 와요.》

《어데 좀 보자구.》

꺼먼 벙거지의 륜곽이 크게 보이게 강기슭으로 나선 군사는 매생이를 굽어보며 말했다.

《아니, 게다 또 웬 처자(처녀)까지… 저놈들이 총질을 하든지 하면 어떡헐 작정인가?》

기찰군의 말은 반은 걱정으로 하는 꾸중이였다.

《그러게 아야 여차즉하문 올라뛸라구 기슭으루 내내 붙어서 와요.》

총각은 기찰군을 쳐다보며 말했다.

《집이 어덴데?》

《흥복(지금의 흥부)이야요.》

《흥복이? 그럼 상게두 한참길이게? 하기는 릉라도까지만 가면 좀 낫기는 하갔군. 조심해서들 가라구.》

나이지긋한 기찰군은 실로 걱정해서 말하고는 돌아섰다. 총각은 노질을 계속했다.

《하, 이거 벌써 몇번째야.》하는 총각의 말은 좀 귀찮다는 투였다.

《정말 오늘은 너 나때문에 수고한다.》

몽롱한 안개속에서 맑은 이슬방울같이 빛나는 눈을 들어 총각을 마주보며 처녀가 치하하는 말이였다.

《얘, 난 너하구 이렇게만 가자면 이달음으루 양덕, 맹산까지두 가갔다.》

총각은 처녀의 치하를 이런 투로 받았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댕기를 만지던 손으로 배전에 찰락이는 물에 금을 그을뿐이였다.

《남들은 우정 피란들두 가는데…》

《엊그제 우리 오라버니가 왜놈들 하구 겨루어본데가 여기 어데 아니니?》

문득 처녀는 이런 딴전으로써 총각의 말을 잘라버리듯 했다.

련광정앞을 지나서는 펀펀히 드러난 조천석바위를 에둘러 매생이를 강가운데로 내저어야 했다.

《아마 그렇갔지.》

총각은 좀 헐끔해진 모양으로 짧은 대답을 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조금이라도 강뚝이 멀어진 때라 더 불안하기도 했고 긴장도 했다. 다시 강뚝으로 나붙은 쪽배는 미끄러지듯이 장경문앞으로 거슬러올라갔다.

《거 누구가?》

또 기찰하는 소리다.

《우리 사람이야요.》

이번에는 처녀가 먼저 대답했다. 녀인의 음성이면 저편에서 곧 안심하리라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역시 이 험난한 때 웬 일이냐? 집이 어데냐? 물은 기찰군은 《철딱서니들이 없지. 지금이 어드런 때라구! 어서 썩썩 조심해서들 가라구.》 했다. 다시 노질을 하려고 할 때 문득 어데선가 울부짖는 사람의 비명이 들렸다.

《저놈들이 또 한놈 끌어내다 죽이는 모양이군.》

기찰군이 맞은편 강뚝을 건너다보며 하는 말이였다. 여기저기에 불그스레하게 보이는 우등불사이를 거쳐서 앞의 모래불로 우뚝우뚝 걸어오는 모양인 시꺼먼 그림자들이 어렴풋이 바라보였다. 그중에서 몸부림치는양이 보이는듯도 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알아들을수 없는 말이지만 애원도 했다, 발악도 했다 하는 소리다.

철썩ㅡ 강에 큰돌을 던진듯 물소리가 나자 비명은 뚝 그쳤다. 처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희미하지만 우등불빛에 분명히 긴 검날이 번뜩였고 그러자 철썩ㅡ 소리와 침묵.

《저런 놈들, 저희놈의 목을 저렇게 자르거던.》

우리 군사의 말이다.

《왜 저희끼리 죽일가요?》

총각이 물었다.

《저놈들은 아마 싸움에 상한 저희 군사가 날래 낫지 않으면 귀찮아서 죽이는 모양이다. 접때두 몇놈 끌어내다 죽이는데 대구 앓는 소릴 하는걸 보니. 모르긴 해두 지금 죽인 놈은 어제 우리 편 활에 채 죽지 않구 상했던 놈일지두 모르지.》
《어제 그 활 잘 쏘던 사람 누군지 아시우?》
총각이 자랑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건 우리…》하던 총각은 처녀의 깔끔한 눈찌에 금시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딴은 고충경이와 한동네 산다면 금방 집이 흥복이라고 한 말과 차이가 날것이다.
《우리 잘 아는 사람이라우. 아주바니, 수고하시소.》
매생이를 젓기 시작한 총각은 실은 자랑을 하고싶었던것이다. 이왕이면 지금 저와 매생이를 갈이 탄 처녀가 바로 그 명궁수의 누이동생이라는것까지도 말하고싶었다.
매생이는 청류벽 그늘밑으로 들어섰다. 마침내는 반월도에 가리워서 일본군의 초막들도, 그앞에 피워놓은 우등불들도 보이지 않게 되였다. 오직 간간이 그 알아들을수 없는, 마치 무슨 산짐승들이나 원숭이떼가 싸우고 지껄이는듯 한 소리가 들려올뿐이다. 이제는 놈들의 진지가 마주보이는 위험한데는 벗어났다. 숨이 나갔다.
《얘, 네 고집두 정말 무던하더라.》
총각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내가 무슨 고집?》
처녀는 놀랜 눈을 들며 물었다. 그런 눈에 제 눈이 시린듯 총각은 마주보던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청류벽 그늘밑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배를 중류로 띄웠던것이다. 여기는 누가 남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데다. 총각은 여기를 별렀던것이다. 더욱 대담해질수 있는 기회가 이때였던것이다. 그러나 총각은 《고집아니구. 내 맘을 그렇게두…》했을뿐 말문이 막힌다. 가슴만이 울렁거렸다.
《차돌아! 너 좀 가만있으렴.》
불쑥 보패가 떨리는 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지금 난 정말 맘이 아파죽겠다.》
《…》
《지금이니 말이지, 내가 오죽해서 남의 총각한테, 너한테 이런 수굴

시키면서 이맘에 여길 오갔니?》

처녀의 음성에는 차차 눈물이 배기 시작했다. 마침내는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제 무릎에 엎드렸다.

《오죽하면… 남들이 알면 나를 뭘루 알라구…》

보패는 느껴울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다. 안 그러마, 정말 내 안 그러마.》

총각의 말소리도 비감해졌다. 부끄러웠다. 제가 모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도 사모해온 보패를 슬프게 했다. 무섭게도 했다. 나를 무엇으로 알가? 총각은 이같이 후회했다.

보패는 지금 영명사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다. 오늘이 돌아가신 형님의 대상날이였다.

고충경은 2년전에 상처를 했었다.

벌써부터 사돈댁 장인, 장모는 자식남매는 맡아서 길러줄터이니 재취를 하라고 권해온지 오랬다. 그러나 고충경은 그때 젖먹이였던 딸만을 외가에 맡기고는 지금 아홉살짜리 사내놈과 안살림을 누이동생인 보패의 손에 맡겨놓고 재취할 생각은 않는 모양이였다. 사돈댁의 권고뿐아니라 여기저기서 혼처들이 떠들어오기도 했다. 그 혼처들이 그리 기우는것도 아니였다. 30이 넘어서 중년 상처한 홀아비의 후취로서는 과남하다고 할만한데도 있었다. 그러나 고충경은 번번이 응하지 않았다.

그런 오라비의 처사를 보패는 제탓이 아닌가도 생각해왔다. 철들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아홉살때에 어머니마저 여윈 보패는 오라버니가 아버지대신이였고 형님이 어머니대신이였다. 착한 형님이였다. 실로 어머니다왔다. 그런 형님을 잃은 때는 어린 두 아이들보다도 보패의 정상이 더 보기에 딱했다.

이제 새댁을 맞아들인다면 어린 자식들에게보다도 우선 철든 보패에게 더 계모가 될것이 아닌가! 오라버니는 이렇게 생각하는것이나 아닌가? 사실 보패 제자신의 생각이 우선 그랬다. (고충경이도 그 점을 잘 알았다. 그렇기때문에 보패가 나이차기를 기다려서 출가시킨 후에 차차 재취를 하리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어차피 언제든 그래야 할바에는 조카들이 한살이라도 더 어려서부터 새 어머니의 손을 타도록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보패는 아무리 오라버니일이라도 혼인반사에 처녀가 참견할수 없어 말은 못하나 마음으로는 급하기도 해서 오라버니의 눈치만을 살펴왔

었다. 그러면서도 또 한끝으로는 그런 생각은 집안모양이라든가를 생각해서 하는 생각이지 어린 조카와 물샐틈없이 지내는 지금이 그대로 좋기도 했다. 사람나름이겠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올는지 모를 새 오라범댁 생각을 하면 보패는 저 먼저 불안해지기도 했다. 그만치 보패는 어린 조카가 귀여웠다. 그런데 일전에는 그 조카와도 리별하게 되였다. 룡강 사는 맏처남이 와서 하루밤을 새우다싶이 무슨 의논을 하더니 고충경은 어린 아들을 외가로 보냈다. 그때 고충경은 보패도 같이 따라가라고 했다. 어린 조카를 아무리 저의 외가지만 남에게만 맡기기가 안심이 안되고 떨어지기도 싫고 해서 저도 따라가고싶었다. 그러나 과년한 처녀로서 형님도 없는 사돈댁에 가서 신세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 또 이 란시에 오빠의 곁을 떠나서는 못살것만도 같았다. 오빠의 보호없이는! 어련히 오빠가 사리를 잘 가려서 처신하랴. 오빠의 그늘밑에 있자. 또 내가 떠나면 오빠의 상답을 누가 보며 옷을 누가 시봉하리 하는 보패였다. 고충경이도 보패에게 당장 가라고는 안했다. 차차 가도 좋으리라고 했다. 어쨌든 어린 조카마저 떠나보낸 보패는 이 며칠동안을 남모르게 눈물로 보냈다. 열여덟 짧은 반생이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대신이던 형님의 죽음으로 아프고 외롭던 많은 슬픔이 다시 생생한 추억으로 떠올라 서러워졌다.

설음속에 또 이 슬픈 기억의 날이 온것이였다. 고충경은 모르는듯 했다. 왜 모를리 있으랴만 아무 말도 안했다. 자식들이나 장발했다면 몰라도 이런 란시에 망처의 제사를 제가 차릴 생각은 않는 모양이였다. 보패가 그런 말을 비치였을 때 《그만둬라.》한마디 했을뿐 그는 오늘도 어데론가 나가고 없었다.

그래도 보패는 그만둘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소상, 대상을 철모르고 지냈던 한까지 겹쳐 보패는 집에서 제사는 못 지낼망정 저 혼자서나마 그 혼백앞에, 그보다도 제 마음속에 새겨진 죽은이의 기억앞에 한자루의 초불을 밝히고 그앞에 꿇어앉고싶었다.

고충경은 그자신 선비였고 대대로 유생집안이라 절에 가서나 중을 불러서나 재를 올리는 가풍은 아니였다. 그렇지만 집에서 제사도 못 지낼 형편이므로 궁리한 끝에 생각난것이 시식이였다. 절에 가서 시식을 지낸다면 제문은 아니나마 그래도 중들이 고인의 혼을 부르고 명복을 비는 진언(불교에서 부처의 말)이라도 읽어줄것이 아니냐.

생각이 이에 미친 보패는 나중 오빠의 책망을 들을셈 하고 절로 찾아

갈 결심을 했던것이다. 혼자힘으로 마련할수 있는껏의 제물을 장만하기도 했다. 이제는 영명사까지 가는것이 문제였다. 걸어서 성내를 꿰간다면 영명사에 다 가기도 전에 저편 성문이 닫힐것이고 따라서 시식을 지내고 밤으로 돌아올수도 없을것이였다. 보패는 여기서 더 큰 각오가 필요했다. 오빠가 알게 되면 꾸중을 들을셈 하고 차돌이에게 부탁해서 매생이로 가기로 했다. 보패는 이런 사정을 나많은 아주머니한테만은 말했다. 그 아주머니는 고충경이가 어데 간 때마다 와서 보패와 같이 집을 보아주는 늙은이였다.

한사정근처에서 매생이를 띄운것이 초경(20시부터 22시까지) 좀전이였다. 저편에는 승냥이인지 귀신인지 모를 왜적의 떼가 득실거리고 이편에는 우리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창검을 번뜩이는 군사들이 우뚝우뚝 서있는, 말하자면 등등한 살기로 가득한 강을 한밤중에 남의 총각과 단 둘이 한매생이를 타고 간다는것이 처녀의 몸으로서는 얼마나 무서운 모험이고 또 얼마나 수통스러운 일이라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그러나 보패는 그보다도 더 애끊는 슬픔과 추억을 이겨낼수가 없어서 이 길을 떠났던것이다.

총각도 처녀의 그런 심정을 모르지는 않았다. 사랑하는만치 사랑하는 처녀의 슬픔이 곧 자기의 비감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슴속에서 용솟음치는 청춘의 피는 그런 동정이나 사리보다도 더 뜨거워서 처녀를 실은 이달음으로 어데로든지 가서 마음껏 품어안아보고싶은 욕심도 없지는 않았다.

피차 침묵중에 더우기 혼자생각에 잠겼던 보패의 귀에는 백은탄 여울물소리가 어데서 갑자기 쏟아지기라도 하는듯이 소란스러웠다. 중천의 달도 안 보이게 깎아지른듯 솟은 청류벽의 한없이 깊고 짙어보이는 그림자속으로 그들의 쪽배가 들어섰다. 청류벽중턱에 제비둥지같이 붙어있는 산수암에는 불빛도 목탁소리도 없다.

《얘, 보패야!》

《왜?》

깊은 그림자, 소란한 물소리에 휩싸여 무시무시하던 보패는 차돌이가 정답게 불러주는 소리가 이번에는 미덥기도 했다. 그러지 않아도 노상 마음이 안 끌리는바도 아닌 총각이였다. 아니, 내심으로는 사랑하는 차돌이였다.

《너 내 맘만은 알지?》
다시 말을 시작한 총각의 떨리는 소리다.
《…》
보패는 또 물에 금을 그을뿐.
《이러다가 란이 나서 이제 너희는 너희대루 또 우리는 우리대루 떠나가구말게 되면 풍비박산 섶가랑잎같이 산산이 헤져서 서루 보지두 못하고 썩구말지 누가 아니?》
《넌 왜 또 그런 슬픈 소릴 하니?》
추연한 보패의 말이다.
《너두 슬프니?》
《…》
《그럼 네 맘두 내 맘하구 갈구나.》
총각은 이상 더 말을 못했다. 너무 기뻤던것이다. 침묵중에 백은탄 여울물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지금 청춘의 심장을 억세게 고동시키는 이들의 피가 되여온 대동강물의 소리인것이다.
《얘, 난 아무데도 안 가갔다.》
내려쏘듯 하는 백은탄 급한 물살을 거슬러 억세게 노질을 하며 총각이 또 말을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니 너의 오라버니두 여길 안 떠날 생각인가부더라.》
《글쎄.》
《글쎄가 아닌가부더라. 그러게 난생처음으루 제 포재를 그 많은 사람앞에서 보란듯이 내논거 아니가.》
《활 말이지?》
《그래, 그 선산님이 이번에 활질을 한건 앞으루두 왜놈하구 해본다는 제 마음보를 내놓은거 아니갔네? 그럴래면 여기 있을거구, 그러면 너두 여기 있을거구, 그럼 나두 어데 안 간다.》
《우리 오라버니가 여기 계시문야 나두 어데 안 가지.》
《얘 보패야, 남의 속 좀 작작 태우렴. 차돌이 너 안 가면 나두 안 간다구는 말 못하니?》
《그건 이 담에.》
《그래라, 모르갔다. 그런데 제기랄거, 나야 활을 쏘나 검을 쓸줄 아나. 석전 같으면 위—잉 딱! 하니 한번 해보갔는데.》

《돌팔매는 왜 어드래서? 참! 우리 오라버니하구 우리 집에 간혹 오는 중하고 이야기하는데 왜놈이 조총을 가졌대두 매번 장약하는 품이 들어서 이편에서 가까이 가기만 하면 연방 쏠수 있는 활이 더 빠르다구 하시면서 그러구보면 돌질 잘하는 석전군두 한몫할거라구 하시던데.》

《글쎄.》

이번에는 제편에서 《글쎄.》 한 차돌이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얘, 난 그 법근인가 하는 중이 너희 집에 자주 다니는것이 싫더라.》

《왜?》

《누가 아니? 혹시 너때문에 다니는지.》

《너는 그저… 그 사람은 중 아니니?》

《중두 중나름이지. 여북해서 사람들이 난봉중이라구 할라구?》

처녀는 말없이 총각을 책하듯 눈을 흘길뿐이였다.

매생이는 이미 청류벽 짙은 그림자를 벗어났던것이다.

이때는 전금문과 그 좌우로 련달린 성벽이 없었다. 그래서 이쪽 장경문에서 시작된 청류벽이 끝나고 또 저편에는 흥부쪽에서 뻗어온 금수산이 모란봉으로 맺히고 뚝 떨어져서 그밑의 부벽루가 눌러앉은 언덕으로 끝나고만 그 두사이에는 그저 환히 트인 동구로 남아있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바와 같이 릉라도다리에서 전금문을 거쳐 모란봉을 둘러싸고 을밀대로 련결된 북성이라는것이 그때는 없었다.)

동구 저편에 솟은 을밀대우의 달빛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둡던 강물과는 달리 동구앞의 강물은 은색고기비늘을 깔아놓은듯 흰 파문을 그리는 잔물살로 금실거렸다.

총각은 새삼스럽게 다시금 보패를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다. 흰 깁이 깔린듯 한 엷은 구름속의 은은한 달빛을 받아 더욱 희고 맑은 갸름한 얼굴, 반듯한 이마에 푸른 눈섭은 청산을 그린듯, 달을 쳐다보는 또렷한 두눈에는 별빛을 담았다. 그 아름다운 마음속까지도 꿰보이는듯 얼마나 맑은가! 얼마나 정숙한 처녀인가. 좀더 구수한 맛이 있었으면싶었다. 너무 점잖아서 그럴가, 좀 차겁게도 보인다. 지금까지 그만치나마 따스한 말을 해준것은 저 도톰한 입술탓이던가? 그러나 그 입술마저 좀 부드럽기는 하면서도 또 얼마나 단정히 맺힌것인가!

(내가 행실머리없이…)

총각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발 애비없이 자란 후레자식소리

만은 안 듣도록 해다고.》라고 걱정하시는 늙은 어머니의 말이 귀에 울리는듯도 했다.

흔히 《깜정차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이 총각 현수백이는 고충경이네 이웃에 사는 늙은 과부의 외아들이였다. 몇해전에 아버지가 작고하기 전까지는 현수백이도 서재에서 글을 읽었다. 반날갈이나 되는 밭을 뜯어 겨우 먹고사는 구차한 살림이지만 늙은 두 내외는 만득으로 본 외자식을 기성명이나 하게 한다고 글방에 보냈던것이다. 아버지가 작고한 후에는 서재(글방)는 못 가고 농사를 하게 되였지만 그래도 책을 아주 접어치운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어머니의 성벽때문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늘 이르는 말은 《너두 고충경이만큼 처신을 해라. 그 사람이 정말 쳐다보이는 사람이니라.》 하는것이였다. 이 《쳐다보이는 사람》이라는것은 고충경이가 벼슬을 한다거나 세도를 쓴다거나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점잖다는 뜻이다. 그런 어머니의 생각과 말은 아주 단순한것이였다. 대를 두고 이웃에 살아오지만 언제 한번 고충경의 의관이 삐뚤어진것을 본적이 없고 또 그 집안에서 큰소리가 나본적이 없다는것 그것이였다.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는것, 이것은 한 집안의 안해로서, 어머니로서는 그 이상 더 기쁘고 그윽한것이 없는 집안의 화목을 말하는것이다.

시골농가의 아낙네로 늙어온 차돌이 어머니에게는 벼슬이니, 세도니, 큰 재물이니 하는것은 엄두에도 없는 일이였다. 그런것은 모르기도 했다. 고충경이네는 대대로 탕건 하나 올려놓은 사람이 없었다. 부자라고 할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차돌이 어머니에게는 문제가 아니였다. 오히려 집에서는 자기네 터밭의 밭이랑을 타기도 하는 고충경이 더 갸륵하고 더 가깝게 생각되는 사람이였다.

자기 아들도 더 바랄것 없이 그저 고충경이를 닮았으면 하는 어머니는 겨울 농한기마다 서재에서 채 떼지 못한 책을 가지고 짬짬이 고충경이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다.

그렇게 지내오던중에 늙은 어머니에게는 한가지 뜻하지 않았던 근심이 생겼다. 얼마전까지도 한이불안에서 재워온 아들의 잠꼬대중에 간혹 보패의 이름을 듣게 되는것이다. 명절에 보패가 지은 새옷을 입었을 때마다 《보패야!》라고 부르는 아들의 잠꼬대를 더 자주 듣게 된다. 보패가 차돌이의 옷을 짓게 되는것은 차돌이와의 품앗이였다. 고충경이의 처가 죽어서 일손이 하나 없어진 고충경이네는 간혹 남의 손을 빌어야 하는 때

가 있었다. 그런 때마다 차돌이가 그 집 김을 매는 대신 보패는 바느질을 해주었다. 눈이 어두운 어머니는 같은 감이지만 바느질만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입히고싶은 아들의 명절빔 옷을 부탁해온것이였다.

갈은 열여덟살, 앞뒤집에서 자라온 총각, 처녀에게 있을만 한 일, 또 그럴만한 일, 그러나 그런 말을 비쳐보기조차 용기가 안 날만치 심히 기우는 혼처같이만 생각되는 어머니였다. 여느때는 제법 가깝게 생각해온 《점잖은 집안》 고충경이네지만 혼처로 생각할 때는 까마득히 먼것만 같았다. 더우기 보패— 그애는 너무 얌전하고 례절있고 범절이 까다롭고 그뿐아니라 지나치게 예쁜것이 흠인것도 같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또 달리도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고려집에서는 어떤 가문에다 혼사를 맺어왔던가? 고충경이의 망처의 친정을 보자면 룡강 어느 촌의 한 농가였고 보패 고모의 시댁도, 왕고모의 시댁도 역시 그 비슷한 처지밖에 안된다. 이렇게 꼽아보는 늙은 어머니는 《우리두…》하는 용기가 안 나는바도 아니였다. 그러면서도 《애비없이 기른 자식》하면 고충경이 같은 사람은 더우기나 한팔 접어보지나 않을가 하는 생각에 주눅이 들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실상은 어머니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한곳 나무랄데 없이 귀한 아들이기는 하면서도 《제발 남한테 후레자식소리만은 안 듣도록 해라.》 항상 이르는 말이 그 말이였다.

《더구나 점잖은 사람은 이편에서도 점잖은 대접을 해야 하느니라.》

《남이 보는데서 인사나 깍듯이 한다고 점잖게 대접하는 보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타이르던 어머니가 언젠가는 《남의 가문에 체면 깎이는 일은… 더구나 남의 집 백설같은 처자에게 티끌만치라두 흠절이 될만 한 소문이 나게 하든가 해서는 못쓰는 법이니라. 그건 큰 적악이니라. 그런 적악을 해서는 구만리같은 네 전정에두 해로우니라.》 이같이 밑도 끝도 없이 말을 비약시킨적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봄이였다. 차돌이는 놀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니앞에 그냥 앉아있을수 없어서 강가로 달려나간 차돌이는 그 흔한 자갈돌을 가지고 한사정 석주들에 댔다떼듯 하는 솜씨로 돌팔매질로 그날의 남은 해구멍을 막았던것이다.

《남녀유별이라? 제기랄것!》

속으로 투정을 하는 차돌이는 《7세에 부동석》같은 문자가 단순히 례

모에 관한 말만이 아니라 저한테는 마치 《못 올라갈 장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억누르는 말갈기도 했다. 《어머니의 말씀도 그런 뜻이 아닐가?》 하면 더욱 언짢았다. 어쨌든 어머니의 말대로 채심을 하노라니 보패를 대하는 태도가 자연 버성겨질수밖에… 그러나 그것은 겉뿐이지 차돌이의 맘속은 더욱더 깊이 곪는것도 같았다.

그래오던차에 이밤에 영명사까지 데려다달라는 보패의 부탁을 받았을 때 차돌이의 마음은 막 날았다. 하도 기쁜김에 보패의 슬픈 심정은 미처 생각도 못했다. 이 기회에 그저 대담해지려고 제 마음에 채찍질을 했을뿐이였다. 그래놓고 지금 생각하면 저도 모질었고 보패는 애처로왔지만 어쨌든 제게 향한 보패의 마음만은 알아쥔듯 했다. 《그건 이 담에―》 했던 보패의 그 한마디!

지금 차돌이는 배에서 내리기 전에 보패의 그런 말을 한번만 더 듣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또 보패의 그 말을 자아내려면 저는 더 지싯지싯한 총각이 되고말것이였다.

20. 영명사에서

차돌이는 매생이를 댔다. 지금으로 이르면 릉라도다리아래를 지나 전금문앞에다 배를 댄것이다. 제물을 넣은 채롱을 들고 먼저 내려서서 닻줄을 당겨쥔 총각은 한손을 내밀었다. 되뚝거리는 매생이에서 몸을 가누며 한발을 내디디려는 처녀의 손을 잡아줄 의사였다. 그러나 보패는 치마폭을 가누는 핑게로 두손을 다 뒤로 돌리고 내렸다.

강뚝에서 전금문을 지나 좀 올라가면 청운교, 백운교라는 두 돌층계가 있고 그 높은 돌층계를 올라가면 곧 영명사의 앞뜰이다.

사위는 고요했다. 중이 근 백명이나 있다는 영명사 절앞에도 인기척이 없는듯 했다. 언제 보나 락락장송 우거진 소나무우에서 금방 날개를 펼치고 날아날듯 한 을밀대로부터 바로 눈앞의 모란봉까지 동구안을 뒤덮은 송림에서도 산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3경(0시부터 2시까지)이 가까우니 여름밤이 깊기도 한 때였다.

어데로 가서 누구한테 말을 붙여야 하나? 차돌이는 이런 때 제가 사내

싸게 주변을 내야 하리라고는 하면서도 처음 일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선뜻 발이 내키지 않았다. 평소에는 《그까짓 중놈들…》 해왔지만 절에 와보니 절은 역시 중이 주인으로 우선 기웃해보는 문간의 금강력사부터 속인을 달갑게 받자하지 않는 모양같았다. 그 번쩍거리는 불상들이 들어앉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거창하게 판국을 벌린 가람이 압도적이기도 하려니와 우선 그 문밖에서부터 일종의 신비감으로 느껴지는 목향냄새만으로도 속인에게는 먼 타향같았다.

이때 마침 저편 부벽루의 추녀그림자로부터 한 중이 나타났다. 달빛아래 나선 그 중은 마치 대잎에 눈이 쌓인듯 한 눈섭이 먼저 보이는 로승이였다. 그앞으로 달려간 차돌이는 법근이를 만날수 없겠는가 물었다. 파, 마늘냄새에 고기누린내까지 피우는 법근이지만 중은 중이라 절에 있음직했다. 있기만 하면 제 서투른 말솜씨로 낯선 중을 붙들고 긴말을 해야 할 품만이라도 덜릴것이였다. 그러나 법근이는 없었다. 이왕 말을 꺼낸 차이라 차돌이는 같이 온 처녀가 어제 대동강에서 조총질하는 왜적들과 활로 겨루었던 명궁수 고충경의 누이동생이라는것까지도 자랑스럽게 밝혀가면서 이 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절을 찾아온 사연을 말했다.

지팽이끝에 두손을 얹고 서서 총각의 말을 들은 로승은 《그러시오니까. 날 따라오시오.》 하며 앞서서 절로 들어갔다. 대웅전옆에 있는 큰방뒤에 별당같이 따로 떨어져있는 작은 방장으로 들어간 로승은 젊은 중을 불러서 로전승에게 시식 지낼 차비를 하게 하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보패가 꺼내놓은 백지로 손수 위패를 접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보패는 머리맡에 있는 경상(불경을 얹어놓은 상)옆에 놓인 벼루에 먹을 갈았다. 까맣게 손때가 올라 반들거리는 경상 한 귀퉁이에 문바람을 피해 세워놓은 사기촉대에는 반나마 닳은 초불이 가물거렸다. 그앞에 몸집이 자그마한 로승이 펴놓은 백지를 이모저모 눈겨냥을 해가며 접고있었다. 초불로 모여드는 날벌레들이 눈앞에서도 사물거렸다. 무슨 날카로운 쇠끝을 퉁기는듯도 한 모기소리가 귀전을 스치기도 했다. 그래도 로승은 고개 한번 외치는 법 없이 약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어가기에만 실로 일심정력인듯 했다. 오래간만에 하는 일인지 서투른것 같기도 했다. 접어가던 손을 멈추기도 하고 다시 펴서 고쳐접기도 했다.

먹을 갈며 그런양을 보는 보패는 부채가 있으면 모기를 날려드렸으면 했다. 그렇게 해도 체모에 어그러질것 같지 않았다. 아무리 파파로승이라

도 처음 보는 외간남자, 그러나 그옆에 앉기가 그리 수줍거나 송구스럽지도 않은것은 웬 까닭일가? 어덴가 관숙해보이기까지도 했다.

《오, 저 눈섭!》

문득 이러한 제 마음속의 말을 들은 보패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고결한 장미를 가지신 어른이 아닐가?)고 이전부터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온것 같기도 했다. 그러고보면 로승의 머리도 이제는 삭발이라기보다 이마가 환히 트이게 벗어진 머리였다.

마침내 서산은 다 접은 종이위패를 경상에 세워본다. 그러는양이 다심한 로인이라기보다 귀여운 어린이 같은데가 있는것은 또 웬 일일가? 단순히 점잖다거나 고결하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준엄하다고 할 그 눈섭의 대조로 그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기도 했다.

보패는 먹을 다 간 벼루를 로승앞으로 돌려놓았다.

《왜, 제가 쓰지.》

이때 문밖 쪽마루에 앉아서 들여다보던 차돌이가 툭하는 투로 이런 말을 했다. 보패는 금시 빨개지도록 당황했다.

《쓸줄 아시면야 손수 쓰시는것밖에 더 있겠소.》

서산은 연상에서 꺼낸 붓과 위패를 보패앞에 놓았다. 기가 차는듯 해서는 차돌이에게 매운 눈총을 주고싶기도 했으나 그럴수도 없었다. 마지못해 붓을 들었다.

이미 한 말이지만 딸자식까지도 집에서 어느 정도의 글을 가르치는것이 고려집의 가풍이랄가. 역시 어려서부터 오빠한테 글을 배우고 글씨도 써본 보패는 부엌일을 하다가도 어린 조카가 잘못 읽는 글을 틔여주고 바느질손을 놓고 어린 조카의 붓잡은 손을 잡아 운필과 선후 획을 가르치기도 했다.

대웅전에서 간소한 시식이 시작되였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늙은 로전승은 그물거리는 초불과 피여오르는 목향연기로써 흔들리고 뒤섞이는 음영이 더욱 현란스러운 불상앞에서 그 비둔한 몸집을 매번 끙끙 소리를 내듯이 일으켰다 굽혔다 하며 혹은 요령을 흔들고 혹은 목탁을 쳐가며 경문을 읊는다. 그뒤에는 보패가 오른쪽무릎을 꿇고 왼쪽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또 그뒤에는 서산이 합장하고 서있었다. 또 그뒤에는 영명사 중들이 통털어 나오다싶이 문밖을 에워섰다. 물론 그중에는 차돌이도 있었다.

《실없이 큰 재(불교에서 명복을 비는 불공)가 되는데!》

《그러게 말이요.》

《서산스님께서 웬 일이실가?》

《글쎄 웬 일이요.》

문밖의 중들은 이렇게 쑤군거렸다. 이들중에는 주지는 물론 좀해서는 자리를 뜨지 않는것이 격으로 되여있는 선방의 조실(참선을 지도하는 선승)까지도 구경을 나와있었다. 《실없이 큰 재가 되였다.》는것은 부처앞에 벌려놓은 공양이 풍부하고 값지다거나 또 손님들과 구경군이 많이 모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공양은 오히려 보잘것없이 간소하고 재주(불공을 올리는 주인)도 오직 어린 처녀 하나뿐이지만 서산스님이 몸소 끝까지 참여했다는것을 말하는것이였다. 불상앞의 재가 끝나고 제물을 옮겨서 위패를 세운 령단앞에서 지내는 시식이 끝날 때까지 서산은 보패뒤에서 합장하고있었다.

서산은 이 영명사에서는 이런 일에 아무런 책임도 있을리 없는 한낱 객승이였다. 그뿐아니라 더우기 그는 선승이였다.

한마디로 《불교》라고 말하지만 불교에는 크게 나누어 선종과 교종의 두 교파가 있다. 이런것도 잠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교시불지언》— 즉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종에서는 석가여래를 비롯한 력대의 고승들의 언행록과 그들이 만든 경전들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불(부처)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념원하는것이라면 《선시불지심》— 즉 《선은 부처의 마음씨》라고 하는 선종에서는 그런 경전이나 언행록 같은 글과 말로 된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밝힘으로써 자기 마음속에서 부처의 마음씨를 찾자는것이다. 즉 선종에서는 부처의 마음자리를 밖에서 배우려는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찾자는것이다. 그러니만치 그들은 한날 물체로 된 불상을 다른 교파의 불교도들같이는 숭상하지 않는다. 《아불례불이나 아불경불》이라는 말도 그들이 하는 말이다. 혹은 《밤이면 부처와 같이 자고 아침에는 같이 일거늘 하필 금박 한꺼풀만 벗기면 진흙덩어리인 등신앞에 절을 할것이 뭐냐.》하기도 한다.

선승인 서산이 오늘따라 웬 일일가? 이렇게 생각하는중 그들 역시 전 같으면 재를 올리거나 시식을 지내는것쯤 구경거리가 아니였다. 더우기 이 란시에 물려먹을만 한 공양도 없는 초라한 시식쯤 일부러 나와 볼것도 없었다. 지금 나와서 보는것은 서산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늙은 로전승 역시 그 비슷한 심정이였다. 우선 이 밤중에 귀찮은 일이였다. 그래서 외우는 진언도 또박또박 다할것 없이 요새 말투로 《대강 자세히》 해버리고말 작정이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서산스님이 참가한 시식이라 그렇게 마구 해치울수가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뺨가죽이 늘어진 얼굴은 물론 비둔한 잔등에서도 땀이 철철 흐를 지경이였다. 례식절차와 외우는 진언에 외착이 날가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직업적으로 익숙한 일이라 진언 같은것은 입만 벌리면 얼음에 박밀듯 하게 되므로 정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좀 더듬기도 하고 억양도 좀 달리해야 했기때문이였다. 그래서 좀더 엄숙하게도 되고 길어도 져서 실없이 큰 재가 되였다고도 할수 있었다.

21. 을밀대아래 집결한 우리 군사들

전날 고충경이의 의로운 용기와 지금 그 누이동생의 예리고 아름다운 마음씨앞에 숙연히 합장했던 서산은 절 문밖까지 배웅해나왔다.

그런데 웬 일일가? 앞의 길이 꽉 막혔다. 영명사 뜰앞 청운교, 백운교의 돌층계로부터 저편 을밀대밑의 기린굴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들어찼다. 우선 웅성거리는 인기척 그리고 한밤중 싸늘하게 식어가던 동구안이 훗훗할만치 사람들의 진한 땀내가 풍기였다.

을밀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성벽에 빠끔히 열린 암문에서는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나와서 좁은 비탈길을 따라 동구안으로 밀려드는것이 바라보인다. 그 외발자국길에는 달빛에 번들거리는 창끝들로 줄을 이루었다. 이쪽 돌층계와 그밑의 골짜기에도 쌈으로 묶어세운듯 한 창날들이 번뜩이였다. 우리 군사들이다.

(큰 변이 나나부구나!)

앞서서 나오다가 이런 생각에 등골이 으쓱해진 차돌이는 돌층계우에서 걸음을 멈출수밖에 없었다. 발을 내짚을 틈이 없었다. 돌아보는 보패의 눈에는 금시 《어떡허나?》 하는 걱정이 서리였다. 그뒤의 로승도 《웬 일일가?》 하는 불안한 낯색이였다.

딴 길은 없을가? 차돌이는 저 혼자만이면 부벽루 아래벼랑으로라도 내

려갈수 있지만 보패가 걱정이였다.

《자, 좀 갑세다.》

차돌이는 망설이고만 있을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청하듯이 말했다.

《어델 가?》

《지금이 어드런 때기에 어델 가느라구 그러나, 총각?》

《집에? 집이 어데게?》

총각뒤에 서있는 처녀와 로승을 번갈아 보면서 군사들은 한마디씩 묻고 말했다.

《뭐, 한사정근처?》

《더구나 배루? 아이구, 안되갔는데.》

《지금 강길은 금잡인이야. 그리고 이편이 위태해서 못 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두리번거리던 차돌이는 청운교쪽으로 달려갔다.

《보통벌아주바니 아니웨까?》

《차돌이 네녀석이 여기 웬 일이냐?》

《아주바닌 어떻게 된노릇이요?》

《어떻게 되긴… 우린 머사니 아니가.》

《머사닌줄은 아는데 대관절 어떻게 되는 일이요?》

《일? 일이야 우린 머사니니낀 거식하는거갔지.》

이런 투로 말하는 그 늙수그레한 군사는 쳐다보면 군졸이지만 그저 보면 농군 그대로인 아주버니였다. 말하자면 흙물이 누렇게 든 고의잠방적삼에다 시꺼먼 벙거지를 써서 머리만은 군사의 모양이지만 그아래는 농군 그대로였다. 손에 든것도 가래장부였다. 단지 그끝이 넙적한 가래날이 아니고 뾰족하게 벼린 쇠끌 즉 창날이 박혔을뿐이였다. 그옆의 다른 군사들도 거의가 다 어슷비슷한 차림들이였다. 벙거지만을 썼거나 그 반대로 당홍동달이 야청군복만을 걸치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인 사람들도 많았다. 군복에 전립을 제대로 갖춘 군사는 그리 많지 못했다. 원체 모자라는것이라 혹은 군복만을 입히고 혹은 벙거지만을 씌워서 얼쑹덜쑹하게나마 조금씩은 군사모양을 만들기 위한것이였다. 그들의 병장기 역시 그랬다. 보통벌머사니모양으로 가래장부에 쇠꼬치를 박은 창이 아니면 보통식도보다는 좀 긴 검을 집도 없이 허리띠에 찔렀거나 그렇지 않으면 버덩의 새를 베던 장낫을 그대로 들고나온 농군들도 있었다.

《우린 머사니니낀, 그런데 넌 웬 일이가?》

보통벌머사니는 또 이렇게 물었다. 그의 별명이 보통벌머사니이기도 한데다 더우기 지금은 자기네 군사에 관한 일을 내놓고 말하는것이 어떨가 해서 일부러 더 《머사니》, 《거시기》로 말을 꾸려가기도 했다. 번역하면 《우리는 군사니까 싸우러 가는것이지만…》 하는 뜻이다.

《총각, 저기 서있는 처자(처녀)가 고충경이의 누이동생이란 말인가?》

차돌이와 보통벌머사니와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얼쑹덜쑹한 군사들중에 군복, 전립을 갖추고 넙적한 오동나무집에 꽂은 큰 검까지도 들고있는 한 군교가 저편에 좀 동떨어져 서있는 보패를 바라보며 물었다.

《예.》

《고충경이를 한번 만났으면 했는데…》

군교는 혼자말갈이 중얼거렸다.

《고생원을 잘 아시나요?》

《몰라, 그이가 전날 대동강에서 활루 왜적의 조총하구 겨룬 명궁수라는 말만은 들었지.》

《누구신가요? 제가 가서 말씀하지요. 바루 우리옆에 사는데요.》

《말해두 그인 날 모를걸세. 이제 만나게 되면 만나지.》

군교는 시각을 헤아려보는 모양으로 달을 이윽히 쳐다보고있었다. 3경이 지난지 오래다.

《말씀만 하문야 별장님을 왜 모르갔소. 차돌이, 너두 알갔구나. 접때 왜놈의 모가지를 둘씩이나 머사니해온…》

《아ㅡ 저, 임욱경별장님이요?》

차돌이는 반갑게 임욱경을 쳐다보며 웨치듯 했다. 그때는 같이 김매던 어머니에게 붙들려서 성안에 들어가보지 못한것이 한스러웠던 차돌이였다.

《요 <깜정차돌이>는 햇내기석전군이기는 해두 먼 돌질두 머사니하지만 맞세서 댔다떼는데는 열뗑이웨다.》

《총각이 그렇게 석전을 잘하나?》

보통벌머사니의 말에 임욱경이가 물었다.

《뭘요.》

차돌이는 어색했다.

《그런 포재가 있으면야… 이런 란시에는 더 귀하지.》

《잘할줄두 모르지만 돌이나 가지구야 뭐…》

차돌이는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돌질이 어드래서! 가까이 다가들기만 하면야 활보다두 투석군이 더 무섭지.》
《…》
《고생원을 잘 안다지? 그럼 그한테 의논해보게.》
《글쎄요.》
이쪽에서 이런 말들을 할 때 차돌이뒤로 몇걸음 다가선 보패가 《우리 오라버닌 여기 안 계실가?》 하고 속삭이듯 조심스러운 소리로 물었다. 그저께 일도 있는만치 보패는 지금도 이 군사들중에 어덴가 자기 오라버니가 꼭 끼여있을것만 같았다. 두루 살펴보는것만으로는 안심이 안되던차에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중에 고충경이가 어떻다는듯이 들리기도 했으므로 더 참을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앞이지만 체모불구하고 총각에게 물었던것이다.
《고충경 그 사람 말이요? 여긴 안 계시오. 여기는 우리 군사들뿐이웨다.》
총각대신 임욱경이가 대답했다. 대답하면서 처녀를 눈여겨보는 임욱경의 눈이 한순간 커졌다. 처녀의 아름다움에 놀랜 모양이다. 둘러선 사람들중에는 부지중 《야―》 하고 한숨을 짓는듯 하는이도 있었다.
《분명히 여기는 안 계시웨다.》
또 다짐하듯이 말하는 임욱경은 처녀의 근심을 잘 알수 있다는듯이, 그러나 안심하라는 뜻으로 입가장자리에 너슬너슬한 누런 채수염이 흔들리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아 참, 총각.》
조금후에 그는 물었다.
《저 칠성문밖의 전주복이라는 사람 모르나?》
《씨름군 쇠주머구 말이웨까? 왜 몰라요. 말은 못해봤어두 잘 알아요. 작년에두 여기서 마룻솔 탔는데요.》
차돌이는 부벽루 앞뜰을 가리켰다. 부벽루와 영명사사이에 있는 공터가 5월 초닷새마다 평양씨름판이 벌어지는데다. 일반사람들은 그뒤의 모란봉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평안감사, 평양부윤 같은 관속들은 부벽루에 자리를 차렸다. 그 한편에는 기악이 있고 때로는 봉산탈춤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이 이렇게 급히 될줄은 모르구 오늘 저녁엔 내가 놀러 가마 했댔는데

그만 이렇게 돼서… 언제 전서방을 만나거든 내가 그러더라구 말해주게.》
《예.》
《참말 그 사람네 말이 났으니 말이요.》
차돌이와 함께 임욱경이옆에 서있던 젊은 군교가 말했다.
《혹시 이런줄 알았으면 오늘두 전서방이랑 고충경이랑 또 그 중두 나섰을지 모를거웨다.》
《그렇지 않구. 의례 나서지.》
《그 군들이 나섰으면, 밤중이 돼서 활질은 어드럴지 몰라두 승검술이랑 쇠주머구 전서방이랑은 한바탕 씨원히 들구나설게요.》
《참, 엇그저께 일만 해두 그 군들이 장관이드니.》
임욱경이앞에 모여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할 때 그옆에 한걸음 떨어져있던 축에서는 《이 사람 김패두, 여기서는 어제 행궁앞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네는 그때 창날이 뭉청 날아났던 이야기나 좀 하게나.》 하고 누가 이런 말을 꺼냈다.
《이 사람은 또 남의 망신스러운 소릴 못해서 그러나?》
김패두라는 젊은 군사의 말에 갑자기 와ㅡ 웃음이 터졌다.
《혼났지? 서둘게 내두르다가…》
누가 또 이런 말을 해서 웃음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참, 그때는 내가 큰 실술 해서…》
젊은 김패두가 시무룩했다기보다 엄숙하게 하는 말에 웃음소리는 금시 가라앉았다.
《내니 뭐 그럴 생각이야 꿈에나 했나! 한데 그만…》
김패두의 침통한 말이였다.
《좌우간 나두 안타까운데 말이요! 뭐이 안타까운가 하면 떠나갈 사람들은 누가 아무런대두 가구야말건 뻔한데, 그런데두 여기서들은 다 잡구 길을 막구 모여는 들지, 저편에서는 어서 길을 안 틔운다구 욕사무지루 호령호령하지, 그런데 또 그 전날 일두 있잖아? 이번에두 그따위 죽음이 나면 아까운 사람이 또… 하는 생각두 들지, 그래서 안타깝기보다두 정말 등이 버쩍 달구 화가 나거던!》 하던 그는 《에이 참, 내ㅡ》 이런 한마디로써 그때의 안타깝던 심정을 뱉아버리듯 하고 《좌우간 갈 사람들은 다 가서두 오늘 우리는 별렀던 저놈들을 한번 다과치게 됐으니 그러문 됐지 뭐 다른거 있소?》 이같이 의기헌양했다.

《정말 오늘은 우리 평양군사들이 별러온 원풀일 하게 됐소.》
《당신네 성안사람들은 원풀일 하게 됐다구들 하오만 우린 원쑬 갚아야갔소.》
누가 하는 말을 받으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강건너 동촌서 왔소?》
누가 물었다.
《그렇쉐다.》
대답한 동촌사람은 먼저 입안의 침을 모아삼키며 말했다.
《좌우간 저놈들은! 저 왜놈들은 말할수 없이 불칙한 놈들이요. 인끌은 썼다구는 해두 하는짓이 사람이라구는 할수 없소. 략탈질하구, 불지르구, 겁탈하구, 산 사람의 코를 베구 하는건 더 말할나위두 없구 사람을 무우대가리 쳐팽가치듯 하는 놈들이요. 좌우간 인명이 귀한줄 모르구 사람죽이길 식은 죽 먹듯 하는 놈들이요.》
《댁에서두 누가 어떻게 됐소?》
동촌사람이 목의 침이 말라서 잠시 말을 끊었을 때 옆의 사람이 물었다.
《우리 집에서는 요행 손잡아매는 어린것들두 없었구 늙은이들두 없어서 빨리 피했기때문에 그런 화는 바루 면했소. 하나 그렇지 못했던 사람네는 다 몰사죽음을 당했소. 글쎄 저놈들 하는짓이… 말을 할래두 이새에 신물이 나서 다 못하갔소. … 좌우간 저 왜놈들이 어찌나 잔인한 놈들인지, 이제 겨우 벌레벌레 기기나 하는 젖끝의것을 잡아가지구는 그것의 부모앞에서 두다리를 찢소. 우리 사람들의 생간을 먹는 놈들두 있소.》
《…》
《…》
동촌사람도 하던 말을 끊었고 듣던 사람들도 잠잠했다. 물론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벌써부터 들어온 말이다. 일본군이 대동강 건너편까지 들어온 후부터는 그런 소문이 더 자주 전해왔다. 그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듯이 한참씩은 말들을 못했다. 마음이 얼어붙는듯 했기때문이였다.
《그런걸 내 눈으루 보구는 내가 그 원쑤를 갚지 않구 이 세상에서 더 살 렴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소.》
동촌사람은 또 말을 시작했다.

《그 원쑤를 갚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구두 생각했소. 내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두 저 왜적들을 내 손으루 다문 몇놈이라두 죽이구 죽어야 내가 사람이갔소.》

또 몇순간의 엄숙한 침묵이 흘렀다.

《말씀 잘하셨소.》

군복만을 입고 수건을 쓰고 짧은 창대를 들고 섰던 한 중년군사가 조심조심하듯이 나직한 말로 침묵을 깨뜨렸다.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구보면 이제는 왜적이 우리 나라 땅에서 한발자국을 더 내디디면 그만치 또 우리 백성의 인명이 상하게 될 형편인데 창칼잡은 우리가 제 한목숨 애낄라구 물러서면 그뒤에서는 열사람, 백사람이 죽게 될게웨다.》

《안할 말루 만약에 저놈들이 대동강을 건느게 돼보소, 우리 평양이 어떻게 되갔나.》

《일이 그렇게 되문야 평양뿐이요?》

《아스소! 그런 말씀은 정 머사니하웨다.》

보통벌머사니는 차마 못 듣겠다는듯이 말했다.

《왜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머사니했다는 말만 들어두 오금이 다 재리웨다.》

《…》

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보니 보통벌머사니가 아이들이 많은가부지.》

침통한 분위기를 좀 헐하게 했으면 하는 모양인지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올망졸망한것들이 한 대여섯 됩네다.》

《아이구, 그럼 착실히 벌어야갔는걸.》

《착실히 버느라는게 농사밖에 없쉐다. 하기는 이렇게 란만 머사니 안했으문 내 손으루 뜯어서 먹게는 해놨댔소.》

좀 득의연하게 말하던 보통벌머사니는 문득 《얘, 차돌아!》 하고 찾았다.

《차돌아, 너 언제 우리 동네 갈 일 없니? 나 좀 머사니할것이 있는데.》

《뭐요? 전할 말씀이 있으문 우정이라두 가지요.》

《지난봄에 말이야, 내가 뭐이 좀 욕심나는 일이 있어서 그걸 머사니하느라구 우리 아이오마니두 모르게 남의 빚을 좀 졌는데 그 빚이 그

냥 있구만.》

《아니, 이편은 영 집엘 안 갈 작정인가? 남보구 그런 전갈까지 해달라게.》

차돌이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누가 결다리를 들었다.

《그건 님자 모르는 말이웨. 평지에서두 락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머사니할래는데가 어드런 길이와? 그러니끼니 내가 남의 빚을 졌다는걸 우리 집의 사람이 알기나 했다가야 머사니할거 아니갔나.》

《대관절 그렇게 꼭 갚아야 할 빚이 어드런 빚이게 그러시우? 투전을 했소?》

한 젊은이는 머사니아주버니가 걱정하는 내막이나 좀 알자고 했다.

《투전이라니?》 하듯이 고개를 흔드는 보통벌머사니가 빚을 지게 된 래력은 대강 이런것이였다. 바로 저희 동네앞에 피발치고도 진펄이 낮은 밭 한뙈기가 있는데 보통벌머사니 제가 가지면 그앞의 보통강줄기의 물을 바가지로 퍼서라도 네댓마지기 논을 풀수 있는데 성안에 사는 그 밭임자는 한뙈기 외따로 떨어져있는것이라 별로 돌보지도 않았다. 그러니만치 싸게 살수 있을것 같아서 막상 흥정을 하자고 한즉, 그 멱을 아는 땅임자는 곱값을 불렀다. 안해는 논 아니라 천하없는것이라도 남의 빚을 지고는 못산다고 도랑개지 떨듯 말렸으나 제 터밭논을 가져보겠다고 한번 내켰던 마음을 다시 돌이킬수가 없었던 보통벌머사니는 안해에게는 제 값에 샀노라 속이고 몰래 빚을 지고 사서 기어이 논을 풀고야 말았다는것이다.

《그래서 접때는 돌피를 출라구 들어섰더니 벼이파리가 눈을 찌를만큼 크는 재밀 보구 왔는데… 하기는 내가 없으면 농사두 다 머사니하구 말게야.》

보통벌머사니의 빚래력이야기의 끝은 이같이 호젓했다.

《왜, 집의 마누라가 있지 않나?》

누가 묻는 말에 《아니.》 하고 보통벌머사니는 고개부터 흔들었다.

《우리 녀편네라는게 올망졸망한 새끼들만 머사니하느라구 나 없으면 품앗이군 하나두 제대루 못 얻구, 쌀이 떨어져서 쌀 한되박 꾸러 가는것두 내가 다녀야 하는 맹꽁이가 돼서 웬걸, 뭐…》

또 머리를 흔들고마는 그의 말은 마음속에 그득했던 말인듯도 했다.

《그야말루 란나는 해에 과거한셈이로군.》

옆에서 누가 중얼거렸다.

《이 사람, 머사니— 세월두 세월이네만 자네가 논을 좀 늦게 풀었네.》

《그렇지! 할우버지적에 했으야 할걸 그랬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모두 웃었다.

《그거야 안 그렇지.》

보통벌머사니는 고집스럽게 머리를 흔들고 떠뜸떠뜸하는 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만 머사니하다마는 세상은 아니니끼니. 우리 손주처에 가면야 그때는 정말 할우버지가 머사니한걸루 될거 아니갔소?》

《과시 무서운 말씀이로군.》

이때 임욱경이는 이런 말을 했다. 그는 또 강건너쪽을 바라보면서 《너희놈들이 좌우간 무서운 코에 걸렸느니라.》 하고 허허허 웃었다. 따라웃던 사람들중에 젊은 김패두는 《이거 무슨 일일가? 이렇게 늦어져서야 되나?》 하며 달을 쳐다보고 또 맞은편 암문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 문으로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참, 3경이 지난지는 오랬갔소.》

동촌사람 역시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미 3경이 지난지 오랬다. 어데선가 들려오는 닭의 소리는 벌써 몇번째였다.

《얘, 너 갑손이 아니가?》

문득 차돌이가 반갑게 웨쳐부르는 소리였다.

혼자서 날씬한 허리를 휘청거리며 휘파람을 불며 부벽루쪽으로 가던 한 소년이 돌아섰다.

《오— 너 차돌이로구나!》

역시 반가운 소리를 지르며 마주 오는 소년의 머리에는 아직도 애티가 흐르게 호리호리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큰 벙거지가 올려놓여있었다.

《갑손이, 너 어떻게 된노릇이가?》

《어떻게 되긴 뭐이 어떻게 돼?》

갑손이는 정색하고 하는 말투로 대답은 하면서도 생글거리는 웃음을 감추지는 못했다.

《너 언제부터 군총이 됐니?》

《나? 벌써 오래다야.》

《오래다니, 언제부터게?》

《벌써 반달이나 된다야.》

갑손이의 대답은 어지간히 빼기는 투였다. 옆에서는 《반달?》하고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차돌이는 더 커진 눈으로 뜻밖에 만난 동무의 모양을 훑어볼뿐이였다. 까맣게 찌든 끈으로 볼록한 두볼이 잘록하도록 졸라매쓴 시커먼 산수털벙거지뿐 그리 깨끗치도 못한 잠뱅이적삼에 군복도 없이 맨발에는 짚신을 신고 그 역시 칼집이 없는 자그마한 검을 허리띠에 찌르고있는 갑손이의 모양은 볼수록 뜻밖이였다.

《좌우간 너 어떻게 된노릇이가?》

차돌이는 또 묻지 않을수 없었다.

《나 군총으루 들어간거 말이가?》

《그래.》

《나는 왜 못된다던? 척 이렇게 되면 되는거지 뭐 별다르게 되나.》

갑손이는 여전히 생글거리며 이런 대답을 했다.

《아니, 너두 나 같애서 말이야. 그래서 묻는거 아니가.》

차돌이는 제가 곰비임비 묻는데도 생글거리기만 하는 갑손이가 좀 얄궂기도 한 모양이였다.

《응, 그거-》

갑손이는 말귀를 이제야 알아들었다는듯이 한번 픽 웃었다.

《처음에는 일이 좀 우습게 되기두 해서. 너 우리 주인집 김감역네 알지?》

《그래.》

《처음에는 정말 내가 어처구니가 다 없었다야.》

갑손이는 역시 생글거리는 얼굴로 옆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감역 그 두상놈네 바깥사랑방에서 자는데 말이야, 아닌밤중에 누가 흔들어 깨우지 않니? 그래 벌떡 일어나서 보니 웬 사람들이 우뚝우뚝 섰는데 다 군교들이야. 군교들이 나더러 다짜고짜루 가자구 썩썩 나서라거던.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델 가자구 그러는가 물었더니 뭐 내가 군총으루 뽑혔다나! 그래서 나는 아니라구 그랬지. 나는 남의 외아들이 돼서 군적에는 들지부터 않았다구 그랬더니 군교 하나가 척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이 댁 김감역나으리의 둘째자제분인줄 알구서 데리러 왔는데 이 왜 이러우-> 하지 않아? 능청스럽게 말이야. 그 소릴 듣

구보니 정신이 피뜩 들더구나. <옳지! 그저 능청스럽게만 들을 말이 아니댔구나!> 어처구니가 없단 말이야. 뭐인가 하면 김감역 그놈이 날 보쌈에 넣을 작정이더구나. 김순량이라는 그 두상놈의 둘째아들놈이 스물여섯인가 일곱엔가 난 놈인데 군적에 들어가지구두 이리 피탈, 저리 피탈 하구 군영에 들어갈걸 안 들어가구있더니 종내 슬쩍 빼돌리구는 나를 대신 집어넣을래는거야. 뻔하지 않아?》

《저런 불칙한 놈들이 어데 있나!》

《그래서?》

소년의 이야기에 주의가 끌려서 듣고있던 사람들중에는 끌끌 혀를 차기도 하고 이야기를 재촉하는이도 있었다.

《그런데 말이요.》

갑손이는 밝은 달빛에 맵시로 동탁한 소년다운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나서 또 이야기를 계속했다.

《김감역 그 두상이 돌아가면서 멕일 놈 멕이구 군정을 모으러 다니는 군교들한테두 코아래진상을 해가지구는 나를 저의 둘째아들루 만든거야. 그런줄 알구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난 아니라구, 나는 이 집 사환군아인데 지금 열일곱살밖에 안 났으니깐 이 집의 둘째아들하구는 나이만 해두 십년이나 틀린다구, 나는 본시 함구문밖에서 이 김감역네 밭을 부치던 작인의 아들인데 열두살때 어머니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홀애비루 나 하나 데리구 농사를 하다가 전주네 빚은 자꾸 늘어만 가구 부역두 많아지구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다하다 못해서 3년전에 나를 이 집에다 맡기구는 어데루 떠나가구말았다구, 그래서 내가 빚값에 사환군으루 오기는 했어두 우리 아버지가 종문서를 넣구 나를 이 집에다 팔아먹은건 아니니까니 이 집주인이 나를 그렇게 맘대루는 못한다구, 그래서 난 안 간다구 그랬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능청맞게 얼리기두 하구 썩썩 나서라구 으르딱딱거리구 잡아끌기두 하던 군교들두 더 할 말이 없는 모양이야. 슬며시 놓구말지 않아? 내 우스워서! 무섭기두 하구 또 저따위놈의 두상 봤나! 골두 나서 한번 김감역두상한테 해댈 생각두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안방으루 막 뛰쳐들어갈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 나두 우습거던. 남들은 다 군총으루 나가는데 저만 빠져볼라구 비실비실 피해다니는 김가놈의 꼴을 늘 저 개자식! 하구 봐오댔는데 말이야. 이번엔 내가 또 어드르니 안 나간다구 하는걸 생각하니 나

두 우습잖아? 그런데다 또 그 개싼 김감역두상네 집에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구있으면 나두 그놈들 금사밖엔 안되갔다는 생각두 들더구나. 그래서 대문간으루 나가는 군교를 보구 <여보, 나두 같이 가겠쉐다.> 하구 불렀지. 그랬더니 갑자기 웬 일인가 하는 눈치야. 그래서 <내가 뭐 군총으루 나가기가 싫거나 무서워 그랬던건 아니웨다. 탁없이 남의 대신으루나 끌려가기가 싫어서 그랬지. 그러니까니 지금 내가 가는건 뒤대신이 아니구 나는 나대루 가는거니 말이요. 그것만은 우리 똑똑히 밝히두룩 합세다.> 하구 나섰지.》

《거참, 말이 됐는데.》

《과연 똑똑하다!》

《똑똑만 해가지구두 안될 일이웨다. 장하웨다, 그 생각부터가!》

둘러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 또 우스워서…》

갑손이는 한번 또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마 김감역의 로댁이 사랑문뒤에 뻗치구 서서 우리 하는 말을 다 듣던 모양이야. 불시루 안방엘 들어갔다가 새 잠뱅이적삼 한벌을 들구 나오더니 나더러 갈아입구 가라는거야. 그러면서 하는 수작이 <갑손아, 너 이번에 가서 란리만 잘 치르구 오너라. 그러면 그때는…> 어쩌구 하지 않아. 그래서 <여보, 내가 뭐 당신네 아들대신으루 가는줄 아우? 이건 아마 당신네 아들이 입구 갈걸 내가 대신 가는것 같애서 날 입으라는 모양이지만 나는 나대루 가니까니 그런건 안 받소.> 그러는데두 로댁이 그냥 뭐라구 하길래 <이 란리를 잘 치르구 오라구요? 그 말은 잘했소. 당신네처럼 이편네 아들은 빼돌리구 남의 자식을 대신 보낼 궁리나 하는 사람들이야 백년 가니 이 란리를 치러보갔소? 비키소, 어서 비키라구요. 당신네 같은 사람들은 우리 조선땅에서 다 없어지라구요.> 하고 나왔지요.》

갑손이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들을 끄덕이였다.

《그래, 총각이 바루 그렇게 말했나?》

《정말! 그따위 놈들만 있으면야 백년 가니 이 란리를 치를수 있을라구.》

얼마후에 군사들은 이런 말들을 했다. 누구는 《그러길래 당신네 같은 사람들은 우리 조선땅에서 없어지라구요 했다지 않소?》 이렇게도 말했다. 그러나 이때 갑손이는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 말만은 그 댐에 가서야 생각난 말이야요. 정말 그 말이 그때 생각나서 그렇게 말했으면 내 속이 좀더 씨원했을텐데… 분해서!》

이러한 갑손이의 말에 사람들은 웃었다.

《우리 듣기엔 그때 했으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루 씨원하다.》

《좌우간 용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갑손이는 벌써 제가 한 말을 다 잊고 또 옆에서 칭찬하는 말도 들리지 않는듯 했다. 오직 소년다운 호기심으로 젊은 김패두의 군복을 만져보다가 차돌이를 돌아보며 《나두 이런 군복이나 하나 척 입었으면 좋갔다야.》 하고 웃을뿐이였다.

《글쎄,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랬구나.》

이렇게 대답한것은 차돌이가 아니라 임욱경이였다. 그리고는 제 군복의 앞깃을 굽어보면서 《우리것은 너무 커서 안되갔구…》 하는 임욱경은 어린 사람의 원대로 해줄수 없는것이 실로 딱한 모양이였다.

《아니야요, 괜한 소리야요.》

갑손이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젓기까지도 했다. 임욱경별장이 너무 고지식하달만치 걱정을 해주는데 송구해진 소년은 그앞에 그냥 있기가 미안한 모양으로 돌아서서 아까와 같이 휘파람을 불어가며 부벽루쪽으로 갔다. 차돌이도 따라갔다. 그러나 채 가기 전이였다.

《자, 이제는 다들 나서소.》 하는 고함소리가 돌층계밑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떠나게 됐답네다.》, 《그럼 갑세다.》 하는 소리들이 났다. 내려다보는 골안에서는 묶어세운듯 했던 창대들이 움직이고 꽉 막혔던 앞이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말소리, 기침소리, 병장기들이 부딪치는 소리, 저벅저벅 걸어가는 신발소리들과 함께 혹은 내딛고 혹은 서로 비키고 에둘러 소용돌이치는 물결같이 움직이는 사람들로써 동구안은 금시 끓어번지는 큰 솥과 같이 술렁거렸다. 술렁거리기는 하나 그것은 무한히 무거운 침묵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소리이고 움직임이였다.

《차돌아, 나 가ㅡ》

그런 광경에 잠시 정신이 팔렸을 때 어느새 달려갔는지 모르게 돌층계로 달려내려가는 갑손이의 소리였다. 차돌이는 미처 대답도 못하고 좇아갔다. 그러나 벌써 사람들의 물결속으로 뛰여든 갑손이를 가려볼수는 없었다.

《갑손아ㅡ》

한번 불렀다. 대답이 없다. 앞이 틔여서 나가기 시작한 군사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달빛에도 알아볼수 있게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군사대렬의 선두는 강뚝을 향하여 전진한다.

차돌이는 보통벌머사니를 찾아보았다. 그 역시 보이지 않았다. 임욱경별장도 김패두도 동촌사람도 다 안 뵈였다. 청운교, 백운교의 돌층계는 이미 드러났다. 지금 골바닥에서 엉켜돌며 풀려나가는 군사들의 차림차림은 제각기 다르지만 그중에서 누구를 가려볼수는 없었다. 차돌이는 다시 갑손이를 불러보고싶었다. 그러나 부르려는 제 소리가 입안에서부터 떨리는것 같았다. 떨리는 소리를 질러서는 갑손이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좋지 않을것 같았다.

그뿐아니라 지금따라 제가 저 하나 구실을 못하는것 같은 생각까지도 들어서 잘 아는 갑손이와 보통벌머사니는 물론 임욱경별장을 비롯한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여러 아저씨들한테까지도 죄스럽고 부끄럽기도 해서 나무그림자밑으로 들어서고말았다. 이때 본즉 서산로승은 지팽이를 땅에 눕혀놓고 떠나가는 군사들을 향하여 합장하고있었다.

참말 작자는 여기서 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그만 수고를 아껴서 그런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기때문이다. 이름을 밝힌 갑손이, 보통벌머사니, 임욱경별장도 역시 그렇다.

22. 동대원의 전투

을밀대, 모란봉 뒤쪽에서 벌써 몇홰째인지 모르게 우는 닭의 소리를 들으면서 부벽루밑에서 백여척 배에 갈라타고 청류벽 짙은 그림자속으로 소리없이 흘러저어가다가 마침내는 강을 건너 적진을 습격했던 그들은 살아돌아온이가 별로 없었다.

이 야습전은 그 결과로 보아서, 만일 도원수 김명원과 평양수성대장 윤두수 등의 지휘관들이 좀만 더 용의주도하게 작전계획을 세웠더라면 결정적이라고까지는 할수 없더라도 적에게 좀더 큰 타격을 주었을것이였다.

류성룡(그는 명나라의 응원군을 맞으러 가노라 전날 떠났기때문에 이때

는 여기 없었다.)의 《징비록》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김명원과 윤두수 등이 련광정에서 바라보매 벌써 며칠째 강을 건느지 못하고있는 일본군의 경비가 자못 태만하므로 밤을 타서 한번 엄습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이 용병을 결행했다는것이다. 즉 적정을 알기 위한 정찰 같은것은 해보지도 않았다. 또 3경에 거사하기로 했던것이 어찌어찌하여 시각을 놓쳐서 급기야 강을 건느고본즉 날이 벌써 밝기 시작했으므로 처음 계획했던 야습전도 안되고말았던것이다.

그 결과는 어찌되였던가?

우리 군사의 전멸이였다. 그뿐아니라 탈출한 몇명의 군졸들로 말미암아 적에게 걸어서 건늘수 있는 왕성탄(지금의 옷바위앞)의 여울목을 알려주게 되였던것이다.

이러한 정형을 련광정에서 바라본 윤두수, 김명원 등은 그달음으로 성안에 남아있던 무기를 죄다 풍월루앞의 련못속에 처넣고 평양사람들은 속히 성을 떠나 피란하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말을 몰아 달아나고말았다. 전날에 《아욕차검참녕신》(내 드는 검을 빌어 간신을 목자르리)을 운운했던 그 《기백》은 어데 갔던가? 딴은 제 말이 아니라 남의것을 빌었던것이다.

그렇건만 즉 윤두수, 김명원 등 지휘관들은 그같이 무능무모했건만 우리 군사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 결과 소서행장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우리 군사들은, 아니 군사라기보다도 불과 며칠어간에 평양부근에서 나선 농군들과 시정인들은 말그대로 결사전을 했던것이다. 실로 장렬한 격전이였다. 전투훈련도 없이 또 무기다운 무기도 별로 없었지만 오직 조국과 향토를 수호하려는 단단일념으로써 또 원쑤에 대한 복수욕으로써 육탄전을 한 그 싸움은 비장한것이기도 했다. 그 결과 3천여명이나 적을 살상하는 큰 전과를 쟁취할수 있었다.

장렬히 싸운중에도 장렬했던것은 임욱경이였다. 부하들과 같이 초입수에서부터 적을 무찌르면서 나아간 그는 전부터 노려온 적진중의 가장 큰 초막으로 돌진했다.

그 초막앞에는 차일까지도 치고 주위에는 만장같은 극채색의 기발과 은빛, 금빛의 의장 절월들이 늘어섰다. 그것은 평양성 공략군의 총사령인 소서행장의 군막이였다.

그앞으로 비호같이 돌격하는 임욱경의 앞에는 어데보다도 적의 반돌격

이 더 완강했다. 자기 부하들의 선두에 나선 임욱경은 좌충우돌 검을 휘둘러서 앞을 막는 적들을 쓸어눕히면서 일본군의 총사령부인 군막으로 육박하여 발길로 그 담을 이룬 방패들을 걷어찼다. 풍비박산으로 방패들이 날아나고 쓰러져서 길이 트이는대로 뛰여든 임욱경은 몇놈인지 모르게 창칼을 들고 막아서는 적들과 칼을 어우르면서 군막안을 살폈다. 과연 놈들의 우두머리인듯 한자가 저편에 놓인 평상에 걸터앉아서 종졸들의 시종을 받아가며 걸치는 갑옷끈을 드노이는 손으로 매고있었다. 그 요란스러운 차림만으로도 적괴 소서행장인것이 분명했다. 노리고 온 그 놈을 발견한 임욱경은 눈앞에 더 딴 놈은 없었다. 앞을 막는 놈들과는 싸운다기보다도 앞길을 열도록 휘두르는 칼로 몇놈을 쓰러뜨리면서 돌입했다. 그 서슬에 소서행장은 투구도 미처 받아쓰지 못하고 저편 방패짬으로 빠져나갔다.

《네 뛰면 어델 뛸테냐!》

소리를 벽력같이 지른 임욱경은 등뒤로 달려드는 놈을 또 몇놈 찍어버리고 소서행장을 쫓아나갔다.

소서행장은 군막뒤의 등대에 두었던 말을 타고 내닫기 시작했다. 쫓아나간 임욱경은 마상에서 장창을 휘두르며 앞을 막아서는 한 적장의 복통에다 검끝을 처박아떨구고 말을 빼앗았다. 《끼랴ㅡ》소리와 함께 쳐몰아서 내닫기 시작한 말잔등에 몸을 날려 올라탄 임욱경은 소서행장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날은 이미 훤히 밝았다. 적들은 등뒤에서 활과 조총질을 하기 시작했다. 폭음과 핑ㅡ 핑ㅡ 퉁겨지는 활시위소리를 따라 철환과 화살이 비발치듯 귀전을 스친다. 임욱경은 검날등으로 채찍질해서 말을 몰았다. 앞에서 쫓기는 소서행장은 한두번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말머리를 돌려서 마주설 생의는 못 내는 눈치다. 비껴들었던 장창까지도 내던지고 말갈기속에 구겨박히듯이 엎드려서 내달을뿐이였다. 미처 투구를 못 쓴 머리의 상투가 풀어져 산발이 된 그자의 끄뎅이가 거슬리는 바람에 어지럽게 흩날린다. 임욱경의 눈에는 그자의 대가리만이 보이는듯 했다. 노리는 것은 그것이기때문이였다. 조금만 더! 한걸음만 더! 속으로 재촉하며 말을 채찍질하던 검을 돌려 임욱경은 눈앞에 한일자(ㅡ)의 번개를 그었다. 아아! 분한 일이였다. 흩날리던 소서행장의 머리칼 한모숨이 허공에 날았을뿐ㅡ 그 순간이였다. 어느새 그렇게 가까와졌던가? 눈앞이 어뜩하게 마

주서는 머구리산(지금의 문수봉)이 핑그르르 돌지 않는가! 임욱경은 이를 사려물고 금시 맥이 탁 풀리는 손의 검을 소서행장의 뒤더수기를 겨누고 던지자 달리는 마상에서 굴러떨어져서 절명하고말았다.

대흥산(대성산)마루에 새벽 붉은빛이 어리기 시작하고 룡악산 저편으로 기울며 지새는 달은 더욱 해쓱하게 빛을 잃어가는데 하늘을 뒤덮은 만장 홍진속에 동대원일대의 싸움터에서는 함성과 말발굽소리와 총성만이 들려왔을뿐이였다.

마침내는 함성이 그치고 적들의 조총소리도 드물어지고 먼지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모란봉뒤의 금수산너머로 비껴드는 해발에 동대원과 장림벌일대는 사람의 시체로 덮이고 사람의 피로 걸뜬 주검의 황야로 드러났다. 일본군의 진지는 여지없이 유린되여있었다.

군막들은 짓밟혀 무너지고 진지를 장식했던 기치와 절월들은 쓰러져 피에 잠겼다. 우리 군사들의 공격이 그 얼마나 치렬장렬했던가를 과시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잘했다 못했다 할 무엇도 없이 애초에 작전계획이라는것이 없었고 야습을 한다던 시각조차 지키지 못했고 또 적의 력량에 비하여 이편은 우선 수적으로까지도 엄청나게 미약했기때문에 용전분투한 우리 군사는 전투에서 이기였으나 개선해 돌아온 사람은 없었던것이다. 지금 그 전투마당에 횡행하는것은 적들뿐이였다. 일본군은 혹은 말을 달리며 혹은 뛰여다니며 창과 칼로써 부상당한 군사들을 살륙하고있었다.

그것은 아수라들이 피를 탐내며 날뛰는 악귀의 한 장면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23. 서산이 울다

날이 밝아오고 강건너의 소란한 함성과 말발굽소리가 멎고 총소리도 좀 적어지고 먼지도 가라앉기 시작한 때였다.

《대사님, 죄송하지만 저를 저의 집까지 좀 데려다주실수 없으실가요?》

지금까지 부벽루의 한 기둥에다 이마를 기댄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우고 쪼그리고 앉아있던 보패가 역시 한 기둥옆에 서있는 로승앞으로 가서 말했다.

한밤사이에 백지장같이 해쓱해진 얼굴에 몇오리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어올리는 처녀를 한번 쳐다본 로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스님.》

역시 이때까지 어느 한 기둥뒤에 붙어섰던 한 중년의 중이 합장하고 나서며 불렀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서산은 이렇게 묻는 그의 앞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았다. 여러 중들도 모여와서 서산을 쳐다보았다. 모두 온 한밤을 악몽에 시달린 사람들같이 붉어지고 퀭해진 눈들이였다.

서산은 자기의 대답을 재촉하는 모양인 여러 눈동자를 피하듯이 긴 눈섭밑의 눈을 내려깔았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이 마당에 처한 지금 이는 지당한 물음이였다. 어찌 산중의 중들뿐이랴. …

실로 어떻게 할것인가?

그렇건만 이 물음에 대해서 지금 누가 명확한 대답을 할수 있을것인가? 답답한 서산은 내려깔았던 눈을 감기까지 했다. 몇순간의 침묵이 흘렀다.

《어떻겠소.》

마침내 눈을 뜬 서산은 이런 물음으로써 말을 시작했다.

《저 아수라왜적들과 한하늘을 이고 같은 땅을 밟으며 살수 있겠소? 나

는 그럴수 없을것 같소이다.》

《저희들 생각도 그래서 여쭙는 말씀이 아니오니까.》

《그렇다면 우선 저 아수라들을 피할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거나 혹여 구차히 잔명을 부지한대도 저 왜적의 손발이 되여 여생이 욕될것이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향산으로 들어가시렵니까?》

《…》

《그러시다면 저희들도 모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서산은 또 이런 말을 하는 중들을 보며 말했다.

《이제 왜적이 강을 건너선다면 향산이 여기서 멀긴들 하며 또 그 산속인들 무사하겠소.》

《그러면 더 멀리로 가시렵니까?》

《어데가 더 멀겠소. 멀다면 또 얼마나 멀겠소.》

이러한 서산의 대답은 남의 말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도 남의 말을 뇌까려 타박하는 언사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며 음성은 결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도리여 온공히 묻는듯 한 말이였다. 물론 속이 타는듯 한 신경질은 느껴졌다. 또 몇순간의 침묵이 흘렀다.

《생각해서 다시 의논합시다. 내 성안엘 좀 다녀오리다. 그동안에도 사태가 위급하거든 우선 동금강암으로 가는것이 좋을듯 하오.》

이런 말을 남기고 서산은 한 젊은 중이 내다주는 조그마한 바랑을 지고 지팽이를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걸음 안 가서 그는 지팽이를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다른것은 몰라도 듣기에는 저 왜인들도 우리 불도를 세워서 많이 숭상한다지 않소.》

등뒤에서 이런 말이 들렸던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어제 밤에 시식을 지내준 늙은 로전승의 음성이였다. 그 말에 걸음을 멈추고 흰 눈섭이 떨리게 미간이 어두워진 서산은 돌아섰다.

《그 어찌하시는 말씀이오니까?》

로전승을 바라보는 서산이 이같이 따지듯 했다.

《만약에 저 왜적들이 진정 불제자라면 우리는 그런 불제자이기를 그만둬야 할것이 아니겠소. 모르시는 말씀이요.》

잔잔하나 쟁쟁 울리는 음성으로 이런 말을 하는 로승의 얼굴에는 마주보기 어려울만치 엄숙한 노기가 떠올랐다. 그 단아한 얼굴이 전에없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는 다시 지팽이를 옮기기 시작했다.

보패와 차돌이는 로승의 뒤를 따라 기린굴앞의 골짜기를 지나 가파롭고 초협한 언덕길로 올라갔다. 열린채 있는 암문에는 수직하는 군사도 없었다. 뒤에서 차돌이가 이슬에 젖은 발을 탕탕 구르는 소리에 보패도 제 신발을 굽어보았다. 버선뿐아니라 치마기슭에까지도 이슬에 젖어 누런 몽당물이 배였고 흩이운 풀물로 여기저기 시퍼런 얼룩이 졌다. 렴치불구하고 당돌함을 무릅쓰고 로승에게 동행해주기를 청한것은 역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처녀의 몸으로 이런 새벽에 남의 집 총각과 같이 자기 마을로 들어갈수는 없었던것이다.

따로따로 떨어져간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옷주제를 하고서는… 로승이 동행해준다면 이런 산길에서부터도 누가 보나 보는 사람들이 우선 안심할것 같았다.

한편 차돌이는 처음에는 좀 불만했었다. 《설마한들 내가 이런 때까지두 저한테 지싯거릴라구?》 하고 보패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것 같아서 불만이였다. 그러나 곧 보패의 마음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 얌전한 보패가 여북해서 처음 보는 로승에게 그런 부탁을 했으랴. 이런 경우엔 보패뿐아니라 체면과 사리를 생각하는 처녀들이라면 의례히 다 그럴것이다. 남의 총각, 이 나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차돌이는 제가 무안스럽기도 했다. 처음에는 저 혼자 매생이를 타고 돌아갈가 하기도 했다. 낡은 매생이지만 버리기가 아깝기도 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이였다. 왜군들은 지금도 총질을 한다.

동쪽에 을밀대고개를 등진 골짜기(지금의 경상골)의 송림속은 아직도 침침했다. 한밤동안 식은 밤기운이 가라앉은 풀숲의 이슬방울은 아직도 차겁게 빛났다. 울창한 나무가지에 깃들었던 산새들은 이제야 깬듯이 푸득거리고 그밑에서는 여물지 못한 풋벌레들이 아직도 씨르륵거렸다. 바위밑에서 이쪽을 엿보는듯 한 다람쥐를 만나게도 된다. 동행이 있어도 호젓한 길이다. 이때 보패는 차돌이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더욱 호젓할뿐아니라 불안했을것도 같았다. 지금 앞장선 로승만이라면 인간근처와는 반대로 멀고먼 구름 서리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될는지도 모를것 같았다. 지금 여기도 높은 소나무가지사이로 비껴드는 새벽빛이 푸른 구름으로 서리운듯했다. 보패는 자기 오라버니가 간혹 문갑에서 꺼내서 벽에 걸어놓는 신선도(신선이 노는 모양을 그린 그림)를 생각하기도 했다. 지금 옆으로 쳐다

보는 로승의 모습, 그 긴 눈섭은 달빛에서보다도 더 은실같이 희였다. 그 머리의 송낙은 바위에 돋친 이끼와도 같았다. 수묵색장삼이 우선 바위빛이다. 그러고보면 로승이 하나의 이끼돋은 파리한 바위로 보이기도 했다.

여기서 서산에 대한 처녀의 수줍은 관찰과 감상을 작자가 대신 좀더 보충해서 말하면 이렇다. 보패는 이런 깊은 송림속에서 보는 로승이 현실적인간이라기보다도 신선도 그림속의 인물같이 보였던것이다. 흔히 신선들을 그리는 선비들은 신선 역시 사람이기는 하지만 될수록 그 배경에 고삭은 나무드덜기나 이끼돋친 바위맛이 나도록 그린다. 즉 배경도 고목한 암, 그가운데 신선도 고목한 암같은 인물로. 그렇기때문에 삼복더위에라도 땀냄새나 산사람다운 온기조차도 있을것 같지 않은 로승하고만 동행이 됐더라면 인간세상과는 멀리 깊은 산중으로 가게 될것 같기도 했던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안했지만 차돌이 역시 서산대사를(고충경이네 사랑방에 갔을 때 간혹 보았던) 신선도의 사람같이 보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송림을 벗어났다. 자그마한 언덕에 올라섰다. 성안이 바라보인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였다. 말바로 발칵 뒤집힌듯 했다. 부벽루에서 바라본 강건너의 수라장이 성안으로 옮아온듯도 했다. 성안은 충천한 먼지속에 휩싸여있었다. 그 먼지속으로 큰 거리, 좁은 골목 할것없이 쏟아져나온 사람들이 복작거리고 붐비는양이 바라보인다. 저저마다 꾸레미와 보따리들을 이고 지고 늙은이들을 부축하고 어린것의 손목을 잡은 사람들이 서로 엇갈리며 반달음박질로 오고간다. 황황한 그들의 얼굴이 낱낱이 보이는듯도 했다. 서로 찾고 웨치고 울고 한숨짓는 그들의 붐비는 소리가 충천한 먼지와 함께 하늘에 사무친듯 했다.

그런 광경에 넋을 잃다싶이 서있던 보패와 차돌이는 불현듯 옆에서 누가 북받치는 통곡을 참노라 《으흐흐.》 흐느끼는듯 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돌아보았다.

지팽이끝에 얹은 두손등에 턱을 고이듯 하고 서있는 로승의 긴 눈섭으로 내려덮인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있었다. 붉은 가사를 수한 그의 척한 어깨는 소스라치게 떨렸다. 끓어오르는 울음을 참기에 숨이 꺽꺽 막히는듯도 했다.

보패와 차돌이는 더욱 놀라운 눈으로 마주보았다. 땀도 안 흘린듯 한 신선도속의 로인이 뜨거운 눈물과 북받치는 통곡으로 온몸을 떨고있는것이 놀라왔던것이다. 그러나 그런 눈으로 마주본것은 한순간일뿐 다음순

간 보패는 차돌이의 눈에, 차돌이는 보패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넘치는것을 보았다. 더 참을수 없는 보패는 로승곁에 쪼그리고 앉아서 흐느꼈다. 이쪽 풀판에 두다리를 내던지고 주저앉은 차돌이는 흐르는 눈물을 씻을 생각도 않고 성안을 내려다보고있었다. 문득 갑손이를 웨쳐 불러보고싶기도 했다. 그리고 보통벌머사니아주버니도 임욱경별장도… 또 뭐라고 이름지어 부를지는 모르나 지금 내려다보이는 온 평양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목청이 터져라고 웨쳐 불러보고싶기도 했다.

아아, 어떻게 하면 이속이 씨원할것인가?

저렇게 황황히 붐비고 애타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 그 어느 누구나가 다 남이 아닌것 같았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라고 부르면 그 누구든 조금도 이상해 않고 《오냐!》 대답하고 껴안고 같이 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느낌으로써 다시 서산을 쳐다보는 차돌이는 그 로승 역시 정다운 할아버지였다. 그뿐아니라 그의 뜨거운 눈물로써 제 마음이 정하고 맑게 씻기우고 또 넓게 트이는것도 같았다.

24. 평양성을 떠나는 사람들

다시 지팽이를 옮기기 시작한 로승을 따라선 보패의 뒤로 따라가는 차돌이는 보패에게 《이제는 우리끼리 가두 되지 않아.》 하고싶기도 했다. 공연히 나많은이를 수고시킨다는 생각도 생각이려니와 그보다도 지금까지 보패를 두고 품어온 애정을 지금은 비단 보패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느낄수 있기때문이였다. 누가 알면 부끄러울 단 둘이만의 애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측은하고 그래서 또 다 정답게도 느껴지는 심정이였다. 보패도 그중의 하나인데야 부끄러울것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러한 자신이였다.

《총각.》

서산이 문득 뒤를 돌아보며 불렀다.

《예?》

차돌이는 그의 곁으로 갔다.

《어제 밤에 총각과 이야기하던 보통벌머사니네 집이 저 보통벌 어데라지?》

《예, 보통문에서 보통벌건너 바루 마주보이는 산이 봉화대가 있는 잡약산인데요, 그 산밑에 있는 한 여라문집 되는 동네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지?》

《어른의 이름이 돼서 모르갔는데요, 그 동네 가서 그저 보통벌머사니라구만 찾아두 다 알아요.》

《그 잡약산인가 하는 산에 봉화대가 있어?》

《예,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 성안이 잘 바라보이겠군.》

여전히 긴 눈섭을 드리우고 지팽이를 옮겨짚는 서산의 말은 혼자말같기도 하고 묻는 말같기도 했다.

《예, 그래요.》

차돌이는 로승을 쳐다보며 말했다.

《전에 우리 외가집이 그 동네 있어서 늘 놀러 가더랬는데 그 봉수대에 올라서기만 하면 보통벌은 어데나 안 보이는데 없이 다 보여요.》

《…》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뿐인 로승을 다시 쳐다보는 차돌이는 《왜요?》하고 로승이 물은 까닭을 되묻고싶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 들어선 골목안은 헤나기조차 힘들게 오고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소란했다. 사람뿐아니라 집집의 대문밖과 차면바자(집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앞을 막아 둘러친 바자)앞에 더미로 내놓은 세간과 묶어놓은 짐짝들로 앞이 막힌듯도 했다. 이리 피하고 저리 에둘러가며 골목을 지나갈 때 맞은편의 차면바자도 없이 댕그런 외채 초가마가리의 찌그러진 부엌문이 절싹 열리자 행길로 또 절싹 내던져지는것이 있었다. 바로 그앞을 지나가던 한 중년아낙네는 주춤 물러서서 발앞에 허옇게 쏟아진것과 제 치마자락을 굽어보다가 물이 편 신발을 몇번 구르고나서 부엌문쪽을 보며 《아니, 어드러문…》하고 끌끌 혀를 찼다.

《보선이나 맞추지 않았소?》

미안해서 묻는 말소리와 함께 반백이 지난 머리를 끌댕기도 없이 물레줄같은 노끈으로 맺아서 조그맣게 머리봉을 올린 로파가 나왔다.

《아니, 웬 일이요? 이 많은 두부를 버주기채 내치니!》

지나가던 아낙네는 좀 더럽힌 제 신발은 둘째로 길바닥에 허옇게 한벌 깔리다싶이 한 두부와 박산이 나게 부서진 버주기가 웬 일이냐는듯이 말했다.

《내니 아깝지 않아 그랬갔소. … 쇠년과부루 하나 받아 기른 아들아이 잔치할라구 했던 두부웨다.》

로파는 기슭도리가 다 피게 해진 몽당치마자락으로 코물을 훔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날을 잘못 받았는지, 세월을 잘못 만났는지 이런 란리통에 잔치니 하갔소. 그러니 또 어데루 가게 될지두 모르는 피란길에 두부버치를 이구 가길 합네까. 그렇다구 그냥 두구 가자니 왜놈의 살이나 할것 같구… 그런 생각을 하문 아깝기는 고사하구 저도 모르게 심술까지두 굳어져서 그랬쉐다.》

이런 말을 한 로파는 코를 훔치던 치마자락으로 눈시울을 닦으며 돌아섰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한 서산이 애련당을 좀 지나온 때였다. 등뒤에서 《저, 이보십쇼. 서산대사님이 아니신가요?》 하는 랑랑히 울리는 말소리가 들리였다. 서산은 걸음을 멈추었다.

저편 골목어구에서 멀리서도 향기가 느껴질만치 동백기름을 바른 큰 머리봉우에 얹힌 붉은 꼬둘채댕기를 나풀거리며 연두색꽃당혜 마른 신뒤축을 찰락찰락 끌면서 한 젊은 녀인이 반달음질로 좇아왔다.

웬 일일가? 모두 초조하게 붐비는 사람들로 법석하는 먼지속에 잠겼던 좁은 골목안이 금시 밝아지는듯 했다. 그 녀인의 차림이 꽃답기도 하려니와 그 얼굴이 환히 빛난달만치 아릿다왔던 까닭이다. 맑고 그윽한 향기가 풍기기도 했다.

《뉘시온지?》

마주선 서산이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저, 저예요. 저는 이전에 간혹 뵈였는데요.》

숨이 좀 찬 모양이나 역시 랑랑히 울리는 소리로 말하는 녀인은 로승이 저를 못 알아보는것이 좀 야속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얼굴이였다.

《지난봄에두 감사령감 모시구 향산 갔을 때 뵈여서 저는 로장님을 잘 아는데요.》

《아, 그러시오니까. 소승은 다 늙은것이 정신이 사나와서…》

머리를 끄덕이기는 하면서도 역시 기연가미연가하는 모양인 로승의 얼굴을 한쪽뺨의 보조개만이 더욱 깊어지는 엷은 미소로써 좀더 사물거리고 가늘어진 눈으로 바라보던 젊은 녀인은 《전 본부 부기(관가 기생) 계월향이야요.》 하고 제 본색을 밝혔다. 계월향! 과시 명불허전(명예는 헛되이 퍼지지 않음.)이였다고 할만치 우선 그 얼굴과 자태부터 세련되고 아름다운 녀인이였다.

《그러시오니까.》

서산로승도 그 녀인의 눈부신 자태에 놀란듯 잠시 치떴던 눈섭을 다시 내리고 다음 말을 기다리는듯 했다.

그동안에도 끊길 사이가 없이 좁은 골목을 서로 헤치고 큰 짐짝과 짐짝을 부딪치며 엇갈려 오고가는 사람들은 행길 한가운데 마주선 파파로승과 꽃다운 젊은 기생을 혹은 이상한듯 혹은 거칫다는듯 한 눈으로 다시금 돌아보며 지나갔다. 보패와 차돌이는 길을 비켜서 어느 집 담밑에 붙어서서 서산과 기생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계월향이는 서산에게 자기를 묘향산으로 데려다줄수 없겠는가 물었다. 즉 묘향산의 어느 절이나 암자로 피란갈 생각이라고 하면서 아주 밝혀서 하는 말은 아니나 이 가까이 있는 중들을 시켜서 제 약간한 세간까지도 좀 날라다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가 향산에 가있게 되면야 설마 절에 폐만 끼치기야 하겠어요.》

이런 말까지 보탠 기생은 옷고름을 들어 입을 가리우며 교태라기보다 로승에게 응석을 부리듯이 간드러지게 웃기도 했다. 그런 말, 그런 웃음을 들은 보패는 저도 모르게 놀랜 눈으로 저만치 떨어져있는 차돌이를 쳐다보았다. 차돌이도 분명히 《저런!》하는 눈치였다.

《역시 기생이였구나!》

그런 말, 더우기 서산로승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인품이 뚝 떨어지는것 같이 생각된 보패는 이런 생각이 저만이 아니였다는데 더욱 자신있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는 속히 산으로 들어갈것 같지가 않소이다.》

눈을 내리깔고 기생의 말을 듣고있던 서산의 대답이였다.

《모르기는 하겠소이다마는 여기 중들도 역시 그렇게 될것 같소이다.》

또 이러한 서산의 말에 《아, 그러신가요.》하는 계월향의 음성과 얼굴에는 《마침 만났으니 혹시나…》하여 요행을 바라고 달려나왔던 일이

틀어진데 금시 실망하는 빛이 나타났다. 무색하기도 해서 어름거리던 제 눈과 시선이 마주친 보패를 보자 더욱 새침해진 기생은 로승을 한번 거들떠보고 다시 돌린 눈으로 처녀를 우아래로 훑어보았다. 보패는 그러한 기생의 눈찌에서 《어데 촌뜨기계집앤가?》하는것을 느꼈다. 또 다음순간 제 얼굴을 새겨보듯 하는 기생의 시선에 《천한것이 당돌하게—》하는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도 보패는 역시 촌계집애답게 붉어지는 얼굴을 푹 숙일수밖에 없었다. 단 몇순간이지만 보패에게는 화도 나고 괴롭기도 한 순간이였다. 계월향의 그 아름다움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럼 스님, 어서 가보세요.》

기생은 피뜩 제가 공연히 이러고있다는 생각이 든 모양으로 돌아섰다. 그랬다가 《또 언제나 뵈옵게 될지 모르겠군요. 부디 안녕하셔서 다시 세상이 평정해진 때 또 뵈옵겠어요.》 하며 잊었던 무엇을 추송한다는 투의 작별인사를 한 계월향이는 돌아섰다. 총총한 걸음새를 따라 살핏한 겉치마속에서 여름 소용인 옥노리개가 선드럽게 쟁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합장하고 계월향을 보낸 서산은 또 지팽이를 옮기려다말고 서서 엇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대문간을 바라보았다.

《얘, 그건 소금섬이 아니냐?》

《예.》

《내실을것이 없어서 소금섬을 져낸단 말이냐? 서해변에 가면 소금이 없갔게 그러니?》

《실을래는거 아니야요. 내다가 저 련못에다 처넣을라구 그래요.》

그 대문간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리 소용은 없어두 일부러 져내다버릴거야 있니.》

대문간에 나섰던 로인의 말에 큰 소금오쟁이를 지고 나오던 젊은이는 《그냥 둬서는 또 뭘 합네까. 왜놈들이나 잘 쓰라구요.》 이런 말을 했다. 로인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하긴 그렇기두 하다. 그럼 먼데 지구 갈것 없이 저 우물에다 처넣으려무나.》

《우물에다가요?》

이번에는 젊은이가 물었다.

《우물은 그냥 둬선 또 뭘 하갔네.》

로인은 긴 한숨을 지었다.

《하기는 그렇기두 하웨다.》
젊은이는 소금섬을 지고 길건너편의 깨돌로 금정틀을 쌓은 우물로 갔다.
《허ㅡ》
이때 서산의 바로 등뒤에서 깊은 외마디 탄식소리가 들렸다. 부푸진 이불짐을 진채 열한두살짜리 계집애와 함께 돌아앉은 집의 담을 의지하고 서있던 한 늙은이였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구보니 그래두 심사궂은 일이 아니겠다!》
그 늙은이는 혼자 머리를 끄덕이며 이런 말을 했다. 우물에서 철썩 소리가 났다.
《우물에다 뭘 그렇게 처넣니?》
《정말 거 뭐요?》
《소금섬이웨다.》
《우물에다 소금섬을?》
《가지고 못 갈바에야 처넣길닐러ㅡ 거 잘했소.》
《하긴 그렇기두 하군!》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다.
《또 가보자.》
등뒤에서 이런 말과 함께 또 《허!》하는 외마디 탄식이 들렸다. 머리에 조그마한 길량식자루를 이고 따라서는 어린 계집애와 함께 떠나가는 그 늙은이의 이불짐우에는 가느다란 대 한묶음과 청모, 황모들의 끝이 드러나보이는 작은 보따리가 웃짐쳐있었다. 필시 붓을 매는 필공인 모양이다. 대동문거리로 들어서자 늙은 필공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이윽히 대동문루를 쳐다보다가 혼자 말했다.
《단군님적부터 내려온다는 이 평양성이 우리 처에 와서 이렇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갔노! 이렇게 내놓구 떠나가는 이 나부터두 죄인이로구나! 죄인이야.》
《할우반.》
곁에 따라섰던 어린 계집애가 그의 소매를 당기며 불렀다. 그러나 늙은 필공은 역시 제 생각에만 잠긴듯 또 혼자말을 할뿐이였다.
《조상님네한테 큰 죄인이야.》
《할우반ㅡ 할우반은 왜 자꾸 그런 소리만 하니!》
할아버지의 떨리는 음성만으로도 저 역시 슬퍼지는 모양인 어린 처녀

애는 눈물이 글썽해진 눈으로 늙은이를 쳐다보면서 또 그의 소매를 당기며 재촉했다.

《그러지 말구 어서 가자구, 할우반—》

《오냐, 가자 가.》

비로소 그애의 말이 들린듯 고개를 끄덕인 필공은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대동문거리를 지나 종로로 들어서려고 할 때였다.

《스님!》 하고 소리쳐 부르며 사람의 물결속에서 헤엽쳐나오듯이 법근이가 나타났다.

《너는 어델 가던 길이냐?》

묻는 서산의 말에는 질책하는 어기가 있었다. 법근이는 서산을 찾아 영명사로 나가던 길이라고 했다.

《잘 만났다. 네게 할 말이 있어서, 네가 혹시 전서방네 집에 있을가 해서 이제 칠성문밖으로 나가려던 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산은 길을 비켜 어느 집 처마아래로 들어섰다.

《이것은 내 혼자 생각만이 아니고 지금 이 성을 떠나가는 온 평양사람들의 의사라고도 할수 있다.》

이런 말로써 자기 말을 끝내는 서산의 말을 듣자 법근이는 주복이를 찾아 칠성문밖으로 달려가고 차돌이는 자기 동네로 달려갔다.

25. 잡약산마을의 서산

산마루에 돌로 쌓은 연대(봉화대)가 솟아있는 잡약산밑에는 산기슭을 따라가며 남향 혹은 동남향으로 창과 문을 낸 십여호의 농가들이 외벌줄로 놓여있다.

서산대사는 이른아침부터 동네앞에 늘어선 버드나무밑의 큰 떡돌 한 기슭에 걸터앉아있었다. 동남쪽으로 바라보이는 평양성밑까지 십리폭이나 되는 보통벌은 새벽부터 피란민들과 이사짐바리들로 덮였다.

사람들과 마소들의 발길에 일어나는 티끌로써 하늘은 흐리고 내려덮이는 먼지로써 련일 폭양에 시들었던 곡식들은 푸른빛까지도 잃었다.

보통문, 칠성문으로 쏟아지듯이 쓸어나오는 사람들! 어제 밤까지도 일만 일천여호나 되는 집집에서 살아온 7만～8만명의 평양사람들이 일조에 집과 생활과 생계를 버리고 산지사방 흩어지는중이다.

이제 평양성은 비게 된다. 서경 평양성이 무너지는것이다. 그 성첩과 문루와 그안의 관아와 전각들과 민가들은 아직도 그냥 서있고 남아있다. 그러나 그런것들로써 평양성이 그냥 남아있다고는 할수 없다. 그안에서 생계를 세우고 생활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다 없어짐에 따라 그 성도 무너진다고 할것이다. 이제 그 주인들이 비우고 나가는 평양성은 적들의 유린에 맡겨질것이다.

지금 저마다 창황히 떠나가면서도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는 평양사람들은 이때같이 자기네가 이 성의 주인이였다는것을 느껴본적은 없었을것이다. 지금까지의 그들은 성안에 있는 한채의 집 혹은 한칸 세방살림의 주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자기네가 이 성을 떠나게 되는것에 그같이 애석하고 분하고 수치스럽고 무거운 책임감까지도 느끼지 않을수 없는 이들은 실은 자기네가 이 성의 주인이였던것을 깨닫게 된 까닭이였다. 지금 걸음마다 돌아보는 수만수천사람의 가슴속에 이 평양은 아름답고 정든 내 고향이였다. 혹여 어떤 사정으로 몇몇 집이 이사해가는 길이라면 모를가, 너나없이 송두리채 우리 평양에서 떨어져나게 되는것은 우선 분한 일이였다.

왜 우리는 우리 평양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가?

우리가 이 성으로 다시 돌아올수 있을것인가?

이제 왜적들이 저의 천지나 같이 탕을 치고 판을 치게 될 이 성이 그대로 남아있기나 할것인가?

지금 우리 사람들은 나부터도 이 성에서 빠져나가기만 위주니 이다지도 사람이 없단 말인가?

피란민들은 각기 이고 질수 있는 정도의 세간을 꾸린 보따리에 목과 등어리를 짓눌리면서 또 이러한 공통적인 비분과 수치감과 책임감으로써 마음까지도 짓눌려야 했다.

이 성에서 떨어져난 이 많은 사람들이 너나없이 다 어데로 갈것인가?

이 성을 빼앗긴 우리는 언제까지나 떠돌아다녀야 할것인가?

어데로 가야 생명을 부지할것인가?

아이들은 울었다, 로인들은 신음했다, 녀인들은 흐느꼈다. 저도 모르

게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장정들은 이가 갈렸다. 사람들은 자기네 등뒤에 창칼과 조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왜적들을 저주했다. 복수욕에 불탔다.

그들의 이렇듯 비분한 격정은 하나의 조국애의 감정이라고도 할수 있는것이였다.

이 준엄한 국란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통적인 커다란 감정을 낳게 했던것이다. 360여년전의 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것은 단지 상상으로써만 과장해서 말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이였다. 이때만의 사실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이 인민속에 탄생되는것이다.

오직 이때에는 《이렇게도 사람이 없단 말인가!》할만치 인민들의 이러한 복수욕과 비분과 책임감과 서로의 동정과 련민의 정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수습하여 하나의 커다란 력량으로 엉키고 뭉치게 할 사람들이 없었을뿐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한날 칠령팔락한 피란민으로서 흩어지게 되였던것이다. 왜적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하여, 또 왜적에게 굴복하는 수치를 면하기 위하여…

물론 이것은 민족적수난이였고 패전국민의 비극이였다. 그러나 이 수난, 이 비극속에서도 우리는 조선사람의 자존심과 강의성과 적에 대한 반항과 증오를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이때의 평양사람들은 자기네의 집과 살림과 생계와 선조때부터의 모든 노력의 결과가 담겨있는 성을 내놓을망정 결코 적의 노예로서 남아있으려고는 안했다. 원쑤와는 잠시라도 한성안에서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 그들은 송두리채 떠났다. 그럼으로 해서 이 비극은 더욱 거창하고 비장한것이였다.

서산대사는 이 수많은 비극의 주인공들속에 휩싸이고 부대끼며 여기까지 나왔다. 피란민중에 혹시 어떤 녀인의 등에 업힌 어린것이 손에 들었던 누룽지덩이를 떨어뜨리고 울더라도 그것은 이러한 비극속에서는 응당 울지 않을수 없는 한 주인공의 통곡으로 들으면서…

이 잡약산마을에서도 곡성이 났다.

서산은 그 유난히 긴 눈섭이 하얗게 센 늙은 중을 구경하려고 자기앞으로 모여든 동네아이들중에서 곧 보통벌머사니의 아이들을 알아볼수 있었다. 사내앤지 계집앤지 모를 두세살짜리 어린것을 업은 사내아이와 또 그애의 고의가랭이를 한손으로 부여잡고 서있는 대여섯살짜리 사내놈의 얼굴에는 마치 모진 폭풍에 불려서 어덴지 모를 땅에 떨어지기라도 한듯

이 불안과 공포와 고독감에 질린 표정이 비껴있었다. 저의 마을에서, 저의 동무들사이에서 그렇다는것은 그애들에게는 큰 불행이 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너 몇살이냐?》

서산이 큰아이에게 물었다.

《아홉살? 동생이 몇이냐?》

《나까지 다섯이야요.》

《형이나 누님은 없느냐?》

《없어요.》

그애와 로승이 이런 문답을 할 때였다.

《칠성이 얘네 아버진 죽었어요.》

《얘 아버진 이 동네 머사니댔어요.》

《칠성이 아버진 어제 밤에 싸움에 나갔다가 왜놈한테 죽었대요.》

옆에 있던 애놈들이 묻지도 않은 말을 목청을 돋궈서 떠들어댔다. 칠성이는 부끄러운 일이라도 당한듯이 제옆에 더욱 붙어서는 동생의 손목을 잡고 돌아섰다. 그애들이 들어가는 삽짝문옆의 울바자가 다 헤벌어지고 씨그러진 그 집은 더욱 쓰러져가는 인상이였다.

서산은 지금의 칠성이의 뒤모습에서 60여년전의 자기를 돌아보는듯도 했다.

아명을 운학이라 부르던 서산은 아홉살때 부모를 여의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50이 다되여서 만득자로 태여난 운학은 형도 동생도 없이 혈혈단신의 고아가 되였던것이다. 평안도 안주의 어느 한 마을의 동네에서 한가난한 선비로 살아온 그의 아버지 최세창은 어린 아들에게 초가집 한채와 몇이랑의 터밭과 몇권의 책을 남겨주었을뿐이였다. 그때의 슬픔과 고독감을 서산은 지금도 아픈 감각으로써 회상한다.

그러나 운학에게 한 은인이 나타났다. 리사중이라는 안주고을의 사또였다. 한성사람인 리사중은 이 고을 사또로 있는 동안에 자기 고을에서 글 잘하고 행세 조촐한 선비 최세창을 존경하여 친교를 맺게까지 되였던것이다. 따라서 그는 최세창의 아들 운학을 귀엽게 보아왔었다. 어린 운학의 총명한 재질을 귀히 여겼던것이다. 열아홉살밖에 안된 어린것이 몇자 배우지 않은 한문자를 모아서 시를 짓노라는것이 우선 신통했던것이다. 언젠가 첫눈이 왔을 때 어린 서산이 《천리강산》에 《설약화》라고

지은 글귀는 지금까지도 전해오고있다. 글이 잘돼서라기보다도 서산이 어릴적부터 그만치 총명했다는것을 말하는것이기때문이다.

리사중은 어린 고아를 한성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다. 서산이 열살때였다. 본시 글읽기를 좋아했던 운학은 어린 소견에도 남이 자기를 그같이 거두어주는것은 자기에게 한끝 촉망하는바가 있기때문이라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과거를 보았다. 그러나 두번씩이나 락방이 되고말았다.

과거제도는 본시 전국의 선비들이 글과 재주로써 경쟁하여 하나의 인재로 국가의 인정을 받아 출세의 길로 나가는 등룡문이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과거는 최운학이같이 보잘것없는 시골의 한미한 집 자식에게는 너무도 좁은 문이였다. 글과 재주의 경쟁이 아니라 문벌과 세도내기였고 또 뢰물로써 출세의 길을 흥정하는 장터였다.

운학은 그러한 출세의 길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 무엇을 할것인가.

이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량반이 못되는 량민(주로 농민)의 자식들은 군역이라는 종신적부역과 호포, 전포, 군포라는 명목으로 가렴주구되는 세납으로 피를 짜내도 모자라는 착취를 받으면서 그냥 량민노릇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적패가 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중이 된다는것이다. 량민노릇을 하기가 그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짐작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들수 있다. 제13대 왕 명종(선조의 바로 전의 왕)초년에 어린 왕 명종을 대신하여 정사를 본 문정왕후의 비망록의 일절이다.

《량민이 날로 줄어서 군졸을 모아들이기 지금같이 곤난한적은 없다.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이 군역의 고통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군역을 피할수 있는 중이 되므로 중은 날로 늘어가고 군사로 충당할 량민은 줄어가니 지극히 한심한 일이다.》

서산대사도 이런 시대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18살때에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머리깎고 중이 되였다.

우리는 지금 그때의 서산이 중이 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이나 또 그가 중이 되려고 한 까닭을 자세히는 알수 없다. 이미 중이 되였거나 혹은 되기 직전의것이라고 할수 있는 그의 시 한구절을 찾아볼수 있을뿐이다.

흡수귀래홀회수 청산무수백운중.

《물을 길어오다가 문득 돌이켜보니 무수한 청산이 구름속에 묻혔고나!》하는 이 시에서 우리는 한폭의 웅장한 풍경을 보면서도 일종의 허무감을 느끼게도 된다. 작자인 서산이 그 웅장한 자태를 제대로 드러낼수 없이 구름속에 묻혀있는 여러 메부리중의 하나를 자기자신에게 비겨본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비장충천 명장경인》하리라는 만만한 자신과 청운의 뜻을 단념할수밖에 없어 산속에 묻히고마는 젊은이의 허무감을…

부패하고 암흑한 봉건시대에서 자기의 재질을 믿고 만만한 포부를 가지면서도 량반이 못되고 권력과 재산이 없기때문에 자기의 포부를 펴볼 길이 없이 속절없이 썩고마는 그 당시의 젊은 재사들로서 이러한 허무감에 시달린것이 어찌 최운학이뿐이였으랴.

그러나 젊은 운학은 시들지도 타락하지도 않았다. 금의옥식에 싸인 권문세가의 자식들이 백성의 등골을 뽑아먹는 권력의 길로 출세를 한다면 자기는 한벌 칡베장삼에 솔잎과 느릅나무껍질을 먹으면서라도 높은 선지식과 고결한 덕행을 쌓음으로써 명성을 떨쳐 만인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했던것이나 아닐가?

중이 되여 입산수도한다는것은 그 당시의 운학이와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로서는 공부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중이 된 그는 젊은 정력과 심혈을 공부에 기울였던것만은 사실이다. 《불가의 경전은 물론 유교와 선도의 경전과 제자백가서에 이르기까지 통하지 않은바가 없었다.》, 《대장경을 다 읽고나서 향을 사르며 또 주역을 읽었다.》는 그의 회고담으로도 짐작할수 있다.

그는 수련을 쌓음으로써 벼락이 머리에 떨어져도 태연하고 부귀가 오더라도 오불관언할수 있는 사람된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만인이 다 수긍할수 없는 권력에 대한 반항의 길이기도 했다. 엊그제 련광정앞에서 마음속으로나마 격분을 토로했던것이 이러한 의식의 잠재였을지도 모를것이였다.

서산은 젊어서부터도 계행이 각근한 중이였다. 《망아겸망세》로 공부하기에 자기를 잊고 세상까지도 잊었던 그는 이성에 대한 애욕 같은것은 생각할 여념도 없었다. 또 그동안에는 초근목피도 구할수 없는 겨울에 궁벽한 산속, 퇴락한 암자에서 등불도 없는 긴긴밤을 기한으로 떨며 지난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한 간고한 노력의 결과는 그로 하여금 벌써부터 글 잘하는 시승

으로, 덕행이 갸륵한 선승으로 명성을 떨치게 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어두운 밤하늘 어느 한 귀퉁이에서 반짝이는 하나의 별빛 같은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는 했으나 세상을 밝힐수 있는 광명으로 빛나는 이름은 물론 아니였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일왈 그는 세상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말하자면 세상사람에게 아무러한 영향도 도움도 줄수 없는 산속의 한 중이였기때문이였다. 서산자신도 그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십년 적공과 고행의 결과로써 얻은것은 한날 빈 이름뿐》이라고 자탄한적이 있었다.

우선 그는 고독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따라서 랭철한 사람이 아닐수 없었다. 70여살 한평생을 가정을 가져본적이 없는 그에게는 자식이 있을리 없다. 어린애를 가져본적이 없고 길러본적이 없고 가까이할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은 자연히 랭담한 사람이 될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런 사람은 우선 많이 웃을 기회를 못 가진다. 또 자신 이외의 사람을 위해서 마음아파할 기회조차도 가질수 없기때문이다.

귀여운 어린 자식을 보는 부모는 까닭없이 웃을 때가 많다. 까닭은 없으나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다. 그런 웃음을 많이 웃을수 있는 사람은 자연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자신 우선 행복하다. 그러한 행복을 못 가진 사람은 그만치 따뜻한 마음을 가질 기회도 적다고 할것이다. 서산대사 역시 그 례외일리가 없었다. 더우기 만법개공이라는 무상관세(세상만사가 덧없고 항상 변화한다고 보는 관념)의 눈으로써 보면 세상에는 웃을 일도, 새삼스럽게 감격할 일도, 놀랄 일도, 저퍼할 일도 없으며 또 없어야 한다는 선승의 수련을 쌓아온 서산은 반세기동안 웃을 일도 별로 없었거니와 더우기 울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한 서산이 오늘 새벽에 울었다. 그뿐아니라 피란민중에 끼여서는 누룽지를 떨어뜨리고 우는 어린것의 울음까지도 응당 그렇지 않을수 없는 통곡으로 느꼈다. 이러한것은 실로 그가 50여년만에 처음 당하는 마음의 큰 동요였다.

서산은 이때까지 자기를 랭정하다거나 랭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적은 없었다. 일체 중생을 사파고해에서 제도하려는 불보살의 대자대비를 곧 자기의 마음씨로 하여 길가의 개미 한마리도 밟지 않으려는 자기가 랭정랭담한 사람일리가 없었다. 그는 또 일찌기 자기를 독선적인 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보살경의 계행을 지켜 일체 중생은 누

구나 다 불성을 가졌고 따라서 다같이 성불한다는 생불일여(중생과 제불이 그 천성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는 뜻)의 견지에서 만인앞에 합장하고 머리를 숙여왔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에 대해서 거만하지도 랭담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같이 자신해왔다.

그러나 오늘 그가 흘린 뜨거운 눈물은 이러한 그의 자신을 부인했다. 자기의 가슴속을 뜨겁게 씻어주는듯 한 그의 눈물은 이때까지의 자기는 그 얼마나 랭철한 사람이였던가를 스스로 깨닫게도 했던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깊은 산중에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념해왔다. 그러나 아무도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는 높은 법당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을 설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를 도와준적은 없었다. 생각컨대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더우기 놀라운 일이 있다.

자기는 50여년동안을 벼락이 떨어지더라도 혹은 뜻하지 않은 부귀가 굴러들어오더라도 끄떡도 없는 사람된 사람이 되리라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어제 밤의 그 많은 사람들! 그중의 이름을 알수 있는 사람만으로도 임욱경, 갑손이, 보통벌머사니같이 그토록 순순히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로 서슴지 않고 나갈수 있을것인가! 대의를 위해서 소아(자기)를 그렇게 대담히 버릴수 있는 수련을 그들은 언제 쌓았던것일가?

스스로 모든 집착에서 해탈한 선승으로 자처해온 서산은 그 사람들앞에서 자기는 한날 공념불 구두선승(명색이 중이라는것)에 지나지 않는것같이도 느껴졌던것이다.

이때의 서산은 사랑이 그리웠다. 막연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념하기보다 단 한두사람이라도 좋았다.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여생을 바쳐 도와줄 사람이 그리웠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그립기도 했다.

서산은 어제 밤에 우연히 혹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시(불교에서 암만 거슬러올라가도 그 처음이 없음.)로부터 내려오는 륜회(차례로 돌아감.)중에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만나게 되였을지도 모를 (로승은 이렇게도 생각했다.) 보통벌머사니가 남기고 간 고아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보통벌머사니의 집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난데없이 한 늙은 중이 찾아간댔자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랴. …

《김오장! 연대 오장 있나?》

《누구요?》
《상게두 연대에 있나?》
《글쎄 누구요?》
《나야 나. 가마구비연대 오장이야. 좀 내려오라구.》
《아니, 어떻게 왔소? 왜놈이 성안에 들어왔소?》
《글쎄 좀 내려오라구.》
《예, 내려갑네다.》

하나는 아래서 부르고 하나는 산꼭대기의 연대에서 대답하는 고함소리에 서산은 눈을 떴다. 어제 밤부터 뜬눈이던 서산은 자기를 구경하러 둘러섰던 아이놈들이 흩어져 조용해진 틈을 타서 옆에 있는 짚낟가리의 짚단을 의지하고 잠시 눈을 붙였던것이다.

눈앞에 우뚝 서있는것은 당홍동달이 야청군복에 시꺼먼 산수털벙거지를 쓰고 대목에 붉은 상모가 달린 창대를 세워짚은 한 군총이였다. 흰 털이 드문드문 섞인 숱많은 구레나룻을 한손으로 내려쓸며 서있는 그는 중늙은이지만 그의 든든한 창대와 같이 기골이 정정했다. 그의 고함소리에 우선 동네사람들이 나왔다. 모인 사람들은 그 정정한 봉군 오장과 그옆의 짚낟가리를 의지하고 졸고있는 모양인 다 늙은 로승을 번갈아 보았다.

《어떻게 오셨소?》

뒤산 나무숲사이의 길로 내려온 이곳 봉군 오장이 인사겸 물었다. 그는 젊은이였다. 마주선 그들은 나이는 다르나 같은 옷차림에다 역시 같은 창대를 가지고있었다.

《어떻게가 다 뭔가. 이게야 답답해서 사람이 살겠나.》

가마구비 오장은 창대끝으로 굳은 땅을 한번 쿵 울리면서 말했다.

《내 이 나이되두룩 40년이나 연대를 지켜오건만 이렇게 답답하구 클클해보기는 첨일세.》

《답답하다니, 우리 연대에서 내가 안 올라서 말이요? 그래 채근왔소?》

이곳 연대의 젊은 오장의 말은 좀 시룽거리는 롱조였다.

《말말게. 태평성대가 돼서 이렇게 일이 없다면야 좀 좋겠나.》

《그야 그렇지요. 무사할 때야 맞은편 연대에서 내가 벌껏 오르면 이거 또 무슨 일인가 해서 섬찍했지.》

《여기 사람은 안 그런가?》

《뭐 말이요?》

《난 새벽부터 사람단련을 받다받다 못해 왔네.》
《무슨 사람단련이요?》
《우리 연대근처의 성안사람들은 아마 거의다 왔다갔네, 무슨 소식이 없나 해서…》
《한성소식 가마구비에서 먼저 안다구… 그래, 한성소식 물으러 옵디까?》
《이제야 한성소식이 아니지. 뒤에서 무슨 소식이 있을가 해서지.》
《뒤대에서 무슨 소식이 있을래니 어떻게 있겠소. … 하기는 나부터두 맘은 그렇지 않아서 죽은 말 지키듯 연대에 올라가있기는 합네다만 엇그제 떠난 상감님은 아직 어데 가서 자리두 못 잡았을게구, 성안에 남아있던 대감령감들은 다 달아나구… 뻔한 일 아니요.》
《그러게 답답한 일 아닌가.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다싶이 하는데 지금 성안에는 아무도 없네그려.》
《왜, 백성들이 있지 않소.》
《이 사람아, 그런 실없는 소린 뒀다 하세. 성안뿐아니라 나라에 주인이 없단 말이야, 내 말은…》
늙은 봉군의 목에서는 무슨 큰 덩어리가 넘어가듯이 턱밑의 불쑥 내민 울꾸리가 한번 꿈틀거렸다. 그는 또 말을 이었다.
《부산연대에두 봉군이 그냥 있던가?》
《있긴 있는 모양입디다. 왜요?》
《대동강건너 화사산연대에는 동대원에 왜적이 들어오자부터 사람의 그림자도 볼수 없으니 말이네.》
《여기서부터 북쪽에는 그냥들 있을게요. 부산연대에서 보면 그담 연대에두 있을게구. 또 거기서 보면 그담 연대에두 있구. 그렁그렁해서 의주까지는 다 있을게요.》
《그럴가?》
《그렇지 않구요. 거기 봉군들두 다 우리 맘이나 다를거 있소.》
《허허!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되구보니 별게 다 반갑구먼! 지금 자네 그 말두 반가와…》
가마구비 오장은 몇방울 눈물이 맺혀 흐르는 구레나룻을 내려쓸면서 허허허 웃었다.
《정말! 저 숱한 사람들이 다 어데루 간다?》

버드나무그늘에 모여앉아서 두 봉군 오장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이 동네 사람들이 보통벌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였다.

《촌으루들 가지, 어데루 가.》

《정말 성내 아니면 촌으루밖에 더 갈데가 있나.》

《그러구보니 우리 농사군이 더 죽어나게 생겼다.》

《왜?》

《왜라니? 저 숱한 사람이 입은 하나씩은 다 가졌거던.》

《성안에서는 안 먹었나? 그 폭이 그 폭이지.》

《그건 모르는 소리… 이때까지는 저 사람들이 그래두 뒤대에서 베랑, 앞대에서 창호지랑이라두 날라다주면서 먹었느니.》

《그런데 지금은 아가리들만 가지구 나섰다? 지금까지는 농사하는 우리보다두 더 잘들 먹었으니 이젠 좀 굶어보라지.》

《뭐, 굶으라구요? 여보, 이편이 그런 독담을 안해두 굶게 된 사람 많소.》

이같이 그 농군의 말에 문득 비위 뒤틀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나섰다. 그는 언제 왔는지 보따리들을 내려놓고 그늘아래서 땀을 들이는 칠팔명 피란민들중에 칠순이 가까운 로파와 젖먹이어린것을 업은 젊은 녀인을 데리고 온 한 부상군같은 젊은이였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먹은것두 없지만 잘 먹었든 못 먹었든간에 하던 살림 다 팽개치구 나서서 지금 맘이 어데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그래 그런 소리만 앉아서 탕탕하는 이편은 속이 알량할건 뭐요?》

그는 때국이 흐르는 무명고의가랭이를 성가신듯이 무릎까지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며 또 이렇게 시까슬렀다.

《여보 이손, 그만 말에 그다지 화낼거야 있소?》

이때 그옆에 앉았던 한 늙은 농군이 허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의 말은 아무튼 쇠술루 밥 떠넣는 사람의 입은 언제나 우리 농군이 치게마련이니 이런 세월에는 더구나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겠소.》

《로인의 말씀을 듣구보니 그렇기두 하우. 시에미 역정에 개옆구리 찬다구 하두 화가 났던김이니 그랬지 나두 본시는 농사하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젊은이 역시 허탄하게 웃고말았다.

《그래 지금은 성안에서 뭘 하구 지냈소?》

늙은 농군이 물었다.

《소금장사하댔소.》

《피란은 어데루 가우?》

《할수 없으니 떠났지 어데 갈데가 있는걸 떠났소?》

《소금장살 했으면 서해변 한천근방이야 잘 알지 않겠소. 아는 사람두 있을테구.》

《이 주젤 하구 고향엘 가요?》

소금장사는 문득 또 허허 웃었다.

《고향이면 더 좋지 않소.》

《웃음에 소리요. 고향이 무슨 고향이겠소.》

《고향이랬다 아니랬다 하는걸 보니 필경 무슨 까닭이 있는 고향인게로군.》

《까닭은 없어두 우스운 이야기나 하나 들어보실라우?》

소금장사가 저부터 또 웃으며 이런 말을 하자 그옆에서 어린것에게 젖을 빨리던 젊은 아낙네가 《여보, 어서 갈길이나 갑세다. 남부끄럽게 또 무슨 그따위 이야길 할려구 그러우.》하며 눈을 흘기기까지 했다.

《그렇게 바삐 갈데가 있거든 님자가 앞서게나. 이번엔 내가 님자뒤를 좀 따라다녀봅세.》

이러한 부처의 말에 귀가 좀 어두운 모양인 그의 로모는 아들며느리의 입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슨 슬픈 소식이라도 들은듯이 꺼지게 긴 한숨을 지으며 설렁설렁 채머리를 흔드는것이 보기에 퍽 처량했다.

《지난봄에 한천으루 소금을 받으러 가지를 않았더랬소!》

소금장사는 그럴수록 배심 유하게 능장이나 부려보자는듯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침 한천 장날이라 염벌에서 소금을 받아놓구는 파장머리에 주막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소. 실컷 마시구 거리루 나섰는데 앞에서 웬 의관한 자가 마주 오다가 내가 이쪽으루 가면 그자두 그쪽으루 오구 저리루 가면 또 그리루 가구— 암만 길을 어길라구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두 그냥 맞서질 않소. 술이 다 깨서 생각하니 실상은 내가 갈지자걸음을 한것인데 그때는 꼭 그자가 내앞을 막아서는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슬그머니 골이 났는데 되려 제편에서 <이 웬놈이 희야치느냐.>구 호통을 하길래 <뭐야?> 하구 한번 받아넘기질 않았소. 했더니 그자가 코통을 움켜쥐

구 자빠지면서 뭐라구 소리를 지르자 난데없는 사령들이 달려와서 날 꽁꽁 묶는단 말이요. 묶여서 어데루 끌려갔는가 하면 증산고을이요. 사람이 기가 막혀서! 알구보니 그자는 증산골 리방인데 한천에 무슨 사실할 일이 있어서 사령들을 데리구 왔더라나요. 큰코를 다쳐놨으니 꼼짝 못하구 볼기를 맞게 됐는데 에라, 한번 엄살이나 해보자 하구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을지문덕장군님 뼈부스러진다! 진다!> 하구 소리를 질렀소. 그랬더니 원님이 쌍창을 드르륵 열구 내다보면서 <이놈, 그 무슨 소리냐?> 하구 묻길래 <소인이 할턱이 없어서 소금장사는 하지만 성인즉은 돈씬데 돈씨루 말하면 근본이 을지문덕장군의 후손이 아니오니까. 그 장군이 나시구 공부하신 석다산, 불곡산이 다 이 경내에 있는 안전, 아문에서 소인이 볼기를 맞게 되니 조상님에게 더 죄스럽구 불초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올시다.> 했더니 원님이 <네 정녕 그러냐?> 하구 몇번 재쳐묻더니 놔준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살던 고향은 아니라두 조상의 고향덕은 입은셈이요.》

《허! 엉망중에두 그런 꾀를 내는걸 보니 돈서방이 아주 의사가 충충하우.》

늙은 농군의 이런 말을 시초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벌어졌다.

《그런 말을 내는 돈서방두 용하지만 그 말을 듣구 놔주는 증산현령두 된 사람이요. 증산현령이 누구든가? 옳지, 조의라더군!》

《조의가 된 사람이나마나 자기 경내에 그런 사적이 있는 을지문덕장군의 후손인줄 알구서야 안 놔줄수가 있나.》

《그러구보니 사람은 나구볼 일이야. 그런분은 천여년후에두 자기 후손한테 음덕을 끼치거던!》

《자기 후손뿐이겠소, 지금 이런 때 을지문덕 같은분이 계시면 우리 온 백성두 더 걱정이 없겠소.》

이런 말들을 하는중에 또 새삼스러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돈서방의 성이 정말 돈씨요?》

《돈가는 정말 을지문덕장군의 후손인가요?》

《남들이 그러니 그런가부다 하지, 내니 아우.》

정작 본인인 돈서방의 대답이 이러했으므로 이때까지의 이야기는 룡두사미로 되고말았다.

지금 우리가 돈서방이라고 부르는 소금장사 돈정신이 이때는 그렇게 말

했지만 《평양지》 같은데서 전하는바에 의하면 그는 늘 자기가 을지문덕장군의 후손이라고 자랑했다는것이다. 그는 몸이 날쌔기때문에 돈비신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도 전한다. 지금 돈정신이 그렇게 말한것은 일부러 그런것이라기보다도 그가 바로 그런 자랑을 한것은 이 이후부터의 일이였을는지 모른다.

《금년농사는 어떨것 같소?》

이야기가 한동안 끊겼던중에 피란민 한사람이 각설로 이런 말을 물었다.

《글쎄요. 화불단행(재앙은 매번 겹쳐온다는 뜻)이라구 이런 란시에 농사니 웬걸 잘되기 바라겠소.》

늙은 농군의 말이였다.

《일왈 일손이 없소. 장정들은 다 군총으루 뽑히구 더러는 피란가구.》

《우선 또 너무 가물지 않소?》

《오는 스무하루날이 중복인데 그전으루 비가 와주기만 하면야 아직두 괜찮기는 하지요. 허나 하늘이 하는 일을 알수가 있소.》

버드나무밑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문득 뒤에서 걸걸한 말소리가 들렸다.

《지금 자네가 자시는것이 벽곡(곡식은 안 먹고 솔잎, 대추, 밤 등을 조금씩 먹고사는 일)한다는거 아닌가?》

늙은 봉군 오장이 창대끝으로 역시 땅을 쿵쿵 구르듯 하며 넓은 마당한 기슭에 놓인 큰 떡돌에 걸터앉은 로승앞으로 갔다.

이때 서산은 바랑에서 꺼낸 바리대에 물을 떠다가 미시가루를 풀어서 먹는중이였다. 그는 조반을 먹지 못했던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런 땐 대사 같은 중의 팔자가 상팔잘세.》

늙은 봉군은 로승앞에 놓인 바리대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면서 말했다. (그것은 당장 먹고있는 남의 음식그릇이였다. 그러나 중이기때문에 실례여부가 없었다.)

《본시부터 나라두 없다, 처자식두 모른다 하구 저 한몸 좋을대루 부운종적(뜬구름과 같이 자취가 없다는 뜻) 떠다니다가… 아까는 보니 짚단속에서 자더니 지금은 또 솔잎가루를 먹으니 이런 란시엔들 무슨 걱정이 있겠나.》

본시 걸걸한 음성인데다 지금은 또 시까스르듯 하는 말이라 늙은 봉군의 말은 더욱 기승스럽게 들리는 말투였다.

《이것 말씀이오니까? 콩가루도 좀 섞었습니다.》
로승은 나직한 말로 이런 대답을 했다. 사람들은 웃었다.
그의 바리대와 마찬가지로 감붉은 옻칠을 한 나무숟갈을 한손에 들고 그 긴 눈섭에 그늘진 눈을 가늘게 뜨고 앉은 로승의 대답이 동문서답같이도 들리는 말이기때문이였다.
《소승도 농사지으시는분들의 덕을 입고 사니 하는 말씀이외다.》
사람들의 웃음끝에 또 이같은 나직나직한 로승의 말이 들리였다.
《…》
앞에 마주선 늙은 봉군은 숱많은 구레나룻을 내려쓸뿐이다. 두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잠시 말들이 없었다. 그러나 곧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장면의 전환이 있었다.

26. 사창의 쌀이 터졌다

맨상투바람의 한 젊은이가 땀을 철철 흘리면서 지고 온 짐을 내려놓으며 《여기서는 성안에 쌀 가지러들 안 가시우?》하고 말했다.
《성안에 쌀을 가지러 가다니 무슨 말이요?》
《모르구들 있소? 사창고 군량쌀이 터졌소. 저것들 좀 보소. 다들 쌀섬들을 지구 오지 않소. 나두 세간나부랭이를 꾸려가지구 오다가 사창고가 터졌다길래 짐은 녀편네들한테 끌구라두 오라구 맡기구는 우리 형제는 다시 들어가서 한섬씩 져내오는 길이요.》
말을 듣고본즉 보통벌에 널린 사람들이 지고 오는 짐모양들이 과연 아까와는 달라졌다. 지게뿔에 기름소용을 달아맨 세간이나 이불보퉁이 같은것이 아니라 누런 섬거적들이 많았다. 또 여기저기 길가에는 지고 오던 세간짐을 녀인들과 아이들앞에 부려놓고는 성안으로 부산히 되돌아가는 남정들이 많았다. 빈몸으로 가는 그들중에는 뛰다싶이 하는 사람도 많았다.
《군량쌀이 터지다니 어떤 놈이 한짓인가?》
늙은 가마구비봉군 오장이 묻는다기보다도 펄쩍 뛰다싶이 고함을 질렀다.
《아무리 란시기로서니 그럴법이 있나. 자작 무법천질 만드니 란민들이 아닌가?》

《…》

《대체 어떤 놈이 먼저 그따위짓을 했다던가?》

그는 창대끝으로 호되게 또 한번 땅을 울렸다.

그러나 맨상투바람의 젊은이는 그 말에는 대답을 않고 《여기서 좀 쉬여가자.》 하며 뒤따라온 동생의 쌀짐을 받아놓으며 말했다.

《어떻게 할가? 이번에는 이사짐을 가져오자니? 또 성안에 들어가서 쌀을 한번 더 져오자니?》

《형님두, 원! 이왕이면 쌀을 한섬이라두 더 날라와야지. 남들은 지금두 자꾸 성안으루 들어가지들 않소.》

동생인 총각이 더 극성인듯 했다.

《그럼 그러자.》

형제의 의논이 맞았다.

《하! 오늘 전주머구랑 법근이랑이 본사있게 큰손 쓰던데—》

소매끝으로 얼굴의 땀을 문지르고난 총각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였다.

《큰손을 쓰다니 사창고를 그자들이 터쳤단 말인가?》

늙은 봉군이 또 어성을 높이며 물었다.

《전주머구라니— 일전에 행궁앞에서 량반 태질하던 씨름군말인가?》

누구는 또 이렇게도 물었다.

《예.》

《돌중놈 법근이는 혹시 그럴 놈이지만 전주복이 같은 량민두 그래?》

《주머구가 윌루 한몫 더 하던데요. 창문을 쫙 열어제끼구는 어서들 한섬씩이라도 더 가져가라구 제손으로 지워주구, 짐바없는 사람은 짐바하라구 몇천필 쌓아놓은 무명을 쫙쫙 찢어서 주기까지 합디다.》

《저런, 죽일놈들이 있나. 창에 쟁여둔 나라상목을…》

《그래서 처음엔 우리두 다 얼떨떨했어요.》

이번에는 그 형이 말을 받았다.

《웬 일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묻습디다. 그 사람네 대답이 우리 농사군의 농량까지두 다 긁어들인 곡식인데 그냥 두면 왜놈의 살이만 할게라구, 어서들 가져가라구 하더군요.》

《그자들이 저희 욕심 채우노라 하는짓 아닌가?》

《그러지 않아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구 묻는 사람두 있습디다.》

《그래서?》

《전주복이랑 대답이 서산대사라나요? 서산이라는 도승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구 합디다.》

《뭐? 서산대사! 저 향산 어느 절에 있다는 중말인가? 산속에 있는 중이 그런 일을 시켰다는것두 모를 말이지만 또 그런 중놈이 나라재물에 무슨 상관이 있다구 당한 소린가?》

《여보, 좀 가만계시우. 당한 소리건 아니건간에 정말 그랬다면 그 서산이라는 중이 사람 살릴 공론을 낸것 같소.》

이때까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만 있던 돈정신이가 늙은 봉군의 말을 가로막듯이 말했다.

《빈손만 들구나섰던 우리는 나부터두 시재 굶지 않게 됐소.》

《돈서방, 그럼 우리두 들어가볼가요?》

《들어가다마다! 하다못해 길량식거릴 가져와두 어데요.》

피란민들이 이런 말을 하는중에 《지금 가두 쌀이 있갔소?》하고 어떤 농군은 이렇게 묻기도 했다.

《있다뿐이요. 사창앞에랑 넓은 마당에랑 산더미같이 로적해둔 걸곡은 말할것두 없구 창안에 있는 쌀만 다 져낼래두 아직 멀었소.》

《그럼 우리두 가세.》

《우리 농군은 군량미로 바쳤던 우리 쌀 찾아오는 폭이네.》

《지금 그런거 따질게야 있나? 그냥 뒀다가 왜놈의 살이 하느니 우리 사람이 먹는것만 해두 크지.》

제각기 이런 말을 하면서 일어서는 농군들중에는 《이제 성안에 들어가두 무사할가?》하고 의질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중 법근이가 영명사 중들을 데리구 을밀대랑 그 근방의 성랑에서 망을 본다는데 왜놈들이 아직두 동대원에서 자리를 뜨는 기색이 안 보이드랍디다.》

쌀을 지고 온 젊은이의 말이였다.

《중들이 망을 봐요?》

《절이 무너지자 중놈들이 쓸어나오듯 한다더니 란이 나자 중들이 웬일이야?》

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웃기도 했다. 돈정신과 피란민 몇이는 가족들과 짐들을 이 동네에 남겨두고 먼저 떠났다.

이 동네에서도 짐을 질수 있는 남정들은 다 성안으로 들어갈 차비를 했다. 혹은 지게를 지고 혹은 짐바만을 들고 혹은 뒤산기슭에 매두었던 소를 끌고 왔다. 모두 고의가랭이들을 가뜬히 걷어올렸다. 또 먼길을 떠나는 사람을 배웅이나 하듯이 녀인네와 아이들까지도 버드나무아래로 모여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긴장한 빛이 뵈였다. 이런 때 성안에 들어가서 무사할가? 하는 불안과 그러나 이제 먹을것이 생긴다! 하는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투는듯 한 긴장이였다.

《사창의 쌀이 터졌다!》

《성안으로 쌀 가지러 간다!》

이런 말이 이 동네에서뿐아니라 보통벌에서도 오구자하니 떠들어오는듯도 했다. 보통벌에서는 확실히 먼지가 더 많이 떠올랐다. 그속에서 활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남들은 다 가는데 우리는 갈 사람두 없구나.》

모여선 사람들중에서 문득 이러한 녀인의 넉두리가 들렸다.

그 녀인은 품에 안은 갓난것에게 속이 다 빠진 베개같이 시들은 젖을 빨리고있었다. 아까 칠성이의 고의가랭이를 붙들고있던 어린 사내놈과 또 그보다 더 어린 계집애가 그 녀인의 몽당치마자락을 부여잡고 붙어서있었다. 그들옆에서 역시 등에 업은 어린것을 추석거리던 칠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신도 안 신은 발가락으로 땅바닥을 후비적거리고있었다. 그러자 메마른 땅의 복닥복닥 보풀이인 누런 봉당을 점점이 적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이때 서산이 그들한테로 가까이 갔다.

《댁에두 쌀이 좀 올것이올시다.》

녀인은 그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로승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로승의 말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잠시 이야기거리가 되여 웃기도 했던 로승의 말과 그의 시선을 따라 앞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다. 십여명의 중이 쌀섬들을 지고 오는것이였다.

《네 이름이 칠성이라지? 칠성아, 너 저 쌀 지고 오는 중들을 너의 집으루 모셔다드려라.》

로승의 지시에 따라 십여석의 쌀이 다 씨그러진 보통벌머사니네 집 바자안으로 들어가는것을 보는 사람들은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대사, 대사가 서산대사라는이 아니요?》

가마구비연대 오장이 나서서 물었다. 그는 《그럴법이 있나!》하는 의분에 북받쳐 한때 기승을 부리듯 했으나 더 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모두 쌀을 가지러 성안으로 들어가노라 부산한통에 할 일없이 한옆에 비켜서 있을뿐이였다. 그렇다는 뜻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히는 로승앞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무심히 보았던 로승을 다시 자세히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대사, 나는 이 동네서 늙어온 김가성쓰는 농군이요.》

늙은 농군이 서산앞으로 와서 말했다.

《대사의 덕으루 우리 동네 걱정거리던 한 집 식구가 살게 됐소. 우리 동네사람이 다 한시름 덜었다구두 할수 있소.》

이렇게 치하하는 로농에게도 서산은 역시 합장할뿐이였다. 쌀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늙은 봉군도 젊은 봉군과 같이 성안으로 들어갔다. 동네는 다시 조용해졌다. 조용한중에 《웬 일인지는 몰라두 아이새끼들이 시재 굶지는 않게 됐나부웨다. 아이고, 아이고ㅡ》하며 새롭게 곡성을 터뜨린 녀인의 넉두리가 들렸다.

서산은 떡돌에 걸터앉아있었다. 두손으로 지팽이를 비스듬히 뉘여짚고 앉아서 길고 흰 눈섭으로 완전히 눈을 내려덮고 조으는듯 한 그는 이따금 손을 들어 귀를 후비면서 아직도 동탁한 맛이 있는 볼과 턱을 움직여 입맛을 다시기도 했다. 마치 누가 하는 자기 왼공론에 입이 쓰겁기라도 한듯이…

27. 평양성내의 간장탕수

평양성안에는 아직도 사람이 많았다. 이사짐을 꾸리노라 아직도 좌왕우왕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니와 일단 나갔다가 빈몸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부근농촌에서 들어온 농민들도 많았다. 그들은 많이 사창고앞으로 모여들었다. 혹은 이 골목, 저 골목으로 흩어져가기도 했다.

이날 중낮부터 성안에서는 장, 된장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만여호나 되는 집집에서 일제히 장을 졸이기라도 하는것 같았다. 그 짜고 매운 냄새에 눈이 쓰리기까지도 했다. 그럴 까닭이 있었다. 총총히 인가가 들어앉은 골목들에서 집집의 대문턱밑으로 흘러나오는 장이 거리로 번지기 시작했다. 폭양에 메마른 거리바닥에다 허연 소금버캐를 앉히면서 흐르는 장이 사람의 신발을 적시게까지 되였다.

평양성안에 간장탕수가 났다! 이러한 말로써 퍼지는 소문은 옛말로도 듣지 못한 큰 괴변같은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이 하는짓이였다. 골목마다 패거리를 지어다니며 집집의 간장, 된장독들을 뒤엎어쏟고 혹은 깨뜨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펄펄 날듯 하는 사람도 있어서 혹시 문이 걸린 집이 있으면 담장을 뛰여넘어서까지 기어이 장독을 부시고야만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이 괴변같은 일을 더욱 수상스럽게 윤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중들이였으므로 사람들은 《이것도 서산대사라는 중이 시켜서 하는 일인가?》 했다.

서산대사라는 중이 사창의 쌀을 터쳐놓은것은 모두들 잘한 일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장독들을 뒤집어엎고 깨뜨려버리는데는 우선 놀랬고 또 그리 잘하는 일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못할짓을 하는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조선사람은 장을 소중히 여긴다기보다도 신성시하는 풍습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풍습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옛날일수록 더욱 그랬다. 장이 가득가득한 독과 항아리들이 늘비한 장독대는 그 집의 치장거리이고 자랑이기도 했다. 《움막에 진간장이 있었다!》는것은 뜻하지 않았던데서 진귀한것을 발견한 때에 쓰는 말이였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무슨 변화

가 생길 흉조였다. 새며느리를 맞자 장맛이 변하면 그것은 집안에 들이지 못할 사람이 들어왔다는 징조였다. 장은 그같이 령감한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장독을 뒤엎고 깨뜨려버린다는것은 천벌도 두려워 않는 부랑패류들이나 할짓이였다.

평양성내의 골목골목에서 간장이 내를 이루어 쏟아져서 신발을 적시게 되자부터 그 골목들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그중에는 물론 비고 떠났던 자기네 집으로 되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뒤집이든 주인없는 집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들이 강도는 물론 아니였다. 절도라고도 할수 없었다. 왜냐하면 빈집의 세간들을 뒤져내다가 혹시 그 집주인이 턱턱 찾아들어오더라도 그들은 달아나거나 숨지도 않는것은 물론, 마치 그 집의 이사짐을 도와주러 오기나 했던것 같이 이미 꾸려놓았던 세간은 가지고 나갔다. 그것을 보는 주인들도 당연히 그럴수 있는 일로 아는 모양으로 나무랄 생각도 않는것이 례사였다.

《남의 집 장독까지도 몽땅 들부시는 판인데—》이러한것이 어떤 집주인에게는 체관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의 세간을 공공연히 날라낼 용기를 주었다고도 말할수 있었다.

이때 함구문밖의 여러 마을들에서도 간장탕수가 났다. 그뿐아니라 그 무연한 전야에서는 일대 청야전술(량곡을 비롯한 먹을것을 깡그리 감추는 것)이 시작되였던것이다.

서산대사와 작별하고 저의 집으로 달려간 차돌이는 낫을 들고나가서 우선 저의 밭의 곡식부터 후리기 시작했다. 따라나온 어머니는 《이애가 미쳤나?》 했다.

《왜놈들이 성안에 들어오면 이 곡식은 우리가 못 먹어요. 왜놈들 잘 처넣으라구 둬두갔소.》

이러한 아들의 말을 알아들은 어머니는 울었다. 울면서도 자기도 밭으로 나가서 지금 한창 열리는중인 오이, 참외들을 걷고 남새들을 뽑아버렸다. 동네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다. 자기네 손으로 지었던 농사를 자기네 손으로 적지를 만든 사람들은 또 각기 저의 집 돌각담을 헐어다가 우물들을 메우기 시작했다.

《평양지》를 보면 불과 성벽 하나사이지만 성내의 우물들은 물맛이 나쁘고 불결한데 이 함구문밖의 우물들은 물맛이 좋았다는것이다.

《모르거니와 성내에는 사람과 말, 소의 오물이 많기때문일것이라》고도

했다. 말하자면 하수도가 없었던것이다.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은 될수록 돌로 메웠다. 언제든 자기네는 반드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것이므로 그때 다시 파내기 쉽게 하려는것이다.

동대원의 일본군은 이날(6월 14일) 저녁에야 대동강을 건넜다. 걸어서 건늘수 있는 왕성탄여울목을 알기는 알았지만 (또 조선군사가 타고 갔던 배들을 붙든것도 있었지만) 이날 새벽에 조선군사의 습격을 받아 적지 않은 군사가 살상된 소서행장의 군대는 무너지고 찢어진 대오를 재정비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던것이다. 또 강을 건너서도 곧 성내로 들어오지 못했다. 금수산과 모란봉일대에 자기 군대를 머무른 소서행장은 평양성을 내려다보면서도 들어갈 생각은 못했던것이다. 동대원전투에서 중과부적이라고도 할만 한 압도적인 수적우세로써 조선군사를 섬멸할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 전투는 자기네가 조선땅에 발을 들여놓은이래 처음이다싶이 맹렬한 공격을 받은 전투였고 따라서 전례없이 큰 손실을 당한 전투였다. 그런만치 지금 더우기 그 지형이 생소하고 시가가 복잡한 성안으로 서뿔리 들어설 용기가 없었던것이다. 그 어느 골목, 어느 집 모퉁이에서 또 치명적출혈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구로 소서행장은 상한 자기의 귀로 달라붙는 쉬파리를 날리면서 금수산에서 묵새기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군이 평양성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것은 15일 저녁때부터였다.

이동안에 평양부근의 농민들과 또 일단 떠났다가 되돌아온 평양사람들이 네것내것 없이 성안에 남아있는 재물을 날라낼수 있었다. 마침 열사흘, 열나흘이라 밤에도 낮같이 밝은 달이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장정들만이 량식을 져내려왔다. 그러나 차차는 녀인들, 아이들까지도 들어와서 세간을 나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적질을 했다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평양사람들이 손쓸 사이가 없이 내버리고 떠났던 많은 재물을 건져낼수 있었다. 의롱속의 옷과 피륙과 이부자리들을 져냈다. 놋기명, 사기그릇, 초대, 방등, 쇠거울 같은 부엌잡은것과 사치한 방안세간들이 촌부녀들에게는 역시 탐나는것이였다. 심지어는 다리미, 인두, 빗접고비까지도ㅡ 부엌구석에서 젓갈항아리와 혹은 벽장에서 꿀, 약과, 다식단지들을 뒤져내기도 했다. 방안의 삿과 돗을 걷고 심지어는 장판을 도려내고 묘하게 된것이면 문짝, 쌍창까지도 떼갔다.

이러한 결과는 그후 반년이상이나 이 성을 강점하고있은 일본군에게 물

자의 고갈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비위생과 동삼의 추위와 그리고 또 소금과 장의 부족으로 인한 무기력과 야맹증과 부황증 같은 많은 질병까지도 끼쳐주었던것이다.

28. 사창고앞에서

달이 휘영청 밝았다.

환히 열려있는 사창고 문앞에 무드기 쌓인 무명과 명주필우에 올라앉은 주복이는 옆에 놓인 큰 버주기에서 길게 늘어나는 검은 엿을 뜯어넣고 첩첩 씹으면서 《그래서.》하고 차돌이의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 엿버주기는 어떤 촌사람이 어느 빈집에 들어갔더니 있더라고 하면서 이번 일에 수고하는 주복이랑 먹으라고 가져다준것이였다. 차돌이 역시 무명필에 걸터앉아 엿을 먹으며 말했다.

《더 그래서 할게 뭐 있나요? 그리구는 다지요.》

차돌이의 이야기는 이상 더 들어보잘것도 없이 이렇게 끝났다. 마주앉은 두사람은 한동안 엿만 먹고있었다. 이때는 창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없었다.

일본군이 대동강을 건느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성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일시 끊어진 때였다. 텅 빈 거리에는 달빛만이 가득찬듯 했다. 달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더욱 짙은 버드나무밑에는 간혹 발걸음소리도 없이 지나가는 고양이들의 파란 눈동자가 보일뿐이였다.

《그때 내 눈으루 다 봤는데두 속으루는 지금두 행여나 살아서 터럭 찾아들 오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윽히 달을 쳐다보던 차돌이는 문득 이런 말을 했다. 더 할 이야기는 없지만 마음에 그득한 감회는 넘치는듯 한 말이였다.

《누가?》

《누구긴 누구야요, 갑손이랑… 지금두 눈에 선한 사람들 말이요.》

퍽 둔총스럽게 들리기도 하는 전주복이의 물음에 차돌이는 좀 발끈한 투로 대답했다.

《임욱경인 아마 살아올 생각은 안했을걸— 갑손이는 몰라두.》

《임욱경인 별사람인가요? 임별장뿐아니라 천하없는 사람이라두 살아올 맘이 없는 사람이 어데 있단 말이요.》
《너 임욱경일 잘 아니?》
《그저 그때 한번 본것뿐이요.》
《그러면서 뭘…》
《그럼 전서방은 임욱경의 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우?》
《나? 나야 그저 알지.》
《그저 알다니, 어떻게요?》
《뭐이 어떻게야. 그렇게라두 생각해야 내 속이 좀 편하니 그렇지.》
《그러다보니 전서방이 좀 싱겁댔군.》
《네 속은 상게두 예리다. 하긴 지금 한창 그렇갔다.》
《그렇긴 뭐이 그래요?》
《너 지금 자꾸 맘이 싱숭생숭하지.》
《싱숭생숭은 왜 해요?》
《말말아. 나두 총각적에 옆집 체니가 내 맘에는 그득한데두 말을 안 들어줄 땐 가을바람만 불어두 눈물이 쑥쑥 나게 처량하더라.》
《하! 그러다보니 전서방이 음흉두 하댔네.》
《남의 큰애기하구 밸 탔는지, 남의 큰애기 밸 탔는지두 모를 총각놈은 말구 내가 음흉해?》
《그따위 소리하면 나 성내요. 난 괜찮아두…》
이렇게 하던 말을 도로 삼키듯 한 차돌이는 앞에 늘어진 버들잎을 하나 따서 풀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밝은 달빛이라 그런지 무척 청아하게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또 지금 그의 심정탓인지 애절한 가락이기도 했다.
《하! 제법인데. 뒤 집 큰애기 바람낼만 하다.》
《에이, 여보.》
주복이의 말에 차돌이는 눈을 흘기였다.
《너두 무던하다. 해두 풀피리는 정말 법근이가 잘 분단다.》
《그래요? 거 또…》
《그만하면 너두 괴짜다. 그래서 뒤 집 큰애기가 반한거 아니가?》
《그따위 소리 자꾸 하면 나 정말 성내요.》
다시는 풀피리를 안 불듯이 버들잎을 뱉아버린 차돌이는 주복이의 시룽거리는 말이 더는 듣기 싫은 모양으로 성큼 일어나서 옆에 있는 로적

낟가리로 뛰여올라갔다. 큰 거리 한가운데 조산(쌓아서 만든 산)갈이 치쌓은 벼섬꼭대기에 올라간 차돌이는 푸른 달빛에 젖은듯이 서서 대동강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다가 갑손아! 갑손아! 찾지 말아.》

아래서 쳐다보던 주복이는 이런 말을 했다. 이때까지 갑손이의 이야기를 목이 메게 해온 차돌이가 사실 그럴것 같기도 했다. 저 역시 문득문득 《임욱경이!》하고 입밖에 내서 중얼거리게 되는 주복이는 다시 못찾아보고 가더라도 전해달라더라는 임욱경의 말에 금시 또 뭉클해지기도 했다. 그럴수록 주복이는 또 실없는 말을 해야 했다.

《그러다 괜히 또 큰애기를 찾지 말아. 남이 들으면 얌전한 총각 미쳤다구 할라.》

《내 그놈네 집엘 가볼테요.》

차돌이는 이렇게 동문서답투로 말하며 내려왔다.

《김순량인가— 그놈네 장독이 성했으면 좋갔네. 내 손으루 짓부셔놓게.》

《그놈네 장독이라구 그냥 뒀을래던? 그 소금장사가 벌써 다 하늘루 올려보냈지.》

《정말 그 돈서방인가 하는 소금장사는 왜 남의 장독하구는 그렇게 해본답디까. 처음에는 여기 쌀을 져가러 왔다가 영명사 젊은 중들이 그런다는 말을 듣구는 쌀두 그만두구 나섰다지 않소. 소금장사는 아마 남의 장독하구는 무슨 상극인 모양이요.》

《그럼 너두 소금장사가? 남의 장독을 부수러 간다니.》

《나야 갑손이 생각에 화가 나서 그러지 않소.》

《모르긴 해두 돈서방두 화김에 그런지두 모르지. 잔뜩 증이 났던김인데 좀 좋아! 와랑저랑 짓부시기가… 그런데다 또 고충경인가 하는 활량이 와서 보구는 그렇게 하면 왜놈들이 이제 장독대를 쩔쩔 핥게 될게라구 하는 말에 더 신바람이 났지.》

《그럼 전서방두 화김에 시작한 일이요?》

《모르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차돌이는 참말 김순량이네 집을 찾아가는지 저편 큰 거리로 갔다. 얼마후에 또 패를 지어온 수십명 중들이 쌀과 무명필을 날라갔다. 그들과 함께 여느 사람들도 십여명 따라왔다.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다.

《텁석부리 욕심꾸러기라더니 정말 이 아주바니가 꽤 부지런히 나릅네다.》
《힘이 없어 더 못 지네. 젊었을 때 같으면야 이만만 하겠나.》
주복이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것은 늙은 가마구비봉군 오장이였다.
《어데 가까운데루 날라다두는데가 있소?》
《잡약산동네루 나르네.》
《그 동네루 무던히들 모인다.》
《그럴밖에 안 있나. 일왈 가깝구 또 여기 성문이랑 보통벌이 빤히 건너다뵈서 왜적들이 출몰하는걸 잘 볼수 있거던. 그런데 마침 조용한 짬이니 하나 물어보갔네.》
지금은 벙거지만을 쓰고 창대는 작시미삼아 짚으며 쌀섬을 져내온 늙은 봉군은 짐을 다시 문밖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건가? 처음에 서산대사가 뭐라구 하던가?》
《나보구는 뭐라구 하지 않았소.》
《그럼 법근이보구는 뭐라구 했다던가?》
《글쎄요. 법근이보구두 별말 한건 없나봅데다.》
《그래두 그 대사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서?》
《그건 그래요.》
《어떻게 들어야 할 말인지 모르갔네.》
《모르시갔소? 하기는 우리두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줄은 몰랐소.》
늙은 봉군과 주복이가 주고받는 말이 딴은 이렇게 선문답 비슷하게 되였다.

새벽부터 칠성문쪽으로 쓸어나오기 시작한 피란민들을 저의 집 뜰앞에 나서서 보고있던 주복이앞에 씨근거리며 법근이가 나타났다.
《주복아, 너 이런 때 한번 큰 날파람을 안해보겠니?》
《…》
주복이는 무슨 소린가 하기보다도 무슨 한가한 실없는 소리를! 하는 모양으로 법근이를 쳐다만 보았다.
《이런 때 우리가 한번 평양성안의 주인노릇을 해보잔 말이다.》
흥분한 법근이는 또 이런 말을 했다.
《뭐인가 하면 사창고문을 터쳐놓구 거기 있는 쌀을 이 사람들에게 다 풀어멕이자는 말이다.》

《사창고쌀을 우리가 풀어멕이다니?!》
주복이는 더 알수 없는 말이라는듯 했다.
《금방 우리 서산스님을 만났는데 스님말씀이 나더러 너하구 같이 사창고를 터쳐놓으래는거야.》
《그건 왜?》
주복이는 더욱 모를 일이라는듯 했다.
《자, 이런! 답답하게… 서산스님말씀이…》
뒤더수기로 손이 가기까지 하는 법근이는 마치 귀먼 사람과 맞선듯이 한마디씩 잘라하는 투로 말했다.
《일왈 사창고를 터쳐놓구는 말이야…》
법근이는 하던 말을 또 끊어야 했다.
주복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왔다. 법근이가 사창고를 터치고 어쩌고 하는 말에 놀랜 두 늙은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기보다도 《그 무슨 큰일날 소리를 하는가?》 해서 된 소리건 안된 소리건 그런 이야기를 할테면 좌우간 남이나 안 듣게 집안에 들어와서 조용조용히나 하라는것이였다.
《아주바니— 우리 서산스님이 말이요. …》
안뜰로 들어온 법근이가 이번에는 주복이 아버지에게 우선 말해야 했다. 서산대사가 사창고를 터치라는것은 알기 쉽게 말해서 어제 밤에 동대원싸움에 나갔던 우리 군사들중에는 저의 집에 나인하고 어린아이들만 잔뜩 있는 보통벌머사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 그런 사람네가 시재 굶지 않도록 사창고쌀을 주도록 하자는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뭘, 우리가 그 쌀을 평양사람들한테 풀어멕이구말구 한단말인가.》
이번에도 역시 주복이가 물었다.
《너 그건 모르는 소리다. 서산스님말씀대루 머사니네 집에 쌀을 줄라구 사창문을 열어만 봐라. 지금 저렇게 모두 빈손만 들구 떠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가져가게 되지 않나. 그러게 우리 스님말씀이 이건 자신의 의사만이 아니라 온 평양사람이 그랬으면 하는것이라구까지두 말씀하시더라.》
이런 법근이의 말에 머리를 끄덕인 주복이는 《그렇다면 알겠다. 해볼만 한 일이다.》하며 먼저 일어섰다.
《알갔네? 이젠 또 다른 일두 있다.》

따라일어서는 법근이는 또 이런 말을 했다.

《뭐이가? 할만 한 일이면 하자꾸나.》

주복이에게 늙은이들앞에서 그럴것 없다는듯 한 눈치를 보인 법근이는 《그 큰 쇠를 깨뜨릴래면 도끼 같은걸 가지구 가야 하지 않을가?》 할뿐이였다.

《손으루 비틀다 안되면 돌로 치자꾸나.》

이같이 의논이 맞아서 두 젊은이는 나섰다. 그러나 두 늙은이는 큰일날 일이라고 주복이를 붙들었다. 우선 그런 일은 무법천지의 란민들이나 할짓이라고 했다. 그보다도 피란을 가느냐 마느냐, 가면 어데로 가느냐 하는 집안일도 아직 작정이 안됐다. 작정은 고사하고 의논답게 말도 해보지 못했다. 주복이가 심술을 부리듯이 드럭드럭 화만 냈기때문이였다.

《피란은 무슨 피란! 다 죽구맙세다가레.》 하는가 하면 또 피란을 갈바에는 이꼴저꼴 다 안 보게 두메산골로 아주 가자고 하기도 했다. 이때의 주복이는 저로서도 제 맘의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것이다. 세상에 더없이 귀하고 아껴온 무엇이 깨진것만 같았다.

왜군이 성안에 들어온다면 바로 그 문밖인 이 집에서는 물론 살수 없을것이고― 그렇다고 이미 농사를 지어놓은 보통벌의 농터를 버리고 멀리 떠나가서는 더욱 못살것이고― 그러니까 보통벌건너 어느 산속에다 움막이라도 틀고 배겨있으면서 지어온 농사를 거두도록 해보자는 늙은 부모의 말이 마치 《비록 깨졌더라도 파기상종으로 살림을 아주 버릴수는 없다.》고 하는 말이라면 주복이의 말은 《깨진바에는 마자 부시고말자.》는것 같기도 했다. 너무 소중히 여겨온것이기때문이였다.

그뿐아니라 목전에 송두리채 쓸어나오는 성안사람들을 보면 알뜰한 살림이 깨진것은 자기네만도 아니였다. 아니, 그렇다기만 보다도 평양이라는 한 성을 통채로 기울여 쏟아버리듯 하는 이통에는 안 깨질것이 없다고도 생각되였다. 이런 처지에 안 깨질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깨지기도 한 그릇을 소중히 들고 돌아간다는것은 우습강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웃을수는 더우기 없었다. 더욱더 화만 났다.

집안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와 안해가 세간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노라기에 분주했다. 그러나 저만은 그런 일이 손에 안 걸려서 밖으로 나가 칠성문쪽으로 쓸어나오는 피란민들을 구경이라도 하듯이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기도 하던 주복이는 어떤 사람이 지고 오던 짐바가 끊어져서 저의

마당귀에 짐짝을 내려놓고 난처해하는것을 보자 집으로 달려들어가서 헛간기둥에 걸어두었던 새 자락바를 내다가 던져주었다. 그러자 또 큰 보따리를 이고 어린것의 손목을 잡고 나오던 한 녀인이 더는 못 걷겠다고 우는 모양인 어린것을 띠개도 없이 맨손으로 업는것을 보고는 바자길에 바래널었던 무명필을 걷어서 내버리듯이 던져주었다. 뜻밖에 저희앞에 떨어지는 바와 무명필을 집어든 그들이 웬 영문인지를 몰라서 쳐다볼 때 주복이는 오히려 화를 냈다.

《어서들 지구 업구 가라구요.》

주복이는 실로 어서 보기 싫다는듯이 버럭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다. 아닌게 아니라 이때의 주복이의 눈에는 피발이 선듯도 했다. 바로 이런 때에 찾아온 법근이가 한번 《큰 날파람》을 해보자는것이였다. 주복이는 그런 일이라도 하면 답답한 제 속이 좀 풀릴것도 같았다. 늙은 어머니, 아버지가 붙드는것이 성가신 그는 없어도 된다고 했던 도끼까지도 집어들고 나섰다. 그러나 몇걸음 안 가서 《아버지두 소가지구 가서 쌀섬이나 실어오두룩 하시소.》 하며 도끼는 마당에 내던지고 칠성문으로 들어갔던것이다.

사창고앞으로 지나가던 피란민들은 황황한중에도 잠시 걸음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육중한 관창문 쇠빗장고리에 채워놓은 강아지만 한 수쇠자물쇠를 매돌 같은 돌로 내려치는 소리가 우선 요란스러웠다. 처음에는 모두 《란민》, 《폭도》들의 《략탈》이라는 생각에 겁들을 먹었다. 그러나 하나는 농사군씨름군인 전주복이고 하나는 돌중이지만 그 역시 잘 아는 법근이라는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안심하고 가까이 가서 구경까지 하게 되였다. 일전에 행궁앞에서 검으로 창대를 잘라서 사람들을 웃긴 법근이와 량반 하나를 공중배지기를 들어서 평양사람들로 하여금 쾌재를 부르게 했던 전주복이는 더 유명해지기도 했으려니와 《쇠주머구》와 《승검술》은 사람들이 마치 큰 장난꾸러기아이들이나 같이 귀엽게 부르는 이름들이기도 했다. 그러한 전주복이와 법근이가 사창고의 문을 깨뜨리는것은 결코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사람들은 용이히 믿을수 있었다.

한번 만인의 의사와 의분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이 두 젊은이는 평양사람들에게는 이미 공인으로 인정되였던것이다.

《낮에는 그 늙은 대사가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뜯었는데…》
이번에는 늙은 봉군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옳지! 그전에 또 우스운 일이 하나 있었군. 머사니인가 하는 사람네 집에 쌀을 가져가지 않았겠나. 헛간두 없어서 우선 뜰안에다 몇십석 쌀을 쌓았는데 처음에는 그 집 댁네가 울더라네. 그 다음에는 어른아이 할것없이 인간수대루 나와서 하루종일 쌀섬을 타구 올라가 앉아있네그려. 다섯씩이나 올망졸망한것들을 데리구 쌀섬에 올라앉아있는 그 댁네는 말할것두 없구, 병아리새끼들같이 쌀알을 후벼내서 먹어두 보구 캐득거리구 하는 어린것들까지두 얼마나 대견하면 저럴가! 해서 보구들 있는데 떡돌에 앉아서 조는듯 하던 그 대사가 그 모양을 보구는 합장하구 머리를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겠나! 그러지 않아두 맘들이 다 예려진 판인데 나부터두 덩달아 눈물이 난단 말이야. 나뿐인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울었지. 그 늙은 중이 그렇게 사람을 울리거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그 대사가 지금 어데 있습디까?》
《그두 또 웃을만 한 일이야. 머사니댁네가 하두 고마와서 저의 건넌방을 치울테니 다문 얼마라두 와있어서 신셀 갚게 해달라구 간청을 하는데두 고집불통하구 종시 빈집으로 갔다구 사람들이 웃데.》
《왜요?》
《아마 과부네 집이 돼서 그런게라구.》
《그런지두 모르지요.》
《그렇게 사람이 꼬장꼬장해서야…》
《꼬장꼬장해서 안된거 있소?》
《아니, 내 말은 그 대사가 말일세. 이렇게 띄워놓구 생각하면 이 란시에 한 인물같기두 한데ㅡ 마주앉아보면 사람이 너무 맑지구 담해보이기만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거느릴것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지.》
《너무 점잖아서 말이요?》
《그렇지, 말하자면…》
《그 대사가 하더라는 점잖은 말 하나 더 들어보실라우? 할수만 있으면 이 군량을 다 날라내서 성안에 들어온 왜놈들이 보돌을 핥게 했으면 좋겠다구 했답디다.》
《그 대사가? 누가 그러던가?》
《머사니네 집으루 쌀지구 갔던 중들이 성안사람들이 다 쌀을 져내기

시작했다구 말했더니 그러더랍니다.》
《그러다보니 그 로승이 손자의 병법두 아는 모양일세그려.》
《그런 병법에는 왜놈 보돌핥이는 법두 있소?》
《그런건 없지만— 지장은 무식어적식이라— 남의 나라루 쳐들어간 군사는 저의 나라의 군량을 가져가지 않고 쳐들어간 그곳의 곡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구 했으니 이 편에서는 우리 곡식을 왜적들이 못 먹게 하는것두 병법에 맞는 일이거던.》
《그따위 힘든 문자보다는 왜놈들에게 장독대랑 보돌을 핥이자는 말이 더 낫쉐다.》
《말은 같은 말인데 그건 육담이지.》
《육담이라니, 쌍소리란 말이요?》
주복이는 자못 못마땅한듯이 말했다. 실상 그 말은 주복이 자기의 말이였다. 왜적들이 이제 장독대를 핥게 되리라는 고충경의 말을 본따서 한제 말이지만 자기로서도 재미있게 들리는 그 말에 다 말하자면 권위를 붙이기 위해서 서산대사가 한 말이라고 선전을 하는셈이였다.
주복이와 늙은 봉군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얘야!》하며 주복이 아버지가 가까이 왔다.
《박참봉댁에서 사람이 또 왔구나.》
《누가요? 또 빚 채근합디까?》
물으며 앞을 둘러보던 주복이는 곧 알아볼수 있었다. 로적낟가리밑에 세워둔 저의 황소옆에 전날 빚채근을 왔던 노랑수염이 서있었다.
《저 사람 말이 우리는 시재 없는줄 아니 그저 우리 소루 여기 쌀을 한바리나 두바리쯤 박참봉댁으로 날라다달라구 하누나.》
이런 아버지의 말에 《여기 쌀이라니요?》하고 주복이는 되물었다.
《그리 멀지두 않댄다, 북촌 좀 못미처라는데…》
먼저 이런 말을 내놓은 아버지가 《여기 쌀루 두행부 못하갔으면 한바리라두 좋으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 빚을…》할 때 주복이는 다 들을것도 없다는듯이 아버지의 말을 막았다.
《이 쌀루요? 안돼요.》
《아니, 이 사람아, 안될 일이 뭐란 말인가?》
노랑수염이 직접 나섰다.
《님자가 애초부터 그 빚을 안 갚을 심사라면 몰라두 그렇지 않으문야

좀 좋은가? 이왕 터친 이 쌀루 님자네 소품만 내면 그 빚을 다 벗을수 있는데 안된다는 소린 웬 소린가?》

《누굴 도적놈을 만들지 못해 그러우?》

주복이는 노랑수염을 흘겨보며 이런 말을 했다.

《어째 도적놈이야?》

《그만한 경우두 모르우? 나라쌀 가지구 내 빚 갚으면 내가 도적놈이지 뭐요.》

이런 주복의 말에 《아니, 이 사람이…》하던 노랑수염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온다는듯이 주복이를 흘겨보았다.

《누가 모르는줄 알구 그따위 수작인가?》

그리고 다시 말을 살렸다.

《이 사창을 제손으루 터쳐놓구 주인인척, 젠체하구 나앉아서 뭇놈한테 어서 가져가라, 실어가라 하구 퍼주는 놈은 어떤 놈이야. 누가 모르는줄 아나? 박참봉나으리는 촌에서두 그 소문을 다 듣구서 나를 보낸게야. 그래 이짓은 도적놈의 행사가 아니구 님자가 진 전주님네 빚값으루 한두바리 실어내는것은 도적놈의 행사가 되니 못하겠다?》

마디마디 힘주어서 어성을 높이는 노랑수염의 말에 쌀을 나르러 왔던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주복이와 노랑수염앞으로 모여섰다. 그가운데서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으소.》하는 주복이의 말은 뜻밖에 퍽 부드러웠다.

《그러지 말구 쌀이 소용되거들랑 얼마든지 가져는 가소. 짐바가 없으면 짐바 한감내기 상목두 끊어주갔소. 그래두 내 빚값으루는 한섬두 실어다 못 주갔소. 그 빚을 지금 못 물구 이담에 리의 리새끼, 허케 리자까지 물게 된대두 이 나라 쌀루는 내 빚 못 물갔소.》

《허— 과시 당당한 말이로군!》

옆에 서있던 늙은 봉군 오장이 시꺼먼 벙거지밑의 거슬거슬한 구레나룻을 내려쓸며 듣다가 붉은 상모달린 창대끝으로 한번 땅을 구르며 말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 내 그 말에 반하겠는걸! 과시 주인싼 말일세, 아닌게 아니라!》

《정말 이런 때는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알갔쉐다.》

《그러다보니 지금 우리 하는 일이 그저 제 욕심채기나 하느라는 일이 아니드랬소.》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이제야 알았나?》
모여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나라의 주인? 주인 좋갔다!》
코방귀를 뀌듯 한 노랑수염이 뒤를 다지며 말했다.
《그래 전주님말씀대루 거행을 못하겠다는 말인가? 그러면 님자 도리는 고사하구… 그래두 좋을가? 무사할가?》
이런 말을 하자 주복이가 대척할 사이도 없었다.
《이건 어디서 본때없이— 그래 무사 못하면 어떡할테란 말인가?》
한 젊은이가 당장 드잡이라도 할 기세로 나섰다.
《아까부터 가만히 듣구만 있자니 뭐 이짓이 도적놈의 행사라구? 촌에 피란나가 앉아서 빚준 재세하구 남의 등에 이 쌀을 공짜루 먹어보겠다는 박참봉인가 한 놈은 뭐이가?》
《뭐이긴 뭐야, 그놈이 바루 그놈이지. 장리변으루 생사람 세워놓구 등가죽 벗겨먹는 놈 아닌가.》
《그런 제 주인을 닮아서 남 할 일하는 사람보구 도적놈행사니, 어쩌니 하구 탑삭탑삭 아가리질하는 이놈두 한몽둥이루 때려눕힐 놈 아닌가.》
《여보게, 초면에 하게한다구 나무럼일랑은 말게. 하나 님자 하는 행동을 봐서는 여보게두 과남해. 하나 여보게 해줄테니…》
저마다 죽일놈, 살릴 놈하고 노랑수염을 몰아세우는 젊은이들중에 한 늙은이가 나서서 허두를 이렇게 내놓고 《리로울거 없으니 어서 잃어지게.》 하고 타이르는 투로 말했다. 주먹이 가까운 판이라 겁을 집어먹었던 노랑수염은 그 늙은이의 말이 반가왔던지 두말않고 돌아서서 창앞쪽으로 사라졌다. 그자의 등뒤에 던지는듯 한 사람들의 웃음이 터졌다.
《자, 또 어서들 한섬씩이라두 더 져내지.》
누가 이렇게 하는 말에 사람들은 다시 사창고로 들어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욱 많았다. 밝은 달빛아래 련락부절 들고나는 사람들이 사창고안팎에서 웅성거릴 때 문득 모란봉쪽에서 요란한 조총소리가 두세방 울려왔다. 창안에서 쌀섬을 내오던 사람, 막 지고 떠나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며 주춤했다. 이 사창앞에서만이 아니라 속속들이 빈듯 하던 이 골목, 저 골목에서도 부산한 신발소리와 함께 세간들을 꾸려서 지고 든 사람들이 뛰여나왔다.
《덤비지들 말구 잠간만 기다리소.》

이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웨친 주복이는 또 무슨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듯이 귀를 기울이는 모양이였다. 잠시후였다. 모두 긴장한중에 사창고지붕너머로 새가 날듯이 푸드득 소리를 내며 날아온 화살 한대가 로적낟가리 벼섬에 내려꽂혔다. 주복이가 올라가서 뽑은 화살에는 흰 헝겊오리가 매여있었다. 장경문쪽에서 고충경이가 날려보낸 화살의 흰 헝겊은 왜놈들이 아직도 성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표식이였다. 이때 고충경이와 법근이는 몇몇 젊은 사람과 중들을 데리고 을밀대로부터 암문 장경문쪽에서 왜놈들의 동정을 살피며 서로 련락하고있는중이였다.

사람들은 다시 일을 계속했다. 일본군이 성안으로 들어오는 날 아침까지도 이 일은 계속되였다. 그러면서도 이때의 우리 사람들은 종당은 왜적의 손으로 넘어갈 이 량곡을 불살라버릴 생의는 못했다. 서산대사를 비롯하여 고충경이, 전주복이, 법근이랑도 할수만 있으면 우리 량곡을 적에게 안 주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으면서도 불을 지른다든가 하는 비상수단은 엄두도 못 냈던것이다. 그러나 그 일부분을 빼낸것만으로도 적에게 그만한 타격을 주었다고 할것이였다.

혹시 이때 조정에서 평양백성들이 사창고를 터쳤다는것을 알았다면 왕이하 대감령감들은 노발대발했을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조정대관들중에서는 가장 사리에 밝고 현명한 인물이였다고 할수 있는 류성룡이조차도 앞으로 나올 명나라 원병에게 공급할 군량걱정을 할 때마다 《평양성을 도루 찾기만 하면 그안에는 십만석이나 있으니 걱정이 없으련만…》 하여 마치도 그 십만석 군량을 어떤 믿을만 한 친구에게 맡겨두기라도 한듯이 든든히 생각한 모양이였다. (그의 《징비록》에 그같이 씌여있다.)

29. 서산대사의 편지

밤은 깊었다.

먹통만 한 방안에서 몇번째나 심지를 돋구고 기름을 치기도 한 가물거리는 등잔불아래서 로승 서산은 자기 바랑속에 지니고 다니던 조그마한 손벼루에서 먹을 찍어가며 무릎우에 펴놓은 종이에 붓방아를 찧고있었다.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는중이였다.

서산대사는 각처에 많은 법제자와 법손들이 있었다. 금강산 표훈사에 있는 사명대사, 전라도 지리산의 처영대사, 충청도 공주의 령규대사, 경상도 진주의 해안대사, 황해도 구월산의 의엄대사, 이들은 서산의 수다한 제자들중에도 수제자들이였다. 이들 역시 많은 자기네의 제자들을 거느린 대덕(넓고 큰 인덕을 가졌다는 뜻)들이였다. 서산은 지금 그들에게 보낼 편지의 글을 초잡고있었다.

서산대사가 전국 승려들에게 승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격멸하는 전선으로 나서라는 격문을 발표한것은 이 이후의 일이다. 그것은 그가 왕의 부름을 받아 의주에 가서 8도 16종 도총섭(조선팔도 승려군의 총사령)으로 임명된 후에 각 도에 있는 선교종 총섭들에게 승병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린 정식문건이였다. 그 격문이 왕의 허락을 얻어서 발표한 공문서였다면 지금 초하는 편지는 한낱 그의 사신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그 길지 않은 한장의 편지를 초잡는데 서산은 벌써 몇장째나 종이를 갈았다. 썼다가는 다시 쓰고 하면서 밤깊도록 붓방아를 찧는중이였다. 그만치 그는 고심해야 했던것이다.

우선 그는 지난 열하루날 자기가 평양으로 나온이래 3～4일동안에 지낸 사실들을 간단히 서술했다. 다음에 그는 행여 자기를 도와줄 승려들이 나서준다면 (그는 여기서 자기가 너무 늙었다는것을 자탄했다.) 지금 형편으로는 황폐되고말 념려가 십분 있는 보통벌의 농사를 계속할 심산이라고 썼다.

어제 밤, 영명사앞에서 들었던 이 동네의 농군 머사니의 말소리를 다시금 귀가에 느끼면서 여기까지 쓴 그는 더 붓이 안 나가는 모양으로 붓을 든 손을 무릎우에 얹고 앉아서 눈을 감았다.

지금 그가 들어있는 먹통만 한 방 문밖에서는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린다. 이 집 안채의 큰방은 물론 안뜰과 바깥마당에서까지도 한지잠을 자는 피란민들이 많았다. 장정들은 성내로 쌀을 나르러 가고 지금 이 마을에서 자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로약자들뿐이였다. 바로 토지방밑에서는 꿈속에서도 울분하게 부르짖거나 탄식하는 늙은이들의 잠꼬대가 들리기도 하고 혹은 달라붙는 모기떼에 시달리면서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파고드는 어린것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서산은 자기가 생각해온바를 그대로 밝힐수 있는 문구를 생각하며 또 붓을 세웠다. 그러나 이 한날 중의 사신이 그 먼데까지 무사히 가게나 될는지? 하는 의구로써 그의 붓은 다시금 떠듬었다.

이 잡약산에서 지리산이나 진주까지는 퍽 멀다멀뿐아니라 미상불 왜적의 전선을 여러번 돌파해서야 갈수 있는 길이다. 아무리 산길을 평지로 알고 살아온 중들이라도 힘든 길이 아닐수 없다. 도중에서 놈들에게 붙들릴 념려도 없지 않다. 그뿐아니라 잘못되면 우리 편의 관료들에게 붙들리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서산은 다시 붓을 누이고 앉았다가 문밖에 세워두었던 지팽이를 더듬어들고 나섰다.

뜰에 내려선 서산은 가로세로 누워있는 사람들사이를 아로새기듯이 골라짚으며 지팽이를 앞세우고 마당으로 나갔다.

달이 휘영청 밝았다. 달빛아래 잠들어있는 로약자들중에는 낯이 익은 장난꾸러기들의 얼굴들을 알아볼수도 있었다. 지팽이를 멈추고 이윽히 굽어보는 어린 장난꾸러기들은 서산이 오늘 이 잡약산근처의 지형을 살필겸 단방초약으로 쓸수 있는 풀잎을 뜯거나 뿌리를 캐기도 하면서 두루 뒤산을 다니던중에 사귀게 된 아이들이였다.

칠성이와 작은칠성이랑 이 동네애들과 함께 로승을 따라다니던 그애들에게는 그 로승이 수염대신으로 기른듯 한 흰 눈섭만으로도 한 구경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그뿐아니라 저희 어른들이 말하는 그 로승의 이야기를 들었던 애들은 시끄럽지 않게 따라다니면서 로승이 하는양을 보아가며 저희들이 뜯은 풀을 쓸것이냐 못 쓸것이냐 묻기도 했다.

한번은 서산이 그애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산에는 좋은 약초가 많구나. 참 좋은 산이다.》

별뜻이 없이 이런 말을 했던 서산은 오히려 놀랐다. 어른들로서는 그 까닭을 알수 없을만치 애들은 기뻐했다. 《오만!》, 《할우반!》을 부르며

동네로 달려간 애들은 《우리 산이 좋은 산이래!》하며 호미와 다래끼들을 가지고 로승을 따라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 서산으로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다. 누가 그애들에게 일러주었던가. 애들은 약초를 캐던 숲속에서 혹시 도마뱀을 만나면 그 독없는 도마뱀은 우리 조선뱀이라고 하면서 길을 비켜주고 독사나 늘메기 같은 독이 있고 징그러운 뱀을 만나면 《왜놈의 뱀》이라고 하면서 기어이 때려죽이고야마는것이였다. 물론 어린애들의 생각이고 말이다. 그러나 이 어린애들까지도 왜적을 독사같이 미워하고 때려죽이고저 하는것이다.

이 얼마나 귀엽고 소명한 장난꾸러기들이냐! 하며 혼자 웃기도 한 서산 로승은 나는 이런 락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는 감회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이 조국땅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그런 락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것이다. 그뿐아니라 영원히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애들이 장난에 취해서 노는것을 보면 지금이 란시가 아니였다. 또 지금 장난에 지친 이것들이 한지에서나마 숨소리 고르롭게 잠든것을 보면 역시 란시같지 않다. 이 어린것들의 고르로운 숨소리가 조국의 호흡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은가! 잠결에도 그애들의 이불을 당겨 덮어주는 어머니들의 손길이 바로 조국의 손길이 아니겠는가! 어린 자손들을 앞에 놓고 함함락락히 웃는 늙은이들의 웃음이 조국의 자애가 아니겠는가! 어린것들에게 빨리는 녀인들의 젖줄기가 조국의 생명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거늘 저 왜적아수라들은 우리 조국의 성시와 촌락을 략탈방화하고 자애로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죽이고 젖줄로써 자기 생명을 어린것들에게 이어주는 어머니들을 릉욕하고 그 어머니들의 품속에서 어린것들을 빼앗아 창날에 꿰여 불속에 던진다. 지금 우리 조국은 피를 흘리고 통곡하는것이다.

참을수 있으랴. 차마 보고만 있으랴. 어찌 통곡만 하고있으랴. 우리 조국강산을 피로 물들이는 왜적아수라들을 쳐물리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도 아수라가 되기를 사양치 않을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왜적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보복해야 할것이다. 왜적아수라들로 하여금 우리의 피를 더는 흘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 조국땅에서 물러서지 않을수 없도록 징치하는데는 그러한 보복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창과 칼을 들고 혹은 낫과 도끼

를 들고 일어서야 할것이다. 산속의 중들까지도 석장(불교에서 중이 짚는 지팽이)을 창과 칼로 벼려들고 나서야 할것이다. 범종(절에 걸어두는 종)까지도 창과 칼이 되여야 할것이다. 저 왜적아수라들을 물리치지 않고는 부처가 앉을 련화대가 남긴들 하며 범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릴것인가.

깊은 밤은 고요했다. 밖은 달빛에 이슬방울이 빛나는 풀잎새 하나 까딱하지 않게 만뢰가 구적(사위가 아주 잠잠하고 조용한것)했다. 그러나 사람을 전률케 하는 폭풍전야의 정적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금수산 모란봉쪽에서 아련하게나마 간간이 들려오는 놈들의 조총소리로써 더욱 그렇다.

자기 처소로 돌아온 서산은 다시 붓을 들었다. 그는 짤막한 한구절을 썼다. 그 내용으로 보나 문장으로 보나 앞에 쓴것과는 맥락이 안 닿을 만치 동뜬 말로써 비약시켰다. 즉 《어진 중생들을 위해서라면 살생도 살생이 아니라 오히려 불보살의 자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끝낸 편지끝에는 또 다음과 같은 시 한수를 적었을뿐이였다.

나라를 사랑하고 사직을 근심함에
산속의 중이라고 다를바있으랴

지금 서산이 초한 사신에 이같이 문맥이 안 닿게 동이 뜬데는 까닭이 있었다.

본시부터 탐관오리들로서 민심을 잃어왔고 또 이번에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저 먼저 도망해서 여지없이 위신이 저락된 수령방백이라는 지방관료들중에는 자기 지방에서 농민들을 불러일으켜 왜적과 싸움으로써 많은 공을 세우고 명성이 높아진 의병장들을 시기하여 역적으로 모함한 례들도 적지 않았다. 그 실례로는 우선 《홍의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곽재우를 들수 있다. 홍의장군 곽재우는 왜적이 부산에 상륙한지 불과 십일이 되는 날인 4월 22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였다. 경상도 의령의 자기 고향에서 심대승이와 함께 농민들을 불러일으켜 싸우기 시작한 그는 자기 고을의 관료들이 버리고 도망한 초계창의 쌀을 터쳐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의병의 군량으로 쓰기도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관료들은 곽재우의 그런 조치를 반역적폭동으로 모함했던것이다.

또 곽재우장군에 뒤이어 충청도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유생 조헌이 역시 그러한 박해를 받았다. 조헌이 의병장으로 나서서 격문을 돌리자

많은 백성들이 따라 일어나고 그의 명성이 높아가는것을 시기한 관료들(이런자들은 더러워서 그 이름들을 여기에 적지 않는다.)은 조헌의 휘하에 집결한 의병들의 부모와 처자들을 잡아가둠으로써 그의 기의를 방해했던것이다.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실을 캐보면 적지 않다. 그러니만치 하물며 당시의 신분제도로서 천민이하의 천민인 중들이 왕의 명령이나 조정의 허락이 없이 자의로써 기의니, 승병이니 하는것을 관료들이 안다면 그것은 시기모함여부가 없이 왜적과 싸우기 위한 기의가 아니라 역적도모를 위한 승병으로 뒤집어 잡혀서 불문곡직하고 처단될 념려도 없지 않았다. 즉 서산의 사신에 기의니, 승병이니 하는 문구가 있어 만일 그것이 관료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자기 제자들은 승병을 일으키기도 전에 큰 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를 일이였다. 지금 쓴 편지에 동이 안 닿는것은 그때문이였다.

다시 등잔심지를 돋군 서산은 초잡은 글로써 여러장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비록 짧은 글이나 읽는 제자들이 자기의 뜻하는바와 결심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념원으로써 힘을 줄 획에는 힘을 주고 날카롭게 뽑을데는 날카롭게 붓을 달렸다. 글로써 다 말할수 없는 자기 의사를 글자의 표정으로써 알리려는 노력이 있었다.

과연 그같이 정중하고도 분방하게 달리는 붓끝에서 흘러나온 자획에는 서산의 기백이 약동했다. 그 편지는 그후에 발표한 격문보다 앞서서 전국에 승병을 일으키게 한 직접적인 동기가 되였다. 자기네 스님의 편지를 받은 서산의 수제자들은 자기 관하의 승려들을 거느리고 왜적아수라들을 소탕하는 전민족적전선으로 나섰던것이였다. 지리산에서 천여명의 승병을 일으킨 처영대사는 권률장군휘하의 관군과 협동작전을 하고 충청도에서 7백～8백명의 승병을 일으킨 령규대사는 앞서 말한 조헌의 농민의병과 함께 싸웠다.

이때 금강산에 있었던 사명대사는 손에 촌철(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나 무기)이 없이 오직 그의 당당한 풍채와 헌헌한 기백으로써 백여명의 왜적을 물리친적이 있었다. 때마침 어느 암자에 가있던 사명은 표훈사가 강점되였다는 소식을 듣자 곧 단신으로 적진중에 들어갔다. 표훈사 법당앞에서 창검을 늘어세우고 중들을 결박해놓고 절의 보물을 내라고 강박하던 백여명의 왜놈들은 살벌한 자기네 진중으로 조금도 서슴없이 완완히 걸어들어오는 한 중의 그 호담한 태도와 당당한 풍모에 우선 기가 눌렸다. 법당

으로 들어가 사명은 불상앞에 엄연히 좌정하고 앉아서 붓을 들어 썼다.

《우리 조선승려들에게는 자기 손으로 뜯어먹는 향기로운 산채와 자기 손으로 움켜마시는 맑은 석간수만이 유일한 보배일뿐 너희 같은 속인들이 탐낼만 한 보물은 없다.》

그리고 그는 또 썼다.

《이 청정법계는 너희 같은 병마의 발로써 더럽힐데가 아니다. 속히 물러가라.》

이러한 사명대사의 기백에 눌리운 놈들은 더 강박하지 못하고 《이 절에는 한 괴걸한 중이 있다.》는 글발을 절문간에 써붙이고 물러가고말았던것이다.

사명대사는 그 얼마후에 서산의 편지를 받았다. 금강산 여러 절의 중들을 모아놓고 서산의 편지를 읽은 사명은 탁자를 치고 한번 통곡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조국의 중생을 위하여 왜적아수라와 싸울 충성심이 있는 승려들은 자기를 따라나서라고 호소했다. 드디여 칠백여명의 건장한 중들을 거느린 사명대사는 평양을 향하여 떠났다. 미처 병장기를 마련할 겨를이 없었던 그들은 몽둥이만을 가지고도 적과 싸우고 적의 전선을 돌파하면서 서산을 찾아 이곳으로 달려왔던것이다. 그것은 물론 이후의 이야기다.

30. 불씨는 살아있다

잡약산동네는 새벽부터 밥짓는 연기에 잠겼다. 한지잠을 잔 피란민들은 끼식을 끓이는것도 역시 저마다 부엌에서 할수 없었다. 혹은 어느 집 토지방밑에서 혹은 마당귀에서 또는 뒤산기슭에서 돌에다 솥을 걸고 식구끼리 모여앉아서 불을 지폈다. 솥가에 둘러앉은 어린것들은 밥을 기다려서보다도 우선 어머니가 만들고있는 불이 그리웠던것이다. 삼복여름이지만 밤이슬을 맞으며 한지잠을 자고난 새벽은 떨릴만치 춥기도 했다. 그러한 어린 자식들앞에서 어머니들은 소중히 간수해온 자루나 짚망태속에서 꺼낸 조그마한 화로에서 조심조심히 재를 헤집고 찾아낸 불씨를 부드러운 짚이나 새로써 만든 불기아리에 싸서 불을 만드는중이였다.

불씨를 불고있던 녀인네중에는 그득해진 눈물이 넘쳐흐르기도 했었다. 타기 시작한 불기아리의 내가 매워서만도 아니였다. 불씨가 살아있어주었다는것이 우선 반가왔던것이다. 지금까지 자기네 부엌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였다. 그렇게 덤비고 붐비고 그야말로 야단법석을 해온중에서도 살아있는 불씨가 반갑고 고맙기까지도 했던것이다.

시집온이래 크건작건 한살림의 주부로서 시할머니,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 간수해온 불씨였다. 설혹 먼 타향으로 떠나가는 경우라도 그 불씨는 소중한 이사짐중의 하나였다. 이때 풍속으로는 혹시 불씨를 떨구고 남의 집으로 불기아리를 들고 불씨를 얻으러 간다는것은 살림하는 녀인으로서는 개차반이라는 시비를 들어도 싼 일이였다. 그보다도 조상적부터 전래해오던 집안의 오랜 전통중의 하나를 제 대에 와서 끊어버린셈으로 크게 죄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라도 여러 대째 내려오는 불씨가 있다는것은 그 집의 지조를 말하는 한 자랑거리기도 했던것이다.

그렇듯 소중한 불씨를 지금까지 오래오래 간수해온 《우리 집》 부엌이 아닌 남의 집 마당귀에서 불고있거니 하면 처량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쨌든 불씨가 살아있다. 희망이 약속되는 길조(좋은 일이 있을 조짐)같기도 했다. 검은 연기속에서 펄떡 불길이 일어났다. 둘러앉았던 어린것들은 처음 보는 신기한 일이나 같이 기뻐한다. 이러한 가지가지의 느낌으로써 눈물이 나기도 했던것이다.

이같이 각각 소중히 간수해온 불은 있었다. 그러나 물이 없었다. 들이밀린 피란민들때문에 불과 십여호에서 먹던 우물은 금시 바닥이 드러났다. 이 잡약산동네만이 아니라 옆의 미력당동네와 뒤의 서재골동네에서도 물가난이 들었다.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의 간고한 생활은 우선 물가난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도 할것이였다. 미리 손을 써서 밤물을 길어두지 못했던 사람들은 보통강까지 가야 했다. 미력당앞에 결갈래 강줄기가 하나 있기는 하나 오랜 가물에 오다가다 조금씩 고인 웅뎅이의 죽은물뿐이였다. 먹을 물을 구하자면 원줄기 보통강까지 가야 했다. 평양성밑까지 다 가지는 않지만 3리가량은 가야 했다.

차돌이 어머니와 같이 보통강물을 길어온 보패는 칠성이네 집 부엌에서 불을 만들고있었다. 오라버니가 하라는대로 차돌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동네로 오게 되였던 보패는 칠성이 어머니가 서산대사를 위해서 치워놓았던 건넌방 한칸을 얻어서 몇몇 녀인들과 같이 들어있었다. 저의 조상이

개성에서 이사해올 때 가져왔다는 불씨로 불을 만들어서 아궁이에 지폈던 보패는 불덩이를 골라서 다시 불씨화로에 담고 부뚜막에 가려놓았던 옛날 돈 열잎을 마치 밤이라도 굽듯이 불덩이속에 집어넣었다. 해동통보니, 삼한통보니 하는 글자들을 새긴 고려시대의 엽전은 보패가 제 주머니끈에 달았던것과 늙은이들의 주머니귀를 털어서 모은것이였다. 그 고전으로 눈에 쓸 약을 만드는중이였다. 여름철이라 눈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중에도 칠성이 어머니는 본시 여름이면 앓던 눈인데다 며칠째는 눈물로 지내온만치 더욱 심했다. 그들을 본 서산이 보패에게 초약방문을 가르쳐주었다. 불속의 엽전들이 빨갛게 달았을 때 차돌이 어머니가 애기어머니들의 젖을 얻어가지고 왔다.

《그새만 해두 잘 먹지두 못하구 고생들을 해서 저마다 젖이 다 발라서…》하는 차돌이 어머니는 여러 애기어머니들이 돌림몫으로 짜주더라고 하면서 한숨을 지었다. 젖보시기를 받아든 보패는 저의 형님이 해산했을 때마다 이웃집 애기어머니들의 젖을 얻어다가 갓난 조카의 입에 떠넣어주던 생각이 났다. 어드러면 젖빛갈다고— 또 어드러면 젖줄이 헤운다고도 하는 젖에다 빨갛게 단 엽전을 집어넣기가 안되기도 했다. 재를 불어가며 한잎씩 집어넣는 보시기의 젖은 마침내 끓었다. 조반후에는 눈앓는 사람들이 모여왔다. 눈뿐아니라 그새만 해도 앓는 어린것들이 많아졌다. 어머니들은 손쉬운 초약방문을 물으러 서산대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서산은 바자밖으로 내다보이는 마당귀 도랑기슭에 얼마든지 있는 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어제 아이들과 같이 뒤산에서 뜯어다가 담모퉁이에 걸어두었던 약초를 내주기도 했다. 서산이 가르쳐주는 약방문은 모두 손쉽게 할수 있는 단순한것들이였다. 이때 글하는 선비치고 항용 돌아가는 약방문 한장 못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서산은 그중에도 민간약처방과 같은 단순소박하면서도 벼락같이 맞는 단방약들에 정통했다.

조반이 끝나고 불씨를 다시 간수한 가족들중에는 이 마을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중에는 서산을 따르던 어린것을 데리고 와서 작별인사를 하는이들도 있었다. 혹은 사창고의 쌀을 마치 서산이 준것이나 같이 치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이제 가족들을 피란시킨 후에는 저만은 다시 서산을 찾아오겠다는 사람도 많았다.

정작 작별하게 된 어린것들을 보는 때의 로승의 태도는 퍽 랭담한듯도 했다.

《이놈아, 스님한테 저는 갑니다 하구 인살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짧은 머리채가 달린 어린 놈의 머리를 눌러서 인사를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서산은 마치 끊임없는 영겁의 륜회에 리별이라는것이 따로 있긴들 하랴 하는듯 《오냐.》 소리도 하지 않았다.

《혹시 칼 같은데 상했을 때에는 말씀이올시다…》

서산은 묻지도 않는 단방약을 어른들에게 말해줄뿐이였다. 언제 어데서 적의 창칼에 상하게 되는 일이 있을는지도 모르기때문이였다.

이 부근마을들에서 평양성안으로 드나들던 사람들은 이날 낮이 기울자부터 다 돌아왔다. 고충경이이하 성안에서 묵고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곧 돌아가게 될터이므로 저녁밥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을밀대와 암문에서 건너다보이는 모란봉 금수산일대에서 지금까지 되는대로 흩어져있던 왜적들은 대렬을 정돈할뿐아니라 성안에 대고 맹렬한 조총사격을 시작했다. 이제는 평양성으로 들어올 기세를 보이는것이였다.

보통벌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끊어졌다. 그대신 이쪽 보통벌 주변산기슭에 널려있는 부락들에서 뒤산을 넘거나 골짜기로 빠져서 서북쪽으로 흩어져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이제 평양성으로 들어간 왜놈들은 반드시 이 근처의 부락들을 습격하고 략탈할것이기때문이였다. 벌써 놈들이 대동강을 건너서는 길로 모란봉 금수산기슭의 작은 촌락들을 불지르고 가축을 빼앗고 우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전해왔다. 그곳 부락들은 물론 십리벌을 사이에 둔 이 부근의 마을들도 사람들이 다 떠나서 완전히 비게 된 동네가 많았다. 이 잡약산동네에서도 피란민들이 많이 떠났다. 로약자들이 더 많이 줄었다.

저녁때부터 보통문, 칠성문의 루각들과 그 좌우의 성첩들에 드문드문 늘어서게 된 만장같은 왜적의 기발이 빈 십리벌을 불어오고 불어가는 석양바람결에 펄럭이기 시작하면서 임진년 6월 15일은 저물어갔다.

우리 조국강토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멸종시키고 내지는 대륙에까지도 그 독수를 뻗쳐보려는 야망으로써 불의의 군대를 일으켜 우리 강토를 피로 적시면서 이곳까지 진격해온 사무라이 일본침략군이— 그중에도 특히 이 길을 자원해서 택해왔던 소서행장수하의 일본군이 평양성을 점령함으로써 십상팔구 조선정복은 완전히 끝내고 또 뒤이어 명나라로 쳐들어가게 되리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원훈수공(나라를 위한 가장 큰 공훈)을 세우게 되리라는 큰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왔던 그들이 벼르고별렀던

평양성을 무혈점령하게 된것을 기뻐했던가? 혹은 락담했던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31. 황서방의 함지이야기

보름달이 높이 솟았다. 마을은 고요했다. 련일 밤을 새운 고충경, 전주복, 김첨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자는중이였다. 서산은 사람들의 말소리를 따라 마을앞 버드나무밑으로 찾아갔다.

《대사가 서산대사라는이요? 좀 앉으시우. 늙은이가 수굴 합네다.》

떡돌이라기보다도 넓은 판석이라고 할만치 큰 돌우에 세넷이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고있던 사람중의 한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다.

《대사, 우리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소? 우리두 성안에서 쌀을 나르다가 저 친구가 어느 빈집엘 들어갔더니 이런 술방구리가 있더라구 가져왔길래 한잔씩 마시드랬소. … 자, 이 사람아, 자네가 술을 지구 온바에는 저기 남새밭에 가서 마늘두 몇밑 뽑아오게나. 그랬다구 누가 도적질했다겠나.》

그 젊은이는 돌우의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모두 땀이 밴 고의적삼에 망건도 안 쓴 머리의 뒤자부니가 어지러운 사람들이였다.

《그래봅세, 하던 이야기는 나 온담에 마저 하게.》

한사람이 동구앞 수수밭 못미처있는 바자둘러친 남새밭으로 갔다.

《대사두 좀 앉으시우. 지금 우리는 저 달이 함지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랬소.》

그 젊은이는 자리를 비켜서 자기네앞에 지팽이에 의지하고 서있는 로승에게 앉기를 권했다. 서산은 내주는 자리 한기슭에 걸터앉았다.

《우리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는가 해서… 그러지 않아두 우린 대사한테 물으러 갈래댔소. 자, 우선 한잔 드시우. 강술이라두 한잔씩 하면서 우리 이야기 좀 합세다.》

젊은이가 술보시기를 내미는데 서산은 좀 당황한듯이 말했다.

《소승은 차차 먹겠습니다. 그리구 우선 말씀이나 듣겠습니다.》

《그럼 내 저 달이 함지같다는 이야길 하리다.》

들었던 보시기를 들이킨 젊은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륙로문밖 선창에서 양덕, 맹산서 건목쳐오는 함지를 깎아먹구 살던 사람이요. 또 여기는 양덕, 맹산서 배루 내려오는 동나무랑 장작을 되받아지구 성안으로 다니던 나무장사군두 있소. 또 저 친구는(마늘을 뽑아가지고 오는 사람) 대동강물을 길어서 먹구살던 물지게장사요. 그런데 나는 이 란리통에 함지부자가 됐더랬소. 어떻게 함지부자가 됐던고하니 함지장사 주인령감이 피란갈 때 저희 땅이 있는 촌에서 소랑, 작인들을 불러다가 와랑와랑 세간을 실어내는데 다른건 말할것두 없구 상목만 해두 동으로 실어내면서 나더러는 그 함지를 다 맡으라는거요. 십여년이나 부려먹은 나한테—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게 헤지는 판이라구 마지막으루 선심을 쓴다는거요. 인정이 그럴듯두 하지 않소? 정말 함지가 많기두 많았소. 선창뚝에 산더미같이 가려놨소. 아마 남들이 봤으면 부러웠을거요. 그래서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구 나두 좋은 낯하구 준다니 고맙다구 했소. 예, 알갔소? 그 많은 함질 다 받아놨으니! 그런데 말이요, 여기 누구 엊그제부터 성안엘 북나들듯 하면서두 그 건목친 함지를 하나라두 가져온 사람이 있소? 있으면 내 이제라두 가서 고맙다구 절하겠소. 아니, 내가 취해서 하는 말 아니요. 정말이요. 알갔소? 좌우간 그 많은 함질 다 받아놨으니 야단나지 않았소. 한편에서는 사창고가 터져서 와랑와랑 쌀을 져내지, 또 왜놈들이 장독댈 핥으라구 온 성안에 간장탕수를 내는 판인데, 그런데 떡 내해라구 이름지어놓은 함지가 산더미같이 있으니 속이 답답할노릇 아니요. 그냥 둬두면 왜놈들이 하다못해 때려서 불이라두 때기 좋을거란 말이요. 그건 나두 싫거든요. 그래서 불을 콱 지를가 했어두 그건 또 안될 일같구… 왜놈들이 보돌을 핥두룩 했으면 좋겠다구들은 하면서도 로적낟가리에다 불은 안 지르지 않소. 그래 나두 불은 못 지르구 생각하다 못해 강에다 처넣기루 했소. 한겻 품이나마 걸렸소. 그런데 내 십년나마나 함지를 다루어온 놈인데두 그때처럼 함지가 고운건 첨 봤소. 내 죽두룩 안 잊힐것 같아서 이런 말을 다 합네다. 자꾸자꾸 강물에다 처넣는데 그놈의 함지들이 가라앉지두 않구 큰것은 둥둥 뜨구 작은 놈은 동동 뜨구…

제기랄 놈의거! 가라앉지두 않구 자꾸자꾸 멀리루 떠내려가둑새 건목친 그놈의 함지들이 더 하야니 련꽃송이같단 말이요. 알갔소? 내 나 많지 않구두 별놈의 꼴 다 보지 않소. 글쎄 어드러니 그놈의 함지가 련꽃송

이같아서 남을 울린단 말이요, 예? 나 주정으루 하는 말 아니웨다. 정말 눈물이 났소. 어처구니가 없지 않소. 그래, 그놈의 함지가 허리 잘록한 내 녀편네란 말이요? 눈깔 새까만 자식새끼란 말이요? 나는 리별할 처자식두 부모두 없소. 집두 없소. 오구칼이랑 함지깎던 잡은것두 내해가 아니댔소. 그건 다 주인두상태기가 가지구 저 갈데루 갔소. … 나는 지금 그것부터 대사한테 의논해보구싶소. 왜 눈물이 났나? 지금두 눈물이 나지만 모르갔단 말이요. 그저 분하기만 하단 말이요. 이렇게 성안에서 쫓겨나온것이 분하단 말이요. 그렇다구 평양을 통채루 떠지구 올 재간이 있긴들 하우. 어떡허면 좋단 말이요, 예? 대동강물을 한지게 져온다구 씨원하갔소? 그 잘난 장작을 져오란 말이요? 나는 함질 다 대동강에 띄워버렸소. 성안에 두고 온건 아무것두 없소. 그래두 분하단 말이요. … 자, 이번엔 한잔 드시우. 이렇게 쫓겨나서 쳐다보는 저 달두 대동강에서 남을 울리던 함지같단 말이요. 제기랄 놈의거, 이 무슨 꼴이란 말이요.》

이렇게 말을 맺은 그 젊은이는 손등으로 비분한 눈물을 씻으며 서산에게 보시기를 돌렸다.

《성씨가 뉘시오니까?》

서산은 보시기를 받으면서 나직한 말로 그 젊은이에게 물었다.

《내 성 말이요? 함지박이나 깎아먹는 나 같은 상놈한테 성씨는 다 뭐요. 천한 성이 황가요.》

《황씨?》

그의 성을 마음에 새기려는듯이 한번 뇌인 서산은 보시기를 옆의 사람에게 돌리며 말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오. 저 평양성을 잃게 된것을 그토록 분해하고 애석해하시는이가 바로 저 평양성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 그 얼마나 귀한이오니까. 저 평양성을 도루 찾고 이 나라를 도적질하러 온 왜적아수라들을 쫓아 물리칠이도 그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대사…》

황서방은 문득 목이 메는듯 말을 끊고 돌아오는 보시기를 기다려서 한모금 기울이고나서 말을 이었다.

《너무 과남한 말씀이요. 지나친 말씀이요. 평생 가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요. 누구레 우리 같은 상놈한테 그런 말을 하긴들 했소. 그래서

더 역겨울만치 반갑구 기쁘기두 한 말씀이웨다. 그런데 대사! 대관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를 할수 있갔소? 우리 그 말씀 좀 들읍세다.》

《한평생을 산중에서 늙어온 중이 무어 아는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소승도 이런 국난을 당락해서는 그저 산속에만 들어앉아있을수 없다는 정성뿐이올시다. 앞으로 할 일은 여러분 같으신이들과 널리 의논을 해야 할것이올시다.》

잠시 말을 끊은 로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혼자 몇번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또 말했다.

《지금 말씀중에 성안의 곡식을 왜 그냥 두었느냐고 하신 말씀은 다시금 생각한즉 참으로 찔리는 말씀이올시다. 그런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것이올시다. 어리석은 생각에는 단지 우리 사람들의 땀으로 맺힌 곡식이 귀하고 아깝기만 했소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한끝으로는 불을 지른다든가 하면 우리 사람들의 몸김이 식지도 않은 성내의 집들까지도 타지 않을가ㅡ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소이다. 차마 못한다는 불인지심때문이올시다. 그러나…》

서산은 돌아오는 술보시기를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모금 입에 차게 마셨다. 그리고는 또 말을 이었다.

《이왕 지난 일이옵고ㅡ 모르기는 하오나 앞으로 그런 화공법을 써야 할 때도 미상불 있을것이올시다. 여기 같이 계셔주신다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께 상의하게 될것이올시다.》

《대사의 말씀대로 우리 평양을 도루 찾을 일이라면야 무엇인들 못하겠소.》

젊은 황서방은 이렇게 말했다. (이들의 말은 후일에 그대로 한 언약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떡돌우의 이야기는 밤깊도록 계속되였다. 돌아오는 보시기를 조금씩이나마 사양치 않고 받은 서산은 칠십평생에 처음일는지도 모르게 큰 웃음을 웃기도 했다.

32. 마을사람들의 모임

이튿날 아침이였다. 서산은 이 동네 로농 김첨지에게 부탁하고 또 법근이를 시켜서 이 잡약산마을을 중심으로 부근의 부락들에 아직도 남아있는 농민들과 피란민들중의 장정들을 청하기로 했다. 안뜰에는 멍석들을 련폭해 깔았다.

먼저 온 고충경이를 합장하고 맞아들인 서산은 깔아놓은 멍석 한끝에 자리를 정하자 전날 밤에 써놓았던 편지중의 한장을 그의 앞에 내놓았다. 고충경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서산은 옆에 서있는 법근이에게 물었다.

《너와 같이 산에서 검이나 활을 가지고 놀던 사미(젊은 중)들은 몇이나 되느냐?》 하고 또 《어느 절의 누구누군지 일러보아라.》 하였다.

법근이는 미리 외워두었던듯이 자기 동무중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서산은 앞에 놓인 손벼루에 이미 갈아두었던 먹을 찍어가며 받아쓰고있었다.

서산의 편지를 다 읽은 고충경은 인사가 아닌듯 하지만 뒤집어보았다. 한가운데 꺾인 자국이 있고 좌우가장자리에 구멍들이 난 그 종이는 아닌게 아니라 판각한 불경책의 한장이였다. 필시 그것은 대사가 항상 바랑속에 지니고 다니던 책일것이다. 서산앞에는 새 종이에 쓴것도 한두장 있었다. 종이가 그뿐이던 모양이다.

《제한테 종이가 있었는걸요.》

이런 말을 하고싶기도 했던 고충경은 다음순간 자기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를 의식했다. 《혹은 이런 불경책장이 새 종이보다도 더 글의 내용을 살릴는지 모른다.》는 생각— 무척 간결하면서도 서산대사를 잘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지금 어떤 일을 꾀하고있다는것을 력력히 짐작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충동을 받을만 한 글이고 글씨였다. 하물며 또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은 불경책이라면 부처앞에서나 마찬가지로 합장배례하고 대하는 중들이다. 서산은 그런것까지도 료량해가지고 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또 지금 자기를 불러다놓고 이 편지를 보이는 한편 법근에게 중검객, 중궁수들을 (어느 정도의 검객, 궁수들인지는 모르나) 묻는것은 간접으로

이 고충경의 의향까지도 알아보자는 심산이 아닐가?

《로회한 늙은이!》

고충경의 미소는 이러한 뜻이였다.

《지금 로장께서는 옛날 고려의 승병장 성근의 뒤를 따르실 의사인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군사)은 궤도(불도에 어긋난다는 뜻)라고 했은즉 일평생을 산중에서 고고히 처신해온 대사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고충경은 한번 이렇게 로승에게 도전해보고싶은 충동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또 자기 입가에 미소를 느꼈다. 이번에는 그 미소끝에 입속으로 가만히 혀를 차기도 했다. 그러한것은 말로써 사람을 저울질해가며 흥정을 하는 장사치들의 때라고 생각된때문이였다.

고충경은 한번 옷깃을 여몄다. 나는 이미 이 로승의 사람으로 나 혼자서나마 허락하지 않았던가. 그는 이런 생각을 한것이였다. 서산을 전부터 잘 알아서 그런것은 아니다. 전부터 그 이름은 익혀들어왔고 또 간혹 묘향산에 갔을 때 먼발치로 본적도 있었지만 인사하고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지금까지의 서산대사는 일반백성들에게는 한날 깊은 산속에 들어앉은 혹은 그 머리에는 돌이끼가 돋았을지도 모르는 한 늙은 도승의 이름일따름이였다. 그러던 서산이 지금은 백성들앞에 퍽 가까이 나선 사람으로 되였다. 아직 그 범위는 넓지 않으나 지금의 이 평양주변에는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민심이 모이는 인화(인심이 합하여진다는 뜻)라고도 할수 있는 기운이 엉기기도 하는중이였다.

고충경이가 스스로 서산의 사람으로 자처하기까지는 자기 내심의 갈등이라고도 할수 있는 약간한 주저가 없지도 않았다.

사창고의 쌀이 터지고 성안에 간장탕수가 났다는 소문과 아울러 전파되는 서산대사의 이름을 들었을 때 고충경은 우선 놀랐고 또 한편 자기의 미소를 느끼기도 했던것이다.

《그 로승이 과연 일을 시작하는구나!》

《과연 그 주책이 크다!》

고충경은 우선 이같이 놀랍게 생각했다. 실은 이때 고충경은 룡강고을로 김응서를 찾아갈 예정이였다. 일전에 자기 처남한테서 고산진 첨절제사로 있던 김응서가 얼마전에 부친상을 당해서 자기 집에 와있다는 소식을 들

었던것이였다. 곧 떠나려고 하던즘에 서산의 소문을 듣게 된 고충경은 어쩐지 발등을 밟힌듯 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 새까만 나비수염밑의 미소는 그때문이였다. 사창의 쌀을 터치고 간장탕수를 낸 그 로승의 거조는 종당은 승병을 일으키는데까지 진전할것이라고 짐작이 되기때문이였다.

먼저 시작한것이 누구이든 이 나라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작한것이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작했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일이다.

고충경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석연치가 못했다. 일왈 속인이 승병막하에 들어간다는것부터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쾌한 일은 더우기 아니였다. 승병도 군사다. 그 막하에 들어간다면 중들의 절제를 받아야 할것이다. 그것은 더욱 쾌한 일이 못된다. 역시 지금이라도 김응서를 찾아가고싶었다. 아직은 의사뿐이였지만 지금까지 생각해온 자기 계획을 버리고싶지도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놈들이 언제 들어올는지 모르는 성안으로 드나들며 사창고의 쌀을 나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부터 해야 할것이였다. 그래서 룡강으로 데리고 가려던 보패를 차돌이 어머니를 따라 잡약산마을로 보내고 자기는 차돌이와 함께 성안으로 들어왔던것이다.

《이 사미들은 법근이와 같이 칼과 활을 익혀온 젊은 중들이올시다. 그 재조들이야 볼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고공께서 이 사미들을 거느려주셨으면 해서 오시라구 한것이올시다.》

서산은 십여명 중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고충경이앞에 내놓았다.

《성안에서 나온 대장쟁이가 몇이 있습니다. 나 역시 장난삼아 쓰던 살촉을 만들어온 대장간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말이 짐작에 로장밑에서 할일이 있을것 같다고 나더러 여쭤보라고 하길래 머물러두었습니다. 일은 꽤 쓸만 하게 하는 사람들이올시다.》

서산이 주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본 고충경은 이런 말을 꺼냈다. 동문서답같은 말이였으나 서산은 대단히 기뻐했다. 그는 말했다.

《그야말로 고소원이올시다. 그 사람들은 동금강암으로 가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참숯을 만들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구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거나 또 손수 병장기를 잡을수 없는 승려들은 민간으로 다니며 쇠붙이를 모아들일것이올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다. 전주복이네 부자를 비롯하여 두 봉군 오장과 돈정신, 황서방, 현차돌이 같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와서 서산대사와 고충경이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그다음에는 이 동네 로농 김첨지를 따라온 50～60명의 농군들과 아직도 이 근처부락에서 묵고있던 40여명의 피란민들도 모여왔다. 다 마찬가지로 땀에 젖고 먼지가 올랐지만 그러면서도 본시부터 누런 흙물이 든것과 아직도 어느 구석엔가 희게 바래운 하들한 맛이 남아있는 그 옷으로써 농군과 피란민을 가려볼수도 있었다. 또 그 머리모양으로 우선 눈에 뜨이는 중들도 20여명 있었다. 법근이를 따라들어온 영명사의 젊은 중들이였다. 복색과 머리모양까지도 다른 백여명 장정들로 그리 넓지 못한 뜰안은 빼곡 찼다. 바자문밖에도 그만한 수의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모여섰다. 아이들은 저마다 틈을 비집고 짧은 머리채가 달린 머리들을 맞쪼아가며 뜰안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뜰안에 들어선 남정들중에는 멍석자리가 모자라서 추녀밑에 늘어서기도 하고 열어놓은 방문턱과 토지방에 걸터앉기도 했다. 서로 인사와 롱말을 건네기도 하고 혹은 제옆에 자리가 있으니 오라고 부르기도 하는 소리에 뜰안은 떠들썩했다. 이때 앉은자리에서 허리를 펴고 반쯤 일어선 김첨지가 말했다.

《그만하면 올이는 거진 다 왔나부웨다.》

그 말에 한번 뜰안을 살펴본 서산은 고충경이와 하던 말을 끊고 일어나서 군중에게 한번 합장하고 앉았다. 뜰안은 금시 조용해졌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싶이 평양성에는 이미 왜적이 들어왔소이다.》

나직하나 어덴가 쟁— 울리는듯 한 금속성여운이 들리는 서산의 말이 시작되였다.

《그런데 왜적이 들어온 평양성이 불과 십리어간에 지나지 않건만 이곳에 아직도 머물러계신 여러분께서는 농터를 버리시지 않고 농사를 계속해하실분인줄로 압니다. 예로부터 란시에는 대개 사람들이 흩어져서 실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눌러 농사를 하신다는것은 앞으로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일이올시다.》

로승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있던 사람들은 한층 긴장한 얼굴로 피차 《그렇든가?》 묻듯이 서로 마주보았다. 목이 갈린듯 그래서 오히려 더 쟁— 울리는듯도 한 서산의 말소리는 계속됐다.

《여러분께서 이미 부쳐놓으시고 김까지도 매신 저 십리벌농사를 실농않고 거두신다는것만도 큰일이고, 그뿐아니라 또 그렇게 하시는것으로써— 바로 왜적이 들어있는 평양성밑에서까지도 여러분이 농사를 버리지 않는다는것으로써 저 뒤산테밖에서도 농사를 하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밖의 먼곳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을것이올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얼마나 크게 보람있는 일이오니까.》

서산은 이렇게 말을 끝냈다. 그의 말이 끝나서도 뜰안의 사람들은 역시 한동안은 잠잠했다. 마치 지금 그 말만으로는 미흡해서 또 다음 말이 있으려니— 하여 기다리는듯도 한 침묵이였다.

《옳거니!》

조용한중에 문득 누가 저 혼자 무릎을 치기라도 하듯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복이 아버지였다. 토방돌에 걸터앉은 그는 혼자 고개를 끄덕이다가 또 혼자 흐흐흐 웃고나서 서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사, 대사의 말씀을 듣구보니 나부터두 맘을 좀더 크게 먹을걸 그랬소. 이때까지는 생각이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 식솔이 굶지나 않게 농살 해보나 하기만 했더랬소.》

《거 정말 실토의 말씀이웨다.》

이때 멍석자리 한가운데 앉았던 김첨지가 그 말을 받았다.

《지금 형편이 다 부쳐는 놓구두 임자없이 된 땅두 많구 해서 나부터두 내해라구 할 사람이 없는, 밭가까운 논마지기나 다루어볼가 했던데…》

이러한 김첨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실토나마나 안 그럴래니 어떻게 할테란 말인고?》 이렇게 남의 말을 가로채듯 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렸다. 뒤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상투가 우뚝우뚝 늘어선 앞의 사람들의 머리를 피하느라 몸을 틀기도 하고 혹은 반쯤 궁둥이를 들기도 하고 바라보았다. 김첨지옆에 뿔난 관을 쓰고 앉은 꼬부장한 로인이였다.

《나 우선 저 대사한테 한가지 묻갔소.》

로인은 끝이 좀 피기까지도 한 낡은 관뿔로 앞의 사람의 등을 떠받듯이 더욱 허리를 굽혀서 체소한 몸을 한무릎 나앉으며 말했다.

《보통벌농사를 그냥 한다니— 저 산너머 사람들에게 본뵈기루 그저 하는체만 한다는 말이요, 정말 저 농사를 다 한다는 말이요?》

이런 로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서산대사에게로 모였다.

《예, 다 할것이올시다.》
이때까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려는듯이 긴 눈섭을 드리우고 앉았던 서산이 얼굴을 들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뿔싸! 그러다보니 대사가 여기 형편은 통 모르는군. 그럴래니 일왈 일손이 있나. 이제부터는 필시 여기까지두 왜적들이 나와서 로략질을 할게구 또 그건 고사하구라두 일왈 나부터두 조카놈까지 자식놈이 셋씩이나 군총으루 뽑혀나갔는데 좀 보오, 이 잡약산 앞뒤동네를 다 털어모은 남정이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다요.》
이런 로인의 말에 뜰안에 모인 사람들을 새삼스럽게 둘러보는이도 있었다.
《서재골아주바니.》
이때 그 로인의 뒤에 몇사람 건너앉아있던 벼슬자국 있는 한 장정이 말했다.
《아주바니말씀만 말이라구 하지 마시구 대사님의 말씀을 다 들어봐야 할거 아니요.》
《남의 말 들어보나마나 자네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갔나?》
로인이 이번에는 체소한 몸을 뒤로 홱 돌리면서 말했다.
《여기 마루일군이 몇이나 되나, 대관절? 제 앞채기할 젊은이라구는 상사에 자네 같은 외아들짜리가 몇이 있구는 다 한줄 꺾인 로축들 아닌가. 무슨 재간에 보통벌농사를 다 한다노. 난 말만 앞세우는건 천하없는 사람이라두 싫어.》
로인은 제 말에 흥분까지도 하는 모양이였다.
《아니, 할라기만 하면야 사람없어 못하갔소.》
이 자리에서 독판을 치듯 하는 로인의 말이 퍽 역한것을 참았던듯 한 말소리가 났다.
이때 자기네는 한날 길손이라 농군들에게 자리를 사양해야 할것으로 알고 추녀밑에 둘러서있던 피란민중의 한사람이였다.
《나부터두 올데갈데없이 이러구있는데 여기서 농살 한대면 한몫하갔소.》
《이분 말씀이 옳쉐다. 아무리 란시라두 우리 조선땅에서 농사할 조선사람이 없기야 하갔소. 하나 우리가 생각하던것과는 일이 좀 따웨다.》
역시 피란민중의 또 한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내놓구 말이지, 우린 여기서 배포될 일이 뭐 그런것이 아니구… 하기

야 농사두 크지오만ー 그보다두 어떻게 하면 저 왜적들과 싸우갔나? 그런 의논이 나올줄루 알았는데요.》

《옳쉐다. 그래야 공론들이 제대루 될것 갈쉐다.》

멍석자리 저편끝에 모여앉았던 농군들중에서 누가 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자 뜰안은 다시 떠들썩하기 시작했다.

《실상인즉 내 생각두 그래서 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던거웨다.》

벼슬자국 있는 젊은 농군의 말이였다.

《이 훈장네 아주바니(관쓴 로인을 눈으로 가리키며)말씀마따나 나는 남의 외아들이 돼서 군총으루두 안 나가구 이때껏 농사만 하드랬소. 하나 세상이 이렇게 되구보니, 실지 말이지 성안에 들어온 왜적을 떠이듯하구서 그놈들밑에서 수걱수걱 농사나 하면 뭘 하갔소? 또 저 왜놈들이 우리 농사 잘하라구 가만둘리두 만무하구요. 그렇지 않갔쉐니까?》

《거 다 옳은 말씀들인데…》

이때 안방문턱에 걸터앉았던 황서방이 말했다.

《좌우간 시재는 보통벌농사를 짓기루 하구 볼거 아니갔소. 그러느래면 왜적과 싸우게두 될게구, 그래서 차차…》

이렇게 말하던 황서방은 제가 좀 주제넘다는 생각이 들기라도 하듯이 하던 말을 끊고 서산을 바라보았다.

《훈장로인께서는 지금 댁에 남은 권속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서산이 물었다.

《나 말이요? 식군 상게 많쉐다. 우리 두 늙은이하구 열소리 하는 막내자식놈하구 맏며느리하구 그것에 달린 올망졸망한 친손주가 셋이구 이제 말한 조카자식의 소생으루 에미없는 넛손주가 둘이구, 그렇소. 건 왜 묻소?》

이런 로인의 말은 중이 남의 일에 별참견을 다 한다는듯도 했다.

《댁에 그렇게 어린 자여손이 많으시다면 댁에서는 불일내로 향산의 어느 절이나 암자로 이사해가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나더러 어떡하라구요?》

훈장은 로승의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듯이 물었다.

《지금 어느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농사를 짓는것이 곧 왜적과 싸우는것이올시다. 실지 또 싸우면서 할 일이올시다. 더우기 가을이 성숙한 때는 그 곡식을 탐내는 왜적들과 크게 싸우게 될지도 모를

것이올시다.》
이같이 시작한 서산대사의 말에 뜰안 사람들은 또 잠시 두선거렸다.
《옳지!》, 《일이 그렇게 될게로군.》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는 말을 계속했다. 훈장로인뿐아니라 앞으로 놈들과 싸우게 되는 경우에 주체궂은 로약자들이 많은 집에서는 묘향산의 절이나 암자로 이사해갈것을 권했다. 오래지 않아서 묘향산의 중들은 거의다 이곳으로 나오게 되리라고 했다. 예전에는 묘향산에 절과 암자들이 많았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으나 아직도 피란민들이 거접할수 있는 절과 암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뿐아니라 여기서 이사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곳 중들이 해온 농사를 대신 계속하도록 농토를 줄수도 있고 또 이곳에 가지고있는 식량만치는 그곳의 식량으로 바꾸어줄수도 있으리라고 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서산의 말이 끝나자 훈장늙은이는 또 이렇게 따져물었다.
《아니, 로장의 말씀이 빈말이라구 해서 묻는게 아니웨다. 그래만한 피란처를 궁리궁리하던차인데 욕거순풍(가고싶을 때 순풍이 분다는 뜻)으로 너무 맞차운 말씀이 돼서 되려 내 귀가 혹시 잘못되지나 않았나 해서 물은 말이웨다.》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다. 《왜들 웃노?》하듯이 웃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좌우간 나를 두구 운을 뗀 말씀이니 나부터 떠날 차비를 하야갔소. 그럼 난 먼저 자리를 일어야갔소.》하며 훈장은 일어섰다. 뜰안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우선 공론하는 자리에서 말썽군 하나가 없어지는것만으로도 씨원한 사람들은 한마디씩 했다.
《아주바니, 아주바니 바쁜 생각에 아이들을 잊어버리질랑은 마소.》
《정말 이번 일엔 손주아이들 덕을 입는줄이나 압소.》
그 로인의 등뒤에 이런 말을 던지기도 했다. 다시 조용해진 때 서산의 뒤에 서있던 법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로약자들을 떠나보낸대두 여기가 성안에서 너무 가깝지 않을가요?》
《지금 그 말은 네 말이냐? 혹은 여기 계신분들의 말씀이냐?》
서산은 이렇게 물었다.
《너무 가깝다구들두 하구, 혹이는 가까와두 할수 없다구 하는이들두 있습니다.》

《가까와두 할수 없다는이들은 어차피 여기를 떠날 형편이 못되는분들일테지.》

《예, 그런이들두 있구요. 또 혹은 스님께서 여기다 자리를 정하시는것 같은데 지금 왜적이 들어있는 평양성에서 불과 십리밖에 안되는 여기서 어떻게 하실 료량인지 알수 없다는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따위 소릴 해?》

지금까지 자리 한기슭에서 오고가는 말을 듣고만 있던 주복이가 불쑥 골을 올린듯 한 소리로 물었다.

《법근대사의 그 말은 아마 내가 한 말을 두구서 하는 말갈쉐다.》

토지방밑에 역시 창대를 세워짚고 서있던 늙은 봉군이 한걸음 나서며 말했다.

《내 말은 이런 공론이 있기 전에두 나 혼자 짐작에 서산로장이 혹시나 하는 생각이 없지두 않아서 일왈 그러자면 사람을 많이 뫄야 할게구 또 그러자면 아무래두 세월이 좀 걸려야 할텐데, 그렇게 일이 다되기 전에는 여기가 너무 발딱하구 앞이 밭을것 갈애서 한 말이드랬소.》

《지금 그 말씀에도 일리가 없는바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충경이가 말을 시작했다. 그는 이때까지 새로 접은듯 한 흑갑사 갓끈을 한손으로 만지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지금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왜적들은 필시 이곳으로도 로략질을 하러 올것이올시다. 그렇게 민간으로 다니며 략탈하는 도적들이 노리는것은 언제나 인축과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는 재물도, 소나 돼지 같은 육축도 없을것이고— 그래서 략탈질하려는 적들은 구경 사람을 찾아다니게 될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십리밖에 사람이 없으면 이십리밖으로, 이십리밖에도 략탈할것이 없으면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적들은 백리밖에라도 사람을 찾아나갈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백성들뒤에 숨어서 이 란시에 제 한목숨을 보전하기만 위주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좀더 멀거나 가까운것이 별반 차가 없을것이고, 만일 그래도 더 멀리로 물러선다면 이곳에 막부득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버리는셈밖에는 다른것이 없을것이올시다. 그러나 봉군 오장께서 근심하시는것도 일리가 있다고 한것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세력을 키우기 전에 혹시 왜적에게 한 병력으로 보인다든가 해서— 이곳이 단지 략탈질 할수 있는 한 부락이 아니고 군사를 일으켜 쳐야 할 곳으로 왜적이 알게 된

다면 그때는 잠시 물러서는것도 한 방략일것이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로약자들을 뒤로 피란시키는것은 지당한 조치올시다. 그래서 여기는 농사짓고 싸워야 할 때는 싸울수 있는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되면 아직 우리 세력이 단약하더라도 멀고가까운것은 별반 개의할바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이곳에 있어야 할것이올시다.》

이러한 고충경의 말이 끝나자 그때까지 긴 눈섭을 드리우고 잠심해 듣던 서산은 빛나는 눈을 들어 고충경을 보면서 두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소승의 생각도 정히 그러하올시다.》

그러자 조용하던 뜰안은 문득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말소리로 흥성거리고 떠들썩해졌다.

《옳쉐다.》

《이제야 됐소.》

《일이 그럴거 아니요!》

이같이 단마디 말을 웨치는가 하면 《왜적들이 십리안짝에 있대두 무서울거 없쉐다. 놈들이 그보다 더 가까운 모란봉에 있을 때두 사흘씩이나 쌀을 날라내지 않았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했소. 저것들이 모란봉까지 와가지구두 성안으루 들어설 생의를 못하는건 동대원싸움에서 우리 사람들한테 된서릴 맞아서 그런게라구…》

《또 그뿐인가요. 왜적들이 나는 재간이 없는 한해야 저희놈들이 십릴 오면 그동안에 우리두 십릴 갈수 있는데야 무슨 걱정인가 이런 생각두 했더랬소. 그런데야 여기가 가까와서 안될거 있소?》

이같이 긴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이같이 쑤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만보니 저 로승이 제속에 배포는 다 해가지구두 저 할 말을 꼭 남한테 시키구야마는 모양 아닌가?》

《그거야 아마 여러 사람의 의향을 들어보자는거갔지.》

《남의 속을 빼본다? 그러구보면 무서운 늙은이 아닌가!》

《자, 그만들 하구 이제는 앞으로 할 일들을 의논해봅시다.》

어떤 농군이 이런 말을 해서 좌석은 다시 조용해졌다.

33. 전주복이네 부자의 시

마을사람들의 공론이 끝났다. 서재골훈장네를 비롯하여 향산으로 이사해갈 몇집 식구들을 내놓고는 모두 잡약산뒤쪽에서 땅을 파고 세간과 식량을 묻기에 바빴다. 왜군이 략탈하러 오더라도 마을에서는 빼앗아갈것도, 불살라버릴것도 없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으로는 이 산속에서 움막들도 지어야 할것이였다. 이미 빈집도 있고 또 이제 비게 될 집도 몇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랐다. 앞으로는 더욱 모자랄것이였다. 그래서 전주복이네를 비롯하여 성안, 성밖에서 떠나온 사람들은 움막집을 짓기로 했다.

서산은 영명사에서 나온 중들을 불렀다. 그중의 건장하고 길 잘 걷는 젊은이들을 뽑아서는 지리산, 금강산 같은 먼데로 보내고 그 여차의 사람들은 향산과 동금강암 같은 가까운 곳으로 보냈다. 서산의 편지를 지닌 중들은 먼길이면 둘씩 혹은 셋씩 짝을 지어 떠났다. 그들은 길량식도 지지 않았다. 그때는 아직도 곳곳에 절과 암자들이 많았으므로 객승노릇을 하거나 그렇지 못한데서는 동냥중노릇을 해서라도 갈 작정이였다.

그들을 떠나보낸 서산은 뒤산으로 올라왔다. 이미 멀리 보통벌로 흩어져가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합장하고 머리를 숙여 그들의 앞길이 무사하기를 념한 서산은 사람들이 일하는데로 갔다. 일변 땅을 파고 또 일변 자기네 세간과 량식을 져올리기에 사람들은 바빴다. 그중에 전주복이네 부자는 웬 까닭인지 가래질로 구뎅이를 파다말고 어성을 높여서 말다툼을 하고있었다.

《…모르갔다. 네 맘대루 해서야 네 소 잃지 다른 놈의 소 잃갔네?》

가래줄 한끝을 쥔채 먼산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는 주복이의 늙은 아버지는 입이 쓰거운듯이 군침을 뱉았다.

《아버지는 말씀을 왜 그렇게 합네까. 그래 내가 내 소라구 내 맘대루 했단 말이요?》

주복이 역시 쓰거운 모양으로 건숭 세워놓은 가래장부를 쥐였던 손바닥에 침을 뱉았다.

《다 늙은 나야 소 아니라 그보다 더한거라두 날 위해선 아까울것이 없으니 하는 말 아니가.》
《글쎄 걱정마시라구요. 뉘 소든 그 소 어데 가갔게 그러시우?》
《어데 안 가다니? 너부터두 그 소 어데 갔는지 모르지 않니.》
이번에는 그 역시 가래줄 한끌을 늦추 잡고 서있던 주복이 어머니가 대들었다.
《남의 솔 갖다가 팔아먹든지 잡아먹든지 해두 이 란리통에 어데 가서 고소 한장 드려볼데두 없이 된 세월 아닌가.》
이같이 다투는 내용은 주복이가 의논도 없이 돈정신에게 저의 소를 빌려준때문이였다. 돈정신은 조금전에 가족들을 데리고 서해변쪽으로 떠났다.
그의 안해는 남편도 같이 간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는 먼 두메산골 절에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언제든 하루길로 오고갈수 있는 촌에다 집 한간만 마련해주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도리를 하겠노라고 했다. 오륙을 잘 못쓰는 칠십로모와 갓난것이 달린 안해가 여기 있어서는 이편의 손발을 잡아매게 될것이므로 어차피 어데로든 치워놔야겠다고 생각한 돈정신은 풋낯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는 서해변쪽으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길을 걸을수 없는 어머니를 태우고 사창에서 내온 량식과 세간을 싣고 가기 위해서 소를 빌리자고 했다. 주복이는 두말않고 소를 주었다. 그런줄을 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걱정은 뒤서고 우선 어처구니가 없었다. 일왈 돈서방인가 하는 위인을 언제 알기나 했던 사람인가? 또 서해변쪽으로 간다고만 했다니 그 넓은 서해변의 어데란 말인가? 따라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 않는가? 언제나마나 애당초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였다. 소금장사라면 한곳에 붙배겨서 농사하는 량민과도 다르다. 소금장사란 흔히 흉물스럽고 믿을수 없는 건달들이 많았다. 도무지 믿을수 없는 아버지는 이제라도 다좇아가서 소를 찾아온다고 서둘렀다. 주복이는 그럴수 없는 일이라고 한사코 막았다. 그래서 로인은 더욱 애가 탈밖에 없었던것이다.
《허어! 세상살이 밑천으루 믿었던 마루소 한짝 잃었나부다.》
로인들이 흔히 그렇듯이 주복이 아버지의 화는 드디여 자탄으로 변했다.
《글쎄, 념려마시라구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들을 합네다가레》
주복이의 고집은 여전했다.

《쓸데없는 걱정이문야 좀 좋으리! 공연히 남을 의심하는것두 손복(손해보는것)할 일이지만 너같이 허턱 남을 믿기만 해두 랑패니라.》
《돈서방이 이번에 한 일만 봐두 알거 아니요.》
《일? 돌아가면서 남의 장독 쳐부셔놓은 일 말인가?》
《그것만 봐두 알거 아니요.》
《난 네 말 무슨 소린지 모르갔다.》
속으로는 《그런걸 가지구 돈가를 믿으라니… 그런 일에나 발벗고 나서기를 좋아한다는것은 오히려 더 심술궂은 소행이라고도 할것이 아닌가.》 하는 로인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허허 웃었다.
《그럼 나두 모르갔소.》
주복이는 그 말은 그만하고말자는것 같았다.
《그래, 어서 일이나 치우자.》
한번 혀를 차는것으로써 만사를 다 타첩하고마는듯 한 로인은 손바닥에 새로 침을 뱉고 가래줄을 당겨쥐였다.
《할 일이 많다. 그 머사닌가 하는 과부네랑 여기서 떠나는 사람들네가 두구 가는 세간이랑 쌀이랑두 다 건사해줘야지 않나…》
또 이런 말을 하는 로인의 말끝에는 몸도 마음도 퍽 지친듯 한 한숨이 들리기도 했다.
《지금 아버지두 그러지 않소?》
가래장부를 대다말고 주복이는 문득 또 이야기를 되살렸다.
《그러다니 뭣이 그래?》
《아버지 이재 그 말이나 돈서방이 한 일이나 다 같애요.》
《뭐이 같애? 네 말 난 정 모르갔다.》
《아버지가 모르갔대면 난 더 모르갔쉐다.》
또 이같이 퉁명스럽게 말을 끊고마는 주복이는 단지 역정만으로 그런것이 아니라 저 역시 그 이상은 더 설명할수 없기때문이였다.
지금 이 장면을 그대로 전하는 작자 역시 그렇다. 주복이의 말은 론리가 아니기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시가 있는것만은 느낄수 있다. 그리고 시는 진실이기때문에 주복이의 말을 그대로 믿을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들옆에서 두손을 얹은 지팽이끝에 턱을 고이듯 하고 서있던 로승의 얼굴은 문득 잔주름살의 물결이 이는 파안일소(얼굴에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한바탕 웃는것)로써 빛났다. 따뜻한 미소로써 더욱 맑게 빛

나는 그의 눈앞에는 황홀할만 한 환상이 떠오르기도 했다. 풍치있게 너그러운 장삼자락과 소매를 구름안개같이 흩날리고 휘감기도 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는 자기를 보는것이였다. 시정(시의 정서)과 법열의 도취였다.

언젠가 자기는 《금강산하석(금강산밑에 있는 돌)은 대소시여래(크고작은것이 모두다 부처다.)》라고 하여 아름다운 금강산의 자연을 례찬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을 두고 달리 또 무엇에서 불보살을 구할것이랴. 아름답고 슬기로운 인정 이외에 더 느껴웁고 더 화려하고 더 고귀한 시정과 불성(부처의 자비로운 천성)을 달리 찾을데가 있으랴.

이때 두 봉군 오장은 산마루 봉수대로 올라가고있었다. 아까 모였던 마을공론에서 이곳 봉수대는 늙은 오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던것이다.

《그래, 나는 여기 와서까지두 또 연대를 지켜야 한다?》

늙은 봉군은 자못 불만한 투로 말했다.

《졸질랑은 맙소.》

젊은 봉군은 약을 올리는 투로 이런 말을 했다.

《이 내가 늙었다구 늙은이대접하는걸 그냥 받자 하니 자넨 또 날 송장대접을 할라나?》

《눈은 밝지요?》

《듣기 싫어.》

《괜히 맞은쪽 가마구비 연대만 바라보지 맙소. 이제부터는 보통벌 땅바닥을 살펴야 합네다. 알갔소?》

《그래, 그 말은 내가 채심해 들을 말일세. 하나 나더러는 왜놈에게 눈만 빨구있으라니 좀 괘씸두 하네.》

늙은 봉군은 연대의 드높은 축석우로 올라섰다. 보통문, 칠성문으로 드나드는 일본군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붉은 상모가 달린 창을 짚고 연대우에 서있던 그 봉군 오장이 우선 거쉰 목소리로 《왜적이야ㅡ》 웨치고 일변 천아성(정황이 있을 때에 군사를 모으는데 부는 나팔소리)을 울리게 된것은 이날로부터 불과 이틀만이였다.

34. 따라온 편석대사

아직 단약한 이편의 세력을 키우고말고 할 겨를이 없었다. 엊그제부터 로약자들을 피란시키는중이였으므로 그들을 령거해간 장정들까지도 많이 준 때였다. 오직 가까운 동금강암에서 서산의 편지를 받고 6~7명의 중들이 오늘 낮에 도착했을뿐이다. 그 6~7명중에는 법근이가 서산에게 말했던 활 쏠줄 알고 칼 쓸줄 안다는 젊은 중 두사람과 그밖에 편석대사도 같이 나왔다.

편석대사는 서산스님이 조만간 동금강암을 거쳐 다시 묘향산으로 들어가리라 생각했으므로 기다려서 모시고 갈양으로 그곳에서 묵고있었다. 그런데 도리여 중들을 산에서 나오라고 한 서산의 편지를 본 편석은 자기도 따라나와서 친히 스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이때의 편석대사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서산스님께서 망녕이 아닌가?》 했던것이다. 그래서 제가 스님의 말을 들어본다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존경하고 아끼는 스님을 이 위험한 평양근처에서 모셔내여 다시 산으로 들어가도록 할 심산이였다.

서산은 마을앞 떡돌에 걸터앉아서 그들을 맞았다. 마침 점심때라 산너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버드나무밑에서 쉬고있었다.

《편석도 나오셨소?》

같이 온 중들중에 가장 나이도 많거니와 승려간의 지위로 보아 장로의 한사람인 편석이 먼저 앞에 나서서 합장했을 때 서산 역시 합장하며 말했다. 다음 중들의 인사를 받던 서산은 《오냐, 네가 활을 잘 쏜다지? 잘 왔다.》, 《오, 너는 칼을 쓸줄 안다지? 잘 왔다.》 하고 말했다.

《너희가 보다싶이 저 평양성에는 왜적아수라의 무리가 들어와있다. 부산서 여기까지 그들의 발길이 멎는데마다 이 강산은 황페되고 우리 동족의 피로써 우리 강토를 적시게 하는 왜적아수라들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너희가 활을 쏘고 칼을 익힌것은 한 장난이였을는지 모르나 우리가 선조적부터 우로(비와 이슬)의 혜택을 같이 입어온 이 땅의 생령들이 지금 왜적의 창검아래 어육이 되려는 이때 너희들의 활과 칼이 저 잔악무도한

아수라들을 무찌르고 무고한 우리 동족의 생령을 보호할수 있다면 너희들의 병쟁기는 활인검(사람을 죽이는데 쓰는 칼도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수도 있다는 뜻)이 될것이요, 또한 너희들의 용맹은 곧 불보살의 대자대비가 될것이다. 선을 좋이 여기고 악을 미워하는것― 미워할뿐아니라 악을 징치할수 있는 용기! 그것이 곧 불성이고 그러한 용기가 있음으로써만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을 제도하려는 불법을 수호할수도 있을것이다. 만일 우리가 저 아수라들이 우리의 강토를 분탕하고 우리 동족을 도륙하는것을 보고만 있다면 우리 역시 저 왜적아수라와 다를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는 나라와 동족을 위해서 저 왜적과 싸우려는 의롭고 용감한분들이 모여계신다. 너희도 그들과 함께 한몸을 바쳐 싸워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산에서 내려온줄 안다. 잘 왔다.》

말끝마다 《잘 왔다, 잘 왔다!》 하는 로선사앞에서 다시금 합장하는 젊은 중들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기도 했다. 전 같으면 대선사의 법력에 눌린달가 그앞에서는 바로서기조차 어려워했던 사미들이 로스님의 얼굴을 정답게 마주보기도 했다.

서산이 말을 마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자 중들옆에 서서 그의 말을 듣고있던 주복이는 버드나무아래에 모인 사람들한테로 가면서 《아, 그 늙은이가 그런 말을 벌써 했으면 남 속이 좀더 씨원했을거 아닌가!》하고 투덜거렸다. 제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때 편석대사만은 언제 보나 그 무표정하던 얼굴이 퍽 어두워진듯 했다. 그는 좀전에 영명사에서 나왔노라는 한 늙은 중과 같이 떡돌에 걸터앉았다. 편석은 지금 자리를 인 서산스님을 따라들어가는것이 자기의 도리라고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럴 경황이 없을만치 마음이 번거로왔던것이다. 스님을 산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마음속에 준비해가지고 왔던 말을 서산앞에 비쳐볼 여지도 없었다. 말해볼 여지가 없이 서산은 자기의 심회를 다 말했다. 그러한 서산의 말에 동감이라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뿐아니라 처음부터 놀라운것은 스님께서 웬 말씀이 저렇게 많아지셨노 하는것이였다. 즉 서산이 전에없이 그보다도 대선사답지 못하게 수다스러워졌다는것이다. 선승이란 본시 말을 많이 안하는것으로써 첫째 계행을 삼는다. 우선 삼함이라는것이 있다. 식불언, 정불언, 와불언이라고 하여 먹을 때, 참선할 때, 자려고 누웠을 때는 말을 아니하는 법이다. 더

우기 선방(불교에서 참선하는 방)이라는데는 무엇보다도 말이 금물이였다. 즉 무언지행(말이 없이 행동한다는 뜻)의 수련을 쌓는데다. 서산은 삼십소리 하면서부터 선방의 조실이였던 선승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어느 절의 선방도 아니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선승들도 아니다. 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부처갈이 가부좌(불교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음)를 틀고앉아서 할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때까지 오십여년간 몸에 배여온 선승의 습속을 버려야 할 일이 많았다. 더우기 이제부터 할 일은 나이많은 그로서는 무언지행으로 단지 자기 한몸으로 솔선해서 하는것만으로 될 일도 아니므로 서산은 결국 말을 많이 하기로 결심했던것이다. 지금 동금강암에서 나온 젊은 중들을 이 마당 한가운데서 맞은것도 그때문이였다. 뒤산에서 세간과 쌀을 묻고 새로 움막을 짓던 사람들이 점심참이 되여 많이 내려와있었다. 하고싶은 말을 그 중들만이 들으라는것이 아니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택한것이다.

편석대사는 그러한 서산대사의 심정을 몰랐다.

이때 버드나무그늘에서는 의관을 방정히 한 속인(고충경)이 금방 쪄온 뽕나무가지의 껍질을 벗기고있었다. 그의 앞으로 모여간 젊은 중들이 물었다.

《그건 활줄을 만드실겁니까?》

《우리 산에는 출한 뽕나무뿌리껍질이 없어서 나는 아직두 갖풀멕인 삼줄을 메웠는데 우리 같이 만듭시다.》

활을 든 젊은 중이 나앉아서 《이 더위에 갖풀멕인 줄이야 껍적거려서 왜적에게 련주전(련달아 쏘는 화살)을 멕일수 있겠어요.》하며 웃기도 했다.

지척에서 이런 말을 능당히 하는 불문의 사미들을 이윽히 바라보던 편석대사는 깊은 한숨이 나오고 머리가 가로흔들렸다. 말하자면 공공연히 살생할 차비를 한다는것이였다.

불제자로서 이런 파계가 있을법인가? 이 뉘탓인고?

한숨을 지은 편석대사는 옆에 앉은 늙은 중에게 물었다.

《지금 영명사에 남아있는 로장들은 무엇들을 하고계시오?》

《예. 조석으로 <성수무강>, <국가안태>와 왜군들이 수선지악(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해서 저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흉기를 거두어 돌아가도록 불전에 축원을 올리고있소이다.》

이러한 영명사 늙은 중의 대답에 편석대사는 깊이 찬의를 표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수 있을 모양이오니까?》

《지금 같애서는 왜병들이 아무런 침책도 없었소이다. 어제는 우리 중들이 동대원에서 전몰한 군사들의 시신들을 거두고 시다림(시체앞에서 념불하는것)을 했는데 왜장의 말이 수구했다고 하면서 절에 공양미가 없거든 성내에서 가져다 먹으라고까지 했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영명사 늙은 중은 이곳 사람들에게 한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었던것이다.

영명사에 남아있는 십여명 늙은 중들이 놈들에게 끌려나가서 동대원의 시체들을 수습하게 되였는데 우리 군사의 전사자보다 왜놈들의 시체가 훨씬 더 많았다는것이였다. 이 사실은 그만치 우리 군사가 용감히 싸웠고 또 그만치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영명사에 공양미가 없을리 있소?》

편석이 또 물었다.

《아직은 좀 있지만 사전(중들이 관리하는 밭)이 모두 대동강건너쪽에 있어서 왜병들의 통로가 가까운만치 실농하게 된다면 노상 걱정이 안되는바도 아니올시다.》

《그렇단들…》

이렇게 하던 말을 채 마치지 않은 편석대사는 또 머리를 가로흔들었다. 그로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가안태를 축원한다는 영명사 중들이 만일 일본군한테서 식량을 얻어먹는다면 그것은 모순된 일일뿐아니라 부정한 일이라고까지 생각했기때문이였다. 그뿐아니라 종당은 일이 또 그렇게 부정하게 될것도 같았다. 왜냐하면 지금 영명사에 남아있다는 누구누구 하는 늙은 중들은 대개가 그 살진 로전승의 말을 들을만 한 사람들이기때문이다. 살진 로전승은 본시부터 성품을 바로하고 고기를 멀리하는것과 같은 선승의 경지는 모르고 배부른것을 무엇보다도 쾌사로 아는 위인인것을 편석대사는 잘 알았다. 그 점만으로도 편석대사는 로전승을 존경할수 없었다.

이때 한 사미가 와서 서산스님이 부른다고 전갈했다.

편석대사를 부른 서산의 말은 지금 이곳에 홀몸으로 많은 어린것을 데린 녀인이 동금강암으로 피란을 가게 되였는데 편석대사가 그들을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것이다. 보통벌머사니네 가족이다.

엊그제부터 로약자들을 피란시키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떠났어야 할 칠성이네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칠성이 어머니는 굳이 이곳을 안 떠난다고 고집했다. 남편이 생전에 벼르고별러서 제땅이라고 사서 논을 풀어놓고는 그렇게도 기뻐하고 대견해하던 그 논을 두고는 떠날수가 없다는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그 논의 벼를 제손으로 거두고 쌀을 만들어서 죽은이의 혼백앞에 노구메 한그릇을 떠놓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걱정이 되는 서산은 주복이 어머니와 보패에게 부탁해서 타이르도록 했다. 마지못해 칠성이 어머니도 떠나기로 했다는것이다.

서산이 방금 온 편석에게 동금강암으로 되짚어가야 하는 부탁을 하는데는 까닭이 있었다. 서산은 편석이 여기까지 따라온 까닭을 묻지 않고도 잘 알았다. 또 편석이 이곳에 머물러있더라도 별로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편석에게 다시 산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려는것이다.

서산이 들어앉은 먹통만 한 방앞의 토지방아래서 합장하고 서있는 편석대사는 스님의 말에 대답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스님께서 이 나를 멀리 하시려는구나.)

이런 생각에 편석대사는 입을 열면 말보다도 먼저 울음이 앞설것 같았다. 그렇다고 울수도 없는 일이다. 선승에게 눈물이나 울음이 있을리 없다. 그는 합장하고 우두커니 서있을뿐 대답을 못했다.

이때 봉수대에서 《왜적이야ㅡ》 웨치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천아성이 울렸다.

35. 왜적이야!

산마루에서 혹은 골짜기에서 일하던 장정들이 먼저 봉수대로 달려갔다.
《어데요?》
《어느쪽이요?》
모여든 사람은 저마다 웨쳐물었다.
《보통문이요? 칠성문이요?》
《보통문! 보통문이야. 저기 보이지 않아!》
늙은 봉군은 숨가쁜 소리로 웨치면서 보통문을 가리켰다.
《보통문?》
《어데 뭐 보이우?》
《보통문을 보지 말구 이제는 그 바깥의 수수밭골을 보라구. 저 먼지를 보라구. 수수밭골루 몽당이 자욱히 일어나지 않아?》
과연 그렇다. 지금 보통문어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그 성문밖에서 좀 떨어져있는 넓은 수수밭사이로 떠오르는 먼지만이 보일뿐이였다. 먼지는 바람결에 일어나는 먼지와는 달랐다. 오불꼬불한 수수밭사이의 길을 따라서 외줄기로 일어나는 먼지였다. 바람이 없기도 했다.
《몇놈이나 됩디까?》
《저렇게 먼지가 이는걸 보면 많이 쓸어나오는게 분명하지 않아.》
사람들은 또 이같이 늙은 봉군에게 묻기도 하고 혹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 짐작대로 지껄이기도 했다.
이때 서산이 고충경이와 법근이랑을 데리고 마을에서 올라왔다. 지금 그는 가벼운 나무지팽이대신에 주석손잡이끝에 주석고리들이 달린 선장(일명 륙환장)을 짚었다. (그 선장은 지금도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되여있다.)
봉수대 축석에 올라서서 바라보던 서산이 물었다.
《저놈들중에 말탄 놈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르지요.》
늙은 봉군의 대답은 모호했다.
《말탄 놈이 앞에나 있었는지… 내 눈에 띄였을 때는 문통으루 그저

보발루 달려나오는 놈들만이던데—》
《필시 말탄 놈두 있는 모양이올시다.》
옆에 서있던 고충경이가 서산의 말을 받았다.
《적이 많지 않더라도 그중에는 말을 달리는 놈이 있길래 저렇게 먼지가 일것이올시다.》
과연 수수밭머리로 말탄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자 그뒤에는 장달음을 치는 보졸들이 다음다음으로 나타났다. 적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각각 큰 나무와 바위뒤에 붙어서거나 숲속에 들어앉아서 놈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한놈.》, 《두놈.》 세는이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상거가 멀어서 그저 까뭇까뭇한 거미새끼같이만 보이는 적의 수효를 똑똑히 셀수는 없었다. 어쨌든 그리 많지는 않았다.
적이 소부대로 출동했다면 필시 주변의 촌락들을 략탈하려는것인데 어데로 방향을 잡는가? 보통강을 건너서면 갈래길이 많았다. 그리고 창광산, 대타령 같은 가까운 부락들이 있다. 이 잡약산마을도 그중의 하나였다.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했다. 우선 적들과 직접 싸울수 없는 아낙네와 늙은이들은 산골짜기로 피신할것이였다. 장정들은 적의 형세를 보아서 능히 당해낼만 하면 접전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면 뒤산으로 종적을 감추거나 혹은 더 뒤로 물러서야 할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먼저 피신한 로약자들을 앞세우고 떠나야 할것이였다. 이런 조치는 적이 십리를 다가오면 그동안에 우리도 십리를 물러설수 있다는 타산으로써 작성한것이다.
또 수수밭사이로 들어섰다가 다시 논벌 한가운데로 나타난 적들은 이 방향으로 난 큰길로 들어서는 모양이였다. 이제는 놈들의 수효를 짐작할수 있다. 좀더 가까와지기도 했으려니와 곧은길에 들어선 적들의 선두와 꼬리가 완전히 드러났다. 마치 길가에 내려앉은 까마귀떼가 서로 쫓고 쫓기며 몰려다니듯이 대오를 흐트려 장달음치는 놈들이라 일일이 셀수는 없지만 어쨌든 삼십명이 되나마나한 수효다.
어떻게 할것인가? 현재 여기는 60～70명의 장정들이 있다. 지금 출동한 놈들의 배는 된다. 그러나 병쟁기를 쓸줄 아는 사람은 몇이 안된다.
사수로 나설수 있는 사람이 고충경이와 동금강암에서 나온 젊은 중 한사람외에 돌질을 좀 할줄 아는 애숭이 석전군 현차돌이까지 쳐서 단 세사람뿐이고, 살수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승검술 법근이외에 역시 칼을 쓸줄 안다는 동금강암의 중 한사람뿐이였다. 창을 가진 두 봉군이 있기

는 하나 그들은 창질을 할줄 알아서보다도 봉군도 군총명색이라 그저 창을 말아가지고있달뿐이였다. 이렇게 따지고보면 병쟁기를 가지고 싸울수 있는 사람은 돌팔매까지 쳐서 겨우 다섯사람뿐이다.

그러나 이같이 따지는것은 단지 한날 소심한 천착(억지로 끌어다가 리치에 맞도록 말을 하는것)일따름이였다. 적의 형세를 짐작하게 되자 《더 볼거 없지 않소? 이제는 내려들 갑시다.》, 《그래, 어서들 내려갑시다.》하고 나무숲속에 모여섰던 장정들이 이렇게 웨쳤다.

그러자 벌써 숲속을 꿰서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낫 혹은 도끼들이 들려있었다. 이때 봉수대 축석밑에서 《가만, 좀들 기다리소.》하는 소리가 났다. 봉수대를 쳐다보던 사람이 서산대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것 같아서 한 말이였다. 산마루의 드높은 축대우라 지나가는 바람결에 붉은 가사를 나붓기며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합장하고 섰던 서산이 얼굴을 들었다.

《별말씀이 없습니다. 소승의 생각도 여러분과 같으올시다.》

잠긴듯 한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던 로승은 목을 가다듬어 한층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같이 의로운 백성이 있고서는 나라가 망하는 법이 없고 여러분같이 용감한 사람들앞에서는 굴하지 않을 적이 없을것이올시다. 비록 낫과 도끼만을 가지고도 적을 맞아 싸우시려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강산, 이 나라의 주인이올시다.

지금 저기 요두전목(머리를 흔들고 눈을 굴린다는것)하며 내달아오는 왜적아수라의 무리는 이 나라 주인들의 손에 이제 이 땅에 한줌 흙을 보탤뿐 무주고혼이 될것이올시다. 여러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려가십시다, 내려가십시다.》

《내려들 갑세다.》

《옳소, 어서들 갑세다.》

서산의 말이 끝나자 숲속에서는 웨치는 장정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낫과 도끼들이 쳐들렸다. 사람들은 흥분했다. 쏟아지듯 발걸음소리를 내며 언덕으로 내달렸다. 그런중에도 잘 자란 풀판을 만나는대로 풀을 베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마을주변으로 돌아가며 매복할 때 소용이였다.

마을앞 넓은 마당으로 모인 장정들은 싸울 차비를 하기에 저마다 바빴다.

《아니, 왜 상게 이러구들 있소?》

《참말 어서 바삐들 떠나가라구. 저놈들 눈에 띄지 않게…》

여기저기서 이런 말소리들이 났다. 아닌게 아니라 산너머로 피란했어야 할 아낙네와 로인들 몇이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들도 이미 뒤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로약자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에 남았던 세간과 이부자리들을 꾸려들기는 했다. 그러면서도 선뜻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모양이였다.

이때 봉수대에서 내려온 젊은이가 놈들이 지금 막 서장대앞으로 달려오는중이라고 했다. 서장대앞에서도 갈래길이 있기는 하지만 이곳 잡약산길이 그중 바른길이다. 이제는 불과 3리, 6월 염천 뙤약볕에 장달음을 쳐온 적들의 걸음발이 다소 느려진다치더라도 접전은 곧 시작될것이다. 그래도 그 아낙네들과 로인 몇이는 떠나려는 기색이 없었다. 그런 눈치를 본 서산은 고충경이를 비롯한 몇몇 장정들과 의논을 하다말고 녀인들을 돌아보며 《여기 계실것이 아니라 부엌에 남겨둔 솥들에 다 간장을 조금씩 칠해놓으시구는 곧 떠나시는것이 좋겠소이다.》 이런 말로써 속히 피신하도록 일렀다. 녀인들은 그 까닭은 모르면서도 로승이 하라는대로 솥에다 간장칠을 했다. 그러나 역시 떠나지 않고 다시 모여왔다.

지금 떡돌앞에서 돌을 모아놓고 손맛을 보아가며 고르다가 마구 생긴 돌의 뿌다구니를 다스리기도 하는 차돌이의 어머니도 그중의 하나였다. 벌써 그런 눈치를 챈 주복이는 저의 처에게 한번 꽥 소리를 질러서 어머니를 재촉해가도록 쫓아버렸다. 보패도 좀 주춤거렸다.

그러나 벌써부터 칼을 빼들고 섰던 법근대사가 자기를 한번 보자 화살뒤초리의 깃을 손질하고있는 오라버니한테로 가서 뭐라고 말하는것을 보고는 고충경이가 돌아볼 사이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말았다. 편석대사 역시 한참이나 서산의 등뒤에서 합장하고 서있었다.

《어서, 아이 데리구 올라가라구.》

《괜히 남한테까지 앨 멕일라구 이러나?》

이렇게 타이르는 장정들의 소리가 나는 마당 한가운데서 륙환장을 짚고 서있는 서산대사의 이마에서는 전에없이 방울방울 맺힌 땀이 흘렀다.

륙환장은 그 손잡이끌에 달린 여섯개 주석고리들이 금시 소리를 낼듯이 흔들리기도 했다. 손이 떨리는 모양이였다. 이때 저편 맨끌의 버드나무아래서 큰소리가 났다.

《왜 이래, 제발 답답스레 굴지 말라구.》
《내가 답답하우? 아니, 그래 다 늙은것 하나 빠진다구 접전을 못한답디까.》
이 동네 로농 김첨지내외간에 오손도손하던 말다툼이 마침내 커진 모양이였다.
《글쎄 같이 가자구요. 안 가면 나두 여기 있갔예요.》
마누라의 새진 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사람들의 눈은 모두 그리로 쏠렸다. 앞뒤집에서 김첨지를 잘 아는 이 동네사람들은 더우기 《어떻게 되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천하 의젓하고 입이 무거운 김첨지는 그와는 반대로 좀 기승스럽고 수다스럽기도 한 마누라와 내외쌈을 한적도 별로 없거니와 혹시 가다 다투게 되는 때라도 제 주견을 끝내 세워본적이 없이 손을 내젓고 물러서는 성미인것을 잘 알기때문이였다.
《하! 이런 소견머리 봤나. 기어이 날 망신을 시키지 못해서 이러나!》
《글쎄 같이 가자구요.》
또 한번 새진 소리를 지른 그 작달막한 마누라는 김첨지의 소매를 끌었다.
《갑세. 그래, 같이 갑세. 할수 있나. 같이 갈테니… 내 집에 잠간 들렸다올테니 이건 놓으라구.》
마누라의 손을 뗴친 김첨지는 허둥지둥 저희 집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중에도 《집에는 뭐 하러 가나?》 하는 호기심이 없지도 않았다. 다시 집에서 나오는 김첨지 손에는 굵다란 장바 한컬레가 들려있었다. 사렸던 장바를 풀어서 낫으로 한토막을 썩 잘라쥔 그는 《나는 우리 마누랄 뒤산 나무에다 붙들어매두고 오갔소. 이편네두 소용되거들랑 갖다 쓰우.》 하며 남은 장바를 마당 한가운데 내던졌다. 한순간 마당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웅성거리던 말소리도, 근심스러운 표정들까지도 쓸어버린듯 엄숙해졌다.
《자, 보라구, 그래두 썩썩 못 갈텐가.》
마침내 어느 한 장정이 또 이같이 자기 안해를 타이르는 말이 들렸다.
《정말 이러면 우리 도리두 안되갔소.》
이런 말과 함께 어린 손자의 손목을 잡고 섰던 한 로인이 먼저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나섰다.
《이젠 님자두 그만했으면 저분네 따라가라구.》

김첨지의 부드러운 말이였다. 무명실꾸리같이 자그마한 그의 마누라도 더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돌아섰다.

이때 또 연대에서 젊은이가 달려왔다. 놈들이 바로 이리로 달려온다는 것이였다. 말탄 놈이 하나, 조총을 멘 놈이 다섯, 그밖에는 칼과 창을 가진 놈이 스물하난가 둘— 합해서 27～28명쯤 된다고 했다.

36. 잡약산마을의 첫 싸움

마을앞 넓은 마당은 비였다. 룡악산머리에 가로 걸친 구름을 피빛같은 노을로 물들이며 기우는 해살에 마당기슭에 늘어선 버드나무들의 그림자마저 동구앞 큰길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널려있는 수수밭들과 우물도랑 터물받이 논배미들을 덮었을뿐으로 동네안은 자글자글 끓이는듯 한 개우랑별과 침묵과 긴장과 살기만이 가득찼을뿐이였다.

그 한가운데 아직도 홀로 남아있는 서산은 짙은 그림자로 덮인 마을앞의 수수밭들과 그 좌우쪽에 매복해있는 사람들의 살기띤 호흡을 느끼면서 서있었다.

《로장— 서산로장!》

뒤에서 나직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였다. 고충경의 음성이다.

《이제는 로장께서도 뒤산으로 올라가셔야지요.》

동구앞 큰길을 정면으로 내다볼수 있는 초가지붕의 곱새너머로 망건만을 쓴 고충경의 얼굴이 뵈였다. 자기가 지금 어데 있다는것조차 잊은듯이 서있던 서산은 그에게 머리를 끄덕이고 발길을 돌려 뒤산으로 선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동구밖에서 마른벼락을 치는듯 한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졌다. 이집저집의 지붕에서 먼지가 일고 이영이 한모숨씩 거슬러섰다. 또 뒤산중턱에 서있는 큰 나무들의 가지가 분질러지기도 하고 혹은 그 체대에 대못을 박듯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자 메마른 길바닥을 제껴차며 달려오는 말발굽소리와 와— 와— 기세를 올리는 적의 함성이 들렸다. 어느새 동구밖의 큰길은 먼지로 찼다. 자욱한 먼지속에서 벌깃벌깃 불을 뿜는 조총이 또 몰방으로 터졌다. 이번에는 문들을 첩첩히 닫아둔 집들의

앞뒤담에서 먼지가 일고 구멍이 뚫렸다. 요란한 총소리에 눌렸다가 다시 살아나는듯 한 아우성소리와 함께 충천한 먼지속으로 적들의 시커먼 형체가 우뚝우뚝 나타나기 시작했다.

말우에서 긴칼을 빼든자가 먼저 동구안에 들어서자 말을 세우고 마을안을 이끝에서 저끝으로 훑듯이 살폈다. 그자의 얼굴에는 문득 불만과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생소한 마을의 지형을 살피는것이기도 하려니와 그보다도 먼저 그자가 찾는것은 사람이였다. 공포에 떨며 쩔쩔매는 조선사람이 있어야 할것이였다. 또 저희 조총에 단 한둘이라도 쓰러진 시체가 있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시체도 산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말끔히 치워놓은 마을은 오직 고요할뿐이였다. 적들의 얼굴에는 분명히 실망과 또 불안한 기색까지도 떠올랐다.

몇순간 주저하던 적장은 조심조심히 말을 몰아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이때였다. 마당기슭에 치렁치렁 늘어진 버드나무가지사이에서 윙윙거리는 소동에, 쉬파리소리까지도 분명히 들릴만치 가라앉은 정적중에 윙ㅡ소리를 끌며 날아온 한대의 화살이 적장이 탄 말의 동가슴 한복판에 들어박혔다. 말은 소리를 지르며 선자리에서 앞다리를 쳐들고 공중 치솟듯이 일어섰다. 허옇게 드러난 이발로 한두번 허공을 물어뜯자 굳은 땅에 제 몸뚱이를 메치듯이 쓰러졌다. 고충경의 첫 화살이였다. 놈이 활 한바탕안에 들어서기를 기다렸던 그는 일부러 그 말부터 쏜것이였다. 사족으로 땅바닥을 헤적이는 유착한 말배때기에 한쪽다리가 깔리운 적장은 칼을 지팽이삼아 상반신을 일으키며 고함을 질렀다. 부하들에게 구원을 청하는 모양ㅡ 아연했던 적들은 비로소 발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쓰러진 대장앞으로 달려갔다. 이때 또 날아온 두대의 화살이 맨앞의 두놈을 일시에 쓰러뜨렸다. 창을 들었던 놈은 울꾸리에 박힌 살대의 뒤초리를 쥐고 자빠지고 조총을 들었던 놈은 네활개를 펴고 엎어져서 복통에 박혔던 살촉이 잔허리를 꿰뚫었다. 뒤따라오던 군졸들은 주춤했다.

돌아서서 내빼는자도 있었다. 그중의 한놈의 머리가 떨어져 먼지속에 굴렀다. 저희 군졸의 목을 찍은자는 피흐르는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적들은 넓은 마당기슭으로 산개했다. 그동안에 조총수가 또 한놈 쓰러졌다.

우리 궁수들은 먼저 적의 조총수들을 노리였다. 이때 버드나무쪽으로

달려가는 조총수들은 활 한바탕거리로는 좀 멀었다. 그러나 원체 궁력이 강하고 겨냥이 바른 고충경의 화살은 그놈의 뒤더수기의 급소를 맞혔던것이다.

단 몇순간동안이지만 이때까지는 접전마당이라고 할수 없을만치 조용했다. 활시위소리를 따라 쓰러지는 적들의 외마디비명과 저희 부하들을 꾸짖는 적괴의 소리뿐이였다. 마침내 적들은 조총질을 시작했다. 큰 버드나무를 하나씩 안고 앉은 조총수들은 화살이 날아오는 지붕에 대고 불질을 시작했다. 산개했던 적들은 저희 조총질에 지붕에서 날아오던 화살이 잠시 멎은 틈을 타서 그 집들을 에워싸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전에 마당 한가운데 쓰러졌던 적장의 머리가 떨어졌다. 간신히 다리를 빼낸 적장이 비척거리며 달아나려고 할 때 이편 집모퉁이에서 달려나온 법근이가 한칼에 베였다. 이때 또 달려나온 차돌이는 마당 한가운데 어푸러져있는 놈의 손에서 조총을 채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저편 집모퉁이에서는 동금강암 젊은 중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 그들뒤에는 륙모로 깎은 참나무짝지들을 가진 십여명의 중들이 달려나왔다. 곧 혼전란투가 시작되였다. 그중의 법근이와 그의 동무중은 보는 눈이 현혹할만치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뛰놀았다. 달려드는 적이 많아서 좀만 틈을 주면 놈들의 창칼에 묻혀버릴는지 모른다. 임욱경이의 말로써 놈들의 멱을 따려는만치 칼을 치켜든 놈들이 앙큼하게 덤벼들 짬수를 노리노라 주춤거리는 동안에 이편에서는 우선 한바탕 선손을 쓰고볼판이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넘나들다가 혹은 검 하나로 제 한몸을 휘감아서 마치 은두겁을 한 큰 팽이같이 돌기도 하는 법근이의 칼에 벌써 두놈이 쓰러졌다.

마당 한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지자 이쪽 버드나무밑에서도 결투가 일어났다.

짙은 버드나무그림자로 덮인 수수밭고랑에서 청초무더기를 쓰고 엎드려서 마당쪽을 엿보고있던 젊은 봉군 오장이 옆에 있는 김첨지에게 속삭였다.

《둘이서 저놈 하나 때려잡지 못하갔소?》

가리킨것은 바로 이십여이랑의 수수대사이로 내다보이는 적의 조총수였다. 버드나무밑에 붙어앉아서 이편으로 등을 돌려대고있는 그놈은 방금 불질한 총에다 또 장약을 하는중이였다.

《조총가진 놈을?》

김첨지는 낫을 들었을뿐이다.

《조총이라두 장약을 채 하기 전에야 쇠부지깨 아니갔소.》

이런 말과 함께 젊은 봉군은 창을 들고 청초속에서 뛰여나갔다. 김첨지도 따라나갔다. 어느새 수수밭을 벗어났는지 모른다. 이제 여라문발자국만 달려가면 창으로 찌르거나 낫으로 내려찍을 판이다. 그러나 바로 귀전에서 터지는듯 한 조총소리와 함께 한걸음 앞섰던 젊은 봉군이 《앗.》 소리를 지르며 두팔을 쳐들고 핑그르르 돌다가 쓰러진다. 저편 버드나무밑에서 먼저 장약을 했던 놈이 이편으로 돌려대고 쏜것이다. 김첨지는 한걸음 주춤했다. 그러나 눈앞에 쓰러진 봉군의 가슴이 금시 시뻘겋게 젖는것을 본 김첨지는 저도 모르게 《에익, 이놈아―》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며 낫을 둘러메고 내달렸다. 장약을 하다말고 이편을 돌아보던 놈은 쏠수 없는 총을 꺼꾸로 잡고 대들었다.

이편의 낫보다 그놈의 총대가 길었다. 김첨지는 미처 손쓸새가 없었다. 먼저 제 머리를 겨누고 내려치는 놈의 총대를 두손으로 받아쥐여야 했다. 엉겁결에 맞잡은 총대를 몇번 밀고당기던 김첨지가 발앞에 떨어진 낫에 눈이 팔린 순간 놈이 나꾸채는 바람에 꼬꾸라지듯 총대를 따라 몸이 숙었다. 그러자 놈이 제 등뒤의 버드나무에 뒤더수기를 짓찧으며 기대서는것을 본 김첨지는 허덕이는 소리로 《이놈아! 이놈아!》 소리를 지르며 그놈의 명치끝에 닿은 총부리를 죽신죽신 밀었다. 금시 창자가 쏠어나오듯이 입을 딱딱 벌리는 놈은 그래도 제 허리띠에 찌른 칼자루를 더듬었다. 그러나 칼을 뽑기 전에 먼저 혀를 빼고 총대우에 까부라졌다. 단 몇순간의 일이였다.

이동안에 김첨지는 몰랐지만 봉수대에서는 뚜― 길게 웨치듯 하는 천아성이 울렸고 그러자 마을 앞, 좌우에서는 일시에 와― 함성이 일어났다. 도끼를 둘러메고 벽력같은 고함을 지르면서 수수밭속으로부터 달려나온 전주복이를 비롯하여 저쪽에서는 황서방, 이쪽에서는 박서방이 각각 십여명씩의 장정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넓은 마당을 에워싸고 달려들었다. 그 기세에 우선 김첨지를 노리고 달려가던 적의 둘째 괴수놈이 돌아서고 또 아직도 버드나무밑에 남아있던 조총수 두놈이 자리를 떴다.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든 우리 장정들은 이때 더욱더 날랜 솜씨로 검을 휘두르고 있는 법근이와 그의 동무중들을 둘러싸고 덤비는 적들을 낫으로 후리고 도끼로 내려패기 시작했다. 등뒤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함성에 놀랜 적들

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드는데 당황했다. 저희 대장이 선참으로 꺼꾸러지고 또 크게 믿어온 조총수들이 다음다음으로 쓰러지는데 이미 기가 꺾였던 적들은 더욱 황겁했다.

이때 적의 둘째 괴수는 접전마당을 벗어나 마을 뒤산으로 올라붙었다. 자리를 뜨지 않을수 없이 된 두 조총수를 데리고 뒤산으로 올라가서 지붕우에 있는 우리 궁수들을 없애버리고 높은데서 조총질을 하며 싸움을 돋우어볼 작정이였다. 마을 저쪽기슭을 에둘러온 적괴는 숲속으로 접어들면서 벌써 몇번째 뒤를 돌아보았으나 따라오라고 했던 조총수들은 보이지 않았다. 노리고 왔던 지붕에도 고마인궁수들은 없었다.

먼지가 충천한 마을안에서는 여전히 함성과 함께 소란한 발소리들이 들린다. 좀더 높은데서 궁수들이 따라오는가를 보려고 올라가던 적괴는 어데선가 인기척이 나는듯 해서 주춤하고 귀를 기울였다. 중턱에 누가 있는것 같았다. 적괴는 《딴은 그렇지!》 하고 중얼거렸다. 좀전에 고마인의 매복을 불러일으킨 천아성은 분명히 이 산마루에서 울렸다.

《필시 이 산상에는 고마인민병들의 대장이 있을게다.》

또 이렇게 중얼거린 적괴는 걸음을 재촉했다.

나무숲이 거의 끝나자 령마루가 쳐다보일만 한 때 문득 뭐라고 웨치는듯 한 사람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한그루의 큰 도토리나무밑에 흘러내린 괴춤우로 배꼽을 드러내놓고 입에다 한손가락을 빗문 한 어린 놈이 쿨쩍쿨쩍 울고있었다. 고마인의 아이가 분명했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씽긋 웃은 사무라이는 그앞으로 다가섰다.

《오마안-》

작은칠성이는 울음만 웨치면서 본능적으로 도토리나무뒤로 피해섰다. 다섯살짜리 어린 놈이지만 제앞으로 다가드는것이 흉악한 적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오마니이-》

어린 놈은 드러내놓은 배속에서 짜내는듯 한 소리로 연해 불렀다. 작은칠성이는 낮부터 어른들이 세간을 묻기도 하고 움막을 짓기도 하는 산에서 놀고있었다. 천아성이 울리자 산에서 내려가는 사람들과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숲속에 퍼져 서로 엇갈리고 붐비는통에 어린 놈은 어머니와 형을 찾느라고 왔다갔다 헤매였다. 그런중에 마을로 달려가던 웬 사람이 이제 어른들이 올라올테니 내려가지 말고있다가 같이 가라고 했다.

문득 벼락을 치는듯 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마을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저도 역시 사람이 가는데로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올라가기는 하면서도 역시 어머니와 형을 찾느라 두리번거리고 혹은 돌아서서 불러보기도 하는 동안에 어느덧 사람들은 다 없어졌다. 그래도 오지 않는 어머니와 형은 아직도 그냥 마을에 있는것만 같아서 망설이게 된 어린것은 혼자 울고있었다.

사무라이는 또 《오만ㅡ》을 부르면서 도토리나무의 굵은 원체와 그 밑둥에서 뻗은 곁가지사이로 눈물에 얼룩진 얼굴을 들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어린것을 겨누고 긴칼을 한번 내리쳤다.

그러나 다시 《오마안ㅡ》을 부르는 어린것이 이번에는 짧은 두팔로 아름이 버으는 나무의 원체를 쓸어안으며 소리쳐 울었다. 그 조그만 손끝에서는 피가 뿜었다. 원체로부터 물러나듯이 넘어지는 곁가지와 함께 그 애의 한쪽손가락이 거의다 떨어진것이였다. 일도량단의 쾌감을 못 본 살인귀는 먹을것을 다투는 승냥이같이 사려문 이를 허옇게 드러낸 입가에 잔악한 웃음을 흘리면서 도토리나무뒤로 돌아가려고 했다. 제 칼날아래서 떨며 우는 어린것을 굽어보며 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사무라이는 문득 무엇에 찔린듯이 주춤하고 서서 놀랜 눈을 들었다. 귀청이 쨍 울리는 일갈로써 꾸짖는듯 한 한마디 고함소리가 들렸던것이다.

쳐다보는 산마루에서 수묵색장삼자락과 붉은 가사를 가볍게 펄럭이며 한 로승이 여섯개 주석고리가 쟁그렁거리는 륙환장을 가분가분 옮겨짚으며 내려오는것이 보인다. 로승은 분명히 이쪽을 향하여 걸어오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앞에 누가 있는지 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통 모르는것 같기도 했다.

도토리나무앞으로 내려온 로승은 허리를 굽혀서 작은칠성이를 한손으로 끌어안고 다시 일어섰다.

로승의 목을 얼싸안은 어린것은 목을 놓아 울었다. 몇순간을 멍청해섰던 사무라이는 비로소 발걸음을 떼여 로승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새롭게 악이 올랐다. 한낱 늙은 중의 그렇듯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에 기가 눌렸달가, 어쨌든 한동안 멍청했던 제자신이 우선 괘씸해진 사무라이는 이번에야말로 둘을 한꺼번에 요정낼 욕심으로 발장이 뜰만치 장검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남달리 긴칼이지만 도저히 미칠수 없는 거리가 생겼다. 로승이

뒤로 물러서서 그런것은 아니다. 로승은 단지 바른손에 들었던 선장을 가볍게 앞으로 내댔을뿐이다.

사무라이는 《아차!》 했다. 칼을 너무 치켜들었다. 버쩍 치켜든 두팔죽지아래는 빈틈여부가 없이 전신이 통 허한것을 느꼈다. 허한중에도 그 한가운데인 제 명문을 로승의 선장끝이 바로 겨누고있다. 선장끝이 그렇게 날카로운것이 아니나 명문을 한번 내질리우면 기절할는지 모른다. 이제 누가 먼저 손을 쓰는가? 우선 정신력의 승부가 끝난 후에야 누구든지 선손을 쓰게 될 판이다.

사무라이는 로승의 눈을 건너다보았다. 역시 담담한 표정인 로승의 은실같이 드리운 눈섭밑의 눈은 무척 서늘해보이기도 하고 혹은 또 《꼼짝말아.》 하고 불호령을 하는듯도 했다. 검을 치켜든채 이마에서 진땀이 흐르는 사무라이의 호흡은 절박해졌다. 이때였다. 윙— 소리와 함께 날아온 돌이 그자의 뺨에 들어맞았다. 뒤뚝, 한편으로 기운 사무라이는 장검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돌질이 멀었던탓으로 오히려 그 충격에 정신이 든듯 한 사무라이는 로승과 맞옭았던 시선이 흐트러지는 틈을 타서 숲속으로 뛰여들었다. 고함을 지르며 달려온 차돌이가 연해 돌질을 하며 숲속으로 따라들어갔다.

한편 법근이옆에서 싸우던 젊은 중이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이제는 법근이한테로 달려드는 놈들이 더욱 많았다. 《관세음!》 소리와 함께 또 한놈을 베인 법근이의 한쪽입귀에서는 피가 줄기져 흘러내렸다.

《법근아, 넌 좀 비껴라.》 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피묻은 도끼를 든 주복이가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그 짬에 법근이는 피에 젖은 흙을 한줌 쥐여 입에 넣고 씹었다. (지나치게 기운을 써서 내장의 피줄이 끊어진 때는 흙을 집어먹어야 한다는 풍습이 있었다.)

그동안에 여러놈의 칼날을 막노라 휘두르던 주복이의 도끼날이 내려졌다. 어느 놈의 칼에 자루가 끊기였다. 맨손이 된 주복이는 옳다구나! 하고 덤벼드는 모양인 적들중의 맨앞의 놈의 중동을 걷어찼다. 자빠지는 그놈이 안기는 바람에 그뒤의 놈의 머리가 걸핏 숙었다. 배지기를 들고 꼭두를 집어내던 솜씨로 재빨리 나간 주복이의 손이 그놈의 상투를 거머쥐였다. 팔뚝을 한번 내두르자 상투를 꺼들린 놈의 발이 떴다. 네활개를 뻗고 후루메자락이 박쥐날개같이 펴져서 허궁 떠돌기 시작한 놈의 팔다리에 벌써 몇놈이 얻어지고 자빠졌다. 떠도는 놈이 저희 놈이라 칼질을 못하게

된 적들은 뭐라고 떠들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내빼는 놈도 있었다. 흩어져 달아나던 적들은 련주전으로 쏘는 우리 궁수들의 화살에 쓰러졌다.

벌써 지붕에서 내려왔던 고충경과 젊은 중은 적의 조총수들이 자리를 뜨자 단살에 쓰러뜨리고 지금은 마을 좌우기슭으로 갈라서서 활질을 시작했다. 그들의 화살은 동떨어져 달아나는 놈들뿐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람들과 겨루고있는 놈들까지도 하나씩 찍어내듯이 쓰러뜨렸다.

한편 상투를 꺼든 적으로써 적들을 후리치며 동구앞까지 달려간 주복이의 저자신 팽이돌듯 하며 휘두르던 팔뚝이 문득 허전해졌다. 순간 마당기슭에 있는 터물받이 논배미 한가운데에서 철—썩 소리가 났다. 네활개를 펴고 떠돌던 놈이 훌쩍 날듯이 나떴다가 벼포기속에 머리를 처박고 무논판에 판박히듯이 떨어지고 주복이의 손에는 상투만이 남았다. 주복이는 다시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가서 적이 떨어뜨린 긴칼을 하나 집어들고 남은 적앞으로 달려갔다. 이때는 벌써 《여기 한놈 된다.》, 《저놈 잡아라.》, 《성안으루 들어가지 못하두룩 막아라.》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달아빼는 적들을 추격해서 이리저리 내닫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마당에는 뛸수도 없이 상한 적이 몇놈 남았을뿐이였다.

37. 복수의 칼을!

잡약산마을의 첫 싸움은 적의 전멸로써 끝났다.

그러나 처치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적의 시체의 수효로 보아 몇놈을 놓친것이 판명되였다. 그중의 하나는 작은칠성이의 손가락을 끊고 달아난 적의 둘째 대장이였다. 차돌이랑 따라갔으나 아직도 잡았다는 소식이 없다. 그외에도 달아난 놈이 한둘은 더 있을 모양이였다.

접전이 끝나자 뒤처리할 사람을 내놓고는 몇명씩 패를 갈라 부근일대를 샅샅이 뒤지기로 했다. 뒤처리는 우선 우리 부상자들을 구호하는것이였다. 바른쪽어깨에 상처를 입은 젊은 중과 한쪽손가락이 뭉청 떨어진 작은칠성이외에도 중경상자가 7～8명 있었다. 왜놈의 조총에 쓰러진 젊은 봉군 오장은 그 즉석에서 절명하였다.

그는 이번 첫 접전에서 전사했으나 그가 마지막으로 김첨지에게 말한 즉

《아무리 조총이라두 장약을 채 하기 전에야 쇠부지깨 아니갔소.》 한것은 이후에 왜놈들과 싸우는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것이다.
다음으로 시급한것은 서장대앞에까지 복로군을 잠복시켜야 했다. 밤에는 비록 달이 있더라도 봉수대에서 살피는것만으로는 안심할수 없으므로 복로군을 두어서 보통벌에 출몰하는 적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다음에는 마을안을 정돈하는 일이였다. 총탄에 거슬러선 이영을 고르어놓고, 담벽에 뚫린 구멍들을 막고, 마당의 피흔적을 없애고, 쓰러진 벼포기와 수수대까지도 바로세울수 있는것은 세우고 그렇지 못한것은 아주 없애버림으로써 마치 이 마을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것 같이 하는 일이였다. 그뿐아니라 집집의 문짝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뒤산 숲속으로 떠옮겼다. 단지 이집저집 부엌에 간장을 칠해서 새빨갛게 녹이 쓴 솥만을 한둘씩 남겨두었을뿐 그래서 이 마을은 이미 사람들이 없어진지 오랜것 같이 만들었다.
여기서 달아난 적들이 설혹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성안의 놈들은 이 방향으로 출동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저의 군사들의 소식이 궁금해서라도 다시 나올것이다. 그런 경우에 만일 적이 마을의 집들을 불사르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이편에서는 적이 많거나 적거나 종적을 감추고있을 작정이였다.
마을안에서 로인들과 녀인들이 그런 일을 하노라 한창 바쁜 때 뒤산 숲속에서는 한가지 애달픈 일이 생겼다. 작은칠성이가 경풍을 일으킨채 깨나지 못했다. 하도 놀라고 또 피를 많이 흘린 작은칠성이는 서산이 안겨주는 제 어머니의 품안에 안기자 한번 크게 소리쳐 울고는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까무라쳤다. 서산이 그 당장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다 해보았으나 종시 피여나지 못하고말았다.
날이 저물었다. 이때 마을에서도 한가지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젊은 아낙네 몇이가 마을앞 수수밭에서 부러진 수수대를 베내기도 하고 우리 매복들이 쓰고있던 청초무더기들을 거두기도 하던 낫끝에 왜놈 하나가 드러났다. 정갱이가 부러져 더 달아나지 못하고 밭속으로 기여들어가 풀을 쓰고 숨었던 그자는 제앞에 낫을 들고 서있는 녀인에게 두손을 모으고 수없이 머리를 조아릴뿐이였다. 하도 뜻밖이라 처음에는 미처 소리를 지를수도 없을만치 놀랐던 젊은 녀인은 드디여 낫자루로 꾸벅거리는 그놈의 머리를 내려패면서 사람들을 불렀다.
달아난 적의 종적을 찾아나섰던 사람들중의 한패가 서쪽으로 몇고개 넘

은 산속을 다 수탐하고나서 막 큰길로 내려서려는 때였다. 늦게 떠오르기 시작한 달빛에 어렴풋이 드러난 큰길 한끝이 서쪽으로 휘돌아간 산모퉁이에서 비명을 지르는듯 한 사람의 소리가 났다. 알아들을수 없는 말이지만 분명히 울부짖는 왜놈의 소리였다. 차차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이리로 오는것이 분명했다.

길을 건너 맞은 산으로 오르려던 장정들은 길가 숲속에 숨어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글쎄 제발 그러지 말라구야. 안돼, 글쎄 안된다는데두 그런다.》 하는 우리 사람의 말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퍽 부드러운 소리로 누구를 타이르는듯도 한 말투였다.

《…네놈들의 수작을 알아듣지는 못하갔다 해두 봐하니 필시 우리더러 용서해달라는 모양인데 안돼. 너희두 내 말을 못 알아듣갔지만 좀 생각을 해봐라. …》

이런 말소리가 더욱더 가까와지며 저편 산모퉁이로부터 우걱지걱 길마소리를 내면서 소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다음으로 우뚝우뚝 늘어선 사람들의 희끄무레한 륜곽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글쎄 너의 나라에선들 할 일이 뭐이 없어서 그 먼 우리 나라루 일삼아 사람을 죽이러 온단 말이가. 네놈들두 아마 숱한 우리 사람을 죽였을게다. 필경 지금두 우리 사람들을 죽이다가 도망해왔을게다. 안돼, 글쎄 암만 손이 발이 되두룩 빌어두 안돼. 우린 정말 용서 못한다. 글쎄 생각을 좀 해봐라. 너희놈들 손에 부모, 동생이 죽구, 처자식을 잃구, 집은 불타구 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갔니? 응, 이놈들아! 그런데 너흰 우리더러 살려달라구? 어림없다. 암만 싹싹 빌어두 소용없어. 아! 그러다 상투가 빠지든지, 모가지가 빠지든 해서 툴렁 떨어질라. 그래, 어서 서루 어깨를 끌어안구 가만들 있가라.》

이런 말소리와 함께 가까이 오는 소잔등에는 길마꼭대기에서 좌우로 축 늘어지게 붙들어맨 두 왜놈의 모양이 뵈였다. 상투를 맞잡아매서 이쪽저쪽에 갈라 걸치운 두 왜놈은 더 지쳐내리지 않도록 서로 팔을 뻗어서 길마너머로 피차의 겨드랑이를 끌어안고 매달려오는중이였다.

《거 돈서방 아니요?》

길가 숲속에 들어앉았던 장정 한사람이 소리치며 나섰다. 긴 사설을 하며 소궁둥이에 채찍질을 하며 오는 사람은 과연 돈정신이였다.

엊그제 전주복이네 소를 빌려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던 돈정신은

서해변 한천근처로 갔던것이다. 가서 그는 어렵지 않게 방 한칸을 얻어서 가족들을 안접시킬수 있었다. 먼저 피란나간 사람들한테서 사창고가 터지고 평양거리에 간장탕수가 났더라는 소문을 들어온 그곳 사람들은 방금 평양서 나왔다는 돈정신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여왔다. 그들중에는 지금 보통벌 어느 동네에는 왜군과 싸우려는 장사호걸들이 모여든다는데 정말인가? 묻는 사람도 있었다. 마침 장날이라고 생각한 돈정신은 자기가 바로 그 동네서 왔다는것과 아닌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을에는 서산이라는 나많은 도승을 비롯하여 활 잘 쏘는 선비, 검 잘쓰는 중도 있고, 씨름 잘하고 주머구 센 농사군도 있고, 역시 농사군으로 아직 애숭이기는 하나 돌질 잘하는 석전군도 있고 그밖에도 제 앞채기는 다하는 장정들이 백여명 모여들었다는것과 그중에는 서산대사가 시켜서 평양성안에 간장탕수를 낼 때 혹시 대문이 걸려있는 집이 있으면 담장을 훌쩍 뛰여넘어가서 장독들을 부신 돈정신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라고 말한 돈정신은 제가 몸이 날쌔기로는 누구한테 지지 않게 날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잡약산에 모인 장사호걸들에 대면 내노라고 할것도 못된다고도 했다. 이런 돈정신의 말은 자기 겸양을 하면서도 허풍을 떨었다고도 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허풍은 그리 죄될것도, 해로울것도 없는 허풍이였다. 일왈 그런 이야기로써 자기 가족들을 안정시킬 집 한칸을 쉽게 얻을수 있었다. 돈정신이 여느 소금장사가 아니라 왜군과 싸우려는 장사의 한사람인것을 안 그곳 사람들은 저마다 방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뿐아니라 젊은이들중에는 왜군과 싸울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돈정신을 따라나선 사람이 5～6명이나 있었다. 지금 함께 오는 사람들이 그들이였다. 그렇게 작반이 되여 오던 길에 여기서 한 3리밖에 있는 마을 뒤고개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왜놈들을 붙든것이였다. 아직 달이 안 떠서 어두웠다. 막 고개마루에 올라섰을 때 길에서 얼마 멀지 않은 산비탈중턱에 서있는 큰 바위뒤에서 지껄이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였다. 이상한 말소리에 《혹시?》하는 생각이 든 돈정신과 젊은이들은 좌우편으로 바위를 에둘러 숲속으로 숨어가며 산비탈로 올리붙었다. 과연 시커먼 두 왜놈이 있었다. 두놈중의 한쪽어깨가 상한자는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는 상처를 보이면서 저의 대장인듯 한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저를 버리지 말고 데려가달라고 울며 애걸하는 모양이였고 붙들린 두목은 옷자락을 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빼든 짤막한 칼로써

위협하는 꼴이였다.
그자의 뺨에서도 피가 흐르고있었다. 돈정신이 먼저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고 연해 돌을 던지면서 앞으로 달려나갔다. 뒤이어 젊은이들도 고함을 지르며 몽둥이들을 둘러메고 달려나왔다. 애걸하던 놈은 달아날 생의도 못했다. 그놈을 앉은자리에서 붙들어놓은 돈정신과 젊은이들은 달아나는 두목놈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도망하는 놈은 결사적으로 달렸지만 돈정신의 걸음을 당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돈정신은 곧 따라잡으려고는 안했다. 칼을 빼든 놈이 돌아서서 대들 념려가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장바 한기장쯤 앞세워놓고 놈이 기진맥진해서 제풀에 주저앉을 때까지 길이면 길, 산이면 산, 벌판이면 벌판으로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혹시 놈이 칼을 휘두르며 돌아설 때에는 또 그만치 물러서기도 했다. 말하자면 따라다녔다기보다도 놈이 뽕이 빠져서 저 혼자 쓰러지도록 뛰고 달리게만 했던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다시 뒤산으로 모여왔다. 봉수대밑에는 붙들려온 두 왜놈이 꿇어앉아있었다.
산너머에서 칠성이 어머니가 보패와 차돌이 어머니에게 부축되여왔다. 봉수대밑에까지 온 칠성이 어머니는 풀썩 주저앉아서 앉은걸음으로 두놈앞으로 다가들면서 목이 꽉 멘 소리로 웨쳤다.
《칼! 칼을 줘요.》
앞에 둘러선 사람들을 쳐다보는 녀인의 눈은 애원하는듯도 했다. 머리태는 뒤로 흐트러졌다. 자기 품속에서 숨이 끊어진 어린 자식을 빼앗기듯 떼놓자 저 역시 몇번 기절했던 녀인은 기운이 없었다. 그러나 《칼, 칼을…》 하고 칼을 찾는 작은칠성이 어머니는 앉은걸음으로 더욱더 원쑤앞에 다가들었다. 둘러선 사람들 틈에서 전주복이가 들고있던 긴칼을 뽑아가지고 나와서 녀인의 손에 들려주었다.
《아주마니, 용쉐다.》
이런 한마디를 하고 손에 빈 칼집만이 남은것을 팽개칠것인가 혹은 그냥 들고있어야 하는것인가? 모르겠다는듯이 이손저손에 옮겨쥐다가 《맘을 독하게 먹으소. 밤낮 의젓하기만 하갔소.》 또 이런 말을 하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마침 구름밖으로 나온 달빛에 녀인의 손에 들린 긴 칼날은 퍼렇게 번쩍이였다. 그러나 칼을 잡은 칠성이 어머니의 팔은 후들후들 떨리기만 했다.

《저 볼편에서 피가 나는 놈이웨다.》
아까 싸움이 시작된 마당에서 거둔 왜군의 조총 한자루를 들고 한편에 서있던 차돌이가 찌를 놈을 가리켰다. 칠성이 어머니는 그 적괴의 얼굴을 원한과 고통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역시 그의 손은 떨릴뿐이였다. 둘러선 사람들은 다음순간을 기다릴뿐 더 말이 없었다. 이때 그 등뒤에 서있던 서산이 선장을 왼손에 옮겨쥐고 허리를 굽혀 녀인이 잡고있는 칼자루를 같이 잡아서 적괴의 앞가슴을 겨누었다. 사람들은 숨까지도 삼킬듯이 긴장하고 엄숙해졌다. 앞에 꿇어앉은 두 왜놈은 뭐라고 울부짖기도 하고 머리를 조아려 애원하기도 했다.
《스님, 스님께서 이 웬 일이시오니까?》
서산의 등뒤에 서있던 편석대사가 꼬꾸라지듯이 꿇어앉으며 서산의 장삼소매를 붙들었다.
《스님! 대선사스님께서 살생을 하시다니— 이 어찌하시는 일이오니까? 이런 비불사도가 또 있사오리까. <남무…>, <관세음…> 스님께서 손수 흉기를 잡으시다니! 스님손에 중생의 피를 묻히시다니…》
이러한 편석대사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이건 정말 누더기중이댔구먼.》 하며 그의 장삼고두리를 끼들어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 엊그제밤에 《함지가 련꽃같다.》는 이야기를 한 황서방이였다.
《작은칠성아—》
문득 웨쳐부르며 칠성이 어머니는 또 목놓아 울었다.
《이것이 어째서 살생이겠소?》
이때 피가 흐르는 칼을 놓고 다시 일어서는 서산이 말했다. 달빛에 푸르게 빛나는 눈으로 편석대사를 굽어보며 그는 말했다.
《설사 살생이란들 어째서 비불사도의 살생이겠소? 지금 내 남편의 원쑤를 갚아달라! 내 자식의 원쑤를 갚게 해달라고 웨치는 사람이 어째 여기있는 이 보살님(중들은 녀인을 존대해서 이렇게 부른다.) 한분뿐이겠소. 그러한 웨침은 지금 이 땅에 차고넘친 우리 조선백성의 부르짖음이 아니겠소. 만일 이러한 우리 동족들의 념원의 소리를 못 듣는다면 이 내나 편석사주(중들이 자기 제자를 대접해 부르는 말), 나를 막론하고 어찌이 땅에서 생을 누리는 조선사람이겠소.》
잠시 말을 끊었다가 《편석사주는 지금이라도 곧 산으로 들어가시오. 사주 같은 사람은 여기서 할 일이 없을것이외다.》 또 이런 말을 하는 로

승의 눈에는 한방울 눈물이 빛났다. 앞에 둘러섰던 사람들은 모두 숙연했다. 이때 사람들은 박수를 하거나 《옳소!》 소리를 지를줄은 몰랐다. 감격할수록 두 손길을 맞잡아 읍하고 머리를 숙일뿐이였다.

《좌중에 통할 말씀이 있쉐다.》

얼마후에 이런 말이 들렸다. 저만치 사람들뒤에 서있던 로농 김첨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돈서방의 말이 오늘래일중으로 떠놓구 비가 온다구 합네다. 돈서방은 제 잠뱅이가 비올걸 안답네다. 서슬밴 잠뱅이가 눅눅해지면 떠놓구 비가 온다구 내길 해두 좋다구 장담을 하는데 정말 비가 오면야 좀 반가운 일이웨이까!》

김첨지의 말을 반갑게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비의 싹을 맞으려는듯이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김첨지는 또 말을 이었다.

《비가 오리라는 말에 나는 다시 생기가 나는것 같쉐다. 내놓구 말이지 아까는 엉겁결에 왜놈 한놈을 때려잡기는 하구두… 그래서 그까짓 놈들 막상 맞다들구보면 무서울건 없어두 그놈이 빼물었던 혀때기랑이 눈에 보여서 오금이 복닥한게 몸살이 나는것 갈더니…》

와— 웃음이 터졌다.

《아니, 정말이웨다.》

《아주바니가 너무 정말을 하는것 같애서 웃소.》

《늙은이가 그렇기두 쉽지요.》

사람들은 또 웃었다.

《난 정말 비가 와서 저 여우리판에다 물을 잡구 김맬 생각을 하니 금시 몸이 거뜬해지는것 같쉐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부터는 그 의논들을 좀 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웨다.》

이러한 김첨지의 발론으로써 의논이 시작되였다.

× ×

과연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 이튿날부터 시작한 비는 7월 그믐까지 계속 왔다.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한달 반동안이나 계속한 장마는 적

아간의 군사행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것이다. 앞으로도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때 명나라에서 파견했던 첫 후원군이 7월에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원인을 전부 그 장마때문이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중에도 그때 나왔던 명군의 대장 조승훈 같은 사람은 평양성밖에는 모두가 다 논판이므로 오랜 장마에 땅이 무솔아서 인마의 발이 빠지기때문에 군사행동이 임의롭지 못했다는것으로써 실패의 원인을 말했다.

그만치 비도 비려니와 또한 보통벌에는 논이 많았다. 물론 밭도 있었지만 이때는 조, 수수 같은 전곡은 이미 김이 다 끝났었고 벼농사도 대개가 여우리판이라 건판으로 두벌김까지는 다 맸던것이였다. 지난 열하루날 초복에는 초복물을 낸다는 흉내만 내고말았던 비가 지금 중복을 며칠 앞두고 오기 시작했으므로 농민들은 기다리던 비를 맞아가며 세벌, 네벌째의 논김으로 들어섰다. 더우기 보통벌에서는 쏟아지는 비를 연막으로 리용해가면서 논김을 매기 시작했다. 또 이때 마침 서산의 편지를 받은 묘향산일대와 그 주변의 중 일천 오륙백명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거의가 다 농민출신이였으므로 저마다 발벗고 논판으로 들어섰다. 일을 할 때는 먼저 보통문과 칠성문근처에 복로군을 잠복시켜서 드나드는 적정을 살피게 했다. 일본군이 소부대로 습격해오는 경우에는 맞아서 싸울만 한 준비도 갖추었다. 묘향산에서 나온 중들중에는 병장기라고 할것은 못되더라도 큰 장도나 짧은 철퇴 같은것을 지니고 온 사람이 많았고 또 이번 잡약산마을싸움에서 로획한 적의 무기도 적지 않았으므로 이곳 농군들중에도 대개는 칼, 창 같은것을 하나씩 가지고 논판에 들어섰다. 병장기가 차례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낫과 도끼를 허리띠에 찔렀다. 그러나 막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적과의 충돌을 피하기로 했다. 더우기 벌판에서는 적과 맞다들지 않기로 했다. 적이 쓸어나오면 곧 가까운 산속으로 흩어져들어가서 적이 모르는 골짜기와 숲속에 잠복했다가 기습을 하기로 했다. 그뿐아니라 우선 적의 주목을 끌지부터 않기 위해서 한논판에 많은 사람이 들어서지 않고 넓은 논벌에 분산해서 일을 했다.

물잡은 여우리판의 세벌, 네벌김은 손이 덜 가고 일이 빠르기도 했다. 건판으로 맬 때는 호미로 긁고 손으로 뜯어야 하지만 물을 잡은 후에는 이랑사이에 들어서서 한발로 풀을 밀어가며 뒤의 발로 눌러 묻느니만치 어둑어둑한 새벽부터도 할수 있고 또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할수 있는 일이였다. 오히려 비가 많이 오는 때일수록 물안개 자욱한

때를 타서 성밀가까이까지도 가서 일할수 있었다. 즉 비를 연막으로 리용할수도 있었다.

38. 리순신장군앞에 제압된 소서행장

오늘도 역시 비가 온다.

평양성을 점령한 일본침략군의 선봉장 소서행장이 련광정에서 련일 그쳐본적이 없는 락수물과 비발을 사이에 두고 대동강의 붉은 탁류를 내려다보고있은지 벌써 20여일째다. 그는 지금 혼자서 련광정안을 왔다갔다 거닐고있었다.

《여(나)는 심기 자못 불편하다. 아아, 약약하기란! 에이, 똥같으니!》

그는 혼자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소서행장의 이러한 독백중의 그 첫말과 마지막말은 딴 사람의 말이나 같이 격조가 전연 다른만치 혹여 독자들중에는 그렇게 격조를 뚝 떨어뜨린 마지막말을 할 때의 그는 즉 일본군 선봉장 소서행장은 필시 쓴웃음이라도 웃고 또 활활 부채질이라도 해가면서 거닐었을것이라고 상상할이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대였다. 만일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는 누가 있다면 그는 곧 칼을 빼기라도 할만치 눈에는 살기가 있었다. 지금 그의 말중에 《여는…》하고 운운한 첫 말투는 그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는 하나 그리 익숙치 못한 한문투의 말로서 자기가 위의를 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빌어서 쓰는 말이였고, 실은 그 마지막말이 지금 그의 자포자기적인 약약한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할수 있는 《쿠소》라는 자기네의 말이였다. 궂은 장마비가 계속하면 할수록 소서행장이 련발하는 《쿠소》는 더욱더 잦았다.

《뭣이? 현소? 현소라구? 음, 들여보내라. 그리구 이봐… 아니, 저 다른자는 누구든지 들이지 말라는 말이다.》

마루문턱밖의 돌층계에 꿇어엎드려서 연통하는 부하에게 이런 분부를 내린 소서행장은 서성거리다말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옷깃을 여미고 앉음새를 바로하고 다시금 신변을 살핀 그는 《여는 자못…》 또 한번 이렇게 중얼거리다말았다. 그에게는 당장 또 적지 않게 불쾌한 일이 하나 있었다. 자기 등뒤에 있어야 할 금병풍이 없었다.

아침마다 상투밑까지 파랗게 밀어서 더욱 길고 날카롭게 보이는 스스로 단아하다고 믿는 얼굴을 오연히 쳐들고 큰 순색 금병풍을 배경으로 여러개 포개놓은 비단방석우에 마치 련화대에 안치한 불상이나 같이 단정히 앉아서 손님이나 부하들을 불러보는것이 그의 오래전부터의 습관이였다. 그러나 며칠전에 그 금병풍이 오랜 장마에 누져서 한쪽귀때기가 서리맞은 련잎같이 축 늘어졌다. 이 전선에 표구사까지는 데려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현신한다는 중 현소가 해본다고 몇번 붙여보다 못해 인두를 구해다가 누르기까지 했으나 결국 걷어치울수밖에 없었다.

방금 현소 이외의 다른자는 들이지 말라고 한것은 꼬집어한 말은 아니나 어제 밤에 한성서 온 우끼다 히데야의 기별군을 가리킨것이였다. 우끼다한테서 온 편지사연외에도 그 기별군을 불러 직접 들어보고싶은것도 많았다. 그러나 소서행장은 그자를 결코 부르려고 안했다. 지금의 자기를 우끼다의 사자에게 보이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금병풍의 배경이 없는것은 제껴놓고라도 지금 자기에게는 쉬파리들이 꾀여드는 형편이다. 왼쪽귀바퀴에서 고름이 흐르기때문이다.

지난달 열이튿날 밤 동대원에서 있었던 전투때 한 조선군교가 말을 달려 육박해오다가 등뒤로부터 던진 칼에 베진 상처였다. 벌써 한달이 가까와오건만 합창이 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지적지적 고름이 흘렀다. 진중에 데려온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귀는 원래 연골이라 연골은 뼈이므로 뼈가 상하면 살과 달라서 속히 합창이 안된다는것이다. 흘러내리는 고름에 귀바퀴뿐아니라 그쪽 뺨을 반이나 먹어들어가게 여름살이 짓물렀다. 괴롭고 보기 흉한것은 물론 그보다도 그 상처는 자기 위신에 관한것이기도 했다. 한번 말머리를 돌려서 겨루어볼 여유도 없이 급박했던 정황, 말머리를 돌리고 어쩌고 했다면 영낙없이 죽는 판이였다. 오직 달아나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실지정황이야 어찌되였든 소서행장이 일개 고마인군교앞에서 칼 한번 어울러보지 못하고 오직 달아나기만 했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였다.

《무슨 잔사설이 이렇게 많은가?》

이때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와서 자기앞에 엎드린 현소가 내놓은 편지를 집어서 한번 훑어본 소서행장은 반드러운 량미간 한가운데 외줄기로 깊이 패이는 주름살을 더욱 깊게 찌프리면서 불쾌한 한마디를 던지듯 했다.

《하!》

송구한 외마디소리와 함께 한순간 얼굴을 들었던 현소는 빡빡 밀어서 오히려 더 서리발이 서리는듯 한 센 머리를 다시 숙이고 소서행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중언부언 다 집어치우고 간단히 쓰라고 몇번 이르던가? 여가…》

다시금 훑어본 편지를 덜렁 내던진 소서행장은 이렇게 나무랐다. 그것은 우끼다에게 보낼 답장을 현소가 대필한것이다. 사실 소서행장은 되도록 간단히 쓰라고 일렀던것이다. 한학에 다소 소양이 있는 현소가 현학적으로 미사려구를 제법 잘 늘어놓는 솜씨를 긴히 리용하는 때도 많지만 이번의 답장만은 간단명료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소서행장은 생각했던것이다. 왜냐하면 되여가는 일이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쿠소》이므로 한성에 있는 우끼다에게 《대체 너희는 무엇들을 하고있느냐?》 하는 힐책과 제 불만을 인사치레없이 단적으로 표시하자는것이다.

일본관백 풍신수길의 사위로 이번의 소위 조선원정군의 제8군장으로 군사 만여명을 거느리고 한성 남별궁에 들어앉아있는 우끼다가 보낸 편지사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씌여있었다.

지난(7월) 7, 8 량일간에 한산도해전에서 조선수군 전라도 좌수사 리순신의 함대에게 일본군함 오십구척이 격침되였다는것과 그러니까 소서행장의 서로군이 조선왕을 추격하여 압록강, 보다 더 북진하여 명나라까지 쳐들어가는 작전은 일본해군이 다시 재기하여 서해로 들어갈 때까지는 극히 유감스럽지만 중지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소서행장이 더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는데 대해서는 당장 보낼 병력의 여유가 없기도 하려니와 일본해군이 재기할 때까지는 평양이북으로 더 나갈수 없으므로 그렇게 급급히 증원군을 보낼 필요도 없으리라는것이였다.

이러한 우끼다의 편지는 말하자면 소서행장이 평양성을 강점한이래 곧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로 쳐들어가는데는 더 많은 병력의 보충이 필요하다는것과 아울러 수륙병진이 필요하니 일본해군을 하루바삐 서해로 돌려달라고 여러번 재촉한데 대한 회답인것이다.

지금 소서행장은 또 《쿠소!》 하고싶었으나 위신에 그럴수 없어서 꿀꺽 삼켰다.

얼마전에 그 역시 현소에게 대필을 시켜서 《이제 우리 일본군이 만산편야(산에 차고 들을 덮는다는 뜻)하는 륙군과 서해를 뒤덮을만 한 해군으로써 수륙병진하여 압록강으로 쳐들어갈터인즉 대왕은 장차 어데로 가

려는가?》 하는 뜻의 협박장을 조선조정에 보냈던것을 생각하면 더욱 일은 《쿠소》가 아닐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뭣이? 적리와 염병으로 죽은 우리 군사가 도무지 이백여명밖에 안된다구?》

한번 설쳐보고 내던졌던 답장을 다시 집어 읽어가던 소서행장은 또 이렇게 나무랐다.

《그 배도 더 되는걸 왜 뭣이 꺼리껴서 이따위 거짓말을 썼느냐 말야!》

《전쟁 이외에 염병에 의한 군사의 손실이 많다는것은 이편의 불찰로 될듯도 하와…》

《뭣이? 이편의 불찰? 무슨 수작을 하는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군사가 이렇게 중도에 주저앉아서 이 궂은 장마에 묵새기고있는데 병인들 안 나겠는가? 그것이 이편의 불찰이라고? 그것이 이 여의 잘못이라고? 천만에…》

이러한 자기 말에 더욱더 격앙하는 모양인 소서행장은 한손으로 철선(부채살을 철로 만든것)을 세워짚은 무릎을 비비적거려서 현소앞으로 대들기라도 할듯이 체소한 몸을 일었다. 그갈이 씹어뱉듯 하는 소서행장의 말끝마다 그저 《하! 하!》로 황공무지하게 공축해보일뿐인 현소는 마치 밀로 빚은 두꺼비가 녹아서 마루바닥에 처끈 늘어붙듯이 엎드려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소서행장의 귀가에서 윙윙거리는 쉬파리소리뿐.

《이봐!》

마침내 한층 부드러워진 소서행장의 말소리가 들리였다.

《하.》

비로소 약간 고개를 쳐든 현소의 얼굴에는 구슬땀이 흘렀다.

《이왕 다 써놓은것이니 병사자의 수효만은 사실대로 고쳐서 그냥 보내게.》

소서행장은 약간 가늘어진 비발을 사이에 두고 대동강의 붉은 물을 내다보며 말했다.

《저 이봐.》

편지를 집어들고 일어서 나가는 현소에게 소서행장은 또 말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은 이렇게 중도에서 주저앉아있게 된때문에 군졸들은 발바닥과 궁둥이에서 잔뿌리가 내릴 지경이라구 전하라구 이르게.》

《하.》

또 공축해보이며 나가는 현소의 등뒤에서는 문득 소서행장이 분명히 지어서 웃는 소위 호걸풍의 웃음소리가 났다.

소서행장의 그 말은 벌써 20일째나 계속되는 장마비에 사창고앞에와 륙로문안 넓은 마당에 로적으로 가려둔 벼섬들에서 싹이 나고 잔뿌리가 내렸다는 보고를 오늘 아침에 들은데서 암시를 얻은것이였다.

현소가 물러나간 후에 소서행장은 문갑우에 놓여있는 우끼다의 편지를 집어서 다시 펴보았다. 맨끝에 가서 일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가등청정은 이미 미재령을 넘어 안변을 거쳐서 지난(6월) 24일에는 영흥을 함락시키고 일로 회령을 향하여 떠났다는 사연이 있었다.

《그러니 어떻다는 수작인가! 대체…》

다 읽고나서 쓰겁게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리는 소서행장의 말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었다. 가등청정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것을 이 나더러 부러워하라는 수작인가 하는것이 첫째였고 또 한가지는 그래 가등청정이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회령 아니라 그보다 더한 하늘끝 닿은데까지 간단들 무슨 소용인가 하는것이였다. 여기에는 또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가등청정이 제아무리 함길도(함경도)끝까지 치달아간대도 산골에서 범사냥이나 하면 했지 별 뾰족한 전공을 세울것은 없다 하여 이번 《조선원정》에서 원훈수공을 다투어온 경쟁자 가등청정이가 그런 곳으로 가게 된것이 두고두고 고소한것이 첫째라면, 둘째는 정작 급진군을 해야 할 내가 이갈이 묵새기게 되니 이 좋은 길을 택했단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자탄이 그 하나였다.

지금까지는 내내 바른길 즉 원훈수공을 세울수 있는 길을 택할수 있는 행운을 가졌었다고 생각하는 소서행장이였다.

39. 소서행장과 가등청정

이야기의 순서는 좀 바뀌나 여기서 우리는 소서행장과 가등청정이의 이때까지의 관계를 대강만이라도 밝히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충주에서 신립의 배수진을 돌파하고 한성길로 접어들 때 소서행장과 가등청정간에는 누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였다. 죽산, 룡인을 거쳐 한성 남대문으로 통하는 길이 퍽 가깝기는 하나 한강이 가로 걸쳐있었다. 려주와 양근을 거쳐 한성 동대문으로 통하는 길은 한강같은 난관은 없으나 전자보다 사흘길이 더 멀었다.

그때 가등청정은 한강의 난관이 있더라도 자기는 가까운 길을 택하겠노라고 했다. 소서행장은 선선히 그러라고 했다. 가까운 길을 선뜻 양보하여 생색을 내면서도 소서행장은 속으로 삵의 웃음을 쳤다. 참새대가리에 굴레라도 씌울수 있는 자기라고 자처하는 소서행장과 그 삵의 웃음에는 마치 옛날 연극에서 관중들은 다 듣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배우들만이 모르는 방백 같은 말이 포함되여있었던것이였다.

한강은 바로 한성의 코앞이다. 지금까지는 조령까지도 무인지경같이 몰아왔지만 한강은 그렇지 못할것이다. 조선조정이 지금까지는 아무리 잠자코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자기네 문앞인 한강을 거저 건느라고는 안할게다.

《가등이, 너 좀 곯아봐라.》

소서행장의 방백은 바로 이러한것이였다. 아닌게 아니라 가등청정은 한강에서 조선군의 저항을 받아 사흘동안이나 걸려있었다. 그사이에 강행군을 한 소서행장은 이미 사흘전에 떠난 왕을 붙들지는 못했으나 어쨌든 한성을 함락시켰다는 공을 세울수 있었다. 가등청정은 김명원이하 조선군이 벌써 한성이 함락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강수비를 포기한 후에야 비로소 한성으로 올수 있었다. 그것이 단 한나절차이였다. 한성 성가퀴에 들여세운 소서행장군의 기발을 보게 된 가등청정은 그야말로 얼굴이 《쿠소》빛이 되였던것이다. 원훈수공을 경쟁자에게 빼앗긴 그는 절치부심했다.

《요 반드러운 상인놈이!》

평소에도 늘 이렇게 소서행장을 깔보아온 가등청정이였다. 자기는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사무라이라고 생각하는 가등청정의 눈으로 보면 본시 한 상인의 자식이던 소서행장은 돈으로 우겨서 그 지위를 산 얼치기사무라이에 지나지 않는다. 또 자기는 일본의 정통적국교인 일련종의 신도인데 소서행장은 이국의 사교인 야소교(그리스도교)의 신자였다. 그러한 소서행장은 제 본이름외에 세례이름인가 하는 그 구역질나는 《톰 오규스탄》이라는 양인번데기의 이름까지도 달고다니는 초라니였다. 그런데다 또 가등이로서 더 참을수 없는것은 자기와는 촌수는 좀 멀지만 이종형제간인 풍신수길이가 자기보다 도리여 얼치기사무라이, 갑작 도노사마인 소서행장을 더욱 긴히 알아주는것이였다. 어쩌면 이 가등청정이를 내놓고 그런 초라니를 제 군장의 선봉장으로 내세운단 말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종형이고 또 상전인 풍신수길이에 대해서까지도 불만이 없을수 없는 가등청정이였다.

《주인앞에서 꼬리치는 땅개같이 간교한 자식.》

가등청정은 자기의 이번 실패가 누구를 원망하고말고가 없을 일이지만 역시 교활한 소서행장에게 속은것만 같아 분하기도 했던것이였다.

《두고보자.》

그는 별렀다. 벼를만 한 일이 있었다. 점령한 한성을 우끼다 히데야에게 맡기고 둘이 같이 떠나서 림진강을 건너 황해도 안성고을에 들어선 그들에게는 또 누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던것이다. 이번에는 한 목적지를 누가 앞서고 뒤에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길이 갈리는 판이였다.

하나는 조선왕을 추격하여 개성, 평양으로, 다른 한길은 함길도쪽으로인데 이번만은 누구나 선선히 양보하는체라도 할수 없었다. 만일 그 길로 진군을 못할바에야 무엇하려 이 전쟁에 참가했는가 할만치 조선왕을 추격하는 서쪽길은 이 전쟁을 승리로써 마감하는 최대의 전공을 세울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소서행장과 가등청정은 각기 자기네의 측근자들을 대동하고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평양으로 가는 길은 물론…》

소서행장이 먼저 운을 뗴였다. 다른 일 같으면 가등청정에게 먼저 말을 시켜가지고 그 급급한 성미에 동닿지 않게 지껄이는 가등청정의 말꼬리를

꺼들어가지고 론박, 면박으로 몰아세워놓고 천천히 이편의 주장을 내놓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술이였지만 이번만은 소서행장이 선손을 걸었다. 이 일은 그런 경위나 말주변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내려씌우는 명령조가 유효하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말하자면 의논하러 모인것이 아니라 기정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등청정을 부른것으로, 그래서 그 일에 한해서는 더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도록 하자는것이였다.

《이번 전쟁에서 출병하는 시초부터 태합전하(풍신수길)께서는 여를 선봉으로 임명하시니만치 서쪽길은 여의 제1군이 담당하게 될것이니 그리 아오.》

《안될 소리!》

가등청정의 말은 첫마디부터 거칠었다. 그 탁하게 거슬러선 눈섭아래 두눈망울은 금시 불구슬알같이 번쩍거렸다. 그는 거퍼 나오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출병때의 선봉이라는것은 떠나는 순서였을뿐이지 이 전쟁마당에 와서까지도 선봉일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소서행장은 애써 자기의 흥분을 누름으로써 상대방의 격앙까지도 억제하려는듯이 침착성을 가장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지금 또 태합전하의 처분을 받아서 선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일단 태합전하께서 정하신 선봉장이 지금 선봉장이 못된단 말인가?》

《전쟁마당의 선봉은 누구에게 묻구말구 할것없이 의례히 용감한 사람이 되겠지.》

이런 말을 씹어뱉듯 하는 가등청정의 어성도 한층 부드러워진듯 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오히려 더 딩딩했다. 만만한 자신이랄가, 느물거리는 태도이기도 했다.

《뭣이 어째?》

소서행장은 더 참지 못하고 발끈했다.

《그러면 이 소서행장이 그대만 못한 용장이란 말인가?》

저도 모르게 발끈한 소서행장의 말은 사나왔다. 말을 뱉아놓은 그는 다음순간 《아차!》 했다. 이런 경우에 먼저 골을 올리고 성을 내는것은 지는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과연 그랬다.

《이러구저러구 잔소리 할것없이 해보면 알것 아닌가. 자, 일어서!》

저 먼저 일어서는 가등청정은 무척 유유했다. 그리고는 한마리 긴 뱀이 풀숲을 기는듯 한 소리를 내며 칼을 뽑았다.

소서행장은 파랗게 질렸다.

《조선 그리고 명나라까지도 정복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끼리 싸워?》

소서행장은 자기딴은 이런 사려있는 생각을 하노라 했다. 그러나 그보다 이 안성군수가 비우고 간 동헌 대청마루에 떨어져 구으는 자기의 모가지가 먼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것이 혹은 가등청정의 모가지일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사세가 이렇게 된 지금에는 그런 말은 사려있는 말이기보다 사무라이답지 않은 비겁한 말밖에 될것이 없었다. 소서행장도 어쩔수없이 칼을 빼들고 일어섰다. 그러자 등뒤에서 우뚝우뚝 일어선 부하들도 칼을 뽑았다. 소서행장의 뒤에는 그가 가장 믿는 부장과 첩의 사위인 소 요시도모와 부장들중에 가장 젊으면서도 문무의 재질이 출중하다는 구로다나 가마사와 비서격인 늙은 중 현소 등등이 따라와있었고 가등청정의 뒤에도 이러저러한 그의 부장들이 따라섰다. 그들 역시 자기네의 대장들이 하는대로 칼을 뽑아들었다. 이자들의 군사회의는 곧 류혈의 도살장으로 화하게 될 판이였다.

《마… 마, 두분 도노사마.》

이때 소서행장의 등뒤로부터 늙은 중 현소가 무릎걸음으로 두편사이에 나와서 엎드렸다.

《두분 도노사마께서는 지금 다소 지나치신것 같소이다. 마… 마, 우선 앉으시죠. … 어리석은 이 중놈의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가 하옵는데… 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시는것이 어떠하올지.》

《…》

《옛 성현의 말씀에 진인사연후에 대천명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현소는 잠시 고개를 들어서 좌우쪽에서 자기를 굽어보는 소서행장과 가등청정의 얼굴을 반반씩 쳐다보고 다시 부복하며 말을 이었다.

《지금 두분 도노사마께서는 선봉을 백인(시퍼런 날카로운 칼)으로써 결정하시려고까지 하셨은즉 이는 군사로서 할만 한 인사를 다 하신바라 이제는 천명의 지시를 기다리시는 뜻으로 제비를 뽑으시는것도 결코 망녕은 아니라고 이 어리석은 중놈은 생각하는바올시다. 두분 도노사마의 처분은 어떠하올는지.》

다소 한문에 소양이 있는 현소는 이런 아이들의 장난같은 말도 제법

장중하게 수식할수 있는 말솜씨가 있었다. 장난같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한편의 죽음으로써 결말을 내느니보다는 퍽 현명한 일인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도 그럴듯싶은 말인데 어떤가?》

소서행장이 먼저 동의하는 뜻으로 가등청정을 건너다보며 물었다.

《될대로 되라지.》

가등청정이 역시 동의하는 뜻으로 두덜거리며 칼을 집에 꽂았다.

제비를 뽑은 결과 《천명》은 소서행장에게 내렸던것이다. 소서행장의 득의와 반대로 실의락담한 가등청정은 《남무묘법련화경》이라고 쓴 흰 만장같은 기발을 등에 지고 부하장졸을 몰아서 동쪽 곡산길로 들어갔다. 그 기발은 풍신수길이가 이번 출정의 전별로서 그에게 준것이였다. 그 글발의 뜻은 불교경전중의 하나인 법화경에 귀의하노라는것으로 《부처와 사람은 그 근본이 하나이며 따라서 일체 중생은 다 부처가 될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만치 인간이면 누구나 다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한 기발을 등에 지고 우리 조국땅에 들어온 가등청정은 그야말로 《살생은 좋아하면서도 부처에게는 아첨하는》 전형적인 일본사무라이 즉 흉악한 왜구의 두목의 하나였던것이다.

40. 파괴된 일본군의 작전계획

한편 그러한 가등청정의 경쟁자이고 동료인 소서행장, 《톰 오규스탄》이라는 세례명을 가진 그리스도교도 소서행장은 지금 자기의 회답을 가지고 다시 한성으로 돌아가는 우끼다의 기별군이 타고 강을 건느는중인 배를 향하여 이마와 가슴을 짚어서 십자가를 그리였다.

전신 벌거숭이에 궂은 비를 맞아가며 범람한 붉은 물살을 헤쳐 노질을 해가던 왜구가 뭣이라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삿대를 들어 배전에 와붙는 송장을 뚱기쳐 밀어떼고있었다. 그 시체 역시 일본군이였다. 리질이나 장질부사 같은 염병이 아니면 고마인에게 살해된 시체일것이다.

장마가 계속될수록 염병에 죽는자가 많았다. 하루에도 20~30명씩 무리죽음이 나기도 했다. 련일 그치지 않는 비에 화장을 할수도 없고 일일

이 묻을수도 없어서 성밖으로 내던지므로 대동강에는 언제나 왜군의 시체가 떠돌았다.

일본군사가 축나는것은 염병으로만도 아니였다. 고마인에게 살해되는 수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축나는것은 단 하나가 없어져도 전률할 일이였다. 그런 일을 처음 당할 때는 의외였다. 군사가 아닌 보통 고마백성이 조총과 창검으로 무장한 일본사무라이를 죽인다? 있을수 없는 일같았다. 저희 일본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다.

수백년간을 소위 전국시대라고 하여 60여주에 군웅할거한 대소의 번주(제후)들이 저마다 패권을 잡으려는 야심으로 서로 싸우는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말하자면 그 자국지란은 우선 저희 이웃의 령지를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번주와 번주사이의 싸움 즉 갑이라는 번주와 을이라는 번주가 거느린 사무라이사이의 싸움에 지나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일시 피란을 했을뿐 직접 그 전쟁에 참가하는 일은 없었다. 갑이라는 이웃의 번주가 을이라는 번주를 죽이고 그 령지를 차지하게 되면 그곳 백성들은 지금까지 을에게 복종했던것 같이 승리자인 갑의 백성으로 자처하여 새 상전인 그에게 유공불급으로 복종했을뿐이였다.

그런데 이 조선땅에서는, 이 고마인들은 그자신 군사가 아닌 보통백성인데도 일본사무라이들을 죽이는것이였다. 그것은 놀라운 뜻밖의 일이 아닐수 없었다.

《려염촌부역취림박간등고후망량적다소혹진혹퇴개위살적위심》

이것은 《평양지》에 있는 우리의 기록이다. 즉 《촌의 려염집사람들까지도 숲속에 모이거나 높은데 올라가서 왜적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수효가 많고 적은것을 헤아려 혹은 내닫고 혹은 물러서면서 적을 죽이기만 위주했다.》는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기록이므로 다소 과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왜구(해적)만치 여기고 산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적은 수효의 사람(일본군)이 지나가게 되면 반궁(작은 활)으로 해합니다. 참 놀랍고 딱한 일입니다.》

이것은 임진년 5월 25일에 일본군 제7군의 대장 모리 데루모도가 경상도 성주에서 자기 고향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한구절을 가감없이 번역한 것이다. 모리 데루모도는 일개 병졸이거나 이만저만한 사무라이가 아니라

년수 십만여석의 령지를 차지한 대번주의 한사람이였고 자기 군사 3만명을 거느린 소위 조선원정군 제7군의 총수였다. 또 5월 25일이면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지 불과 한달 열흘만이다. 지금 인용한 그의 편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찾아볼수 있다.

《…그리고 또(조선에는) 무슨 성이 그렇게 경치게 많습니까!… 8월중에는 각각 쳐들어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당나라(명나라)에 쳐들어간다는것은 우선 사람(일본군)이 모자랄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의 대번주이며 대군의 총수인 모리 데루모도는 저희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의 시초부터 이렇게 비명을 지른것이였다. 그 비명은 곧 그들이 세웠던 작전계획의 파탄이였다.

일본사무라이의 원흉 풍신수길은 조선으로 대군을 실어보내면서 《이 전쟁은 자는 사람의 모가지를 자르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지일가성(손가락으로 해를 가리키듯 인차 성공한다는 뜻)》으로 며칠 안해서 곧 끝나리라고 했던것이다.

풍신수길의 이런 호언장담이야말로 한날 잠꼬대에 지나지 않았다. 왜군이 부산에 발을 붙인지 불과 20일만에 한성을 점령할수 있은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한성이 함락되고 왕이 달아났어도 조선백성들은 싸우고있다. 그후에 소서행장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가등청정군은 영흥을 점령하고, 조선왕은 조선땅의 끝인 압록강가로 물러갔다. 그러나, 그러나가 아니라 그럴수록 조선백성은 더욱더 치렬히 싸우고있다.

조선백성은 왕이 없어도 적과 싸울줄 알고 싸울수 있는 사람이라는것을 왜놈들은 알게 되였다. 조선땅에 발을 들여놓은 놈들은 저희 발길이 이르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의 치렬한 반격에 부딪치게 된다는것을 각오해야 했다. 저희들이 진군하면 할수록 전선은 늘고 늘어난 전선은 언제 어느곳에서 조선백성에게 끊기고 묻혀버릴지 모를 한날 가냘픈 선이고 한날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잠시도 안심이 안되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들을 후방에 남겨두면서 전진해야 했다. 모리 데루모도가 조선에는 《무슨 성이 그렇게 경치게 많습니까?》고 한탄한것은 이때문이였다. 진군하는 곳마다 일일이 싸워서 점령해야 하는 많은 성들은 또 일일이 군대를 머물러 지켜야 했다. 많은 군사들은 작은 점들인 성과 가냘픈 선에 지나지 않는 전선을 조선백성의 끊임없는 반격으로부터 유지하기 위해서 태반이 중로에

잠겨버리고말았다. 《…8월중에는 각각 쳐들어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당나라에 쳐들어간다는것은 우선 사람이 모자랄것입니다.》 한것은 결코 모리 데루모도 한사람만의 걱정은 아니였다.

소서행장이 평양이북으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륙군병력의 보충과 일본해군이 서해로 진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번 보채다싶이 한것도 이때문이였다. 즉 처음 예상했던 병력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작전계획의 파탄이였다.

왕을 비롯한 중앙관청이 없어도, 지방의 수령방백들이 달아났어도 능히 싸울수 있는 조선백성들이 침략자 일본군의 작전계획을 파탄시켰던것이다.

평양을 점령한이래 벌써 20일째나 허무하게 대동강의 붉은 물만을 내려다보고있게 된 소서행장은 간간이 떠내려오는 저희 군사의 시체를 볼때마다 이마와 가슴을 짚어 그리스도교의 의식대로 십자가를 그려오던중에 이번에는 불현듯 《쿠소.》, 《칙쇼.》를 련발했다. 지금 벌거숭이사공놈이 뚱기치는 바람에 번듯이 제껴졌다가 다시 엎어지는 그 시체에는 코가 없었기때문이였다.

《관백합하의 지엄한 명령이 저런 투로 실행되는가?》

개탄한 소서행장은 더욱더 《아아, 칙쇼, 쿠소.》였다. 풍신수길의 《지엄한》 명령이라는것은 《조선사람을 다 죽여서 조선땅을 비게 하라.》는것이였다. 군사들이 그대로 실천하는가 않는가를 알기 위해서 풍신수길은 매 군사에게 조선사람의 코를 한되씩 베여 소금에 절여서 보내라는 《지엄한》 과업을 내렸던것이다. 사람의 머리는 무겁고 부피짐이 되므로 한사람에 하나씩 있는 작은 코로써 대신하라는것이였다. (얼마나 악독하고 비인도적인 추악한 일인가. 그러나 사실이였다. 그 당시의 일본사람들의 손으로 씌여진 기록도 많으려니와 일본 교또에는 비총이라는 코를 묻은 무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관백의 《지엄한》 명령에 일본군사들은 책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군사의 시체에서 코까지도 훔쳐야 했다. 소서행장은 그런짓을 못하도록 금했다. 본보기로 그런짓을 하는 놈의 목을 베기도 했다. 그랬더니 어느새 또 그 모가지의 코가 없어졌다. 무가내하로 금할수 없는 례사로운 일로 되였다.

저 코없는 시체는 흘러내려가서 대동강하류에 얼마전부터 결진해있다는 조선수군의 배에 걸릴것이다. 사람의 코를 베는것은 일본군사밖에 없다는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그리고 그 머리모양으로써 저 시체가 일본사

람이라는것도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

《칙쇼— 챙피하기란! 괘씸하기란!》

소서행장은 무릎우에 세워짚었던 철선으로 앞의 붉은 란간을 탁 치면서 일어섰다. 귀언저리에 달라붙었던 쉬파리들이 윙 소리를 지르며 날아났다.

《도노사마, 차를 어떻게 하오리까?》

뒤방에서 나온 고조리도리가 모아짚은 제 손등에 이마를 조아리며 물었다. 고조리도리라는것은 그 당시 일본 고급사무라이에게 시중드는 하인의 일종으로 남자이면서도 반드시 소매긴 녀자의 복색을 한 미소년이였다.

《차를 이리로 내오리까?》

《…》

《지금 비가 좀 멎어서 뒤방에서는 저 풍월지라든가 하는 못의 련꽃이 잘 보이옵는데 어떻게 하올지.》

《아아, 여는 심기 자못 불편하다.》

이같이 대답 아닌 대답을 하며 거닐던 소서행장은 문득 《내 말을 끌어오라구 일러라. 그리구 현소두 오라구 일러라.》 하고 란간밖을 향하여 소리쳤다.

41. 이 나라는 조선사람의 나라

조금후에 대동문거리로부터 갑옷, 투구를 갖춘 젊은 장령 소 요시도모가 말을 타고 종졸에게 고삐를 잡힌 소서행장의 말을 령거해가지고 왔다.

그동안에 소서행장은 고조리도리의 손을 빌어 갑옷, 투구의 장속을 갖추었다. 오래간만에 소풍하러 가는 길이라 파탈하고 경쾌하게 한바퀴 돌아왔으면 했으나 고약을 붙이고 헝겊으로 싸맨 귀를 부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투구를 쓰게 되니 따라서 손끝, 발끝까지도 무겁고 두터운 갑옷으로 감싸고 묶어야 했다. 가슴에 붙인 거울같이 닦은 강철 호심경을 비롯하여 어깨와 팔다리를 가리우게 은실금실로 누비고 꿰매서 비늘 달듯 한 울긋불긋한 갑옷과 이마에 마에다데라고 하는 황금뿔을 뻗친 투구는 색갈과 모양이 호화롭고 장중하면 할수록 무게가 더 나가기마련이였다. 유독 소서행장만이 치기가 있어 그런것이 아니라 무장은 누구나

그갈이 장중하게 장속을 갖추고보면 그자신이 하나의 장식물이 되는만치 이왕이면 보아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것은 인개상정(누구나 가지고있는 심정)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대동문거리로 해서 종로 큰 거리로 올라가는데도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 조선땅에서 왜구대접을 받을뿐인 자기 군졸들은 간혹 보이나 (그들은 소서행장의 행차를 보자 진창에 철썩철썩 주저앉아 이마를 조아렸다.) 정작 자기의 위풍을 보이고싶은 조선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늘만 우연히 없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

조선왕과 그 조정이 이 평양에 그냥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들은 있어야 할것이였다. 그 역시 없었다. 살아움직이는것이라고는 파리떼와 쥐와 지붕에서 기와골을 뽐재보듯이 사족을 벌려딛고 기지개를 켜는 고양이와 빈방의 걷어간 삿눈자국만이 남은 먼지속에 굶은 쇠벼룩뿐이였다.

어떤 성시이든 단지 그 성안에 고루거각과 민가와 우물과 파리, 벼룩, 고양이 같은것만이 있어서는 성시라고 할수 없을것이다. 사람이 있어야 할것이다. 더우기 만리원정에 군사를 일으켜 점령한 성시는 더욱 그렇다. 우선 정복자인 자기들에게 도륙을 당하고 벌벌 떨고 유공불급으로 아첨하는 피정복자가 있어야 할것이다. 그런것이 없는 무인지경을 점령한다는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누구를 노예로 부릴것인가? 풍신수길은 조선사람을 다 죽여없애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인지경같이 항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의 형용구일뿐 그렇지 않고서야 누구를 노예화하고 누구를 압박할것인가? 당장만 하더라도 비자루더러 저 혼자 이 거리를 청소하랄수도 없고, 나락이 저 혼자 쌀이 되랄수도 없고, 넉가래더러 저 혼자 측간(변소)을 치랄수도 없고, 또 성가퀴나 집의 섬돌들을 압박해본댔자 무의미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일왈 정복자인 자기네의 위풍을 누구한테 뽐내보일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란숙(발전)한 문물제도와 례의범절과 특히 엄격하다는 남녀유별과 깍듯한 내외의 풍속으로써 동방례의지국으로 자처하는 이 나라 사람들앞에서 감추는것 없이 벌거숭이로 활보해보이는것으로써 례의인지, 《쿠소》인지 하는것이 자기네의 폭력앞에 얼마나 무력하다는것을 한번 증명해보이려고 벼르기도 했던 사무라이들에게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것만으로도 빈성을 점령하게 된것이 불만이였고 무의미한 일이기도 했던것이다.

지금의 평양거리는 말이 아니였다. 그새만 해도 말이 아니게 황폐했다.

만여명의 일본군이 들어있기는 하나 역시 주인이 없다는것이 분명했다. 장마에 마른나무가 없어서 문짝을 뗴서 불을 때고 그대신 섬돌을 들춰서 문을 막고 총구멍을 낸 집들이 많았다. 이영을 벗긴 집들의 방바닥은 논판이다. 골목들에서 쏟아져내리는 비물이 넘치는 거리거리는 악취가 풍기고 파리떼가 들끓는 오물천지였다. 거리 좌우쪽에 늘어선 버드나무들은 그 풍만하고 부드러운 선으로 실실이 드리웠던 가지들이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손들에 꺾이고 훑이워서 이지러지고 병신 안된것이 없었다.

소서행장은 심기 또한 불편했다. 자기의 위의를 자랑하고 구경시킬 사람이 없다는것은 이미 문제가 아니다. 이렇듯 황페한 성시를 점령했다거나 이런 거리를 활보한다는것이 이제는 자랑일것도, 자존심을 만족시킬것도 못되는것이 불만이였다.

소서행장은 사창고앞 로적낟가리밑에서 말을 세웠다. 고개를 쳐들어서야 꼭대기가 보일만치 높은 로적더미는 마치 봄에 묵은 북새를 헤치고 돋아나는 풀에 덮인 둔덕과 같이 퍼렇다. 비가 오기 시작하자 근처의 초가이영들을 벗겨서 고깔씌우듯이 덮기는 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벼섬도 이영도 다 젖었으므로 련일 계속되는 장마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렸다. 나락이 불어서 섬거죽이 터지기도 한 로적더미에서는 탁주냄새가 풍겼다.

그옆의 컴컴한 빈 창고안에서는 들끓는 파리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났다. 일본군사들은 저희 동료가 염병에 걸리면 장지로 해서 이 창고에 처넣었다. 죽어가는 병자들은 미처 처치 못한 시체들과 함께 누워있는 때도 많았다. 열이 나서 앓아눕기만 하면 의례히 염병으로 알고 동료들이 하는대로 끌려왔다가 하루밤 지내자 정신이 들어서 시체속을 헤치고 기여나오는 학질환자도 있었다.

소서행장은 창고안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성한 사람은 없었다. 병자와 시체뿐, 앓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문어구에서 나는 인기척에 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그 소리에 가로세로 누워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덮었던 꺼먼 보자기를 벗기듯이 파리떼가 날아났다. 누렇게 부황이 뜨거나 반대로 피골이 상접한 사람의 형태가 드러났다. 마치 누구를 원망하는듯이 흡뜬 그 눈들…

《이 나를? 칙쇼, 천만에—》

이런 광경앞에서는 의례히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풍습대로 십자가를 그

으려던 소서행장은 문득 이런 생각에 이마로 올라가던 제 손을 뿌리치듯이 다시 내렸다. 원망과 저주로 찬 그 눈들을 보는것만으로도 장차 천국으로 올라가야 할 제 령혼에 큰 흠집이 생길것 같아서 불쾌했던것이다.

곧 말머리를 돌린 소서행장은 (저것들은 모두 칙쇼갈은 천한것들이니까. 그리고 또 태초부터 예정된 저들의 숙명일테니까. …) 이같은 생각으로써 제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이러한 장군휘하의 군졸들은 비단 접전마당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수천수만의 해골이 이국산야에서 마르게 될것은 피치 못할 일이였다.

《저 김삼근이란 놈과 그놈이 어데선가 데려왔다는 김순량인가 하는 고마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가?》

말을 달리기 시작했던 소서행장이 소 요시도모를 돌아보며 물었다. 김순량이 같은자를 조종하는데는 자기네 일본사무라이보다 조선사정을 좀 안다는 대마도출신이 나으리라고 해서 소 요시도모에게 맡겼던것이다.

《네네, 아직…》

아직 안 돌아온것이 자기이기나 한듯이 소 요시도모는 자기 장인인 동시에 또 무서운 상전이기도 한 소서행장앞에서 공축했다.

《그자들이 소금을 다문 얼마라도 속히 구해가지고 와야겠사온데…》

그는 대마도출신인 자기가 얼마나 일본사무라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는가를 보이려고 이런 말을 시작했다.

《장과 소금이 없어서 뜰안의 흙과 박석들을 물에 울궈서 먹으니까 저렇게 염병이 들리기도 하는 모양이올시다.》

《다 알고도 남은 소릴 새삼스럽게 지껄일건 뭐야?》

와락 불쾌해진 소서행장은 사위의 말을 막질렀다. 실은 소서행장자신도 소금이 긴한 생각에 저들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김삼근이와 그자가 앞장세우고 소금을 구하러 떠난 고마인 김순량이가 돌아왔는가를 물었던것이다. 그러나 같은 걱정이지만 부하들이 하는 걱정은 귀에 거슬렸다. 이런 사태에 처해서도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관인 자기를 힐난하는 말같이도 들렸기때문이다.

《현소, 귀 승은 리순신을 아는가?》

장경문쪽으로 말을 달리던 소서행장이 불쑥 이런 말로 물었다.

《하?》

현소는 제 귀를 의심할만치 놀랐다.

《저 리순신을 말이지.》

말을 채질해서 자기뒤에 붙어서며 사뭇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는 현소에게 소서행장은 또 이렇게 물었다.

《이 우승놈이 조선의 리순신을 아느냐 말씀이오니까?》

이같이 되묻는 현소의 눈에는 단지 뜻밖에 놀랍다기만보다도 벌써 애원에 가까운 빛이 어리였다.

(이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시초인고?) 하는 불안때문이였다.

《그래그래. 아 참, 물론 귀 승이 리순신을 보았을리는 없을것이고…》

하던 말을 잠시 끊은 소서행장은 그만 놀라도 좋다는듯 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자기의 한번 웃음, 한마디 말로써도 능히 부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수 있고 기쁘게도 할수 있다는것을 잘 아는 소서행장은 이번에는 또 한번 크게 웃었다.

《저 여의 말은 대체 리순신은 어떻게 생긴… 에—또, 아니, 어떻게 생겼다는것은 물론 알수 없을것이고… 그렇지, 대체 리순신은 어떤 복색을 하고있을가 말이야.》

《하, 그 복색을 말씀이오니까?》

《그래, 여가 알고싶은것이 아니라 귀 승이 그것을 알아야겠거던.》

《하? 우승이 말씀이오니까?》

처음같지는 않았으나 현소는 또 한번 놀랐다.

《자네가 그것을 알아볼수 있겠는가?》

《네, 저 한성서 걷어온 조선책들중의 <경국대전>이라든가 <오례의>(나라에서 지내는 다섯가지의 례) 같은 책을 상고하면 혹시… 물론 리순신의 용모파기까지는 없겠지만 조선수군절도사가 어떤 복색을 한다는것쯤은 알수 있을듯도 하올시다.》

《알아서 그대로 옷을 한벌 지으란 말이야. 그래가지구는 등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옷을 입히란 말야. 알겠나? 등신을 만드는데는 이봐, 상투밑을 미는 외에는 결코 칼을 얼굴에다 안 대는것이 조선사람의 풍속이라니까 리순신도 필시 수염을 길게 길렀을것이 아니겠나.》

《하! 지당한 말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군졸들이 많이 볼수 있는 저 창고앞에다 세우란 말야.》

《하.》

《그래서 말이지, 누구를 원망하려거든 조선사람 리순신을 원망하라고. 알겠어? 우리 일본군이 이번 전쟁을 속히 이기지 못하고 따라서 빨리 끝내지도 못하는것은 모두가 저 리순신탓이라는것을 알게 하란 말야. 알겠어?》

이러한 소서행장의 명령은 불일내로 거행되였다.

옛날에는 소위 전통법이라는 극히 원시적인 민간료법이 있었다.

례컨대 편두통이 심할 때는 이마가죽을 피가 나게 꼬집어서 골속이 아픈것을 겉가죽의 아픔으로 전환시키는것이다. 이때의 소서행장이 취한 조치 역시 일종의 《전통료법》이라고 할것이였다.

저희들 사무라이가 일으킨 침략전쟁때문에 이국만리의 전쟁마당으로 마지못해 끌려나온 군졸들이 걸음마다 당하게 되는 고마인들의 치렬한 반격과 또 나날이 번져가는 염병으로써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는 무서운 운명앞에서 그 얼마나 전률하며 따라서 사기가 꺾이여 오직 자기네 부모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초조히 바란다는것을 소서행장은 모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군졸들이 결국은 자기네 장수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리라는것도 모르지 않았다. 부하들의 그러한 원망과 저주를 딴데로 돌려야 할것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돋구는 효과까지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뿐아니라 일본선봉군으로 하여금 평양이북으로는 한걸음도 더 나갈수 없도록 못을 박아놓는것이 저 먼 남해에서 조선수군을 지휘하는 리순신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하는만치 누구보다도 절치부심하는자가 소서행장자신이였다.

장경문앞을 지나서부터는 성가퀴를 따라서 을밀대로 말을 몰았다.

원경으로 바라보는 평양성은 역시 여전히 아름다운 성시였다. 서북쪽으로 연연 십리에 걸쳐 혹은 성벽안에 안기고 혹은 성벽을 에워싼 락락장송의 울창한 송림, 동남쪽에 천작으로 금성탕지를 이루어놓은 청류벽줄기와 그 깎아지른 석벽을 스쳐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그안에 들어앉은 만호장안은 복잡한 성시라기보다도 집 절반, 록음 절반으로 휘늘어진 버드나무 사이사이로 빼여난 추녀, 붉은 기둥들의 루대와 전각들이 은현(숨었다나타났다 함)하는 시가, 그것은 옛날의 도원경인듯도 했다. 멀리서도 알아볼수 있게 곳곳에 류록장을 둘러친듯 한 버드나무가운데로 거울같이 드러나는 맑고 잔잔한 련못들! 그 한가운데는 조산(쌓아서 만든 산)이 있고 조산우에는 날듯이 추녀가 들린 루각이 섰고, 붉은 란간의 무

지개다리밑에는 피여난 련꽃과 송이송이 떠도는 수련이 향기롭고, 그 련꽃과 련잎, 창포잎사이에는 문자그대로 은린옥척(비늘이 은빛처럼 빛나는 큰 물고기)이 뛰놀았다. 오랜 세월을 두고 운치를 사랑할줄 아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룩되고 매만져진 아름답고 평화로운 성시였다.

을밀대에서 말을 세우고 이윽히 성안을 바라보던 소서행장은 중 현소를 돌아보며 무두무미하게 이런 말을 물었다.

《이 평양성은 유명한 색향이였다지?》

《예예, 우승도 그런 말을 들은적이 있는듯 하올시다. 딴은 다른 녀자는 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곳 기생이였다는 계월향인가 한 계집은 참말 극가한 계집이올시다.》

잠시 말을 끊고 소서행장의 눈치를 살핀 늙은 중은 또 말을 이었다.

《그 자색도 자색이려니와 그 문재, 그 필재는 참! 히야ㅡ 참말로 놀랍습니다.》

《뭘 그렇게 감탄하는가?》

소서행장은 그러면서도 노상 흥미가 없지도 않은것 같았다.

《아니올시다. 실로 이만저만한 재간이 아니올시다. 한문도 잘하려니와 더우기 그 필재! 란 같은것은… 사군자(매화, 국화, 란초, 대나무를 일컫는 말)중에도 특히 란은 우승이 보기에는 놀랠만 한 경지올시다.》

계월향의 란보다도 제 견식을 자랑할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한 현소는 거슬러선 장눈섭우의 커다란 검은 사마귀를 치켰다내렸다하면서 지껄이는 제 말솜씨에 신이 나는 모양이였다.

《그러다보니 귀 승은 노상 그 고마기생의 풍류속에 놀아났구려.》

소서행장은 코춤을 추는 웃음을 띠였다.

《그렇지도 못하올시다. 그저 말을 몰라 필담을 하게 되니 그 글재조를 엿볼수 있었고 또 그림은 궐녀의 짐짝속에서 뒤져낸 이전것을 보았을뿐이올시다. 하도 훌륭하길래 몇번 청했지만 영 붓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노께서나 한번 부르셔서 부채에 란을 한폭 받도록 해보십쇼. 부채에서 향기가 풍길만 한 란이올시다.》

《여는 그런 풍류는 모르니까.》

《아니올시다. 그런 문재, 그런 필재가 있다보니 본시두 아릿다운데다…》

《오호ㅡ 그러다보니 누구보다도 귀 승이 먼저 반한 모양 아닌가. 어쨌든 그런 계집이 그 무지꿍한 놈한테 고분고분할가?》

《계월향은 무척 말랐습니다.》
이런 대답 아닌 대답을 하는 늙은 왜승의 어음에는 다소 애틋한 여운이 들리는듯도 했다.
《어째서?》
소서행장이 물었다.
《걸녀 역시 이 평양성에서 피란해나가다가 공교롭게도 우리 일본군사들한테 붙들려서 끌려왔는데… 와서는 근 열흘이나 식음을 전폐했으니까요.》
《식음을 전폐하다니… 통 먹지를 않았단 말인가?》
《하.》
《어째서?》
《글쎄올시다.》
현소는 속에서 나오는 말을 일부러 어금이로 씹어누르는듯 한 얼굴이였다.
《열흘이나 굶었다! 죽으려구-》
한번 《흥!》 코장구를 친 소서행장은 《소위 의리라는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저 혼자라도 <신쥬>(정사라는 뜻)를 해야 할 정랑(사랑하는 남자)이라도 있었던가?》 하며 웃는다.
《글쎄올시다. 정랑탓이라면 그 정랑이란것이 사람이기나 한지요.》
《사람이기나 한지요란 또 무슨 소린가? 유령정랑도 있는가?》
《그야 계월향이 고마녀인이니까요.》
《고마녀인은 유령정랑을 두기도 하는가?》
또 이런 말을 묻는 소서행장은 저자신 정색을 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는듯 한 낯빛이였다.
《저,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도노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기에 하는 말인데 수천리나 떨어져있는 우리까지도 저주하지 않을수 없을만치 우리앞에 커다란 위력으로 막아서는 저 남해의 조선수군장 리순신이도 유령이라면 유령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늙은 중은 소서행장의 노염이나 사지 않을가 하는지 그의 눈치를 흘금흘금 살피며 지껄였다.
《이봐, 여는 중이 아니니까 그런 선문답 같은 말은 그만하고 그래, 계월향이가 어쨌다는건가?》
《네에- 제가 하고저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올시다. 여기까지 미친

리순신의 그림자에 우리 일본군이 위혁을 받는다는것을 혹시 안다면 계월향의 마음은 곧 남해로 달려갈것도 같사와…》

《허어! 그런 건방진 계집이던가? 대체 제가 몇푼에치나 건방진가 한번 불러 구경해야겠소.》

이런 말을 하며 말머리를 돌려 다시 달리려던 소서행장은 눈에 뜨인 영명사를 내려다보며 현소에게 물었다.

《저 절에는 고마인중들이 아직두 남아있는가?》

《네, 한 십여명 되나보올시다.》

《그자들만이 어째서 아직도 이 평양성근처에 남아있는가?》

《거의가 다 나다니며 동냥도 하기 어려울만치 늙은것들인데 도노께서 특별한 처분으로 남겨주신 절의 식량이 아직도 좀 있으니까 연명할 때까지는 그냥 있을 모양이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연명할만치 식량을 대주게.》

《하?》

현소는 그 까닭을 모르겠다는듯이 소서행장을 쳐다보았다.

《여의 말은 평양성가까이 있는 큰 절이니만치 그 중들은 이 지방에 아는 사람이 많을게고 또 이곳 백성들중에는 그 중들의 말이면 신청할자도 많을것이니까…》

여기서 잠시 말을 끊었던 소서행장은 다시 이런 말을 했다.

《아, 그렇지! 말 무중이를 하나 건사했더니 천리룡마가 찾아왔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앞으로는 이곳 백성들을 될수록 많이 끌어들여야 할게고. 그러자면 저 중들이 고마인의 민심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될지두 모르니까. 알겠어?》

《네네, 그러지 않아두 저번 동대원에서 시다림을 할 때 그들과 필담을 했더니 비록 나라는 다르나 피차 불제자이기는 마찬가지라 이같이 만나게 된것도 부처님의 인연이라고 하는자도 있었습니다.》

《아첨이겠지.》

소서행장은 《내 예리한 판단이 어떤가?》 하고 묻듯이 현소의 말끝에 이런 한마디를 던졌다.

《하, 미상불 아첨이 아닌바도 아니겠지요.》

아첨했다는것이 바로 자기이기나 한것 같이 현소는 공축했다.

《아니, 여의 말은…》

소서행장은 자기의 말이 하나의 역설이였다는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첨하는자일수록 좋다는게야. 우리에게 진심으로 열복할 고마인이 있을리도 없겠지만 설혹 있더라도 진심으로 열복하는자는 또 결사적으로 반항할수도 있는자니까. 알겠어? 처음에는 옳은줄 알고 그랬다가도 그것이 잘못인줄 알게 되면 그때는 또 진심으로 반항할테니까. 또 그런자는 령리하지가 못하거던. 그런 우직한자들보다는 아첨도 할줄 아는 령리한자일수록 리용하기가 쉬우니까. 그런자들에게는 량식을 좀 주어도 좋아. 주어.》

이런 분부를 내린 소서행장은 말을 몰았다. 성가퀴를 따라 서북쪽으로 갈수록 일본군사가 많았다. 칠성문과 보통문을 중심으로 주력부대가 배치된것이다. 칠성문루에서 바라보이는 무연한 보통벌에는 논밭곡식들이 한창 성숙해가는중이였다. 계속 내리는 비에 기온이 내렸다가도 좀만 개인때면 땅에서 김이 오르는 중복머리라 한창 자라는 곡식들은 아침저녁이 다르게 컸다. 논판에는 붉은 물빛도 안 보일만치 오른 벼로 푸른 물결을 이루었다. 그런 논벌에는 오다가다 손가래를 든 조선농군들이 뵈였다. 초록일색인 들가운데 혹은 해오라기가 아닌가싶기도 한 흰옷입은 그 사람들은 퇴수구를 넓히기도 하고 낮은 뚝에 보토를 하기도 하는 모양이였다.

《이 농가들도 역시 비였는가?》

성밑의 이전 전주복이네가 살던 동네의 5～6호 농가를 굽어보며 소서행장이 물었다.

《네, 다 비였습니다. 한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서행장의 말앞에 꿇어 엎드린 성문지기장교가 대답했다.

《그러면 저렇게 여전히 농사를 하는 저 고마인백성들은 다 어데 있나?》

자못 의아한 소서행장은 혼자말갈이 물었다.

《저 고마인백성들 말씀이오니까?》

땅에 댔던 이마를 잠시 들어 보통벌을 바라보며 문지기장교는 말했다.

《글쎄올시다. 저자들은 어데서 나오는지 날이 밝아서 보면 벌써 나와서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저녁에는 또 어데로 돌아가는지 알수 없게 어두울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다 끝난 모양이올시다만 한창 논김을 맬 때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일수록 저 백성놈들은 더 많이 쓸어나오군 합니다. 그런것이 밉살머리스럽기도 해서 우리 군사들이 몇번 습격하러 나가

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서행장은 또 그자의 말을 재촉하듯이 물었다. 그러나 그자가 말하는 사실을 지금 처음 듣는것은 아니다.

평양성을 점령하자 저 산기슭의 어느 마을로 략탈하러 나갔던 근 30명의 장졸들이 온데간데 모르게 없어졌고 그래서 그날 밤으로 그들을 찾아본다고 나갔던 군사들은 어느 마을에선가 벌써 녹이 쓴지 오랜 솥을 몇개 발견했을뿐 아무런 형적도 찾지 못하고말았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측근자들의 보고로써 이미 다 들어 아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도 소서행장은 여기서 제눈으로 본 장교의 말에 일종 흥미를 느끼는것 같기도 했다.

《우리 군사들이 이 성문으로 나가는 낌새가 보이기만 하면 어느새 다 없어지고맙니다. 산지사방 흩어져서 산속으로 물잦아먹듯이 숨어버립니다.》

이번에도 또 《그래서?》 하는 소서행장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자의 말보다도 그자의 류달리 굵은 목덜미에 더 흥미를 느끼면서 굽어보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처음 한두번은 우리 군사가 끝까지 추격한적도 있사온데 저 산속으로까지 쫓아갔던 군사들은 대개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뭣이? 대개는 어쨌다고?》

《예에, 돌아오지를…》

《돌아오지를 못했다고?》

《예, 예…》

《거짓말말아, 이놈아.》

소서행장의 이번 말은 무서운 호통이였다.

《하?》

금시 한점이 되다싶이 사지가 오그라든 문지기장교는 떨기 시작했다.

《여의 앞에서 능당히 거짓말을 하는 흉측한 놈같으니— 게 바루 앉으렷다.》

태도가 변한 소서행장은 씹어뱉듯 하는 말과 함께 칼을 뽑았다.

《제가… 아니 이, 이놈이… 감히 거짓말을?…》

이미 사색이 다된 장교는 입술이 아물리지 않아서 떨리는 말을 더듬다말고 단정히 꿇은 무릎우에 상반신을 일으키고 목을 늘였다.

《에잇!》

외마디소리와 함께 말우에서 내려친 칼에 장교의 머리는 진창에 굴렀다. 한번 휘둘러서 피를 뿌린 칼날을 마침 구름장사이로 새여나오는 해빛에 어리여보는 소서행장의 입가에는 득의연한 미소가 흘렀다. 그는 시험삼아 목을 벤것이다. 여벌로 새로 장만했던 칼을 시험해본것이였다. 마침 류달리 굵은 모가지가 눈앞에 등대해있었던것이다.

《우리 일본군사들이 저 토민 백성따위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구? 그럴리가 없는것이다. 거짓말이다.》

이미 목을 찍은 시체에게라도 죽어마땅한 죄목을 일러줄 필요가 있다는듯이 말한 소서행장은 시험에 성공한 칼을 다시 꽂으며 《그렇지 않은가?》 하고 동의를 구하는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중 현소와 소 요시도모는 지당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말우에서 허리를 굽혔다.

《앞으로는 저 고마인백성들이 농사하는것을 방해하잘것은 없겠지.》

소서행장은 허리를 굽혀 두사람에게 의논하듯이 새로운 말을 꺼냈다.

《하는대로 내버려두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소 요시도모에게 《저 고마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하는 소서행장의 말은 불쾌한 어조였다.

《그야 물론 농사이지요. 하나…》

현소가 그 두사이에 나서듯이 말을 시작했다.

《저 고마백성들은 지꿎게 보자면 그 얼마나 밉살머리스럽습니까요. 우리에게는 통 곁을 안 주고 겨울 개구리나 뱀같이 땅구멍속에 숨어있으면서도 굶을수는 없으니까 끈덕지게 농사만은 짓고있으니…》

《아니, 아니지.》

소서행장은 또 현소의 말을 막았다.

《저자들은 역시 겨울 개구리나 뱀같이 굶기도 할게요. 혹시 짚이나 먹을가. 곡식은 다 우리가 차지할테니까. 패배자는 언제나 자기네의 땀의 결실을 정복자에게 바쳐야 하는 법이니까.》

소서행장은 이러한 자기 말에 퍽 만족했다. 두사람을 돌아보며 그 말을 되풀이하고나서 또 입을 열었다.

《그뿐아니라 전쟁에는 언제나 군량이 남아돌아간다는 법은 없으니까. 또 다다익선이니까. 저 곡식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차지하도록 해야 할게요. 그러니까 고마백성들이 하는대로 내버려두오.》

말을 마친 소서행장은 성가퀴를 따라 보통문쪽으로 말을 몰았다. 얼마 못 가서 또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늘의 변화는 변덕스러웠다. 어느새 굵어졌던 비발이 칼로 베인듯 금시 멎기도 하고 멎었는가 하면 하늘을 뒤마는듯 한 뢰성과 함께 또 쏟아지기도 했다.

소서행장의 일행이 억수로 퍼붓는 소나기를 맞으며 만수대우에 올라선 때였다. 마침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방금까지 백포휘장을 둘러친듯 했던 비발이 걷히며 다시 초록일색으로 드러나는 보통벌가운데 한 자그마한 로인의 모양이 눈에 띄였다. 지팽이끝에 두손을 얹고 서있는것으로써 멀리서도 로인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대체 저것은 웬 사람일가?》

앞섰던 소서행장이 먼저 말을 세우며 말했다.

《논에서 일을 하는 모양도 아니고…》

《글쎄올시다.》

역시 말을 세우고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던 현소가 말했다.

《고마인의 중이올시다. 저 붉은 가사가 보입니다.》

《중? 혹시 귀 승이 만났다던 영명사의 중은 아닌가?》

《글쎄올시다. 머니까 그렇게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중을 만나면 재수가 어떻다든가?》

《그야 물론 상상길(좋은 일)이겠지요.》

현소는 웃었다. 그런 물음의 대답으로야 중이 중을 헐어서 대답할리 있느냐 하는듯 한 웃음이였다.

《그럴가? 그러나 저것은 고마중이니까ㅡ》

소서행장 역시 웃었다. 그러면서도 벌판 한가운데서 늙은 중이 무엇때문에 비를 맞으며 서있는가 하는 소서행장은 《혹여 저 산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절이나 암자가 있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나라는 고마인의 나라, 고마인들만이 아는 그 산, 그 길, 그 골짜기, 그 나무숲, 그 동굴들! 그리고 그들만이 통하는 말과 신호. 어느 바위뒤에서나 어느 나무사이로나 풀포기속에서나 이쪽의 행동을 엿보고있는 무수한 고마인의 눈동자들! 그러한 고마인의 산속에서는 단 한명의 고마인을 찾아내기에도 열명의 군졸이 필요하고 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4～5명이 먼저 꺼꾸러져야 한다는것은 사차불피(죽는 한이 있어도 피할수 없다는 뜻)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때는 수하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이 평

양성부근의 산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소탕해버렸으면 하는 욕심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바라보는 저 산밖에는 또 산, 그 산밖에는 또 산이다. 끝이 안 날 일. 결국은 고마인의 산속에 그리고 고마인의 바다속에 잠겨버리고말것이였다.

비가 또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을 한바퀴 돌려던 생각을 버리고 길을 꺾어 련광정으로 말을 재촉하는 소서행장은 자못 불편하다던 《여의 심기》가 조금도 펴이지 못했다.

이튿날 소서행장은 과연 계월향이를 련광정으로 불러냈던것이다.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대강만 스치고 넘어가기로 하자.

소서행장이하 그 부하장수들이 술자리를 벌리고있는 련광정으로 끌려나간 계월향은 해쓱하게 여윈 자태에 소복단장이나 다름없이 담소한 옷차림이였다.

소서행장은 미리 갖추었던 지필묵을 내놓고 현소를 시켜 필담으로 계월향에게 우선 란을 그리라고 했다. 계월향은 그 대답으로 붓을 들어 《송나라 정사초를 아는가?》 하고 썼다.

현소는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얼굴을 붉히며 모르겠다는 뜻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이때 계월향이도 와락 제 얼굴이 붉어짐을 깨달았다.

송나라 말년의 선비 정사초는 원에게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자부터는 그 능한 붓을 던지고 다시는 란을 그리려 안했다. 혹시 옛 친구가 굳이 청하는 때면 붓을 들기는 하나 란 한포기만을 댕그라니 그려놓을뿐이였다.

《왜 땅은 안 그리는가?》 물으면 《우리에게는 란이 뿌리를 박을 땅이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고 했다.

그러한 강개지사 정사초에 감히 자기를 비기려 했던것이 계월향은 죄송스러울만치 부끄러웠던것이다. 왜승 현소가 그러한 정사초의 고사를 모르는것이 다행한 일이기도 했다.

계월향은 그 글줄을 지우고 다시 썼다.

《지금의 이 평양성에서는 란이 살지 않는다.》고.

《그 무슨 뜻이냐?》며 따지자고 강박하던 소서행장은 마침내 춤을 추라고 했다. 몸이 불편해서 춤을 출수 없노라고 잡아떼던 계월향은 《그같이 강요한다면 검무를 할터이니 칼을 달라.》고 썼다. 놀랜 눈으로 글

자를 따라보던 현소는 제 붓으로 그 글줄을 지워가며 소서행장에게 뭐라고 지껄였다. 소서행장은 계월향이 몸이 추설 때까지 유예한다고 하며 돌려보냈던것이다.

42. 서산대사와 사명당

서산대사는 드디여 왕의 명을 받아 8도 16종 도총섭이 되였다. 즉 조선8도에서 일어난 승병의 총대장이 된것이다.

얼마전에 령의정이 된 류성룡이가 지난 5월 열하루날 평양에서 우연히 서산대사를 보았노라는 말로써 왕으로 하여금 3년전에 대 한폭을 그려주었던 중을 회상케 했던것이다. 류성룡은 벌써 전에 고산진 첨사로 있다가 친상을 당하여 자기 고향에 돌아와있던 김응서를 다시 등용하도록 천거한 일도 있었다.

조방장이 된 김응서는 곧 순안으로 나와서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리원익 등을 보좌하여 우리 관군을 재건하기에 착수했다. 그의 고향이 룡강이라 삼화, 강서, 증산 등 서해변 여러 고을의 정형을 잘 아는만치 군사를 초모하는데서부터도 그의 공적은 컸던것이다.

이때 왕 선조는 곧 사람을 묘향산 보현사로 보냈다. 그 늙은 중이 아직도 평양성근처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묘향산에서 다시 잡약산으로.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은 서산이 의주 행재소로 간것은 7월 하순이였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왕은 《네 어찌 나를 잊었던고?》 하며 서산이 먼저 자기를 찾지 않은것을 나무랐다고 했다. 또 《이같은 란세를 네 가히 건질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던것이다. 왕이 한날 중에게 그같이 물었다는것은 그만치 서산대사라는 중을 한 인물로 인정했던탓이라고 일언이 폐지하면 그만이기도 하나 그러나 그렇게만 볼수는 없을것이다. 만일 이때의 정형이 그같이 절박한 시기가 아니였다면 우리는 왕의 그러한 언사에서 중에 대한 일종의 야유를 들을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런것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의 왕이 그 얼마나 암담한 처지에 놓여있었던가로써 설명된다.

그 당시에 척토지민다 육식자무모라는 말이 마치 새롭게 발견된 진리나 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였던 사실 즉 의로운 사람이 많았다는 《척토지민》은 척박한 땅을 자기네의 땀으로써 적시여온 그 역시 파리한 백성들의 이름이였고 무모했다는 《육식자》는 고량진미로써 배에 기름이 진 량반관료들을 가리킨 말이다.

평시에는 즉 그들이 례찬해온바 소위 《태평성대》시기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지도와 자기의 굽힘없는 절개와 충효로써 언제든 의를 위해서는 한목숨을 버릴수 있노라던 왕의 측근자인 량반관료들중에는 하루아침에 《태평성대》의 꿈이 깨지자 지금까지 해온 자기네의 장담을 잊어버리고 직책을 버리고 왕을 버리고 달아난자가 많았다. 왕이 한성을 떠날 때 체면이 사람 죽인다고 그 귀찮은 체면때문에 마지못해 평양까지 따라왔던 육식자들중에도 왕이 또 의주로 가게 되자 혹은 평양서 혹은 안주, 박천, 녕변에서 이 핑게, 저 핑게로 심지어는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꽁무니를 뺀 자들이 많았다. (여기서 그자들의 이름과 그 추접스러운 행장들을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6월 23일에 의주에 도착하고본즉 왕의 신변에는 측근자가 실로 몇이 남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왕이 있고 그 신변에 몇몇 대신관료들이 남아있으니 역시 조정은 조정이였다. 그렇게라도 조정을 차리고보니 지금까지 해온 당쟁이 또 없을수 없었다. 동인, 서인의 옥신각신은 곧 시작되였다. 건건사사에 한가지 사소한 일을 처결하는데도 그 많지 않은 조정신하들중의 공론이 일치하는 법은 없었다. 가령 어느 한사람의 인사문제를 의논할 때 동인중의 누가 그 사람을 두둔하는 기색이 보이면 서인측에서는 의무적으로 반대했다. 리유는 그 어느 사람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동인측에서 내세우는 사람이니까 서인측에서는 의례히 반대해야 했던것이다. 그 반대인 경우에도 역시 그랬다.

심지어는 리순신장군에 대한 론공행상을 하는데도 그들은 말썽을 일으켰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옥포앞바다에서, 당항포에서 특히 한산도와 안골포에서 일본함선 백여척을 격침하고 일본군 9천여명을 섬멸한 리순신장군에게 왕은 일품으로서 가자(품계를 올린다는 뜻)하자는 의향을 내놓았다. 7월 8일에 리순신에게 보낸 자기 유서에서 《뭇장수들은 수수방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갑옷을 버리고 병쟁기를 꺼꾸로 잡고 달아나는 이때에 경

의 용감과 충성이 아니던들 뉘 있어 나라와 더불어 생사존망을 같이할 것이랴!》라고 썼다.

왕은 이같이 감격했었다. 하특 왕뿐이였으랴. 온 조선백성이 다 그랬다. 그러나 육식자들중에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기어이 내리깎고야말았다. 리유는 그만한 전공에 일품을 준다면 후일에 더 큰 공을 세운 때는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일품은 빈 죽여만 보이고 아껴둠으로써 리순신으로 하여금 더 분발케 하는것이 좋으리라는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론리를 우리는 최상급의 호위로써 해석하자. 그러므로 비록 조선땅 한끝까지 피란해와서도 아직도 방이 차다덥다하고 국이 달다싱겁다할수 있는 그들이 시석이 비발치듯 하는 전장에서 생사를 겨루어 싸우고있는 우리 장병들의 운명을 마치 자기네가 쥐고있는것이나 같이 생각했다거나 혹은 리순신이 자기네와 동급 혹은 더 높아지는것을 시기해서 그랬다고 해석할 필요는 구태여 없을것이다. 극히 선의로 해석해서 그들은 리순신장군의 인품을 그렇게밖에는 더 높이 평가할줄을 몰랐을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자신이 《일품》같은 눈앞에 매달려있는 미끼가 없이는 더 무엇을 해보잘 의욕도 용기도 없는 그들이니까. 이러한자들의 존재가 후일에 리순신장군을 잡아가둠으로써 일시나마 나라에 큰 손실을 끼친 복선이였다는것을 말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관료배들은 극히 엄숙한 일이라도 할퀴고 헐뜯어서 하찮은 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극히 하찮은 일을 엄중한 일로 빚어놓기도 했다. 그들의 이러한 재간으로써 언제나 옥석은 혼동되고 아낄만 한 인재도, 침 뱉을만 한 소인도 구별은 없어졌다. 이같은 관료들의 손에서 환롱되는 정사는 자연 조삼모사로 아침에는 이랬던것이 저녁에는 저럴밖에 없기도 했다. 그러므로 《조정공사 사흘 못 간다.》는 말은 론박할수 없는 진리이기도 했던것이다.

《통곡관산월 상심압록풍 조신금일후 상가쟁동서》라고 한 왕의 한탄도 이때의것이다.

《국토의 한끝에서 우러러보는 달에 통곡하고 압록강바람에 마음 아프려든 조정신하들은 그래 아직도 동이니, 서이니 하고 다투는가?》 하는 뜻이다.

이때에 또 왕과 조정신하들로 하여금 바늘방석에 앉은양 더욱더 불안초조케 하는 사변들이 뒤이어 일어났다. 그 하나는 명나라에서 보냈던 군사의 패전이였고 다음은 우리 관군의 패전이였다.

앞에서도 잠간 말한바어니와 명나라 료동부총병 조승훈이 3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7월 19일 밤에 평양성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이때 우리는 박천의 대정강(지금의 대령강)과 안주 청천강에 배다리를 놓아서 명나라군의 행군을 보장했다. 명군이 청천강을 건넜을 때 그들을 맞이한 류성룡과 김명원은 조승훈에게 너무 조급히 서둘것이 아니라고 권고했었다.

리유는 한달째나 계속 오는 비를 맞으며 천여리길을 달려온 그들의 인마가 모두 피로했고 장비도 많이 손질을 해야 할것이기때문이였다. 오래동안 누진 활은 거의 쓸수 없이 되였고 (그들은 조총이 없었다.) 또 그의 군사가 모두 기병인데 그 말들이 우선 제대로 달릴수도 없이 된 형편이였다. 료동 칠백리 벌판에서만 사습해온 말이라 편자가 없는데다 한달동안이나 비를 맞으며 산악지대를 달려온 말들은 발통이 다 처져나갔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되는 장마가 멎기를 기다리면서 좀 쉴 필요가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조승훈은 듣지 않았다. 그는 일본군이 아직도 평양성에 있느냐 묻고 하늘이 나에게 큰 전공을 세울 기회를 주는것이라고 축배부터 들었다. 우리측에서는 더 만류할수 없었다. 또 그만치 그들의 위력을 믿기도 했던것이다.

평양성내의 지형을 모르는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적지 않은 우리 군사들이 참가하였다.

이때 왜군은 밤에도 성문을 닫지 않고있었다. 그것이 왜군의 태만인지 혹은 속임수였던지는 알수 없다.

조승훈은 사유라는 유격을 선봉으로 하여 밤 3경에 환히 열려있는 칠성문으로 쳐들어갔다. 선봉군은 대동관근처까지 돌입했다. 그때까지도 잠잠하고있었던 왜군이 일제사격을 하면서 좌우골목에서 쏟아져나왔다. 달려나온 놈들은 모두 귀신의 상판과 사자대가리 같은 탈바가지들을 썼다. 마침 훤히 밝아오는 새벽이라 그런 요물, 흉물들이 쓸어나오는데 우선 명나라 군사의 말들이 놀랬다고 기록들에는 씌여있다. 미쳐날뛰는 말들을 어거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비좁았다. 삽시간에 혼란이 일어났다. 선봉장 사유이하 천총 장국충, 마세룽 등 장수들이 죽었다. 형세불리하다고 본 조승훈은 말머리를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다. 보통문밖은 농할대로 농한 무논판이라 대렬을 흐트려 퇴각하는 명나라 기마대의 행동은 더욱 부자유로왔다. 여기서 명군은 3분의 1의 병력을 잃으면서 계속 퇴각하지 않으

면 안되였다. 왜군은 승승장구의 기세로 20리 밖에까지 추격해나갔다. 그러나 놈들은 이때에 뜻하지 않았던 반격에 부딪쳤다. 우리 관군이 부산앞고개에 결진하고있었던것이다. 여기서 날이 저물 때까지 격전이 벌어졌다. 조방장 김응서가 직접 지휘하는 우리 관군의 치렬한 반격을 받게 된 놈들은 많은 시체를 버리면서 다시 평양성으로 쫓겨갈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이때 김응서는 백마(그는 상제였으므로 흰말을 탔다.)를 몰아 바로 성밑에까지 추격하면서 많은 적들을 베였다.

조선군의 엄호에 의하여 일본군의 추격을 면한 조승훈은 그달음으로 압록강을 건너 돌아가고 이러한 사태를 알게 된 왕과 조정신하들은 락담했다.

그후 십여일만인 8월 초하루날이였다. 앞서 말한 부산고개에 집결해있던 우리 관군이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리원익, 조방장 김응서 등의 지휘하에 평양성을 공격했던것이다.

이 전투 역시 비록 실패는 했으나 그 의의는 큰것이였다. 그 경위로 보아서 실패할수밖에 없었던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락관할수 있는 새 정세를 찾아볼수 있었던것도 사실이였다.

실패할수밖에 없었던 리유는 대략 다음과 같은것이다. 첫째로, 우리 력량에 맞지 않는 전법을 취했던것이다. 이때 우리 관군이 평양주변에 새로운 병력을 집결하기 시작은 했으나 아직은 평양성내의 적을 포위하고 일대 공성전(성새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하는 싸움)을 전개할만 한 력량은 못되였다. 그렇다면 모름지기 적의 약한 고리를 끊고 불의습격을 하여 성내로 돌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을 유도해서 우리 편에 유리한 지점에 몰아넣고 치는 등의 기습전을 했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정공법을 취했던것이다. 즉 튼튼한 성벽을 의지하고있는 적의 대병력에 대하여 이편에서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그나마도 허허벌판인 보통벌에 들어서서 평양성의 4대문중에도 적이 가장 방비를 엄중히 하고있는 보통문을 백주에 정면으로 치기 시작했던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무모한 전법이였다. 성내의 적은 기다리고있었다는듯이 자기의 총병력을 집결하여 반격을 시작했다. 적의 조총탄은 우박같이 보통벌을 덮었다. 우리 군사들은 그같이 불리한 처지에서도 용전분투한 결과 성밖으로 반격해나온 적의 한 부대를 섬멸할수 있었다. 그러나 적이 대병력으로써 방비하는 보통문을 격파할수는 없었다. 전투는 늦도록 계속되였다. 마침내 대부

대로 반돌격해오는 적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관군은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때의 작전 그자체도 문제였거니와 그보다도 우리 관군은 좀더 인내성을 가지고 시간을 리용해야 할것이였다. 적이 진격해오지 못하는 한 시간은 어데까지나 우리 편이라는것을 알아야 했을것이다. 이때의 일본군은 이상 더 진격할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만치 시간은 우리의 력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했을것이며 그 반대로 평양성내에 있는 일본군은 날이 갈수록 군률은 해이하고 사기는 저락되고 염병은 류행하고 군량은 소비될 정세에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종당은 그렇게 되였던것이다.

이같이 정세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고 서둔때문에 실패는 했으나 우리 관군, 장병들이 그렇게 서두를수 있었다는것만도 크게 긍정적인 의의가 있는것이다. 즉 일단 파멸되다싶이 했던 우리 관군진용(진을 친 모양새)의 재정비와 아울러 그 사기의 앙양을 볼수 있는것이다. 십여일전에 퇴각하는 조승훈의 군사를 엄호하고 일본군의 추격을 중도에서 격퇴할만치 자기 진용을 재정비한 우리 관군은 한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도 능히 평양성을 탈환할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결과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 동기는 어데까지나 긍정적이였다.

또 한가지 거대한 의의는 이때로부터 우리 관군의 력량이 커진것을 알게 된 소서행장은 이상 더 북으로 진출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된것이였다.

이렇듯 앙양된 사기는 앞으로 7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말할수 없이 엄혹한 시련을 겪어가면서도 끝끝내 우리 힘으로써 침략자 일본사무라이의 군대를 우리 조국강토에서 소탕할수 있었던 우리 력량의 맹아중의 하나였던것이다.

그러나 압록강가에서 언제나 한발을 저겨디디고있던 왕과 그의 측근자들은 그 패보에 오직 전전긍긍했을뿐이였다. 그 결과만을 보고 떨었던것이다. 실록(《조선봉건왕조실록》)에 의하면 이무렵에 의주 행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군신간의 대화가 있었다.

윤두수: 《지금은 민심이 저으기 안정되여 영유 등지에서는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호미와 보습으로 병쟁기를 만들고있습니다.》

왕: 《평양에 있는 왜적들이 더는 나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일가?》

윤두수: 《왜적이 겁을 내서 못 나오는 모양이올시다.》

왕: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적들은 필시 어떤 간특한 계책이 있어서 가을선기가 나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닐가?》

이러한것이다.

이때 민심이 저으기 안정되여 호미와 보습으로 칼과 창을 만드는것은 비단 영유 등지의 백성들만이 아니였던것은 물론이다. 앞서도 말한바어니와 이때만 해도 벌써부터 의병을 일으켜 싸우기 시작한 홍의장군 곽재우를 비롯하여 조헌, 김천일, 홍언수, 홍계남, 조호익, 림중량, 정문부 같은 의병장들이 8도 각처에서 일어났었고 그 막하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실로 방방곡곡에서 호미와 보습으로 칼과 창을 만들어가지고 나선 농민들이 대부분이였다. 그러나 나라땅 한끝인 의주에서 이런 정형을 잘 모르고있는 왕과 그 측근자들은 언제 또 일본군이 진격해올는지 모른다는 위구로써 오직 불안했을뿐이였다. 그런중에도 여전히 동이니, 서이니 하는 당쟁을 일삼는 조신들 틈에 끼여있는 왕은 외롭기조차 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한 처지의 왕이 서산대사에게 《이같은 란세를 네 가히 건질수 있겠느냐?》 한것은 결코 야유가 아니였던것은 물론이다.

《네, 전국의 승도들로 하여금 그중의 늙은자들은 제 처소에서 불전에 향을 사르고 천우신조를 빌게 하고 그외의 건장한 중들은 다 전장에 나가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은 이같이 대답했다. 이때 그의 등뒤에서 자기 스님의 대답을 듣던 사명당은 혼자 머리를 끄덕이고 또 내심으로는 싱긋이 웃기도 했다. 스님이 이때까지 자기가 해온 일은 말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이 없는 말을 하는데 탄복했던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탄복하기 전에 우선 《로회한 늙은이!》 했을는지도 모를것이다.

부처앞에 분향하고 축원하는것으로써 순순히 물러갈 왜적이 아니므로 서산은 건장한 중들에게는 병쟁기쓰는 법을 익히게 하고 그외의 늙은 중들은 민간으로 내보내서 쇠붙이를 걷어들이도록 해왔다. 모아들인 헌쇠는 동금강암에서 창과 칼과 철퇴와 살촉이 되였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것이였다. 그러면서도 서산이 그렇게 대답한데는 까닭이 있었다.

서산에게 물은 왕의 말에는 그때도 역시 많은 중들이 있는만치 서산대사가 그들을 불러모아서 승병을 일으킬수 없겠느냐 하는 뜻이였던것은 물론이고 그밖에도 또한 다른 뜻이 없지 않았던것이다. 다른 뜻이라는것

은 도통한 불승으로 이름높은 서산대사가 불전에 기도를 올림으로써 천우신조를 빌어서 왜적을 물리치고 이 국난을 면할수 있지 않을가 하는 기대였다.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천우신조를 빌기 위해서 불전에 기도를 올리는 풍습은 고려 중엽으로부터 더욱 숭상해온 일이다. 이때의 왕 선조의 말에도 그런 의사가 없지 않아있었으므로 서산의 대답이 그랬던것이다. 그 대답이 사실과는 좀 다른만치 거짓말이라거나 또는 상대방을 좀 얕잡아 한 대답이라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앓는 아이의 배를 쓸어주면서 《내손은 약손이다.》 하는 어머니들의 말에 속임수나 궤휼(거짓스럽고 간사스러운것)이 있다고는 할수 없을것이다. 서산대사뿐아니라 선승이란 대개 저자신을 존대하거나 거만하지는 않으면서도 누구나 사람을 어린아이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린데서 얻은 배짱이라고도 할수 있는것이였다.

왕은 서산의 그러한 대답에 만족했다. 그는 서산을 도총섭으로, 사명당을 부총섭으로 임명하고 동시에 각 도 방백들에게는 승병을 홀시 말고 떳떳이 대우하라는 령을 내렸다. 이때의 왕은 사명당에게 환속하기를 권도하기도 했었다.

벌써부터 서산대사문하의 준총으로, 글 잘하고 덕행이 높은 선승으로 이름을 떨쳤던 사명당은 당시 48살의 장년으로서 팔척장신에 괴걸한 풍모를 가진 위장부였다. 우선 그 형형히 빛나는 눈과 준수한 코와 그리고 또 윤이 흐르는 길고 숱한 수염만으로도 헌헌대장부의 기백이 넘치는듯 했다. 그 수염은 그의 유명한 《살발도진세, 존수표장부》라는 말로써 설명되는 수염이였다. 즉 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깎고 중이 되기는 했으나 자기는 역시 한 대장부이므로 수염만은 길렀노라는것이다. 그러한 위장부 사명당이 언제나 읍하고 모시는 그의 스님 서산은 비교적 잔작한편으로 오직 깨끗이 세인 눈섭뿐 수염도 없었다. 모르는 사람이 그의 풍채만으로 보아서는 사명당이 서산의 제자라고 하기 쉽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이런것이 있다. 이때로부터 15～16년전 사명당이 묘향산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서산문하의 제자가 되였을 때의 일이다. 둘이서 어덴가 먼길을 가게 되였다. 제자의 례로서 그때도 사명당은 스님의 뒤를 따라가고있었다. 그뿐아니라 서산의 몫까지 겸한 무거운 길량식짐을 져야 했다. 날씨는 무덥고 산길은 험했다. 진력이 난 사명은 《요만

늙은이가 스님이라고!》 속으로 투정을 했다. 자기와 비하면 졸소한편이기도 한 서산이 눈에 차지 않기도 했으려니와 《스님이라고》 짐을 나누어질 생각도 않는 모양인 서산이 미운 생각도 들었던것이다. 가다가 어느 령마루에서 쉬고난 때였다. 사명당이 다시 짐을 지려고 할 때 《너는 너 갈데로 가거라.》 하는 뜻밖의 서산의 말에 사명당은 놀랬다.

《왜 그러십니까?》

《네가 네 맘을 들여다보면 알 일이지 물을것이 있느냐.》

이러한 서산의 대답에 사명당은 다시는 그런 맘을 안 가질터이니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는것이다. 이 이야기는 서산이 남의 마음속까지도 꿰보는 《타심통》이라는 신통력을 가졌었다는 증거나 같이 전해오는 이야기다. 하특 그런 《타심통》이 아니라도 기걸(끼끗하고 호걸답다는 뜻)하게 큰 사명당이 속으로 투정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나온 방귀소리만으로도 그만 눈치는 누구나 다 했을는지 모른다. 어쨌든 사명당은 그만치 장대한편이였다. 시작한김이라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언젠가 어느 마을에 내려갔을 때의 일이였다. 닭알을 외벌줄로 쌓는 도승들이 왔다고 하여 마을사람들이 닭알을 여러 꾸레미 가지고 모여왔다. 닭알을 우에서부터 내려고인다는 서산대사의 재간을 구경하고싶기는 하나 하도 점잖아보이는 로승이라 그런 청을 할수가 없어서 치가리는것이라도 구경하자고 그 제자에게 청했다. 사명당은 쾌히 《그러마.》 했다. 그리고는 닭알을 하나하나 빠개서 입에 털어넣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아차아차 하고 보는 동안에 몇꾸레미를 다 삼킨 사명당은 마침내 손을 들어 배에서 목까지 금을 그어보이며 《이속에다 가렸다.》고 했다. 사람들은 닭알 몇십알을 단무릎에 삼키는것만으로도 희한한 재간같이 구경했다는 이야기다.

사명당은 술을 말로 마실수도 있고 한마리 돼지를 먹을수도 있었다. 이런 점으로 사명당은 중같지 않은 중이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자기 스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도록 삼가며 서산곁에 모시는양을 보면 그 팔척장신의 위장부가 마치도 어버이곁에 감겨도는 어린 자식같이 귀여운 태가 보이기도 했다. 그런 때의 서산에게서는 더욱더 어쩔수 없는 무게가 느껴지기도 했다. 그 체통만 한 바위도, 옹근 쇠덩이도 그렇게 무거울수는 없을것 같았다. 하나의 이끼돋친 달망진 바위 그러면서도 그는 젊은 제자 사명당보다도 더 표정이 풍부한편이였다. 눈물도 웃음도 있는 바위라고 할가? 사명당은 퍽 대범한편이였다. 서산은 다감한 서정시인이였고 장

년 사명당은 산문가이며 정론가인편이였다. 당당하게 수천마디의 말로 조금도 꾸김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유세객일수도 있었다.

왕 선조는 그러한 사명당에게 《네가 머리를 기르고 세상에 나온다면 나라에 중히 쓰이리라.》고 하여 환속을 권했던것이다. 이때 사명당은 《중도 이 나라의 백성이므로 신은 역시 한 중으로서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써 환속하기를 거절했다.

사실 그는 중그대로 7년간에 걸친 국란에 헌신적으로 싸우고 일했다. 이듬해인 계사년 4월에 한성을 회복한 후부터는 년로한 서산을 대신하여 도총섭이 되였고 마침내는 일국을 대표한 외교가로 활약하게 되였던것이다.

임진란후 풍신수길의 뒤를 이어 일본의 정권을 잡은 도꾸가와 이에야스의 간청에 의해서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된 때 조선대표로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명당이 그 얼마나 우리 나라의 위신을 선양했던가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잘못을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것을 약속하고 사명당의 요구대로 전쟁중에 붙들어갔던 우리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우리는 《임진록》에서 사명당이 일본 갔을 때의 이야기를 진진한 감흥으로써 읽을수 있다. 서산대사와 사명당이 도통한 중이였다고 일러왔던만치 《도술》이니, 《진술》이니 하는것에 가락해서 그 작가가 좀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동시켜 꾸민 이야기(물론 그렇기때문에 《임진록》이 《임진록》다운 맛이 나는것이지만)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일국의 대표로서의 사명당이 그 얼마나 당당했던가를 우리로 하여금 가히 짐작케 하는것이다. 그중에 조선사신을 떠보기 위해서 일본사람이 길가에 쳐놓은 백간병풍의 글을 사명당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한번 읽어보고 다 외웠다는것 같은것은 실지 있을수 있는 이야기다. 그것은 물론 한문이였을것인데 그 당시의 일본에는 아직도 저희것으로써 백간병풍을 채울만 한 글이 없었다고 해도 별로 실수될것은 없을것이다. 그러니만치 그것은 필시 사명당이 이미 잘 아는 한문이였을것이다. 물론 그 글을 다 외울수도 있었겠지만 한간 접혀있는데는 일부러 빼고 외웠다는데 사명당의 기지를 생색나게 묘사한 작가의 필치의 묘미가 더 나타나는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온다. 그때 사명당을 영접해들이는 정문에 시문(是門)이라는 현판이 붙어있었다. 말을 타고 그앞에까지 갔던 사명당은 그 현판을 떼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했다는것이다. 그 까닭은 《是》

자를 파자하면 《日下人》이 된다. 이것을 일본의 뜻으로 보면 일국의 대표가 그런 문으로 드나드는것은 굴욕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是門》은 무의미한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깜찍한 생각으로 그 장난을 했던 일본사람들은 황겁히 그것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 역시 있을만 한 이야기다.

있을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

임진란 중기에 사명당은 울산근처에서 왜장 가등청정이와 몇번 만난적이 있었다. 이때의 일본군은 4월에 한성서 쫓겨난 후부터 이미 기세가 꺾이고 찌부러져서 남쪽 한모퉁이 울산 동래근처에 구겨박혀있던 때였다.

사명당은 가등청정이와의 교섭을 비롯하여 이때부터도 한 외교가로 활동하기는 했으나 그 목적이 결코 일본군과 강화를 하기 위한것은 아니였다. 그는 일본군이 우리 조국땅을 한치라도 깔고있는 한 적과의 강화는 있을수 없다고 주장했던것이다. 우리는 그의 란중일기인 《분충서난록》에서 가등청정이와 주고받은 필담중에서 다음과 같은 일절을 찾아볼수 있다.

《너희가 우리 나라를 침략하게 된것은 모두가 소서행장과 평의지때문이다. (이것은 가등청정이와 직접 하는 말이기때문에 이렇게 한 말일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은 비록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모두다 이를 갈며 그자들의 고기를 씹고저 하거늘 우리 나라가 비록 너희놈의 손에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일본과 강화라는것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사명당이 가등청정이를 몇번 만나러 갔던것은 주로 적의 정형을 살피기 위한것이였다.

한번은 가등청정이가 물었다.

《당신네 나라에서 가장 보배로 치는것은 무엇인가?》

이에 사명당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보배라고 할것은 그대의 머리다.》라고 대답했다.

눈이 휘둥그래진 가등청정이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

《그대의 머리에 수천금의 상금이 붙었으니 그 아니 보배라고 하겠는가?》

이러한 사명당의 대답에 가등청정은 쓰겁게 웃었다는것이다.

이런 일화는 사명당의 그 호탕하고 뢰락한 인품을 방불케 하는 이야기다.

본줄거리로 돌아가자.

왕명을 받아 8도승병 총대장이 된 서산은 비로소 정식으로 전국 승려들에게 의병을 일으키라는 격문을 발표하고 1 000여명의 승병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에서 찾아온 사명당과 순안에서 부대를 합치였으며 그를 부총섭으로 삼고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각지의 많은 중들이 호응하여 의병투쟁에 참가하였다. 서산이 왕명을 받기 전에는 또 왕이 각도 방백들에게 승병들을 떳떳이 대우하라는 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승병은 합법적이 아니였다. 어간의 사정을 알수 있는 문건들이 있다. 이미 말한바 서산의 사신을 받고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승병의 통문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우리들이 일어난것은 조정의 명령이 있어 그런것은 아니다. 만일 죽음을 저퍼하는 마음이 있는자는 우리 군사에 들어오지 말라.》(실록—임진 8월 26일)

즉 합법적이 아니였던것이다.

또 다음 같은 례도 있다. 강원도 도순찰사의 종사관 겸 초모대장인 홍린상이가 관군을 모집하는 통고문가운데는 《…애비도 없다, 임금도 없다 하는 중들까지도 분기하여 무리를 모아가지고 왜적을 치고있거늘 황차 우리는 선비며 또 례악(례의도덕)의 가르침을 멕감듯 하여 군부(임금)에 대한 대의를 조금은 안다고 하는 우리들일가보냐.》 이런 문구도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서산대사가 8도 16종 도총섭으로서 발표한 격문은 큰 영향력이 있었다. 이때까지 세상사를 모른다 하고 산속에 들어앉아 례물을 일삼던 중들도, 목탁을 치며 동냥하던 중들도 모두가 장삼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륙환장을 창칼로 벼려들고 전민족적으로 일어난 진충보국의 성스러운 조국전선으로 달려나오게 되였던것이다.

43. 달밤의 풀피리소리

아무리 늦된 벼라도 그전에 이삭이 패기만 하면 먹는다는 백로가 지난지도 벌써 며칠째다. 보통벌은 그 며칠전부터 빛이 달라졌다. 이삭팬 벼꽃으로 푸른 물결우에 새로운 한 색갈을 더했다. 또 다행히도 이때부터 궂은 장마가 걷기 시작했다. 구름은 희여지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가위 가까운 중추 긴긴밤이 얼마나 깊었을가. 잠들었던 서산은 자리에 닿은 한쪽몸이 배겨서 일어나 앉았다. 잘 때는 끄리라고 했던 등잔불이 아직도 감실거리는 나무화대뒤의 창에는 알아볼수 있게 달빛이 푸르렀다.

옆방에서는 사명이 그린듯이 누워자는 모양으로 부시럭소리도 안 난다. 사명당은 그동안 승병들이 나뉘여있는 근처의 절과 암자로 다니면서 그들이 무예를 익히는것을 동독하다가 오늘 낮에 돌아왔다. 뼈가 굵고 살이 두터워야 잠도 깊이 드는 법이다. 이러한 생각에 서산은 제자 사명의 정정한 건강이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감실거리는 불빛에 머리맡에서 번들거리는것이 있었다. 무쇠로 부어 만든 투구였다. 그것은 지금 여러 패의 대장간을 차려놓고 병쟁기를 만드는중인 동금강암에서 사명이 손수 도본을 내서 만들게 한것이다. 도본은 어떤것이였던지 모르나 정작 된 물건은 투구라기보다 한낱 투박한 무쇠바가지였다. (이것은 지금도 묘향산 보현사에 보존되여있다.)

서산은 한달쯤 전에 보통벌 한가운데서 만수대 성가퀴우로 말을 달려가는 왜장을 바라보았던 생각이 났다. 서산은 그것이 소서행장이였다는것은 모른다. 단지 그 금빛 찬란한 투구로써 지위가 하낮지 않은 적장이라 짐작했을뿐이다. 번쩍이는 그것이 한갖 장식이라면 저 투박한것이 오히려 접전장에서 소용되는 투구라고 할것이였다.

사명당은 그것을 쓰고 한아름 되는 수염속에서 웃으며 혹시 서산스님도 소용된다면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면서 두고 간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가 자고있는 그의 방에는 큰 검과 동달이군복이 길게 걸려있을것이다. 그 군복과 검과 저 무쇠투구만으로도 서산은 사명이 더욱 미쁘게

생각되였다. 50이 다된 제자 사명이 귀엽게도 생각되였다. 이 늙은 스님은 저렇듯 무거운 쇠투구를 쓸수는 없을것이고— 그러나 사명이 있지 않는가! 하는 서산은 앞으로는 접전 또 접전— 이제 얼마 있어 추수부터도 싸움이 없이는 안될것으로 생각해온 근심도 저으기 덜리는듯 했다.

창에 비친 달빛이 더욱 밝아진것을 본 서산은 장삼을 입고 가사를 수하고 지팽이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바자문밖의 맑은 이슬방울이 맺힌 풀숲에서 들리는 벌레소리 역시 그 령롱한 이슬방울같이 맑고 야무진 소리다. 우러러보는 달로 밤은 그리 깊지 않은 모양이다. 초협한 길을 지나 넓은 마당 한기슭의 버드나무아래로 들어섰다. 은빛일색인 달빛에 천지간의 모든것은 싱그럽게 정화된듯 아름답다. 정신도 쇄락했다.

서산은 지팽이를 버드나무에 기대놓고 고요히 눈을 감고 남쪽을 향하여 합장했다. 그는 지금 리순신장군을 념하는것이였다. 즉 리순신장군의 진충보국하는 그 애국지성에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천우신조가 있기를 념원하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서산은 나왔던것이다.

전번 의주 행재소에 갔을 때 류성룡에게서 리순신장군의 혁혁한 공훈을 들은 서산은 지금같이 청정한 때마다 합장하고 념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때 서산은 몰랐지만 저편 동구앞 길섶에서도 역시 남쪽을 향해서 합장하는 사람이 두셋 있었다. 서산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도록 일러왔다. 이밤에 마을주변을 기찰하던 그들은 지금 서산이 합장하는것을 보고 따라하는것이였다.

서산은 리순신장군을 본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속으로 《장할시고!》하는 그의 눈앞에는 성실하고 슬기롭고 용감한 리순신의 풍모가 보이는듯도 했다. 이런 때의 서산은 자기가 왕명을 받은 8도 승병장이라는것을 잊어버린다. 오직 조선사람의 순후한 심정일뿐이였다.

다시 지팽이를 들고 동구가까운 버드나무밑으로 갔을 때 쿵쿵하던 절구질소리가 멎고 녀인들의 말소리가 들린다.

《세확째나 쓸었는데두 쓰레미가 잘 안 나니 웬 일일가?》

《아마 잘 마르질 않았던가부웨다.》

칠성이네 집 바자안에서 나는 그 말소리는 하나는 김첨지 마누라이고 하나는 차돌이 어머니였다. 지금 서산은 이곳에 남아있는 아낙네들의 음성까지도 가려들을수 있었다.

《한확씩이나 더 쓸구는 그만두자구.》

김첨지 마누라의 음성, 그러자 키질소리가 잠시 멎으며 《왜요?》 하는것은 보패였다.

《안타깨 남갈이 살아볼래다가 못살구 죽은건 불쌍해두 다 이러는걸 보면 넋이라두 한이 없갔소.》

또 김첨지 마누라의 음성, 그 동닿지 않게 하는 말소리는 금시 처량했다.

《아니, 원! 별말씀을… 절구질이나 좀 하는걸 가지구. …》

차돌이 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여름내ー 가으내ー 또 이번엔 밤도와 비기까지 하실래게 댁의 아주바니가 수굴 하십디다.》

《우리야 앞뒤집에서 한우물물 먹구살지 않았소. 형님이랑 이 애기랑이야 언제 알기나 했다구. 그런데두 그 제사쌀을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이제 칠성이 엄마가 와서 <자, 제사쌀 다 해놨쉐다.> 하구 내놓으면 옥백미에 아마 눈이 번쩍 띌거웨다.》

칠성이 어머니는 남은 네 아이들을 데리고 동금강암으로 이사해간지 오래다. 그동안 그 집의 오려논은 김첨지가 도맡다싶이 김매고 돌피추고 물고를 보아오다가 오는 추석에 칠성이 어머니가 와서 제사를 지낼수 있도록 밤새 베여서 나락을 털기까지 했던것이다.

한동안은 싸르락싸르락 까불고 일고 하는 키질소리뿐. 흰 달빛에 명암이 분명하게 고요히 드리운 버드나무그림자속에 서있는 서산은 맑은 밤기운에 풍기는 구수하고도 청신한 햇쌀겨의 냄새를 느낄수도 있었다.

《애기, 그럼 몇확 더 쓸가?》

아까 《왜요?》 했던 보패의 말에 이제야 대답하듯이 김첨지 마누라가 묻는다. 그러자 또 키질소리가 멎으며 《그러문요, 좀더 쓸어야지요.》 하는 보패의 대답이다. 이때 문득 피리소리가 나는듯 했다. 뒤산 숲속에서였다. 피리가 아니라 풀피리소리다. 잠시 불다말고 뻣뻣이 쉰 풀잎인가 나무잎을 청을 내는 모양인지 찰싹찰싹 치는 손바닥소리가 몇번 난 후에 또 불기 시작한다. 피리소리 못지 않게 맑고 독특한 풀피리소리는 퍽 애절한 가락이였다.

《누군고?》

귀를 기울인 서산은 허심히 감탄했다. 가락은 차차 애절한 도를 지나쳐 구슬퍼갔다.

《아이구마니나! 그 소리 정말 구성지네.》
바자안의 김첨지 마누라도 감탄한다.
《거 누굴가?》
《글쎄요. 우리 아이는 낮에 고생원님(고충경)따라서 룡악산 절엘 갔는데요.》
웬 까닭인지 차돌이 어머니의 이런 대답은 변명같기도 했다.
《옳아! 그럼 승검술 대산가부웨다.》
《법근이 대사말이요?》
《그래, 그 대사두 최금(풀피리)을 잘 분다구 하던데.》
《…》
《달은 다잡구 밝구… 풍기가 좀 있는 대사라더니 정말 싱숭생숭한게로군. 뉘 집 애길 바람낼라구 저러노.》
또 이런 말을 하는 김첨지 마누라가 좀 잼잼이 없이 입이 싼편이기도 하지만 아닌게 아니라 그 풀피리소리도 소리였다. 남의 속을 후비듯이, 잡아뜯듯이 애끊게 격절한 몇굽이를 넘어 이제는 허희자탄으로 흐느껴우는듯도 했다.
《법근이놈이?》
지팽이끝에 두손을 얹고 은실같은 눈섭으로 눈을 내려덮고 귀를 기울이고 섰던 서산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잠심해 듣는 귀에 거슬리도록 이쪽의 키질소리는 더욱 자주 싸르락거린다. 남이야 귀기울여 듣든말든 저만은 아랑곳않는다는듯 한 키질같기도 했다. 혹여 잼잼이 없는 김첨지 마누라의 말에 수줍고 노염이 나기도 한 처녀의 일솜씨일가? 일고 까불고 또 일고… 풀피리소리를 지워버리려는것 같기도 했다. 풀피리소리는 더욱 구슬펐다.
서산은 부지중 한숨을 지었다.
(달빛이 하도 맑으니 저도 한번 맑은 음률을 내본다는것만은 아니드냐? 그렇다면 저것이 얼마나 맘고생을 하는고. …)
이런 생각에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든 로승은 자기 처소로 지팽이를 옮겼다.
가물거리는 등잔불앞에서 가부좌를 겯듯이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한쪽무릎을 깍지낀 두손으로 끌어안고 고요히 눈을 감고있던 서산은 문득 어데선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분명 법근이의 음성이였다. 혹시 주정을 하는것이나 아닌가? 이집저집에서 문이 여닫기며 소

리나는쪽으로 가는 모양인 사람들의 발소리도 들린다.

《뭐야, 이 모주리 모가질 돌려앉힐 놈들… 량반? 선비? 네놈들만이 부몰 알구 나라생각을 한다구? 천만에, 되지 못한 수작 좀 작작하란 말이다, 이놈들아—》

뒤산중턱에서 장삼앞섶을 풀어헤치고 한손에 긴 검을 짚고 큰돌우에 버티고 걸터앉은 법근이는 고래고래 웨치는 소리로 이런 말을 하고있었다. 나무가지사이로 비껴드는 푸른 달빛에 그의 눈은 불구슬같이 번쩍이였다.

《옳다! 너희놈들의 수작마따나 나는 부모를 모르는 중놈이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였단 말이다. 그래서 어미애비없이 자라난 이 법근이는 세상의 따뜻한 맛을 모른단 말이다. 그래서 부모생각이 더 간절하단 말이다.》

또 이렇게 울부짖는 그의 말마디에는 랭랭한 밤기운에 한줄기 열탕을 쏟는듯 화끈한 입김과 독한 술냄새가 풍기였다.

《이 사람, 법근이—》

나무숲속에 모여섰던 사람들중에 돈정신이가 나서며 법근이를 달랬다.

《밤이 깊었는데 그렇게 떠들면 일왈 서산로장이 걱정하실거 아닌가. 이젠 그만하라구.》

그러나 법근이는 그런 말이 들리지도 않고 또 제앞에 누가 있는것 같지도 않은 모양이였다.

《그런데 량반, 선비, 너희놈들만이 부모가 중하구 나라가 중한줄 알아? 너희만이 대의명분을 가리구 례의렴치를 알아? 천만에, 천만에, 이나는 말이다. …》

또 이렇게 웨치던 법근이는 잠시 말을 끊고 고개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눈을 들어 나무가지사이로 비치는 달을 쳐다보며 제 감회를 저 혼자 중얼거리듯이 한층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이 나두… 너희가 대의를 모른다구 하는 이 중 법근이두 말이다. 부모를 그리워하구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두 한다. 뭐? 또 례의렴치 말이냐? 이 법근이는 죽는 한이 있어두 비례의짓은 안한다. 비례의짓이라면 그런 생각두 안할테다. 나 혼자 품었던 생각만이라두 렴치없는 일이라면 이 가슴을 찢구 이 골통을 깨버려서라두 안하두룩 할테다. 그만둘테야, 안할테야. 내 영 안할테야.》

이런 말을 한 법근이의 그 번쩍이는 눈에서는 불현듯 두줄기 눈물이 넘

쳐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쓰러지듯이 옆의 나무에 이마를 기댄 제 머리를 제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서로 그 까닭을 묻듯이 쳐다볼뿐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오히려 그의 앞에 서있는것이 안된듯도 했다. 지금까지 법근이가 웨치고 고함을 지른것은 누가 들으라는것도, 주정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오직 남모르게 혼자 제속에 맺힌 무엇을 풀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것으로 생각되기때문이였다.

《법근아, 너 좀 취했구나.》 하며 이때 주복이가 가까이 왔다.

《그러다보니 너두 졸장부댔구나. 자, 일어서라. 가자.》 하는 주복이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해진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후두두 어깨를 떨고있는 법근이의 겨드랑이밑으로 한손을 넣어 가분가분 껴안고 저희 초막으로 갔다. 흩어져가던 사람들은 소나무밑에 지팽이를 짚고 서있는 서산의 흰 눈섭을 보고는 마치 자기네가 무슨 실수나 한듯이 주춤주춤하다가 길을 에둘러 내려갔다. 서산뒤에는 수염을 한아름 안은듯 한 사명대사도 있었다.

《떠드는 바람에 못 쉬시구 이 추운델 나오셨구만요.》

김첨지는 이렇게 말하고 《거 뭐 젊은 사람이 술잔이나 하면 그렇기두 쉽습디. 메라오리.》 하고 주복이 아버지는 법근이를 두둔해주듯이 이렇게 말했다.

44. 앞으로 백성들은 이전 백성이 아닐게다

이튿날이였다.

조용한 틈을 타서 찾아간 사명당에게 주복이가 말한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처음 듣는 사명대사로서는 무척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법근이가 오욕칠정(다섯가지의 욕심과 일곱가지의 감정) 번뇌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이다. 사명당은 우선 놀랐다. 그리고 크게 노엽기도 했다.

사명대사가 묻는데 기일수가 없어 말을 꺼내기는 하고도 주복이는 보패의 이름까지를 꺼들기는 정말 거북하고 난처했다. 싫기보다도 죄스럽고 두렵기조차도 했다. 제 말재간이 좀 날렵하기나 해도 또 좀 나으련만 제 퉁명스러운 말솜씨로써 한동네서 몇달 같이 지내보는바 그렇게도 단아하고 얌전하고 례절바른 처녀를, 그 이름을 꺼들어넣기가 주복이로서는 실로 진땀이 날만치 송구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끝 안심할수 있는것은 법근이가 그렇게 못 잊어는 하면서도 언제 한번 그 처녀가 홀로 있는 틈을 타서 찾아갔다거나 말을 붙여보았다든가 한적은 꿈에도 없다는것을 제가 잘 알기때문이였다. 감히 그럴 생의도 못 내느니만치 법근이의 그 번뇌는 더욱더 깊어갔던것이다. 제앞을 지나가는 보패를 감히 눈으로 따라보지도 못하는 법근이였다. 제 마음을 악귀로 지어먹고 어데서든 한번 조용히 만나서 제속을 털어보이려면 할수 없는것도 아니건만 그것도 감히 못하는 법근이는 그저 속으로만 곪았다. 독자들중에는 《무슨 놈의 련애가 그따윌가?》할는지도 모르나 사실이 그런것을 어떻게 하는가.

옆에서 보기에 하도 딱했던 주복이는 어제 밤에 법근이와 단 둘이서 조용히 술을 마시면서 저 아는대로 자세한 이야기를 했던것이다. 우선 허두를 이렇게 냈다.

《법근아, 너 정말 그러지 말아.》

《그러지 말라니 뭘 말이냐?》

《너 우리 지난번 씨름판에 갔다오다가 석장군바위앞에서 한 말 안

잇니?》
사실 그후에는 법근이가 주복이한테까지도 보패의 이야기를 한적은 없었다. 그만치 얼마나 더 속으로 곪고있는가 하는 증거이기도 했다. 보패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혹시 주복이가 그 퉁명스럽고 시룽거리는 말투로 받아넘기기나 한다면 필경 자기는 큰 모욕이나 당한것 같이 싸움이라도 하고야말게 될것이 두렵기도 했던것이다.
그래서 하 오래간만에 불쑥 꺼내는 주복의 말에 법근이는 생으로 잡아떼듯 했다.
《그렇구말구, 여부가 있니? 내가 언제 뭐라던?》
《뭐라지는 않아두 네 신상 돼가는 꼴을 보면 몰라? 내 눈치코치없이 미욱은 해두 네속쯤은 꿰뚫구보는듯 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주복의 말에 잠자코 앉았던 법근이는 금시 속이 답답해지는 모양으로 바라지짝을 탁 열어젖혔다. 쏘아드는 랭랭한 외기에 가물거리던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다가 깜빡 꺼지고 그대신 푸른 달빛이 좁은 초막안에 가득 흘러들었다. 한동안 고개를 돌려 묵묵히 달빛만 내다보고 앉았던 법근이는 문턱앞으로 나앉아 내민 손에 잡히는대로 나무잎 하나를 뜯어서 (뒤산 나무숲속에 지은 초막이였다.) 풀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늘 하던 솜씨라 처음에는 그저 손가는대로 하나 따서 입술에 붙이고 소리를 내다보니 자연 처량한 제 심정을 따라 구슬픈 가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모양이다.
마을안에서는 쿵쿵거리다 멎은 절구공이소리대신에 싸르락거리는 키질소리가 들려왔다.
주복이는 술보시기를 든채 멍청해진듯이 앉아있었다. 법근이의 심정을 잘 알고 듣는 주복이는 그 풀피리소리에 눈자위가 뜨거워졌다. 법근이는 제 대신 나무잎을 울리고있는것이다.
《너 이제 그건 웬 소리가?》
나무잎을 뱉아버리고 도로 술상앞에 마주앉으며 법근이가 물었다.
《글쎄, 말을 꺼내긴 해서두 잘은 모르갰는데 좌우간…》
주복이는 보시기를 기울이고나서 독한 소주냄새가 풍기는 입에다 토장을 찍은 마늘 한쪽을 들여뜨리고 말했다.
《보패가 언제든 네 사람은 못될 사람같아서 하는 말이다.》
《…》

《난 그렇게 안다.》

《내가 환속을 해두?》

법근이는 무서운 대답이 나올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한가닥 가냘픈 희망에 매달리고싶은 심정에서 떨리는 소리로 나직이 물었다.

《환속을 하가서? 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니?》

주복이는 반색하듯 물었다.

《죽지 않구 이 란리를 치르게 되면 그래볼가 하는 생각두 해봤다.》

《거 잘 생각했다.》

주복이는 이 말을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기뻐 웃으며 말했다.

《넌 백년 중질을 한대두 서산스님이나 사명당 같은 도승이 되긴 틀린 사람이구 또 도승이 돼선 뭘 하니. 그러니 중노릇 그만두고 우리 같이 농사하면서 살자.》

《나두 그러구싶어. 네 봐라, 이제 이 란리를 치르구나면 세상이 좀 달라두 질게다.》

법근이의 얼굴에도 화색이 도는 흥분이 있었다.

《달라지다니 어떻게?》

주복이가 물었다.

《이건 내 혼자 생각만두 아니다. 일전에 서산 큰 스님이 사명스님보구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지경이 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왜적과 싸우는것이 누군가 말이다. 우리 백성이 아니가! 량반이라구 잘난체 하구 뻐기던 놈들은 뭔가 말이다. 너랑 나랑 같이 다 지내본거 아니가. 그렇게두 우리 백성들이 안타깝게 <평양성을 함께 지켜지이라.>구 애걸두 하구 야단두 했는데 그래두 다 도망질하구 말았거던. 그런데 지금 이 앞으로 소용될 군량을 보탤라구 왜적과 싸워가면서 이 넓은 벌의 농사를 하구, 이제 또 왜적과 싸울래는것두 우리 백성들 아니가. 여기 백성들뿐인가. 조선8도에서 왜적과 싸우는건 다 우리 백성이거던. 그러게 우리 서산스님말씀이 <이 국란을 백성들이 치르구나면 백성들은 이전 백성들이 아닐게라구.> 알갔니? 무슨 말인고 하니 량반놈들이 전처럼 우리 백성을 함부로 천대, 수모를 못할거란 말이다.》

《흥, 어림없다.》 하는 주복이 역시 흥분했다. 그는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다.

《천댈 해? 그 명주자루에 개똥같은 놈들이? 우리 백성들이 왜 무슨

짝에 그놈들의 천대, 수모를 그냥 받긴들 하는데? 어림없다.》

《…》

《…》

그리고는 문득 침묵이 왔다. 조그마한 개다리소반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은 둘이는 언약이라도 한듯이 뭉청 말을 끊어버리듯 하고 보시기만 주고받았다. 괴로운 침묵이였다. 물론 이때까지의 이야기는 한창인 두사람에게는 신바람이 나는 말이였다. 앞이 환히 틔는 이야기였다. 그러니만치 제가 시작한 이야기의 끝을 이제 맺어야 할것이 더욱 큰 산같은 주복이는 진땀이 났다. 진땀이 나는 주복이는 제한테 보패의 반만이라도 한 누이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이 실로 간절했다.

법근이는 또 저대로 거북했다. 아니, 주복이의 침묵에 절망했다. 속이 끓어번졌다.

《요고! 무슨 술붓기본때가. 좀 가득가득 붓지 못해!》

주복이가 따라주는 보시기가 약간 곯은것을 핑게삼아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렇게라도 침묵이 깨지는데 주복이는 용기를 얻었다.

《보패는 차돌이 사람이 되는가부더라.》

《뭐, 차돌이?》

법근이는 들었던 술보시기를 상귀에 놓았다.

《그럴거 아니가. 한동네 앞뒤집에서 자란 처녀총각이 그렇기두 쉽지 않니?》

주복이는 큰 짐을 부린듯이 한숨을 쉬였다.

《…》

몇순간 멍청히 앉았다가 《너 그런줄은 어떻게…》 하던 법근이는 말을 끊어버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네가 어련히 알구서 하는 말이갔게 그런것까지 캐묻자는 내가 정말 졸장부다. 알갔다, 속시원히 잘 알았다. …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돌중놈 법근이에게다 댈테냐. 더우기 그런 일에야. 허! 내가 렴치없었지. 그런줄만 알았으면야 내 벌써…》

더 말하잘것도 없다는듯 하던 말을 그만두고 놓았던 보시기를 들이키고 마늘쪽을 집으려던 법근이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다가 문턱에 채 가지 못하고 쓰러지며 울컥 피를 토했다. 전날 접전때 상했던 속의 상처가 다시 도진 모양이였다. 그러나 주복이가 껴들어줄 사이도 없이 또 벌떡 일어

나 앉은 그는 《에이, 용졸한것!》 하면서 발길을 들어 멍석자리에 스며드는 피를 문질러버리고는 자작 술을 따라 양치질을 하고나서 한번 호탕히 웃었다. 둘이는 딴 이야기를 안주삼아서 또 잔을 돌리기 시작했던것이다.

45. 보통벌의 추수준비

뒤산에서는 오늘도 젊은이들이 패를 짜가지고 권법(정신수양과 신체단련으로 주먹을 놀리여 하는 운동)과 짝지쓰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있었다. 권법과 짝지쓰는 법은 예로부터 중들이 자기네의 불법을 수호하기 위한 무예의 일종이였다. 중이란 저자신이 곧 불법을 지닌 몸이라고 하는만치 자기 한몸을 어떤 박해로부터 수호하는것도 다름아닌 불법의 수호였던것이다. 중들은 흔히 험한 산길을 다니게 되고 그런 산길에서는 또 흔히 맹수를 만나게도 된다. 마주서는 범이나 곰에게 합장하고 설법을 한대도 소용이 없다. 그런 짐승들에게는 주먹이나 몽둥이가 유효한 설법이다. 때려눕히거나 쫓아버림으로써 불법을 수호할수 있었다.

지금 무예를 련습하는 잔디밭기슭의 언덕우에는 정갱이에 기장이 좀 짧아보이는 군복에다 긴 검을 차고 한손에 묵중한 선장을 짚은 사명당이 서있었다.

《그래가지구야 시라소니새끼라면 몰라도 왜적아수라들을 쳐죽일수 있을가.》

그는 이따금 이런 말을 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수염속에서 울려나오는 보통 하는 말이라도 우렁찼다.

젊은이들은 중, 속인 할것없이 짚으로 단단히 겯은 투구들을 눌러썼다. 권법을 배우는 패는 짤막하게 깎은 참나무방망이를 하나씩 들었다. 실지 접전에서 쓸 철퇴대신이였다. 지금 동금강암에서 만드는 철퇴들도 그만한것들이다. 말하자면 맨주먹만으로는 안될것이므로 쇠주먹들을 만드는것이다.

앞으로 가지게 될 검대신으로 짝지를 가지고 련습하는 사람들의 짝지도 그리 길지 않았다. 륙모로 깎은 그 참나무몽둥이는 두팔을 과히 벌리지 않고도 량끝을 쥘수 있는 길이였다.

그들은 우선 몸을 날쌔게 하기 위해서 제손으로 량끝을 쥔 짝지를 모두발로 뛰여넘는 련습부터 했다. 그 다음부터 철퇴패는 철퇴로, 짝지패는 짝지로써 치고 막는 법을 익혔다. 무기가 무기니만치 지금의 련습부터도 육탄과 육탄이 부딪치는 단병접전이였다. 적의 가슴으로 뛰여들듯이 달려드는데는 긴칼이나 창이 필요치 않았다. 긴칼, 긴 창을 가진 적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긴칼, 긴 창이 주체궂게 할것이였다. 우리 민병들뿐아니라 우리 관군의 무기도 역시 그런 단병(창이나 칼 등과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는데 쓰는 병기)이였다.

후일에 명군의 총사령 리여송이가 크게 놀랬던것도 바로 이 점이였다. 평양성을 탈환하자 그는 물었다.

《우리 명나라에서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한 척계광의 룩화진법을 당신네 나라에서는 언제 그렇게 익히 배웠는가?》고. …

눈을 《룩화》라고도 한다. 그 당시 명나라에서 새로 창안된 룩화진법이라는것은 눈의 결정체가 이모저모로 아로새겨진것과 같이 적진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들듯 꿰들어가서 단병으로 싸우는 백병전법이였다. 그때 우리는 룩화진법이란 말조차 처음 듣는것이였다. 그러나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맨주먹으로라도 싸워야 했던 조선사람은 몸소 룩화진법의 모범이 되였던것이다.

이때 법근이는 짝지훈련을 하고있었다. 웬 까닭인지 이즘의 법근이의 짝지는 몹시 매워졌다. 그뿐아니라 웃음도 적어졌다. 본시 철색이던게 좀더 칼칼해진 그의 얼굴에는 눈만이 더욱 날카롭게 빛나보이기도 했다. 생재기짝지패와 어울려질 때의 그는 언제나 막아가다가 간혹 내려치는 때가 있더라도 손짐작을 봐가며 쳤고 또 치고는 씽긋하거나 호탕히 웃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얻어맞은 자리가 좀 얼얼하다가도 그 씽긋하거나 걸걸한 웃음에 금시 아픈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덤벼들수 있었다. 그런데 웬 일일가? 지금 또 쨍 울리는 법근이의 《에익!》 소리와 함께 짝지를 떨어뜨린 주복이는 두손으로 짚투구쓴 머리를 움켜쥐고 몇걸음을 물러서며 《너 정 이러기가?》 했다. 그리고는 무엇을 찾는지 두리번거렸다. 짝지와 방망이를 가지고 서로 치고 막으며 날뛰는 젊은이들의 발길에 번번해진 잔디밭기슭의 나무숲밑에는 혹은 짚투구를 벗은 꼭대기를 쓸기도 하고 혹은 어깨죽지와 팔목을 주물며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황서방과 박서방도 있었다. 법근이의 매운 짝지에 얻어맞고

물러앉은 사람들이다. 주복이는 실은 일종 의분을 가지고 맞섰던것이다.

《정말 그러기문 한번 해보자니?》

뜬쇠가 달면 더 뜨겁다는 격으로 두리번거리던 주복이는 가까이 서있는 크지 않은 노긋한 오리나무를 통채로 뽑아들자 내두르기 시작했다.

법근이는 별수없이 뒤로 물러서며 막아야 했다. 그의 짝지는 앞에서 휘둘리는 생나무뿌리의 흙을 털어줄뿐이였다.

《이자식, 어데 보자.》

주복이는 법근이를 겨누고 뿌리채, 가지채 엇댔다 내려치기도 하고 풀망같이 내두르기도 하면서 접어들었다. 법근이의 날파람도 무섭게 날렵했다. 이번에는 박살이 나나부다 했던 순간에 보면 어느결에 퉁겨진 제기같이 저만치서 몸을 솟구쳤다. 혹은 감겨돌듯 혹은 새나가듯이 몸을 뒤치고 날리던 법근이는 짝지를 버리고 허리띠에 찔렀던 검을 뽑았다. 검 역시 통나무에 낫이기는 하나 어지럽게 휘둘리고 떠도는 나무뿌리와 가지들은 떨어졌다. 가지와 뿌리를 피해가면서 법근이는 그 나무를 한팔로 껴안고 접어들 기회를 노렸다.

(접어들어서는 어떻게 할가, 검날등으로 한번 후려볼가?)

이런 생각을 하는 법근이는 이제라도 제가 한번 껄껄 웃고 손을 내저으며 물러서면 그만이 아니냐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주복이도 그럴수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법근이는 자기보다도 응당 주복이가 그래주어야 할것이 아니냐고도 했다. 주복이가 누구보다도 지금의 자기 심정을 잘 알아줄 사람이기때문이다.

법근이는 지금의 자기는 속이 텅 빈 등신이 된것 같은 때가 많았다. 이때까지 마음속에 그득했던것을 잊어버리려고 결심하고 생각을 안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 제아무리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답게 본단들 구만리장천을 사이에 둔 별과 이편이 하상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다. 잊자는것이였다. 그갈이 잊으려고 한즉 저자신마저 망연자실하게 되는 때가 많았다. 그의 짝지가 매워지는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눈앞에서 휘둘리는 저편의 짝지를 막아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저 손에 오른 힘으로 내려치게 되는것이 이런 때였다. 이러한 내 심정을 주복이는 잘 알아줌직도 하건만 하는 법근이는 그냥 씨근거리며 생나무를 휘두르며 덤벼드는 주복이가 실로 밉기도 했다.

《네 정 그러면 한번 곪아볼테냐?》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법근이는 칼을 뺐을 때부터 《법근아, 네 그 무슨짓이냐.》 하는 사명스님의 우렁찬 고함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칼을 휘둘렀다. 주복이의 나무가 이제는 하나의 몽둥이나 다름없이 되였다. 이리 뛰고 저리 날아 피하던 법근이는 휘둘리던 나무끝이 한순간 땅에 내려진 틈을 타서 그 중동을 왼팔로 껴안았다. 주복이는 더욱 용을 썼으나 전같이 휘두를수는 없었다. 그 짬을 놓치지 않고 한걸음 성큼 내짚은 법근이는 날을 뒤집어잡은 검을 쳐들었다. 주복이의 어깨죽지를 겨누고 막 내려칠듯 한 순간이였다. 등뒤에서 산이 찌렁 울리듯 꾸짖는 목소리와 함께 날아온 선장이 법근이의 볼기짝을 후렸다.

《네 마(귀신)가 접했느냐.》

사명당의 호통소리가 또 떨어졌다. 매에보다도 그 불호령에 씨그러지듯 한 법근이는 풀썩 주저앉았다.

《롱이올시다.》

법근이는 앉은채 사명당을 쳐다보며 말했다.

《롱? 네 눈에는 살기가 있어.》

사명당은 집어든 선장끝으로 한번 땅을 구르며 책망하기 시작했다.

이때 《사명사주.》 하고 부르는 서산대사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편 숲속에서 칡넝쿨을 몇오리 걷어가지고 나오던 서산은 《법근이를 이리 보내시오.》 하며 봉수대쪽으로 올라갔다.

보통벌이 바라보이는 봉수대아래 숲속에서는 십여명 늙은 중들이 산중에서 찍어모은 나무들을 자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있었다. 추수할 때이 잡약산의 서쪽기슭을 스쳐흐르는 보통강 결갈래줄기를 리용해서 벼단들을 끌어올릴 자그만큼씩 한 떼목들을 만드는중이였다.

김첨지와 주복이 아버지도 한몫 들어서 일하고있었다. 김첨지는 떼목들이 물을 덜 먹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한다고 하면서 중들이 다듬어놓은족족 낫으로 나무껍질을 벗기고있었다. 그옆에서 널려있는 나무가지중의 가늘고 곧은 놈으로 추려서 두뼘 혹은 세뼘씩 되게 도끼로 잘라 모으고있던 주복이 아버지는 《이걸루 작은 닭의 가리들을 여러개 만든다니 그래서는 뭘 하노?》 하고 혼자서 흐흐흐 웃기도 했다. 서산대사가 시작한것을 《내 하마.》고 말아하기는 하면서도 어째 일이 좀 장난갈기도 했던것이다.

《글쎄 그건 참 무슨 소용인지? 그 말씀은 안하시드군.》

역시 이런 말을 하는 김첨지는 옆에서 대자귀질을 하던 중을 쳐다보기도 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서서 이마의 땀을 소매끝으로 씻고있던 중 역시 《글쎄올시다.》 하고 웃으며 다시 쩡쩡 울리게 대자귀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사실 서산대사는 《추수때는 혹시 닭들도 한몫하게 될는지 모를것이올시다.》 했을뿐 하던 일을 주복이 아버지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돌아가며 흩어진 대자귀밥중에서 소나무부스레기와 관솔가지들을 주어모으기 시작했었다.

《저건 또 무슨 소용인가, 불쏘심인가?》 하고보면 그런것을 주어모으고있는 서산은 마치 살림살이에 찬찬한 한가정의 할아버지같기도 했다.

이때 법근이를 데리고 다시 봉수대밑으로 온 서산은 주어모았던 소나무부스레기와 관솔가지들을 칡오리로 차근차근 묶어놓고는 돌우에 걸터앉아서 자기가 데려온 법근이가 옆에 서있는것도 잊어버린듯이 한동안 보통벌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지금의 보통벌은 거의다 익어가는 벼로써 논배미마다 제각기 제 색갈대로 넓은 벌판을 무늬놓았다. 그 논벌사이에 청량한 가을볕에 이삭이 산호구슬뭉치같이 붉게 빛나는 수수밭들과 두드러진 최뚝에 만발한 노란 들국화떨기들도 보였다. 또 보통문과 칠성문사이에 굽이쳐흐르는 보통강 좌우기슭에는 바람결따라 흐늑이는 갈풀의 은빛물결이 바라보이기도 했다.

《네 밝은 눈에 저 보통문밖의 다리가 보이느냐?》

법근이를 돌아보며 서산은 이런 말을 물었다.

《예, 보입니다.》

법근이의 대답에 머리를 끄덕인 서산은 또 무슨 생각에 잠심하는듯이 한동안 잠잠히 앉았다가 《네 부디 몸 조심해라.》 하고 목이 좀 잠긴듯한 음성으로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이 다 늙은 나도 이 국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수 있을가 해서 내게 고희(늙은 나이)의 수명을 주신 부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한 로승은 한번 법근이를 돌아보고나서 또 말을 이었다.

《하물며 젊은 너는 이제부터 수천수만의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싸울수도 있고 일할수도 있으니 그 얼마나 큰 복록이냐. 또 네 얼마나 중한 몸이냐.》

《제가요?》

문득 이같이 놀란 말을 하며 한순간 서산의 눈을 마주보던 시선을 거

두고 푹 고개를 숙인 법근이는 제 발부리에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네가 너 하나만의 몸이 아니라 수천수만의 동족을 위할수 있는 몸이라는것을 안다면 너도 네 몸을 중히 여기게 될것이다. 이제 추수때만 해도 네가 큰 힘이 될줄 믿는다.》

이같이 새로운 말을 시작했던 서산은 잠시 보통문을 바라보다가 한층 더 엄숙해진 얼굴을 돌려 법근이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만일의 경우에는 말이다. 저 다리에서 혹시 불이 일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에는 네가 거기서 왜적의 무리를 막아 싸우게 될는지도 모를게다. 금강력사같이, 불사신같이 버티고 섰는 네 장한 모습을 나는 지금부터도 보는듯 하다.》

이런 말을 마친 서산은 지팽이를 짚고 일어서서 등뒤의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법근이가 이리로 오자 쉴참을 낸 젊은이들은 봉수대근처로 모여왔던것이다.

《이번엔 또 누가 법근이의 매운 짝지에 얻어맞고 기가 나서 생나무를 뽑을고?》

은실같은 눈섭으로 그늘진 맑은 눈에 정다운 웃음을 띠우고 젊은이들을 둘러보는 서산은 이런 말을 했다.

《사명사주, 그런 장사에게는 큰 철퇴를 만들어주시오.》

또 이러한 로승의 말에 젊은이들은 와— 웃고 기세를 올렸다. 그중에 《법근이, 또 한번 맞서줄라나?》 하며 박서방이 팔을 부르걷으며 나섰다.

《가만, 내 아무래두 주복이놈을 한번…》 하며 돌아선 법근이는 옆의 사람의 짝지를 채들고 주복이에게로 달려갔다. 이때 주복이는 짝지를 들었을뿐 그 생나무도 없고 짚투구도 안 썼으므로 법근이의 맹렬한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했다. 격렬한 훈련은 다시 벌어졌다. 잔디밭과 나무숲속은 금시 백병전마당으로 화한듯 했다. 부딪치고 마주치는 방망이와 짝지소리, 겯고 틀고 내닫고 하는 소란한 발소리로 먼지가 충천했다. 그런중에 다시 소생한듯 법근이의 걸걸한 웃음소리도 련해 들려왔다.

46. 전촌 장거리

고충경은 그동안 근처의 절과 암자들로 다니면서 그곳에 나뉘여있는 승병들중에 전부터 활을 좀 쏘거나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활을 가르쳐왔다. 이번에는 룡악산 법운암에서 4～5일 류했다. 차돌이도 같이 왔었다. 승병중에는 차돌이에게 돌질을 배우고 또 조총을 배우려는 사람도 있었다. 아직 애숭이지만 손때매운 석전군으로 이름난 차돌이는 또 한가지 재간이 늘었다. 잡약산싸움에서 로획한 조총을 몇번 쏴보자 묘리를 얻어서 돌질 못지 않게 능숙해졌다. 이번에도 그는 어머니가 지어준 좁다란 자루에 넣은 조총을 메고 철환과 화약통을 차고 왔었다.

이날 조반후에 승병들과 함께 한편에서는 활을 몇순 쏘고 또 한편에서는 돌질을 몇차례씩 한 고충경이와 차돌이는 큰길로 나서기 위해서 전촌가는 길로 들어섰다. 길은 좀 돌지만 혹시 비가 오더라도 무인지경인 지름길보다 비를 그을수 있는 인가들이 있는 큰길이 나을것이였다. 룡악산을 떠날 때부터 날씨가 변변치 않았는데 과연 먼 하늘에서 뢰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전촌까지는 아직도 한참 길이 남았다.

전촌장은 비때문에 더 일찌기 파장이 되였다. 전촌은 본시장이 아니였다. 평시에는 한 고을에 하나나 혹은 둘씩 지정이 있어서 아무데서나 장이 설수 없었다. 전쟁전에는 평양장을 보아온 조개메(지금의 팔동교근처), 궁골, 옥고개, 세거리, 긴재, 룡악이, 형제산 같은 이 근처의 사람들이 평양장을 못 보게 되였으므로 자기네 마을에서 어중간한 전촌에다 림시로 장을 세우기로 했던것이다. 새로 된 장인데다 또 추석명절을 지낸지 며칠 안되는 장날이라 장군들도 많이 모이지 않았고 물건들도 많지 못했다. 몇말씩 지고 온 햇곡식이 그중 많은편이였다. 그밖에는 서해변 소산인 조개, 새우 같은 젓갈들과 칼치, 복 같은 어물들이 좀 나고 또 서해변의 갈로 결은 삿이 있었다. 그런 수공품으로는 나무밥주걱과 방치, 씨아(토리개) 같은것도 있고 또 긴재에서 굽는 물동이, 버주기, 뚝배기 같은 토기들도 있었다.

불과 여라문집 되나마나한 주막거리의 길바닥에 널어놓은 그런 물건들 외에 또 한가지 장군들의 눈을 끄는것이 있었다. 보라매 두손이 났다. 비슷하게 늙은 두 로인이 날은 솜토시를 낀 손목에 보라매를 한놈씩 올려앉히고 장마당가운데로 서성거리고 다니는 모양은 지금이 란시라 그런지 뚱딴지같아서 좀 우습강스럽기도 했다.

이 근경치고는 산골인 순안봉, 청령이에서 동네로 내려와 닭, 짐승들을 채길래 어리를 놓아 잡았다는 그 보라매들은 결코 팔리지는 않지만 장군들의 인기는 끌었다. 날렵하게 생긴 몸매, 암팡스럽게 까부러진 부리, 총명한 눈! 저마다 《그놈 잘 생겼다.》 하며 혹은 소매끝을 감쳐쥔 손목에 받아보기도 하는 장군들중에는 《우야ㅡ 매 봐라!》 하고 소리를 질러보며 웃기도 했다. 꿩을 달아놓고 상투가 풀리고 귀가 빠져도 모르게 달려가던것이 불과 지난 정초의 일이건만 어느덧 한 옛날일같기도 했다. 세상이 다시 평정돼서 언제 또 매사냥을 하게나 될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아서 더욱 그렇기도 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란시에 장에 보라매가 났다는것만으로도 한번 웃을만 하게 반가운 일이기도 했던것이다.

《머리에 서리발을 이구 다니는 두상이 언제 매사냥을 하갔다구 매를 다 잡아가지구 다니우?》

저 역시 머리가 센 한 늙은이가 이런 말을 해서 매임자 늙은이는 《그러게 내가 팔라구 잡은건 아니웨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럼 왜 훨훨 저 좋을데루 날아다니는걸 잡기는 했소.》

《잡히는 놈을 안 잡갔소? 기왕 잡았으니 또 그저 놔주기두 안됐구 그래서 살 사람 있으면 팔라구 왔소.》

《그럼 눅게라도 팔테요?》

《눅게라도 팔갔소.》

《암만 눅대두 이 나는 안 사갔소.》

《그러게 누가 이편더러 사라우?》

《팔갔다면서 이편더러 사라우는 또 웬 소리요?》

《하! 이 손이 누굴 히야치긴가, 원?》

《히야치기는 고사하구 매를 보니 하두 반가와서 하는 말이요.》

《그렇게 반갑거들랑 보는 값은 안 달랠테니 실컨 보우.》

《아이구! 마침 잘됐소. 비가 쏟아지니 저 집에 들어앉아서 실컨 봅

세다.》
참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은 곧 파장이 되였다. 장은 파했어도 비에 걸려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거리의 집들은 사처에서 모였던 장군들로 꽉 차게 되였다.
이 작은 거리에서도 왜놈들이 들어있는 평양성이 그리 멀지 않은만치 로약들은 대개 다 피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어놓은 농사의 가을걷이를 하기 위한 사람들뿐이였다. 그래도 역시 방이 좁아서 문턱에까지 걸터앉은 사람들은 쏟아지는 비발을 격하여 맞은 집의 사람들과 큰소리로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대편에서는 금년농형이 어떻소?》
누가 이같이 한대중으로 묻기도 했다. 그럴밖에 없는것이 한집에 들어앉은 사람끼리도 어데서 온 누구인지 모를 사람들이 많았기때문이였다.
《우리 룡악이 말이요?》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 룡악이는 말구… 나두 그대편에서 왔소.》 하는 그 사람은 《우리 형제산말이요?》, 《우리 조개메말이요?》 하는 난데 사람의 대답이 나오기까지 그대편 농형을 물었다.
《우리 사는데는 밭고장이 돼서 청초적의 농사는 곧잘하구두 두달 장마에 다 녹구말았소.》
《우리두 그렇쉐다. 정말 가문그루테기는 있어두 장마그루테기 없다드니…》
《이번 그 장마에 논고장 아닌데야 다 그렇지요.》
《금년 이 근경의 농사치구는 아마 보통벌에 흠씬 실렸나 봅디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말로써 이곳저곳의 농형이야기가 끝났을 때 보라매를 가져온 늙은이들중의 하나가 《궁골이나 조개메에서는 잡약산이 가깝지 않소?》 하고 역시 한대중으로 물었다. 그 말에 조개메에서 왔노라는 한 로인이 《가깝소. 하나 아직두 서산대사라는이를 찾아보지는 못했소.》 이런 대답을 했다. 물론 지레짐작으로 한 대답이였다. 하나 그 지레짐작이 신통하게 맞은것도 같았다.
《그 원,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두 한번 찾아보질 않았단 말이요?》
《그렇게 날 나무래는 이편은 왜 안 찾아봤소.》
《하기는 나두 그런 말 들어 싸우. 좀 멀다기루서 백리가 되우, 이백리가 되우. 생각이 부족해서 그랬소.》
《하, 그 두상 롱담두 못하게 고지식한 두상이로군. 우리 피차 나물내

기는 그만하구 언제 한번 찾아볼 의논이나 합세다.》

조개메늙은이의 말이였다.

《아무나 가두 만날수 있답디까?》

《그 도승이 늘 잡약산에 있기나 한가.》

《웬걸, 헌쇠동냥다니는 중들의 말을 들으면 순안 어느 절인가 암자루 가져다가 부처를 만든다기두 하구 병쟁기를 만든다기두 하는데 그 로승두 아마 거기 가있는 모양입디다.》

이렇게 제각기 말참견들을 해서 이야기의 주인이랄것이 없이 된 판에 《서산이라는 그 늙은 중이 손수 왜적을 죽였다니 참말이요?》 하고 누구는 또 이런 말을 한대중으로 물었다.

《거 모를 말입디다.》

《모르긴 왜 몰라요. 분명히 그랬다는데요.》 하는 정반대의 대답이 나왔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하기는 나두 무쇠동냥을 다니는 중들한테 물어봤는데 처음 왔던 중은 <우리 서산스님이 그런 살생을 하실리가 있소?> 하구 펄쩍 뛰다싶이 하더니 그 다음에 온 중은 <과연 그랬다.>구 하니 뉘 말이 옳은지 모르갔습디다.》

《그 말이 비슷하우. 나두 물어봤는데 중따라 말이 다르습디다.》

《거 어째서 그럴가. 한속에서 나온 말이갔는데.》

《거참, 모를 일인데요.》

하여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마는가 할 때 《그럴것 없이 우리 한번 또 물어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 문턱앞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던 그 사람은 아직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오는 두 중에게 비를 그이여 가라고 권했다.

두 늙은 중은 짚으로 바랑모양으로 결은 조그마한 헌쇠오쟁이를 토지방에 벗어놓고 올라왔다. 삿갓, 장삼 할것없이 물이 줄줄 흐르게 젖은 그들은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토지방에 말아세운 짐밑에 놓인 섬거적을 깔고 앉았다.

《들어와서 몸들을 좀 녹이시우.》

《찬비를 맞아가며 늙은 대사들이 장히 수구들을 하시오.》

방안사람들의 인사에 《수고랄것이 없소이다.》 하는 한 중은 송낙을 벗어들고 반백이 지난 깎은 머리를 훔쳐서 물을 쥐여뿌리고나서 말을 이

었다.
《저희 승려들은 애시적부터 이보다 더한 설한풍 찬 날씨에라도 가야 할 길이면 아무리 험한 첩첩산발도 노 걸어놔서 이만것쯤 수고라고 할것이 없소이다.》
그의 말에는 상숙치 않은 문자도 문자려니와 어덴가 《좀 봐라.》는듯이 젠체하는 어기가 있었다.
《여느 동냥짐과 달라 헌쇠가 돼서 더 무겁갔소.》
누가 또 이렇게 하는 말에는 《무겁기야… 하나 우선 동냥도 아니고요.》 하고 그는 이렇게 발을 달았다.
《동냥이 아닐 래력이 간 곳마다 시주님네가 우리 서산스님께서 쓰실거라고 일부러 헌쇠를 모아두었다가 저희가 오기를 기다려서 주시니까요.》
그 말이 사실이기는 하나 역시 젠체하는 말투였다.
이때 문득 사람들이 주고받던 말을 잠시 중동무이시키는 일이 생겼다. 방안구석에 매두었던 보라매 한쌍이 갑자기 날개를 부치며 요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들이 토지방에 벗어놓았던 짚바랑속에서도 날짐승들이 푸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망태속에 웬 닭이 있소?》
《예, 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둘기두 있구만! 거 집비둘기요?》
《예, 집비둘기올시다.》
방안사람들의 말에 대답하면서 두 중은 짚망태들을 매가 안 보일데로 치워놓았다.
《그건 뭘 할게요? 더구나 비둘기 같은거는?》
《글쎄올시다. 저희는 그저 서산스님께서 상목을 주시면서 사들이라구 하시기에 사가는것뿐이올시다.》
《아니, 그것두 서산대사가 구해오라는거요?》
《예.》
《닭은 몰라두 집비둘기는 무슨 소용일고?》
《비둘기는 못 먹나.》
방안사람들의 이런 말에 《본시두 누린걸 안 자시던 서산스님인데 그럴리가 있습니까.》 하고 우선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라는듯이 머리를 흔든 늙은 중은 이런 말을 했다.

《옛날 삼국시절의 공명이는 돌을 가지고도 팔진도를 벌려서 적군을 파했는데 저의 서산스님께서 이런 날짐승들을 구해들일적에야 저희들은 몰라도 무슨 조화가 있겠지요.》

《여보 대사, 우리가 하나 물어볼것이 있소.》

이때 또 한사람이 내다보며 아까 이야기가 있었던것을 물었다.

《그럴리가 있습니까.》

늙은 중은 이번에도 또 완강히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 서산스님께서야 <운주유악지중(장막안에서 펼친 작전의도)> 해서 <결승천리지외(천리밖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뜻)> 하시는 지략이 있는분인데 그런 졸한 일을 하실리가 있습니까. 더우기 자신 손에 중생의 피를 묻히시다니 천부당만부당한 랑설이올시다. 자, 이젠 또 가봅시다. 어서 일어나오.》

이렇게 다음 말로는 같이 온 중을 재촉하면서 늙은 중은 부산히 헌쇠짐을 지고 아직도 비가 쏟아지는 행길로 내려섰다.

《여보 대사.》

이때 방안의 한사람이 중로배치고는 좀 큰편인 상투를 밖으로 내밀며 물었다.

《우리는 서산로장이 정말 그랬다면 크게 장한 일루 알구 물은 말인데 대사는 왜 졸한 일이라구 하우?》

《저희 승려들중에두 서산스님의 그 일을 장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별로 말이 없었던 중이 짐바에 팔을 꿰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먼저 나섰던 늙은 중이 《어서 오오.》 하고 역정낸 소리를 질렀다.

《혹여 서산스님의 덕행에 흠절이 될가 해서 그 일을 숨기는 승려들도 있습니다. 더우기 편석대사 같은이는 그런 발설은 영 말라고 신칙한 일도 있고 해서…》

말하던 중은 또 재촉하는 소리에 총총히 내려갔다. 마침내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에 나선 두 중은 말다툼을 하는 모양으로 피차 어성을 높여 지껄이면서 자욱한 비발속으로 멀어져갔다.

47. 소금

이때 서쪽으로 엇맞은편인 거리줄의 맨 끝집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겼었다. 퍼붓듯 하는 비에 쫓겨서 그 집 추녀아래로 7～8명의 장정들이 우뚝우뚝 들어섰다. 그중의 나이 더 지긋한 5～6명은 큰 섬에 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있었다.

《소금인가분데… 그것이 다 소금이요?》

방안에서 내다보던 사람이 누진 섬거적에서 풍기는 서슬냄새로 짐작하고 묻는 말에 한 짐군이 《그런가부웨다.》 했으나 《어데루 가는 소금이요?》 또 이렇게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했다. 짐군들은 토지방에 털썩털썩 짐들을 벗어놓았다.

《한두섬두 아니구… 다섯, 여섯섬이나 되는 소금이 다 어데루 가노.》

《성안으로 가는건 아닐게구.》

《그렇지, 그래두 팔 소금이갔지.》

《…》

방안의 사람들이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겸 묻는 의사로 이런 말을 했으나 그일행중에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입술이 퍼렇게 얼어가지고 젖은 무명적삼을 벗어서 쥐여짜고 펴서 털고 하는 짐군들은 저희들을 령거해온 두사람을 흘깃흘깃 곁눈질해볼뿐이였다. 빈몸으로 따라온 두사람은 하나는 패랭이를 썼고 하나는 갓에 갓모를 받쳐썼는데 나이는 삼십안짝으로 뵈였다.

《저 숱한 소금을 혼자서야 누가 다 쓰나. 정녕 팔 소금은 팔 소금이갔는데… 그래두 아직은 김장때두 아닌데.》

《그렇지, 9월 립동에는 립동전에 한다지만 금년 립동은 9월에 들기는 해서두 9월 그믐날인데다 또 9월이 커서 삼십일이 그믐날이라 시월 립동이나 다름없어서 김장은 아직두 멀었지.》

저편의 대답이 없으므로 이편끼리만 찧고 까부는 투로 말하던 방안사람들중에는 저 혼자 금년 립동타령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덧 비발이 좀 가늘어졌다.

《망할 놈의 날거리두! 그렇게 오구말 놈의 비가 새없이 쏟아져서 생이 고생을 시키지 않나.》
《웬걸, 아주 멎는 비가 아닐세. 날씨 하는 꼴이 왔다말았다할 모양이네.》
토지방에 느런히 쭈그리고 앉아있는 짐군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하는 소리다.
《어데서부터 빌 만났소?》
방안의 한사람이 이렇게 새로 꺼낸 말을 들어서야 비로소 짐군들과 방안사람들의 수작이 어울리게 되였다.
《민모루 지나 룡악고개 좀 못미쳐서부터 빌 만났소.》
《이것이라니! 거기서부터는 무인지경인데 그랬으면 정말 외상없이 다 맞았갔군.》
《소금은 어데 증산서 받았소?》
《쑤꾸지 누에머리에서 받았소.》
《아이구, 그 먼데서!》
《말에 얼마씩이나 합디까?》
《우린 그건 모릅네다.》
《이편네 물건이 아닌게구려?》
《…》
《그거야 물으나마나 뻔하지 않소.》
짐군들의 대답이 또 막힌 때 채수염이 긴 한 중늙은이가 남의 말을 누르듯이 말하고 문턱앞으로 썩 나앉으며 《대관절 어디루 가는 소금이요?》 하고 짐군들에게 아까부터 물어온 말을 되살려 물었다. 그러자 《비가 그만그만하니 또 가보지. 자, 어서들 지라구.》 하며 짐군들이 더 말할 사이가 없이 재촉하는 소리가 났다. 이때까지 웃간 문턱에 걸터앉아서 괴춤에서 꺼낸 수건으로 갓모를 벗긴 갓의 모자와 양태의 물기를 닦고있던 사람의 말이였다.
《비가 시재는 멎은것 같애두 얼마 안 가서 또 쏟아질걸요.》
그 재촉하는 소리에 한 짐군은 다시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가다가 또 그으면 될거 아닌가. 어서들 썩썩 나서라구.》
다시 갓에 갓모를 받쳐쓰며 그 사람은 또 재촉했다. 짐군들은 쥐여짠 적삼을 아주 입을것도 없다는듯이 등에 걸치고 토지방아래로 내려서서

소금짐의 멜바를 꿰기 시작했다.
《여보슈, 대관절 이 소금을 다 어데루 가져가는거요?》
문턱앞에 나앉았던 중늙은이가 성근 채수염을 만지다말고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이편은 아까부터 뭐이 긴해서 그렇게 자꾸 묻소?》
갓쓴자는 장히 시끄럽다는듯이 시까스르는 투로 되물었다. 채수염 중늙은이는 꼬리가 좀 치째진 봉의 눈으로 기름한 눈을 잠시 찌프렸으나 탓할것 없다는듯이 도리여 싱긋이 웃기까지 하면서 말했다.
《이 란시에 많은 소금을 보니 보기만 해두 탐스러워서 묻소.》
《뭐이 그렇게 탐나두룩 많긴들 하우.》
《대관절 어데루 가시오?》
《시산으로 가오.》
《시산? 시산이면 초담(지금의 조촌)이 지나가서 있는 동네말이요?》
《맞아요.》
갓쓴 사람은 《이젠 씨원하냐?》 하는 투로 대답했다.
《그 근처에 이 많은 소금을 풀어멕일만 한 사람들이 아직두 사우?》
채수염 중늙은이는 기름한 봉의 눈을 한층 더 가늘게 하고 이렇게 또 물었다. 그러나 갓쓴 사람은 그 말에는 대답을 않고 《왜들 이러구있어. 어서 나서지들 않구.》 하고 어성을 높여 짐군들을 재촉했다.
《시산이 말이요?》
이때 비가 멎은 짬이라 엇맞은켠 집에서 새 이야기거리가 생긴 이 집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중의 누가 이렇게 묻고나서 말했다.
《웬걸요. 들리는 말에는 왜놈들이 만경대근처에다 배를 대구는 게발련해다니기때문에 그 근경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별루 없답디다. 시산이서 만경대가 한 5리 되나마나하오.》
《아뿔싸!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말이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말을 전줄러서 말했다.
《이 소금이 만경대루 해서 성내 왜놈의 손으루 넘어가기두 첩경 쉽지 않소?》
《그렇다면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부터 그것이 미타해 깐깐히 묻더랬소.》
채수염 중늙은이가 신을 꿰고 나섰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나왔다. 어느새 이집저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소금짐을 지고 나섰던 그일행을 에워

싸게 되였다.

《자, 빨리빨리.》

이때까지는 아무런 말도 안하고 갓쓴자옆에 서서 사람들의 눈치만을 살피고있던 패랭이 쓴자가 마디마디 잘라하는듯 한 말을 그야말로 빨리빨리 지껄여대면서 짐군들을 재촉하며 저 먼저 둘러선 사람들을 헤치고 나섰다.

이때 저편에서 문득 《여보소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동쪽으로 엇맞은편에 있는 집앞에서 어린아이를 업은 로파와 무슨 말을 하는 모양이던 몇사람이 길을 건너오면서 말했다.

《이 동네 사시는 저 아주머니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저렇게 소금을 많이 날라가는것이 이번만이 아니랍네다.》

《저런!》

《그렇다면 정말 심상히 볼일이 아닌데.》

《안됐소.》

《그저 보구만 있을 일이 아니요.》

《여보, 그 소금짐 다 벗어들 놓우.》

사람들은 짐군들앞으로 다가섰다.

《뉘 짐이게 벗어놓라 말라 해. 별 아니꼬운 일 다 보지 않나. 대관절 이편네가 남의 일에 상관이 뭔가?》

갓쓴자가 대돌아래로 내려서면서 금시 심사꿰진 소리를 했다.

《봐하니 댁이 이 소금의 물준 모양인데 대관절 어데루 가져가는 소금인지 우리 그거나 알자구.》

둘러선 사람들중의 뒤쪽에 처져섰던 보라매주인늙은이가 앞으로 나서며 의논성있게 물었다.

《아무데루 가는 소금이건 이편네가 뭐이게 미주알고주알 캐묻잘 리면이 어데 있소. 어서 이편네 갈길이나 가오.》

《우리가 뭐인가구?》

갓쓴자의 말에 아까 맞은집에서 늙은 중에게 《왜 졸한 일이라구 하우.》 하고 따지던 상투 큰 농군이 우선 이렇게 뇌까리고 나섰다.

《김지, 리지 할것없이 우리 다 한만둥이라구 합세. 명색없는 한만둥이라두 우리 조선땅에 사는 조선사람이니 묻는거야.》

《한만둥이? 허허— 제입으루 명색없는 한만둥이라는 작자들이 남의 일에 상관할게 뭐야.》

《상관? 상관을 따지자구? 그럼 이편은 왜놈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소금까지 날라다주나?》

《누가? 왜놈한테 가져가는 소금이라구 어떤 놈이 그래?》

《아니면 어데루 가는거라구 왜 밝히질 못하노.》

채수염 중늙은이가 걸쐐기를 치듯 했다.

《…》

《왜 대질 못해?》

《…》

《안됐소.》

《더 이러구저러구 할거 없잖소?》

그자가 말문이 막힌것을 본 사람들은 했다.

《봐하니 매끄작한 상통이 타작바리나 받아먹구 기생방에나 다니던 주젠걸.》

《꼴이 이런 란시에두 얌치머리없이 아무짓을 해서라두 저 혼자 잘살갔다는 심아지가 내발렸는걸그래.》

이때 갓쓴자의 뒤에서 철써덕하는 소리가 났다. 누가 장도를 빼들고 한 짐군의 멜바를 끊어서 소금섬이 대돌밑에 고인 락수물에 떨어진것이였다. 그러자 《여보, 그럴거 있소. 괜히 아까운 소금만 녹지 않소.》 하는 그옆의 짐군은 지고있던 소금짐을 토지방에 벗어놓으며 저희 동무들에게 말했다.

《일 잘됐네. 우리두 가구싶은걸 가던거 아닌데 그만두세.》

《그 말 옳쇄.》

《다 처음 보는이들이라두 하시는 말씀이 옳구만.》

《허— 그러다보니 우리 꼴은 뭐이라?》

짐군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짐들을 다 벗어놓았다.

《여러분한테 우리가 다 말씀하리다.》

역시 짐을 벗어버린 한 늙은이가 말했다.

《이 소금은 아닌게 아니라 왜놈들한테루 가는거웨다. 우리두 처음엔 그런줄은 모르구 상목자나 후히 준다기에 나섰던노릇이 이번엔 알면서두 한번 디밀었던 발목이 잡힌것 같애서 또 이노릇이드랬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갓쓴자와 패랭이 쓴자앞으로 다가들면서 웨쳤다.

《이놈들, 이제두 할 말이 있어?》
《도대체 너희놈들은 왜놈들 하구 뭐이 되네?》
《고하간 왜놈들한테서 뭘 얼마나 받아먹었길래 이따위짓까지 한단 말이냐?》
《장사면 다하는줄 아니? 그러다가는 네놈들 나라까지두 팔아먹을 놈들 아니가.》
대드는 사람들가운데서 두자는 금시 낯빛이 노래졌다. 그러나 이때 뜻밖의 일이 생겼다. 바로 지척에서나 같이 요란한 조총소리가 났다. 그 두자를 둘러쌌던 사람들은 무춤했다. 하던 말을 삼킨듯 한 그들은 또 다음 총소리를 기다리는듯이 조총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혹시 왜적들이—》 하는 눈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그사이에 패랭이를 쓴자가 둘러선 사람들의 체밖을 벗어나갔다. 저편 집모퉁이로 달려가는 그자는 뭐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웨치는 소리는 우리 말이 아니였다. 왜말로 왜놈을 부르는 소리가 분명했다. 그놈의 소리에 사람들은 더욱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이거 큰일나지 않았소?》
좀 동떨어져 서서 업은 아이를 추석거리고있던 아까의 로파가 가까이 달려오며 말했다.
《정말 왜적들이 쓸어나오면 우리 동네는 몰사죽음이 나질 않소.》
얼굴에 거미줄같이 얽힌 잔주름살들이 가닥가닥 떨릴만치 놀랜 로파의 말은 금시 숨이 턱에 닿은듯 한 소리였다. 위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한데 모이는 법이라 그 로파뿐아니라 이 주막거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떨쳐나왔다.
《조총소리가 웬 일이요?》
《정말 왜적들이 옵네까?》
모두 불안해하는중에 《가만히들 있으소. 가서 동정을 봅세다.》 하며 장정 두셋이 나서서 패랭이 쓴자가 달려간 집모퉁이로 돌아갔다. 이 잠시동안에도 사람들은 초조했다. 이 동네사람들은 각기 집으로 드나들며 혹은 자는 아이를 둘러업기도 하고 또는 언제든지 지고 나설수 있게 꾸려두었던 짐짝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덤비지들 마소. 아직 왜적들은 보이지 않소.》
주막거리 뒤쪽으로 갔던 사람들중의 누가 이렇게 웨치는 소리가 들린다.

48. 한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는자

바로 이때 서쪽 집모퉁이로부터 고충경이와 차돌이가 나타났다. 거리 한가운데 모여섰던 사람들의 눈은 곧 두사람에게로 쏠렸다. 일왈 갓에 갓모를 받쳐쓰고 좀 젖기는 했으나 역시 조촐한 흰 수목두루막을 입은 고충경의 활과 전통이 우선 눈에 뜨이는것이였다. 그리고 또 총각이 길바닥에 끌듯이 긴 모가지를 늘어잡고 오는 큰 기러기였다.

《여보소, 당신네는 이재 조총소리 못 들었소?》

《여기서는 그 소리에 혹시 왜놈들이 아닌가 놀랬던차이요.》

몇사람이 그들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이재 그 소린 내가 이걸 잡느라구 쏜거웨다.》

기러기를 쳐들어보이며 차돌이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조총은 여기 있다는듯이 자루에 넣어 어깨에 걸친 조총을 한번 추석거린 그는 그러다보니 퍽 미안하게 됐다는 내색으로 고충경이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고충경은 고개를 돌려서 옆집 문턱에 걸터있는자를 바라보고있었다.

《아!》

저도 모르게 놀란 소리를 낸 차돌이는 고충경의 소매를 건드리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저 사람이요. 김감역의 아들이요. 갑손이를 대신 내보낸것이 저자요.》

고충경은 한번 고개를 끄덕였을뿐 역시 딴눈을 팔듯이 외면하고 앉아있는 그자를 바라보며 제 나비수염을 몇번 감빨았다.

이때 김감역의 아들 김순량이도 고충경을 알아보았다. 아니, 제편에서 먼저 알아본 김순량이는 우선 (망신살이 뻗치누라구 하필 이런 때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에는 그런 생각보다도 가슴이 선뜩했다.

(저 활과 전통은…)

김순량은 속으로 떨리기까지도 했다. 고충경이가 활을 잘 쏜다는것은 전부터 아는 일이다. 또 지난여름에는 대동강에서 보란듯이 제 활재주를 내놓고 일본군사의 조총과 한판 겨루었다는 소문까지도 들었다. 그뿐으로

그후에는 통 소식을 몰랐던 고충경이가 하필 이런 때에 활과 전통을 들고 나타났다. 그뿐아니라 같이 온 총각놈은 기러기를 쏘아잡았노라는 조총을 메고 왔다. 심상치 않은 패거리다. 착실한 장사치고 또 꼬장꼬장한 선비이기도 하던 고충경이가 홀연 심상치 않은 패당으로 나타난것이다.

지금의 총소리는 일본군사가 쏜것이 아니였던것이 판명되였다. 일본군사가 오는줄 알고 달려갔던 왜놈앞잡이 김삼근이는 그달음으로 내뺐거나 어데 가 숨은 모양이다. 동정을 살피러 갔던 사람들은 일본군사도 안 보이고 패랭이 쓴자도 없어졌다고 했다.

김순량이는 김삼군이와 같이 달아나지 않았던것을 후회했다.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으나 행여나 하기도 하고 또 체면에 그럴수 없기도 했다. 서뿔리 달아나려는 기색을 뵈였다가 붙들리면 더 창피를 당할것 같기도 했다. 한편 또 설마한들 이 촌무지렁이들이 언감생심 사람을 다치기야 하랴, 고작 탐나는 소금이나 빼앗구말겠지 하기도 했다. 바로 이런 때에 고충경이가 심상치 않은 패당으로 나타난것이다.

(이제라두 반가운척 하구 흔연히 인사를 할가?)

김순량이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이런 경우에는 심상치 않은 패당일수록 그 덕을 볼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무척 낯간지러운 일이지만 아니, 그 무슨 혼담과 관련한 일이 있다고도 할 고충경이였다. 이편에서 한때 고충경을 얕잡아서 그에게 체면이 깎일 혼담을 비쳐보았던 일이 있었다. 그만 일이 무슨 원쑤치부할 일이야 되는가? 이렇게 되살려 생각하는 김순량이는 어떻든 이전부터 피차 잘 아는 처지가 아닌가, 그래서 거래까지도 터서 이편의 장리변을 쓰기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망설이면서도 우선 고충경이앞에서 초췌한 태도를 뵈여서는 안되리라는 생각에 다시 문턱에 걸터앉아 책상다리를 하고있었다.

이때 고충경이로서는 김순량이가 외면하고있는것이 다행이였다. 제편에서 인사를 하면 모른척 할수도 없었다. 김순량이가 눈에 띄였을 때 한순간 무춤한 생각이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처지로서는 그만한것쯤은 너무 한가한 생각이라 이미 잊어버린지도 오랬다. 그래서 옆에서 부추기듯 하는 차돌이의 말에 한번 《고얀놈같으니!》 했을뿐 그런 《고얀놈》 김순량이보다도 지금은 무슨 긴한 말이라도 있는듯 앞을 막아선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끌렸다.

《당신네는 누구시오?》

《보매에 당신네가, 혹시나해서 묻는 말인데 누구시오?》
아닌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
차돌이는 물론 고충경이도 그렇게 묻는 말에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그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여기 일부터 말하는것이 좋을것 같군.》
채수염늙은이가 말했다.
《그 말이 옳쉐다.》
《여기서는 방금 이런 일이 생겼소.》
이렇게 시작한 말로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일을 대강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에 김순량을 다시한번 훑어본 고충경은 《우리는 서산대사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올시다.》 이런 대답을 했다.
《우리 소견에두 그 비슷이 짐작이 가서 물었드랬소.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갔소?》
《정 마침 잘들 오셨소.》
《좌우간 맡아서 처결해주시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자 불쑥 《고생원!》 하고 김순량이가 고충경이를 불렀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꺼내자부터 혹은 고충경이를 마주보기도 하고 혹은 윈고개를 틀기도 하던 김가는 문득 어데서 용기가 솟기라도 한듯이 고충경이를 찾고 《이 사람네 말이 다 그대루는 아니오마는 내 일이 좀 수통스럽게는 됐소.》 하며 일어서는 그 깔끔한 얼굴에는 어색하나마 빙그레한 웃음이 비끼기도 했다.
《…》
그자에게서 시선을 거둔 고충경은 여러 사람의 말을 또 기다리듯이 둘러볼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서루 아는 사람인 모양이로군.》
《한성안사람이면 그렇기두 쉽지.》
《그러구보니 일이 좀 공교로운데.》
김순량이가 문득 생기를 내서 고충경에게 수작을 붙이는것을 본 사람들중에는 뒤쪽에서 자기네끼리 수군거리기도 했다. 혹은 하회가 어떻게 될가 하는 눈으로 두사람을 번갈아 보는이도 있었다.

《고생원이, 소금은 댁이 맡아서 좋두룩 처분하시우. 그렇게 해주면 나는 손을 씻구말겠소.》

다시 말을 시작한 김순량이는 저도 토지방아래로 내려서려다가 마침 또 비가 온다는 핑게로 다시 문턱에 걸터앉았다. 정말 비가 또 부실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이 사람네는 날 보구 여북치 않게 말을 합디다만 난들 할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랬지 뭐이 안타까와서 이 소금을 꼭 성안으루 가져가야 할리가 있겠소.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여기서 고생원을 만난것이 나루서는 퍽 잘된 일이요. 소금일랑은 고생원이 맡으시우. 이 짐군들을 시켜서 소용되는데까지 가져가두 좋쉐다.》

《…》

고충경이는 이번에도 그자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새까만 나비수염끝이 약간 흔들리게 한쪽입귀에 엷은 미소를 띠운 낯으로 역시 그들의 의향을 묻듯이 앞의 사람들을 둘러볼뿐이였다. 그들 역시 고충경이를 마주볼뿐 별다른 의향이 없는듯 입을 떼는 사람은 없었다. 일이 그만그만하게 끝날것도 같았다. 그러나 이때 《아이구, 난 무섭쉐다. 이재 난 치가 떨렸소.》 하고 문득 이갈이 터져나오는 말소리가 모여선 사람들의 등뒤에서 났다. 어린 손자를 업었던 아까의 그 할머니였다. 그 말과 함께 앞으로 나섰다.

《이재 저 사람의 눈 못 봤소? 저 눈! 저 얄궂은 눈 말이요.》

이렇게 웨치면서 아직도 문턱에 걸터앉아있는 김순량의 눈을 손가락질해보이는 할머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조총소리가 났을 때 말이요, 그 소리에 우리는 다 질겁을 했는데 저 사람만은 <옳다구나!> 하는지 반가운 낯색으루 눈웃음을 치지 않소! 나는 겁이 많은 핼미가 돼서 그런지 그 얄궂은 삵의 웃음을 보구는 오싹 소름이 끼쳤소.》

실로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한 할머니는 숨을 돌려가지고 또 말을 이었다.

《왜놈 하면 우리 조선사람은 너나없이 다 치를 떠는데 저 사람만은 되려 그놈들이 온다는 소리에 반색을 하니 저런 놈하구야 어떻게 같은 하늘을 이구 살갔소. 아이구, 세상에… 안되갔쉐다. 난 그만 소름이 끼치구 오금이 재렸소.》

말을 마친 할머니는 다시금 몸서리가 치는듯 설레설레 채머리를 흔들기도 했다.

《그 말씀 옳쉐다. 나두 그런 내색을 보구 저런 죽일놈 했드랬소.》

로파의 등뒤에서 상투큰 농군이 이렇게 말했다.

《듣구보니 정말 그랬소.》

《이자가 순순히 소금을 내놓는다구 그냥 놔보내선 안되갔소.》

《소금이 대사요? 저런자가 왜놈한테 소금만 날라갔겠소? 필경 왜놈앞으루 렴탐질두 했을거요.》

《하다뿐이요.》

《저놈을 어떡한다?》

《어떡하기는… 당장 끌어내려.》

다시 격앙한 사람들이 제각기 웨치는중에 몇사람이 성큼성큼 토지방으로 올라섰다. 그중에 차돌이가 재빠르게 먼저 올라갔다. 낯빛이 사색이되게 파랗게 질려가지고도 《너희가 나를 어찔테냐.》 하는듯이 여전히 책상다리를 하고 걸터앉았던 김가가 사람들의 손이 제 몸에 닿게 되자 꼬꾸라지듯이 대돌아래로 뛰여내렸다.

《고생원 여보시우, 이 나를 욕을 좀 면하게 해주시우.》

《욕? 네놈 몹시 점잖다. 욕만 뵈구말줄 아니? 우린 막바우가 돼서 너같은 놈은 욕만 뵈구말지 않는다. 죽일놈같으니.》

김가의 말에 고충경이가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한 장정이 그자의 갓모를 덮쳐서 으스러진 모자속의 상투를 꺼들며 웨쳤다. 김가는 락수가 고인 진창에 펄썩 주저앉았다.

《고공, 고생원, 사람 하나 살리시우. 제발 이번 한번만 살려주시우.》

김가는 자기를 굽어보는 고충경의 정갱이를 끌어안고 쳐다보면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놈이 고생원한테 못할짓두 했소. 내가 그걸 모르지 않소. 백번 사죄하리다. 아니, 당신의 분이 풀릴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리다. 내 손으루 내 해내비 굴총이라두 하갔소. 고생원, 나를, 이놈을 한번만 용서하시우. 살려주시우. 이 사람네두 고생원말씀이면 들을것 아니요. 사람하나 살리시우. 제발, 제발…》

김가를 굽어보던 고충경은 한손으로 만지작거리던 갓끈이 흔들리도록 고개를 가로흔들었다.

《댁이 지금 이런 마당에서 구태여 그런 사소한 지난 일을 말하잘건 뭐요. 그만 일이 설사 사혐이 된다기루서니 이 마당에서 그런 개인의 일이 하상 무슨 상관이겠소.》

고충경은 차근차근 타이르듯 하는 말투로 말을 시작했다.

《지금 이분들의 댁에 대한 론죄가 그런 무슨 사혐으로 하는 일인가. 여기 이분들은 아마 몰라두 댁하구는 아무런 상관두 없이 다 생소한분들일게요. 그랬더래두 지금 저 아주머니말씀 한가지만 하더래두 이분네만 아니라 아마 온 조선사람의 격분을 살만 한 일이 아니겠소.》

《고생원, 그것이 다 미련한탓이웨다. 그저 욕을 면할가 해서… 아니, 그저 살 욕심에 그랬던거요. 고생원말씀 한마디면 이분들두 날 용서할거 아니갔소. 이번 한번만…》

애걸하는 김가는 마침 비껴오는 비발에 얼굴에서는 물방울이 줄기져 흐르면서도 입속은 타는 모양으로 혀도 잘 돌지 않는 어룰한 말이였다.

《댁의 죄상은 이번만이 아니요. 여기 론죄할 사람이 하나 또 있소.》

또 이렇게 말한 고충경은 차돌이를 돌아보았다. 차돌이는 지난 5월 열하루날 밤에 영명사앞에서 만났던 갑손이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어데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더듬거렸으나 차차 열기를 띠게 된 차돌이는 제 말에 저도 흥분했다.

《이렇게 갑손이의 억울했던 이야기를 들은것은 나만이 아니드랬소. 그 자리에는 임욱경별장님두 있었소. 임욱경별장님은 저런 고얀놈두 있나 했소. 또 서산대사님두 있었소. 서산대사가 지금 이놈을 보았으면 아마 그로장두 용서할라구 안할거요.》

차돌이는 글썽해진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말을 이었다.

《이놈이 이런 놈이요. 이따위 놈이요. 제가 살기 위해서는 별의별 못할짓 없이 다할 놈이요.》

《그러다보니 왜놈하구 한몽치루 때려죽일 놈이됐구나.》

사람들은 다시 김가에게로 달려들었다.

《우리 자식새끼들이랑 동생들은 다 군총으루 나갔다. 왜적과 싸우다 많이 죽기두 했다.》

《그런데 네놈은 죽을고에다 어린 사람을 밀어넣구 빠져나와서 왜놈앞에서 장살 하구 렴탐질을 해? 이 죽일놈갈으니.》

《일어서라, 이놈아!》

달려든 사람들은 김가의 상투를 꺼들어 일으켜세웠다.
《아까 먼저 달아났다는 놈은 어떤잔가?》
고충경이가 물었다. 반얼혼이 나간 김가는 미처 대답을 못했다. 고충경이가 다시 물어서야 김가는 입이 언 소리로 대답했다.
《그놈은 왜군이 대마도에서부터 통사루 데려온 김삼근이라는 왜놈앞잡이올시다. 그놈은 제 에미두, 제 처권두 다 왜녀라구 합디다.》
《이놈아, 너는? 넌 어느 틈으루 나온 놈이가?》
《너두 그 왜놈앞잡이나 다름없는 놈인데 네 에미, 네 계집두 왜녀가 아니드냐?》
사람들은 군침을 뱉듯이 말했다.
《제 실정을 말씀하자면 저는 못난것이 그의 심부름을 한셈밖에 안됩니다. 그놈은 남도사투리나마 우리 말은 통 모르다싶이 서툰 놈인데 여기 사람과는 한두마디만 해두 왜놈의 개라는것이 탄로될거라구 저를 굳이 끌길래… 저는 또 저지른 작죄두 있구 해서… 실정을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 총각의 말대루 제가 그렇게 군역을 피해가지구두 또 뒤이어 나오는 군총초모사를 피해다니느라구 맘을 못 놓구 지나던차에 왜군이 자주 출몰한다는 대동강근처가 나을것 같애서 그쪽으루 피해가있다가 우연히 그를 만났던것이올시다.》
반 제정신이 없다싶이 묻지도 않는 말까지 늘어놓기 시작한 김가의 말에는 잔소리가 자꾸 묻어올랐고 그러다가는 또 새 사실이 나오고 해서 종당은 그자의 늙은 부모와 처자식들까지도 지금은 평양성내에서 산다는것이 판명되였다. 말하자면 김삼근이가 물어들인 김순량이를 저희 앞잡이로 리용하려는 일본군은 우선 김순량이를 붙들어맬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자의 살붙이들을 인질로 잡아둘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소서행장은 김순량이를 재물로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해서 마침내 그자의 권속들을 배로 실어다가 평양성내에 억류해두었던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흔들었다. 더 두고보잘 여지가 없다는 뜻이였다.
《그래 지금 평양성내에는 당신네 권속들외에 또 다른 사람은 없소?》
고충경이가 물었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두 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소? 좀 압시다.》
《아시는지? 저 계월향이네 모녀가 있습니다.》

《계월향이… 기생 말이요? 그 기생은 본시 평양을 떠나지 않았던가?》

《떠나기는 떠났는데 세간재물을 놓구 가기가 아까와서 바재다가 맨 나종에 늦게 떠났는데 북촌으루 가노라고 가던 길에 선연동(지금의 고노골) 근처에서 왜군한테 붙들려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구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소?》

또 이렇게 묻는 고충경은 한끝 안되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같이 주고받는 말이 길어질수록 평시에 만나서 인사수작을 하던 말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수록 고충경은 자기가 사뜻한 위인이 되는것 같아서 스스로 염증이 나기도 했다. 아닌게 아니라 수작을 하는 동안에 김순량의 얼굴에는 확실히 저퍼하는 기색이 덜리고 그 말소리도 차차 순편해졌다.

《그밖에는 더러는 김삼근이놈이 꾀여가기두 하구 또 더러는 왜군들이 물아래루 배를 타구 다니면서 남촌 등지에서 붙들어오기두 한 농군들이 수십명 됩니다. 또 간혹 영명사에 남아있는 늙은 중들이 드나듭니다.》

김순량은 순순히 이런 대답을 하면서 흉하게 으스러진 갓을 벗어버리고 망건우에 수건을 쓰기도 했다.

《왜적들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붙들어들이는 까닭은 어데 있는것 같습디까.》

고충경은 이런것을 또 물었다. 이때는 다시 오기 시작한 비발이 꽤 굵어졌다. 그러나 고충경은 활과 전통을 토지방에 올려놓았을뿐 저자신이 비를 피하려고는 안했다.

《자세한것은 몰라두 이런 모양같습디다.》

김순량의 말을 들으면 일본군은 우리 사람들을 걸리는대로 붙들어들이기 위주였다. 그 까닭은 주로 보통벌의 곡식을 노리는데 있는것 같다고 김순량이는 말했다.

평양성내의 왜군 역시 보통벌의 추수기가 오기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이다. 평양성내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군량이 남아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놈들이 언제까지나 평양성에 머물러있을 작정인지 혹은 더 많은 증원군이 쓸어올 예정인지 그런것까지는 모르나 어쨌든 더 많은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성밖인 보통벌의 곡식을 거둬들일 준비를 하고있었다. 왜놈들은 나무를 작벌해서 숯을 굽고 대장간을 차렸다. 본시는 병장기를 만들고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 나라에서 이운해온 기구와 대장쟁이들이였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일은 병장기보다도 주로 낫을 만든다는것이다. 그런것으로 보아서 우리 사람들을 많이 붙들어들이려는것 역시 보통벌추수때에 쓰려는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김순량의 말에 고충경은 놀랐다. 고충경이뿐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저런?》 하는 눈으로 서로 마주보았다. 그러나 한편 또 고충경이는 내심으로 웃기도 했다. 지금의 왜놈들이 그 얼마나 궁지에 처해있는가 하는것을 가히 짐작할수 있는 일이기때문이였다. 본시는 이 조선이라는 한 나라를 삼키고 그 온 백성을 저희 무릎앞에 꿇리고 호령해볼 야심으로써 저희 나라를 통 기울이다싶이 떨쳐나온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의 그들은 고작 한 성시를 차지하고있는 저희 군사의 군량을 판비하는데도 호령으로 모아들이거나 누구를 시킬수도 없는것이다. 그만치 그들의 위령이라는것은 이 땅에서는 설수가 없는것이다.

《지금 왜군진중에는 당신과 저 김삼근인가 하는 왜놈의 개외에 또 누가 왜적앞으로 나서서 민간으로 다니는자가 있소?》

고충경이가 또 이런 말을 묻자 《없습니다.》 하고 대답한 김가는 그 말에 대한 대답보다도 제 변명이 더 긴한 모양이였다.

《지금 고생원의 말씀은 제한테는 좀 과하신 말씀이요. 이 나를 그 개자식과 같이 왜놈앞으루 나섰다니…》

《이 마당에서는 그런 말은 소용이 없고… 저 어떻소, 지금 댁을 놔보내면 그 왜놈앞잡이를 붙들어올수 있겠소?》

고충경이는 또 이렇게 물었다. 사람들은 《이 무슨 일인가?》 하는 눈으로 서로 마주보았다. 그중에도 김가가 더욱 뜻밖인듯 한 낯색이였다.

《저를 놔주시겠소?》

《가서 그 왜놈렴탐군을 붙들어오시우.》

《그놈을요? 예, 그래보지요. 붙들어오리다. 제가 무사한것을 보면 그놈두 아마 따라올거외다.》

김순량은 출입할 때 의관을 바로하던 솜씨로 머리수건을 매만지면서 고충경의 기색을 살피기도 했다.

《그럼 어서 따라가보오. 이 사람을 보냅시다.》

고충경은 아직도 김가의 앞을 막아선 사람들에게도 말했다. 그들중에는 《대체 어떻게 하는 일이요?》 하고 따지려는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고충경은 역시 《보내라.》는 뜻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동쪽길로 나선 김가는 허전허전한 걸음걸이로 걸어가면서 대여섯걸음에 한번씩 이쪽을 돌아보군 했다. 때마침 쏟아지는 비발을 격해서도 알아볼수 있을만치 그 눈에는 의심과 겁으로 음험하게 번뜩이는 빛이 뵈였다. 그때마다 이쪽 사람들도 자연히 긴장해지는 모양으로 멀어가는 그자의 뒤모양을 지켜보고있었다.

몇번짼가 돌아본 김가는 또 한번 힐끗 돌아보고는 장달음을 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런 놈! 저놈을?》 하는 눈으로 고충경이를 돌아보았다. 고충경은 어느새 활을 잡고 또 어느새 살을 먹였는지 만궁으로 밟았던 활시위에서 깍지손을 뗐다. 핑— 퉁겨지는 활시위소리가 나자 물안개 자욱히 서린 비발속에서 외마디비명이 들리며 두팔을 벌려 허공을 끌어당길듯이 허우적거리던 김가가 길섶 도랑창으로 굴러떨어지는것이 뵈였다.

순간 사람들은 아연했다.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그런중에 혼자 혀를 차는 고충경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를 다시금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가 과연 자기네를 대신해서 어려운 일을 치러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고했다.》거나 《덕분에 일이 간편하게 처치됐다.》거나 하는 인사는 도리여 인사가 아닐것이므로 금방 있은 일이지만 그것은 없었던듯 다치지 않는것이 더 엄숙한 대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말없이 고충경이를 따라 토지방으로 올라갔다. 방안에 들어앉은 고충경이 활과 전통을 벗어놓을 때 부엌으로 난 새문이 열리며 《랭술 좀 받아주시우.》 하는 소리가 났다. 아까의 그 할머니였다. 아닌게 아니라 고충경은 그 랭수를 달게 마셨다.

이때 문득 밖에서 웃음소리와 환성과 《우야—》 소리가 났다. 맞은켠 집에 매두었던 보라매 두마리가 쏟아지는 비발을 거슬러 한꺼번에 솟아날았다.

《세월이 평정해진 때 또 보자.》

매를 놓아주면서 한 로인이 하는 말에 역시 한 로인도 《그래라! 죄없는 너희들은 갈데루 가라.》 하면서 자기네가 놓아준 매의 날음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우야—》 소리를 지르며 웃고 떠들었다. 이 역시 극히 소박하면서도 격조높은 멋을 아는이들의 랑만이라고도 할수 있었고 또 고충경이에 대한 감사와 그윽한 대접이기도 했다.

그들을 따라나가서 훨훨 날아가는 한쌍의 매를 바라보는 고충경은 어덴가 짚였던 마음이 풀리는듯 쾌하게 웃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보매에 형편이 이제 왜놈들 하구 보통벌곡식을 다

투게 될 모양인데 어떻소?》

다시 방안으로 들어온 때 매를 놓아준 한 로인이 고충경에게 물었다.

《위험한걸 무릅쓰구 그 농사를 다 지었으니 거둘 용량까지두 어련히 하셨겠소마는 지금 서산대사가 거느린 사람들만으루 족한가 말씀이웨다. 아니, 내 말은 일군이 다다익선으루 많두새 좋지 않을가 해서 묻는 말이요.》

《그만 용량은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 지금 말씀대로 다다익선이라구 하면 족하다구는 할수 없지요. 더우기 이제 할 추수가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도 더 어렵구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충경의 말에 《우리두 그걸 모르구 하는 말은 아니웨다.》 하고 이번에는 상투큰 농군이 말을 말아 나앉았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면서 말을 이었다.

《마침 이렇게 여러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 좀 해봅세다. 내 말인즉은 이분네가 하는 가을걷이에 우리두 품 한자루씩 보태두룩 하자는 말이웨다. 우리는 이분네 같이 그런 포재가 없어서 병쟁기가지구 왜적과 싸우지는 못할망정 해온 일이 농산데 추수야 한몫 못해드리갔소.》

《옳은 말씀이요. 그리구 또 우리가 여기서 의논이 맞아서 각기 동네루 가서 발론을 하게 되면 따라나설 사람들이 많을거웨다. 그래서 몇백명이구 한꺼베 나서게 되면 일을 한몫 좋이 치를수 있을거웨다.》

채수염로인의 말이였다.

《자, 그럼 우선 이분네한테 지금 잡약산에서는 어드런 료량들을 하구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봅세다.》

이런 말로써 사람들의 공론은 시작되였다.

49. 군량이 문제

이해 임진년 겨울은 류달리 혹독히 춥기도 했으려니와 그 추위가 또 일찍부터 시작되였다. 문헌들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일찌기 상강이 있었거나 한것은 아니지만 8월 하순부터 추위는 시작되였다. 예로부터 일본인들이 조선의 추위를 형용하는 말로서 《조선서는 겨울에 술을 사러 가는데 채쾡이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것은 임진년추위에 혼나보고 하는 말이다.

손자병서에는 《하불정남 동불정북》이라는 말이 있다. 《여름에는 남쪽으로 싸우러 가지 말것이고 겨울에는 북방으로 쳐들어가지 말라.》는것이다. 즉 군사를 일으켜 멀리 원정을 하는데는 가는 곳을 따라서 덥고 추운 시기를 가려야 한다는것이다. 일본군이 지난 4월에 부산에 상륙한것은 제 시기를 가려서 한 일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봉부대인 소서행장군이 평양성을 점령한이래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묵새기는 동안에 추위가 닥쳐온것이다. 일본기록들에 의하면 이때 풍신수길은 가등청정에게 편지로써 다음과 같이 문의한 일이 있다. 《조선의 추위는 대단한 모양인데 그런 동한을 막을 준비는 어떻게 할것인가?》 말하자면 자기네 군사가 추위에 약한것은 물론 그런데다 또 그들의 옷이 혹독한 추위를 막을만 한것이 못된다는것을 잘 알고 하는 걱정이였다. 이에 대한 가등청정의 회답은 래년 봄에 행동할 작전계획을 늘어놓고 그 작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니 속히 증원군을 보내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일이라고 했다. 이것은 추위가 하도 혹독하므로 래년 봄에나 다시 행동하게 되리라는것을 은연중에 표시한것이다. 비단 가등청정뿐아니라 소서행장의 의사 역시 그랬다는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이무렵 명나라에서 보낸 심유경이가 8월 하순경에 평양부근에 당도했다. 그는 자기 사람을 시켜서 소서행장에게 한번 만나보자는 편지를 냈다. 소서행장은 쾌히 승낙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소서행장은 명나라 사신 심유경을 반갑게 맞이했다는것이 더 정확할것이였다. 불시로 강복산 밑에다 군막을 치고 기치창검을 라렬하고 의장병을 늘어세우는 등으로 우의를 갖춘 소서행장은 평의지, 현소 등 막료들을 대동하고 나가서 심유경

을 사신에 대한 례로써 영접했다. 명나라에서 보낸 사람이기는 하나 일개 유격이라는 하급관료에 지나지 않는 심유경은 단 2~3명의 부하를 거느렸을뿐인 초초한 형색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서행장은 륭숭한 례로써 그를 영접했을뿐아니라 심유경이가 내놓은 조건을 두말않고 승낙했던것이다.

그 조건이라는것은 심유경자신이 명나라조정에 가서 강화조건을 가지고 다시 평양으로 올 때까지 50일간을 위한하여 그동안에는 일본군은 평양성에서 서북쪽으로 십리밖을 더 나가지 말것이며 이와 동시에 조선군사도 그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것 등이였다.

소서행장이 이러한 조건을 두말없이 승낙한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없을리가 없는것이다. 바로 얼마전까지도 조선조정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이제 수륙병진하여 쳐들어갈터이니 《대왕은 장차 어데로 가려는가?》 하며 협박공갈을 해왔고 저희 장졸들에게는 오래지 않아서 《압록강물을 마시게 되리라.》고 호언장담을 해온 소서행장이였다. 그러나 그런 협박공갈과 호언장담이 결국은 빈소리가 되고말리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소서행장자신이 더 잘 알았다. 수륙병진할 조건이 못된다는것은 이미 루루이 말한바라 더 말할것 없고 벌써부터 닥쳐오는 추위에 반벌거숭이다싶이 한 군사를 가지고는 이상 더 북으로 진격할수는 없었다. 탕탕 큰소리는 해놓고… 그래서 말바로 진퇴량난이였던 처지에 뜻밖에 나타난 명나라사신이 그런 조건을 가져온것을 소서행장으로서는 무척 다행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소서행장에게는 그것이 일시적인 휴전조건이라기보다도 하마 땅에 떨어질번 한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였던것이다. 소서행장으로서는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던 그런 조건을 접수하는데 두말이 없었을밖에…

한편 의주 행재소의 왕과 조정대신들의 초조감은 다가오는 추위를 앞두고 더욱더 절박했다. 이미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왕과 윤두수와의 대화중에서 평양을 점령한 일본군이 어째서 더 진출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왜적이 아마 겁이 나서 더 나오지 못하는 모양이라는 윤두수의 말에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왜적들은 필시 어떤 간특한 계책이 있어서 가을선기가 나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닐가?》 하는 왕의 의구를 풀거나 반박할만 한 근거나 조건이 없었다.

《왜적이 겁이 나서…》를 운운한 윤두수의 말부터가 어떤 정보에 근거

한것이 아니라 그저 한날 주먹구구적인 억측에 불과한것이였다.

이같이 적의 정세를 모르고있는 처지에서는 암중모색이랄것도 없이 그저 《적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전전긍긍한 불안만이 앞서게 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더우기 초조한것은 벌써부터 해오는 명나라에 대한 청병교섭이 지지부진한것이였다.

여기서 일일이 다 밝힐수는 없고 그 경위를 대강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정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이 장차 조선과 명나라를 침략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는것을 명나라조정에 알린적이 있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여 조선을 의심했다. 그 일례로서 임진년 전해인 신묘년에 조선조정에서는 김응남으로 하여금 그런 사태를 알리기 위하여 명나라로 보낸 일이 있었다. 일행이 산해관에 들어서자 명나라사람들은 길가에서 구경하던 아녀자들까지도 《일본과 내통한 조선사람이 무엇하러 우리 나라에 들어왔는가.》고 힐난하며 야단했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풍신수길은 조선과 명나라가 서로 돕고 협력하지 못하도록 리간책을 썼던것이다. 풍신수길은 명나라상인들을 리용했다. 명나라에서 류꾸를 거쳐 일본으로 래왕하는 약재상 허의준이라는자를 비롯해서 여러 상인들에게 일본이 장차 조선의 길을 빌어서 명나라로 쳐들어가는데는 조선이 길잡이로 나선다는것을 명나라민간에 퍼뜨리는 한편 명나라조정에까지도 알리도록 하고 뢰물도 주었던것이다. 풍신수길의 간계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임진란이 시작되자부터 말바로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드는 조선사신들의 청병교섭에 용이히 응하려고 안했다. 물론 이외에도 명나라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사정이 있기도 했었다. 바로 얼마전에 자국내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였다. 봉건왕조를 뒤흔들만치 거창한 농민반란에 직면했던 명나라조정에서는 그것을 진압하기에 전력을 기울이다싶이 해온만치 금시 또 국외로 군사를 동원한다는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사세가 그런만치 여러차례 조선사신이 들어간 때마다 명나라조정에서는 갑론을박으로 물의가 분분할뿐이였다. 마침내 조선사태의 실정을 알아볼 겸 첫 착수로 소부대의 원군을 파견했던것이 조승훈의 3 500여명의 군사였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조승훈은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패하고 돌아왔다. 돌아온 조승훈은 자기의 패전을 변명하는 구실로서 이때까지 떠돌던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보고를 했다. 즉 조선이 일본군과 내응하는

것이 사실이라는듯 한 인상을 주었다. 명나라조야의 여론은 더욱 조선에 불리해졌다. 조선조정에서는 다시 리덕형을 보냈다. 리덕형은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들어 그 여론이 부당함을 명나라조정에 밝히였다. 명나라에서는 다시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황응양이라는 사신을 의주로 보냈다. 조선조정에서는 명나라사신을 대신들이 압록강중류에까지 나가서 맞았다. 이때 리항복이가 작년에 일본통신사가 가져온 풍신수길의 소위 《국서》라는것을 내놓았다. 그 《국서》에는 례의 《직욕초입대명국》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명나라사신 황응양은 《이런 문건을 왜 이제야 내놓는가?》 했다는 기록이 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의 의심이 저으기 풀린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선에 원군을 보낼데 대한 명나라조야의 여론을 움직이는데는 명나라대신 설번의 주장이 큰 힘이 되였던것이다.

그는 자기 황제에게 보낸 상소문에서 《이번 사변을 당하여 깊이 근심할자는 조선이기보다 오히려 우리 명나라이리라.》고 썼다. 즉 2백년래로 복건성과 절강성 등지에는 수시로 왜구의 침해를 받았으나 명나라 서울의 직통로인 료양지방과 천진이 이때까지 무사해온것은 오로지 조선이 있기 때문이였다, 이제 만일 일본군이 조선을 점령하고 압록강을 건느게 된다면 료양이 위태로울것이며 료양이 위태로우면 명나라 서울을 안보하기 어려울것이다, 이럼으로써 조선과 중국은 입술과 이와의 관계라고 할것이니 만약 입술이 없어진다면 이가 찰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에 대한 왜적의 침략을 명나라로서는 수수방관할수 없다는것이 설번의 주장이였다.

마침내 명나라에서는 조선의 청병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곡절을 거쳐 조선조정에서는 오래동안 애써온 청병교섭의 일단락을 지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또 한가지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군량문제였다.

조선조정의 청병교섭에 응한 명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출하였다.

즉 조선에 나가는 명나라군사의 군량을 압록강이북까지는 명나라에서 담당할것이나 압록강을 건너서부터는 조선에서 책임질것, 그러기 위해서는 수만명 군사가 석달동안 먹을 군량을 갖추어놓으라는것이였다.

조선조정에서는 물론 그 조건을 승낙했다. 그러나 그만한 군량이 없었다. 후원군이 하루속히 나오기를 초조히 기다리기는 하면서 정작 나오면 그들에게 줄 군량의 준비가 없었다.

군량때문에 그들은 또 얼마나 초조했던가.

이 역시 8월달, 명나라의 동가성쓰는 총병과 후원군출병절차에 대해서 의논할 때 조선조정을 대표한 공조판서 한응인이 《대체 군사의 수효는 얼마나 되며 또 어떤 장수들이 나오는가?》 하고 물었을 때 동총병은 《아마 십만쯤은 되리라.》고 대답했다. 한응인은 입을 딱 벌렸다.

《지금 평안도일대가 탕패하고 량식이 고갈했으므로 겨우 그러모을수 있는것이 불과 오륙천명 군사의 반달량식이 되나마나할 모양인즉 그 이상의 군사가 온다면 지탱하기 힘들다.》고 한응인은 말했다.

그 말에 동총병은 《군사를 일으키는데는 먼저 성세를 올려야 하는 법이라 그래서 십만대군이라고 하지만 실지 수효는 그때 봐서 더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지 않느냐.》 하며 웃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나를 보낸것은…》 하고 한응인이 또 말했다.

《당신네 나라에는 전부터 왜구들과 싸워온 경험이 많은 남방(복건, 절강성을 말함.)군사들이 있는만치 그 군사를 6백명쯤만 먼저 보내서 당장 위급한것을 막도록 청하기 위한것이라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처음에는 청병교섭이 안돼서 걱정, 다음에는 보낸다는 후원군이 너무 엄청난 대군이여서 걱정, 의주 행재소에서 이런 걱정들을 하고있는중에 세월은 흘렀다.

50. 우리 농민들

8월 29일 한로. 이무렵에 보통벌에서는 논고들을 터치고 물을 찌워서 논판을 말리기 시작하였다. 추수할 준비였다. 밤중에 나가서 논고들을 터쳤다. 그러나 그 물을 그저 보통강으로 흘려보내지는 않았다. 요긴히 쓸데가 있으므로 논과 논사이의 보뚝을 높여가면서 논에서 뺀 물을 잡아두도록 했다.

이런 일들을 시키면서 추수할 시기가 박두해올수록 서산은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 또 우리 사람들이 피를 얼마나 흘려야 할것인가. 지금의 보통벌곡식을 거둔다는것은 귀한 인명으로써 곡식을 바꾸는 일이라고도 할것이였다. 단 한두명의 우리 사람이 희생된대도 역시 그것은 못할 일같

이도 생각되였다.

9월에 들어서부터 날씨는 더욱 음랭해졌다. 가을 소슬한 금풍이라기에는 좀 지나치게 거세고 맵기조차 한 서북풍이 때려부는 때가 많았다. 잡약산일대의 수림들은 밤을 자고난적마다 잎이 성글어지고 가지들이 앙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기로 보아서는 벼갈이 4～5일쯤은 이르다고 할것이였다. 제대로 한다면 상강 대시해서 5～6일전부터 시작하는것이지만 공교롭게도 상강이 보름날(9월)이다. 밤의 어둠을 타서 해야 할 일인데 열아흐레날도 너무 밝을것이고 또 달떠있는 동안이 길것이다. 보름을 지나 그믐초생을 기다리자면 그때는 서리가 와서 벼이삭이 내려질 념려가 십분 있으므로 좀 이르더라도 며칠 앞당겨하는편이 나을것이였다. 일찌기 시작한 추위에 나락의 성숙도 일러서 4～5일쯤 일찍 베더라도 별로 축갈것 같지는 않았다.

점심때가 기울어서부터 서재골에서는 2천 5백～2천 6백명의 승군과 5백여명의 농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기 밥과 된장들을 싸가지고 왔다. 숟가락까지도 가지고 왔다. 대개는 혹시 건사하지 못하고 내버리게 되더라도 아깝지 않을 바가지에다 밥과 날된장을 곁들여가지고 왔다. 오는족족 된장을 모아냈다. 서재골안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기슭에는 돌아가며 큰 딴솥들이 40～50개나 걸려있었다. 그것은 식구많은 절의 큰솥과 부근농가에서 빌려온 소여물가마들이다. 본시부터 있던 집과 또 전쟁중에 림시로 지은 움막들도 있지만 삼천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앉을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의 끼식을 끓여낼 솥이 없었으므로 딴솥들을 붙인것이다. 밥은 찬밥을 먹더라도 밤새워 일할 사람들이니만치 된장국만이라도 더운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이다. 농군들중의 소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썰은 조짚에 콩을 섞은 여물들을 모아냈다. 근 백짝이나 되는 소들도 역시 밤새워 일할것이므로 더운 여물을 먹이고싶었던것이다. 《밥이 일》이라고 하는만치 농군들은 제 소건, 빌려온 남의 소건간에 같이 일할 소생각을 끔찍이 했다.

저녁을 먹기 전에 우선 일손패거리들을 짜야 했다. 승병들은 이미 패거리가 째여있었다. 본시부터 한절, 한암자에서 공동생활을 해왔을뿐아니라 지난여름내 김맬 때부터 패거리가 정해있었다. 문제는 각처에서 모여온 농군들이였다. 한골짜기의 풀판을 차지하고 모여앉은 농군들은 우선 자기네 마을사람들끼리 의논을 시작했다.

《밤일루 다과쳐 비면 하루밤에 얼마나 빌수 있을가?》
《글쎄, 누가 해본 일이야 알지… 낮일 같으면 한마지기 반이나는 넉넉히 빌수 있는데.》
《한마지기 반이라? 그렇지, 저마다 다는 못해두 상마루일군으루 되면 그쯤은 빌걸.》
낫을 두세가락씩 갈아가지고 온 사람들의 의논은 대개 이렇게 시작되였다.
《좌우간 요새는 낮보다 밤이 길지 않소.》
《이 사람아, 아무리 길어두 밤이야 밤 아닌가.》
《아무러문요. 길은 밤길이 붙는다지만 일이야 낮에 대면 탁이 있소.》
《넉넉잡고 도무지루 몰밀어서 하나앞에 한마지기 이편저편할게요.》
《몰밀어 한마지기라? 그게 밉지 않은 말일세.》
《매 사람 한마지기씩만 치드래두 삼천명 잡구 삼천마지기인데 매 마지기에는 헐테 두섬씩만 쳐두 6천석… 야, 크다!》
《크기야, 아니 <사방 십리 보통벌이라 괘천동ㅡ> 하는 투전불림에두 나오는 논벌인데 크다는 소리해.》
《투전불림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정말 해볼만 한 투전인데.》
《해볼만 한 투전이라니?》
《6천석이 어데야. 큰 투전 아닌가. 좌우간 서산대사라는이가 어드런인지는 몰라도 통량 크게 큰 투전을 했소.》
《큰 투전이나마나 삼천명이 다 낫들구 비기만 하면 어떻거나.》
《그러게 지금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닌가. 한양으루 하는 벼갈 같으문야 비여서 깔았다가 나중에 묶어들여두 되지만 이거야 비는족족 게눈감추듯 자작대야 할판이니 아마 비는 품보다도 묶어나르는 품이 더 갈게네.》
《그럼 반반씩 해서 안될가.》
《그래두 안될걸. 아사리 모르긴 해두 십리벌에 다 소바리루 나른대두 모를데, 거지반 등짐으루 나르게 될테니 절반품두 더 들걸세.》
《그 말이 옳쉐다. 여기서두 그쯤 료량들 하구있소.》
《여기서라니, 그럼 댁은 본시 여기 사람이요? 어데 난데서 먼저 왔소?》
《나말이요? 난 여기 사람이요.》
《아, 그렇소? 아니, 그러며는… 첫인사에 대바람 이렇게 말한다구 나무

람일랑은 마소. 한데 봐하니 나만큼이나 늙은 두상이 그동안에 숱한 경난두 하구 고생두 많이 했갔소. 뉘시요? 좌우간 우리 알구나 지냅시다.》

《좋은 말씀이웨다. 나는 이 동네에서 늙어온 김첨지웨다.》

《김첨지! 아, 그렇드랬소? 원, 두상두 어디서… 아까부터 꿔온 보리자루처럼 한옆에 앉았길래 우린 또 우리처럼 어데 난데서 온 보리동진줄만 알았드랬소. 벌써 나웨다 할것이지. 하긴 두상의 말은 많이 들었소, 이렇게 합석해보기는 첨이라두. 대관절 늙은 두상이 웬 기운꼴이 있어서 왜놈을 다 때려잡았소? 이야기 좀 하우.》

《아니, 저 아주바닌 제편에서 먼저 통성하자구 해놓구는 초면에 이 두상, 저 두상 하구 남의 이야기만 듣자니 외상통성을 할 작정이요?》

《나말인가? 촌놈의 성 김가 아니면 리가라구 상기두 왜놈의 눈이 하난지 둘인지두 모르고있는 두상인데 뭐 그쯤 알면 그만 아닌가.》

《그래두 이 아주바니가 지난 전촌 장날에는 여기분들한테 한번 대락을 했쉐다.》

《옳지! 그럼 그때 보라매 놔줬다는 두상이 바루 이 두상인게로군.》

《그때 왔던 고생원인가 하는 활량이 이 아주바니 이야기를 합디까?》

《들었소. 듣구 여기 사람들두 아닌게 아니라 누군지는 몰라두 멋은 다 아는 두상이라구들 했소.》

《우리는 그때 장에 안 갔드래서 못 봤는데 그 활 잘 쏘는분이 지금도 여기 있나요?》

《있소.》

《쇠주머군가 하는 전서방이랑 승검술이랑 또 을지문덕의 후손이라는 돈서방이랑두 다 있소?》

《예, 있소. 그 사람네는 아마 먼저들 나갔을거웨다.》

《다 한다한 장사들이라지요?》

《예, 이제 보시면 알게요.》

《그런 장사들두 장사지만 나 같은 늙은것은 실인즉은 두상의 소문을 듣구 왔소. 그네들은 본시부터두 누구여다 하니 하다못해 씨름으루라두 이름이 났던 사람들이니 말할것두 없지만 두상 같은 늙은 보리동지까지두 한몫했다길래 우리두 하 병신노릇은 안할것 같애서 엄두를 내서 왔쉐다.》

《좌우간 잘들 오셨소. 그런데 아사리 모르긴 해두 당신네를 논발에

내세울는지는 모르갔소.》
《왜요?》
《그럼 우린 헛길이게요?》
《왜 헛길이야 되갔소. 날이 새기 전에 저 북쪽 말메산뒤에까지는 다 날라야 할테니 할 일이야 좀 많쉐이까.》
《아니, 김첨지아주바니, 그럼 우린 여기까지 왔다가 벼포기에는 낫두 못 걸어보구 간단 말이요?》
《바루 성밖에서 비구 묶구 하는건 아무래두 위태위태한 일이니 그래서 되두룩은 난데서 온이들은 뒤의 일을 도와달라는것 아니겠소.》
《난데서 온이라니, 그럼 우릴 나그네대접을 할 작정인가요?》
《여보게, 우리가 난데서 온건 틀림없으니 나그네야 나그네지 뭔가.》
《누가 그 말을 탓하나요. 여기까지 왔다가 일이 우서우니 하는 말 아니요.》
《우섭다말다 할것없이 우리 할탓 아닌가.》
《그 말이 옳소! 뒤에서 나르구싶은 사람은 나르래구 나부터라두 나가서 빌 사람은 비구 제 소청대루 하면 될게지 누가 못한다구 하갔소.》
《자, 그럼 이젠 그걸 알아봅세다.》
《알아보나마나 말하는걸 들으니 제왈 다 나간다지 뒤에 처지갔달 사람은 없을것 같네.》
《아주바니 같은 늙은이두요?》
《허— 초면에 좀 과한걸. 모르기는 해두 이 날 보구 그렇게 말하는 이편두 봐하니 수염이 반절음은 된걸 가지구 그러는구만.》
《수염이 반절음이라는것은 또 뭐요?》
《반절음두 몰라? 청모(청서의 털)에다 흰 장액(노루의 앞다리, 겨드랑이에 난 보드라운 털)을 섞어서 맨 붓이 반절음이웨니.》
《청모구 장액이구간에 좌우간 소청대루 말들 합세다. 장액이 다된 아주바니부터 말씀하시우.》
《하나마나 나두 벼갈한다기에 낫 차구 왔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있을 때 한편에서 《저기 오는 저 중이 서산대사 아니요?》 하고 누가 물었다.
《아닌가봐, 서산대사는 수염두 없구 좀 자그마하다는데.》
《아이구, 그럼 아니로군. 저 수염은 키가 커서 그렇지 댑싸리비자루가

걸어온다고 하겠는걸.》

《정말 오좀눌 때 거칫같소.》

이때 사명대사가 농군들앞에 나타났다. 골짜기 저편 언덕에는 승병들이 모여있고 이편 언덕에는 농군들이 있었다. 그가운데로 나선 사명대사는 이쪽 경사진 언덕을 따라올라가며 늘어앉은 농군들을 향하여 한번 합장하고 말을 시작했다.

《오늘일은 왜적과 싸우려는것이 아니라 막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적들과 맞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일이올시다. 우리가 가꾼 우리 땅의 곡식을 마치 도적질이나 하듯이 이 서리찬 밤중에 여러분이 수고를 하셔야 한다는것부터 분한 일이지만 이 역시 앞길을 내다보고 참아야 할 일이올시다. 그러니만치 되도록 조용조용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드라도 왜적이 알고 쓸어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미리 조처들을 안한바는 아니올시다. 그런 조처들을 맡은 사람들은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하시는중에 어떤 불측한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할수 없다는것을 미리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일은 바로 성가까이까지 가서 비고 묶는것과 여기까지 날라온 벼뭇을 더 뒤로 이운다는 일, 두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성밑에까지 나가서 빌수는 없을것이올시다. 그렇다고 어느분이 나가서 비고 어느분은 여기 남아계시라고 소승이 말씀할수는 없고 여러분께서 자량해서 하실 일인데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려둘것은 오늘 밤도 미상불 몹시 추울것 같소이다. 긴긴밤에 허허벌판에서 찬서리를 맞게되면 추울것은 말할것도 없고 시장도 하실것이올시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게 춥고 시장하더라도 기침을 안 깇으실분은 성앞에 나가서 일하셔도 좋고 그렇지 못한분은 아마 여기서 일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명대사의 말은 끝났다. 한순간 좀더 무슨 말이 있을가 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마침 쓸쓸 불어오는 랭랭한 저녁바람결에 가슴에 가득 흩어지는 수염을 쓸어모아쥐고 돌아서는 사명대사를 보자 입을 열었다.

《기침?》

《기침으루 작정들을 해라?》

《하기는 그래.》

《거 옳은 말이요.》

그들은 웃으며 더 군말들이 없이 각기 할 일을 《기침》으로 작정했다. 그 결과는 거의 반반씩으로 나뉘였다. 역시 늙은이들이 많았다.

사명대사의 말과 같이 각각 소임을 맡아가지고 벌써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중들은 홰를 몇자루씩 가지고 떠났다. 황서방과 그밖의 젊은이 7~8명은 두세뼘 되는 나무가지들을 칡으로 엮어서 만든 작은 다래끼에다 닭과 비둘기를 몇마리씩 넣어서 지고 떠났다. 또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작으나 달망지게 무거운 짚오쟁이들을 지고 떠났다. 그중의 돈서방같은 사람은 조그마한 질화로 하나만을 들고나가기도 했다. 또 십여명 한패거리는 큰북을 하나씩 싸지고 떠났다. 그 북들은 고충경이가 김응서를 찾아가서 우리 조선군진중에서 쓰는것을 빌려온것이였다.

사명대사가 마을로 내려간지 얼마 안돼서 골짜기에서는 저녁들을 먹게 되였다. 저마다 국솥, 국버주기, 국함지에 띄워놓은 쪽박으로 더운 국을 퍼부어서 먹기 시작했다. 당장 솥에서 설설 끓는 국이 먼저 들장이 났다. 종당은 먼저 끓여서 좀 식은 버주기와 함지의 국까지도 다 말리고야말았다. 한패씩 둘러앉은 사람들은 섶가랑잎에 얹어서 도중으로 내놓은 된장에 각기 주머니에서 뒤져낸 마늘쪽을 찍어먹는것이 식찬이였다.

《서산대사는 볼수 없으니 웬 일이요?》

언덕중턱쯤에 둘러앉아서 먹던 사람들중의 아까 김첨지와 외상통성을 했던 늙은 농군이 김첨지에게 물었다. 김첨지도 같이 먹는중이였다. 김첨지뿐아니라 이 동네에 제 집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할 사람들은 외처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마 나와두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안 나오나부웨다.》

《할 말이 없다니.》

《그 로장이 이런 일을 앞두구는 하두 걱정이 돼서 그런지 우리들한테 무슨 죄스러운 일이나 하는것처럼 뒤에서 합장하구 머리를 숙이구만 있지 별로 말하는 법이 없쉐다.》

《그 로승이 그렇게두 마음이 예린가, 원—》

《마음쓰는것두 기운따라 간다는건데 팔십고개를 바라보는 늙은이가 그럴지두 모르지.》

《암만 늙었대두 8도승병대장이 아니요. 중들의 대장이라두 대장은 대장이니 하다못해 대장싼 뼈쪼가리 하나쯤은 아무데라두 백혔갔지.》

《이재 그 사명당이라는 중은 기골이 정말 대장싸보이던데.》

《그 대사는 수염만 해두 대장감이더군.》

《사명당이 대장감이문 그 선생은 대장의 대장 아니겠나.》

《좌우간 누구나 사람을 애끼는 사람한테 감겨들게마련입디다.》
김첨지가 이번에는 딴청같은 말을 꺼냈다.
《지난 6월달에 이 동네에서 처음으루 왜적들과 맞다들게 됐는데…》
《첨지령감이 왜놈 때려잡을 때 말이요?》
《그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내 뭐 해자랑을 할라구 하는 말은 아니구요.》
《이편 해자랑두 좋으니 어서 하시우.》
《활잡은 사람, 검가진 사람, 낫, 도끼든 사람들이 이제는 숨을데 숨구 올라갈데 올라가야 할판인데… 제각기 살붙이들이 달라붙어서 언제 떨어들 줘야 하지 않소.》
《놔주질 않는다!》
《그렇기두 할게야.》
《그래서요?》
《왜놈들은 다가오지, 녀편네, 자식들은 떨어져갈라구 안하지… 자, 그러니 이런 땐 누가 있어서 한번 꽥 호통을 해줘야 하갔는데… 그래서 저마다 바라보는데 서산대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구 륙환장 짚은 손을 후들후들 떨구만 있지 않소?》
《이편이 떨구만 있다.》
《거 정말 야단인데.》
《그 대사가 제가 겁이 나서 떨지야 않았겠지.》
《그러게 말이요. 그러게 그 담에 주복이 전서방네 령감이랑 우리 늙은이들은 이런 말두 했소.》
김첨지는 이런 말로써 자기 이야기를 이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구 서서 아무 말두 못하구 소스라지게 떨구만 있는 그 로장을 보니 할 일은 하면서두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애끼구 인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저럴가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두 60이 다되게 늙은 두상들이지만 그 로장이 바루 다심한 할우바지처럼 보이드라구들 했소. 그래서 정말 더 기운두 나구 악이 오르기도 합디다.》
《그래서 아주바닌 아주반네 마누라를 붙들어맨다구 했소?》
《…》
《그러게 사람따라 어인지술두 각각이거던.》
《어인지술이라는건 또 뭐요?》

수염센 타령을 했던 로인의 말에 어떤 젊은 농군이 물었다.
《사람다루는품이 말하자면 사람들을 휘여잡아부리는 법수가 각각 다르다는 말일세.》
《그럼 서산대사가 그랬다는것두 그 무슨 <술>인가 한거란 말씀이요?》
《그러구보면 서산대사두 능칙(감정이나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서 누그러지게 한다는것)한 중인 모양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저편아래서부터 《서산대사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작달막한 중이 근가?》
《그렇다는군.》
이편 언덕우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중에는 혹은 바가지에 숟가락을 세워둔채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는이도 있었다. 골짜기밑에서 한 늙은 중이 짤막한 지팡막대끝에 두손을 포개짚고 서서 이쪽 언덕을 뒤덮어앉은 사람들을 올려다보고있었다. 이때까지 그의 이야기들을 해오다가 비로소 처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서산이라는 로승이 그리 눈에 차지 않았다.
지금 막 지는해의 락조를 받아서 수묵색장삼우에 걸친 비색가사가 더욱 유난히 붉은것과 또 길게 드리운 은실같은 눈섭으로써 무척 깨끗한 로인이라는 인상뿐이였다. 이윽히 내려다보던 사람들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먼저 서둘러서 설설 끓는 솥의 국이 차례에 온 사람들은 혀를 굴려가며 먹노라 떠지고 뒤늦게 좀 식은 국을 받은 사람들은 훌훌 떠먹어서 먼저 시작한 사람과 후에 시작한 사람들의 식사가 거의 같이 끝나게 되였다. 다 먹은 그릇과 숟가락들을 축축한 가랑잎으로 닦던 농군들중에서 《서산대사님.》 하고 크게 부르는 소리가 났다.
《대사를 처음 보는 우리가 저마다 다 인사를 할수는 없고 하니 도중으루라두 대사의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자구 찾았쉐다.》
한 중년농군이 일어서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자 《거 좋은 발론을 냈소.》, 《좋쉐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농군들의 말에 고개를 숙여 합장한 서산은 몇걸음뒤로 물러섰다. 거기는 딴솥들에 불을 때기 위해서 장작을 패던 큰 나무토막이 놓여있었다. 서산은 그 토막에 걸터앉았다. 약간 벌려짚은 두무릎사이에 세운 지팽이를 한쪽어깨에 기대놓고 앉은 서산은 얼굴을 들어 사람들을 올려다보았다. 농군들은 자리를 옮

겨 가까이 조여앉았다. 맞은편 언덕의 승군들도 서산의 등뒤로 모여왔다.
《여러분께서 들어주신다면 소승은 옛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이 좀 갈린듯 한 서산의 말이 시작되였다. 비록 나직한 음성이나 어느 누구의 풍치있는 소매길에 쓸리운 양금줄이 싸르륵 우는듯 한 금속성의 여운이 들리는 그의 말소리는 널리 퍼졌다. 산정에서 나무숲을 스쳐가는 솔바람소리가 들려올뿐 골짜기안은 비교적 고요했다. 오직 수천명의 긴장한 숨소리만이 엉킨듯 했다.
《언제 어떤 어른이 먼저 시작해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해오는 이야긴지는 모르오나 그 이야기를 시작하신분은 몰라도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어질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보의 조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승은 잠시 입안의 침을 모아삼키고 또 말을 이었다.
《이야기는… 어느 깊은 산중에서 큰 산불이 났더랍니다. 인가도 전혀 없는 산에서 불이 났으니 불을 끌 사람인들 있었겠습니까. 모진 바람세를 따라 불길은 번질대로 번지는데 그 숲속에서 살던 길짐승, 날짐승들은 불을 피해서 달아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의 한 작은 산새새끼 한마리가 저 멀리 있는 산개울로 가서 날개와 꼬리에 물을 적셔가지고 날아와서는 불타는 나무숲에 뿌리고 또 날아가서 물을 묻혀다가는 뿌리고 하더랍니다. 그런양을 본 어미새가 <너 같은 한날 작은 새가 무슨 일을 치르겠기에 그런 헛수고를 하며 애를 쓰느냐.>고 한즉 새끼새의 말이 <설사 일은 못 치를지 모르나 이 산은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서 먹고 여기서 깃들어 자면서 즐겁게 살아온 산인데 지금 불타는것을 보고야 어찌 가만히 있을수가 있습니까.>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미새도 제 어린 새끼와 함께 물을 묻혀다 뿌리고 또 그것을 본 다른 새들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잔약한 새들은 지치고 날개의 힘이 다해서 불속에 떨어져 타죽기도 했답니다. 그 새들은 종당에 그 산불을 끄지는 못했을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야기해온 로승은 어깨에 기대세웠던 지팽이를 다시 짚고 또 한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서면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일을 치를것이올시다.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기어이 성공할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저 왜적아수라들이 지른 불로 인해서 불타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천리강산은 인가도 전혀 없는 그런 무주공산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그 주인

이올시다. 우리에게는 그 잔약한 새와 같은 지성만이 아니라 족히 이기여 성공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려울지언정 결코 못하거나 헛수고가 되고말리는 없는 일이올시다.》

말을 마친 서산은 한번 또 합장하고 지팽이를 옮겨 돌아섰다. 그의 뒤모양이 멀어지기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꽉 엉킨듯 한 긴장속에 잠겨있었다. 마침내 여기저기서 굳은 침을 모아삼키는 헛기침소리와 코를 푸는 소리와 함께 두선두선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중에서 《자, 이젠 그만하면 일 떠날 때가 되지 않았을가요.》 하는 소리가 났다.

서쪽하늘가녁을 약간 물들였던 엷은 노을마저 사라지고 농군들이 흔히 개밥바라기별이라고 하는 장경성을 가까이 끌어붙인 실날같은 금빛초생달이 대흥산머리에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냈다.

51. 한밤중의 보통벌추수

보통문과 칠성문, 그 두 성문앞에만은 낫을 대볼것이 별로 없었다. 지난 7월 보름날과 8월 초하루날에 있은 싸움에 성문앞의 곡식은 짓밟히고 말았다. 그래서 두 성문앞에까지는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여름에 김맬 때도 그랬거니와 지금 우리가 추수하는것을 안다면 적들은 역시 또 그 성문으로 쓸어나올것이였다.

지형으로 보면 보통문은 평지에 서있고 칠성문은 그리 높지는 않으나 을밀대에서 뻗어온 산줄기우에 서있다. 그 산줄기 역시 을밀대와 련달린 송림에 덮였으므로 한성안이지만 칠성문안은 수목이 울창한 무인지경이였다. 이와는 반대로 평지에 있는 보통문안에는 인가들이 많고 따라서 출입이 빈번한데니만치 일본군의 경계도 칠성문보다 더 심한편이였다. 바로 그 문밖에 가로걸쳐있는 보통강에는 옛날 산수화에서 흔히 볼수 있는 중가운데가 곱사등으로 까부라진 큰 나무다리가 있었다.

이때에 우리가 추수하는것을 안다면 적들은 우선 그 나무다리를 건너서 쓸어나올것이다. 할수만 있으면 두 성문을 봉쇄해야 할것이다. 완전히 봉쇄까지는 못하더라도 쓸어나오는 적에게 장애와 타격을 주어야 할것이였다. 우선 보통문밖의 다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가을철에 들

어서부터 가물었기때문에 열어진 강물을 불도록 할것이였다. 다리를 끊기 위해서는 돈정신이가 자그마한 질화로를 들고나갔고 강물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벌의 논도랑과 보물고를 한밤중에도 제 손금같이 꿰뚫고있는 김첨지와 주복이 아버지를 비롯하여 이곳 농군들이 종가래를 하나씩 들고나갔다. 문제는 칠성문이였다. 그앞에도 강이 있기는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에 조차장뒤로부터 잡약산뒤를 거쳐 팔동교가 놓인 강과 련결해서 운하를 파고 강물줄기를 돌렸으므로 지금은 흔적도 없어지고말았지만 칠성문밖의 《모래터》라고 하는것이 바로 그 강의 하상이였던데다.) 그러나 칠성문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그 강은 상류니만치 더욱 물이 열어서 지금은 다리가 없어도 아무데서나 건늘수 있었다. 그래서 오직 할수 있는것은 강으로 나오는 큰길에 마름쇠를 펴고 적이 강을 건늘 때에는 그앞에다 불을 지르기로 했다. 또 적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호를 하기 위해서 홰자루들을 가진 사람들을 성벽밑으로 돌아가며 잠복시켰다.

초생달이 채 지기 전에 사람들은 서재골골짜기에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미 구역을 가르고 매 구역마다 논마지기수와 벼단을 이운할 거리를 따라서 작정한 수효대로 벨 사람, 묶을 사람, 나를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보통벌로 퍼져나갔다. 낫만을 가진 외촌농군들은 베고 묶는 일을 하더라도 될수록 성문에서 먼 구역으로 가게 하고 혹시 앞으로 나가더라도 적은 수효로 나누어서 병장기를 가진 사람들사이에 끼여가도록 했다.

일찌기 떴다 일찌기 지는 초생달이 그 실날같은 금쪼각을 누가 가무린듯이 사라졌다. 성밑에 여기저기 잠복해있던 복로군들로부터 이제는 일을 시작해도 좋으리라는 기별이 왔다. 각기 맡은 구역을 따라 높은 논두렁과 보뚝들을 의지하고 숨어앉아서 짚신감발의 신들메를 다시금 죄여매며 기다리고있던 수천명의 벼갈군들은 낫을 들고 일어났다. 우선 논배미들로 퍼져나가고 논배미들에서 또 이랑들을 잡아 퍼진 그들은 보통벌을 두쪼각으로 가르듯이 한가운데서부터 성벽쪽을 향해가며 베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들이 밖에 나다니는 일이 더 적을 한밤중을 타서 성벽가까이로 다가들어서 벨수 있도록 료량한것이였다. 초경쯤 해서부터 일이 시작되였다.

거세게 노호하는 바람은 아니나 예로부터 이름이 있어온 마가을 보통벌의 늦하늬가 맵짜하니 쏠쏠 갈리였다. 달마저 넘어가서 오직 한빛 깊은 물속같이 랭랭하게 푸른 하늘에는 그 역시 차겁게 보이는 별마저 드

물어서 한논판에서 베여나가는 사람끼리도 두세사람만 건너가면 그 다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싹싹 싸륵! 하는 잘 드는 낫소리들만이 끝없이 먼데까지 퍼져나가는듯 했다.

《힘들게 허리를 굽히구 바투 비잘건 없지 않아?》

《아, 그거야 재간만 있으면 짐 안되게 이삭만 자르면 더 좋지.》

어둠속에서 낫소리와 함께 이런 말이 들리기도 했다.

《허리를 펴구 비여보라구. 안해본노릇이 돼서 더 힘들지 않나.》

《허ㅡ 벼갈을 첨 해보는 사람같은 소리들을 하는군.》

《아닌게 아니라 이런 벼갈이야 처음 아니요.》

《왜, 밤이 돼서?》

《밤이 돼서 안 보이면 몰라두 이편이 그만치 부지런해진셈 치구 하면 될거 아닌가.》

나직나직한 이런 말끝에는 웃음소리가 따르기도 했다. 그들뒤에는 묶는 사람들이 따랐다. 베는 사람 두셋에 하나폭으로 따라가는 그들은 갈지자로 왔다갔다하며 모숨모숨이 베여놓은것을 걷어서 묶어나갔다. 또 그들뒤에는 묶어놓은 벼단을 저편 큰 뚝까지 날라내는 사람들이 따랐다. 논판에서 철버덕하거나 우쩍하는 큰소리를 내는것은 흔히 그 사람들이다. 등짐으로 지거나 아름으로 안아내던 길에 우멍우멍한 논판에서 채 뽑히지 않은 물창이나 살얼음을 짚어서 빠지기가 일쑤였다.

《천천히, 너무 덤비지들 말라구.》

《벼단 져낼래 미에기 잡을래 그러다가는 초아진에 뽕빠지리다.》

《정말 밤새와 할 일인데 기운들을 애낍시다.》

이런 투로 서로 아끼고 격려했다. 그러는 동안에 이따금씩 돌아보는 논판은 번쩍번쩍 달라졌다. 시야는 물론 좁았다. 그러나 말은 이랑들을 다 베고 다음 논배미로 올라갈 때마다 뚝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면 방금까지도 눈앞에서 그리고 손끝에서 설렁거리고 희게 보이던 벼포기들은 부신듯 가신듯 사라지고 꺼먼 논바닥만이 드러났다. 그만치 일을 치운것이다.

또 베여나가던 논판이 끝나서 오래간만에 허리를 펴고 일어서면 드문 별빛아래 어둑컴컴한 숲같이 솟아보이는 수수밭이 설렁거리기도 한다. 논벌가운데 오다가다 끼여있는 수수밭들은 이때까지도 그냥 있었다. 아퀴가 히질긴 곡식이라 잎들은 고삭을대로 고삭았으나 이삭들은 아직 단단했다. 누가 낸 계교인지 베는 법수가 그럴듯했다. 꼴망태 하나씩을 메고 낫을

든 사람들이 수수이랑을 한이랑씩 타고 나가면서 이삭의 대목들을 잘랐다. 한걸음한걸음 내짚는 그들의 다리사품에 끼운 수수대들은 손에 모갱이가 잡히기 알맞게 허리를 굽힌다. 그리고 이삭이 잘리운 빈 대들은 그들의 꽁무니에서 빠져서 다시 일어섰다.

《곰이 강냉이 쯔는 투로군.》

《산골절에서 부대발의 강냉이를 도적맞아버릇해서 그 곰동지들의 본을 따는 모양이지.》

《여보, 나는 중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두 수수갈하는 그 방법만은 중들한테 배왔을테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에 우리 중한테 안 배운것이 있소?》

《빼기는걸 보니 아마 저 대사가 중인게지?》

《그래, 나 중이요. 가사장삼 다 벗어놓구 머리에 수건은 동였어두 난 중놈이요.》

《하! 저 대사가 왜 해넣기두 전에 시쁘둥하니 왜진 짠지국같은 소릴 하네.》

《우리 서산 큰 스님두 중이구 사명스님두 중이요.》

한이랑 수수이삭을 다 자르고 발머리로 나서는 그 젊은 중은 내밷는 투로 말했다.

《하, 그 대사가 무슨 나무럼인고? 일 참수에 입 쓰지 말라구 하는 롱말인데 롱담을 그런데루 끌구갈거야 있나.》

한 늙은 농군의 말이였다.

《그럼 중놈타령은 그만할가요?》

젊은 중은 좀 부량스럽게 번뜩이던 눈을 금시 가늘게 뜨며 《그저 <중> 이래두 <놈>자가 달리는것 같애서요.》 하고 허허 웃으면서 또 새 이랑을 잡아들었다.

이때 또 젊은 중 몇이가 어둠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섬거적에 넣어서 지고 온 관솔가지들을 바람세 보아서 수수발 서북쪽 발머리로 돌아가며 쏟아놓았다.

《제철바람이라 하늬가 변하지는 않겠지.》

한 중은 이렇게 말하고 한 중은 《사명스님말씀이 먼저 큰길쪽으루 따라가면서 비랍디다. 여차직하면 아깝지 않게 불을 지를수 있도록 하라구요.》 하고 수수갈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고는 다시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그런 말로써 분위기는 금시 또 벅차도록 긴장해졌다.

베고 묶는 사람들은 걸음마다 빈 논판을 뒤에 남기며 앞으로 나가게 될수록 더욱 긴장하고 긴장할수록 이야기들이 적어졌다. 그대신 싸륵, 싹싹하는 낫질소리가 온 벌판에 가득찬듯 하고 그중에도 또 제각기 손끝에서 버스럭거리는 벼모춤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서리발이 엉킨듯 랭랭하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저 어렴풋하기만 하던 성벽과 성문루각들의 형태가 이제는 한결 뚜렷해졌다. 그만치 가까와졌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빈몸으로 걸어도 한참길이다.

《쉬— 놀라지들 마소.》

《거 누구가?》

베고 묶는 사람들의 등뒤에서 문득 이런 말소리가 났다. 낫을 든 십여명의 장정들이 어둠속에서 나타나 논판으로 우뚝우뚝 들어섰다.

《웬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났소?》

베고 묶던 손을 잠시 멈추고 묻는 말이다.

《뜻밖의 일손이 또 늘었소.》

《우리 군사들이 왔소.》

새로 논판에 들어선 사람들의 대답이였다.

《우리 군사들이라니?》

《석장군 고개넘은쪽에 둔치구있던 군사가 천명이나 왔소.》

《저런!》

《김응서조방장이 여기 일을 도와주라구 보내서 왔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데들 있소?》

《저쪽 강복산이랑 장산앞에서 벼단들을 고개너머루 넘기는 일을 맡았소. 그래서 거기 일군이 남아서 이리루 나오게 되구 또 이제부터는 비는 족족 씽씽 산뒤루 넘어가게 됐소.》

《그렇다면 비는 사람이 못해두 3백～4백명은 더 늘었으니 소불하 륙칠백석은 더 비게 됐네.》

《그렇지요. 자, 그런데 새루 온 우리는 묶으라우, 비라우?》

《세사람의 둘은 비구 하나는 묶으소.》

《그럼 조금씩들 죄서 섭시다.》

이때 논판들에서는 대개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졌다. 논판뿐아니라 벼뭇

을 나르는 패거리들에도 새 일군들이 늘었다. 베여낸 곡식은 우선 보통벌 뒤산을 넘겨놓고볼 일이였다. 그래야 완전히 우리것이 될것이다. 칠성문밖 근처에서는 북쪽 장산고개와 서쪽 강복산고개가 가까왔다. 보통문밖에서는 순안길로 해서 역시 강복산고개를 넘는 큰길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욱 편한것은 서장대앞까지만 이운해가면 장마철에 쓰던 나루배로써 보통강줄기를 거슬러 잡약산뒤에까지 올라갈수 있었다. 물은 많지 않았으나 나루배에 벌이줄을 매서 좌우쪽에서 끌고 삿대질을 하면 넉넉히 올라갈수 있었다. 또 미리 준비했던 떼목들을 띄우고 끌었다. 작은 떼목이라도 소바리짐보다는 많이 실을수 있었다. 그래서 소는 칠성문밖근처로 많이 돌렸다. 소바리는 대개 늙은이들이 몰았다. 짐을 실어주기만 하면 한사람이 두세필씩은 건사했다. 그들 역시 빈몸으로 다니지 않고 몇단씩이라도 지고 떠났다.

새 일군들이 보충됨에 따라 논판의 일손들이 좀 바뀌게 되였다. 낫질을 하던 사람들중의 손이 굼뜬 사람은 묶는 일을 하고 묶던 사람들중에서 굼뜬 사람은 나르는 패로 되였다. 앞으로 베여나갈수록 차차 멀어지므로 뒤로 이운하는 품이 더 많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추려내세운 일군들이라 지금 베고 묶는 사람들의 일솜씨는 번개불같이 빨랐다. 저마다 늦바람을 주지 않고 들어붙은 일이라 앞서고 뒤떨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이 베고 묶어나가는 논판의 벼는 날기멍석을 말아치우듯이 번쩍번쩍 바닥이 드러났다. 그 판에서 묶는 일을 하던 늙은 봉군 오장 역시 굼뜬 축으로 몰려서 이제는 벼단을 나르게 되였다. 논판에서 벼단을 져내는 일군들에게는 지게가 차례에 오지 않았다. 저마다 아름으로 안고 나가서 저편 소바리가 다니는 큰길까지 져내는 지게군들에게 지워주는것이 일이였다. 벌써 몇번짼가 한팔로는 세네단을 그러안고 한손으로는 두어단을 겹쳐들고 저쪽 논배미의 큰 뚝까지 날라간 늙은 봉군 오장은 문득 《거 오장아주바니 아니요?》 하는 아낙네의 말소리에 놀랐다.

《이게 누구요? 이것이라니! 칠성이 어미가 언제 왔소?》

《이제야 왔쉐다. 좀 일찍 와볼라구 부수대긴 해서두 그만 늦었쉐다.》

그 역시 저편 논에서 벼단들을 안고 들고나오면서 말했다.

《그 먼데서 안 오신들 메라리, 그래 젖먹이는 어떻게 하구 왔소?》

《그러기에 말이웨다. 그걸 떼놓구 오느라구 이렇게 더 늦질 않았소.》

《정성이 무던하시외다. 하기야 칠성이 어미 하나쯤 안 오시기루…》

《칠성이 엄마가 왜 어드래서요. 지금 오장아주바니 하는 일이나 우리

나인들 하는 일이나 한몫이기는 같은것 같소고래.》

희미한 어둠속에서 이같이 결다리로 핀잔을 주듯 하며 나선것은 김첨지 마누라였다. 그 역시 저편 논배미에서 벼단들을 끌고 나왔다.

《그러다보니 일이 좀더 새없이 됐는걸.》

《새없긴 또 뭐이 새없나요. 왜, 우리 나인들을 만나서요?》

《아주마니, 왜놈들 듣갔소.》

늙은 봉군 오장은 허허허 웃고나서 말했다.

《그러지 않아두 단을 묶다가 손이 뜨다구 따돌려서 이 일을 하기는 하면서두 내가 귀구멍이 너무 넓었던 한을 다하던중이웨다. 지난 7월 보름날만 하더라두 그랬구 또 8월 초하루날 싸움때두 그랬구, 이 나는 군총으루 늙어온 사람이니 아무래두 싸움에 나가야 하겠다구 하는데두 서산대사랑, 사명당이랑이 굳이 말리는통에 못 나갔다가 이러구있질 않소.》

《아주반 같은이가 싸움에 나가서는 더 맥을 못 추갔으니 그러지 않갔소.》

《에이 여보, 아무리 늙었기루 내 한몫은 하구 죽지야 못하오.》

《우리보구 새없다더니 그 말씀이 정말 새없쉐다.》

김첨지 마누라가 이런 말을 할 때 《누굴 앨 멕일라구 나인들이 예까지 따라왔소.》 하는 퉁명스러운 소리가 논판에서 들려왔다.

《거 누구가?》

김첨지 마누라는 수다를 떨고있던것이 좀 무안한 모양으로 봉군 오장을 쳐다보며 물었다.

《전서방 아니요? 뒤잔등에서 저렇게 동시루 김오르듯 하는거 안 보입네까?》

이때 또 《나인들은 어서 들어들 가라구요.》 하는 주복이의 말이 들렸다. 이편에서는 다시 논판으로 흩어져갔다.

바람결따라 어덴가 먼데서 기연가미연가하게 닭우는 소리가 아련히 들린다. 밤이 꽤 깊은 모양이다. 북쪽 장산뒤에 감추었던 북두칠성의 꼬리가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서 동쪽으로 뻗쳐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쏼쏼 내갈기듯 하는 북풍은 더욱 매워지고 벼포기들에는 밑둥에서 이삭까지 바늘끝같은 서리발이 내불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서리가 앉았다. 얼굴에 칼(면도)을 대는 풍습이 없던 때라 수염과 눈섭들은 말할것도 없고 더부룩한 솜털끝마다도 성에가 불린 얼굴에서는 물방울이 줄줄

이 흘렀다. 신발은 젖고 바지가랭이는 얼어서 버석버석 쓸리는 소리가 나도록 과다졌다.

《야ㅡ 그 바람 맵다. 정말 강서리가 오누나.》

《좀 춥긴 해두 매운 바람이 왜놈들을 잘 재와주어서 고마운 일이네.》

《말신신듯 발바닥에만 총없는 신짝을 붙인 맨발때기놈들이 이런 밤엔 더 깡지근해질게라.》

《좌우간 네놈들이 오늘 밤만은 해돋이까지 콜 골아라.》

이제는 퍽 가까와진 성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주복이는 잠시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앞을 내다보며 《요다음 배미부터는 우리 논이다.》 했다. 반가와서 하는 말이였다.

《몇마지기나 되우?》

옆에서 베던 젊은 중이 물었다.

《일곱마지기는 좀 남구 여덟마지기는 좀 골싹하구 그렇지.》

《그것이 다 전서방네 논이요?》

《내가 부치문 내 논이지.》

《아니, 전서방네 땅인가 말이요?》

《땅이야 우리 조선땅이지.》

《제길, 되겐 어그적씨네.》

《말이야 전서방말이 옳았지. 그래두 일전 농사해서 타작할 때는 팔짱찌르구 와서 지키다가 절반 실어가는 놈이 있었갔지. 그렇지, 전서방?》

《금년엔 정말 그놈의 꼴 안 보게 돼서 씨원한데.》

주복이는 또 베여나가면서 말을 이었다.

《어느 세월이나 그놈의 꼴을 안 보구 살수 있을래는지.》

《그놈의 꼴이라니 전주놈의 꼴 말이요?》

《그래.》

《안 보기는커녕 이 갈에두 와서 타작을 내래면 어떻걸텐가.》

《어림없는 소리 말라구. 그놈들이 여길 와? 무서워서 이런델 삐치기나 하는데. 정말 와서 또 그따위 수작을 하문 이번엔 다 들어붙어서 농사한 몇천명의 품삯을 내랄테야.》

《그러다보니 전서방이 꽤 의젓한 사람이로군.》

《왜?》

《품삯만 내라구 하구말갔다니 말이야.》

《그래 그것만으루는 씨원치 않단 말인가? 그럼 내 이편네 시원할대루 하지. 이젠 내 의젓 다 팽개쳤네.》
《의젓을 다 팽개쳤다?》
누가 또 이런 말을 해서 다들 웃을 때 《정말이야.》 하는 어둠속에서도 정색한 얼굴이 보이는듯 한 주복이의 음성이였다.
간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베여나가는 동안에 한배미가 또 끝났다.
주복이는 다음 논판으로 들어서기 전에 지금 벤 논배미 저편 뚝에 세워두었던 긴 철퇴를 가져다가 이편 뚝에 세워놓고야 또 베기 시작했다. 늙은 봉군도 자기 창대를 가져다가 뚝에 꽂아세웠다.
《오장아주바니가 어떻게 오늘은 군복을 다 벗었소?》
그가 창을 가져다 세우는것을 보고 베기 시작하던 사람중의 누가 이렇게 물었다.
《일하는데 거칫으니 벗었지.》
지금까지 한번도 벗은적이 없었던 벙거지를 벗고 수건만을 쓴 늙은 봉군은 역시 그 색동달이군복도 안 입고 순색무명바지저고리만인 제 모양을 굽어보며 말했다.
《군복은 벗었어두 나야 군총으루 늙어온 사람 아닌가.》
《그러게 누가 아니래나요. 아주바니가 열여섯살부터 입어온 군복이라구 영 안 벗다가 오늘만은 벗을래기 생가죽이라두 벗기는것처럼 아팠을것 같애서 하는 말 아니요.》
《에끼 이 사람, 이제 두구보게.》
《뭐요?》
《뭐요라니, 내 아무리 늙었어두 군총으루 살아온 값을 하구야말테니.》
오장이 이런 말을 할 때 《김첨지네 아주마닌 상게두 여기 있습디까?》 하고 주복이가 물었다.
《글쎄? 아까 보구는 못 봤는데. 왜 그러나?》
《왜라니요, 누굴 걱정시킬라구. 이제 만나시거든 여기서 어서 썩 피하라구들 이르시우.》
이때 《모르긴 해두 필시 김첨지령감이 여기 어느 보뚝옆에서 일하는거 아닐가? 그래서 또 맘이 안 뇌여서…》, 《그 말이 맞았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들 웃었다.
베던 논판이 거의다 끝나서 본즉 맞은 뚝에는 긴 환도를 든 사명대사

가 서있었다. 그 이상은 더 베지 말라고 했다. 보통강뚝까지는 아직도 논이 여러 배미 있었다. 보통강을 건너서도 성밑까지는 한마장쯤이나 상거가 있다. 그 어간에는 성밑으로 돌아가며 락락장송들이 늘어섰고 송림 아래서부터는 보통강기슭까지 조와 피밭들이 련달아 있었다. 그 발곡식들은 일본군이 평양성을 점령하자부터 돌보는이가 없어서 지금은 고삭을대로 고삭아 이삭이 다 내려지고만 곡초만이 잡초가운데 묻혀있을뿐이였다.

《좀더 비여두 됨즉한데요.》

사명당이 서있는 뚝까지 베여나간 때 누가 물었다. 그러자 저편 논두렁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며 희미하게 트인 시야안으로 나타난 고충경이가 《저쪽에서두 그만두구 일손을 뗐습니다.》 한다.

《여기 남은것은 만일의 경우에는 불을 질러야 할게요.》

사명당은 일군들이 돌아서기를 재촉했다. 이때는 좌우옆의 논판들에서도 낫소리가 그치고 우뚝우뚝 일어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양이 희끄무레하게 바라뵈였다. 또 이때 맞은편에서 한 젊은 중이 나타났다. 사명대사앞으로 가까이 온 그는 바지가랭이를 무릎우에까지 걷어올린 맨발과 정갱이에 감탕이 묻어있었다. 보통강을 건너온것이다.

《아직두 별일은 없는것 같습니다. 칠성문은 그냥 닫혀있구요.》

그는 또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온 일이 끝난셈이다. 절반 일이 무사히 끝난것이다. 돌아선 일군들은 논밭에 남은 벼단을 몇단씩 들고 남아있는 일터로 향해갔다.

이제부터는 바람을 안고 나가는것이 한가지 더 힘드는 조건이기는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쪽으로 다가가며 조심조심히 해온 일에 비하면 맘대로 일손을 다그칠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오히려 일이 헐할것이였다. 저마다 뒤꽁무니에 여벌로 찔렀던 드는 낫을 갈아쥔 손에 침을 뱉아든 일군들은 《자, 다그치자.》 하며 기세좋게 숫논판으로 들어섰다. 한배미가 끝나면 다음 배미로 베여나갈수록 나르는 품이 덜려서 베고 묶는 사람을 늘일수 있었으므로 일은 더욱 빨랐다.

벌써 몇회째 우는 닭의 소리가 또 들린다. 한걸음씩이라도 가까와지는 장리 강복산 넘은쪽에서 나는 모양인 닭의 소리는 바람세따라 더욱 분명히 들렸다.

《닭소리는 연방 들리는데두 몇홰째 우는 닭인지는 모르갔군.》

《정말 그런데. 집에서 잘 때는 잔깐이 있어서 짐작이 가는데 뜬눈으로 새우자니 더 짐작을 모르갔는데.》

《아마 넉넉히 4경(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은 지났을게요.》

《4경이 뭐야. 4경은 초저녁으루 지났갔네.》

《여러말할것없이 저 <모재기>를 보게나.》

《아이끄, 정말 4경은 지난지 오랬갔는데.》

사람들은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수효가 늘었다. 그중의 동북쪽에서 나타나 서남쪽으로 옮아가는 모재기별이 무슨 빛나는 씨앗을 넣은 자그마한 구럭같은 모양으로 하늘 한가운데서 반짝이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얼마 안 있으면 밝을거 아닌가?》

《밝기야 긴긴밤이 어느새 밝을라구.》

《그새 얼마씩들이나 비였을가?》

《밤일이 돼서 어떨가 했어두 정작 하구보니 낮 하루일은 든든히들 했을것 같소.》

《좌우간 초경부터 시작해서 참수없이 한 일 아닌가.》

이때는 베고 묶는 사람의 수가 나르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다 비나 못 비나 날만 밝으면 못할 일인데 이왕이면 다 비구 끝내게어서 다과칩시다.》

《날은 채 안 밝더라두 밝을 림박해서는 깜깜해서 더 힘들게요. 정말 이제 다그쳐야지.》

《더 깜깜해서라니? 올빼미새벽이 되면 말이요?》

《올빼미새벽은 또 뭔가?》

《밤눈 잘 보는 올빼미가 더 잘 보게 깜깜해진 때 말이야. 밝아올무렵에 더 어둡잖아?》

《올빼미새벽 아니라 아무 새벽이라두 일없네. 밤새와 일하는 동안에 이젠 우리가 올빼미 다됐는데 걱정이 뭔가?》

이런 이야기중에 더욱더 신바람이 나서 후려나가는 낫소리가 사처에서 들렸다.

칠성문밖 앞벌에서는 장산이, 보통문밖 앞벌에서는 강복산과 서장대가, 그 형태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그 산들은 한걸음한걸음 마주 오는것 같았다. 이제는 남은 일거리가 확실히 줌안에 들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입

밖에 내지는 않으면서 속으로는 《야아!》 소리가 나갈만치 벅찬 일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벅찬 한고비를 지나고도 남았다. 앞이 빤히 내다보이는 일거리가 남았을뿐이다. 일군들의 기세는 더욱 높았다. 어떨가 했던 밤일이지만 해갈수록 일은 눈에 익고 손에 올랐다. 한발자국씩 내짚으며 낫으로 걸어당기는 벼포기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한줌내기고 왼손으로 받아쥔 그 벼포기를 낫은 또 어느새 상큼 들어내듯이 베였다. 그때마다 꺼멓게 드러나는 논바닥과의 대조로 흰 벼그루들은 다음 발자국을 비쳐주듯이 빛나뵈였다. 논판은 언뜻언뜻 들장이 났다. 베는족족 묶고 묶는대로 날라가서 이때까지 보통벌논판을 덮었던 벼포기가 지금은 꼬리를 물고 뒤산고개들을 넘어가는듯 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 한배미가 끝나서 다음 배미로 넘어설 때는 서로 마주보고 웃기도 했다. 얼굴들은 모두 서벅서벅한 살얼음에 덮인듯이 성에가 불렸다. 수염이 있는 사람들은 입언저리와 턱밑에서 고드름들을 뜯어냈다. 몸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올랐다. 훗훗이 풍기는 피차의 몸김이 어느때보다도 더 정답게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네!》, 《우리 겨레!》, 《다 한집안!》 이런 느껴움으로 마음이 더 후더워졌다.

안고나가는 북풍은 차차 더 매워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뼈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밤이 좀더 길어주었으면 했다. 다 벨 때까지 새벽이 참아주었으면 했다. 일손들을 더욱 빨리 놀렸다. 자연 이야기도 적어졌다.

넓은 논벌에서는 오직 드는 낫소리만이 나는듯 할 때 어데선가 둥둥둥 울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렸다. 주춤 일손을 멈춘 사람들은 귀를 재였다. 역시 둥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분명했다. 어둠속에서도 번쩍이게 빛이 나는 눈들은 잡약산을 바라보았다. 그 산머리에는 이미 봉화가 올라있었다.

《종내 일이 터지구야마는구나!》

일손을 놓고 허리를 펴고 일어선 사람들중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과연 일이 터지고야말았다. 보통문쪽에서 몰방으로 터지는 조총소리가 벌판을 울렸다. 여기저기서 급하게 달려가고 달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소란해졌다.

《덤비지들 마소.》

《왜적들이 쓸어나온대두 여기까지는 아직 멀었소.》

《그런데 낫만 가진 사람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들 가우.》
어둠속을 달려가는 사람들의 웨치는 소리였다. 이제는 북소리가 멎었다. 잡약산의 봉화도 꺼졌다. 그리고는 또 어느 순간에 깨질지 모를 침묵이 왔다. 긴장한 사람들의 귀에는 갑자기 기세를 올린듯 한 바람소리만이 들린다. 그리고 물소리였다. 크고작은 보도랑에서 발을 제껴짚고 기다렸던듯 한 물줄기들이 일시에 터져 흘러가기 시작한것이였다.

52. 한밤중의 보통벌전투

이쪽 칠성문밖의 논벌에서는 안 뵈였지만 홰불은 보통문근처의 성벽밑에서 먼저 올랐다. 잡약산의 봉화는 그 상봉에서 그것을 보고있던 서산대사가 올린것이였다. 그러자 보통문밖 나무다리밑에서도 불이 일고 강복산, 장산기슭에서는 북이 울렸다.
조그마한 질화로에 불씨를 담아가지고 떠났던 돈정신은 어둠을 타서 그 나무다리밑에 잠복해있었다. 돈비신이라는 별명이 있는만치 몸이 경첩한 그는 좌우쪽 기둥을 횡십자(×)로 련결한 나무와 나무사이로 몸을 날려 갈수도 있었지만 혹시 실수해서 물소리를 낼 념려가 없지도 않으므로 물로 들어섰다. 헤염을 쳐야 할 정도로 물이 깊지는 않았다. 그러나 화로를 치켜들어야 할만치 등가슴까지 물에 잠겼다. 오늘만이 아니였다. 어제 그제도 그렇게 해왔었다. 다리 한가운데 있는 횡십자나무에 걸터앉은 그는 바로 눈앞이다싶이 우중충 솟아있는 보통문과 또 뒤에 멀리 있는 잡약산마루를 번갈아 살펴야 했다. 밤이 얼마나 깊었을가? 앞뒤를 살피며 기울이는 귀에 알고 들으면 분명히 그렇다고 들을수 있는 낫질소리가 한때 점점 가까와졌다가 끊어지고말았다. 후— 한숨이 나갔다. 눈알이 빠지게 아프도록 어둠을 뚫고 건너다보는 보통문루와 그 좌우 성가퀴에도 놈들의 인기척은 없었다. 한고비 무사히 넘었다는 안도감! 또 시간이 흘렀다. 젖었던 옷은 꺾어쥘수 없을만치 얼었다. 거센 바람이 안기는것은 아니나 곱사등같이 들린 머리우의 널판장틈으로 쏘아드는 바람이 칼끝같이 매웠다. 늘어뜨린 발끝을 스칠듯 소리없이 흐르는 강물이 기둥들을 둘러싸고 얼어붙는 소리가 바삭바삭 들리기도 했다.

《제길! 돈비신이라구 이 일을 맡겼어두 이렇게 통 적시기야!》
혼자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그는 중얼거렸다. 추운것도 추운것이려니와 그보다도 불씨가 더 걱정스러웠다. 물론 부시도 가지고 왔지만 다급한 때 부시를 치느니보다는 빠를것이므로 가져온 불씨였다. 재가 식으면 불씨마저 스러질 념려가 있으므로 젖지 않은 저고리앞섶으로 싸서 안고있는 화로의 재를 이따금 헤집어보기도 했다. 빨갛게 살아있다. 안심한 그는 머리우를 쳐다보며 여기저기 판장들을 더듬어 만져보기도 했다. 이틀밤이나 걸려서 그 창대와 널쪽틈사리마다 끼워둔 인화지물이 있었다. 그것은 주로 대자귀밥나무기저귀에다 류황과 송진을 끓여서 묻힌것들이다. 만져보는 판장들도 조강한 가을날씨에 말라서 습기가 별로 없었다.
불씨와 인화지물들을 채심해보는것은 단 몇순간, 그 다음에는 또 앞뒤를 살펴야 했다. 눈이 얼지나 않나? 눈섭이 깝작거리게 맞붙기도 하려니와 때로는 앞이 몽롱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잠간 눈을 감았다뜬다는것이 어느새 깜박 졸기도 했다.
《이러다가 정말 얼어죽지 말아.》
그는 혼자 중얼거리는 말로써 자신을 타일렀다. 얼어죽지는 않더라도 오금이 붙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다리를 놀리고 어깨를 비비적거렸다.
《왜놈들아, 제발 오늘 밤만은 발동을 말구 썩어진 잠이나 자구있거라. 일이 얼마쯤이나 됐는지 좀 알구나 있어두 좋갔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앞뒤를 살펴보던 돈정신은 그야말로 갑자기 얼어붙은 사람같이 한순간 굳어졌다. 잡약산머리에서 벌깃 일어나는 불이 뵈였다. 다음순간 맞은쪽 성가퀴우에서는 떠드는 왜적들의 소리가 들린다. 검은 그림자들이 얼른거리기 시작한 성가퀴에서는 또 뭐라고 야단하는 고함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일이 불거지고야말았다.
《개새끼들아, 좀만 더 참으려무나.》
돈정신은 금시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듯 했다.
품었던 화로를 무릎사이에 끼고 부저가락으로 집어낸 불씨를 류황묻힌 나무기저귀에 대고 불었다. 퍼런 불길이 펄떡 올라붙었다. 틈사리마다 끼워놓은 인화지물에다 불을 달았다. 불길은 판장과 창대를 따라가며 다리밑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욱 소동하는 놈들의 소리를 등뒤에 들으며 돈정신은 걸터앉았던 나무를 딛고 몸을 날려 다음 기둥에 가붙었

다. 불길이 따라왔다. 다리 한가운데서는 불길이 벌써 판장사이로 너울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기둥 또 다음 기둥으로 몸을 날려서 강뚝에 내려서게 된 때 뒤에서 몰방으로 퍼붓는 조총소리가 났다.

벌판으로 달려가던 돈정신은 어둠속에서 《수고했소.》 하는 거쉰 말소리와 마주쳤다. 법근이였다. 돈정신이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법근이는 다리쪽으로 달려간다. 그동안에 보통문이 열리고 쓸어나오는 적들의 모양이 불빛에 보인다. 돈정신은 다시 돌아섰다. 법근이를 따라가는 5～6명의 승병들과 같이 달려갔다. 불붙는 다리 한가운데서는 벌써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은 격렬했다. 검을 빼들고 외통길인 다리 한가운데를 막아선 법근이는 저편에서 마주 오는 적을 혼자서도 막아낼수 있었다. 불길이 좌우기슭을 핥으며 염염히 타오르는 다리 한가운데 단신으로 버티고 서있는 법근이는 지나치게 대담해뵈였다. 바람새따라 이리저리 넘나드는 화염에 혹은 붉고 혹은 푸르게 번득이는 그의 칼날은 요기롭기도 했다.

《남무—》

《관세음—》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푸른 무지개로, 다음에는 붉은 번개불로 그의 검이 휘둘릴 때마다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적들은 한두놈씩 강속으로 처박혔다.

더 가까이 간대도 나서볼 여지없이 오히려 방해가 될것이므로 이편에서 바라만 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법근이는 하나의 불사신갈기도 했다. 마침내 다리중동이 무너졌다. 이편저편은 더 어우를수 없이 갈라서게 되였다. 다리우의 싸움은 끝났다.

련광정에서 기둥과 기둥사이를 방패로 둘러막고 그안에 겹겹이 방장을 드리우고 또 그안에 병풍을 둘러치고 또 그안에 백탄불화로들을 둘러놓고 그 한가운데다 드높이 포진해 깔은 자리속에서 취해자던 일본군 선봉장 소서행장이 창황히 말을 잡아타고 보통문으로 달려왔을 때는 다리는 이미 완전히 타버렸다. 오직 이쪽저쪽끝에 남아있는 판장들이 타는 불빛에 점점 더 불어가는 강물이 넘실거릴뿐이였다.

소서행장은 칠성문으로 군사를 몰았다.

드높은 문루에서 내려다보는 보통벌은 과연 변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허영게 보이던 논벌의 나락은 불고 쓴듯이 사라지고 꺼먼 바닥이 드러났다.

《어서들 나가라.》

《나가서 닥치는대로 고마인들을 잡아들여라.》

《반항하거든 용서없이 죽여라.》

《아니, 고마인을 깡그리 죽여라. …이 여가 차지하고있는 성하(성밑)에서, 바로 여의 무릎밑에서 감히 이럴수 있단 말이냐? 고마인들이 언감생심 이럴수 있단 말이냐? 참을수 없는 일이다. 이 무슨 챙피냐? 실로 여는, 칙쇼…》

소서행장은 문득 제 혀가 씹히기라도 한듯이 말을 끊을밖에 없었다. 실은 이가 아팠던것이다.

충치(삭은이)나 풍치(삭아서 생기는 이앓이밖의 모든 이앓이)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으드득으드득 갈리던 이가 턱이 일그러질만치 시큰했던것이다.

《어째서 썩썩 나가지들 못하느냐. 썩 나가. 나가서 고마인을 깡그리 죽이란 말이다.》

소서행장은 또 입이 부풀게 명령을 내렸다.

마침내 성문이 열리고 일본군이 출동하기 시작했다. 병서에는 이런 용병을 분병이라고 한다.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겨를도 없이 오직 대장된자의 분노와 충동과 앙심만으로 군사를 사지로 내모는것이다. 그러므로 분병필패라는것이다. 또 어두운 밤이였다.

《깡그리 죽이라.》는 고마인이 지금 어데 있는지도 알수 없다. 허허벌판에서 불어오는 매운 바람소리뿐. 《미견형이전수중필패》라는 말도 있다. 적의 정형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싸우면 제아무리 많은 군사라도 패하고야마는 법이다. 지금 싸우러 나가는 일본군사로서는 바로 발부리앞에서 고마인의 매복이 일어날는지도 모르고 혹은 넓은 벌판을 다 헤매도 고마인의 그림자도 볼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혹은 또 지금의 바람소리가 만산편야한 고마인들의 숨소리일는지도 모른다.

어둠속에서 더우기 장과 소금의 부족으로 얼굴들이 퉁퉁 부어 밤에도 잘 보지 못하므로 한걸음도 자신있게 떼여놓을수 없었다. 그같이 위태위태한 행군을 하는 군졸들은 앞뒤로 자기네의 대오를 살피기도 했다. 대오에는 빠진 동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멋모르고 뛰여나온것이 어리석었다는 후회…

보통강으로 나가는 큰길로 접어들어서 말을 달려가던 선두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문득 비명을 지르며 말과 사람이 덧개펴 쓰러졌다. 마름쇠

를 밟은것이였다. 아무렇게 던져도 날카로운 한끝이 새발심지모양으로 우뚝 일어서기마련인 마름쇠가 큰길 한토막에 깔려있었다. 길이 막혔다. 길을 버리고 좌우쪽으로 흩어져 강을 건느라는 명령이 내렸다. 강가로 가까이 나가자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불이 일어났다. 거슬러오는 불길에 일본군은 금시 밝아진 화광속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자 건너편에서 나는 몇방의 조총소리와 함께 철환과 화살이 비발치듯 날아왔다. 맞은쪽 강가에는 갈숲을 따라가며 수십명의 우리 궁수들이 매복해있었다. 삽시간에 몇십명이 쓰러졌다. 그중에도 말을 몰아 군졸들을 지휘하던 대장들이 먼저 쓰러졌다. 그만치 무장지졸이 늘었다. 마름쇠에 쓰러졌던자들도 자기네가 크게 상한것은 아니지만 말들은 더 달릴수 없게 되였으므로 마상에서 칼을 휘둘러 부하들을 내몰수는 없었다. 그런 기회를 타서 어둠속으로 도망하는 군졸들도 많았다.

이쪽 강변의 갈숲속에 들어앉아서 활과 조총을 쏘던 우리 사수들은 뒤에서 부르는 사명대사의 지시를 따라 이제는 뒤로 물러서게 되였다. 아직도 불이 붙는 건너편 뚝에는 적이 없었다. 그대신 뒤의 벌판에서 어둠속에 흩어져 헤매며 서로 웨쳐부르는 모양인 적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적들을 흐트러놓는데 성공했다.

현차돌이를 비롯하여 좀 뒤쪽에 자리잡고있던 5～6명의 조총수들이 먼저 사명대사를 따라 다음 매복처로 달려갔다. 이때 십여명의 궁수를 거느리고 바로 물가에 나앉았던 고충경 역시 떠나려고 일어서다가 귀를 기울이며 주춤했다. 철벅거리는 물소리가 들렸다. 불빛이 못미치는 저편 옅은 목에서 적들이 또 강을 건너오는것이 분명했다. 고충경은 궁수들을 재촉해서 달려갔다. 얼마 안 가서 과연 강에 들어선 적들의 모양이 거뭇거뭇 뵈였다. 어둡지만 흰 수목필을 련폭해 펴놓은듯 한 물빛의 대조로 목표는 뚜렷했다. 활 한바탕안으로 달려간 궁수들의 화살이 련주전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아래도리를 다 잠그고 강에 들어섰던 적들은 철썩철썩 물을 퉁기며 쓰러져 강속에 구겨박혔다. 누구의 화살엔가 강가에 말을 세우고 군졸들을 지휘하던 장수 몇놈도 굴러떨어졌다. 그러자 아우성치며 다시 강뚝으로 기여오르는 놈들의 발소리가 소란했다. 이때였다. 놈들의 아우성이 신호였던 모양으로 이쪽 갈숲에 모닥불을 퍼붓듯 하는 철환이 날아오고 뢰성벽력같은 조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놈들의 목표가 된 갈숲을 이제는 속히 빠져나가야 했다. 고충경은 궁수들을 4～5명

씩 갈라서 흩어보내기로 했다. 그중의 한패를 앞세우고 강뚝으로 막 올라가던 고충경은 보이지 않는 몽둥이에 다리를 후려갈기운듯이 쓰러졌다.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듯이 이를 사려문 고충경은 피가 솟구치는 왼쪽허벅다리의 상처를 눌러잡고 무르팍을 한두번 움직여보았다. 분명히 뼈는 상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큰숨이 나갔다. 머리에 썼던 수건으로 상처를 동여매고 궁수들을 따라갔다.

《어데 상하셨소?》

앞서가던 궁수중의 한 젊은 중이 되돌아오며 물었다.

《다리를 좀 다쳤소. 하나 따라갈수 있으니 어서들 앞서가오.》

《부축하구 같이 갑시다.》

《아니, 내 걱정은 말구…》

또 몰방으로 터지는 놈들의 조총에 바로 옆에 서있는 큰 버드나무가지들이 분질러져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저기가 급하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안 죽을테니 빨리들 가오.》

놈들의 조총질이 잠시 멎은 때 고충경은 이런 말로써 궁수들을 재촉해 보냈다. 비록 한다리는 상했으나 이 어두운 넓은 벌판에서는 어데서든 몸을 숨길수 있고 또 한몫할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이때 보통벌에서는 여러곳에서 작은 접전이 벌어졌다. 우리는 일본군이 보통강을 건느는데서부터 적들을 분산시키고 흩어져서 보통벌에 들어선 적들을 또 분산시키는 전술을 썼으므로 싸움은 여러곳에서 벌어졌다. 모두가 일합, 이합의 짤막짤막한 접전의 련속이였다. 대렬도 없이 또 피차의 련락도 없이 그저 어둠속을 헤매며 달려오는 적들과 맞부딪친 우리 사람들은 한두번 손질로 죽일수 있는 적을 죽이고는 돌아서 달아났다. 그저 달아나는것이 아니라 우리 매복이 있는데로 적을 유도해갔다. 따라가던 적들은 다음 논두렁이나 보뚝을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바로 저희 발부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람들의 반격을 받게 되였다. 칼과 창과 철퇴 혹은 낫을 들고 논뚝 또는 보뚝에 붙어앉았다가 달려나오는 우리 사람들은 오래 싸우지는 않았다. 한두번의 칼, 낫, 창질로써 손가까이 있는 적을 찍고 찌른 후에는 적이 손쓸 틈을 주지 않고 뒤로 물러갔다. 그때마다 적의 수효는 줄고 또 분산되였다. 뒤로 도망가는 적들은 더욱 많았다. 그와 반대로 놈들이 달려가는 다음 또 그 다음 뚝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람들은 점점 더 늘었다. 지형을 모르는 어두운 벌판에서 촉처에

반격을 받으며 헤매게 된 적들은 서로서로 고함을 질러 끼리를 웨쳐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 군사가 호응해나서기보다 혹은 등뒤에서 혹은 좌우측에서 함성을 지르며 엄습하는 우리 사람들의 반격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만일 이때가 밝은 낮이였다면 (물론 낮이라면 우리가 이런 전술을 쓸수는 없었을것이지만) 곳곳에서 벌어진 격투중에서 우리는 가지가지의 장렬한 장면들과 용감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볼수 있었을것이다.

온 벌판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람들의 함성과 울부짖는 적들의 비명과 쫓아가고 쫓기고 그러다가 마주쳐 겯고 트는 발소리들과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듯 노호하는 바람소리와 그런중에서 불꽃을 튕기며 맞부딪치는 병장기소리까지 어울려 갈피를 잡을수 없는 접전마당이라 누가 귀를 기울여듣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데선가는 《김첨지, 이 늙은 두상 나두 왜놈을 한놈 잡았소.》 하고 웨치면서 낫의 피를 후리쳐뿌리며 한번 크게 웃는 늙은 농군도 있었다. 또 한곳에서는 낫으로 걸어 넘어뜨린 적을 타고앉아서 놈의 가슴을 가르며 《이놈아, 이 왜놈아, 내 아들이 너희놈들한테 죽었다. 동대원싸움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 …장손아, 장손아ㅡ(그는 아들의 이름을 웨쳐불렀다.) 네 애비가 이제야 네 원쑤를 갚는다.》 하다가 마침내는 후두두 어깨를 떨며 목놓아우는 농군도 있었다. 외처에서 온 농군들이였다. 그들이 가진것은 오직 낫 하나뿐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싸울 결심을 했다. 병장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의 방해가 안되도록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볼 기회는 없었다.

지형을 모르는 벌판에서 헤매는 적들은 서로서로 웨쳐부르며 논판을 벗어나 큰길을 찾아나서려고 애썼다. 그러나 찾아나선 큰길 역시 행동이 임의로울수 없었다. 곳곳에 마름쇠가 깔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좌우쪽의 밭들과 길을 막아 뭇쌓아놓은 곡초에서 불이 일었다.

고충경은 상한 다리를 끌고 큰 뚝으로 붙어가면서 기회있는대로 활질을 하며 뒤로 물러서던중이였다. 얼마 멀지 않은 앞에서 불이 일었다. 금시 뒤밝아진 큰길에는 적들의 검은 그림자가 드러났다. 고충경은 적의 배후를 엄습하려고 달려갔다. 앞이 막혀서 붐비는 적의 부하들을 호령하는 말탄 적장을 겨누고 막 활을 날리려는 순간이였다. 적장이 휘두르던 장검을 떨어뜨리고 말잔등에서 허궁 쳐들렸다. 어느 짬엔가 저편 어둠속에

서 결쐐기로 뛰여든 한 창끝이 그놈의 복통을 꿰서 번쩍 쳐든것이다. 활을 당겨쥔채 무춤한 고충경은 혹시 적의 군졸들이 하는짓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이놈들아! 봐라ㅡ》 하는 벽력같은 고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늙은 봉군 오장이였다. 바라보던 고충경은 부지중 《아!》 소리를 지르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늙은 오장이 공연한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찌른 적을 곧 버려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는 창끝에 꿰든 적장을 버쩍 치켜들고 적들 한가운데서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나는 우리 조선 봉군이다. 이 불의불칙한 왜놈들아, 봐라!》

그는 그슬린 구레나룻속에 부릅뜬 눈을 번득이였다. 그 서슬에 처음 몇순간은 누구나 아연하지 않을수 없었다. 더욱 기세를 올리는 화광중에 울깃불깃하고 번쩍이는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입은채 창끝에 꿰여서 사족을 버둥거리며 허궁 쳐들려 돌아가는 저희 대장을 쳐다보는 적들은 뒤걸음질을 할뿐이였다. 이때 저편 어둠속에서 사명대사의 고함소리가 났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달려나오는 우리 사람들의 함성과 발소리가 쏟아지는듯 했다. 그러나 우리 편의 손이 미칠 사이가 없었다. 이때 고충경이도 몇대 날린 살로써 찍어내듯이 몇놈을 쓰러뜨렸으나 늙은 오장은 달려든 적들에게 한순간 묻히다싶이 했다. 다음순간이였다. 우리 사람들이 불빛안으로 나타나자 적들이 흩어진 길바닥에는 두다리를 뻗고 부러진 창대를 두손으로 짚고 앉아서 조는듯 한 늙은 봉군의 모양이 다시 나타났다.

《그렇지! 어서 족치라구. 전서방, 어서 왜놈들을 족치라구.》

놀랍게도 우리 늙은 봉군은 세워든 창대를 기대고 조는듯 하던 얼굴을 들어 앞을 바라보며 이렇게 웨치는것이였다. 잠시 말을 끊었던 그는 한층 기운이 준 소리로 웨쳤다.

《서산대사한테 내가 원풀이를 했다구 이르라구.》

이런 말을 하자 그는 덜썩 뒤로 쓰러져 누워버렸다.

《오장아주바니!》

화광이 못미치는 큰길 저편에서 주복이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그 어둠속에서는 육중한 몽둥이로 무슨 부드러운 가루를 넣은 자루를 치기라도 하는듯이 둔탁하게 퍽퍽하기도 하고 툭탁거리기도 하는 소리와 함께 연해 울부짖고 아우성치는 적들의 비명이 들리였다. 보이지는 않으나 쫓겨가는 적들을 따라가며 후려치는 주복이의 묵중한 철퇴바람이 씽씽 느껴

지기도 했다.

《오장아주반, 좀만 더 참으소.》

좀더 멀어진 주복이의 고함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러나 늙은 봉군 오장은 이미 깊은 잠속에 들어있었다. 단 몇순간동안의 일이였다.

53. 우리 닭과 비둘기들도 싸웠다

비록 오랜 동안은 아니나 곳곳에서 벌어진 싸움이 더욱더 격렬해갈 때 문득 칠성문쪽에서 요란한 쇠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울리는 쇠소리를 따라 바라보는 평양성내에는 화광이 충천했다. 차차 더 요란스럽게 울리는 징소리는 일본군이 지금 이 벌판에 흩어져있는 자기네 군사를 거두기 위한 신호였다.

지금 성내에서 일어난 불은 아까 잡약산마루에서 서산대사가 올린 봉화가 옮아간것이라고도 할것이였다. 잡약산에서 오른 불은 금수산으로 옮아가고 금수산에서 오른 불은 동대원 넓은 벌판 한가운데로 옮아갔다.

이때까지 닭과 비둘기들을 가지고 어둡기를 기다려서 장경문과 함구문근처로 가서 성벽밑에 잠복해있던 우리 사람들은 동대원벌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장경문밖에서는 서너길 되는 낭떠러지밑을 스쳐흐르는 대동강에서 떠오르는 랭기가 뼈속까지 스며드는듯 했다. 여기서도 어데선가 우는 닭의 소리가 때때로 아련히 들렸다. 그때마다 저희 소리에 사람보다 더 민감한 닭은 고개를 쳐들고 날개를 푸득거렸다. 그럴 념려가 있어서 암닭만을 가져왔으므로 소리쳐울지는 않았다.

꼴꼴거리는 닭들의 며가지를 어루만져주면서 《허허! 너희 동무들의 소리가 반가와? 정말 일이 무사해서 너희들을 다시 지구 돌아가게 됐으면 나두 좋갔다.》, 《그러다 혹시 또 일이 터져두 하는수 없지. 너희두 그땐 이 나라 땅에 났던 구실을 해야지.》, 《하! 이것들두 목숨이 있는 짐승이라구 제법 온기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황서방은 저편 선창에서 그 많은 함지들을 이 대동강에 다 띄워버리며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났다. 지금 붙어앉아있는 낭떠러지에서 굽어보는 대동강은 그저 어두울

뿐이였다. 또 그후에 달밝은 어느날 밤에 떡돌에서 술을 먹으며 서산대사와 그 이야기를 하던 생각도 났다. 이런 때였다. 옆에서 문득 《여보, 저 불! 종내 일이 터졌소.》 하는 소리가 들린다.

과연 강건너 빈 벌판에서 한자루의 홰불이 불쑥 들렸다. 그들은 곧 부시돌을 쳤다. 부시깃에 올라붙은 불씨를 닭과 비둘기들의 발목에 붙들어맨 화승줄끝에 옮겼다. 몇사람은 한쪽어깨를 성벽에 붙이고 모로 붙어서서 성돌과 성돌사이의 틈사구니로 발끝을 후벼넣듯이 한걸음한걸음 내짚으면서 성벽으로 올라갔다. 성가퀴우에 손이 닿을만치 올라선 사람들은 밑에서 올려주는 닭과 비둘기들을 성안으로 넘겨서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이때 성안의 적들은 거의다 보통벌쪽의 성가퀴로 몰려가고 그중의 일부분은 칠성문밖으로 쏟아져나간 때였다. 물론 성내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적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눈을 피하여 깊이 숨어있었으므로 이쪽 성안은 더욱 조용했다.

닭과 집비둘기들은 인가에서 살아온것이라 비록 낯선 곳이지만 별로 탓하지 않고 날아들어서 깃들여 잘 곳을 찾노라 이집저집의 지붕과 골목들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혹시 놀라더라도 단번에 멀리 날지 못하도록 비둘기들은 날개를 조금씩 잘랐다. 함구문과 장경문근처에서 날려보낸 수십마리의 닭과 비둘기들이 끌고 다니는 화승끝에서는 빨간 불씨가 타고 또 간간이 파란 불길이 일기도 했다. 화승 대목대목에 섞은 류황가루가 화염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놀란 닭과 비둘기들은 딴 지붕, 딴 골목으로 날고 옮겨갔다.

이 당시의 평양에는 초가가 많았다. 닭과 비둘기들이 거쳐가는데마다 여기저기서 불이 일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적의 배후를 혼란시키는 우리의 계책은 그리 힘들지 않게 성공할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장면의 격투가 벌어졌고 우리 사람의 희생이 없지 않았다.

성벽중턱에 올라선 황서방이 닭을 몇마리째 날려보냈을 때였다. 바로 머리우에서 덮어누르듯이 시꺼먼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한놈이 성가퀴에 상반신을 걸치고 이쪽을 굽어보는것이다. 올려다보는 황서방과 거의 얼굴이 맞닿을만치 어둠속에서 번뜩이는 눈과 눈이 마주쳤다. 이 어간의 성가퀴에서 파수보던 일본군사가 분명했다. 순간 그놈의 손에 들린 창날이 번뜩이였다. 황서방은 허리띠에 찌른 짧은 철퇴가 있기는 하나 미

처 손쓸 사이가 없다. 놈의 창끝을 피해서 내려설수는 있다. 그러나 놈을 그냥 두면 우리를 발견한 그놈이 소동을 일으킬것이고 따라서 적들이 쓸어나오고 그렇게 되면 불이 번지기 전에 꺼져버릴 념려가 없지도 않다. 한순간이였다. 단 한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속에 떠오른 황서방은 한팔로 놈의 모가지를 잡고 끌어내렸다. 놈은 버둥거리는 다리로 허공을 걷어차며 거꾸로 쏟아졌다. 찬찬히 내려서면 성밑에는 발붙일 언덕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에서 쏟아져내려오는 짐에 휩쓸린 황서방은 간신히 붙어섰던 성벽에서 떨어졌다. 나뜬 허공에서 목을 거머쥔 적과 함께 몇번 몸을 뒤치며 떨어져내려갔다. 성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웨쳤다.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닭들을 마자 날리우.》 하는 그의 고함소리… 그리고는 캄캄한 저밑의 물소리였다.

남은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계속해 닭과 비둘기들을 날려보내는 한편 헤염과 자맥질에 능숙한 몇사람이 뒤따라 강속으로 뛰여들었다. 그러나 황서방의 종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일어나는 불길을 따라 바람이 덧치고 덧치는 바람세따라 불은 더욱 번지였다. 때마침 《올빼미새벽》, 캄캄한 밤중의 화광은 놀랍게 충천했다.

이때까지 칠성문루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볼수도 알수도 없고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지휘할수도 없이 그저 캄캄하기만 한 접전장에서 일어나는 함성과 바람소리와 간혹 가려들을수 있는 저희 군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만 있던 적장 소서행장은 《칙쇼-》 소리와 함께 발을 굴렀다. 자기 격앙, 자기 앙심만으로 전후를 가리지 못하고 성밖으로 내몰았던 분병을 이제는 거두어 성안의 화재를 꺼야 했다. 성안이 다 타버리면 고마인의 나라의 엄혹한 삼동을 어데서 날것인가? 그에게도 그만한 《심모원려》는 있었다. 황황히 말을 잡아탄 소서행장은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라는 명령을 남기고 저자신 먼저 말머리를 돌려 퇴진해야 했다.

패전한 적의 퇴각신호가 나자 보통벌은 한층 더 소란해졌다. 왜놈들은 숨어있던자들까지도 이제는 내놓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우리 편에서는 보통강을 건느는 적에게 또 한번 타격을 줄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앞을 다투어 추격했다. 추격을 재촉하여 둥둥 울리는 우리의 군고소리와 아울러 넓은 벌판을 휩쓸어 일어나는 우리의 함성으로써 려명을 앞둔 캄캄한 보통벌은 뒤흔들리듯 진동했다.

54. 이 아침에 조국의 산머리에서 뜨는 해

먼저 서쪽하늘에 희멀건 려명의 빛을 던지고 마침내는 간밤의 암흑을 깨뜨리는 서광의 금빛화살을 뻗치면서 동쪽산머리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뜨고 저녁이면 지는 해, 사람들은 나서 죽을 때까지 그 변함없는 반복을 보아왔다. 그것은 세월의 흐름이였다. 그 항구불변한 반복에 비하여 자기네 일생이 너무 덧없음을 탄하는 사람들은 뜨고지는 해가 평범한것이기는 하나 일변 또 무정세월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어제 밤 이 보통벌에서 추수를 하고 적과 싸운 사람들은 이 새벽에 솟는 해를 그저 평범하다거나 또는 무정세월의 한토막으로만 보는 사람은 없었다. 밝아오는 새벽빛에 드러나는 보통벌! 거기서 우리가 쟁취한 승리의 전과들을 력연히 보여주는 오늘의 아침의 해는 우리 조국땅 산머리에서 뜨는 반가운 해가 아닐수 없다. 하루밤사이에 자기네 로력으로 베여놓은 보통벌을 내려다보는 우리 사람과 함께 경탄과 회심의 따뜻한 미소를 던지는 해였다. 마침내 산머리에 둥실 솟아오른 해는 아직도 검은 연기속에 잠긴 성내의 적진을 건너다보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조롱의 웃음을 던졌다. 일본군은 우리 닭과 비둘기들이 지른 불을 끄기에 아직도 바쁜 모양이였다.

추수를 위한 우리의 책략과 로력과 전투는 마침내 성공을 보았다. 이날 밤 싸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의 힘을 믿을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되였다.

이러한 기쁨중에도 한편 또 엄숙한 슬픔이 없지 않았다. 희생자가 적지 않았다. 늙은 봉군 오장과 황서방같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장렬히 희생된 사람들외에도 어두운중에 어데서 누가 쓰러지는지 모르게 죽은 사람도 있었다. 고충경이를 비롯하여 상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 종적을 모르게 된 사람도 몇이 있었다. 보패가 그중의 하나였다.

보패 역시 처음에는 칠성이 어머니, 주복이 어머니와 처, 김첨지 마누라, 차돌이 어머니들과 함께 논판에서 벼단을 끌어내는 일을 했다. 베

여나가는 논배미를 따라 얼마쯤 성가까이로 다가갔을 때 거기에서도 녀인들이 왜 따라왔느냐는 핀잔을 들었다. 그뿐아니라 한논판에 녀인들이 몰려서 일을 빨리 못 치운다는 말썽까지도 생겼다. 녀인들은 갈려서 이패, 저패로 흩어졌다. 여기서부터 보패가 어느 패에 끼여갔던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둡고 또 저마다 바빴으므로 녀인들이 한데 몰려다닌다면 표가 나겠지만 그 많은 사람중에 한둘씩이나 섞인것은 누가 누군지도 알수 없었다.

우선 없어진 사람들의 종적을 알아보아야 할것이였다. 이때 잡약산에서는 더욱 바빴다. 조만간 놈들이 또 습격해올것을 예상하고 잠시 뒤로 물러갈 차비를 해야 했던것이다.

마침 김응서조방장이 와있었다. 거둬들인 군량에 대한 의논을 하려고 서산대사를 찾아왔던것이다.

이때 김응서는 자기가 평양성으로 들어갈 작정을 했다. 그것은 벌써부터 생각해온 일이였다. 성내의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도 이때까지는 우선 군사를 초모하고 조련해서 우리의 병력을 기르는것이 더욱 긴급한 일이였다.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두게 된 이제는 적정을 렴탐하는데까지도 손을 뻗칠만 한 시기가 되였다. 더우기 지금 평양성내에는 내응해줄 우리 사람이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것은 계월향이다.

계월향이가 북촌으로 피란가던 길에 놈들에게 붙들려서 평양성내에 억류되여있다는것은 고충경의 말로써 이미 아는 일이다.

고산진 첨사를 지내기 전부터 무장으로 출신한지 오랜 김응서는 평양출입이 잦은중에 평양기생들을 알았고 그중에도 계월향이와는 가까운 사이였다. 단지 가까울뿐아니라 계월향이의 사람됨을 믿을수도 있었다. 한날 천기라는 기생이기는 하나 계월향은 긍지가 높았다. 자기의 문재, 필재에 대해서만 아니라 재물에 팔리거나 권세앞에 굴하지 않는 하나의 떳떳한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기백을 가지는 기생이였다.

《이 국란에 막중한 장신의 몸으로 가벼이 적진중에 들어가서 될 일이겠소?》

김응서가 평양성으로 들어갈 의향을 말할 때 이같이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김응서는 계월향이로 하여금 내응하게 하는데는 잘 아는 자기가 나서는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했다.

김응서는 첫 착수로 먼저 계월향이를 영명사로 불러낼 방도를 생각했다. 기생들은 굿하고 재올리고 불공드리기를 좋아한다. 기생방출입을 하는 활량들치고 자주 다니는 기생집의 굿, 재, 불공에 쌀이나 상목을 실어보내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그 쌀과 상목의 일부분은 절의 중들의 차지가 되는것은 물론이다. 즉 기생들은 대개 중들의 소중한 시주였다. 평양기생중에도 명기로 이름난 계월향이를 모른다고 할 영명사 중은 없을것이다.

이때 고충경은 누워있었다. 상한 다리때문에 제가 어쩔수는 없지만 혹여 계월향이를 통해서 할수 있다면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라도 욕되게 죽지 말라는 말과 함께 보패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제 옷고름의 장도를 끌러서 김응서에게 맡겼다.

55. 파멸전야의 침략군

평양성내의 일본군진중은 해이할대로 해이한 만만한 타기(게으른 마음이나 기분)와 또 그런가 하면 살기등등한 살벌, 이 량립될수도 조화될수도 없는 두가지의 현상이 서로 교차되고 충돌하여 일종의 무겁고 음험한 분위기속에 잠겨있었다.

화재는 그날 낮까지 침식되였다. 서북풍을 거슬러 동남쪽에서 일어난 불이라 성안일판을 휩쓸지는 못했다. 그러나 장경문안을 비롯하여 련광정, 대동문근처에 있던 초가들은 거의다 타고말았다. 불을 대강 끄게 되자 소서행장은 다시 군사를 몰아 보통벌주변의 산들을 일시에 습격했다. 결과는 허사였다. 아무데서도 고마인을 찾지 못했다. 잡약산근처의 마을들에서는 남아있는 집들의 부뚜막에 온기는 있었으나 사람들은 없었다. 출동했던 왜놈들은 보통벌에 널려있는 수다한 저희 군사들의 시체를 거두어 영명사의 늙은 중들을 불러서 화장을 하는 등 온갖 시달림을 시킬뿐이였다.

오늘 아침에 소서행장은 두세명의 장수들을 대동하고 말을 달려 불탄 골목들을 돌아보았다. 허다한 장졸들이 거처를 잃었다. 그중에도 많은 군졸들이 재더미사이를 방황하고있었다.

하루밤사이에 불고 쓴듯이 빈 보통벌, 역시 하루밤사이에 재더미로 화

한 성안의 집들, 성밖으로 내몰았던 군사를 불시로 다시 거둬들여야 했던 창황망조! 생각하면 소서행장은 마치도 어떤 보이지 않는 긴 팔이 뻗쳐서 제 상투를 꺼들어 휘두른것 같기도 했다.

어느 골목에서는 타다 남은 담밑에서 군졸들이 해바라기를 하며 졸고있었다. 어떤자는 피워물었던 곰방대를 들고 상하지 않은 무릎에 세운 이편 손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서 반쯤 뜬 눈으로 제 발부리를 응시하고있었다. 눈앞의 재더미를 보는것이 아니라 먼 고향을 바라보는 눈이였다.

그러나 그나마도 오래지 못했다. 상처가 쑤셔서 곧 눈을 크게 떠야 했다. 피뜩 정신이 든 그들은 아픔을 참을뿐만아니라 없는 원기도 있는듯 벌떡 일어나서 태연히 걸어보이고 일부러 옆의 사람에게 수작을 붙이고 큰소리로 웃어보이기까지도 해야 했다. 그같이 원기를 가장하지 않으면 더 쓸데없는 폐병으로 지목되여 목이 떨어질 념려가 없지 않기때문이다.

그같은 군졸들이 모여있는 옆에서는 고삐로 앞다리를 얽어매서 세워둔 군마가 목을 길게 늘여서 타다 남은 지붕의 고삭은 이영짚을 뽑아물고 자갈고리를 절그럭거리며 씹어넣고있었다. 그 역시 소서행장으로서는 눈살이 찌프러지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또 어느 골목에서였다. 짝지발로 세운 나무에 솥을 매달고 밥을 끓이는 모닥불옆에서는 3～4명의 군졸들이 모여앉아서 어데선가 주어모은 헝겊나부랭이들로 벗은 발과 정갱이를 싸매고있었다. 그것은 당장 눈에 홰불이 서는 꼬락서니들이 아닐수 없었다. 소서행장은 부지중 제 칼자루로 손이 갔다. 그러자 또 어데선가 군졸들이 다투는 말소리가 들렸다.

《이 겁쟁이! 비겁한 놈 같으니…》

목이 꽉 잠긴듯 거쉰소리기는 하나 격분에 떨려나오는 음성이였다.

《너희 놈 같이 비겁한 놈들이 감히 무슨 수작이냐? 이 비겁한, 비겁한!》

《뭣이? 이 내가 비겁한이라구? 헹! 꼬락서닐 봐, 제 꼬락서닐!》

전자의 침울한 말소리와는 반대로 원기왕성하게 코방귀를 탕탕 뀌면서 득의연하게 지껄이는 소리다.

《야, 이 네 그 용감하노라는 놈들의 꼴을 보란 말이다. 네놈의 한팔이 날아나는 동안에 이 나는 주무셨다. 그래 잤으니 어드랬단 수작이냐? 헤헤헤…》

《게으름뱅이! 비겁한!》

또 침울하게 떨리는 나직한 소리…

《그래 옳다. 이 어르신네 나는 과연 게으름뱅이, 비겁한이다. 그래서? 그러니 어쨌단 말이냐. 헹!》

득의연한 소리가 또 상대방의 말을 억누르듯이 현하지변으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용감하노라는 너희놈들은 성밖으루 싸우러 나가구 게으름뱅이 우리는 잤다. 이 어르신네가 주무시는 동안에 용감히 싸우러 나갔던 너희는 큰일을 치렀다. 고마인들이 벌써부터 파놓구 기다리는 함정으루 용감히 뛰여들었단 말이다. 그래서 큰일을 치렀거던! 6백～7백명을 죽이구 4백～5백명이나 팔다리부러진 병신을 만들었다. 또 그동안에 성내에는 불이 일어서 이 꼴이 됐단 말이다. 장히 장하다. 이 꼴을 봐, 이 꼬락서니를!》

《…》

《헹! 왜 말을 못하느냐? 이 어르신네, 나는 말이다. 주무시는 동안에 단꿈까지 꿨단 말이다, 헤헤헤… 정말 오래간만에 흐뭇하던걸, 좋더란 말이다. 장, 소금을 못 먹어서 밤눈은 안 보이는데두 꿈에 녀편네는 보이거던! 그렇게 꿈에 찾아온 내 마누라가 다정하기란! 따뜻하기란!… 그런데 칙쇼. 그놈의 화재때문에 그 단꿈이 그만 깨지구말았단 말이다. 너희놈들, 용감한 놈들때문에…》

이때 소서행장은 제 등뒤에서 말궁둥이를 갈기는 채찍소리를 들었다. 부하 하나가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으악－》 하는 외마디비명으로써 그 말다툼은 끝났다.

소서행장은 말을 몰았다. 얼마 안 가서 또 그와 비슷한 광경! 성밖 어데서 따왔는지, 혹은 어느 집구석에서 뒤져냈는지 모를 목화송이를 한바구니쯤 쌓아놓고 둘러앉은 군졸들이 저마끔 손톱으로 씨를 뜯어버리고 한두줌씩 모은 솜을 옷갈피에 쑤셔넣고있었다. 그 탐욕스러운 표정들!

소서행장은 더 참지 못했다. 칼을 뺐다. 두세놈의 목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소서행장은 이상 더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말머리를 돌렸다. 련광정으로 돌아오던 길에 애련당 련못가에 다달았던 소서행장은 저도 모르게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 일본사무라이의 낯을 묻히는 놈아－》

격앙한 그는 또 칼을 뺐다. 불을 끄느라 바닥이 드러나게 물을 찌운 련못가에서 한 군졸이 그 지저분한 웅뎅이에서 건져낸 모양인 붕어새끼를

긴칼로 저며서 게걸스럽게 먹고있었다. 그자의 모가지도 떨어졌다.

이런것은 구태여 일본군 선봉장 소서행장을 한날 불칙한 살인귀로 묘사하기 위한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런 때의 그에게는 그러한 자기부하들에 대한 측은한 감정도 노상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우리는 상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앞섰던것은 무서운 절망감이였다. 단지 느껴지는 절망감이 아니라 실물로 행동하는 절망을 눈앞에 보았던것이다. 소서행장으로서는 그같은 절망을 자기앞에 드러내는 부하들을 오직 벌했을뿐이였다.

임진란을 직접 겪은 리수광의 기록인 《지봉류설》에 의하면 《왜노지용법극혹》이라고 하여 당시 일본군중에서 시행된 형벌이 얼마나 가혹했던가를 말하고있다. 《옛날 진시황의 유풍을 따르는지 사람을 풀베듯 했다.》는것이다. 그같이 형벌이 가혹한것은 그들의 전통이기도 하려니와 더우기 이때의 소서행장은 더 참을수 없었던것이다.

기세좋게 흐르던 물이 앞이 막혀서 더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이때까지 계곡을 울리던 물소리도, 바위돌을 굴리던 힘도 없어지고 마침내는 혼탁해서 썩게 된다. 그 역시 물은 물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물을 《죽은물》이라고 한다.

이때의 소서행장은 자기 군대에서 그러한 혼탁을 보았던것이다.

《우리 일본군사는 앞으로 나갈줄만 알고 뒤로 물러설줄은 모른다.》고 한때 호언장담을 해온 군대가 여기서 주저앉아 이제는 헝겊나부랭이로 발을 싸매고 감탕투성이고기새끼를 먹고있는것이다. 그나마도 먹을것이 없어서 그렇다면 또 용혹무괴(괴이할것이 없다는 뜻)한 일일는지 모른다. 사창고앞에는 아직도 남은 군량이 있었다. 소서행장이 보통벌의 곡식을 탐냈던것은 당장 식량이 고갈해서보다도 앞날의 준비를 위한 《장구지책》이였고 또는 《여가 차지하고있는 이 성하에서 여의 무릎아래에 있는 곡식을 고마인에게 빼앗겨 될말이냐.》하는 일종의 자존심과 위신문제가 보다 더 큰 문제였던것이다. 물론 쌀 이외의 다른것은 다 부족했다. 일왈 소금과 장이 없었다. 그런데다 또 추운 기후는 그들이 이전에는 그리 먹지 않던 고기를 요구하게 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기록에는 일본군이 개고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씌여있기도 하다.

고향과 처자생각에 정신이 팔리고, 붕어새끼를 저며서 먹고, 또 아직이만 추위건만 헝겊으로 발을 싸매고, 비겁한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탕탕

하는 등등의 자기 부하들에게서 만만한 타기, 사기저상, 혼탁 그리고 썩어가는것을 보았다. 즉 절망을 보았던것이였다.

앞서 말한 《지봉류설》에 의하면 《승즉장구불고 패즉상기란주》 하는것이 일본군의 특징이라고 했다. 즉 그들은 저희 편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헤덤비지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보면 곧 기가 꺾여서 달아났다는것이다.

소서행장자신이 그같은 저희 군사들의 기질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한 기질이 당장 창검을 겨루어 싸우는 적의 앞에서뿐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점령하고있는 이 성곽안에서까지도 발로되고있는것을 보았다. 소서행장은 약이 올랐다. 악에 받친 그가 살벌해질밖에…

련광정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창고앞 큰 거리에 세웠던 조선수군 절제사의 복색을 입힌 모습이 아직도 그냥 서있는것이 뵈였다. 그것은 소서행장이 자기 부하장졸들에게 일본군이 아직까지도 여기 주저앉아있게 되는 까닭이 리순신때문이라는것을 알리고 따라서 리순신으로 상징되는 조선사람에 대한 증오감을 일으키고 저주하도록 하자던것이다. 그 등상이 처음에는 다소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군장병들은 그 이상 더 흥분도 적개심도 느끼지 않는 모양으로 등상은 아직도 그냥 서있었다. 장병들의 그러한 무관심은 절망에서 오는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소서행장은 또 누구만 못지 않은 절망자가 자기자신인것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이상 더 진출할수 없는데는 자기 역시 죽은물로 썩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조선군의 력량은 이 성안에 들어앉아서도 압박감을 느낄만치 나날이 강대해가는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또 의병들 즉 이 나라 백성들의 힘! 전날 밤 보통벌의 추수는 곧 그것을 여실히 뵈여주는것이다. 자기의 군사는 이이상 더 나갈수 없다. 썩을밖에… 부하장병들의 사기가 썩는것을 근심하는 동안에 그 장수인 자기 역시 썩고있는것이다. 그는 밤낮 술타령으로 세월을 보내고만 있는 자기의 자포자기를 이렇게 설명할밖에 없는것이였다. 그는 지금도 목이 말라오는것을 느꼈다. 술의 갈증이였다.

《쿠소! 될대로 되라지.》

56. 백절불굴하는 우리 사람들

소서행장은 련광정에 오르자 평의지이하의 장수들과 중 현소를 불렀다. 다음에는 현재 자기 진중에 사로잡혀있는 고마인을 다 잡아내라는 령을 내렸다. 그의 령은 군졸들에 의하여 곧 거행되였다. 련광정앞으로 다 끌어냈다는것이 불과 7～8명… 소서행장은 《어째 이것뿐이냐?》고 놀랬다. 그의 령을 거행하던 군졸들도 의외였다. 있는대로, 보이는대로 다 잡아낸것이 그뿐이였다. 엊그제까지도 여러 십명의 포로가 있었다.

왜군은 평양을 점령하자부터 대동강연안을 비롯하여 나다닐수 있는데서는 닥치는대로 우리 사람들을 랍치해들였다. 소서행장은 앞으로 즉 오는 봄에 감행하려는 작전을 위해서 될수록 많은 고마인을 잡아들이기 위주였다. 행군중의 군량과 짐을 나르는 인부로 쓰는것은 물론 저희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군사로 쓰려는 엉뚱한 생각까지도 하고있었다.

우리는 여러 기록에서 그것을 볼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지 못했다. 될리도 없는 일이지만 저희 본국에서 증원군을 받을 가망이 없었던 소서행장은 그런 렴치없는 생각까지도 했던것만은 사실이다. 랍치됐던 사람들은 혹은 병들어죽고 혹은 학살되기도 했다. 그러나 엊그제까지도 여러 십명 남아있던 그들이 한꺼번에 없어진것은 성내에 불이 난 때였다. 대동강물을 길어들이기 위해서 열어놓았던 대동문, 장경문으로 많이 달아나고 혹은 달아나다가 학살되고 또는 갇혀있던 집과 함께 타죽기도 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김순량의 권속들도 없었다. 김순량이가 돌아오지 않게 되자 일본군은 그들을 학살하고말았던것이다.

소서행장이 지금 고마인을 다 끌어내라고 한것은 사기저상된 자기 군졸들에게 한번 선혈의 향연을 베풀어주려던것이다. 즉 자기 군졸들에게 마음껏 잔학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려던것이다. 그들의 손을 고마인의 피로 물들게 함으로써 썩어가는 사기에 자극을 주려던것이다. 그뿐아니라 우선 저자신이 고마인에 대한 앙심을 참을수 없는 소서행장은 장차 저희 군졸로 보충해보려던 《원대》한 용의까지도 돌보지 않았다.

세례명으로 오규스탄이라고도 하는 소서행장은 서양선교사들한테서 들

은 네로의 로마대학살사건을 기억하고있었다. 그야말로 대규모적인 선혈의 향연이였다.

수천명을 학살하면서 네로는 즐기였다. 그러면서도 네로는 그들이 죽음앞에서 반항하지 않는것이 큰 불만이였다고 하지 않는가.

《황차!》

소서행장은 7～8명의 조선사람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한장면 즐기려던 학살극에서 살벌성, 잔학성을 더욱 효과적이게 할수 있는 그들의 반항을 기대할수 없기때문이였다. 그들은 이미 치명상을 입도록 반항한 나머지 더 반항할 기력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뿐아니라 제 부하장졸들까지도 많이 모이지 않았다. 그 역시 만사가 다 시들하다는 사기저상의 또 하나의 표시가 아닐수 없는것이였다.

소서행장은 처음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살을 그만두는것은 아니다. 그들을 멀리 끌어내다가 죽이라는 령을 내렸다. 그중에 끼여있던 저들의 앞잡이는 제외되였다. 전촌 장거리에서 김순량이와 같이 나타났다가 도망한자였다. 지금까지 고마인을 다 끌어내라는 경우에는 그자도 례외가 아닌 모양이다. 혹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지에 떨어뜨렸다가 특히 제외한다는 《특전》으로써 그자에게 한층 더 굴종을 요구하는 술책일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왜놈앞잡이 김삼근이는 의례 그럴것으로 알았다는듯이 그들속에서 빠져나왔다. 또 다음으로 제외된것은 한 늙수그레한 중이였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성내출입을 하도록 허용된 영명사 중으로서 이때 공교롭게 무슨 볼일이 있어 들어왔다가 붙들렸던 그는 제외한다는데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저편 성가퀴밑으로 물러섰다.

다음 또 하나 따로 끌어내세운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은 사람들이 창과 조총부리에 내몰려 사형장으로 떠나려 할 때 그들가운데로 뛰여들었다. 그것은 보패였다. 왜놈들은 처녀를 다시 끌어내려 했다.

《같이 가요. 저두 죽겠어요.》

이같이 웨치는 보패는 그 품안으로 뛰여들듯이 한 로인을 붙들었다.

《제발 저를 이놈들의 손에 남겨두지 마십소. 저두 여러 어른과 같이 죽겠어요.》

흐트러진 맨 상투바람의 머리와 성글고 긴 채수염이 백발이 다되게 센 그는 자기를 붙드는 처녀를 한팔로 끌어안았다. 로인은 한손이 없었다. 끊어진 팔목의 생생한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다.

《이놈들아, 네 보느냐?》

로인은 문득 고함을 질렀다. 목은 갈리였으나 찌르릉 울리는 소리였다. 처녀를 끌어안은 그는 손없는 팔을 들어 련광정란간안에 드높이 앉아있는 소서행장을 가리키며 우렁찬 소리로 꾸짖었다.

《너희 같은 왜구오랑캐들이 알랴마는 그래두 인두겁을 썼으니 조금이라도 사람다운 마음보나 눈이 있거든 이 갸륵한 처자를 보아라. 죽을지언정 욕되지 않으려는 우리 조선사람의 딸을 보란 말이다. 너희가 아무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 사람을 죽이고 갖은 포악한짓을 다 한다마는 우리 사람들의 기백을 꺾지는 못한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너희놈들의 종노릇은 안한다. 보느냐, 이놈들아! 이 극흉극악한 왜적들아!》

이렇게 웨치던 로인은 한팔로 끌어안은 처녀를 굽어보았다. (이때 소서행장은 김삼근이를 불러서 로인이 한 말을 묻는 모양이였다.)

《장해, 옳거던! 그래야지.》

로인이 이번에는 나직한 소리로 보패에게 말했다.

《그렇다구 이 늙은 내가 한창 살 청춘의 목숨을 애끼지 않아서 하는 말은 아니야. 뉘 댁 처자인지는 모르나 장하거던! 다 죽으나 다름없던 내가…》

이런 말을 하다가 목이 메는듯 말을 끊고 다시금 보패를 보는 로인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였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처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는듯이…

《이제 죽을 내가…》

로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죽을 림박에 규수같은 우리 사람을 보게 되니 여한이 없어…》

맑은 눈물방울이 길게 흘러내리는 채수염을 흔들며 그윽히 웃기조차 하던 로인이 문득 한마디 신음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울부짖는듯 한 소서행장의 소리가 나자 로인의 등뒤에 지켜섰던 군졸이 창질을 한것이였다.

소서행장은 금시 자기의 생각을 변경했다. 불과 5～6명, 반항할 기력조차 없으리라고 했던 조선사람들의 강강한 기백을 보게 된 소서행장은 이가 갈렸다. 자기 눈앞에서 그들을 살륙하라고 명령했다.

우리 사람들은 창검을 겨누며 다가서는 적들에게 육탄으로써 달려들었다. 그들은 죽으려 안했다. 혹은 한손만을 가지고도 적의 모가지를 끌어잡아 쓰러뜨리고 엎치고 뒤치면서 놈의 숨통을 물어뜯기도 했다. 손을 못

쓰는 사람은 몸을 솟구쳐 적의 면상을 받고 가슴팍을 내지르기도 했다. 그들은 종당 죽었다. 그러나 전률한것은 적이였다. 누구보다도 전률한것은 잔학성의 만족을 탐냈던 소서행장이였다. 그는 그들의 반항이 있기를 바랐다. 그것은 희학질해가며 죽이려는 잔인성의 요구였다. 그러나 희학질하기에는 너무나 억세고 장렬한 반항이였다. 5～6명의 조선사람은 육탄으로써 당당히 싸운 전사로서 죽었다. 련광정앞뜰은 극히 짧은 동안이나 격렬한 결전장을 이루었다. 피를 흘리는 저희 군졸들을 본 소서행장은 철선으로 란간을 치며 《무슨 꼬락서니냐?》고 울부짖었다.

군졸들에게 붙들려있던 보패는 련광정 란간아래로 끌려갔다. 소서행장이 뭐라고 지껄였다. 보패는 쳐다보려고 안했다. 군졸들이 보패의 얼굴을 받쳐들었다. 보패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또 몇놈이 달려들어서 보패를 붙들었다. 련광정으로 끌어올리려는것이다. 보패는 뿌리치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돌층계에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내려오는자가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있던 보패는 코앞에 서리발같이 랭랭한 찬김을 느꼈다. 그것은 실로 서리발같은 긴 검날이였다. 머리우에서 말소리가 났다. 알지 못할 말이다. 그러나 그 음성만은 들은적이 있는 소리다.

어제 저녁이였다.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였던 보패는 자기가 지금 어데 있는가조차 알수 없어서 누워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있을 때 방문밖에서 나는 알수 없는 그 말소리를 듣고 《아! 내가 종내…》 하는 생각에 까무라쳐서 다시 정신을 잃게 되였던 바로 그 음성이였다. 그 집은 기생 계월향이가 들어있는 집이였고 그 말소리의 주인은 소서행장의 부하장수인것을 계월향이한테서 들어 알았다.

왜장놈은 뭐라고 거퍼 지껄이면서 그의 눈앞에 들이댔던 검날등으로 처녀의 턱밑을 한번 길게 스치였다. 처녀를 죽음으로써 협박하던 왜장놈은 놀랜 소리를 질렀다.

보패가 치마폭을 감싸쥐고있던 손으로 놈의 검날을 붙들었다. 제손으로 잡은 칼끝에 자기 몸을 맞대려 했다. 그러나 순간 놈의 손에 팔목의 급소를 눌리운 보패는 검날을 놓쳤다. 피가 철철 흐르는 손가락으로 보패는 땅바닥에 글자를 썼다.

《가살불가욕》 깊이 패운 획마다 피가 고인 큼직큼직한 다섯자였다. 《죽일수는 있으되 욕되게는 못하리라.》는 뜻이다.

란간너머로 처녀의 움직이는 손가락을 내려다보던자들중에 땅바닥에 뚜

렷뚜렷이 나타나는 글자들이 바로 보이도록 몸을 틀고앉았던 왜승 현소가 먼저 신음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지껄였다. 소서행장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날카로운 얼굴에는 경련이 일었다. 쉬파리가 꾀이게 농이 흐르다가 지금은 검붉은 딱지가 앉은 그 귀뿌리까지 빨개지도록 격앙한 소서행장은 발을 구르며 지껄였다.

이때 뜻밖의 일이 또 하나 생겼다. 련광정앞 성가퀴우로 검은 그림자 같은것이 하나 걸핏 넘어가고 다음순간에는 철썩, 퉁겨지는 물소리가 났다. 아까 희생자들중에서 제외되였던 늙수그레한 중이 대동강에 몸을 던졌다. 련광정에서 내려다보이는 대동강에는 몇가닥 둥글게 번져가는 파문이 보일뿐 중은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죽은 중이 영명사의 로전승이였다고도 하고 혹은 편석대사였다고도 하나 자세치 않다. 불가의 기록들에 의하면 임진란후에도 편석대사는 살아있은것으로 되여있으므로 더욱 자세치 않다. 어쨌든 그 중은 차마 더 살아있을수 없었던것만은 사실이다. 죽이지 않는다고 할 때 적앞에 합장하고 머리를 숙이고 물러섰던 그는 다음다음으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우리 사람들의 높은 기백과 장렬한 죽음을 보고 자기를 느꼈던것이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였을 때 동래성의 남문을 지켜싸우던 동래부사 송상현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자기의 직책과 사명을 상징하는 인궤를 들었던 바른팔이 끊기우자 왼손으로, 왼손마저 끊기자 입으로, 마침내 목이 떨어져서도 인궤를 물고있었던것이다. 이같은 조선사람 송상현은 그 한사람만이 아니였다. 지금 련광정앞뜰에서 전사한 사람들도 다 그러한 조선사람이였다.

이 진정한 조선사람들과는 감히 한하늘을 이고 살 렴치가 없는자는 스스로 물속으로 몸을 던질밖에 없었던것이다.

이때 련광정에서 문득 껄껄대는 너털웃음소리가 났다. 소서행장이였다. 한손에 긴칼을 들고 섰던 그는 온몸을 들까불면서 소위 앙천대소식의 웃음을 웃었다. 사라져가는 대동강의 파문을 바라보며 웃는 그 너털웃음은 자기가 보이려던 위풍도, 자기가 베풀려는 은덕도 모두가 다 보잘것없는것이였다는 기막힌 너털웃음이였던것이다.

이때 영명사에 나갔던 계월향이가 련광정으로 달려왔다.

57. 보패와 계월향

여기서 잠시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어 전의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보통벌로 내몰았던 군사를 다시 거두게 된 왜군장수들은 성문에서 홰불을 잡고 들어오는 군사들을 점검했다. 어둠을 타서 고마인들이 끼여들어올 념려가 없지 않기때문이였다.

홰불에 한 고마인이 드러났다. 두세명 군졸들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공중 쳐들고 오는 한 녀자였다. 불빛에 우선 그 흰옷이 눈에 띄였고 그래서 홰불을 가까이 비쳐보던 장수들은 놀랬다. 그것은 무척 아름다운 처녀였다. 기절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 얼굴은 그림같이 아름다왔다. 우두머리장수 한자가 칼로써 군졸들을 위협하고 처녀를 빼앗았다.

그자는 제 종졸을 시켜서 처녀를 자기 처소로 날라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 집은 이미 불속에 들어있었다. 종졸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주저주저하고있을 때 벌써 어데서 소문을 들었는지 소서행장의 부하장수란 놈이 말을 몰아 달려왔다. 충천한 화광에 비친것은 과연 아름다운 처녀였다. 소서행장에게 바치면 생색이 나리라고 생각한 그는 처녀를 빼앗아가지고 계월향의 집으로 말을 몰았다.

보패는 혼수상태였다. 우악스러운 손이 입과 코를 막아서 가슴이 터지게 답답한 고통을 의식하며 몸을 뒤틀다가 간신히 벗어난듯 숨이 통해서 또 《오라버니―》를 웨쳐부르는 제 소리에 피뜩 정신이 들었다.

《오라버니― 어데 계셔요?》

지금도 제가 캄캄한 보통벌 한가운데를 달려가면서 웨치고 또 웨치는 모양이건만 역시 대답은 없다. 오라버니의 대답은커녕 웨치는 제 소리까지도 극히 먼데서 나는것 같이 아련할뿐이였다.

어두운데서 벼단을 나르며 베여나가는 논판을 따라나갔을뿐 거기가 어데쯤인지도 짐작이 없었다. 문득 큰 북소리가 둥둥 나길래 돌아본즉 잡약산마루에는 이미 봉화가 올랐다. 또 저편에서는 벼락을 치는듯 한 조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졌다. 한밤중 보통벌은 금시 발칵 뒤집혔다. 곳곳에서 함성이 일었다. 달려오고 달려가는 발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엇갈

려 내닫는 사람들의 희뜩희뜩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서로 찾고 부르는 소연한 소리중에 이런 고함소리가 들렸다.

《고충경이는 어데 있소?》

《총에 상한 모양이요.》

《뭐? 상했으면 꺼들구 왔어야 할것 아닌가.》

칠성문쪽에서 달려오는 한패거리사람들의 말이였다. 보패는 그들을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잡약산쪽으로 가던 보패는 발길을 돌렸다. 지금 그들이 달려온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몇번 《오라버니-》를 웨쳐불렀다. 문득 소리를 질러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상한 우리 오라버니를 그냥 두고 오다니!》하는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드런분이기에…》, 《어드런 우리 오라버니기에…》 어떻게 해서든 상한 오라버니를 내가 찾으리라고 했다. 그러나 어데로 가야 하나?

또 몇번 《오라버니!》를 웨쳐부르지 않을수 없었다. 어데를 얼마나 달려왔을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꿰뚫어볼수 없는 어둠속 저편에서는 여전히 소란한 발걸음소리가 나면서도 여기는 아무도 없는것 같았다. 또 몇번 《오라버니-》를 불렀을 때였다. 바로 앞의 논뚝에서 불쑥 나타난 시꺼먼 그림자가 달려들었다. 우악스러운 팔뚝이 목에 감기고 우악스러운 손이 입과 코를 막았다. 보패는 죽기로 한사코 악을 썼다. 몸부림쳤다. 그러나 또 다른 억센 손이 제 팔다리를 거머쥐였다. 숨이 막혔다.

《아- 내가 왜적들의 손에… 이 더러운 오랑캐들… 불칙한 살인귀들…》

이러한 전률감중에 제 의식이 몽롱해지는것을 느끼는 보패는 문득 어데선가 쟁쟁 울리는 쇠북소리를 들었고 그러자 또 온 보통벌을 뒤흔드는듯 한 우리 사람들의 함성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말았던것이다.

정신을 가다듬어 둘러본즉 자기는 지금 어느 조그마한 방안에 누워있는것이였다. 요가 깔리고 이불이 덮였다. 이불밑으로 더듬어보는 손에 온기가 있는 장판이 만져진다. 《어델가?》, 《내가 지금 어데 있나?》 머리말 문창에는 황혼인듯 누런 해빛이 어리여있다. 그리고 그 문밖에서는 알지 못할 말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분명히 어둠속에서 자기를 붙든 왜적들이 지껄이던 말소리다. 《아! 내가 종시…》 다시 엄습하는 전률감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보패는 또 까무라쳤다. 얼마나 지났을가? 베개머리에서 나는 인기척에 소스라쳐 깨난 보패는 벌떡 일어났다.
《놀래지 말아요. 그냥 누워있어요.》
우리 사람의 말, 분명히 젊은 녀인의 말소리다. 그와 함께 정신이 쇄락하게 자극적인 맑은 향기가 풍긴다.
《어서 누우세요. 일어나면 아직 머리가 휘둘릴거예요.》
랑랑한 말소리다. 시선을 가다듬어 마주보는 보패의 눈앞에는 한 녀인이 있었다. 젊은 녀인이… 더욱 정신을 차려서 본즉 계월향이였다.
독자들은 지난 5월 열이튿날, 동대원에서 싸움이 있은 그날 새벽에 서산대사와 같이 애련당 련못가를 지나가던 길에 보패가 계월향이를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것이다. 지금 보패도 그때 일을 회상했다.
《역시 기생이였구나.》 한것은 그 다음의 생각이였고 먼저 황홀할만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았던 계월향이가 바로 제앞에 앉아있다. (내가 지금 어데 있는가.) 불안에 싸여있는만치 우리 사람, 같은 녀인을 만난것이 우선 반가왔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려염집처자의 몸으로는 자리를 같이할 사람이 아닌 기생과 마주앉은것이 괴롭고 난처하기도 했다.
《이제야 정신이 드시나부군요.》
계월향이 한숨을 지으며 하는 말이였다.
《여기가 어데예요?》
보패가 물었다.
《애련당근처요. 저 언젠가 서산로장하구 같이 가시는걸 본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그 근처요.》
그러면서 다시금 처녀를 바라보던 계월향이가 물었다.
《본시 댁은 어데시던데? 성안에 사셨나요?》
《함구문밖 외성 살았어요.》
《어르신네 성함이 뉘신가요?… 댁에선 뭘 하셨던가요?》
《농사요.》
자기 오라버니의 이름을 밝히고싶지 않은 보패는 이렇게만 대답했다.
《농사요?》
다시금 처녀를 훑어보며 부모가 누구냐고 또 물었던 계월향은 《말씀해두 모르실게요. 그저 촌에 묻혀사신걸요.》 하는 대답에 역시 (제 눈빛같이 몹시 깔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흐르는듯 깨끗하면서도

추수같이 하도 맑은 안청이라 그렇게 보자면 얼마든지 깔끔하고 매섭게도 볼수 있는 눈이였다.

처음 보았을 때도 무심히 볼수 없었던 처녀다. 일종의 적의를 가지고 보던 생각이 났다. 계월향이는 그때 제가 무안을 당한셈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 처녀가 너무 고왔던탓이라고 하는것이 더 옳을것이였다. 처음에는 아닌게 아니라 《어데 촌계집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시금 훑어보지 않을수 없었다. 서산로장이 어떻게 저런 처녀와 동행이 되였을가 하기도 했던것이다.

이날 새벽에 다 죽으나 다름없이 진흙투성이가 된채 들려왔을 때도 그는 말바로 진토에 묻힌 옥으로 뵈였다. 계월향은 저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처녀의 깨끗한 아름다움에 비할바 아니였었다. 다시금 쳐다보는 처녀의 운명을 생각할 때 금시 제 가슴이 미여지는듯도 했다.

이때 담밖에서 떠들어대는 왜놈의 말소리가 들린다.

《여기가 바루 왜적들의 소굴중에도 그 한가운데요.》

껴안아주기라도 해야 할만치 또 소스라치게 놀래는 처녀를 본 계월향은 한숨을 지으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아실테지만 성안치구두 이 애련당골이 큰집들이 많은데니만치 지금 두두룩한 왜적들은 다 이 근처에 모였소. 저앞의 련광정에는 왜장 소서행장이 있구 이 집에는 그놈의 부하장수가 있소.》

잠시 말을 끊었던 기생은 보패를 마주보던 눈을 내리깔고 떨리는 음성으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계월향은 세운 한쪽무릎을 깍지껴안았던 손을 내려서 장판의 티끌을 문지르기라도 하듯이 오무작거리던 손가락끝에 두세방울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보패는 몸서리쳤다. 지금 제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것이 똑똑히 밝혀졌다.

천야만야한 구렁텅이속으로 떨어져내려가는듯 아득했다. 그러나 《한가지 결심만 하면 그만이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써 마음을 다시 가눌수 있는 보패는 태연히 눈을 들어 기생을 보았다. 눈물에 젖어있는 기생의 얼굴을 보았다. 기생이라고만 보아온 계월향이 의외로 맑고 정숙한 녀인으로 보이기조차 했다. 눈물을 씻고있던 계월향이가 문득 얼굴을 들며 《가만!》 하고 귀를 기울인다. 담밖에서 웅성거리던 왜놈의 말소리가 뚝 그쳤다.

《누우세요. 어서 이불을 푹 쓰구 누워있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꼼짝하지 말구 가만히만 있어요.》

다급한 소리로 말한 계월향은 웃간문으로 나갔다. 종종걸음을 하는 신발소리… 다음에는 밀어붙이고 밀어닫는 맞은켠 방의 쌍창소리가 나고는 조용해졌다.

담밖의 행길에서 저벅거리는 신발소리가 가까와오더니 절싹 열어젖히는 대문소리와 함께 벽제소리같기도 하고 《듭신다.》고 먼저 알리는 소리를 놓는것 같기도 한 고함소리가 뜰안에서 났다. 계월향이가 쌍창을 닫고 들어앉은 안방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잠잠하다. (계월향이 역시 떨고있는가?) 이런 생각에 뒤쓴 이불속에서 한줌만해있던 보패는 더욱 와들와들 떨렸다. 쿵ㅡ 맞은켠 방퇴마루로 올라서는 모양인 발소리가 나고 뭐라고 지껄이는 걸걸한 음성이 들린다. 그 말끝마다 《헤.》, 《헤.》 하는것은 필시 졸개들의 대답인 모양이다.

마침내 철떡철떡 신짝을 끌며 나가는 졸개들의 발소리가 대문밖으로 사라지자 이번에는 조용하던 그 안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알지 못할 말로 지껄이면서 선웃음을 치는 사내의 음성과 또 분명히 난처해서 한마디씩 떠듬듯 하는 기생의 말소리다.

《아직두 정신이 없어요. 이걸 어떻거나…》

마침내 이러한 기생의 말이 뜰안에서 났다. 보패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다. 그리고는 한번 랑랑히 웃는 계월향의 웃음소리! 왜장을 달래보려는 웃음이 분명했다. 《어떻거나?》 보패는 또 기색(심한 정신적작용으로 숨이 일시 막히는것)할것 같았다.

문이 열린다. 벽을 향하여 돌아누운 등뒤에 끼쳐오는 찬바람과 함께 시꺼먼 그림자가 들어서는것이 보이는듯 했다. 이불이 홱 벗겨졌다. 그린듯이 눈을 감고있는 얼굴 한쪽뺨에 무슨 벌레가 기는듯 한 놈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

놀래는 계월향의 외마디소리와 함께 긴 뱀이 숲속을 기는듯 한 소리가 나고 다음에는 한덩어리 얼음을 올려놓는것 같이 뺨이 선뜩했다. 서리발같은 검날의 감촉이였다.

처녀의 뺨에 댔던 검날에 서리운 김을 보고 또 그것을 제 손바닥에 대서 온기를 만져보듯 하는 왜놈은 아무리 저를 속이려고 해도 속을줄 아

느냐는듯이 너털웃음을 쳤다. 보패의 이불을 다시 덮어준 계월향은 그를 끌다싶이 해서 밖으로 나갔다.

조금후에 놈이 집을 나가자 계월향이가 들어왔다. 보패는 일어나 앉았다. 둘이는 마주볼뿐 말이 없었다. 무서운 파멸에 대해서 차마 말할수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맥맥히 앉았을 때 창문밖에서 《얘야, 게 있니?》 하는 나직하면서도 숨이 찬듯 떨리는 음성이 들린다.

《어머니예요?》

계월향이는 《이 또 무슨 일인가?》 놀라는 눈치였다.

《그래, 나다. 좀 보자.》

계월향이가 나갔다. 안뜰에서 소곤소곤하는 모녀의 말소리에 보패는 귀를 기울였으나 알아들을수는 없었다.

《그럼 나가계셔요.》

어머니를 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계월향의 얼굴은 금시 해쓱이 여윈듯했다. 극도의 흥분이 뵈였다.

《무슨 소식이 있을래나봐요.》

그의 말소리는 떨렸다.

《소식이라뇨?》

놀라는 보패앞에 계월향은 꾸겨쥐였던 조그마한 종이쪽지를 내놓았다.

《아버지의 대상 시식을 지낼 의논이 있으니 금명간으로 곧 영명사로 나올수 없겠느냐. 형.》

이런 뜻의 한문으로 적은 한줄의 글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것일가 하는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는 보패에게 계월향이 말했다.

《이것을 김응서나으리가 보내더랍니다.》

지금 계월향의 어머니는 자기 딸과 같이 있지 못하고 골목 맞은편 집의 행랑채 한방을 얻어있는데 좀전에 웬 늙은 중 하나가 문앞에서 저빗거리길래 수상해서 나가본즉 전부터 잘 아는 영명사의 중이였다. 짚고있던 대지팽이손잡이끝에서 달달 말은 종이쪽지를 꺼내주면서 《김응서나으리가 보내는거요.》 하는 한마디를 이르고는 돌아갔다는것이다.

《그러구보니 그 나으리 필적이 틀리지 않아요. 이 <대상 시식>이란것은 아마 혹시 왜적들에게 들키기나 해두 말맥이가 되게 하자는것일거예

요. 우리 아버지대상은 나두 모르는 옛날이니까요. 또 나는 무이밀같은 사람이 돼서 오라버니나 형이랄 사람두 없구요.》

여기서 잠시 말을 끊은 기생은 그동안에 흥분이 좀 덜리기도 했으려니와 또 그보다도 이제는 창피한 말까지도 하게 됐다는듯이 그 한쪽보조개만이 좀더 깊어지는 적적한 미소를 띠우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구 이전에 몇번 모신적이 있어서 잘 안다구는 하나 이런 때 그 나으리가 무슨 놀량으로 나 같은 계집을 만나자구 하실리두 없구요. 그렇잖아요? 그러구보면 이건 필시 애기씨때문이지 딴게 있겠어요?》

《…》

《아마 댁의 어르신네를 이 나으리가 잘 아시는게지요?》

계월향의 눈은 (일이 이쯤됐는데두 네 그냥 지처를 안 밝힐테냐.) 하는듯도 했다. 그의 말을 듣고보면 보패도 그렇게 생각되였다. 오라버니가 김첨사를 아는것을 자기도 안다. 이번 추수에 김응서가 군사 천여명을 보냈다는것도 논판에서 들은 말이다. 일루의 희망이 보이는듯도 했다. 자기를 구하려는 손이 움직이고있다는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제 계월향이 어떻게 하려는가? 와락 기생한테 매달리고싶기도 했다. 시각이 바쁘게 곧 영명사로 나가서 김첨사를 만나달라고 애원하고도싶었다. 아까의 그 몇방울 맑은 눈물! 그것으로써 비록 아릿다우나 한날 천한 《기생!》 하고만 보아온 계월향이 맑고 정숙한 녀인으로까지 뵈였던것이다. 그러나 좀전에 랑랑한 웃음으로 왜장을 달래려고 하던 그 천한 기생의 태… 이제 내가 애원하고 그래서 계월향이 영명사로 나갈 결심을 한다 하자. 그렇더라도 제 맘대로 성밖출입을 못할것만은 정한 일, 계월향이는 그 허락을 얻기 위해서 왜장에게 또 그런 작태를 해야 할것이 아닌가?

《이 나때문에!》 보패는 몸서리가 쳐졌다. 《그렇게 해서 산다면 이 몸마저 깨끗하다고 할것인가?》 하는 보패는 계월향에게 그런 애원이나 부탁을 할 마음은 꼬물도 없었다.

《밖의 어른들의 일은 저는 모릅니다.》

보패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런 대답을 했을뿐이다. 오라버니 고충경의 이름을 대면 계월향이가 모르지 않을것이다. 오라버니가 기생방출입을 하는 활량패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평양성시가 크다 해도 남문거리 어느 상전방주인이라면 짐작이 가고 더우기 오라버니 장사는 한산 세모시, 함경도 바리포, 단천 은노리개 같은 사치로운것들이였으므로 이런 종류의 사

람들이 모를리가 없다. 게다가 또 지난여름에 대동강싸움에 나섰던 고충경의 이름을 평양사람치고 모르는이가 없다. 그러한 오라버니의 이름을 대지 않은것은 아까는 자기의 본색과 또 잡약산마을의 일을 숨기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고충경의 이름을 대는것만으로도 계월향에게 어서 영명사로 나가달라는 부탁이 될는지도 모르기때문이였다. 계월향이로 하여금 그 수단을 쓰게 해서… 못할 일… 려염처자로서는 깨끗치 못한 일…

《이 기회에 나두 애기씨의 덕을 보게 될는지 모르겠소.》

역시 생각에 잠겨서 한동안 맥맥히 앉았던 계월향이 고개를 들며 이런 말을 했다. 어떤 결연한 생각에 굳어진듯 했던 얼굴에는 금시 따뜻한 미소가 비끼였다.

《하늘이 무너져두 솟아날 구멍은 있다구. 좌우간 밖에서 이렇게 손을 쓰려는 기맥이 보이는데 가만있겠어요.》

《영명사로 나갈수는 있을가요?》

《나가도록 해야지요. 수단껏 해봐야지요. 여기서 빠져나갈수만 있다면야 이 처지에 안 해볼 일이 있어요? 칼 물구 뛰염뛰기라두 해야지요.》

말을 끊고 한숨을 지은 계월향은 《래일중으로 김첨사를 한번 만나두룩은 할테니 안심해계세요.》 하고 자기 방으로 갔다.

이날 저녁에 소서행장의 부하장수의 명령으로 그의 졸개 몇이가 쌀과 상목을 지고 영명사로 나갔다. 중들에게 보내는 계월향이의 편지도 가지고 갔다. 래일 대상 시식에 쓸것을 보낸다는것과 혹시 촌에 사는 자기 오라버니가 올는지도 모르니 오면 제가 래일 아침에 영명사로 나간다는것을 알리라는 사연이였다. 계월향이는 그 편지를 왜장수앞에서 썼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계월향이가 하는 일이 영명사에서 먼저 어떤 연통이 있어서 하는 일이라는것은 몰랐다. 그래서 래일 영명사로 나갈 허락을 얻은것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걱정은 어떻게 하면 래일까지만이라도 처녀를 그냥 집에 있도록 할가 하는것이였다. 그놈은 벌써부터 련광정으로 데려간다고 별렀다. 지금은 계월향에게 영명사로 나가는것을 허락한 교환조건이나 같이 서둘렀다. 련광정쪽을 가리키며 연방 《고니시 고젠》(소서행장각하라는 뜻)이 어쩌니 하고 지껄이던 놈은 벌떡 일어나서 의롱을 열고 옷을 다 쏟아놓고는 제 소견에 호화롭고 색스럽다고 생각되는것을 골라주면서 처녀에게 갈아입히라고 했다. 이때도 그의 손에는 긴칼이 들려있었다. 방안에서도 자리를 일기만 하면 반드시 칼을 쥐고야 일어서는것

이 그들의 풍속이였다. 벌써 몇달째나 보아온 그자들의 버릇이라 새삼스럽게 놀랄것도 무서울것도 없지만 역시 불안했다. 서두르는품이 이만저만해서는 만류할것 같지 않았다.

계월향은 말조차 나가지 않았다. 막막한 그는 쏟아놓은 옷중에서 흰 저고리를 골라냈다. 다음에는 딴 의롱을 열고 베치마를 꺼내고 그리고 앉은책상밑에서 백지를 한장 꺼냈다. 흰 댕기를 접었다. 그리고는 병풍뒤로 들어가서 색스러운 회장저고리와 물색치마를 벗고 소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나와서는 조그마한 쇠거울을 받쳐놓은 경대앞에 앉아서 머리태를 내려 색댕기를 풀었다. 다시 얹은머리의 흰 댕기와 소복을 한 제 모양을 거울속으로 보던 계월향은 불현듯 눈물이 솟았다. 지금 입은 소복은 동무 기생집에 초상이 나거나 제사가 있을 때 입고 가던것이다. 그런 때의 소복은 동무에 대한 정과 인사성의 표시였다. 그리고 또 그런 기회에 딴 모양으로 단장해보는 하나의 변덕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잡도리로 꾸민 소복이지만 계월향은 그 어느때보다도 창연해지는것을 느꼈다. 앉은책상을 당겨놓은 계월향은 《저 처녀는 이 나 같은 창기가 아니다.》고 썼다. 그 글을 뜯어읽고나서 또 계월향이를 본 왜놈은 놀랐다. 기생의 눈에 뜻밖의 눈물이 빛났기때문이였다.

《나 같은 창기가 이래라저래라할수도 없고 설혹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낱 창기의 말을 들을리가 없는 규수다.》고 계월향은 또 썼다. 픽 랭소한 그놈은 불쑥 내민 제 칼자루를 한두번 두들겨뵈였다. 이런 칼날앞에서도 제가 굴하지 않을가 하는 뜻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 억지로 끌어내도 소용이 없으니 좀더 두고보리라는셈인지 다시 주저앉으며 《처녀가 참말 앓는가?》 했다.

이튿날 이른아침에 계월향이는 어머니와 함께 영명사로 나갔다. 집을 나서기 전에 보패를 보았다. 자기는 곧 다녀오리라는것, 그동안에 설혹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진득이 참으라고 일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었다. 보패는 제 이름을 알으켜주었다.

58. 김응서와 계월향

암문으로 나가는 계월향모녀의 뒤에는 왜장수의 졸개 4～5명이 따랐다.

계월향은 영명사문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김응서첨사가 나타나면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꾸며야 할가 하는 생각에 뒤따라오는 졸개들을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수 없었다. 놈들이 보는데서는 물론 같이 시식을 지내러 온 오라버니로 대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천연스럽게 될가 하는것이 걱정이였다.

산문안에 들어서자 전부터 낯을 아는 늙은 중 몇이가 나와서 합장하고 굽신거릴뿐 속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시식을 지낼 차비가 다 갖추어있는 법당안에도 역시 그랬다. 어느 중에게 물어본다는것도 서투른 일이다. 그저 어머니와 함께 들어갔다. 모든 차비가 다 훌륭히 갖추어진 품이 제 글발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될수 없는 일이다. 어데선가 뉘 손이 뻗쳐있다는것을 곧 알수 있었다. 재가 시작되였다. 로전승이 달랐다. 역시 늙기는 했으나 본시의 그 먹석이같이 비둔한 로전승보다는 퍽 정정한 사람이였다.

따라온 졸개들은 법당문밖에 서서 들여다보고있었다. 더 지켜보아도 별것이 없고 또 그만하면 구경도 더 할것이 없을만 한 때 소반에 고기와 술을 받쳐든 한 중이 그자들을 문간방으로 청했다. 일본군졸들은 우선 그 풍부한 술, 고기에 눈이 휘둥그래졌고 다음에는 입안의 침을 삼키면서 어떻게 할것인가 서로 의논하는 눈으로 마주보았다. 그중의 한자가 나서서 중에게 손짓으로 《만일 계월향이네 모녀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 절의 중들을 다 죽여도 좋으냐?》 하는 뜻을 물었다. 중은 쾌히 《그러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일본군졸들은 게걸스러운 주연을 시작했다.

법당문이 닫혔다. 그러자 불상뒤에 드리워있던 색채진한 비단장막이 들리며 탕건에 백립을 받쳐쓰고 흰 수목두루마기를 입은 름름한 남자 하나가 나섰다. 김응서였다. 비록 상주의 복색이나 역시 무장답게 영채가 도는 김응서의 눈과 마주친 계월향은 일변 놀라우면서도 반가왔다. 로전승이 목청을 돋구어가며 외우는 진언과 두드리는 목탁소리중에 두사람의

말은 시작되였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된 인사말은 제하고 《어제 밤 보통벌접전때에 우리 사람 몇이가 성내로 붙들려간 모양인데 자네가 혹시 그걸 모르나?》 하고 김응서는 우선 이렇게 물었다. 계월향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패라는 처녀 하나가 자기 집에 붙들려와있다고 했다.

《그 처자가 바루 자네네 집에 있단 말인가?》

김응서의 눈은 한번 번쩍이였다.

《그 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루 고충경이의 누이동생일세. 자네두 고충경이는 알겠지.》

《그렇든가요?》

계월향이도 놀랐다.

《자네한테는 그런 말을 안하든가?… 하기는 려염집규수로서는 그렇기두 했을거네.》

고개를 끄덕이며 준수한 코밑의 팔자로 뻗친 검은 수염을 더욱 갈라붙이듯이 손질을 하는 김응서는 또 물었다.

《그밖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나? 어제말고도 성안에는 붙들려있는 우리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데…》

《모르겠는걸요. 장경문근처 어느 집에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혼란통에 누가 어떻게 되였는지는… 저는 대문밖의 일은 통 모르고 사니까요.》

《그럴걸세. 우리는 자네가 왜적에게 잡혀있다는것을 고생원한테서 듣구 알았네. 고생원이 애련당 김감역의 아들 김순량이란자를 어느 장에선가 만나서 자네 말을 들었다네.》

《참, 그 김순량이는 어떻게 된지 모르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할수 없고…》

그러던 김응서는 고쳐 생각한듯이 《뭐, 자네한테 숨기잘것두 없겠지. 그자는 고생원의 살에 죽었네.》 하며 계월향의 얼굴빛을 살폈다.

《그랬는가요? 참, 그자가…》

계월향은 촉박한 지금이라 당장 지난 일을 다 말하지는 못하나 김순량에 대해서는 실로 절치부심하는바가 있었다. 김순량이는 한동네서 살아서 잘 아는 처지였다. 사람으로 믿었던만치 그자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신수불길해서 일본군에 붙들려 이 성안으로 끌려들어와있을망정 기회만 있으

면 여기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있으리라 믿었던것이다. 그래서 간혹 만나게 되는 때마다 은근히 그런 의사를 비치여보기도 했었다. 처음 몇번 숭늉대답으로나마 그래보자고 하더니 그후에는 그런 말을 듣기만도 겁이 나고 따라서 귀찮아졌던지 계월향이를 만나는것까지도 꺼리는 눈치였다. 어찌다가 만나게 되는 때 계월향이가 성밖의 우리 사람들의 정형을 물으면 그자는 손부터 내저으며 《철없는 소리, 지금 우리 사람이 다 뭔가. 없네, 없어.》 할뿐이였다.

희망을 붙이고 묻는 자기에게 그자는 오히려 절망을 주려는 심술이 뻔한 수작만을 했다. 자기의 처자까지 이 성내로 끌어들이게 되는것을 안 후부터는 계월향은 그자를 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계월향이가 한순간 이런 회상에 잠겼을 때였다.

《내 자네를 믿어두 좋은가?》

이러한 김응서의 말이 귀전을 울렸다. 계월향은 금시 뼈가 저려오는것을 느꼈다. 야속했다. 그러나 (김응서로서는 당연한 말이다. 또 나는 그런 말을 들어 싼 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계월향은 눈물이 맺힌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깨물었을뿐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이 나는 할 말이 없으리라!

김응서가 말을 이었다.

《미상불 이번 길이 어려웠을텐데 이렇게 나와준것만으로도 나는 믿네마는…》

《나으리!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지금 그런 말씀을 저는 백번 들어두 싼 년이올시다. 이 더러운 목숨을 벌써 끊지 못한것이 저는 한입니다. 이렇게 나으리앞에 서기조차…》

《알겠네.》

김응서는 치마끈을 눈에 대고 흐느끼는 계월향의 등을 잠시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우리 다같이 이 땅의 혜택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박절한 말을 한 내가 도리여 면구헐세. 용서허게.》

그의 음성도 약간 떨렸다.

《피차 믿구서 물어볼것도 있고 또 긴한 부탁도 있네.》

김응서는 팔자로 뻗친 수염속에 금시 빙그레한 웃음을 띠우며 다시 말을 시작했다. 일변 밖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여가며 한층 더 소란스럽게

목탁을 두드리고 요령을 흔들고 진언을 외우는 소음중에서 두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보패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대강 들은 김응서는 곧 말끝을 돌려서 현재 성내에 있는 왜군의 정형을 깐깐히 묻기 시작했다. 일왈 적의 수효가 얼마나 되며 소서행장의 다음가는 적장들은 어떤자들이며 또 그놈들이 거처하는데가 어데며 또 전날 밤에 우리가 닭과 비둘기들로 일으킨 화재가 어디까지 범했는가 그리고 적의 군량은 아직도 얼마나 남아있는가 등등을 알려고 했다. 그러나 계월향은 그런 물음에 만족한 대답을 줄수가 없었다. 바로 어제 밤에 있은 화재까지도 오늘 이리로 나오면서야 그것이 어디까지 범한것을 알았을뿐이다. 하나의 잡힌 몸으로 좁은 뜰안에 갇혀만 있었던것이다. 오직 자기가 알고있는 왜장을 찾아다니는 몇몇 적장들의 이름과 그 생김생김을 말할수 있을뿐이였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자네랑 이 적중에서 빠져나오는것이 급선무일세.》

이야기가 대강 끝났을 때 김응서는 두루마기자락을 들치고 은장식한 대모(바다거부기인데 그 등껍데기는 귀중한 장식품을 만드는데 쓰인다.)장도 하나를 꺼냈다. 그의 겉옷밑에는 쇠사슬로 결은 내갑(속갑옷)과 허리띠에 지른 자그마한 환도가 뵈였다.

《이 장도는 고충경이가 자기 누이에게 전해달라는것이네. 그러나 막부득한 경우고 애여 경홀한 일이 없도록 자네가 보살펴줘야겠네.》

이들의 이야기가 끝나는것으로써 재도, 시식도 끝났다. 계월향에게 한가지 남은 일은 자기 어머니를 여기 남겨두고 가는 일이였다. 즉 여기 남아있다가 종적을 감추도록 하려는것이였다.

계월향의 늙은 어머니는 딸이 김응서가 보냈다는 쪽지를 받고 이 거짓제사를 꾸밀 때부터 일이 심상치 않은것을 짐작했다. 하늘같이 믿고 살아오는 딸이 하는 일이라 캐물으려고는 안했다. 딸 월향이가 하는 일이면, 더우기 딸에게 리로울 일이라면 무엇이든 못하랴 하는 로파는 벌써 한 옛적이라고도 할만치 오래전에 죽은 남편의 제사를 차리고 꾸미는것쯤 어려울것이 없었다. 로파는 울기까지도 했다. 청상과부로 하나 기른 딸자식을 기생에 넣어 세상사람들에게 《기생에미》라는 뒤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설음이 새롭기도 했다. 또 그보다도 무서운 불길한 예감이 앞섰다. 묻지 않아도 월향이는 지금 왜적의 손에서 빠져나갈 계책을 꾸

미는것이다. 그것은 위태위태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렇더라도 못한다고 할수는 없는 일이다.

놈들에게 잡혀서 다시 평양으로 들어왔을 때 식음을 전페하고 죽으려는 월향이를 붙들고 《제발 죽지만은 말아다고, 죽지 말고 살아서 후날을 기다려보자.》고 울며 애원한것은 이 에미였다. 기다려보자던 그 후날이 지금 왔는데 위태하다고 어찌 막으랴 하는 계월향의 어머니는 딸과 김첨사가 하는 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오직 눈물어린 눈으로 부처를 쳐다보며 두손을 모아 딸의 소원성취만을 빌뿐이였다.

계월향은 어머니에게 왜장수의 졸개들에게 말해서 어머니는 제사 뒤치닥거리를 한다는 구실로 여기 잠시 남아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럴수는 있을게다. 하나 만약에 내가 없어진것을 알게 되면 네 일은 틀릴게다.》

어머니는 앞장서나서며 또 말했다.

《내 무슨 일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때문에 조금이라두 네 일이 틀린다면 내가 사는것이 죄다.》

계월향이가 돌아왔을 때는 보패가 집에 없었다. 빈집에는 왜졸 몇놈이 퇴마루에 걸터앉아서 담배질을 하고있었다. 계월향이가 들어오는것을 보자 졸개들은 곰방대를 뒤로 돌리고 정갱이를 가두고 꿇어앉아 꾸벅거렸다. 저의 대장의 낯을 보아서 하노라는 인사성이였다.

계월향은 그것들에게서 보패가 좀전에 련광정으로 끌려갔다는것을 알았다. 왜장수가 많은 군졸들을 보내서 붙들어갔다는것이다.

계월향은 곧 련광정으로 달려갔다.

59. 《오늘일은 틀리는가!》

련광정으로 달려간 계월향은 필담으로써 처녀의 손을 치료할 동안만이라도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간청해서 보패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영명사에서 김응서를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한 끝에 고충경이가 보낸 장도를 내놓았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했다. 장도를 본 보패는 오라버니를 만난듯 반가왔다. 이때까지 악에 받쳐서 열기가 올랐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도를 품속에 간수했다. 앞으로는 어떤 변이 닥쳐오더라도 겁날것이 없었다. 죽더라도 깨끗이 죽을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진정되였다.

보패는 계월향이가 묻는대로 오늘 당한 일을 대강 이야기했다. 보패의 이야기를 듣고 앉았던 계월향은 갑자기 제 얼굴이 까맣게 질리는것을 느꼈다. 몸이 떨리기도 했다. 그때 만일 자기네 모녀가 집에 있었더라면 역시 함께 끌려나갔을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것은 아니다. 자기도 필시 죽이지 않는 사람축으로 물러서게 되였을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그대로 물러나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떨릴만치 무섭게 생각되는것은 바로 그것이였다. 눈앞에 마주앉은 처녀가 자기로서는 올라갈념도 못하게 한없이 높은데 있는 사람같이도 보인다. 따라서 이 처녀의 출현은 자기로 하여금 용납될수 없는 죄인을 만드는것 같기도 했다. 스스로 제 몸이 징그러울만치 추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을 꾸미고 일을 치르는데는 이 내가 어른이다.》 하는 긍지가 없지도 않았다. 온갖 때가 낄만치 세상에 부대낀 경난으로 생긴 자기의 능란한 수단을 자랑하고싶기도 했다.

계월향이는 지켜앉다싶이 하고 보패에게 저녁을 권했다. 보패도 기운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많이 먹으려고 했다.

자기 방으로 건너온 계월향은 의롱을 열고 몇가지 물건을 꺼냈다. 하나는 은입사(은줄 또는 은실을 공예품이나 기물에 끼워넣어 장식하는것)한 쇠장도이고 하나는 금실마구리를 한 빨간 술(꾸밈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오리)이 달린 향낭이였다. 금불이, 은불이, 노리개보다도 더 아껴

온 향낭이다. 은실같이 흰 말총으로 완자무늬를 놓아가며 살핏하게 결은 작은 집속에 무지개빛으로 아롱진 자개로 약사보살을 새겨서 박은 빨간 향이 들어있다. 극히 맑으면서도 취할듯 한 향기! 이미 차고있던것 대신에 그 맑은 향을 차는 계월향은 오늘만은 누구를 위한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것이라고 생각했다.

밤이 깊었다. 련광정에서 취한 왜장수놈이 돌아왔다. 계월향은 속이 철렁 내려앉는듯 했다. 십상팔구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행여나 오늘도 련광정에서 술로 밤을 새지나 않을가, 그래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했던중이다.

소서행장이하 장수들은 술자리를 안 벌리는 때가 거의 없다싶이 했다. 그중에서도 소서행장이 누구보다도 더 술에 묻혀있는편이였다. 그리스도교신자인 그는 본국에서 서양선교사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독한 양주맛을 알았다. 여기 와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선소주맛에 취했다. 평양에 주저앉아있는 동안에 소서행장이 밤낮 술타령만 하고있었다는것은 허다한 일본기록들에서 볼수 있는 사실이다. 그 일례로서 일본의 력사가 도꾸도미 소호 같은 사람은 자기 저서에서 소서행장의 그러한 행장을 들어 극히 분개한 어조로써 필주(죄나 과오를 글로 죽 내려쓰는것)했다.

이때도 련광정에서 돌아온 왜장수놈은 어지간히 취했건만 계월향이가 권하는 잔을 또 기울이기 시작했다. 놈은 자기의 꽃다운 녀인의 시중으로 마시는 술을 더욱 즐기였다. 더우기 오늘은 또 웬 일인가싶게 단장한 계월향이 눈부실만치 아름다왔다.

밤은 깊었다. 잠시 밖에 나올 짬을 얻은 계월향은 좁은 안뜰을 지나 대문앞으로 가서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깊지 않은 골목어구에는 지금도 역시 서성거리고있는 시꺼먼 사람의 형체가 뵈였다. 한둘씩 번갈아 가며 이 집을 지키는 놈의 졸개였다. 그보다 더 눈여겨본것은 대문밖의 골목이 끝나자 좁은 행길 하나를 건너 마주보이는 집의 행랑방문밖에 둘러친 차면바자였다. 그 바자길에 흰 빨래가 걸려있다. 초저녁에는 한가지만이던것이 지금은 두가지가 걸려있다. 바로되였다고 고개를 끄덕인 계월향은 아까 왜장수놈을 맞아들일 때 제손으로 잠갔던 대문빗장을 소리 안 나게 벗겨놓았다. 그리고는 옆의 측간문을 한번 여닫는 소리를 내고 돌아서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반도 차지 않았던 초생달은 이미 없어졌다. 매운

바람이 불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계월향은 놈이 취해 쓰러지기를 바라서 연해 술을 권했다. 그러나 이만저만해서는 술에 휘지 않는 놈인지라 여전히 잔을 기울일뿐이였다. 그는 소서행장막하의 많은 장수들중에도 소서행장이 가장 크게 믿는 장수였다. 원체 기골이 장대한데다 또 지금이 한창이라고 할만치 날래고 용감했다. (《임진록》에는 그자의 몸에는 칼날도 들지 않게 비늘이 덮여있다고 묘사했다.) 언젠가 소서행장도 《그 무지꿍한 놈》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용모부터 험상궂었다. 소위 호걸풍으로 기른 거칠고 숱많은 시꺼먼 수염이 반이나 덮여있는 큰 얼굴에는 표한하게 빛나는 두눈이 번득이였다. 노한 때는 물론이고 소위 호걸풍으로 선웃음을 칠 때에도 그 거치른 수염은 역시 거슬러섰다.

지금 그앞에서 술시중을 하고있는 계월향은 약약할만치 초조했다. 밤은 덧없이 깊어가는듯 했다. 오늘일은 틀리고마는가?

60. 적장수의 목이 떨어졌다

칠성문에서 동북쪽으로 울창한 송림속을 거쳐 을밀대까지 련닿은 성벽의 어느 한 굽이였다. 이 어간의 송림중에도 가장 조잡하고 깊은 곳이다. 성벽가까이 서있는 큰 소나무로 올라간 돈정신은 거의 끝까지 다 올라갔지만 그래도 한팔로는 아름이 버을게 굵은 원체를 그러안고 서서 내려다보이는 성가퀴안을 살폈다. 달은 이미 지고 또 금시 싸락눈이라도 뿌릴듯이 흐린 밤중이라 송림속은 더욱 침침히 어두웠다. 바로 성가퀴에 기대선듯 가까이 있는 나무의 체대들만이 어렴풋할뿐 다른것은 더 보이지 않았다. 귀를 사렸다. 휘파람소리를 내며 가지끝에 울부짖는 바람뿐 역시 달리 들리는것은 없었다.

그저께 밤의 변을 겪은만치 놈들의 경계가 더 엄할것이므로 찬찬히 살피기는 했으나 별것이 없었다. 성을 넘어가볼밖에…

《좌우간 넘어가볼테니 그런줄 알라구.》

돈정신은 제가 디디고있는 가지아래를 굽어보며 말했다. 그 나무중토막에 올라와있던 차돌이는 그 말을 받아서 밑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돈정신은 머리우에 늘어진 가지 하나를 잡고 성가퀴를 향하여 한팔을

내민듯이 뻗은 녹녹한 가지에 올라섰다. 재인이 줄을 타듯이 커다랗게 높은 외나무다리에서 한발씩 내디디기 시작했다. 한걸음한걸음 옮겨놓는 발과 함께 역시 이손저손 옮겨잡던 가지가 끝나면 옆의 나무의 가지를 붙들고 나갔다. 이제는 더 나갈수 없이 디디고있는 가지가 휘늘어지기 시작했다. 밑에서는 쳐다보기만도 아슬아슬했다. 걸음을 멈춘 돈정신은 한번 더 성가퀴안을 살폈다. 역시 인기척 같은것은 없었다. 지금 서있는 가지에서 성가퀴까지는 두어발가량이나 사이가 있었다.

《이제는 어떻게 한다?》

밑에서 조마조마하게 쳐다보던 사람들은 부지중 《아차!》 소리를 질렀다. 금방 떨어지는것 같이 흠칠한 돈서방이 허공 나꿨다. 허리를 굽혔다 펴며 한번 발을 굴러서 휘청 휘였다 퉁겨지는 가지의 탄력을 받아 훌쩍 몸을 날린 그는 벌써 성가퀴우에 올라서있었다.

이 나무, 저 나무에 몸을 숨겨가며 주위를 살핀 돈서방은 허리에 감았던 바줄을 풀었다. 줄사다리였다. 한끝을 큰 나무에 붙들어매고 성벽너머로 내려보냈다. 차돌이가 올라왔다. 다음다음으로 김응서와 법근이, 주복이 또 젊은 중 4～5명이 올라왔다. 열명도 채 안되는 그들은 놈들의 진중으로 잠입해들어가기 시작했다.

송림속으로 접어든 때였다. 얼마 멀지 않은데서 불빛이 번쩍했다. 쏴ㅡ 쏟아지는 수채물같이 흘러나오는 화광에 저편 성가퀴가 어둠속에서 길게 드러난다. 그러자 또 이쪽 숲속을 더듬듯이 휘둘린다. 저마다 큰 나무등걸에 붙어선 이쪽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다시 껌벅 사라지고마는 그 불은 순라들의 암등이였다. 도적등이라고도 하는것이다. 칠성문가까이로 갈수록 그런 불빛은 더욱 자주 휘둘렸다. 여기저기서 순라도는 놈들이 서로 부르며 뭐라고 지껄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될수록 깊은 숲속을 톺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징검다리를 건너뛰듯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아붙어서는 귀를 사리고 앞뒤를 살펴야 했다.

만수대를 넘었다. 나무사이로 영문의 큰 기와지붕이 내려다보인다. 예정대로 여기서는 두패로 갈려야 했다. 김응서와 차돌이, 돈정신 세사람은 애련당골로 가고 주복이와 법근이는 4～5명의 중을 데리고 장경문쪽으로 가기로 했다.

어제 김응서가 계월향이한테서 들은 말로써 지금 성내에 붙들려있는 우리 사람들이 장경문근처의 어느 집에 갇혀있다는것을 알았으므로 그들까

지도 구해낼 작정이였다. 계월향이는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고 또 성안에 불이 일었을 때 더러는 탈출하고 더러는 죽은것도 몰랐다. 더우기 제가 영명사로 나간 동안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련광정앞에서 다 전사한것도 모르고 한 말이였다.

지금 그쪽으로 가는 주복이와 법근이는 더구나 그런것을 알리가 없었다. 우리 사람들이 갇혀있는 집이 어데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경문근처로 가서 살피노라면 놈들이 지키고있는 눈치를 보아서도 찾을수 있을것이다. 찾은 다음에는 서두를 생각은 말고 목목이 지키고있다가 짬수를 보아가며 파수보는 놈들을 소리 안 나게 하나하나 잡아치워가면서 우리 사람들을 빼낼 계획이였다.

법근이가 앞장섰다. 주복이보다도 성안골목을 법근이가 더 잘 꿰뚫고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더 잘 안다만다할것이 없었다. 장경문근처는 빈 터전만이 남았다. 다 무너진 돌각담들이 보이는 넓은 재더미를 사이에 두고 장경문 맞은편에 그 역시 불에 그슬린 기와집 몇채가 남아있었다. 우선 그쪽으로 붙어섰다. 앞의 사람이 뒤손질로 부르는것을 알아볼수 있는 정도로 하나씩 동떨어져서 다음 집, 다음 집으로 붙어가면서 동정을 살폈다. 그나마 단 몇집을 못 가서 또 재더미가 된 빈 터전이 드러났다. 환히 트인 저쪽에는 웬 불빛이 이글이글해보인다. 거기가 어델가? 그것이 바로 련광정앞의 넓은 마당이였다. 여기저기 피워놓은 화토불옆에는 난쟁이들같이 왜소하게 보이는 파수군놈들의 그림자까지도 볼수 있다. 전 같으면 오불꼬불한 골목들을 한참 처나가야 했던 련광정이 지금은 곧바로 보이는 형편이다. 그만치 화재가 컸던것이다. 서로 말은 안하나 장경문밖에서 성가퀴너머로 굽어보는 왜놈을 끌어내리다가 같이 강으로 떨어졌다는 황서방의 생각에 제각기 가슴이 뭉클했다.

여기서는 더 알아보잘데가 없었다. 이제는 애련당골로 가서 거기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아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이때 애련당골로 들어선 세사람은 벌써부터 눈여겨보면서 온 집의 차면바자길에 널린 흰 빨래를 보았다. 분명히 두가지다. 지금 계월향이네 집에는 보패가 있고 또 왜장수놈도 있다는것을 알리는것이다. 일은 단순치 않게 되였다. 그러나 적장을 베일수 있는 기회일는지도 모른다. 우선 계월향이네 집 문간을 지키는 졸개놈을 잡아치워야 할것이다. 사방은 고요했다. 그리고 어두웠다. 골목어구에 돌아앉아있는 집의 추녀밑으로 들어

선 세사람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수직군졸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앞섰던 김응서가 집모퉁이의 기둥에 붙어서서 골목안을 엿보았다. 비좁은 골목안은 더욱 어두웠다. 무엇이 타는듯 한 이상한 냄새가 풍긴다. 향긋하면서도 매운맛이 있는 내내였다. 깊지 않은 막다른 골목인데 저편 구석에서 웬 불찌 하나가 반짝인다. 누가 조그마한 불씨를 불기라도 하는듯이 차차 더 빨개지는 불빛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코구멍에서 무럭무럭 뿜어나오는 연기까지도 보인다. 그것이 담배라는것이다. 수직군졸이 대문간 대돌에 걸터앉아서 담배질을 하는중이다. 분명히 놈은 한놈뿐이다. 이제 와락 달려들기만 하면 제놈이 손쓸새도 없이 단칼에 요정을 낼수는 있다. 그러나 놈이 한번쯤은 고함을 지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놈은 물론 이 근처의 적들까지도 쓸어나올것이다. 김응서는 뒤의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놈이 이리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가? 의논하고싶었다. 이때 바로 그의 등뒤에 붙어서서 역시 골목안을 엿보던 차돌이가 김응서의 소매를 당기고 제가 앞으로 나섰다. 나서서 다시한번 골목안을 엿본 차돌이는 한걸음 성큼 내짚으며 한팔로 허공을 후려치듯 했다. 알고 들으면 분명히 들리는 딱! 소리와 함께 앉은자리에서 벌렁 자빠지는 그놈의 뒤통수에 밀려서 대문 한짝이 삐거덕 열렸다. 세사람은 발을 성큼성큼 떼여놓으면서도 소리 안 나게 대문앞으로 달려갔다. 이마로부터 골통이 갈라진 군졸의 시체를 넘어서 반쯤 열린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맞은켠 방 쌍창안에는 불빛이 뒤밝았다. 그런데 웬 일일가? 뜻밖에도 요사스러울만치 랑랑히 울리는 계월향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린다.

계월향은 벌써부터 왜놈을 술로 취여 쓰러뜨리려 하였으나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나저제나 초조한 생각으로 연해 술을 따르면서도 온 정신을 밖에 두고있던 때라 삐거덕하는 대문소리가 깜짝 놀라울만치 크게 들렸다. 금시 제 낯빛이 파랗게 질리는것을 느꼈다. 《혹시 바람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자 또 대문앞으로 다가드는 인기척이 들리는것 같았다. 놈의 눈치를 살폈다. 그 역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눈을 번뜩이고 들었던 잔을 놓았다. 그러나 곧 잊어버리는 모양으로 다시 술잔으로 손이 간다. 계월향은 아직도 그득한 잔에 술을 덧쳤다. 일부러 철철 넘게 쏟고는 제 실수를 눙치는 핑게로 큰 웃음을 쳤다. 골목안에서 나는듯 한 인기척을 지워버리기 위한 웃음이였다.

김응서랑이 대문안으로 들어서며 들은것이 바로 그 웃음이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

계월향은 웃으면서도 눈이 더욱 둥그래졌다. 밤이 깊었으니까 옆집의 적장들은 이미 다 잠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고요한 밤중에는 좀만 큰 소리도 빤히 통해 들릴만치 엷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들이다.

계월향은 웃음을 끊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뜰안은 역시 고요했다. 들어선 사람들은 지금 이편에서 내통이 있기만을 기다리는지 모른다. 꼭 그럴것 같이 생각되는 계월향은 지금도 술잔을 기울이고있는 놈의 그 등뒤의 방구석에 세워놓은 길고 짧은 두자루의 검을 보았다. 장판에 흘린 술을 훔치겠다는 시늉을 해보이고 새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다. 부엌문을 방싯 열고 내다보는 뜰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저편 옆집 처마밑에서 한사람이 나선다. 김응서였다. 기다렸던 일이지만 또 한번 가슴이 철렁하게 놀랜 계월향은 좀만 더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문을 닫았다. 걸레를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온 계월향은 놈의 앞으로 나앉아 상귀에서 흐르는 술을 훔치면서 은근한 웃음을 담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몽롱한 취안으로 기생의 교태를 굽어보던 놈은 마시려던 잔을 든채 다박솔포기같은 구레나룻을 거슬리고 호탕히 웃으면서 기생의 허리를 끌어안으려했다. 이때 치마폭에 감추고있던 계월향의 이편 손이 놈의 눈자위를 덮었다. 그와 동시에 목청을 돋구어 노래가락을 부르기 시작한 계월향은 담모퉁이로 달려가서 두자루 검을 걷어들자 쌍창문을 열고 퇴마루로 뛰여나왔다. 마치 상한 짐승이 울부짖는듯 한 신음소리와 함께 잔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움켜쥐였던 왜놈은 후추가루로 범벅진 눈을 부릅뜨고 쫓아나오자 막 뜰아래로 내려서려는 계월향의 잔허리를 걷어찼다.

계월향의 노래가락은 짧은 신음소리로 끝났다. 그와 같은 순간이였다. 계월향의 노래소리에 눌리면서도 역시 크게 울부짖던 놈의 모가지가 떨어져서 뜰아래 굴렀다. 계월향이가 나오는것을 보고 퇴마루로 뛰여올라섰던 김응서가 한칼에 베인것이다.

짧은 몇순간의 소동은 꿈이던양 뜰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김응서가 붙들어일으킨 계월향은 정신은 차렸으나 몸을 가누지 못했다. 김응서의 무릎에 어깨를 기대고 반만치 누운 계월향은 건넌방을 가리키면서 힘없는 소리로 보패를 불렀다. 차돌이가 그 방문을 열었다. 문설주에 붙어앉아있던 보패는 실신하다싶이 떨고있었다.

《이제는 어서들 나가셔요. 속히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계월향이가 재촉했다.
《무슨 소린가, 같이 가야지.》
김응서는 계월향이를 다시 일으켜 앉히려 했다. 그러자 그의 가냘픈 몸은 잔허리에서부터는 딴 동강이 난것 같았다.
《전들 나으리와 저 처자랑을 따라가서 살게 되면 좀 좋으리까만 그러나 이제는 틀린것 같습니다.》
그는 기진해서 잠시 말을 끊었다.
《하기야 본시 천한 계집인데다 또 응당 죽어야 할 처지에서도 깨끗이 죽지 못하고 살아온 이 더러운 목숨이 여러분과 함께 섞일순들 있으며 또 아무리 제가 렴치가 없다기루 차마 같이 살겠어요. 잘됐습니다. 천도가 무심할리 있습니까.》
흐느낌에 또 잠시 말을 끊었던 계월향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으리, 제 어미만은 왜적에게 참혹한 죽음을 안 당하도록 데려가주세요. 저는 먼저 빠져나갔다구 하시구 데려가주세요.》
김응서에게 이런 말을 한 계월향은 옆에 와서 앉은 보패의 손을 잡았다.
《내 어머니를 좀 거두어줄테요? 부탁이요.》
보패는 계월향의 손을 붙들고 울었다.
《저를 저 방에 갖다 뉘여주시구 어서들 떠나세요.》
계월향은 보패가 있던 방을 가리켰다.

61. 적아간의 정세개관

계월향의 집으로 교대하러 왔던 수직군졸의 소동으로써 한밤중에 잠들었던 소서행장의 진중은 삽시간에 발칵 뒤집혔다. 우선 그 대문밖의 머리가 으스러져 죽은 군졸 그리고 뜰안의 머리없는 시체, 머리는 없으나 그 장대한 체구만으로도 부하장수가 분명한 시체의 목에서는 굳은 땅에 몇가닥 구멍을 뚫으도록 내뿜던 피가 아직도 흐르고있었다. 붙들어왔던 고마인처녀는 없었다. 그대신 기생의 자결이 분명한 시체가 잠든듯 누워있었다. 주안상이 놓여있는 안방에는 초불이 아직도 휘황했다. 2만여명의 대군이 주둔해있는 평양성 한복판에서 일어난 괴변이였다. 일본군장수중에 가장 효용하다던 장수가 이렇다할만 한 저항도 해본 흔적이 없이 목없는 시체가 되여 쓰러져있다.

이때 멀리 칠성문쪽에서 뚜― 우는 나팔소리가 연해 울렸다. 뒤이어 조총소리도 몇방 났다. 거리에서 소동하던 놈들은 그쪽으로 달려갔다.

칠성문과 을밀대어간의 깊은 송림속에서 순라돌던 저희 군졸들 몇이가 혹은 꺼지고 혹은 불이 그냥 켜있는 암등을 떨어뜨리고 죽어넘어진것을 발견했을뿐 침입자의 종적을 알수는 없었다.

× ×

임진란이후 《평양지》를 비롯하여 우리 사람들이 기록한 여러 종류의 《임진록》들과 기타의 허다한 구비전설들에는 김응서가 계월향의 내응을 얻어서 적장을 죽이기까지의 경위가 지금 이야기한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 그 기록들에 의하면 왜장수놈에게 잡혀있던 계월향이 몸을 빼칠 계책을 궁리하던 끝에 하루는 놈의 허락을 얻어서 서문(그때의 서문은 보통문이였다.)밖에 사는 자기 친족을 찾아본다는 핑게로 보통문루에 올라서서 《오라버니》를 불렀다는것이다. 그 소리에 《오냐.》 하고 나선것이 김응서, 두사람은 남매간이라 속이고 일본군진중에 들어가있다가 왜놈장수를 죽인것으로 되여있다.

적진중에 사로잡혀있는 한 젊고 아름다운 녀인이 성문루에 올라서서 한 대중으로 구원을 청하기 위해서 미상불 애절한 목소리로 《오라버니》를 연해 부르고 또 불렀다는것은 퍽 애달프고도 랑만적인 정경이기는 하다. 이것은 그 당시의 작가들의 아름답고 풍부한 상상력의 소산인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실정과는 좀 어그러진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양성내에는 물론이고 성밖에도 한 녀인이 웨쳐부르는 소리가 들릴만치 가까운데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있지 않았다. 또 이 당시의 김응서는 룡강, 강서, 증산, 삼화 등지에서 초모한 근 만명의 군사를 거느린 조방장으로서 잡약산뒤에 진치고있었던만치 계월향이한테서 미리 내통이나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계월향이가 보통문에서 부르는 소리에 잡약산뒤에서 《오냐.》 하기는 좀 어려웠을것이다. 하여간 우리 평양이 낳은 의기 계월향의 내응으로써 김응서는 수만군 적진중에서 적군의 한 두목놈의 머리를 베였던것만은 사실이다. 수만이나 되는 저희 진중에서 한 장수의 머리를 잃은 일본군은 크게 놀라고 더욱 사기가 떨어지고 기세가 꺾이였다는것도 이상의 모든 기록의 일치한 결론이다.

이상의 구비전설적인 기록들 이외에 그보다 더 그 당시의 정형을 사실에 기해서 썼다고 인정할수 있는 류성룡의 《징비록》을 보기로 하자. 《징비록》의 《록후잡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왜(일본놈)는 가장 간교, 간악한것들이다. 군사를 조종함에 있어 그 어느 한가지도 궤휼 아닌것이 없다. 그러나 임진년간의 일로 본다면 한성을 칠 때까지는 그 궤휼이 자못 교묘했으나 평양에 이르러서는 극히 치졸했다고 할수 있다.》

즉 불의의 군사를 일으킨 일본군이 한성을 강점할 때까지의 기세와 급기야 평양까지 이른 때의 그 무기력을 대비해 말하면서 류성룡은 또 다음과 같이 썼다.

《이때까지 이겨온것만을 믿어 뒤의 일은 고려함이 없이 여러곳에 흩어져서 미쳐날뛰고 방자하기를 일삼았을뿐 군사란 흐트려놓으면 그 세력이 약해지는 법인데 일본군은 천여리에 널려있으면서 오래동안 헛되이 날을 보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땅에 깊이 들어온 일본군은 마치도 처음에는 바위라도 꿰뚫을듯 했던 화살이 마침내는 엷은 비단 한겹을 못 뚫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하였다.

《일본군의 기세는 이미 찌부러졌고 또 사면에서 일어나서 요격하는 우리 백성들때문에 적들은 머리가 제 꼬리를 돌볼수 없고 꼬리가 제 머리를 감쌀수 없는 형편이라 마침내는 달아날밖에… 이것이 곧 평양에서 적들이 치졸했다고 하는바이다. 이같은 적의 실책이 우리에게는 리로운것이였으니 이에 우리는 뱀의 허리를 토막치듯이 천여리에 널려있는 적의 병참선을 끊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였다.》

류성룡은 평양성을 해방하기 직전의 일본군의 정형을 이같이 묘사했다.

이것은 물론 평양성내에 있던 일본군에만 한한 말은 아니다. 우리 조국강토에 기여들었던 일본침략군전체가 망해가는 정형을 말한것이다. 동시에 전후 7년간에 걸친 이 전란중에 우리 조선인민의 유격항전이 그 얼마나 치렬했던가를 말하는것이다.

여기서 다소 기록적인데로 치우치게 될는지는 모르나 그 당시의 의병장들을 렬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들의 기억을 한번 더 새롭게 하는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것이다.

경상도에는 이미 말한바 홍의장군 곽재우를 비롯하여 심대승, 김면, 정인홍, 김해, 류종개, 리대기, 장사진.

충청도에는 역시 앞서 말한바 조헌과 승병장 령규대사를 비롯하여 김홍민, 리산겸, 박춘무, 조덕태, 조웅, 리봉, 권응수.

전라도에는 김천일, 고경명, 최경회, 승병장 처영대사.

경기도에는 우성전, 정숙하, 최을, 리로, 남언경, 김탁, 유대진, 홍언수와 그의 아들 홍계남.

함경도에는 앞서 말한바 정문부와 또 리붕수와 고경민.

평안도에는 조호익, 림중량, 림기동, 박억, 양이직, 승병장 서산대사, 사명당과 고충경 등등…

대강만 꼽아도 이상과 같다. 많은 기록에 의하면 이외에도 우리는 수백수천의 의병장들의 이름을 들수 있다. 이들은 각각 자기네 고향에서 혹은 몇십명 혹은 몇백명, 많으면 몇천명의 농민들과 함께 보국안민, 소탕왜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다. 그들의 의병은 대다수가 농민이였던것은 물론이다. 책상머리에서 글을 읽던 선비들도 많았다. 또는 장사치라고 천시되던 상인들도 있었고 장인바치니, 백정이니 하여 인간이하로 천대받던 소위 천민이라던 사람들도 많았다. 평양의 계월향과 그후에 진주의 남강 촉석루에서 한 적장을 끌어안고 강에 빠져죽은 론개 같은 기생들도 있다.

평양성의 해방을 전후한 의병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각 도에서 일어난 의병이 무려 수십만명이나 되므로 그들이 한달에 소비하는 군량만 해도 수만석이였다. 그래서 이 전쟁기간중에 량식이 부족한 원인의 하나는 수십만 농군이 의병으로 나서서 싸우기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적었던탓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이때 우리 의병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의병장 김천일은 일찌기 자기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한성근처로 와서 일본군이 노리는 강화도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불과 한강하류의 강 하나를 사이에 둔 강화도에는 발을 못 들여놓게 했다.

의병장 곽재우는 정진을 고수함으로써 의녕일대에는 적이 감히 들어설 념도 못하게 했다.

의병장 권응수는 영천에 있는 적의 대부대를 포위섬멸하고 그 고을을 해방시킴으로써 신녕, 의흥, 의성, 안동 등 여러 고을을 보전하여 그곳 인민들로 하여금 평시나 다름없이 농사를 계속하게 했다.

의병장 김면은 거창의 소등이고개의 적을 소탕함으로써 적의 병참선을 끊고 그 일경의 인민들을 적의 침해로부터 수호했다.

의병장 장사진은 도처에서 적을 많이 죽임으로써 일본군은 장장군이라는 그의 이름만을 듣고도 전률할 지경이였다.

의병장 조헌과 승병장 령규대사는 협력하여 청주를 해방시키고 금산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의병장 정문부는 회령과 그 일대까지 뻗어들어갔던 가등청정의 대군을 곳곳에서 격파하다가 평양성이 해방되자 마천령 남쪽으로 적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우리 민병들의 활동과 아울러 이때는 우리 관군도 곳곳에서 반격을 시작했던것이다.

강원도의 조방장 원호는 려주일대에서 적을 크게 족치고 리천부사 변응성과 함께 남한강에서 적을 소탕함으로써 원주와 한성간의 적의 련락선을 끊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려주, 양근 등 여러 고을을 수호하는 한편 원주에 주둔한 일본군을 고립시킴으로써 적들은 이백리길을 돌아 충주를 거쳐서야 겨우 한

성에 있는 저희 본부대와 련락할수 있는 형편이였다. 이것은 일본군의 중부전선의 마비상태를 말하는것이다.

우리 관군의 활동중에도 특기할만 한것은 경상도 좌병사 박진에 의한 경주해방이다. 경주는 적의 동부전선의 요충이며 중요한 병참기지였던만치 성내에는 대부대의 적이 집결해있었다. 그 일대의 우리 인민들은 우리 조정이 지금 어데 있는지조차 모르는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때에 박진은 만여명 군사를 거느리고 경주성의 일본군을 포위했다. 그리고 리장손이라는 우리 화포장이 창안해 만든 비격진천뢰라는 포탄으로써 경주성의 적을 공격했다. 그것이 임진 8월이였다. 대완구포로 발사해서 성안으로 넘겨보낸 비격진천뢰는 굉장한 폭음을 내면서 폭발한다. 사방으로 별불같이 날아나는 파편은 물론이고 그 맹렬한 폭음에도 적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어떤 신명의 조화와도 같은 그 포탄에 겁을 먹은 왜놈들은 경주성을 내놓고 달아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비격진천뢰외에도 우리는 여러가지의 새로운 무기들을 창안했다. 변이중이라는 사람은 화차를 만들었다. 큰 화차에다 40개의 구멍을 낸 총통기를 설치하고 매 구멍에 승자총통을 걸어서 련발로 사격하면서 내닫게 마련된 화차는 무서운 공격력을 가졌던것이다.

또 비차라는것도 있었다. 정평구라는 사람이 만든것으로 일본군에게 포위된 어느 성으로 날아들어가서 우리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성밖 30리 밖에까지 날아올수 있었다. 지금으로 이르면 활공기였다.

리순신장군이 거북선을 창제한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관군과 의병들이 도처에서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여러 고을을 해방시키며 적을 섬멸하는 반격을 시작한 때 우리 수군절도사 리순신장군은 부산앞바다에서 또한 큰 전공을 세웠다. 임진란이 시작되자 5월초에 적선 40여척을 격침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7월까지 당포, 옥포, 한산도, 안골포에서 백여척의 적선을 격파함으로써 서해로 진출하려는 적의 작전을 파탄시켜온 리순신장군이 9월 초하루날에는 일본군의 상륙기지인 부산앞바다로 나가서 적의 함선 백여척을 또 격침한것이였다.

이같이 륙지와 바다에서 우리 관군과 의병 즉 전체 조선인민의 반격을 받게 된 일본군내부에서는 염전적인 경향이 날로 팽창했다. 일본군장졸들중에는 더 싸울 의욕도 용기도 없이 된자가 많았다. 싸우기보다도 창칼을 땅에 던지고 투항하는자가 날로 늘어갔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사

야가라는자 하나만을 들어도 족할것이다. 사야가는 가등청정막하의 수다한 장수들중에도 제노라고 하던 장수였다. 일본기록들에 의하면 사야가는 군사 삼천여명을 거느린 문무겸전한 청년장수였다. 그는 자기 부하를 다 데리고 우리 관군앞에 투항했다. 자기 말에 의하면 그는 본시부터 조선의 찬란한 문물제도를 숭앙해온만치 할수없이 끌려나오기는 했으나 이 죄악적인 조선침략전쟁에서 싸울 의사는 없었다는것이다. 그러한 사야가를 일본기록들에서는 《일본에 둘도 없는 불충한》이라고 했다. 사야가는 마침내 총부리를 돌려서 일본군과 싸우기까지도 했다. 이러한 《일본무쌍의 불충한》은 사야가 한사람만이 아니였다. 곳곳에서 우리 관군 혹은 의병앞에 투항해온 허다한 일본군장졸들은 사야가와 마찬가지로 총부리를 돌렸고 또 우리 관군을 위해서 조총과 화약을 만들기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이미 앞서도 말한바어니와 풍신수길이가 군사를 일으킬 때는 《시하이단수인지두호》라 하여 조선을 정복하기는 자는 사람의 머리를 베는것이나 다를바없이 《지일가성》으로 며칠이면 끝낼수 있으리라고 했다. 그것은 단지 만리원정의 사지로 몰아내는 저희 백성들을 충동하기 위한 말만이 아니라 풍신수길 저자신이 그렇게 타산했고 그렇게 믿었던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일은 틀렸다. 이무렵의 일본기록들에 의하면 일본관백 풍신수길은 자기 측근자들에게 《조선이 아직도 료정(결판을 내여 끝을 짓는것)이 안 나니 웬 일이냐?》고 초조해한것이다. 이에 대하여 도꾸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은 역시 큰 나라이므로 그 동쪽을 치면 서쪽을 지키고 그 왼편을 치면 바른편으로 모이니 십년을 위한한대도 끝이 안 날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대들은 이 내가 다 늙은줄 아는가?》

그 말에 이같이 역정을 낸 풍신수길은 《내 처음 생각 같아서는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고 했더니 이제는 참말 죽을 날이 멀지 않게 늙고말았는가?!》 하며 마침내는 이같이 자탄하였다.

《그러면 싸우기를 그만두고 조선과 화해를 의논함이 어떨가?》

그의 말에 부하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했다는것이다.

풍신수길이 불과 5～6개월동안에 그같이 갑자기 늙었다는것은 모를 말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설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자신이 조선에

나와서 싸우는바도 아닌 풍신수길 한사람이 늙었기때문에 《조선이 아직도 료정이 안 나》는것은 아니였다. 말하자면 풍신수길 한사람이 갑자기 늙었거나 말았거나 그런것이 이 조선전선에서는 하상 문제거리가 될리도 없는것이다.

문제는 갈수록 치렬해지는 조선인민의 반격에 있었다. 《이제는 죽을 날이 멀지 않게…》 운운한것은 단지 그가 《늙었다》는 한탄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조선인민의 반격앞에서 신음하게 된 풍신수길의 비명이였고 《싸우기를 그만두고 조선과 화해를…》 운운한것은 풍신수길 한사람이 갑자기 늙었기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어쩔수없이 된 일본군전체가 사기가 저락되고 피폐했기때문이였다.

과연 부산서부터 평양까지 또는 회령부근까지 연연 수천리에 걸쳐있는 일본군의 전선을 하나의 커다란 뱀에 비긴다면 그 중둥에는 호미와 낫으로 만든 조선인민의 창검에 찍혀서 여러 군데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 한끝인 소서행장의 군대가 그 뱀의 대가리라면 지금의 그 대가리는 붉은 혀를 널름거리며 요두전목하기보다도 축 늘어지게 혀를 빼물고 허덕이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 신음소리는 소서행장이 평양성밖의 곳곳에 내붙이기 시작한 미친놈의 허튼수작같으면서도 실은 절실한 애원이 아닐수 없는 글발들로써 더욱 분명히 들리게 되였다.

《명나라사신 심유경이와의 회담으로써 이미 강화조건이 결정되였거늘 고마인들은 어째서 지금도 성밖으로 마초와 소금을 구하러 나가는 우리 일본군사를 죽이느냐. 이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이러한 말을 전제로 하고 심유경이와 의논했다는 소위 《강화조건》이라는것을 썼다.

1) 왜왕과 명나라 공주와의 결혼
2) 조선의 네 도를 베여 일본에 줄것
3) 이전과 같이 국교관계를 맺을것
4) 조선왕자 한사람을 일본으로 보내서 영주케 할것
5) 조선의 대신 몇사람을 일본에 인질로 보낼것

이상의 다섯가지 《강화조건》이라는것은 심유경과 소서행장간에 론의가 있었던것만은 사실이였다. 퍽 후에 판명된 사실이지만 하나의 간특하고 더러운 협잡군이였던 심유경은 저자신도 그러한 《강화조건》이 성립될수 없다는것을 알므로 그것을 내놓지는 않으면서도 하여튼 소서행장이 강화

하려는 의사가 있다는것을 구실로 하여 명나라의 출병을 지연시킴으로써 소서행장에게 그만한 시간적여유를 제공하는 대가로 많은 뢰물을 받아먹었던것이다.

(그러한 협잡군 심유경은 종당 명나라조정에서 처단되고말았다.)

어쨌으나 소서행장은 보통벌기슭의 산과 큰길가의 나무와 돌에다 그런 글발을 내붙임으로써 행여나 평양성밖에서 마초와 소금을 구할수 있을 길을 틔여볼가 했던것이다. 또 이런것도 있었다.

《대동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이남은 일본땅이 된만치 지금 평양성에 있는 일본군사는 오래지 않아 성을 내놓고 대동강건너쪽으로 물러갈터인즉 이제부터는 성밖으로 나가는 일본군사를 죽이지 말라.》

물론 미친놈의 허튼수작같은 말이였다. 그러나 여기서 소서행장의 애원을 들을수 있지 않는가? 문제는 소서행장이 그런 애원이나마도 진심으로 하지 않는것이다.

소서행장은 군사를 동원하여 평양성내에다 일본식의 성을 쌓기 시작했다. 장경문근처의 성벽에서부터 관제묘를 거쳐 만수대에 이르기까지는 엄페호로써 두르고 대동문근처에서 종로를 거쳐 장대재와 남산재일대에는 오불꼬불한 전호를 파고 높이 쌓은 흉장에는 벌의 집같이 총구멍을 냈다. 이것은 저희가 점령하고있는 평양성 한가운데서 자기의 제일가는 장수의 모가지를 잃은 다음부터의 일이였다.

그뿐아니라 평양성을 밥상받듯 내려다볼수 있는 고지인 모란봉에다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즉 모란봉의 중허리를 에둘러 전호를 파고 높이 쌓아올린 흉장에는 역시 벌둥지같이 총구멍들을 냈다.

소서행장의 이러한 조치들은 저희 일본군 선봉부대가 이제는 평양성이북으로는 한걸음도 더 나갈수 없이 되였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동시에 평양성만은 어데까지나 내놓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심사를 보이는것이였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래지 않아서 대동강건너쪽으로 물러갈터이니…》라고 운운하는것은 누구를 속여보겠다는 옅은 수의 거짓말이였다. 높은 모란봉에서 새 진지를 만들고있는것을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가리우고 할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빤히 구멍이 뚫어지는 거짓말과 함께 제발 성밖으로 나가는 《우리 일본군을 죽이지 말라.》고 한것은 아닌게 아니라 소서행장으로서는 안할수 없어서 하는 애원이기도 했던것이다. 그야말로 진정한 애원이라고도 할수 있는것이였다. 부산서 평양까지에 걸쳐

빈사상태로 축 늘어져 허덕이는 큰 뱀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이기도 했던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평양성을 중심으로 한 적아간의 정세를 개관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볼수 있다.

평양성내의 일본군이 여러가지로 고갈한 물자중에도 더욱 절박했던것은 소금이였다. 《선조실록》 임진년 12월달 기록에 의하면 《평양성내의 일본군은 금전(단순히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바로 황금이였다.)을 가지고도 소금을 살수 없었다.》는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때의 조선사람들은 일본군이 금을 준대도 소금을 내놓지 않았다.

이해 10월에는 영유고을에서 과거를 보여서 무장 오천여명을 뽑았다. 영유는 평양서 불과 백리 상거밖에 안되는 곳이다. 그런데서 오천명의 인재를 추려낼만치 몇천몇만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를 볼수 있었다는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때의 적아간의 정세를 짐작할수 있다. 그만치 우리 편의 기세가 앙양된것을 말하는것이다.

이때는 오히려 영유도 먼편이였다.

평양에서 불과 십리허인 보통벌주변의 산너머에는 우리 관군과 의병들이 결진하고있었다.

도원수 김명원과 평안도 순찰사 리원익은 새로 방어사가 된 김응서를 비롯한 리빈, 한응인 등 장수들과 함께 군사를 나누어 부산고개를 중심으로 평양 서북쪽에 결진하고있었다. 이와 진영을 련결해서 서남쪽으로는 삼화현령 조의룡, 룡강현령 신현, 강서현령 류희, 함흥현령 리수, 증산현령 조의, 영유현령 황숙, 순안현령 하홍계 등이 각각 자기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결진하고있었다. 또 역시 관군으로 수군별장 김억추는 병선 십여척을 령거하고 대동강을 막고있는지 오랬다.

이밖의 민병으로는 의병장 조호익이 거느린 천여명의 농민군이 삼등에서 대동강상류를 견제하고 의병장 림중량은 이천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중화방면에서 평양과 한성간의 적의 련락선을 차단하여 소서행장군의 후방을 위협하고있었다. 또 그들보다는 적은 부대였으나 의병장 김자택과 박억이는 각각 백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대동강건너 동촌에서 그 방면으로 나다니는 일본군을 수시로 요격하고있었다.

잡약산을 중심으로 서산대사의 승병부대가 있다는것은 여기서 새삼스럽

게 말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이밖에 평양성 가까운 서북쪽에 다른 의병부대가 없었다는것은 그 까닭이 있었다. 즉 우리 관군이 바로 평양성 서북쪽에 육박해있었더니만치 이 방면에서 활동할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의병을 일으킬 필요가 없이 다 관군으로 들어갔던것이다. 만일 평양성이 함락되기 전부터 서산대사와 함께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고충경이를 비롯하여 전주복, 돈정신 같은 사람들도 관군에 합류했거나 혹은 따로이 의병을 일으켰을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어떤 기록에는 고충경이를 한 의병장으로 하고 전주복이, 돈정신이, 현수백(차돌이)들도 다 의병이라고 한데도 없지 않다.

62. 서관 대로상에서

보통벌은 한빛으로 호호히 흰눈속에 잠겼다. 지금도 눈이 온다. 목화송이같이 큰 눈개비가 지상의 모든것을 덮어내려쌓인다. 동지(11월 15일)를 4～5일 앞두고 한창 추운 겨울바람은 노호한다. 십리어간의 눈보라를 격해서 바라보이는 평양성의 륜곽은 몽롱했다.

강복산 서쪽고개를 넘는 큰길에서 농군과 승군 7～8명이 보통벌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거의 한낮이 다된 때였다.

《이제야 뭐이 나오나부네.》

《뭐이 보이나?》

《보통문밖에 말탄것들이 거뭇거뭇 보이지 않아?》

《그렇군. 한 대여섯 되나부지?》

《그래, 분명히 그 사람들이기나 한지 모르갔네.》

《왜놈들이문야 이 대낮에 저렇게만 나오갔나.》

이들이 벌써부터 기다리고있는것은 심유경의 일행이였다. 지난 엿새날 이곳에 다시 나타난 심유경일행이 성내의 일본군진중으로 들어간지 4～5일째다. 8월 하순에 와서 50일 기한하고 돌아갔던 그는 엊그제야 비로소 다시 나타났던것이다.

기록들에 의하면 벌써 기일이 많이 지났어도 이렇다 소식이 없으므로 이제는 더 기다릴것 없이 명나라로 쳐들어간다고 으르대면서 그러나 역

시 으르대기만 하던 소서행장은 다시 온 심유경을 반가이 맞아들였던것이다. 그는 현소를 시켜 《부상식극복중화》라 운운하는 헌시를 짓게까지 했다. 《일본은 병장기를 뉘고 중화에 복종한다.》는 뜻으로서 명나라에 아첨해보인것이다.

이때부터 소서행장은 례의 《강화조건》이라는것을 곳곳에 내붙이기 시작했던것이다. 심유경이와 타협이 됐다는 그 조건을 보는 우리 사람들은 이럴수 있는 일인가? 분개했다. 설사 명나라사람 심유경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우리 조선사람으로서는 참을수 없는 일이였다. (물론 명나라조정에서도 그렇지 않았다. 명나라에서는 이미 리여송을 제독으로 하여 후원군을 일으킨 때였다.)

4～5명의 종자를 거느린 심유경은 지금 보통벌을 거쳐 서관 대로인 고개길로 온다. 앞섰던 심유경의 말이 고개마루에서 먼저 걸음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앞을 막아선 우리 사람들을 둘러보는 심유경은 자못 불쾌한 낯빛이였다. 그는 겉옷자락 한쪽을 걷어젖히고 허리에 한손을 세웠다. 박속갈이 흰 모피로 안받친 겉옷밑에는 큰 무늬들이 번들거리는 호화로운 비단옷이 드러났다. 자기가 얼마만한 귀인인가를 보라는듯도 했다. 허리에 세웠던 손으로 이번에는 썩썩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다. 눈우에서는 그리 희여보이지도 않는 무명옷을 입은 우리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심유경의 뒤에서 《쩌—》소리와 함께 말을 채쳐 그의 옆으로 나서는자가 있었다. 말궁둥이를 덮다싶이 했던 그의 겉옷 뒤자락이 들렸다. 속에 찬 칼자루를 눌러쥔 모양이다. 이때 이쪽 언덕에 좀 떨어져 서있던 사명당이 길로 내려왔다. 허옇게 눈이 앉은 수염오리에는 구슬같은 물방울들이 길게 흘러내리기도 했다. 깊은 눈길에 소리없이 옮겨짚던 륙환장끝으로 그는 숫눈우에 글자를 썼다.

《우리는 귀하를 심유경대인으로 아는데 과연 그런가?》

이런 뜻이였다. 말우에 오연히 앉은 심유경은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자 둘러선 우리 사람중의 하나가 말아쥐고있던 큰 종이를 심유경앞에 폈다. 옆의 사람들은 눈을 빚어서 길에 펴놓은 종이의 네귀를 눌렀다. 소서행장의 글발이였다. 마상에서 이윽히 굽어보던 심유경의 얼굴에는 분명히 당황한 빛이 떠올랐다.

사명당은 또 썼다.

《귀하가 그 진중에 류하고있는 동안 왜적이 이같은 언어도단인 글발에

다 귀하의 이름을 꺼들수 있었다는것을 우리는 귀하를 위해서 극히 민망히 생각하는바이다.》

눈우에 뚜렷뚜렷이 나타나는 글자들을 따라보던 심유경의 얼굴에는 사실 민망한 빛이 떠올랐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대답이 있기를 기다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심유경의 눈은 그 누구도 정시(똑바로 보거나 쳐다보는것)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렸다. 잠시후에 《만일 귀하의 대답이 없다면…》 하고 륙환장끝은 또 썼다.

《이러한 왜적의 글발에 대한 우리 조선사람의 대답은 오직 이렇다.》

사명당이 쓰기를 마치자 뒤에 섰던 박서방이 뒤짐진 손에 들고있던 일본군의 수급 하나를 소서행장의 글발 한가운데 꽉 눌러놓았다. 아직도 생생하게 흐르는 피가 내려쌓이는 눈을 녹이며 《우리 일본군사를 죽이지 말라.》는 종이에 붉게 퍼졌다. 당겨쥐였던 말혁을 놓칠만치 실색한 심유경은 《앗!》 소리를 질렀다. 그의 말도 소리를 질렀다. 앞발을 들고 공중 일어섰던 그의 말은 네굽을 안고 옆의 숲속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그달음으로 돌아가던 심유경은 료동에서 명나라 응원군을 거느리고 나오던 리여송제독을 만났다. 소서행장과의 교섭경위를 듣던중에 《대동강을 경계선으로 그 이남의 땅을 일본에…》 하고 운운하는 말을 듣자 리여송은 즉석에서 심유경을 베이려고 했다. 이때 만일 명군의 참모장 리응시가 아직 참으라고 만류하지 않았다면 심유경은 그때 처단되였을것이였다.

리여송제독은 군사를 재촉하여 곧장 평양을 향해서 진군했다. 이동안에도 계속 《마초와 소금을 구하러 성밖으로 나가는 일본군사를 죽이지 말라.》는 소서행장의 글발이 나붙는 바위나 나무에는 일본군의 수급들이 놓이거나 매달렸다. 우리 사람들이 혹은 길목을 지키고 혹은 숲속에 잠복했다가 성밖으로 나오는 일본군을 요격해서 베인 수급들이였다.

이러한 우리 사람들의 요격은 세계력사상에서 최초의 유격전일는지 모른다.

《전쟁과 평화》에서 그 작가는 모스크바까지 진격했던 침략자 나뽈레옹의 대군이 무너지게 된 원인중의 중요한 하나로서 예로부터 어느 전쟁에서나 있은적이 없는 로씨야 전체 인민의 유격전을 들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온 임진란은 그보다 몇세기이상이나 전의 일이다.

《연려실기술》의 《총론 의병》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각 고을마다 의병장의 칭호로써 백성을 불러일으킨자 무려 수백이다.

이로써 왜적을 섬멸하여 나라를 회복한것은 실로 의병의 힘이였다.
의병은 곧 낫과 호미로 창검을 만들어가지고 일어선 인민이였고 그러한 인민들의 힘으로써 일본침략군을 소탕하고 조국을 수호한것이다.》
이로부터 한달 남짓한 후에는 해가 바뀌여 계사년이다.

63. 후원군이 왔다

경사년 정월 초닷새날이였다. 명나라 후원군이 순안에 당도했다. 이에 조, 명련합군이 대병력으로써 평양성내의 일본군을 포위하게 되였다.

우리 관군은 평양성 남쪽 함구문밖에 결진하고 명군은 보통문과 칠성문을 중심으로 평양성의 서북쪽을 포위하는 태세로써 대병력을 보통벌에 집결했다.

성내의 왜놈들은 을밀대에서부터 칠성문, 보통문을 거쳐 함구문에 이르는 성가퀴에 나붙었다. 붉은기, 흰기들을 늘여세운 성가퀴에 빈틈없이 내대고있는 적의 창검과 조총으로써 평양성은 마치도 큰 고슴도치같은 광경을 이루었다.

이날 밤에 서산대사는 법근이와 돈정신을 시켜서 얼마전부터 동대원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의병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금 명나라 후원군이 나와서 우리 관군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포위했으므로 오래지 않아서 결전이 있으리라는것과 그러니까 소서행장은 필연코 남쪽에 있는 일본군과 어떤 내통을 할것이라는 내용이였다. 서산은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마름쇠를 주어보냈다. 밤중에 얼음을 타고 홍복앞에서 대동강을 건너간 법근이와 돈정신은 그곳 의병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한성길목을 지켰다.

소서행장이 황해도땅에 머물러 진을 치고있는 자기 부장인 오오도모 요시도모에게 평양성이 위급하게 됨을 말하고 증원군을 이끌고 곧 평양으로 달려오라는 급사를 띄운것은 이보다 바로 좀전의 일이였다. 그러나 증원군은 오지 않았다. 소서행장의 기별로써 형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본 오오도모는 자기 수하의 군사를 일으켜 평양으로 갈 대신에 한성으로 달아나고말았던것이다.

엿새날 아침에 명군의 한 부대가 모란봉을 공격하는것으로써 일본침략군에 대한 공격전이 시작되였다. 평양성중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

저 모란봉을 점령하는것이 유리했기때문이다. 역시 모란봉을 중요시하는 놈들은 2천에 가까운 병력으로써 지켰다. 일설에는 소서행장자신이 이날 모란봉방어전을 지휘했다고도 한다.

모란봉공방전은 날이 저물도록 결말이 안 났다. 그 중허리로 돌아가며 보통벌일대를 내려다볼수 있게 굴설한 참호안에서 튼튼한 흉장에 의지하고 방어하는 놈들의 진지는 유리했고 또 그 화력도 만만치 않았다.

명군은 보통벌에서 포화로 엄호해가며 돌격을 거듭했으나 성공치 못했다. 나중에는 강철로 만든 방패들을 버리고 물러섰다. 그것이 탐난 왜군은 산밑으로 쓸어내려왔다. 다시 돌아선 명군은 그들을 섬멸했다. 그러나 모란봉을 점령하지는 못했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군사를 거두었다.

이튿날은 조, 명련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했다. 우리 관군은 함구문을 치고 명군은 보통문과 칠성문을 공격했다. 우선 성안으로 화전을 날렸다. 끝에 불이 달린 화살이 한꺼번에 수천수만대씩 날아들어간 성내의 적진에서는 곧 화재가 일었다. 뒤이어 포격이 시작되였다. 평양성을 가득히 뒤덮은 연기중에 여기저기서 일어서는 화염은 한낮의 해를 그슬렸다. 연연 십여리에 걸쳐 놈들이 조총과 활을 란사하고 돌까지도 굴러내리는 성가퀴들에서는 백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큰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날이 또 저물었다. 이날도 승부를 결하지 못하고 쇠북을 울려서 군사를 거두었다.

여기서 이야기는 좀 선후하거니와 이날 《올빼미새벽》에 법근이와 돈정신은 동대원의 의병 몇사람과 함께 왜놈의 큰말 두필과 군졸 네명을 붙들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영제교근처에서 그곳 의병들과 함께 한성길목을 지키다가 어제 밤 3경에 나타난 적의 소부대를 요격했던것이다. 눈빛으로 겨우 길을 가려볼수 있는 한밤중이였다. 짐실은 말 십여필을 끌고 가는 20여명의 적이 평양쪽으로부터 나타났다. 이편에서는 길가의 눈을 파고 잠복했다. 앞으로 지나가는 적들이 저편에 눈을 다지고 마름쇠를 깔아놓은 길목으로 들어서게 된 때를 기다려서 일시에 함성을 지르며 내달아 배후로부터 엄습했다. 황겁한 적들은 날카로운 마름쇠를 밟고 쓰러지는자가 많았다. 전투는 오래지 않았다. 적은 태반이 살상되고 나머지는 어둠을 타서 달아났다.

붙들어온 두필 큰말의 짐짝들은 모두가 왜놈장수들의 행리와 귀중품들이였다. 그중에는 소서행장의것이 분명한 문서까지도 들어있었다. 그것은

큰 소득이였다. 서산은 그 짐짝들을 다시 봉했다. 그리고는 붙들어온 군졸중의 다소 상하기는 했으나 능히 걸을수 있는 두놈에게 내주었다. 날이 채 밝기 전에 우리 사람 몇이는 그 두놈이 짐을 실은 말을 몰고 저희 진중으로 돌아가도록 모란봉앞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다.

이날 밤 퍼붓듯 쏟아지는 눈에 이레날 쪼각달은 빛을 내보지도 못하고 지고말았다. 하늘에서 땅에 련하여 짙은 회색장막을 내려드리우는듯 한 눈! 그리고 삭풍은 노호했다.

평양성내의 왜군은 이러한 야음을 타서 기습전을 감행했다. 그 1지대는 대동문으로 빠져나와서 얼음을 타고 대동강으로 내려와 함구문밖의 우리 관군을 습격하고 보통문으로 나온 2지대는 명군을 습격했다. 그러나 다 실패였다. 적의 기습을 알자 이편에서는 등불, 우등불을 다 꺼버리고 일시에 화전을 날렸다. 반공에 나뜬 수천의 화전은 밤하늘을 대낮같이 밝히면서 적의 머리우로 내려꽂혔다. 불빛속에 드러난 일본군은 이편의 반돌격을 지탱치 못하고 다시 성안으로 쫓겨들어갈밖에 없었던것이다.

이보다 좀전에 잡약산을 떠나서 모란봉으로 향해가는 3천여명의 사람들이 보통벌 한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의 흰옷으로써 2천 5백～2천 6백명의 승군과 4백～5백명의 농군은 땅에 덮인 눈과 노호하는 바람세를 따라 십리벌에 파도같이 일어서는 눈보라와 분간해보기 어려웠다.

대렬선두에는 고충경(그는 지난 넉달동안에 상처가 낫고 몸도 추섰다.) 이하 수십명의 궁수들과 함께 사명당이 앞섰다. 맨끝의 대렬에는 서산대사가 따랐다. 그는 륙환장을 눈속에 소리없이 옮겨놓으며 나갔다.

지금 서산의 승병은 모란봉의 적을 치러 나가는 길이였다. 고충경과 방어사 김응서와의 련락으로써 이 장한 기별을 받은 우리 관군에서는 군사를 나누어 승병을 원조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서산을 비롯하여 잡약산사람들은 응하지 않았다. 지금 명군과 손을 잡아 평양성의 적을 포위하고 있는 우리 군사의 힘을 덜어낼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이편의 힘만으로도 승산이 있었다. 더우기 지난번 보통벌추수때에 밤중에 싸운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만만한 자신을 가지게 했던것이다.

쏟아지는 눈발을 사이에 두고 모란봉의 륜곽이 어렴풋이 드러나는데서 대렬은 횡대로 변하여 좌우로 펴졌다.

을밀대근처의 송림으로 연소되기 시작한 불이 충천한 화염으로 일어설때마다 두리뭉실하게 보이던 모란봉은 날카로운 선으로 두쪽에 갈라진듯

명암이 달라지군 했다.
동북 량면으로 모란봉을 포위한 우리 사람들은 일체 소리를 안 내기로 했다. 함성은 물론 할수 있는대로 발소리도 안 내도록 했다. 이 나무, 저 바위에 붙어서 형적을 숨겨가며 접근해서 적의 참호로 뛰여들기만 위주였다. 그중의 한 부대만은 적의 진지 한토막을 돌파해서 모란봉의 상봉인 문봉과 무봉을 먼저 점령하기로 했다. 그 5백～6백명의 한 부대는 일면 양동작전(로출된 작전)을 하는것이므로 처음부터 적의 집중공격의 목표가 될것이였다. 서산은 그 부대를 따랐다. 선두에는 전주복이, 법근이, 돈정신이 있었다.
보통벌에서 노호하는 바람소리는 우리 사람들의 함성을 대신해주었다. 몰아오는 천군만마의 기세로 십리벌의 눈을 휩쓸어오는 충천한 눈보라는 적들의 시야를 거슬러 엄습해서 육박해가는 우리의 형적을 감싸주었다. 무릎아래를 가든가든히 묶고 흰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질끈 동인 우리 사람들은 짤막한 검과 철퇴들을 들고 모란봉을 에워싸고 접어들었다. 산기슭에서부터 작은 충돌이 시작되였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적의 초소들이다. 혹은 《고마인이…》하고 부르짖다가 혹은 설렁 줄을 당기고 경적을 불다가 쓰러지거나 달아나는 적의 전초선을 넘어서 적진앞으로 접근했다. 적의 진지는 금시 소란해졌다.
《고마인이다!》
《고마인의 야습이다!》
세찬 바람에 마디마디 찢기여 날아버리는 고함과 울부짖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참호속에서 흉장에 붙어선 적들은 총구멍으로 내다보며 불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형체를 발견한 일본군은 극히 적었다. 저앞에 서있는것을 사격하고보면 눈덮인 애솔이였고 혹은 저편의 엎드린것을 겨눌 때에는 어느덧 눈이 날아버린 바위였다. 눈보라로써 눈앞은 현혹할만치 뒤바뀌고 변했다. 그런중에도 역시 《고마인－》, 《고마인이다!》하는 고함소리는 연해 났다.
넉달전 보통벌추수때에 한밤중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사람이였고 참패한 왜적이였다. 불안에 휩싸인 적의 진지의 어느 한토막에서였다. 헛불질을 하다말고 다시금 목표를 찾노라 내다보던 총구멍으로 화살이 날아들었다. 돌도 날아들었다. 바로 지척인듯 가까운데서 날아드는 화살과 돌은 정확했다. 적의 조총수들은 저희 참호안에서 쓰러졌다. 어느새 흉장밖에

서 총구멍으로 들어온 손들이 조총을 나꿔채기도 했다. 그러자 또 머리우에서 눈사태가 지쳐내렸다.

《고마인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고마인들이 벌써 흉장을 넘어 뛰여들었다.

적의 진지 한토막에 쐐기를 쳤다. 뛰여든 법근이와 십여명의 젊은 승군은 량옆으로 갈라서 단병전을 시작했다. 그뒤를 이어 흉장을 넘어 참호의 저편쪽으로 건너선 전주복이는 긴 철퇴를 휘둘러 나무들을 분질러서 참호우에 쓰러뜨렸다. 돈정신은 이쪽저쪽으로 넘나들면서 쓰러진 나무들을 참호안에 우겨넣었다. 적의 량쪽련락을 차단했다. 적진의 한토막을 끊었다. 그리고 이편에서 합세하여 진격할 길이 열렸다. 적들은 이쪽으로 총부리를 돌렸다.

서산대사의 돌격부대는 적의 집중사격을 받으면서 큰 기발을 앞세우고 문봉, 무봉을 향하여 내달렸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든 우리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흉장을 넘었다. 진지전이 시작되였다. 적들은 저희 참호안에서 단병전을 해야 했다. 이제는 조총이 소용없었다. 좁은 참호속에서는 긴칼, 긴 창까지도 소용없었다.

무봉 바로 밑의 적장의 군막앞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주위가 얼마 안되는 뾰족한 산봉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좁혀드는 우리 사람중의 한패는 먼저 적장의 군막에다 불을 지르기도 했다.

군막은 빈것이였다. 적장은 벌써부터 밖에 나와서 자기 부하를 지휘하고있었다. 우리 사람들은 재와 함께 짚꾸레미에 싸가지고 온 불씨의 불을 일궈야 했다. 단병전이 벌어진 한가운데서 그들은 다음다음으로 희생되면서도 끝끝내 군막에 불을 지르기에 성공했다. 마침내 불길이 일어섰다. 충천한 화광이 올려비치우는 무봉꼭대기에 《조선승병장 서산대사》의 큰 기발이 일어섰다. 몇사람이 기대를 붙들었다. 이제는 그 기발을 중심으로 육탄전이 벌어졌다. 그 한가운데 저자신 불길속에 휩싸인듯 화광에 드러난 기발앞에 나선 서산로승은 붉은 가사를 흩날리며 그 역시 화염의 한가닥같이 빛나는 룩환장을 짚고있었다. 적들은 그앞으로 육박했다. 짧은 칼, 짧은 철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은 개개의 적을 붙잡듯이 달려들었다. 뒤섞이고 한데 엉클어진 혼전란투였다. 염염히 일어섰다 껌벅 씨그러졌다 하는 화광중에 비껴 쏟아지는 눈발속에서 오직 옷의 흰빛, 검은빛으로 우리와 적을 가려볼수 있을뿐이였다. 번득이는 창검의 섬

광과 부딪치는 병장기들의 날카로운 소리뿐 함성을 지를 여지도 없이 긴박한 순간, 절박한 찰나의 련속이였다. 뿜어나는 피는 방울로 흩어져 눈보라와 함께 뿌리고 비명과 신음소리는 바람결에 사라졌다. 몸으로써 부딪쳐싸우던 우리 사람중에는 적을 끌어잡고 낭떠러지로 굴러서 아득한 절벽밑의 대동강으로 떨어져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혹은 눈을 붉게 물들이면서 바로 서산로승앞에서 쓰러지는이도 있었다. 싸움이 더욱 격렬해진 때 서산은 여섯개 고리가 화광중에 빛나는 륙환장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웨쳤다.

《을지문덕장군이시여ㅡ》

《막리지 연개소문이시여ㅡ》

《강감찬장군이시여ㅡ》

《지금 여기서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당신들의 후손들을 굽어보시라! 적앞에 굴한적이 없는 선조들의 피와 그 충성을 계승한 이 의로운 당신들의 후손들을 찬양하시라! 어여삐 여기시라! 칭찬하시라!》

다시금 일어서는 화광에 그 흰 눈섭밑의 두눈은 화염을 뿜는듯 빛났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이 평양을 지켜 우리에게 끼쳐주신 을지문덕장군이 굽어보신다.》

그는 또 웨쳤다.

《옛날 왜구를 진멸하신 최무선장군의 혼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지금 우리는 저 림원평에서 우리 평양을 지켜싸운 선조들의 백골이 묻힌 이 땅에서 싸우는것이다.》

소리높이 웨치는 서산의 음성은 노호하는 바람소리까지도 억누르는듯 했다. 우리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을 불러일으켰다.

《을지문덕장군ㅡ》

《강감찬장군ㅡ》

여기저기서 웨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마침내는 저마다 우리의 자랑인 선조들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사람들의 기세는 한층 더 높아졌다.

《왜적들아! 우리 최무선장군의 후손의 칼을 또 받아라!》

웨치며 적중으로 뛰여드는 그들의 칼은 더욱 날카롭고 철퇴는 더욱 억셌다. 이때 긴칼을 휘두르며 날뛰던 적장수는 주복이의 철퇴에 투구를 쓴채 골통이 으스러져서 꺼꾸러졌다. 법근이는 벌써 몇번째나 앞을 에워싸는 적들을 휘몰아치였다. 또 달려드는 4～5명의 적을 막아 칼을 휘두르던 그의

팔이 끊어졌다. 칼은 눈속에 내려꽂히고 떨어진 팔은 눈속에 잠겼다. 한두걸음 비틀거렸으나 곧 몸을 가눈 법근이는 왼손으로 다시 칼을 잡았다. 끊기운 어깨에서 쏟아지는 피로써 그의 반신은 이미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기가 꺾인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검술은 더욱 신비로워진듯도 했다. 앞을 막는 적들 한가운데로 뛰여든 그는 크게 웨쳤다.

《주복아, 이 승검술을 좀 봐라!》

그의 고함소리와 함께 적의 머리 하나가 날아와 불붙는 군막앞에 굴렀다. 그러자 법근이는 그 앙천대소식의 웃음을 크게 웃었다.

《오냐ㅡ 본다, 법근아!》

이번에도 역시 무슨 부드러운 가루를 넣은 자루를 짓치는듯 퍽퍽 소리가 나는 저편 어둠속에서 주복이의 대답이 들렸다. 큰소리로 웃던 법근이가 《돈정신이, 너두 좀 봐라!》 하고 또 이렇게 웨치는 소리와 함께 적의 머리가 또 하나 떨어졌다.

《돈비신이 여기 있다!》

이러한 대답과 함께 피흐르는 검을 든 돈정신이가 불빛안으로 뛰여들었다. 그러나 법근이와 엇갈렸다. 쫓기는 적들을 짓쳐나가는 법근이의 뒤모양은 금시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몇순간후였다.

《우리 평양아!》

웨치는 법근이의 소리가 들린다.

《영세불망 잘 있거라!》

련이어 또 이러한 그의 음성이 저편 층암절벽 낭떠러지아래서 한마디한마디 멀어가는 소리로 들었다.

이때였다. 저편 어둠속에서 날아오기 시작한 화살이 아직도 칼질, 창질을 하고있는 적들을 한놈씩 찍어내듯이 쓰러뜨렸다. 그러자 산중복에서 우리 사람들의 함성이 일어나며 쫓기는 적들을 급히 추격하라는 사명당의 우렁찬 호령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상봉에 기를 세운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무봉에서 불이 일고 또 그 화광중에 큰 기발이 서있는것을 보게 된 중복의 놈들은 진지를 버리고 길이 트인 성안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또 지난밤에 붙들어온 일본군졸과 말들을 돌려보낸것도 전략적인 효과가 있었다. 소서행장이하 두두룩한 장수들은 벌써부터 저희 귀중품을 뒤문으로 빼돌리고있다는 사실이 병졸들에게 알려졌던것이다. 그것은 소

서행장부터 이 평양성을 끝까지 내놓지 않을 의사도, 자신도 없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란봉을 애써 지키잘것은 무엇인가. 이래저래 싸움의욕을 잃게 된 군졸들이였다. 사명당의 지휘하에 중복에서 싸운 우리 사람들은 극히 적은 희생으로써 적의 진지를 빼앗을수 있었다. 함성과 함께 달려오는 우리 사람들의 기세에 문봉, 무봉에서 싸우던 적들도 달아나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함구문과 보통문밖의 전투도 이와 거의 한무렵에 있었다.

64. 리여송과 서산대사

날이 밝았다. 아직도 오는 눈은 한밤동안의 격전장을 발자취도 없이 내려덮었다. 그러나 목없는 적의 시체들과 떨어져나간 적의 수급과 팔들은 흐르는 피로써 눈을 녹이면서 모란봉일대에 널려있었다.

문봉과 무봉에는 눈으로써 묻고 눈으로써 봉분까지도 한 우리 희생자들의 흰 무덤들이 있었다. 그 무덤들은 상한 전우들의 선혈로써 붉게 물든것이 많았다. 그 어느 한 무덤앞에서는 주복이가 상한 팔죽지에서 흐르는 피가 손등을 적시는 손으로 눈을 그러모아 봉분을 높이면서 간간이 눈물을 씻고있었다. 더 참을래야 참을수 없이 북받치는 설음에 《망할 자식! 제입으루 <이제 우리 힘으루 이 란리를 치르기만 하면 우리 백성의 처지가 달라질거라구, 이전 백성이 아닐거라구.> 하구두 란리를 치르다말구 죽다니! 망할 자식! 못난 자식! 이 돌중놈아! 이 자식아! 법근아!》

울음 반 넋두리로 욕설을 퍼붓듯 하는 주복이는 애들이 물쌈을 하듯이 무덤에다 두손으로 눈을 거펴 끼얹으며 목이 메여 울었다. 그뒤에서 합장하고 서있는 서산대사도 울었다.

도원수 김명원과 방어사 김응서가 명군제독 리여송과 그의 참모장 리응시를 인도해서 모란봉에 올랐다. 이때 리여송과 서산대사간에 주고받은 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옛날 우리 명나라에도 요대사라는 중이 있어 귀승과 같이 나라일을 잘 도모했으므로 명나라에서는 그의 공훈과 충렬에 힘입은바 많았기때문

에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빛나거니와 오늘 귀 승이 나라일을 도모함이 또한 그와 같소이다.》

리여송의 이같은 찬사에 합장으로써 답례한 서산대사는 《심유경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오이까?》 하고 물었다.

《명나라 공주와 왜왕과의 혼사라든가 우리 조선국토를 왜적에게 베여준다든가 하는 두가지의 일은 비록 꼴 비고 소 멕이는 목동들일지라도 차마 입에 담아 말하지 못할 일이거늘 황차 조정의 신하노릇 하는자로서야 어찌 그런 사리를 몰라서 될 일이겠소.》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을 듣기만도 분하고 괘씸히 생각해온 서산은 이 기회에 그 실정들을 물어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리여송은 이렇게 대답했다.

《귀 승의 말씀이 지당하오. 심가자는 그 사람됨이 한날 소인일따름이요.》

합장하고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드는 로승의 얼굴에는 마음에 조그만 티도 없는 어린아이같은 맑은 웃음이 떠올랐다. 그 한가지만으로도 얼마나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웃음이였다. 그런것을 알아볼만 한 안목이 있었던 리여송은 이렇다 말은 안했으나 숙연한 얼굴로 깊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리여송은 참모장 리응시가 가져온 지도를 펴들었다. 그것은 안주에서 류성룡이가 제공한 평양지도였다. 그 지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때 류성룡은 평양으로 진군중인 명나라군을 안주에서 영접하고 리여송을 청천강가에 있는 백상루로 인도했다. 주객이 좌정하자 리여송은 아무런 말도 없이 류성룡앞에 불쑥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류성룡은 조금도 주저하는 빛이 없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평양지도를 소매속에서 꺼내주었다. 리여송은 과연 류성룡이 현명함을 절절히 탄복했다는 이야기다.

평양성의 지형을 지도와 대조해본 리여송은 자기 포병의 진지로 쓰기 위해서 모란봉을 내달라고 서산대사에게 청했다. 서산대사 역시 딴 의견이 있을리 없었다.

서산대사와 사명당은 함구문을 공격하는 우리 관군과 합세하기 위해서 승병부대를 앞세우고 산을 내렸다.

이날 계사년 정월 초여드레날 아침부터 반년나마나 일본사무라이의 강점하에 있는 평양성을 회복한 력사적인 공격전이 결행되였다.

이른아침부터 평양성내를 손금보듯 내려다볼수 있는 모란봉에서 아군의 포격이 시작되였다. 이날의 총공격전의 개시였다.

이날따라 풍세는 더욱 맹렬하고 추위는 혹독했다.

포성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흔들었다. 맹렬한 풍세를 따라 불바다를 이룬 성내에서는 솟구치는 붉은 화염과 몽몽히 퍼지는 검은 연기로써 하늘을 덮어 일광은 빛을 잃었다.

눈덮인 보통벌과 평천벌의 련합군은 은빛으로 빛나는 눈보라를 일으키며 천군만마를 몰아 파도같은 기세로써 평양성을 에워싸고 달려들었다. 성첩에 나붙은 일본군은 조총과 활과 창검으로써 저항했다. 우박같이 퍼붓는 적의 총탄과 화살을 무릅쓰고 우리 공격군은 성벽으로 올라붙었다. 성첩우에서는 창검이 마주치고 몸뚱이와 몸뚱이가 부딪치는 격투가 일어났다. 쏟아지는 피가 성벽을 씻어흘렀다.

마침내 우리 관군은 함구문을 격파하고 명군은 칠성문을 깨뜨리는데 성공했다. 련합군은 남쪽과 북쪽으로 일시에 성내로 돌입했다.

적장 소서행장은 련광정앞에 굴설한 엄페호속에 들어앉아서 전투를 지휘하고있었다.

성내로 진격한 우리 공격군은 성내에서 또 성에 부딪쳤다. 련광정을 중심으로 하여 만수대, 장대재, 가마구비재 등을 련결한 엄페호속에 들어있는 적들은 벌집같이 뚫린 총구멍으로 맹사격을 했다. 날은 이미 어두웠다. 땅속으로 련결된 적의 진지는 마치 개미둥지같아서 갈피를 찾기조차 어려웠다. 우리 공격군은 쇠북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던것이다.

이날 밤 소서행장의 군대는 대동문과 장경문을 열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사기저상으로써 이미 정신적패잔병이던 일본군은 이제는 완전한 패잔병이였다. 성가퀴에서 싸우다 죽은자와 불에 타서 죽은자를 합해서 1만여명의 시체와 군마 2천 9백여필과 수많은 무기를 버리고 평양성에서 쫓겨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기록들에 의하면 어둠을 타서 몰래 대동문으로 빠져나가 얼음우로 대동강을 건너 한성길로 들어선 소서행장의 패잔군은 장수, 군졸 할것없이 다리를 절며 신음소리를 내며 가다가 혹시 인가를 만나는 때는 제 입을 가리키며 밥을 한술 달라고 구걸했다는것이다. 남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한때는 기세당당히 쳐들어왔던 사무라이의 《위신》과 《체면》 같은것은

이미 문제가 아니였다. 죽을것까지도 돌보지 않았다. 요행 한술 밥을 얻어먹을수 있으면 다행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진해서라도 어차피 죽을 처지라 구걸해보다가 맞아죽더라도 여한이 없이 된 형편이였다.

《우리 일본군은 앞으로 나갈줄만 알고 한걸음도 뒤로 물러설줄은 모른다.》고 소리쳤던 왜군선봉장 소서행장은 불과 반년만인 오늘에 와서는 밥 한술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왜적이 저 아무런대도 부산서 부산까지밖에는 더 못 간다.》

이런 뜻의 동요가 있었다. 물론 후세사람이 지어낸것이겠지만 임진란을 미리 예언한 동요가 말하는바와 같이 선봉장 소서행장의 군대는 반년나마나 평양성을 강점하고있으면서도 사실 부산고개이북으로는 더 진출하지 못하고 쫓겨갈밖에 없었던것이다.

소서행장군의 평양에서의 퇴각은 우리 조국을 침략해왔던 일본군의 전면적퇴각의 시초였다. 소서행장군이 평양에서 쫓겨가자 가등청정의 군대도 함경도에서 쫓겨나게 되였다. 그들은 일시 한성에 모였다. 그러나 이해 4월에는 한성에서도 쫓겨나지 않을수 없었다.

65. 평양성해방

《평양성을 다시 찾았다.》

《평양이 다시 우리 평양이 됐다.》

입성하는 우리 관군과 명군의 뒤를 이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처의 인민들이 모여왔다. 본시의 평양사람은 말할것도 없고 이웃 각처에서 농민들이 모여왔다.

아직도 불타는 성이 이제는 한채의 집, 한간 방, 한그루의 소나무, 버드나무, 단지 한개의 몽둥이가 타더라도 우리의것이 없어지는것이다.

모여든 사람들은 불을 끄기 시작했다. 독자들은 기억하시리라. 그리고 상상하시리라. 애련당골목에서 두부를 버주기채 길로 내던졌던 그 할머니도, 그때 버선을 적신 중년아낙네도, 소금섬을 우물에 처넣으라 하고 처넣은 아버지와 아들도, 어린 손녀의 손목을 잡고 떠나던 길에 대동문을 쳐다보며 한탄하던 늙은 필공도 그리고 전촌 장거리에서 왜군진중으로 들

어가는 소금을 빼앗은 장군들도, 보통벌의 추수를 도와주러 왔던 농군들도 다 와서 우리 평양성의 불을 끄게 되였다는것을!

이보다 앞서 우리 관군을 선봉으로 한 조, 명련합군은 달아나는 일본군을 추격하는 길에 올랐다. 8도 16종 도총섭 서산대사와 부총섭 사명당은 승병부대를 거느리고 역시 일본군추격에 참가했다. 대동강을 건느게 된 때 서산대사는 《지금 쫓기기 시작한 왜적들을 몰아치자. 남해에서 거북선을 거느리고있는 수군통제사 리순신장군은 우리가 이 강토에서 왜적을 남해로 몰아내주기를 기다릴것이다.》는 말을 했다.

대동강을 건너가는 승병의 선봉부대에는 사명당이 앞섰다. 맨끝의 부대에는 서산대사가 따랐다. 사명당은 서산에게 말을 권했다. 그러나 말을 타본적이 없는 서산은 역시 도보로 행군했다. 얼음우에 덮인 눈에 소리없이 짧은 지팽이를 옮겨짚으며 행군해가는 자그마한 로승의 비색가사가 멀리서도 눈에 띄였다. 그의 옆에는 활과 전통을 멘 고충경이를 비롯하여 조총을 멘 현수백(차돌)이와 긴 창을 든 돈정신과 칼을 찬 박서방이 같이 갔다.

대동문밖에서 그들을 전송하는 사람들중에 한팔을 메고있던 전주복이가 《난 아무래두 따라가야겠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안해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서들 불을 끄소.》

그리고 얼음우로 달려갔다. 상한 팔이 낫기까지는 여기 남아있기로 했던 그였다.

《네가 종당 그러구야말줄 알았다.》

혼자말로 중얼거린 주복이 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보패는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주복이 안해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또 그옆에서는 멀어가는 아들들의 뒤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채 허공을 더듬듯이 어름거리던 두손이 즉 차돌이 어머니의 손과 주복이 어머니의 손이 꽉 마주 쥐여졌다.

평양성을 회복한 이날의 승리는 앞으로도 6년간에 걸치는 준엄간고한 시련을 극복해서 최후의 승리로써 마감한 임진조국전쟁의 승리의 제일보였다.

이 위대한 승리의 쟁취자이며 우리 조국의 수호자는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였다는것을 거듭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맺자.

(1956년)

장편소설　서산대사

저 자	최 명 익
편 집	성 문 호
장 정	채 대 성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9(2020)년 9월 1일
발 행	주체109(2020)년 9월 5일

ㄱ－1480ㄷ

ISBN 78－9946－31－137－1